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2021-2040



제4차 충청북도 종합발전계획도

연계협력지구

- 수도권 협력지구
- 행정중심복합도시권 협력지구
- 중부내륙권 협력지구
- 백두대간권 협력지구
- 수륙연계 협력지구

발전축

- 강호축
- 신성장동력축
- 생태환경축

초광역 연계협력권

- 강호축 연계협력권
- 내륙첨단산업권
- 백두대간권



핵심사업(C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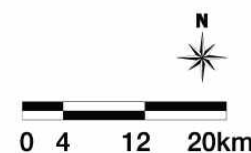
- 1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 2 승강기산업 거점지역
- 3 지역발전특구
- 4 융복합 산업지구

권역별 거점(Pole)

- 5 혁신도시
- 6 오송(역세권)신도시
- 7 기업도시
- 8 서충주신도시
- 9 공항복합도시

국가연계망

- 10 충북선고속화
- 11 충청권 광역철도
- 12 수도권 내륙선
- 13 중부내륙선 지선
- 14 스마트 공항 육성
- 15 오송국가복합환승센터
- 16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 17 중부내륙선 복선화



목 차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2021-2040)

제 1 편

도종합계획의 총람

제1장 계획의 배경과 특징	5
제2장 계획의 위상과 역할	9
1) 계획의 위상	9
2) 계획의 역할	10
제3장 계획의 연혁	13
제4장 계획의 법적근거 및 범위	19
1) 법적근거	19
2) 계획의 범위	21
제5장 지역현황 및 여건분석	25
제1절 지역현황 및 특성	25
1) 지리적 여건과 자연환경	25
2) 행정구역 및 면적	28
3) 인구 및 경제활동	29
4) 국토이용과 공간구조	43
5) 사업체 및 산업단지	45
6) 국가기반시설(SOC)	49
7) 교육 및 문화	56
제2절 상위 및 관련계획의 검토	62
1) 상위계획	62
2) 법정계획	65



3) 관련계획	75
제3절 여건변화 전망 및 도종합계획 재수정계획(2011-2020) 평가	83
1) 여건변화 전망	83
2)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재수정계획(2011~2020) 평가	87
제4절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	89
1) 조사개요	89
2) 주요내용 및 응답자 특성	91
3) 분석 결과	93
4) 시사점	106
제5절 충청북도 발전여건 분석	107
1) SWOT 분석	107
2) 계획과제 도출	109

제II 편

도종합계획 기본방향

제1장 계획의 비전과 목표	115
제1절 계획의 비전과 목표	115
1) 계획의 비전과 목표	115
2) 계획의 추진전략	116
제2절 주요계획지표 설정	117
1) 인구지표	117
2) 부문별 장기발전지표	119
제2장 공간구조의 설정	125
제1절 포용국토 실현을 위한 충북발전 구상	125
1) 충북발전을 위한 기본전제	125

2) 충청북도 발전축 설정	126
3) 권역별 발전을 견인할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128
제2절 포용국토 실현을 위한 상생형 연계협력 구상	130
1) 상생협력을 위한 기본방향	130
2) 연계협력지구별 발전방향	131
제3절 상생발전을 위한 균형발전 구축전략	135
1) 생활권 설정	135
2) 도농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136
3) 365 기반 다기능복합화 사업 추진	137
4) 거점지구 설정 및 거점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중심성 강화	138

제Ⅲ 편

부문별 추진계획

제1장 창의적인 지역발전, 연대와 협력의 상생지역	143
제1절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혁신지역	143
1) 현황 및 문제점	143
2) 여건분석 및 전망	147
3) 추진과제	149
제2절 모두가 함께하는 사람 중심의 공간재생	153
1) 현황 및 문제점	153
2) 여건분석 및 전망	160
3) 추진과제	162
제3절 누구나 살고싶은 활력있는 강소형 농촌	164
1) 현황 및 문제점	164
2) 여건분석 및 전망	168
3) 추진과제	172



제4절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포용지역	174
1) 현황 및 문제점	174
2) 여건분석 및 전망	176
3) 추진과제	178
제5절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관리를 통한 공간효율형 지역 창출	182
1) 현황 및 문제점	182
2) 여건분석 및 전망	187
3) 추진과제	189
제2장 공간의 지능화와 효율적 인프라 운영·관리	193
제1절 지속가능한 ICT기반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193
1) 현황 및 문제점	193
2) 여건분석 및 전망	204
3) 추진과제	208
제2절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기능강화를 위한 국가교통의 중심지역 육성	210
1) 현황 및 문제점	210
2) 여건분석 및 전망	215
3) 추진과제	218
제3절 글로벌 국토를 지향하는 철도 및 항공체계 구축	223
1) 현황 및 문제점	223
2) 여건분석 및 전망	231
3) 추진과제	234
제4절 스마트 라이프·신산업 생태계가 구현되는 혁신공간 창출	237
1) 현황 및 문제점	237
2) 여건분석 및 전망	240
3) 추진과제	243

제3장 혁신을 주도하는 신산업 기반 조성 247**제1절 D.N.A.(Data-Network-AI)기반 선도산업 기반 육성 247**

- 1) 현황 및 문제점 247
- 2) 여건분석 및 전망 253
- 3) 추진과제 258

제2절 연고산업과 신산업이 조화로운 경제강도(經濟強道) 실현 261

- 1) 현황 및 문제점 261
- 2) 여건분석 및 전망 271
- 3) 추진과제 278

제3절 뉴트렌드의 친환경, 융복합 농산업 기반 확대 281

- 1) 현황 및 문제점 281
- 2) 여건분석 및 전망 285
- 3) 추진과제 287

제4절 미래수요 신재생에너지산업 선도지역 육성 291

- 1) 현황 및 문제점 291
- 2) 여건분석 및 전망 296
- 3) 추진과제 301

제5절 산업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인력양성체계 구축 305

- 1) 현황 및 문제점 305
- 2) 여건분석 및 전망 309
- 3) 추진과제 315

제4장 국민여가시대, 치유형 문화관광 기반 조성 321**제1절 일상이 문화가 되는 격조 높은 지역 구현 321**

- 1) 현황 및 문제점 321
- 2) 여건분석 및 전망 328
- 3) 추진과제 332



제2절 미래관광을 선도하는 관광 르네상스 실현	338
1) 현황 및 문제점	338
2) 여건분석 및 전망	346
3) 추진과제	350
제3절 도민이 함께하는 활력 넘치는 충북 실현	356
1) 현황 및 문제점	356
2) 여건분석 및 전망	363
3) 추진과제	365
제5장 품격과 여유로움이 충만한 환경친화적 청정 충북 실현	371
제1절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전을 통한 녹색공간 조성	371
1) 현황 및 문제점	371
2) 여건분석 및 전망	379
3) 추진과제	382
제2절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로 안심할 수 있는 충북	385
1) 현황 및 문제점	385
2) 여건분석 및 전망	393
3) 추진과제	400
제3절 산림복지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터와 쉼터 실현	402
1) 현황 및 문제점	402
2) 여건분석 및 전망	409
3) 추진과제	412
제4절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경관창출 지역	418
1) 현황 및 문제점	418
2) 여건분석 및 전망	424
3) 추진과제	428

제6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의 공간 창출	435
제1절 방재형 공간개편을 통한 재난에 안전한 지역	435
1) 현황 및 문제점	435
2) 여건분석 및 전망	439
3) 추진과제	445
제2절 선제적 예방중심의 보건안전환경 조성	448
1) 현황 및 문제점	448
2) 여건분석 및 전망	459
3) 추진과제	461
제3절 세대통합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	465
1) 현황 및 문제점	465
2) 여건분석 및 전망	471
3) 추진과제	474

제Ⅳ편

계획의 집행과 관리

제1장 행·재정계획	483
제1절 행정영역	483
1) 현황 및 문제점	483
2) 여건분석 및 전망	488
3) 추진과제	491
제2절 재정영역	494
1) 현황 및 문제점	494
2) 여건분석 및 전망	498
3) 추진과제	499



제2장 투자·재원조달 계획	503
제1절 투자계획	503
1) 재정투자	503
2) 투자계획	504
제2절 재원조달 계획	506
1) 재원조달 방향	506
2) 국비 및 지방비 등 투자재원 확보방안	506

제V편

시·군별 발전방향

제1장 청주시	513
1) 비전, 목표 및 전략설정	513
2) 전략별 추진과제	514
제2장 충주시	521
1) 비전, 목표 및 전략설정	521
2) 전략별 추진과제	522
제3장 제천시	526
1) 비전, 목표 및 전략설정	526
2) 전략별 추진과제	527
제4장 보은군	532
1) 비전, 목표 및 전략설정	532
2) 전략별 추진과제	533
제5장 옥천군	539
1) 비전, 목표 및 전략설정	539
2) 전략별 추진과제	540

제6장 영동군	546
1) 비전, 목표 및 전략설정	546
2) 전략별 추진과제	547
제7장 증평군	553
1) 비전, 목표 및 전략설정	553
2) 전략별 추진과제	554
제8장 진천군	560
1) 비전, 목표 및 전략설정	560
2) 전략별 추진과제	561
제9장 괴산군	567
1) 비전, 목표 및 전략설정	567
2) 전략별 추진과제	568
제10장 음성군	573
1) 비전, 목표 및 전략설정	573
2) 전략별 추진과제	574
제11장 단양군	581
1) 비전, 목표 및 전략설정	581
2) 전략별 추진과제	582

제Ⅵ편

부 록

부문별 사업계획	589
참고문헌	607



표 목차

〈표 1-3- 1〉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2000-2020)의 비전과 목표	13
〈표 1-3- 2〉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의 비전과 목표	13
〈표 1-3- 3〉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재수정계획(2011-2020)의 비전과 목표	14
〈표 1-3- 4〉 충청북도 종합계획의 변천과정	15
〈표 1-5- 1〉 충청북도 행정구역 현황	28
〈표 1-5- 2〉 충청북도 등록인구수·세대수·인구밀도·전년도 대비 인구증가율	29
〈표 1-5- 3〉 시군별 등록인구수	31
〈표 1-5- 4〉 시군별 고령인구비율	33
〈표 1-5- 5〉 충북의 연령별 인구분포	34
〈표 1-5- 6〉 충청북도의 경제활동인구	36
〈표 1-5- 7〉 2018년 시군별 경제활동인구	37
〈표 1-5- 8〉 시도별 GRDP 규모 및 경제성장률	39
〈표 1-5- 9〉 시도별 1인당 생산/소득/민간소비 규모	40
〈표 1-5-10〉 시군별 GRDP 현황	41
〈표 1-5-11〉 충청북도의 수출입 현황	42
〈표 1-5-12〉 충청북도 지목별 국토이용현황(시군별)	44
〈표 1-5-13〉 충청북도 지목별 국토이용현황(시군별)	44
〈표 1-5-14〉 충청북도 사업체 현황	45
〈표 1-5-15〉 시군별 산업별 사업체 수·종사자 수	46
〈표 1-5-16〉 충청북도 산업단지 현황	48
〈표 1-5-17〉 충청북도 도로 현황	49
〈표 1-5-18〉 충청북도 철도노선 현황	50
〈표 1-5-19〉 충청북도 시·군별 철도역 현황	52
〈표 1-5-20〉 충청북도 철도역별 여객·화물 수송현황(2018년 기준)	53
〈표 1-5-21〉 청주국제공항 시설현황	54
〈표 1-5-22〉 청주국제공항 운행실적	54
〈표 1-5-23〉 상수도 보급현황	55
〈표 1-5-24〉 하수도 보급현황	55

〈표 I -5-25〉 교육시설 현황(2019. 4. 기준)	56
〈표 I -5-26〉 충청북도 공공도서관 현황	57
〈표 I -5-27〉 전국 문화재 현황	59
〈표 I -5-28〉 충청북도 문화재 현황	60
〈표 I -5-29〉 문화공간 현황	61
〈표 I -5-30〉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재수정계획(2011~2020)」의 추진성과	88
〈표 I -5-31〉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_응답자 특성	92
〈표 I -5-32〉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_현재 충청북도의 모습	93
〈표 I -5-33〉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_충청북도 삶의 만족도	94
〈표 I -5-34〉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_현 거주지 거주기간	94
〈표 I -5-35〉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_현 거주지 계속 거주 여부	95
〈표 I -5-36〉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_거주하고 싶은 이유	95
〈표 I -5-37〉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_이주하고 싶은 이유	96
〈표 I -5-38〉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_생활여건 만족도	97
〈표 I -5-39〉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_발전정도	98
〈표 I -5-40〉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_가장 큰 발전요인	98
〈표 I -5-41〉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_발전 장애 요인	99
〈표 I -5-42〉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_충북발전을 위한 도의 모습	100
〈표 I -5-43〉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_충청북도 발전 방향	100
〈표 I -5-44〉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_미래 충청북도의 이미지	101
〈표 I -5-45〉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_충청북도가 추구해야 할 목표 및 발전 방향	101
〈표 I -5-46〉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_미래 이슈	102
〈표 I -5-47〉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_중점 관리 이슈	103
〈표 I -5-48〉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_종합계획에서 검토할 분야	104
〈표 I -5-49〉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_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발전 전략	105
〈표 I -4-50〉 SWOT 분석 (충청북도 발전여건 분석)	108
〈표 II -1- 1〉 추계 주체별 인구예측치	117
〈표 II -1- 2〉 결합방법 대안별 인구 추정치 변화	118
〈표 II -1- 3〉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2021~2040) 인구지표	118
〈표 II -1- 4〉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2021~2040) 계획지표	121
〈표 II -2- 1〉 지역생활권 및 중심지 체계	135



〈표 II-2-2〉 마을-읍-면-시-군 단위 반드시 필요한 농촌 공동시설 배치(안)	137
〈표 III-1-1〉 SWOT 분석	147
〈표 III-1-2〉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혁신지역을 위한 추진사업	152
〈표 III-1-3〉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혁신지역을 위한 시군계획지침	152
〈표 III-1-4〉 충청북도 시·군별 쇠퇴지역 현황	155
〈표 III-1-5〉 충청북도 도시재생사업 현황(2020.12)	156
〈표 III-1-6〉 충청북도 빈집 수 변화	158
〈표 III-1-7〉 충청북도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내 빈집 정비사업 사례	158
〈표 III-1-8〉 SWOT 분석	160
〈표 III-1-9〉 모두가 함께하는 사람 중심의 공간재생을 위한 추진사업	163
〈표 III-1-10〉 모두가 함께하는 사람 중심의 공간재생을 위한 시군계획지침	163
〈표 III-1-11〉 농촌 지역에 적용되는 계획의 목적 및 주요계획내용 비교	164
〈표 III-1-12〉 최근 6년간 충청북도 농촌 정주여건 관련 현황	166
〈표 III-1-13〉 충청북도 농촌마을의 서비스항목별 10분 내에 이용가능한 마을비율	166
〈표 III-1-14〉 SWOT 분석	168
〈표 III-1-15〉 귀농·귀촌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169
〈표 III-1-16〉 누구나 살고싶은 활력 있는 강소형 농촌을 위한 추진사업	173
〈표 III-1-17〉 누구나 살고싶은 활력 있는 강소형 농촌을 위한 시군계획지침	173
〈표 III-1-18〉 SWOT 분석	176
〈표 III-1-19〉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포용지역을 위한 추진사업	181
〈표 III-1-20〉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포용지역을 위한 시군계획지침	181
〈표 III-1-21〉 도시지역 용도지역 현황	182
〈표 III-1-22〉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현황	183
〈표 III-1-23〉 시가화(예정) 용지 현황	183
〈표 III-1-24〉 인구 1인당 도시지역 면적	184
〈표 III-1-25〉 연도별 개발행위 건수	184
〈표 III-1-26〉 도시지역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실적	185
〈표 III-1-27〉 비도시지역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실적	185
〈표 III-1-28〉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186
〈표 III-1-29〉 SWOT 분석	187
〈표 III-1-30〉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관리를 통한 공간효율형 지역 창출을 위한 추진사업	190

〈표 Ⅲ-1-31〉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관리를 통한 공간효율형 지역 창출을 위한 시군계획지침	190
〈표 Ⅲ-2- 1〉 국내 철도물류시설 현황	193
〈표 Ⅲ-2- 2〉 충청북도지역 철도 CY 운영현황	195
〈표 Ⅲ-2- 3〉 충청북도 내 철도역 시멘트 사일로 운영현황	196
〈표 Ⅲ-2- 4〉 충청북도지역 공영도매시장 현황	196
〈표 Ⅲ-2- 5〉 시·도별 화물자동차 1일 통행량	197
〈표 Ⅲ-2- 6〉 충청북도 물류시설 공급현황	198
〈표 Ⅲ-2- 7〉 물류시설 배치계획	199
〈표 Ⅲ-2- 8〉 충청북도 권역별 물류시설 공급현황	199
〈표 Ⅲ-2- 9〉 충북 권역별 필요시설 규모(2022년 기준)	200
〈표 Ⅲ-2-10〉 충북 권역별 필요시설 규모(2027년 기준)	200
〈표 Ⅲ-2-11〉 충청북도 물류시설 과부족 검토결과(2022년 기준)	201
〈표 Ⅲ-2-12〉 충청북도 물류시설 과부족 검토결과(2027년 기준)	201
〈표 Ⅲ-2-13〉 충청북도 ICD 과부족 검토결과(2022년, 2027년 기준)	201
〈표 Ⅲ-2-14〉 2019년 지자체별 수출입 현황	202
〈표 Ⅲ-2-15〉 SWOT 분석	204
〈표 Ⅲ-2-16〉 충북 대분류 품목별 도로화물 예측	205
〈표 Ⅲ-2-17〉 충북 철도화물 물동량 예측	205
〈표 Ⅲ-2-18〉 충북 항공화물 물동량 예측	206
〈표 Ⅲ-2-19〉 2018년 업종별 매출액 대비 물류비	207
〈표 Ⅲ-2-20〉 지속가능한 ICT 기반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사업	209
〈표 Ⅲ-2-21〉 지속가능한 ICT 기반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시군계획지침	209
〈표 Ⅲ-2-22〉 충북 도로별 연장 현황	210
〈표 Ⅲ-2-23〉 충북 도로별 차로수 현황	210
〈표 Ⅲ-2-24〉 충청북도 도로별 포장현황	211
〈표 Ⅲ-2-25〉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	211
〈표 Ⅲ-2-26〉 교통사고 현황	212
〈표 Ⅲ-2-27〉 SWOT 분석	215
〈표 Ⅲ-2-28〉 충청북도 장기발전 주요 지표	217
〈표 Ⅲ-2-29〉 도로망 구축 사업개요	220
〈표 Ⅲ-2-30〉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기능강화를 위한 국가교통의 중심지역 육성을 위한 추진사업	221



〈표 Ⅲ-2-31〉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기능강화를 위한 국가교통의 중심지역 육성을 위한 시군계획지침	222
〈표 Ⅲ-2-32〉 충청북도 철도노선 현황	223
〈표 Ⅲ-2-33〉 충청북도 시·군별 철도역 현황	225
〈표 Ⅲ-2-34〉 충청북도 철도역별 여객·화물 수송현황(2018년 기준)	226
〈표 Ⅲ-2-35〉 청주국제공항 시설현황	227
〈표 Ⅲ-2-36〉 청주국제공항 운행실적	228
〈표 Ⅲ-2-37〉 SWOT 분석	231
〈표 Ⅲ-2-38〉 충청북도 관련 철도사업 주요 추진현황	232
〈표 Ⅲ-2-39〉 글로벌 국토를 지향하는 철도 및 항공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사업	236
〈표 Ⅲ-2-40〉 글로벌 국토를 지향하는 철도 및 항공체계 구축을 위한 시군계획지침	236
〈표 Ⅲ-2-41〉 SWOT분석	240
〈표 Ⅲ-2-42〉 스마트 라이프·신산업 생태계가 구현되는 혁신공간 창출을 위한 추진사업	244
〈표 Ⅲ-2-43〉 스마트 라이프·신산업 생태계가 구현되는 혁신공간 창출을 위한 시군계획지침	244
〈표 Ⅲ-3- 1〉 국가 8대 선도사업 주요성과(2019. 8. 관계부처합동)	248
〈표 Ⅲ-3- 2〉 충청북도 6대 신성장산업 특화분야	250
〈표 Ⅲ-3- 3〉 충청북도 3대 미래유망산업 특화분야	250
〈표 Ⅲ-3- 4〉 충청북도 주력산업의 부가가치	251
〈표 Ⅲ-3- 5〉 충청북도 과학혁신 역량지수	252
〈표 Ⅲ-3- 6〉 SWOT 분석	253
〈표 Ⅲ-3- 7〉 D.N.A.(Data-Network-AI)기반 선도산업 기반 육성을 위한 추진사업	260
〈표 Ⅲ-3- 8〉 D.N.A.(Data-Network-AI)기반 선도산업 기반 육성을 위한 시군계획지침	260
〈표 Ⅲ-3- 9〉 전국 및 충북의 산업구조	261
〈표 Ⅲ-3-10〉 충청북도의 산업별 부가가치	264
〈표 Ⅲ-3-11〉 충청북도의 산업별 특화도	265
〈표 Ⅲ-3-12〉 전국 및 충청북도의 노동생산성	266
〈표 Ⅲ-3-13〉 충북의 수출입 현황	267
〈표 Ⅲ-3-14〉 충청북도의 국가별 교역	269
〈표 Ⅲ-3-15〉 충청북도의 품목별 교역	270
〈표 Ⅲ-3-16〉 SWOT 분석	271
〈표 Ⅲ-3-17〉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 플랫폼의 종류	275
〈표 Ⅲ-3-18〉 기존의 노동집약 제조공장과 스피드팩토리 비교	275

〈표 Ⅲ-3-19〉 연고산업과 신산업이 조화로운 경제강도(經濟強道) 실현을 위한 추진사업	279
〈표 Ⅲ-3-20〉 연고산업과 신산업이 조화로운 경제강도(經濟強道) 실현을 위한 시군계획지침	280
〈표 Ⅲ-3-21〉 2018 충북 시·군별 경지면적	281
〈표 Ⅲ-3-22〉 2018년 충청북도 북부권역 재배면적 상위 5개 작목	282
〈표 Ⅲ-3-23〉 2018년 충청북도 중부권역 재배면적 상위 5개 작목	282
〈표 Ⅲ-3-24〉 2018년 충청북도 남부권역 재배면적 상위 5개 작목	282
〈표 Ⅲ-3-25〉 2019 가축별 농가수	283
〈표 Ⅲ-3-26〉 2018 경영주 연령별 농가수	283
〈표 Ⅲ-3-27〉 SWOT 분석	285
〈표 Ⅲ-3-28〉 뉴트랜드의 친환경, 융복합 농산업 기반 확대를 위한 추진사업	289
〈표 Ⅲ-3-29〉 뉴트랜드의 친환경, 융복합 농산업 기반 확대를 위한 시군계획지침	290
〈표 Ⅲ-3-30〉 세계 1차 에너지 수요 전망 및 비중	291
〈표 Ⅲ-3-31〉 주요 화석연료의 가채 매장량 및 가채년수(2015년 기준, BP)	293
〈표 Ⅲ-3-32〉 SWOT 분석	296
〈표 Ⅲ-3-33〉 미래수요 신재생에너지산업 선도지역 육성을 위한 추진사업	304
〈표 Ⅲ-3-34〉 미래수요 신재생에너지산업 선도지역 육성을 위한 시군계획지침	304
〈표 Ⅲ-3-35〉 2019년 하반기 충북지역 규모별 인력부족률	306
〈표 Ⅲ-3-36〉 일·생활균형지수	307
〈표 Ⅲ-3-37〉 충청북도 일자리 로드맵	307
〈표 Ⅲ-3-38〉 SWOT 분석	309
〈표 Ⅲ-3-39〉 기술혁신을 반영한 장기 인력수요전망(2018~2035)	312
〈표 Ⅲ-3-40〉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체계	313
〈표 Ⅲ-3-41〉 산업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사업	317
〈표 Ⅲ-3-42〉 산업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위한 시군계획지침	317
〈표 Ⅲ-4- 1〉 충청북도 주요 문화기반시설 현황	321
〈표 Ⅲ-4- 2〉 연도별 충청북도 문화기반시설 현황	322
〈표 Ⅲ-4- 3〉 충청북도 문화시설 노후 현황	322
〈표 Ⅲ-4- 4〉 충청북도 생활문화센터 현황	323
〈표 Ⅲ-4- 5〉 충청북도 영화상영관 현황	324
〈표 Ⅲ-4- 6〉 인구 10만 명당 문화예술 활동 건수	325
〈표 Ⅲ-4- 7〉 충청북도 문화예술 활동 현황	326



〈표 III-4- 8〉 충청북도에서 문화예술 활동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시설(상위 5개)	326
〈표 III-4- 9〉 SWOT 분석	328
〈표 III-4-10〉 일상이 문화가 되는 격조 높은 지역 구현을 위한 추진사업	336
〈표 III-4-11〉 일상이 문화가 되는 격조 높은 지역 구현을 위한 시군계획지침	337
〈표 III-4-12〉 충청북도 지역축제 현황	340
〈표 III-4-13〉 충청북도 관광사업 현황	342
〈표 III-4-14〉 충북 주요관광지 입장객 추이	343
〈표 III-4-15〉 SWOT 분석 관광	346
〈표 III-4-16〉 미래관광을 선도하는 관광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추진사업	352
〈표 III-4-17〉 미래관광을 선도하는 관광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시군계획지침	354
〈표 III-4-18〉 충청북도 공공체육시설 현황	356
〈표 III-4-19〉 충청북도 동네체육시설 현황	357
〈표 III-4-20〉 충청북도 11개 시·군별 공공체육시설 노후 현황	357
〈표 III-4-21〉 충청북도 체육시설업 현황	358
〈표 III-4-22〉 충청북도 소속 선수 현황	359
〈표 III-4-23〉 충청북도 운동경기부 현황	359
〈표 III-4-24〉 충청북도 장애인 운동경기부 현황	360
〈표 III-4-25〉 충청북도 민간기업 창단 장애인스포츠타임 현황	360
〈표 III-4-26〉 월평균 체육활동 참여 비용(평균)	361
〈표 III-4-27〉 SWOT 분석	363
〈표 III-4-28〉 시군별 지역맞춤형 체육시설 확충 계획	365
〈표 III-4-29〉 도민이 함께하는 활력 넘치는 충북 실현을 위한 추진사업	368
〈표 III-4-30〉 도민이 함께하는 활력 넘치는 충북 실현을 위한 시군계획지침	368
〈표 III-5- 1〉 충청북도 생태자연도 현황	372
〈표 III-5- 2〉 환경규제 현황	373
〈표 III-5- 3〉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376
〈표 III-5- 4〉 중부권 대기관리권역 지정 현황	376
〈표 III-5- 5〉 SWOT 분석	379
〈표 III-5- 6〉 폐기물	380
〈표 III-5- 7〉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전을 통한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추진사업	383
〈표 III-5- 8〉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전을 통한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시군계획지침	384

〈표 Ⅲ-5-9〉 충청북도 시·군별 상수도 보급률 및 누수율	385
〈표 Ⅲ-5-10〉 충청북도 시·군별 상수관로 노후 현황	386
〈표 Ⅲ-5-11〉 상수도 관로 GIS 구축 및 배수블록시스템 구축 현황(%)	386
〈표 Ⅲ-5-12〉 수질오염총량 측정망 BOD 현황	388
〈표 Ⅲ-5-13〉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390
〈표 Ⅲ-5-14〉 충청북도 상수도 보급 현황	391
〈표 Ⅲ-5-15〉 SWOT 분석	393
〈표 Ⅲ-5-16〉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의 상수도 누수율 연도별 변화	394
〈표 Ⅲ-5-17〉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총 용수 수요량 추정(톤/일)	395
〈표 Ⅲ-5-18〉 대청댐계통 광역상수도 지자체별 용수 배분량(단위 : 천 톤/일)	395
〈표 Ⅲ-5-19〉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지자체별 용수 배분량(단위 : 천 톤/일)	396
〈표 Ⅲ-5-20〉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로 안심할 수 있는 충북을 위한 추진사업	401
〈표 Ⅲ-5-21〉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로 안심할 수 있는 충북을 위한 시군계획지침	401
〈표 Ⅲ-5-22〉 충청북도 보전산지 면적 및 비율	402
〈표 Ⅲ-5-23〉 충청북도 보전산지 변화(국유림 포함)	403
〈표 Ⅲ-5-24〉 충청북도 자연공원	404
〈표 Ⅲ-5-25〉 충청북도 시군별 자연휴양림 현황	404
〈표 Ⅲ-5-26〉 충청북도 자연휴양림별 이용객 현황	405
〈표 Ⅲ-5-27〉 전국 지자체 산림보호구역 지정 현황(국유림 제외)	406
〈표 Ⅲ-5-28〉 충청북도 산림보호구역 지정 현황	407
〈표 Ⅲ-5-29〉 전국 지자체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현황	407
〈표 Ⅲ-5-30〉 충청북도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현황	407
〈표 Ⅲ-5-31〉 SWOT 분석	409
〈표 Ⅲ-5-32〉 2018년도 시·도별 산지전용 현황	415
〈표 Ⅲ-5-33〉 산림복지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터와 쉼터 실현을 위한 추진사업	417
〈표 Ⅲ-5-34〉 산림복지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터와 쉼터 실현을 위한 시군계획지침	417
〈표 Ⅲ-5-35〉 충청북도의 국립공원과 2대 호수(자연경관 보유 현황)	418
〈표 Ⅲ-5-36〉 경관행정의 변화	421
〈표 Ⅲ-5-37〉 SWOT 분석	424
〈표 Ⅲ-5-38〉 도시경관의 권역별 변화전망	426
〈표 Ⅲ-5-39〉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경관창출 지역을 위한 추진사업	431



〈표 III-5-40〉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경관창출 지역을 위한 시군계획지침	431
〈표 III-6- 1〉 충청북도의 지역안전지수 변화 (2015~2019)	436
〈표 III-6- 2〉 충청북도의 주요 재난 발생 변화(2015~2019)	436
〈표 III-6- 3〉 연도별 충청북도 폭염 피해 현황	437
〈표 III-6- 4〉 연도별 지방하천 정비사업 투자계획	438
〈표 III-6- 5〉 SWOT 분석	439
〈표 III-6- 6〉 충청북도의 주요 재난여건 변화 (2015~2019)	442
〈표 III-6- 7〉 충청북도 연도별 풍수해 피해 현황 (2014~2019)	442
〈표 III-6- 8〉 충청북도 연도별 산사태 발생 현황 (2014~2019)	443
〈표 III-6- 9〉 방재형 공간개편을 통한 재난에 안전한 지역을 위한 추진사업	447
〈표 III-6-10〉 방재형 공간개편을 통한 재난에 안전한 지역을 위한 시군계획지침	447
〈표 III-6-11〉 의료기관 수	448
〈표 III-6-12〉 응급의료기관 수	449
〈표 III-6-13〉 응급진료 결과 : 전원	449
〈표 III-6-14〉 치매유병환자수와 유병률	450
〈표 III-6-15〉 치매자원	450
〈표 III-6-16〉 2018년 국외 유입 신고수 및 주요 유입 감염병	452
〈표 III-6-17〉 인구 10만 명당 법정감염병 발생률	453
〈표 III-6-18〉 충청북도 법정감염병 발생현황(2016~2018)	454
〈표 III-6-19〉 시도별 치료 가능 사망률(2015년 기준)	455
〈표 III-6-20〉 2018년 시도별 의료 인력 현황	457
〈표 III-6-21〉 공공의료기관 격리실 현황	458
〈표 III-6-22〉 2017년 시도별 의료기관 병상수 현황	458
〈표 III-6-23〉 SWOT 분석	459
〈표 III-6-24〉 노인의료비용	460
〈표 III-6-25〉 선제적 예방중심의 보건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사업	464
〈표 III-6-26〉 선제적 예방중심의 보건안전환경조성을 위한 시군계획지침	464
〈표 III-6-27〉 영유아 및 노인인구	465
〈표 III-6-28〉 다문화 자녀 및 학생 수	465
〈표 III-6-29〉 충청북도 취약계층인구 현황 (2016, 2018년)	466
〈표 III-6-30〉 장애인복지시설	467

〈표 Ⅲ-6-31〉 노인복지시설	468
〈표 Ⅲ-6-32〉 노인여가복지시설	468
〈표 Ⅲ-6-33〉 거주인수별 가구수	468
〈표 Ⅲ-6-34〉 주택 종류별 빈집 현황	469
〈표 Ⅲ-6-35〉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469
〈표 Ⅲ-6-36〉 SWOT 분석	471
〈표 Ⅲ-6-37〉 충북 예산 및 사회복지 예산 추이	472
〈표 Ⅲ-6-38〉 세대통합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사업	477
〈표 Ⅲ-6-39〉 세대통합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시군계획지침	477
〈표 Ⅳ-1- 1〉 충청북도 행정구역 현황	483
〈표 Ⅳ-1- 2〉 충청북도 공무원 현황	484
〈표 Ⅳ-1- 3〉 충청북도 민원처리 현황	484
〈표 Ⅳ-1- 4〉 2015년 대비 2016년 인구 증감지역	486
〈표 Ⅳ-1- 5〉 광역(시·도) 지방정부의 실·국·본부 설치기준	486
〈표 Ⅳ-1- 6〉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단체	487
〈표 Ⅳ-1- 7〉 SWOT 분석	488
〈표 Ⅳ-1- 8〉 ‘선택과 집중’과 ‘다양성의 공생’	491
〈표 Ⅳ-1- 9〉 행정영역을 위한 추진사업	493
〈표 Ⅳ-1-10〉 행정영역을 위한 시군계획지침	493
〈표 Ⅳ-1-11〉 광역자치단체 예산 규모 추이	494
〈표 Ⅳ-1-12〉 충청북도 세입예산 추이	495
〈표 Ⅳ-1-13〉 충청북도 세출예산 추이	495
〈표 Ⅳ-1-14〉 충청북도 재정자립도 추이	496
〈표 Ⅳ-1-15〉 충청북도 재정자주도 추이	496
〈표 Ⅳ-1-16〉 SWOT 분석 (재정영역)	498
〈표 Ⅳ-1-17〉 재정영역을 위한 시군계획지침	500
〈표 Ⅳ-2- 1〉 충청북도 종합계획(2021~2040) 투자계획	504
〈표 Ⅳ-2- 2〉 부문별 투자계획	504
〈표 Ⅳ-2- 3〉 자원별 투자계획	505
〈표 Ⅴ-1- 1〉 시·군별 발전방향_청주시	513



〈표 V-2- 1〉 시·군별 발전방향_충주시	521
〈표 V-3- 1〉 시·군별 발전방향_제천시	526
〈표 V-4- 1〉 시·군별 발전방향_보은군	532
〈표 V-5- 1〉 시·군별 발전방향_옥천군	539
〈표 V-6- 1〉 시·군별 발전방향_영동군	546
〈표 V-7- 1〉 시·군별 발전방향_증평군	553
〈표 V-8- 1〉 시·군별 발전방향_진천군	560
〈표 V-9- 1〉 시·군별 발전방향_괴산군	567
〈표 V-10-1〉 시·군별 발전방향_음성군	573
〈표 V-11-1〉 시·군별 발전방향_단양군	581

그림 목차

〈그림 1-2- 1〉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체계 : 도계획과의 관계	9
〈그림 1-4- 1〉 계획의 공간적 범위	21
〈그림 1-5- 1〉 충청북도의 지리적 위치	25
〈그림 1-5- 2〉 국토 공간상 충청북도의 위치	26
〈그림 1-5- 3〉 충청북도의 지형 및 수계	27
〈그림 1-5- 4〉 충청북도 행정구역 및 면적	28
〈그림 1-5- 5〉 충청북도 연도별 등록인구수(2010-2020)	29
〈그림 1-5- 6〉 충청북도 연도별 세대수(2010-2020)	30
〈그림 1-5- 7〉 충청북도 연도별 인구밀도(2010-2020)	30
〈그림 1-5- 8〉 충청북도 연도별 인구증가율(2010-2020)	30
〈그림 1-5- 9〉 시군별 등록인구수	31
〈그림 1-5-10〉 시군별 세대수	32
〈그림 1-5-11〉 시군별 인구밀도	32
〈그림 1-5-12〉 시군별 고령인구비율	33
〈그림 1-5-13〉 충청북도 연령별 인구분포	35
〈그림 1-5-14〉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 및 증감률	38
〈그림 1-5-15〉 전국 대비 충북의 경제규모 변화 추이	39
〈그림 1-5-16〉 시군별 GRDP 현황	41
〈그림 1-5-17〉 충청북도의 수출입 현황	42
〈그림 1-5-18〉 충청북도 철도노선 현황	51
〈그림 1-5-19〉 시·군별 문화재 현황	60
〈그림 1-5-20〉 제5차 국토종합계획 계획의 기초 : 비전, 목표, 전략	62
〈그림 1-5-21〉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국토 구상	64
〈그림 1-5-22〉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2차 수정계획(2011-2020) 발전계획도	66
〈그림 1-5-23〉 제6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 기본구상	70
〈그림 1-5-24〉 제6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2017-2021) 충북 지정관광지 위치도	72
〈그림 1-5-25〉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개발축 구상	74
〈그림 1-5-26〉 제4차 충청북도 발전계획(2018~2022) 발전구상도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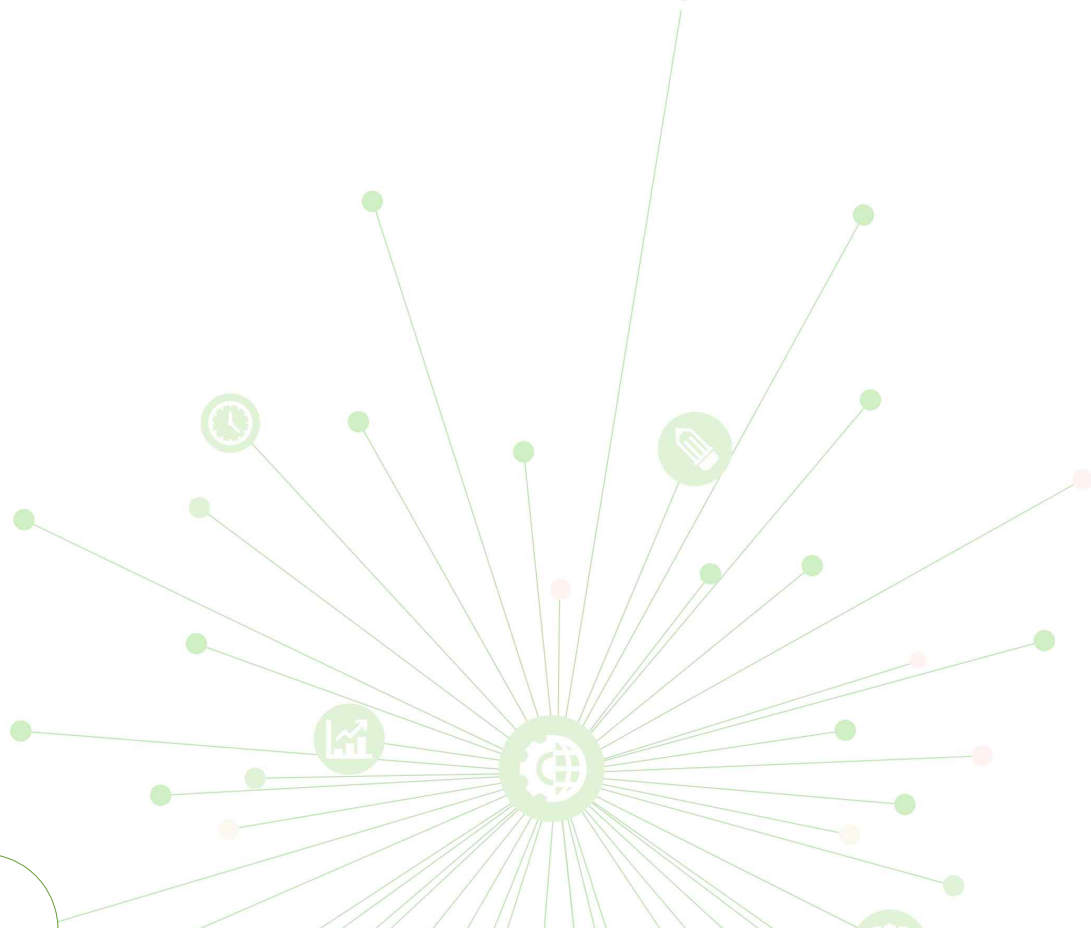
〈그림 Ⅰ-5-27〉 강호축 종합발전계획(2018-2022) 비전달성 체계도	78
〈그림 Ⅰ-5-28〉 강호축 자산과 미래상	80
〈그림 Ⅰ-5-29〉 충청북도 지역개발계획 공간구상도	82
〈그림 Ⅱ-1- 1〉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2021-2040)의 비전체계도	115
〈그림 Ⅱ-1- 2〉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2021-2040)의 세부추진과제	116
〈그림 Ⅱ-2- 1〉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2021-2040) 발전축 설정	127
〈그림 Ⅱ-2- 2〉 오송-오창-혁신도시-충주 국가 혁신거점 밸리 조성 개념도	128
〈그림 Ⅱ-2- 3〉 연계협력지구별 발전방향	134
〈그림 Ⅱ-2- 4〉 지역생활권과 중심지 체계	136
〈그림 Ⅲ-1- 1〉 충청북도의 일반현황	143
〈그림 Ⅲ-1- 2〉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과정(2006년~현재)	145
〈그림 Ⅲ-1- 3〉 충청북도 시·군별 쇠퇴지역 비중현황	153
〈그림 Ⅲ-1- 4〉 쇠퇴지역 지정기준 별 쇠퇴지역의 지리적 분포	154
〈그림 Ⅲ-1- 5〉 충청북도 도시재생사업 분포현황도(2020)	157
〈그림 Ⅲ-1-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현황	167
〈그림 Ⅲ-1- 7〉 축소도시 전략에 따른 컴팩트-네트워크 시티 개념도	179
〈그림 Ⅲ-2- 1〉 전국화물취급역 현황	195
〈그림 Ⅲ-2- 2〉 시·도별 화물수송 현황	197
〈그림 Ⅲ-2- 3〉 충북 화물유출 지역 간 비율	198
〈그림 Ⅲ-2- 4〉 충북 화물유입 지역 간 비율	198
〈그림 Ⅲ-2- 5〉 국가교통체계 개요	213
〈그림 Ⅲ-2- 6〉 충청북도 희망 선도 분석	216
〈그림 Ⅲ-2- 7〉 충청북도 중심의 광역적 교통인프라 구축 개요	218
〈그림 Ⅲ-2- 8〉 충청북도 도로구축계획	221
〈그림 Ⅲ-2- 9〉 충청북도 철도노선 현황	224
〈그림 Ⅲ-2-10〉 충청북도 철도노선 및 철도역 지점도	225
〈그림 Ⅲ-2-11〉 전국 주요도시 접근성(도로+KTX 기준)	229
〈그림 Ⅲ-2-12〉 청주국제공항 연간 이용객 추이	230
〈그림 Ⅲ-2-13〉 충청북도 철도구축계획	233
〈그림 Ⅲ-2-14〉 유비쿼터스 도시에서 스마트도시로의 전환, 7대 혁신변화	238

〈그림 Ⅲ-2-15〉 충청북도 광역 통합플랫폼 구축 비전 및 목표	241
〈그림 Ⅲ-2-16〉 충청북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추진현황	241
〈그림 Ⅲ-3- 1〉 국가혁신성장 추진체계	247
〈그림 Ⅲ-3- 2〉 2020 전략투자 방안	249
〈그림 Ⅲ-3- 3〉 충청북도의 주력 및 협력 산업 변화(충청북도 지역산업발전계획)	251
〈그림 Ⅲ-3- 4〉 스마트IT 부품·시스템 기반 혁신성장 거점 조성	254
〈그림 Ⅲ-3- 5〉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조성 부지 위치도	255
〈그림 Ⅲ-3- 6〉 충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현황도	256
〈그림 Ⅲ-3- 7〉 과학기술 혁신 및 융합이 가져올 미래 신산업(서비스) 분야	257
〈그림 Ⅲ-3- 8〉 충청북도 대표산업 및 신성장산업(6+3)과 OECD 미래기술 트렌드와의 연관성	257
〈그림 Ⅲ-3- 9〉 충청북도의 산업구조	261
〈그림 Ⅲ-3-10〉 충청북도의 산업별 부가가치, 성장기여도	263
〈그림 Ⅲ-3-11〉 전국 및 충청북도의 노동생산성	267
〈그림 Ⅲ-3-12〉 충북의 수출입 현황	268
〈그림 Ⅲ-3-13〉 6대 신성장산업 및 3대 미래유망산업	273
〈그림 Ⅲ-3-14〉 산업경제부문 정책패러다임 전환	274
〈그림 Ⅲ-3-15〉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국가 네트워크(2019년 기준)	276
〈그림 Ⅲ-3-16〉 최종에너지 원별 소비량 변화 1	292
〈그림 Ⅲ-3-17〉 최종에너지 원별 소비량 변화2	293
〈그림 Ⅲ-3-18〉 국토미래상 실현을 위한 핵심 추구가치 : 국민의식조사(2018)	294
〈그림 Ⅲ-3-19〉 환경과 관련된 이미지	294
〈그림 Ⅲ-3-20〉 충청북도의 에너지원별 소비 현황	298
〈그림 Ⅲ-3-21〉 충청북도의 부문별 에너지 소비	298
〈그림 Ⅲ-3-22〉 2017년 광역자치단체별 전력자립도	299
〈그림 Ⅲ-3-23〉 충청북도의 경제성장률과 전력소비 증감률	299
〈그림 Ⅲ-3-24〉 충청북도지역 학령인구 변화(2010 ~ 2020년)	305
〈그림 Ⅲ-3-25〉 청년층 비중 및 청년층의 지역별 역외유출 비중	306
〈그림 Ⅲ-3-26〉 충청북도지역 고용률 변화	306
〈그림 Ⅲ-3-27〉 학령인구 변화	309
〈그림 Ⅲ-3-28〉 수도권외 인구·경쟁력 비중 및 근무지 기준 지역별 채용공고 비중	310
〈그림 Ⅲ-3-29〉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시장 파급경로	310



〈그림 Ⅲ-3-30〉 새로운 고용전략의 프레임워크 1	313
〈그림 Ⅲ-3-31〉 혁신 창업 생태계 구상안	314
〈그림 Ⅲ-3-32〉 충청북도 산업발전계획도	318
〈그림 Ⅲ-4- 1〉 충북도 내 주요 관광거점 시설	343
〈그림 Ⅲ-4- 2〉 제천 청풍호반 케이블카	344
〈그림 Ⅲ-4- 3〉 한국형 DMO와 개념 체계	348
〈그림 Ⅲ-4- 4〉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in 2020: three scenarios	349
〈그림 Ⅲ-4- 5〉 국내/해외 여행계획보유율 및 여행의사	349
〈그림 Ⅲ-4- 6〉 충청북도 관광구상도	355
〈그림 Ⅲ-5- 1〉 자연환경 현황	371
〈그림 Ⅲ-5- 2〉 충청북도 생태자연도 현황	372
〈그림 Ⅲ-5- 3〉 대청호 환경규제 현황	373
〈그림 Ⅲ-5- 4〉 충주호 환경규제 현황	374
〈그림 Ⅲ-5- 5〉 폐기물 매립 및 소각시설 현황	375
〈그림 Ⅲ-5- 6〉 충주댐 및 대청댐 계통 용수공급 현황	387
〈그림 Ⅲ-5- 7〉 수질오염총량측정망 운영 현황(2016년~2019년 평균 BOD)	388
〈그림 Ⅲ-5- 8〉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좋음 이상 및 나쁨 이하 구간	389
〈그림 Ⅲ-5- 9〉 충북 상수도 보급률 및 누수율	394
〈그림 Ⅲ-5-10〉 충북 지역 산업단지 착공년도에 따른 개소수	394
〈그림 Ⅲ-5-11〉 대청댐 III단계 및 충주댐 II단계 용수 배분 계획 현황	396
〈그림 Ⅲ-5-12〉 충북 하수도 보급률 및 설치율	397
〈그림 Ⅲ-5-13〉 수자원 활용방안	398
〈그림 Ⅲ-5-14〉 수자원 활용방안	399
〈그림 Ⅲ-5-15〉 연도별 자연휴양림 이용객 현황	406
〈그림 Ⅲ-5-16〉 산지관리 관련 계획 간의 연계	413
〈그림 Ⅲ-5-17〉 산림복지단지의 개념	414
〈그림 Ⅲ-5-18〉 충청북도 산지유역유형별 산림복지시설 현황	416
〈그림 Ⅲ-5-19〉 거주환경 만족도 및 개선 수요 등	420
〈그림 Ⅲ-5-20〉 충청북도의 강호축구상과 제5차국토종합계획도	425
〈그림 Ⅲ-5-21〉 경관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 그리고 주민참여를 위한 기본적인 요소	427
〈그림 Ⅲ-6- 1〉 충북의 폭염 및 한파일수 전망 (RCP 8.5, 2021~2030)	440

〈그림 Ⅲ-6- 2〉 인구 1만 명당 의사수(2017년)	448
〈그림 Ⅲ-6- 3〉 인구 1만 명당 간호사수(2017년)	448
〈그림 Ⅲ-6- 4〉 2018년 군별 감염병 발생 현황	451
〈그림 Ⅲ-6- 5〉 2018년 국외 유입 신고수	452
〈그림 Ⅲ-6- 6〉 '01년-'18년 법정감염병 발생 추이	453
〈그림 Ⅲ-6- 7〉 시·도 및 시군구 치료 가능 사망률(2015년 기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456
〈그림 Ⅲ-6- 8〉 광역시도 건강수명 나이(남녀전체, 2008~2014)	466
〈그림 Ⅲ-6- 9〉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집단 간 건강수명 격차(남녀전체, 2008~2014)	466
〈그림 Ⅲ-6-10〉 2018년 시도별 평생교육기관 수 현황	467
〈그림 Ⅲ-6-11〉 보육 및 청소년시설 수	467
〈그림 Ⅲ-6-12〉 새로운 고용전략의 프레임워크 2	473
〈그림 Ⅳ-1- 1〉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1970~2019p)	485
〈그림 Ⅳ-1- 2〉 분권화된 인간 중심의 디지털 사회	490
〈그림 Ⅳ-1- 3〉 자치단체의 역량강화의 핵심영역	492
〈그림 V-1- 1〉 시·군별 비전 및 전략	511



제 I 편

도종합계획의 총람

제1장 계획의 배경과 특징

제2장 계획의 위상과 역할

제3장 계획의 연혁

제4장 계획의 법적근거 및 범위

제5장 지역현황 및 여건 분석

제 I 편 도종합계획의 총람

▶ 제 1 장

계획의 배경과 특징



제1장 계획의 배경과 특징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인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구현과
3대 전략목표인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 실현을 위한
6대 실천전략을 지역차원에서 구체화하고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전전략 수립

□ 여건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공간전략계획 필요

- 인구 및 경제성장에 기반한 개발시대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저성장 시대로 전환시기 도래
 - 계획기간 내 인구감소시대가 도래되는 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도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정책 방향과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공간전략계획 수립
- 정부에서 추진 중인 내륙첨단산업권, 백두대간권 등 초광역개발 전략수립을 수용하고 강호축 발전 전략의 핵심지역인 국토내륙의 특화된 발전전략 마련
-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을 가져온 COVID-19와 같은 감염병의 지속에 대비한 공공의료체계 구축 및 비대면 체제하에서의 공간전략 마련

□ 인구감소와 저성장시대의 지속에 따른 혁신적 공간운영 전략 필요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계층별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나타날 영향분석 결과를 활용한 혁신적 공간 운영전략 제시
- 경제성장률의 둔화에 따른 저성장시대로의 전환에 맞는 산업입지수요 분석과 기존 산업단지의 고도화를 통한 신산업생태계 구축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미래성장을 선도하는 신산업발전전략 제시
- 인구감소시대를 맞아 축소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시·군에 맞는 특화형 발전모델 구축
 - 성장도시와 축소도시 간 상생협력 모델의 구축을 통해 내륙의 성장거점지역으로 육성



□ 포용사회 구축 및 안전한 삶의 영위를 위한 비전과 전략마련 필요

- 총량 위주의 정책과 획일화된 공간개발 과정에서 야기된 지역 간 격차와 불균형, 난개발에 따른 왜곡된 공간구조 문제 해결
- 깨끗한 환경, 안전한 생활공간, 높은 삶의 질과 품격 있는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도민 욕구 증대에 걸맞는 삶터-일터-쉼터가 조화로운 체계화된 공간 조성
- 최악의 미세먼지, 빈번한 재해재난 사고의 속출, 사스, 메르스, 코로나 등으로 대변되는 변종 바이러스의 습격으로 인한 재난에 안전한 공간기반 구축

□ 시·군 도시기본계획의 지침서로서의 위상 정립과 실효성 제고

- 국토계획 및 부문별 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군 기본계획 간 연계성 확보로 도 단위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위상 재정립
- 지방분권에 따른 사업의 지방이양 가속화와 사회적 경제조직 등 공동체 유지·관리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
 - 도민 참여형 계획수립을 통한 정책 체감도 제고

□ 민선 도정 이념과 운영전략의 적극적 수용을 통한 지역발전전략 제시

- 포용과 혁신을 선도하는 강호축의 중심 국토내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정이념과 운영전략을 수용하여 미래 충북의 신성장 모델 구축 필요
-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산업 혁신기반 조성과 미래지향적 혁신 산업지대로 육성모델 구현
 - 새로운 여건 변화를 자주적이고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충북 차원의 전략적인 종합계획수립

제 I 편 도종합계획의 총람

▶ 제 2 장

계획의 위상과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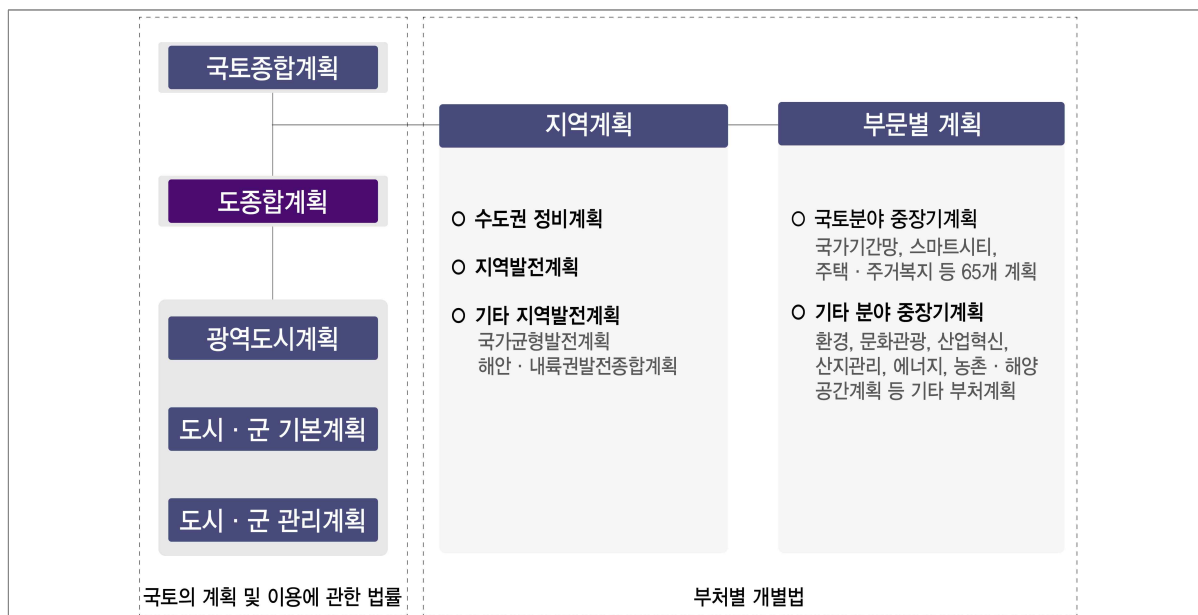


제2장 계획의 위상과 역할

1) 계획의 위상

□ 충청북도 종합계획의 위상

- 국토기본법에 의해 수립되는 도 단위 최상위 “법정계획”
 - 국토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한 법적 기반
- 충북의 미래 공간 및 부문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발전계획”
 - 인구감소 및 4차 산업혁명기술의 확산 대비 미래 20년을 설계한 전략계획
- 경제·사회·문화·복지·에너지·SOC 등 각 부문을 총괄하는 “종합계획”
 -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반영한 충청북도의 공간·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을 총괄·조정
- 국토종합계획의 계획철학을 구현하는 “지역계획”
 -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광역 차원에서 구체화하여 충북의 미래비전과 균형 발전 실현
- 시·군별, 분야별 하위계획 수립의 기본이 되는 “지침계획”
 - 시·군 기본계획, 시·군 도시관리계획을 포함하는 하위 법정계획에 대한 개발 방향 제시·유도



〈그림 1-2-1〉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체계 : 도계획과의 관계



2) 계획의 역할

□ 강호축 발전을 위한 충청북도의 미래상 제시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4차 국가균형발전계획과 민선 7기 충북발전전략 등을 수용하여 충청북도의 중장기 지역발전에 대한 미래상과 추진전략을 제시함
- 강호축 발전을 통해 도민들에게 자긍심과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

□ 도 및 시·군에 대한 부문별 정책 방향과 가이드라인 제공

- 도 단위의 장기발전전략 제시를 통해 분야별 발전정책 및 시·군 지역발전정책 수립 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 역할
- 인구감소 및 4차 산업혁명기술시대의 도래에 따른 부문별 발전방향 제시

□ 중앙정부에 지역발전 논리 및 지원 근거 제시

- 국토내륙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의 각종 법정계획 수립 시 충북발전전략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지역발전 논리와 지원 근거가 되는 지침서 역할
-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의 정합성을 통해 지역발전 전략을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전략 마련

□ 도민 및 민간 부문에 대한 지역개발 및 충청북도 공간계획 정보 제공

- 국가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청주국제공항경제권,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건설, 충북선 고속화 및 역세권 개발계획, 오송국가복합환승센터 지정 및 운영, 국가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신산업단지 지정, 공항복합신도시 개발,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의 발전전략 수립 등을 통해 지역 내 발전정책 제공
- 충청북도 내 투자 의향이 있는 민간 부문 개발계획에 대한 중장기 정보와 충북도 투자정보를 제시하는 지침서 역할
- 충청북도민들에게 충북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인구감소시대 충북으로의 이주전략 마련에 중요한 중장기적인 공간계획 정보 제공

제 I 편 도종합계획의 총람

▶ 제 3 장

계획의 연혁



제3장 계획의 연혁

□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2000~2020)

- 계획의 기초 : 역사와 문화, 친환경 첨단기술이 공존하는 『21세기 통합국토의 핵심 충북건설』
- 4 대 목 표 : 국토중심의 융합지대『코아충북』, 내륙신지식 정보산업의 메카『첨단충북』, 민족 생태공원의 『관광충북』, 전국 제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쾌적충북』으로 설정하여 지역발전 전략 추진

〈표 1-3- 1〉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2000~2020)의 비전과 목표

비전	역사와 문화, 친환경 첨단기술이 공존하는 『21세기 통합국토의 핵심 충북건설』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중심의 융합지대 「코아충북」 • 내륙신지식 정보산업의 메카 「첨단충북」 • 민족생태공원의 「관광충북」 • 전국제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쾌적충북」

□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

- 계획의 기초 : 21세기 행복의 땅, 국토의 중심, 잘사는 충북
- 5 대 목 표 : 국토융합 발전축의 중심지역 『코아 충북』, 신지식 BINT산업의 핵심지역 『첨단 충북』, 민족문화 청정생태공원의 허브지역 『관광 충북』, 행복한 삶의 질 보장지역 『웰빙 충북』, 미래의 지속발전 가능지역 『쾌적 충북』, 으로 설정하여 지역발전 전략 추진

〈표 1-3- 2〉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의 비전과 목표

비전	21세기 행복의 땅, 국토의 중심, 잘사는 충북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융합 발전축의 중심지역 「코아 충북」 • 신지식 BINT산업의 핵심지역 「첨단 충북」 • 민족문화 청정생태공원의 허브지역 「관광 충북」 • 행복한 삶의 질 보장지역 「웰빙 충북」 • 미래의 지속발전 가능지역 「쾌적 충북」



□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재수정계획(2011~2020)

○ 계획의 기초 : 생명·첨단산업 거점, 녹색성장 중심지역

○ 5 대 목 표 : 균형발전 미래산업의 중심거점, 특색 있고 살맛 나는 문화지역, 상생하며 발전하는 농촌도시, 찾아가는 복지 건강한 녹색사회, 생명이 숨쉬는 아름다운 자연충북으로 설정하여 지역발전 전략 추진

〈표 1-3- 3〉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재수정계획(2011~2020)의 비전과 목표

비전	생명·첨단산업 거점, 녹색성장 중심지역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형발전 미래산업의 중심거점 • 특색있고 살맛나는 문화지역 • 상생하며 발전하는 농촌도시 • 찾아가는 복지 건강한 녹색사회 • 생명이 숨쉬는 아름다운 자연충북

〈표 1-3- 4〉 충청북도 종합계획의 변천과정

구 분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재수정계획
기 간	2000~2020	2008~2020	2011~2020
계획의 기 조	역사와 문화, 친환경 첨단기술이 공존하는 「21세기 통합국토의 핵심 충북 건설」	21세기 행복의 땅, 국토의 중심, 잘사는 충북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지역·부문·계층·산업 간 균형발전 -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중심의 융합지대 「코아충북」 □ 내륙신지식 정보산업의 메카 「첨단충북」 □ 민족생태공원의 「관광충북」 □ 전국제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쾌적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융합 발전축의 중심지역 「코아충북」 □ 신지식 BINT산업의 핵심지역 「첨단충북」 □ 민족문화 청정생태공원의 허브지역 「관광충북」 □ 행복한 삶의 질 보장지역 「웰빙충북」 □ 미래의 지속발전 가능지역 「쾌적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형발전 미래산업의 중심거점 □ 특색있고 살맛나는 문화지역 □ 상생하며 발전하는 농촌도시 □ 찾아가는 복지 건강한 녹색사회 □ 생명이 숨쉬는 아름다운 자연충북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지향적 발전 축 설정과 공간구조 개편 □ 교통물류체제의 정비 및 확충 □ 농특산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 21세기 첨단지식 산업육성을 통한 선진 충북 건설 □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및 서비스 제공 □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 □ 인간중심의 테마형 관광충북 조성 □ 환경보전을 통한 청정 충북의 실현 □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과 관리 □ 쾌적한 생활 및 복지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코어를 향한 발전축 설정과 공간개조 □ 선진화된 교통·물류·정보체계 구축 □ 혁신·미래형 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 □ 문화·관광자원의 개발과 산업화 추진 □ 환경보전을 통한 청정충북의 실현 □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과 관리 □ 쾌적한 생활 및 복지환경 조성 □ 지역의 안전 및 방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기좋은 농촌도시협력 네트워크 구축 □ 전통산업과 전통산업이 조화된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 함께하는 문화충북 및 명품 테마관광 실현 □ 저탄소 녹색성장 교통물류정보통신망 구축 □ 쾌적한 생활 및 따뜻한 복지체계 구축 □ 기후변화에 대응한 자원의 개발과 효율적 관리 □ 환경보전관리 및 경쟁력 있는 경관관리 □ 지역의 안전과 재난재해에 강한 충북구현

• 16 •

제 I 편 도종합계획의 총람

▶ 제 4 장

계획의 법적근거 및 범위



제4장 계획의 법적근거 및 범위

1) 법적근거

□ 법적근거

-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수립됨

「국토기본법」

제13조(도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계획이 수립된 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 현황·특성의 분석 및 대내외적 여건 변화의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역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 내 기능 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4. 교통, 물류,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자원 및 환경 개발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6.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 ③ 생략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6조(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종합계획이 지역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에 관한 장단기 정책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고 법 제12조에 따라 승인된 국토종합계획에 부합되도록 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등을 포함하는 도종합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는 도종합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과의 관계
2. 도종합계획의 기본사항과 수립절차
3. 도종합계획 수립시의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
4. 그밖에 도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과의 관계

-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상 국토에 관한 최상위계획으로서 도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도종합계획에 대한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도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도 단위에서 구체화한 계획
- 도지사가 수립하는 도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의 국토전략 및 정책방향을 수용하고 지역특성 및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을 유도하는 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① 생략

② 국토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한다.

1. 국토종합계획: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2. 도종합계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3. 시·군종합계획: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군계획
4. 지역계획: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5. 부문별계획: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제7조(국토계획의 상호 관계) ①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 도종합계획은 해당 도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

③ 국토종합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하며,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고려하여 그 수립 주기를 정하여야 한다.

2) 계획의 범위

Ⅰ 시간적 범위

- 계획기간 : 2021 ~ 2040년 (기준년도 :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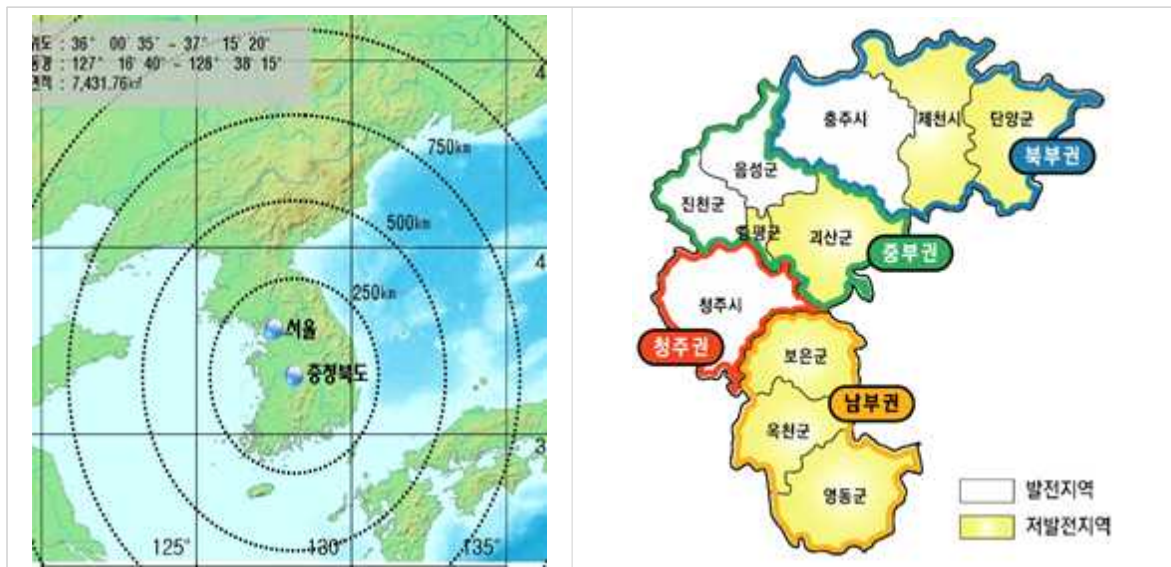
Ⅰ 공간적 범위

□ 광의 범위

- 충청북도와 경계를 이루는 강원도, 경기도(수도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등을 계획검토 대상지역으로 설정

□ 협의 범위

- 충청북도 종합계획의 실천적 공간 범위로는 2019년 말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등의 시급 지역 3개 시(2,808km²)와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등의 군급 지역 8개 군(4,600km²)을 대상으로 함



〈그림 1-4- 1〉 계획의 공간적 범위



I 내용적 범위

※ 국토교통부 도종합계획 수립지침(2020.1)에 따라 지역 여건과 발전 잠재력 분석, 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전략별 추진계획, 시·군별 발전방향, 계획의 집행과 관리를 내용적 범위로 설정하였음

-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표방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내용을 지역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창의적으로 수용하여 충북의 미래발전상 제시
-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재수정계획(2011~2020)의 평가를 통한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새로운 발전전략 모색

「국토기본법」

제13조(도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계획이 수립된 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 현황·특성의 분석 및 대내외적 여건 변화의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역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 내 기능 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4. 교통, 물류,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자원 및 환경 개발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6.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종합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5조(도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②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상하수도·공원·노약자 편의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재해의 방지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3의2.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4. 지역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방안 등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 5 장

지역현황 및 여건분석

제1절 지역현황 및 특성

제2절 상위 및 관련계획의 검토

제3절 여건변화 전망 및 도종합계획 재수정계획(2011-2020) 평가

제4절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

제5절 충청북도 발전여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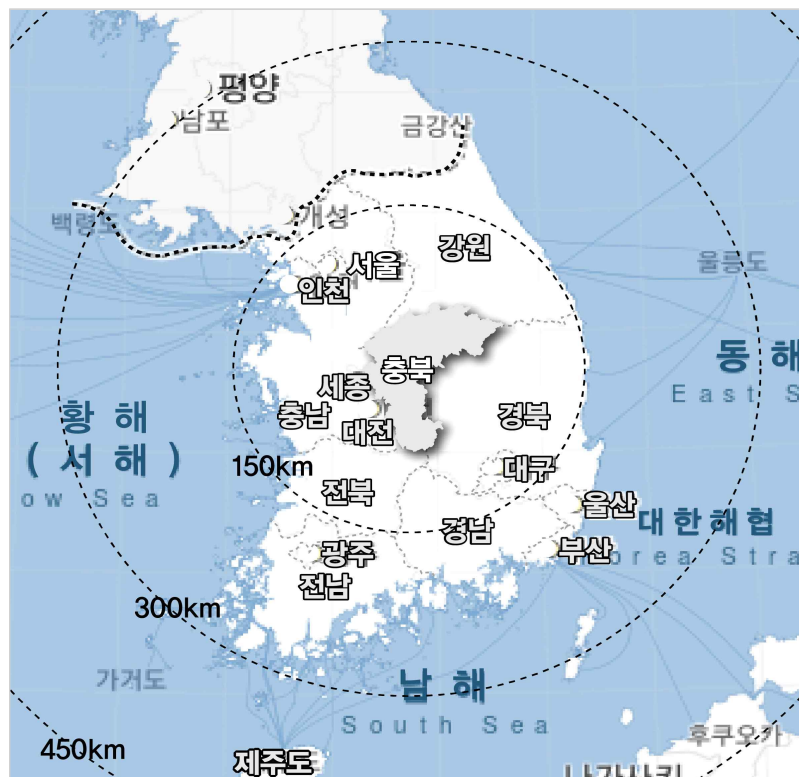
제5장 지역현황 및 여건분석

제1절 지역현황 및 특성

1) 지리적 여건과 자연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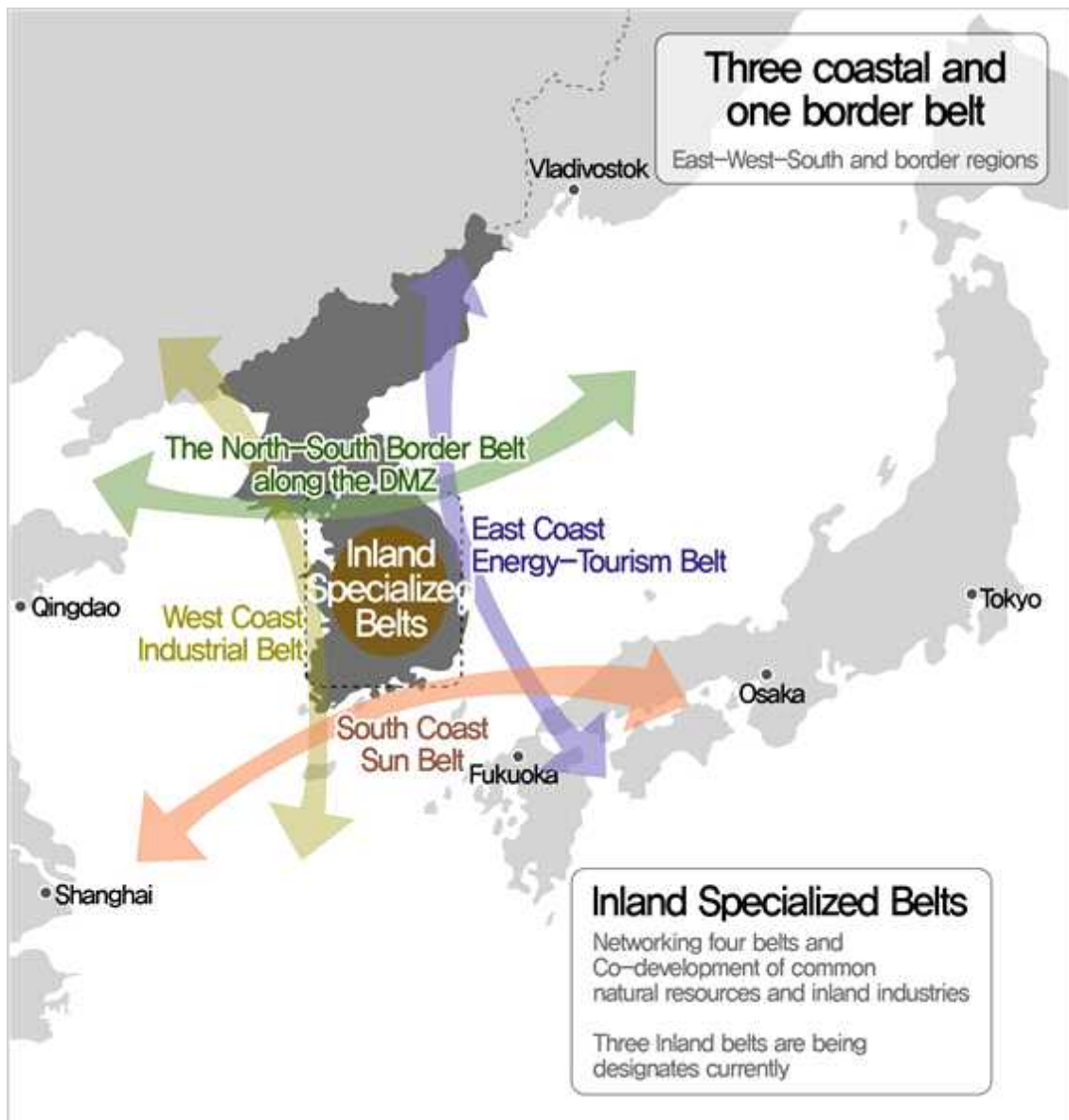
Ⅰ 지리적 여건

- 충청북도는 유라시아대륙의 동단에 있는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나라에서 바다에 접하지 않은 유일한 내륙 도 지역으로, 북쪽으로 경기도와 강원도, 동쪽으로 경상북도, 서쪽으로 충청남도, 남쪽으로 전라북도 사이에 위치하여 5개 도와 접경을 이루고 있음
- 도내 바다와 가장 가까운 진천군 백곡면 서단 서운산 ~ 충청남도 아산만 방파제까지의 거리는 47km임



〈그림 Ⅰ-5- 1〉 충청북도의 지리적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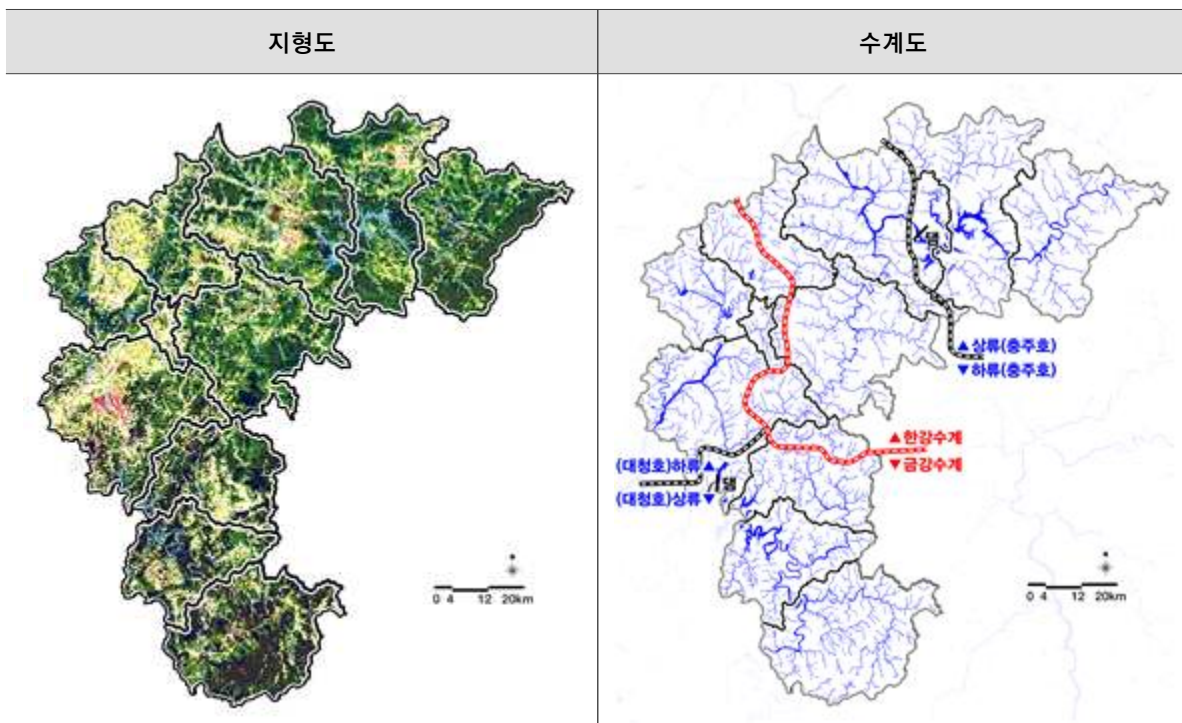
- 국토 공간상으로 남북과 동서를 연결하는 지역 간 교류중심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도권 개발압력을 1차적으로 흡수·완충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수도권 과밀문제 해결 및 국가 균형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으로 판단됨
- 수도권 내의 서해안 산업지대, 국토 서남부에 입지한 산업 및 교역지대와 연계축 형성이 가능하고, 수도권과 경부 및 호남축을 잇는 간선교통축의 중앙에 입지하여 도시개발 및 교통·물류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국가 X축 교통망을 잇는 강호축의 연결에 따라 국토 중심에 위치한 입지적 우월성과 함께 새로운 국토교통 중심지로서의 역할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림 1-5- 2〉 국토 공간상 충청북도의 위치

I 자연환경

- 지형적 특성으로 충청북도는 동남쪽으로 소백산맥과 북서쪽으로 차령산맥이 지나고 있으며, 서쪽은 구릉지 및 평야로 되어있는 남고북저형을 이루고 있으며, 경상북도와 전라북도를 경계로 하는 소백산맥은 비교적 험준한 산악지형을 이루고 있음
- 도내 화강암 및 화강편마암류가 전 면적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같은 화강암의 광역 분포는 자연 풍화작용을 촉진시켜 곳곳에 분지지형을 형성함
 - 충청북도의 평야는 금강과 남한강의 유역을 따라 수많은 분지가 발달하고 있으나 이를 거시적으로 볼 때 청주분지와 충주분지로 나눌 수 있음
- 하천은 남한강과 금강 2대 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시작된 금강은 충청남도로 흘러 도중에 영동천, 보청천, 미호천 등의 지류와 만나고 미호천의 하류에 청주분지인 미호평야를 형성하여 충청북도 최대의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음



〈그림 1-5-3〉 충청북도의 지형 및 수계

2) 행정구역 및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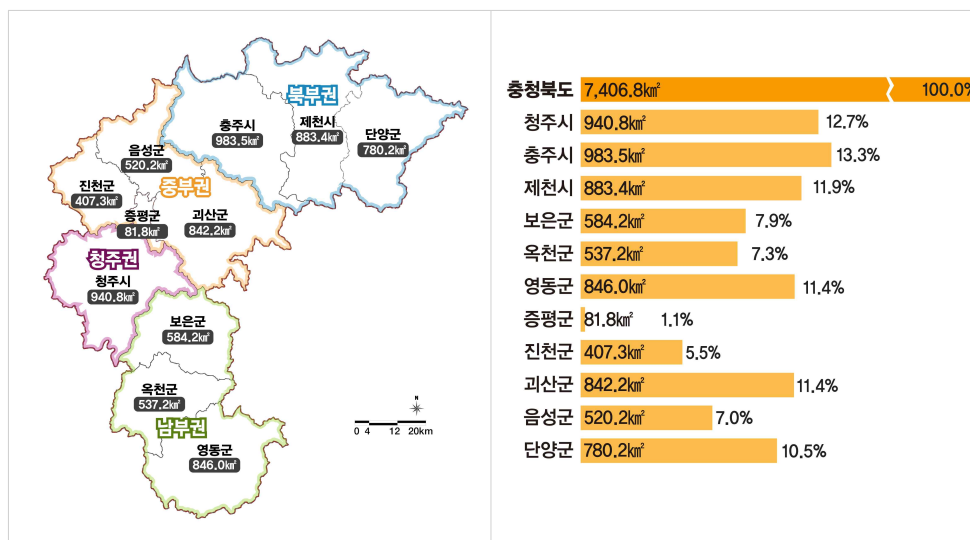
□ 행정구역 및 면적

- 충청북도의 총면적은 7,406.8㎢로 3개 시지역(청주시, 충주시, 제천시)과 8개 군지역(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도내 전체 읍·면·동은 153개, 통·리는 4,975개 임
- 시 지역의 면적은 2,807.7㎢, 군 지역의 면적은 4,599.1㎢를 이루고 있음

〈표 1-5- 1〉 충청북도 행정구역 현황

구분	면적		읍면동						통리	
	(㎢)	구성비 (%)	읍	면	동	행정	법정		통	행정리
충청북도	7,406.81	100	153	16	86	51	136		4,975	1,951
청주시	940.83	12.7	43	3	10	30	82		1,782	1,154
충주시	983.48	13.3	25	1	12	12	26		801	448
제천시	883.42	11.9	17	1	7	9	28		506	349
보은군	584.21	7.9	11	1	10	-	-		248	-
옥천군	537.22	7.3	9	1	8	-	-		224	-
영동군	846.02	11.4	11	1	10	-	-		231	-
증평군	81.80	1.1	2	1	1	-	-		109	-
진천군	407.30	5.5	7	2	5	-	-		304	-
괴산군	842.19	11.4	11	1	10	-	-		282	-
음성군	520.18	7.0	9	2	7	-	-		336	-
단양군	780.16	10.5	8	2	6	-	-		152	-

자료 : 충청북도 홈페이지



〈그림 1-5- 4〉 충청북도 행정구역 및 면적

3) 인구 및 경제활동

Ⅰ 인구현황 및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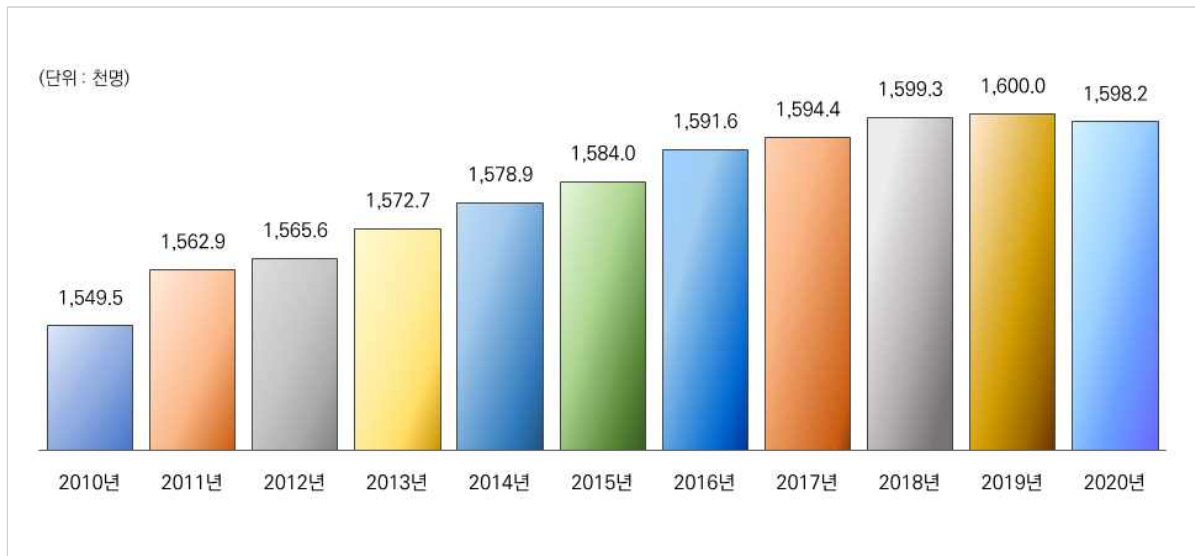
□ 충청북도 인구 현황

- 2020년 기준 충청북도 등록인구는 1,598,162명으로 736,095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 대비 인구밀도는 216명/㎢로 나타남
- 인구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년도 대비 인구증가율은 2010년 1.5% 이후로 0% 대를 순회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수 증가의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낮은 인구증가율 값에 비해 세대수 및 인구밀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소인 가구가 늘어나는 사회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임

〈표 1-5- 2〉 충청북도 등록인구수·세대수·인구밀도·전년도 대비 인구증가율

년 도	등록인구수(명)	세대수(세대)	인구밀도(명/㎢)	전년도 대비 인구증가율(%)
2010	1,549,528	617,431	203	1.5
2015	1,583,952	669,503	214	0.4
2020	1,598,162	736,095	216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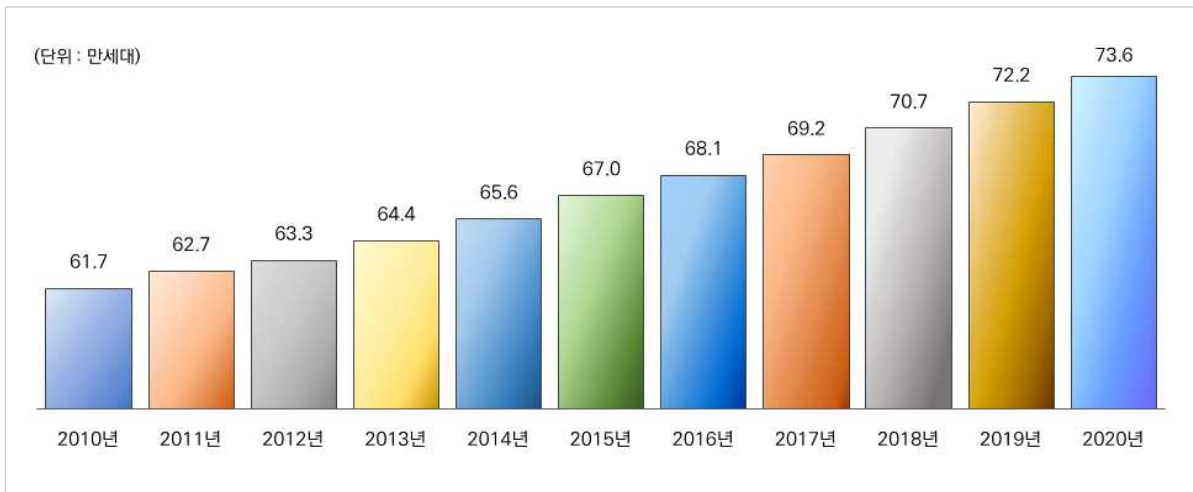
주 : 전년도 대비 인구증가율 = [(당해년 총인구-전년총인구)÷전년총인구] × 100
 자료 : 통계청, 「세대당 인구수 및 인구밀도」, 2020.08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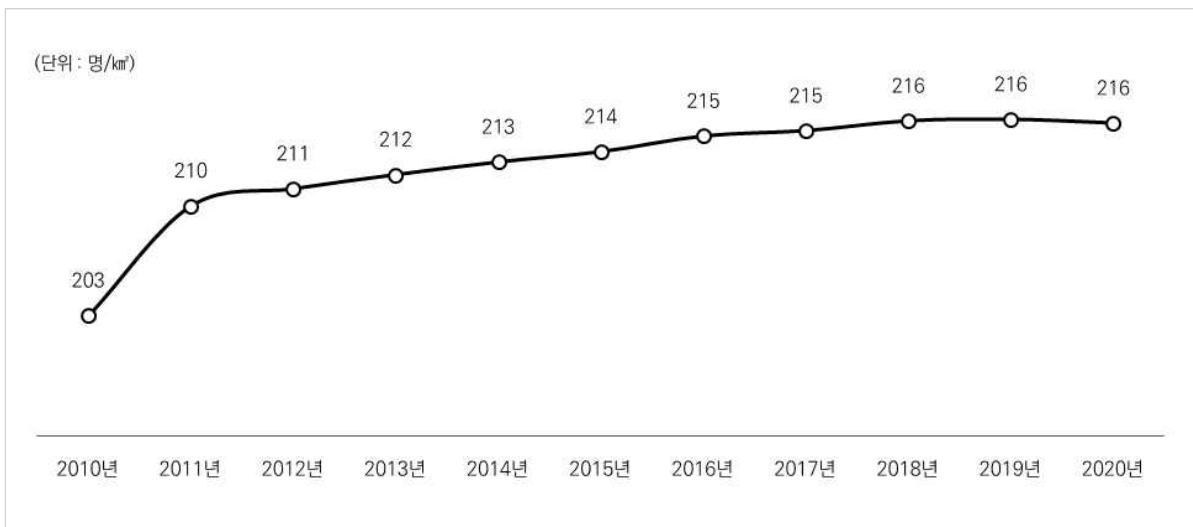
〈그림 1-5- 5〉 충청북도 연도별 등록인구수(201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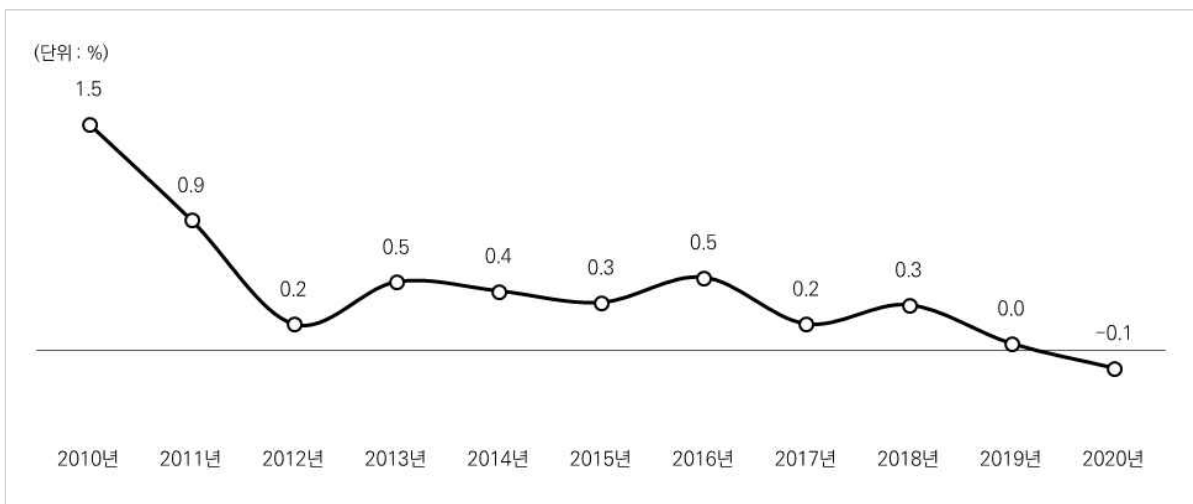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2021-2040)



〈그림 1-5- 6〉 충청북도 연도별 세대수(2010-2020)



〈그림 1-5- 7〉 충청북도 연도별 인구밀도(2010-2020)



〈그림 1-5- 8〉 충청북도 연도별 인구증가율(2010-2020)

□ 시군별 인구 현황

- 충청북도 시·군별 인구현황을 보면 도청 소재지인 청주시의 등록인구수가 843,782명으로 370,694세대가 거주하고 인구밀도는 897%로 나타나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등록인구수가 적은 지역은 단양군이 29,268명, 그다음으로 보은군이 32,522명으로 인구수 4만 명 미만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 군지역 중 충북혁신도시가 입주하고 있는 음성군(94,179명)과 진천군(81,949명)을 제외하고는 인구가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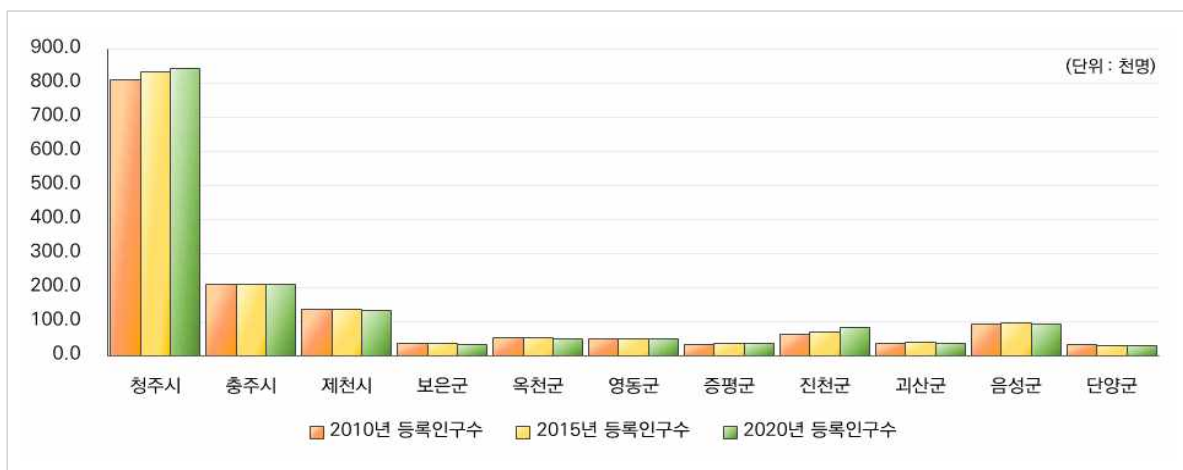
〈표 1-5- 3〉 시군별 등록인구수

(단위 : 명, 세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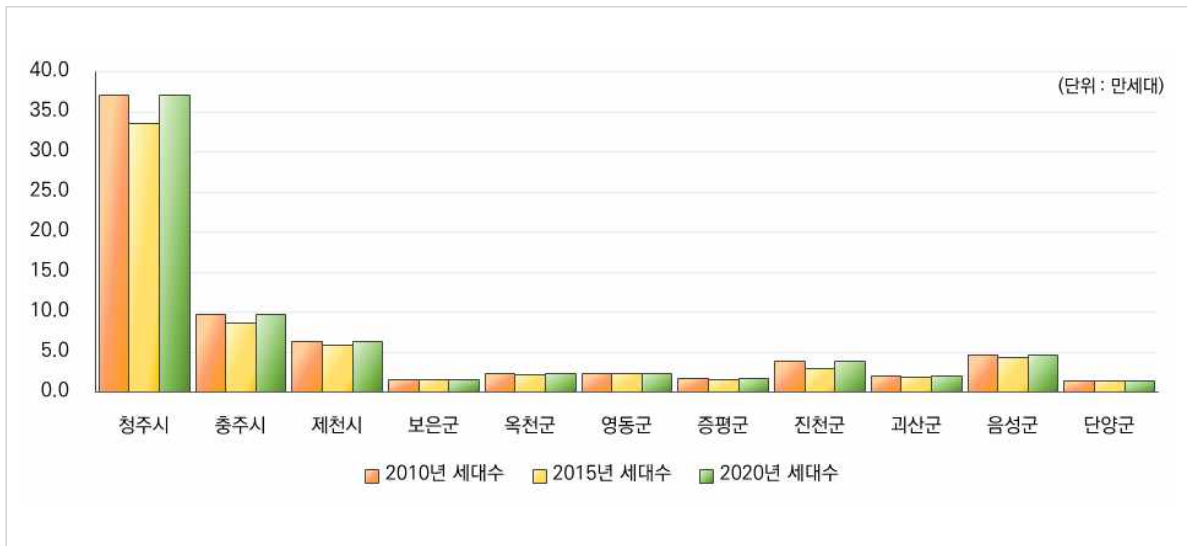
시군명	2010년			2015년			2020년		
	등록 인구수	세대수	인구 밀도	등록 인구수	세대수	인구 밀도	등록 인구수	세대수	인구 밀도
충청북도	1,549,528	617,431	209	1,583,952	669,503	214	1,598,162	736,095	216
청주시	808,915	247,916	860	831,912	336,408	884	843,782	370,694	897
충주시	208,481	82,295	212	207,913	87,463	211	210,304	97,280	214
제천시	137,264	56,504	155	136,138	59,856	154	133,170	63,703	151
보은군	34,956	15,464	60	34,296	16,147	59	32,522	16,850	56
옥천군	54,025	22,309	101	52,404	22,967	98	50,792	24,338	95
영동군	50,523	21,767	60	50,693	23,586	60	47,706	24,393	56
증평군	33,533	13,762	410	36,671	15,790	448	37,136	17,579	454
진천군	62,094	26,005	152	67,981	29,750	167	81,949	38,379	201
괴산군	36,827	17,341	44	38,787	19,620	46	37,354	20,720	44
음성군	91,093	37,887	175	96,396	43,279	185	94,179	46,896	181
단양군	31,817	14,037	41	30,761	14,637	39	29,268	15,263	37

주 :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으로, 그 이전의 자료(2010년도)는 두 값의 합을 사용한

자료 : 통계청, 「행정구역(시군구)별 주민등록세대수」, 「행정구역(읍면동)별/5세 별 주민등록인구」, 2020.08 기준



〈그림 1-5- 9〉 시군별 등록인구수



〈그림 1-5-10〉 시군별 세대수



〈그림 1-5-11〉 시군별 인구밀도

□ 연령별 인구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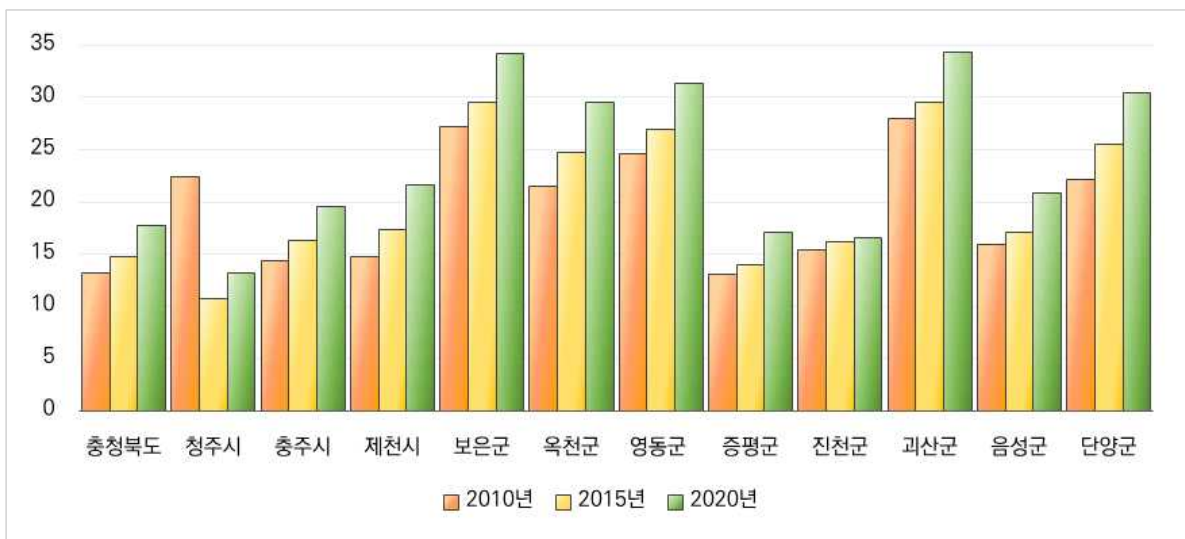
- 고령인구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을 제외한 5개 군지역의 고령인구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고령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괴산군(34.4%) 그다음으로 보은군(34.4%) > 영동군(31.5%) > 단양군(30.7%) > 옥천군(29.7%) 순임

〈표 1-5-4〉 시군별 고령인구비율

(단위 : %)

시군명	2010년	2015년	2020년
충청북도	13.2	14.8	17.9
청주시	22.4	10.7	13.3
충주시	14.4	16.3	19.8
제천시	14.8	17.3	21.8
보은군	27.2	29.5	34.4
옥천군	21.5	24.7	29.7
영동군	24.6	26.9	31.5
증평군	13.1	14	17.2
진천군	15.4	16.2	16.4
괴산군	28	29.5	34.4
음성군	15.9	17.1	21.2
단양군	22.1	25.5	30.7

주 :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으로, 그 이전의 자료는 두 값의 합을 사용함
 자료 : 통계청, 고령인구비율(시도/시/군/구), 2020 (인구는 2020년 10월 기준임)



〈그림 1-5-12〉 시군별 고령인구비율

- 2018년 전국 평균연령은 41.8세, 구성비는 100.5%이며 충청북도의 평균연령은 42.4세로 전국 평균연령 대비 0.6세가 높으며, 구성비는 104.0임(자료 : 통계청)
- 충청북도의 생산활동인구인 15~64세 인구수는 1,116,894명이며, 비생산활동 인구 중 15세 미만 인구수는 197,718명,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83,550명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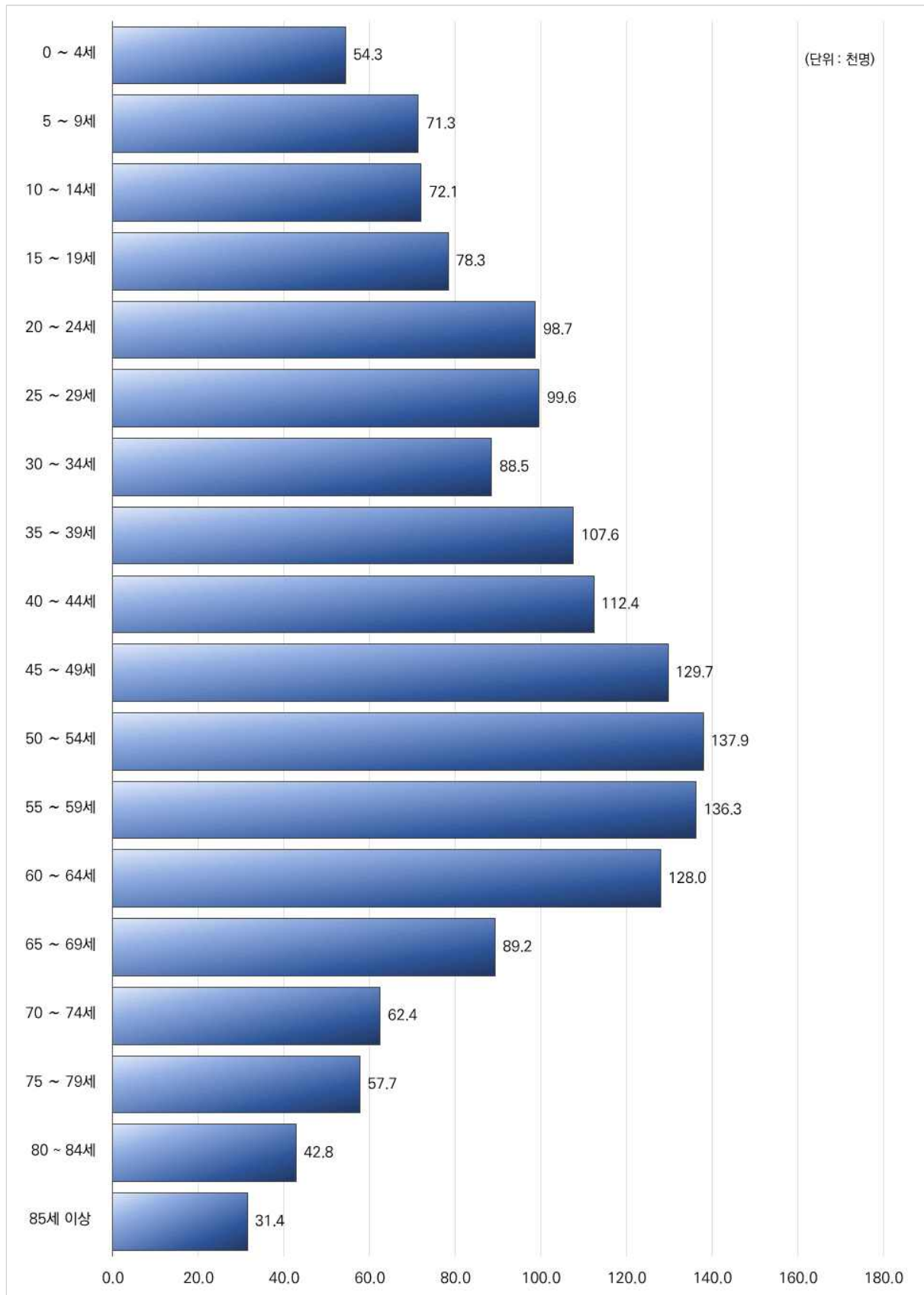


〈표 1-5- 5〉 충북의 연령별 인구분포

(단위 : 명, %)

연령	년도	충 북		전 국	
		2020		2020	
		인 구	구성비	인 구	구성비
합 계		1,598,162	100.0	51,839,953	100.0
0 ~ 4세		54,319	3.4	1,729,645	3.3
5 ~ 9세		71,348	4.5	2,316,305	4.5
10 ~ 14세		72,051	4.5	2,315,672	4.5
15 ~ 19세		78,328	5.0	2,523,028	4.9
20 ~ 24세		98,661	6.2	3,279,313	6.3
25 ~ 29세		99,568	6.2	3,521,299	6.8
30 ~ 34세		88,479	5.5	3,157,177	6.0
35 ~ 39세		107,644	6.7	3,782,627	7.3
40 ~ 44세		112,353	7.0	3,904,020	7.5
45 ~ 49세		129,683	8.1	4,426,256	8.5
50 ~ 54세		137,912	8.6	4,403,897	8.5
55 ~ 59세		136,288	8.5	4,247,650	8.2
60 ~ 64세		127,978	8.0	3,873,947	7.5
65 ~ 69세		89,234	5.6	2,716,232	5.2
70 ~ 74세		62,417	3.9	2,030,970	4.0
75 ~ 79세		57,675	3.6	1,645,879	3.2
80 ~ 84세		42,809	2.7	1,131,973	2.2
85세 이상		31,415	2.0	834,063	1.6
15세 미만		197,718	12.4	6,361,622	12.3
15 ~ 64세		1,116,894	69.9	37,119,214	71.6
65세 이상		283,550	17.7	8,359,117	16.1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연령 및 성별 인구), 2020



〈그림 1-5-13〉 충청북도 연령별 인구분포



I 경제활동인구

- 충청북도의 15-64세 경제활동인구는 2020년 기준 920천 명으로 65.2%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국 62.7% 대비 2.5% 높은 수치임
- 고용률은 63.1%로 전국(60.4%) 대비 2.7% 높고, 실업률은 3.3%로 전국(3.7%) 대비 0.4%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그 중 15-64세 경제활동인구의 고용률은 68.7%로 전체 고용률 63.1%보다 높게 나타나 충북 전체 인구의 고용률보다 경제활동 연령인구의 고용이 활발함

〈표 1-5- 6〉 충청북도의 경제활동인구

(단위 : 천 명, %)

구 분		15세 이상 인 구	경제활동 인 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15-64세 고용률
충 북	2010	1,250	760	743	17	490	60.8	2.2	59.5	64.8
	2015	1,345	862	839	22	484	64.0	2.6	62.4	68.3
	2020	1,410	920	890	30	490	65.2	3.3	63.1	68.7
전 국	2010	40,825	24,956	24,033	924	15,868	61.1	3.7	58.9	63.4
	2015	43,239	27,153	26,178	976	16,086	62.8	3.6	60.5	65.9
	2020	44,852	28,116	27,088	1,028	16,736	62.7	3.7	60.4	65.9

주 : 15세 이상 인구 중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은 제외됨
 자료 : 통계청, 행정구역(시도)별 경제활동 인구, 2020 (인구는 2020년 10월 기준임)

- 시군별 경제활동 인구수는 청주시 445.4천 명, 충주시 118.3천 명, 제천시 74.3천 명 순으로 군지역에서는 음성군(64.3천 명)과 진천군(51.8천 명)의 경제활동인구수가 타 군 지역에 비해 약 2배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남
- 고용률 또한 진천군(68.7%), 음성군(68.3%)으로 2019년 충청북도 고용률 61.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5-7〉 2018년 시군별 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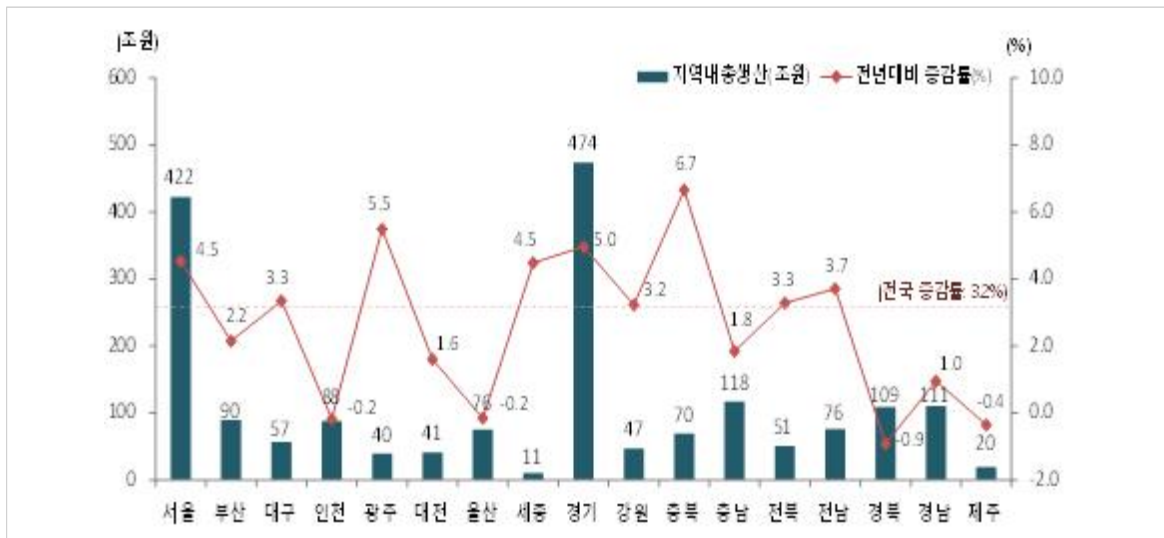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구 분	15세 이상 인 구	경제활동 인 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15~64세 고용률
청주시	721.3	445.4	436.0	9.5	275.9	61.8	60.4	2.1	65.6
충주시	188.2	118.3	115.9	2.3	69.9	62.8	61.6	2.0	66.3
제천시	119.9	74.3	73.1	1.2	45.6	61.9	60.9	1.7	66.1
보은군	28.7	19.5	19.3	0.2	9.2	68.1	67.3	1.1	75.0
옥천군	44.2	29.6	29.2	0.1	14.6	67.0	66.0	1.4	72.6
영동군	43.2	26.3	26.2	0.1	16.9	60.8	60.5	0.5	65.1
증평군	31.2	20.7	20.2	0.5	10.5	66.3	64.6	2.6	68.9
진천군	74.5	51.8	51.2	0.7	22.6	69.6	68.7	1.3	72.7
괴산군	35.7	24.7	24.2	0.5	11.0	69.2	67.9	1.9	73.3
음성군	91.6	64.3	62.6	1.8	27.3	70.2	68.3	2.7	74.4
단양군	25.5	17.2	16.8	0.3	8.3	67.4	66.1	1.9	73.9

자료 : 통계청, 시군(9개도)별 경제활동 인구, 2018

I 충청북도의 경제성장률 현황(GRDP 기준)

- 2018년 충청북도의 실질 GRDP(2015 기준년도 가격)는 총 65.8조 원으로 전국의 경제성장률 (2.9%)을 크게 상회하면서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하여 세계적인 저성장 경제기조 속에서도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충청북도의 경제성장률 : `14년(4.2%, 8위) ⇒ `15년(7.0%, 3위) ⇒ `16년(5.8%, 2위) ⇒ `17년(6.1%, 2위) ⇒ `18년(6.3%, 1위)



자료 : 통계청, 2018 지역소득(잠정치), 2019.12.23.

〈그림 1-5-14〉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 및 증감률

- 최근 5년간(2014~2018) 전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9%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충청북도의 경제성장률은 6.3%로 전국 1위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되고 있음
- 최근 5년(`14~`18)간 지역별 경제성장률 : 충북(6.3%, 1위) ⇒ 경기(5.4%, 2위) ⇒ 세종(4.8%, 3위) ⇒ 제주(4.5%, 4위) ⇒ 충남(3.0%, 5위)

〈표 1-5- 8〉 시도별 GRDP 규모 및 경제성장률

(단위 : 조 원, 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중	경제성장률(%)			
							YoY	순위	CAGR	순위
전국	1,615.8	1,660.8	1,709.7	1,762.9	1,814.0	100.00	2.9	-	2.9	-
서울	359.7	370.2	380.7	389.6	403.6	22.25	3.6	4	2.9	7
부산	80.3	82.7	84.1	85.4	87	4.80	1.7	9	1.9	11
대구	50.3	51.8	51.8	52.7	54	2.98	2.4	6	1.7	13
인천	78.7	80.1	82.3	85.8	86.4	4.76	0.7	12	2.3	9
광주	34.2	34.8	35.9	36.4	38.2	2.11	5.0	3	2.9	6
대전	36.1	37.2	38.5	38.8	39.1	2.16	0.9	11	2.0	10
울산	72.4	72.9	73.5	73.0	71.3	3.93	-2.2	17	0.2	16
세종	8.6	9.3	9.7	10.1	10.4	0.57	2.8	5	4.8	3
경기	362.2	382.0	399.8	426.2	451.9	24.91	6.0	2	5.4	2
강원	40.1	40.9	42.0	43.8	44.6	2.46	1.9	8	2.6	8
충북	51.6	55.2	58.4	62.0	65.8	3.63	6.3	1	6.3	1
충남	100.2	101.3	104.5	110.2	110.9	6.11	0.6	13	3.0	5
전북	46.6	47.0	46.7	47.6	48.4	2.67	1.7	9	1.1	14
전남	68.4	68.9	70.4	71.3	73	4.02	2.2	7	1.8	12
경북	105.9	103.1	105.7	104.4	103.2	5.69	-1.2	16	-0.6	17
경남	104.8	106.6	107.3	106.6	107.2	5.91	0.6	13	0.5	15
제주	15.8	16.9	18.3	19.1	19	1.05	-0.9	15	4.5	4

주1 : GRDP는 2015년 기준년 가격, 지역총생산임

주2 : 비중은 2018년 기준 전국 GRDP 대비 점유율, YoY는 2017년 대비 2018년의 증감률, CAGR은 최근 5년간('14~'18년) 증감률임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 활용, 2020.8.18

I 충청북도의 경제규모 현황(GRDP 기준)

- 충청북도의 경제규모는 1986년 중반 이후 3.1% 내외에서 1996년 3.4%까지 점유 비중이 높아졌지만 2000년대에 접어들어 3.1~3.2% 수준에 머물렀으나, 최근 들어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활동 등으로 인해 점유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2018년 전국 대비 충청북도경제 비중은 3.63% 수준이고, 전국 대비 충청북도의 경제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자료 활용 작성

〈그림 1-5-15〉 전국 대비 충북의 경제규모 변화 추이

I 충청북도의 1인당 생산/소득/민간소비 규모

- 2018년 현재 충청북도의 1인당 지역총생산 규모는 4,302만 원으로 전국 평균(3,687만 원)을 상회하고 있는 반면, 1인당 개인소득은 1,844만 원으로 전국 평균(1,991만 원)을 하회하고 있으며, 1인당 민간소비는 1,558만 원으로 전국 평균(1,762만 원)을 하회하고 있음
- 상대적으로 충청북도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전국 평균 수준보다 높지만 1인당 개인소득과 민간 소비 규모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
 - 충청북도 1인당 지역내총생산 변화 : '14년 3,173만 원 ⇒ '15년 3,473만 원 ⇒ '16년 3,727만 원 ⇒ '17년 4,059만 원 ⇒ '18년 4,302만 원
 - 충청북도 1인당 지역총소득 변화 : '14년 2,713만 원 ⇒ '15년 2,884만 원 ⇒ '16년 3,053만 원 ⇒ '17년 3,195만 원 ⇒ '18년 3,367만 원
 - 충청북도 1인당 개인소득 변화 : '14년 1,556만 원 ⇒ '15년 1,653만 원 ⇒ '16년 1,692만 원 ⇒ '17년 1,747만 원 ⇒ '18년 1,844만 원
 - 충청북도 1인당 민간소비 변화 : '14년 1,396만 원 ⇒ '15년 1,424만 원 ⇒ '16년 1,453만 원 ⇒ '17년 1,543만 원 ⇒ '18년 1,558만 원

〈표 1-5- 9〉 시도별 1인당 생산/소득/민간소비 규모

(단위 : 만 원, %)

구분	지역내총생산		지역총소득		개인소득		민간소비	
	현황	상대수준	현황	상대수준	현황	상대수준	현황	상대수준
전국	3,687	100.0	3,701	100.0	1,991	100.0	1,762	100.0
서울	4,366	118.4	4,836	130.7	2,332	117.1	2,131	120.9
부산	2,646	71.8	2,829	76.4	1,887	94.8	1,766	100.2
대구	2,315	62.8	2,700	73.0	1,856	93.2	1,721	97.6
인천	3,019	81.9	3,136	84.7	1,866	93.7	1,609	91.3
광주	2,665	72.3	2,976	80.4	1,987	99.8	1,784	101.2
대전	2,721	73.8	3,053	82.5	1,965	98.7	1,755	99.6
울산	6,379	173.0	5,269	142.4	2,166	108.8	1,809	102.6
세종	3,657	99.2	3,724	100.6	2,099	105.4	1,692	96.0
경기	3,682	99.9	3,915	105.8	1,991	100.0	1,728	98.0
강원	3,086	83.7	2,847	76.9	1,845	92.7	1,657	94.0
충북	4,302	116.7	3,367	91.0	1,844	92.6	1,558	88.4
충남	5,301	143.8	3,994	107.9	1,846	92.7	1,587	90.1
전북	2,780	75.4	2,678	72.4	1,814	91.1	1,572	89.2
전남	4,213	114.3	3,516	95.0	1,821	91.4	1,560	88.5
경북	4,068	110.3	3,453	93.3	1,819	91.3	1,585	89.9
경남	3,299	89.5	3,099	83.7	1,847	92.7	1,607	91.2
제주	3,072	83.3	3,119	84.3	1,846	92.7	1,664	94.4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역소득

I 지역 내 불균형발전의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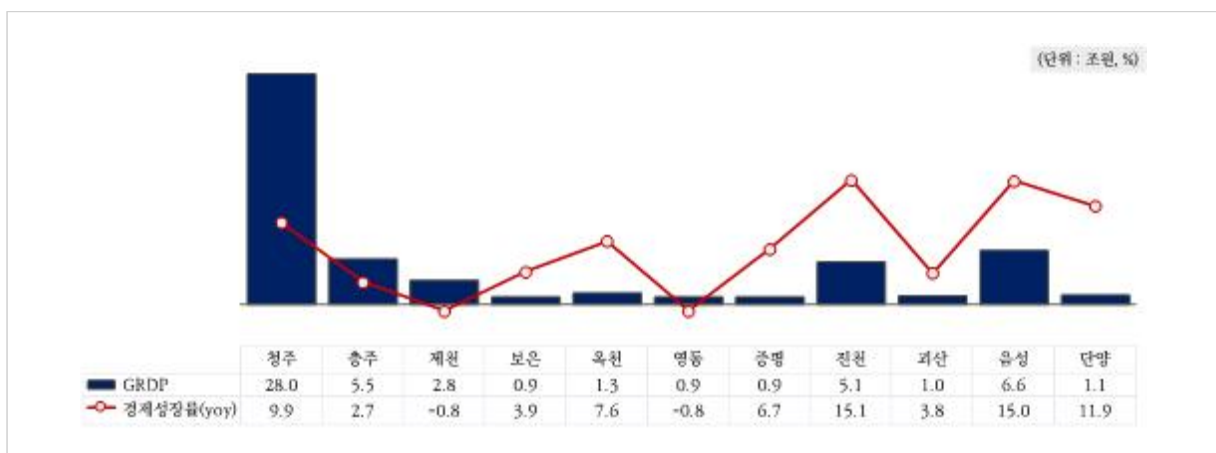
- 청주시의 부가가치 점유율이 51.7%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남부 3군이 각종 규제와 성장 동력의 부재로 인해 중부권의 경제성장률을 대폭 하회함에 따라 지역 내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고 있음

〈표 I-5-10〉 시군별 GRDP 현황

(단위 : 조 원, %)

구분	GRDP				비중	YoY
	2000년	2005년	2010년	2016년		
충청북도	30.6	29.4	39.5	54.1	100.0	8.6
청주시	14.8	13.2	18.9	28.0	51.7	9.9
충주시	3.7	3.5	4.2	5.5	10.3	2.7
제천시	2.0	1.7	2.4	2.8	5.2	-0.8
보은군	0.7	0.6	1.0	0.9	1.7	3.9
옥천군	0.9	1.0	1.2	1.3	2.4	7.6
영동군	0.9	0.8	0.9	0.9	1.7	-0.8
증평군	-	0.7	0.8	0.9	1.7	6.7
진천군	2.6	2.9	3.9	5.1	9.4	15.1
괴산군	0.8	0.7	1.0	1.0	1.9	3.8
음성군	3.0	3.2	4.3	6.6	12.1	15.0
단양군	1.1	1.0	0.9	1.1	2.1	11.9

주 : 비중은 2016년 실질 GRDP 기준이고, YoY는 전년 대비 경제성장률을 의미함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역소득



〈그림 I-5-16〉 시군별 GRDP 현황

I 충청북도의 수출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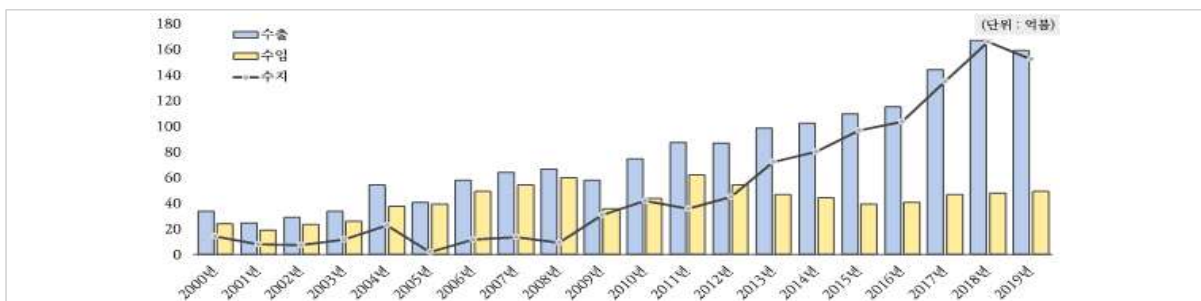
- 2019년 충청북도의 무역수출액은 221억 달러로 2018년(232억 달러) 대비 5.0% 감소한 반면, 수입액은 69억 달러로 2018년(67억 달러) 대비 소폭 증가하였음
- 2018년 충북의 수출은 전국 대비 3.8%를, 수입은 전국 대비 1.2%를 차지하고 있음
- 충북의 수출 증가율은 2000~2008년까지는 전국 평균을 하회하였으나 2009~2018년까지는 가장 빠른 성장세를 시현하였고, 반면에 2008~2018년간 수입은 전국 증가율을 대폭 하회하면서 2012년 이후 흑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

〈표 1-5-11〉 충청북도의 수출입 현황

(단위 : 억 불, %)

년월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00년	47.5		33.1		14.3
2001년	34.5	-27.3	26.8	-19.2	7.7
2002년	40.2	16.5	32.5	21.5	7.7
2003년	47.3	17.7	35.9	10.3	11.4
2004년	75.5	59.5	52.5	46.3	22.9
2005년	56.6	-24.9	54.9	4.6	1.7
2006년	80.5	42.2	68.9	25.4	11.6
2007년	89.2	10.8	75.4	9.5	13.8
2008년	92.1	3.3	83.0	10.0	9.1
2009년	80.8	-12.3	49.7	-40.1	31.1
2010년	103.3	27.8	61.2	23.2	42.1
2011년	121.7	17.8	86.1	40.6	35.6
2012년	120.4	-1.0	75.6	-12.2	44.9
2013년	137.4	14.0	65.1	-13.9	72.3
2014년	142.0	3.4	61.8	-5.1	80.2
2015년	152.1	7.1	55.1	-10.9	97.0
2016년	160.0	5.2	56.6	2.8	103.4
2017년	200.0	25.0	65.0	14.9	135.0
2018년	232.3	16.2	66.8	2.7	165.6
2019년	220.8	-5.0	68.8	3.1	152.0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수출입 통관실적 자료 활용



〈그림 1-5-17〉 충청북도의 수출입 현황

4) 국토이용과 공간구조

Ⅰ 토지이용 현황

□ 지목별 국토이용현황

- 임야를 제외한 충청북도의 지목별 국토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청주시는 답이 전체의 13.84%, 전이 9.47%, 대의 면적이 54,389,211.4㎡로 5.78%가 주거 또는 상업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공장용지는 2.43%를 차지함
- 청주시의 경우 26,282,845.0㎡의 면적(2.67%)이 주거 또는 상업시설로, 16,193,318.1㎡의 면적(1.65%)이 과수원으로, 10,384,418.8㎡의 면적(1.06%)이 공장용지로 활용되고 있음
- 제천시의 주거 또는 상업시설 면적은 전체의 1.81%로 전과 답의 면적이 각 약 8.53%, 3.80% 정도를 차지하며 임야 면적이 72.86%로 도내에서 세 번째로 높음
 - 충청북도 내 임야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단양군 640,195,470.9㎡(82.06%)임
- 군지역 중 증평군(5.36%)과 충북혁신도시가 입지한 음성군(3.14%), 진천군(2.79%)을 제외하고는 주거 또는 상업시설 등(지목 - 대)의 비율이 2% 미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장용지 또한 음성군(4.13%), 진천군(3.15%), 증평군(2.35%)을 제외하고는 0%대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표 1-5-12〉 충청북도 지목별 국토이용현황(시군별)

(단위 : m²)

구분	계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대	공장용지
청주시	940,844,523.6	89,078,951.1	130,220,141.3	2,554,065.8	4,014,639.6	470,994,340.9	49.0	54,389,211.4	22,860,654.6
충주시	983,477,554.9	78,480,742.6	78,341,031.0	16,193,318.1	3,416,657.6	614,018,213.2	3.0	26,282,845.0	10,384,418.8
제천시	883,422,112.5	75,335,774.8	33,575,890.8	4,167,136.1	3,491,400.3	643,631,671.4	0.0	15,983,213.7	3,612,643.5
보은군	584,207,530.4	51,368,164.4	58,913,869.5	2,361,946.4	2,045,852.2	398,965,780.3	0.0	9,178,465.5	1,945,061.4
옥천군	537,221,175.1	55,617,875.7	43,638,874.4	3,478,919.5	1,294,107.3	345,907,405.2	0.0	10,443,634.1	2,551,355.7
영동군	846,016,197.8	50,936,283.8	52,609,601.9	7,368,356.5	1,951,546.0	651,155,758.3	0.0	10,139,928.5	2,060,843.5
증평군	81,797,648.4	9,499,714.2	13,271,484.6	321,256.4	299,552.3	39,856,269.8	0.0	4,383,465.4	1,920,175.3
진천군	407,303,348.2	33,875,986.2	58,691,301.5	1,771,671.7	2,149,328.7	228,040,100.7	0.0	11,379,902.3	12,836,036.7
괴산군	842,189,019.8	75,280,156.0	57,877,789.8	2,838,805.3	3,588,164.8	622,514,809.3	0.0	12,871,171.3	3,233,342.4
음성군	520,182,165.7	61,269,506.0	73,807,345.7	8,490,352.4	3,564,789.6	268,252,657.1	0.0	16,325,684.2	21,491,806.5
단양군	780,158,659.6	60,880,508.9	12,739,124.0	1,086,608.7	2,204,009.0	640,195,470.9	0.0	6,595,025.8	2,222,268.5

주 : 전(밭), 답(논), 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자료 : 통계청, 행정구역별(지목별) 국토이용현황, 2018

〈표 1-5-13〉 충청북도 지목별 국토이용현황(시군별)

(단위 : %)

구분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대	공장용지
청주시	9.47	13.84	0.27	0.43	50.06	—	5.78	2.43
충주시	7.98	7.97	1.65	0.35	62.43	—	2.67	1.06
제천시	8.53	3.80	0.47	0.40	72.86	—	1.81	0.41
보은군	8.79	10.08	0.40	0.35	68.29	—	1.57	0.33
옥천군	10.35	8.12	0.65	0.24	64.39	—	1.94	0.47
영동군	6.02	6.22	0.87	0.23	76.97	—	1.20	0.24
증평군	11.61	16.22	0.39	0.37	48.73	—	5.36	2.35
진천군	8.32	14.41	0.43	0.53	55.99	—	2.79	3.15
괴산군	8.94	6.87	0.34	0.43	73.92	—	1.53	0.38
음성군	11.78	14.19	1.63	0.69	51.57	—	3.14	4.13
단양군	7.80	1.63	0.14	0.28	82.06	—	0.84	0.28

주 : (해당 지목 면적÷시·군 지역 면적 계)×100

5) 사업체 및 산업단지

Ⅰ 사업체 현황

□ 사업체 현황

○ 충청북도 전체 사업체 수는 126,224개소로 종사자는 681,870명으로 도·소매업이 30,663개소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 수는 제조업이 198,137명으로 가장 많았음

○ 사업체 수가 가장 적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은 73개소가 있으며, 1,472명이 해당 업종에 종사하고 있음

〈표 1-5-14〉 충청북도 사업체 현황

(단위 : 개/명)

구분	사업체 수 (개)	종사자 수 (명)
전 체	126,224	681,870
농, 임업 및 어업	265	2,498
광업	94	1,012
제조업	13,190	198,137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73	1,472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38	5,035
건설업	5,220	44,064
도매 및 소매업	30,663	80,085
운수 및 창고업	10,959	28,525
숙박 및 음식점업	26,856	68,799
정보통신업	587	5,824
금융 및 보험업	1,260	16,591
부동산업	3,496	11,24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312	17,758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342	26,67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66	27,995
교육 서비스업	5,449	50,66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578	55,32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4,178	13,34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3,698	26,838

자료 : 통계청, 충청북도 산업 조직 형태별 산업체 수, 종사자 수, 2017



- 시군별 사업체 수는 시지역 중 청주시가 60,236개소로 332,687명의 종사자가, 군지역 중 진천군이 6,406개소, 49,827명의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임·어업 분야에서는 충주시의 사업체 수가 55개로 가장 많았으며, 종사자 수 또한 598명으로 가장 많았음
- 제조업에서는 시지역 중 청주시가 5,295개의 사업체와 81,488명의 종사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군지역 중 음성군이 2,123개의 사업체, 39,198명의 종사자 수를 나타냄
- 도·소매업이 가장 적게 나타난 지역은 단양군 663개로, 1,320명의 종사자 수를 나타냄

〈표 1-5-15〉 시군별 산업별 사업체 수·종사자 수

(단위 : 개/명)

구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계	사업체수	60,236	17,967	12,874	2,986	4,060	3,633	2,868	6,406	2,818	9,361	3,015
	종사자수	332,687	88,304	53,144	12,940	19,549	15,009	12,658	49,827	13,628	69,931	14,193
농임어업	사업체수	40	55	27	21	12	19	5	29	21	30	6
	종사자수	449	598	125	162	134	128	57	234	185	373	53
광업	사업체수	16	21	24	4	3	3	-	4	6	-	13
	종사자수	200	231	197	37	16	21	-	57	42	-	211
제조업	사업체수	5,295	1,510	924	323	625	332	241	1,254	340	2,123	223
	종사자수	81,488	19,439	8,167	3,658	6,132	2,500	3,550	27,975	3,788	39,198	2,242
전기, 가스, 공급업	사업체수	30	15	5	1	5	2	2	3	3	3	4
	종사자수	869	160	81	32	71	34	41	55	25	62	42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사업체수	164	52	39	8	19	11	13	45	23	49	15
	종사자수	1,919	769	447	129	169	213	90	457	198	447	197
건설업	사업체수	2,285	763	657	158	205	201	92	246	101	308	204
	종사자수	21,490	6,738	4,579	976	1,326	1,566	506	2,273	697	2,003	1,910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수	15,184	4,443	3,330	791	929	877	720	1,298	537	1,891	663
	종사자수	42,858	11,453	8,083	1,401	2,057	1,682	1,764	3,256	1,469	4,742	1,320
운수 및 창고업	사업체수	5,218	1,658	1,078	221	349	311	263	590	202	881	188
	종사자수	13,437	3,666	4,029	415	1,146	730	566	1,221	418	2,148	749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체수	11,911	4,045	3,039	672	806	760	637	1,388	816	1,865	917
	종사자수	33,311	10,772	6,811	1,448	1,845	1,549	1,509	3,142	1,684	4,566	2,162

(단위 : 개/명)

구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정보통신업	사업체수	307	80	48	21	22	29	6	23	15	22	14
	종사자수	3,485	703	292	108	162	136	41	569	81	176	71
금융 및 보험업	사업체수	633	176	112	38	43	48	25	45	31	82	27
	종사자수	9,824	2,199	1,396	299	455	433	256	452	276	797	204
부동산업	사업체수	2,018	458	307	47	66	56	71	157	56	224	36
	종사자수	7,246	1,399	892	76	153	100	250	358	85	608	7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체수	1,330	295	182	37	63	62	29	88	48	144	34
	종사자수	11,654	1,563	846	122	392	302	118	863	191	1,581	12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업체수	1,152	324	216	32	60	44	47	175	25	214	53
	종사자수	16,105	3,437	1,684	111	236	204	502	1,438	101	1,991	86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사업체수	163	89	51	38	36	39	10	29	38	40	33
	종사자수	13,661	3,024	2,007	1,035	1,072	1,355	511	990	1,044	2,258	1,038
교육서비스업	사업체수	3,094	788	512	104	117	142	116	184	88	225	79
	종사자수	26,265	7,682	4,684	867	1,244	1,412	926	2,643	1,425	2,815	69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체수	2,383	591	391	103	166	170	109	175	115	278	97
	종사자수	28,751	8,137	4,772	1,209	1,969	1,654	1,084	1,827	1,189	3,879	849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사업체수	2,272	600	393	71	100	83	91	169	53	253	93
	종사자수	6,088	2,581	986	353	281	189	315	1,135	154	791	46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사업체수	6,741	2,004	1,539	296	434	444	391	504	300	729	316
	종사자수	13,587	3,753	3,066	502	689	801	572	882	576	1,496	914

자료 : 통계청, 충청북도 산업 조직 형태별 산업체 수, 종사자 수, 2017



I 산업단지 현황

- 충청북도에는 125개의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지정면적 82,423천㎡, 관리팀 관리면적 76,199천㎡로 산업시설구역의 전체 면적은 43,992천㎡임
- 국가산업단지는 2개소로 입주업체는 71개소, 가동업체 64개소, 4,961명의 고용이 있었으며, 누계생산은 2,578,658백만 원, 누계수출은 726,270천 달러임
- 일반산업단지는 78개소로 입주업체 1,568개소, 가동업체 1,319개소, 79,835명의 고용이 있었으며, 누계수출은 15,260,093천 달러로 집계됨
-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개소로 입주업체 64개소, 가동업체 60개소이며, 476명의 고용이 있었음
- 농공단지는 43개소로 430개소의 입주업체와 14,885명의 고용이 집계되었음

〈표 I-5-16〉 충청북도 산업단지 현황

(단위 : 개, 천㎡, 명, 백만 원, 천 달러, %, 개소)

구분		합계	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
단지 수(개)		125	2	78	2	43
지정면적(천㎡)		82,423	8,806	67,131	263	6,223
관리팀 관리면적(천㎡)		76,199	6,773	63,001	263	6,162
산업시설 구역	전체면적(천㎡)	43,992	2,507	36,281	188	5,016
	분양대상(천㎡)	34,061	2,507	26,374	188	4,992
	분양(천㎡)	33,047	2,507	25,578	111	4,851
	미분양(천㎡)	1,014	-	796	77	141
	분양률(%)	97	100	97	59	97
관리팀	입주업체(개소)	2,133	71	1,568	64	430
	가동업체(개소)	1,834	64	1,319	60	391
	고용(명)	100,157	4,961	79,835	476	14,885
	누계생산(백만 원)	43,449,863	2,578,658	34,604,801	29,085	6,237,319
	누계수출(천 달러)	17,362,606	726,270	15,260,093	-	1,376,243

주 : 현황 자료는 2020년 3분기 자료를 활용함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 산업단지 현황 통계, 2020

6) 국가기반시설(SOC)

I 도로

○ 2018년 기준 충청북도 전체 도로 개통은 6,942,571.0km로 91.7%의 도로가 포장되었으며 이는 2015년 91.0% 대비 0.7% 증가한 수치임

○ 고속국도는 총연장 388,406km, 일반국도 972,058km, 지방도는 1,408,373.0km로 나타남

〈표 1-5-17〉 충청북도 도로 현황

(단위 : km, %)

구분	항목	2015	2016	2017	2018
충청북도 전체	총계	6,857,710.0	6,870,427.0	6,891,310.0	6,942,571.0
	개통	6,336,031.0	6,351,880.0	6,377,200.0	6,434,144.0
	포장	5,763,049.0	5,793,673.0	5,825,598.0	5,899,151.0
	포장률	91.0	91.2	91.4	91.7
	미포장	572,982.0	558,207.0	551,602.0	534,993.0
	미개통	521,679.0	518,547.0	514,110.0	508,427.0
고속국도	포장	383,630.0	376,306.0	376,306.0	388,406.0
	고속국도	383,630.0	376,306.0	376,306.0	388,406.0
일반국도	개통	949,957.0	950,177.0	974,930.0	972,058.0
	포장	949,957.0	950,177.0	974,930.0	972,058.0
	포장률	100.0	100.0	100.0	100.0
	미포장	0.0	0.0	0.0	0.0
	미개통	0.0	0.0	0.0	0.0
	일반국도	949,957.0	950,177.0	974,930.0	972,058.0
지방도	개통	1,437,496.0	1,437,496.0	1,380,563.0	1,408,373.0
	포장	1,396,021.0	1,402,581.0	1,349,553.0	1,380,538.0
	포장률	97.1	97.6	97.8	98.0
	미포장	41,475.0	34,915.0	31,010.0	27,835.0
	미개통	38,340.0	38,340.0	33,220.0	29,120.0
	지방도	1,475,836.0	1,475,836.0	1,413,783.0	1,437,493.0
시도	개통	1,328,502.0	1,336,991.0	1,358,922.0	1,378,011.0
	포장	1,325,987.0	1,334,476.0	1,356,407.0	1,375,496.0
	포장률	99.8	99.8	99.8	99.8
	미포장	2,515.0	2,515.0	2,515.0	2,515.0
	미개통	173,432.0	173,255.0	171,997.0	172,046.0
	시도	1,501,934.0	1,510,246.0	1,530,919.0	1,550,057.0
군도	개통	2,236,446.0	2,250,910.0	2,286,479.0	2,287,296.0
	포장	1,707,454.0	1,730,133.0	1,768,402.0	1,782,653.0
	포장률	76.3	76.9	77.3	77.9
	미포장	528,992.0	520,777.0	518,077.0	504,643.0
	미개통	309,907.0	306,952.0	308,893.0	307,261.0
	군도	2,546,353.0	2,557,862.0	2,595,372.0	2,594,557.0

자료 : 통계청(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시도별 도로현황,



I 철도

○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충청북도는 2개의 고속철도 노선과 4개의 일반철도 노선이 통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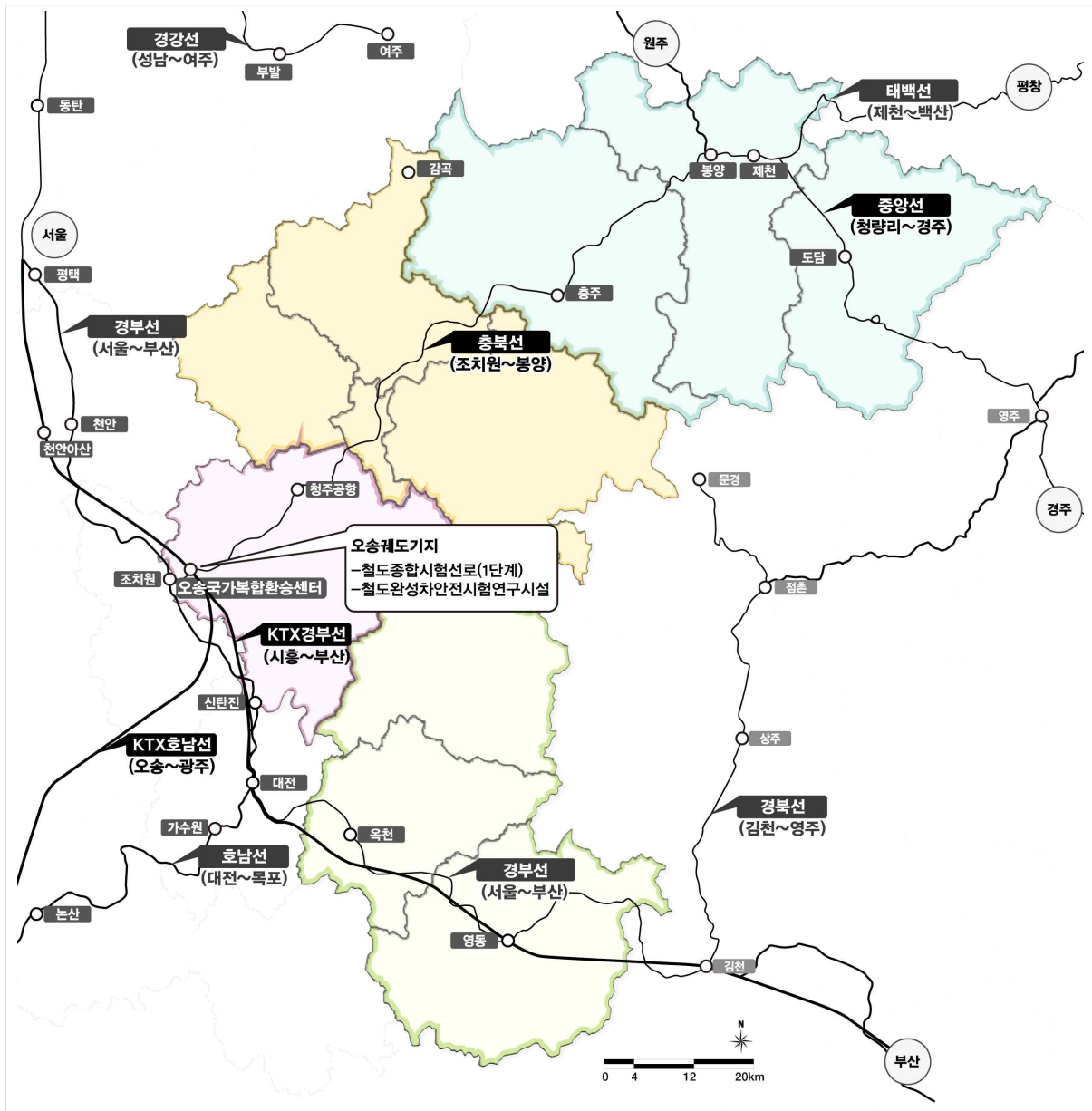
-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의 분기역인 오송역을 보유하고 있음
- 대부분 노선은 수도권과 지방 지역을 연결하기 위해 충청북도 지역을 관통하는 성격을 띠고 있으며, 충북선(조치원~봉양)만이 유일하게 도내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함

〈표 1-5-18〉 충청북도 철도노선 현황

(단위 : km)

구분	노선	전체구간			충북구간			최초개통	선로 최고속도
		기점	종점	연장	기점	종점	연장		
고속철도	경부고속선	시흥	부산	398.2	오송	영동 매곡	73.8	시흥~칠곡 (2004년) 동대구~부산 (2010년)	305km/h
	호남고속선	오송	광주 송정	183.8	오송	청주 강내	8.1	2015년	305km/h
일반철도	경부선	서울	부산	441.7	오송	영동 추풍령	56.8	1905년	140km/h
	중앙선	청량리	경주	373.8	제천 봉양	단양 죽령	43.6	1942년	140km/h
	충북선	조치원	봉양	115	오송	제천 봉양	113	1959년	120km/h
	태백선	제천	백산	104.1	제천	제천 송학	14.7	1957년	150km/h

자료 : 국토교통부, 철도통계연보, 2018



자료 : 충청북도 내부자료

〈그림 1-5-18〉 충청북도 철도노선 현황

○ 2017년 기준 충청북도에는 총 34개의 철도역이 운영 중인 것으로 집계됨

- 이들 중 도안역, 보천역, 소이역, 달천역, 목행역, 동량역, 공전역, 봉양역(이상 충북선)과 제천조차장역, 고명역, 삼곡역, 도담역, 단성역, 죽령역(이상 중앙선), 그리고 입석리역(태백선) 등 16개 역은 현재 여객 취급이 중단되었음
- 지탄역, 각계역, 청주공항역, 보천역, 소이역, 공전역, 봉양역, 죽령역 등 9개 역은 무배치 간이역으로 화물수송실적이 없는 역임
- 중앙선 단성역과 죽령역은 현재 여객 및 화물수송이 없으며, 2022년 도담~영천 간 중앙선 복선화 사업이 완료되면 폐역 예정임

〈표 1-5-19〉 충청북도 시·군별 철도역 현황

구분	노선	철도역
전국	-	693개
충청북도	-	34개
청주시	충북선, 경부고속선	청주역, 오근장역, 오송역(충/경), 청주공항역
충주시	충북선	주덕역, 달천역, 충주역, 목행역, 동량역, 삼탄역
제천시	충북선, 중앙선, 태백선	공전역(충), 봉양역(충), 제천조차장역(충), 제천역(충), 고명역(충), 입석리역(태)
옥천군	경부선	옥천역, 이원역, 지탄역
영동군	경부선	심천역, 각계역, 영동역, 황간역, 추풍령역
증평군	충북선	증평역, 도안역
음성군	충북선	음성역, 소이역, 보천역
단양군	중앙선	삼곡역, 도담역, 단양역, 단성역, 죽령역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8

□ 철도 이용

- 2018년 기준 충청북도 내 철도여객 이용 인원은 연간 총 1,115만 명, 철도물류 이용현황은 연간 약 1,337만 톤으로 집계됨
 - 철도여객 이용객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599만 명이 KTX 오송역을 이용하며, 2019년 개통 이후 처음으로 연간 이용객 8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최근 5년 연평균 이용객 증가율 28%로 전국 최고 수준임
 - 철도물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도담역(단양군)이 680만 톤으로 전체의 약 50.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입석리역(제천시) 457만 톤, 청주역 58만 톤 순으로 집계됨

〈표 1-5-20〉 충청북도 철도역별 여객·화물 수송현황(2018년 기준)

(단위 : 명, 톤)

구 분		여객			화물		
		승차인원	하차인원	합계	발송톤수	도착톤수	합계
총 계		5,617,624	5,540,206	11,157,830	10,485,873	2,893,713	13,379,586
경부선	옥천역	222,931	225,676	448,607	5,503	9,042	14,545
	이원역	15,094	12,886	27,980	-	750	750
	지탄역	949	481	1,430	-	-	-
	심천역	8,422	8,115	16,537	65,500	22,905	88,405
	각계역	405	8	413	-	-	-
	영동역	616,938	626,497	1,243,435	-	-	-
	황간역	40,660	39,549	80,209	-	-	-
	추풍령역	16,062	16,090	32,692	-	-	-
충북선	오송역	3,046,290	2,944,775	5,991,065	20,812	14,793	35,605
	청주역	133,083	142,595	275,678	-	582,483	582,483
	오근장역	150,200	145,870	296,070	-	30,064	30,064
	청주공항역	39,012	47,637	86,649	-	-	-
	증평역	108,310	105,323	213,633	-	837	837
	도안역	-	-	-	59	186,597	186,656
	음성역	69,259	72,473	141,732	-	391,842	391,842
	소이역	-	-	-	-	-	-
	보천역	-	-	-	-	-	-
	주덕역	29,839	40,914	80,753	-	2,409	2,409
	달천역	-	-	-	-	-	-
	충주역	297,911	292,719	590,360	1,489	15,444	16,933
	목행역	-	-	-	-	-	-
	동량역	-	-	-	-	45,031	45,031
	삼탄역	6,818	7,199	14,017	-	639	639
	공전역	-	-	-	-	-	-
	봉양역	-	-	-	258	16,095	16,353
	조차장역	-	-	-	4,580	16,294	20,874
중앙선	제천역	711,003	715,546	1,426,549	3,867	5,467	9,334
	고령역	-	-	-	341,087	47,884	388,971
	삼곡역	-	-	-	123,500	51,679	175,179
	도담역	-	-	-	5,721,355	1,079,350	6,800,705
	단양역	93,898	95,853	189,753	-	-	-
	단성역	-	-	-	-	600	600
	죽령역	-	-	-	-	-	-
태백선	입석리역	-	-	-	4,197,863	373,508	4,571,371

주 : 오송역은 KTX 오송역 여객실적 포함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9



I 공항

□ 청주국제공항 운영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청주국제공항(1997년 개항)은 중부권 내 국내선 수요 및 중거리 국제선 수요를 처리하는 중부권 거점공항이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관문공항임

〈표 1-5-21〉 청주국제공항 시설현황

시설현황		수용능력	
부지(㎡)	1,909,645	운항횟수(회/년)	140,000
활주로(m)	2,744×60 / 2,744×45	여객(만 명/년)	441
계류장(㎡)	115,243	화물(만 톤/년)	3.75
여객터미널(㎡)	29,926	동시주기(대)	13
화물터미널(㎡)	2,257	동시주차(대)	4,546
주차장(㎡)	125,122	운항항공기	A319, A320, A321, B737
항행안전시설	06L, 24R : ILS(CAT-I) 24L, 6R : PAR(정밀)	최저착륙시정	RVR 730m

자료 : 항공정보포털시스템 홈페이지, 2020

- 2020년 1월 기준 국내선은 5개의 항공사가 1개 노선(청주~제주)을 일평균 38편, 주 평균 266편을 운항 중에 있으며, 국제선의 경우 6개 항공사가 8개 노선을 운항 중인 것으로 집계됨
- 국내선(청주~제주)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 국제선 : 이스타항공(타이베이/타오위안, 대용/장자제, 연길/엔지), 비엠펙항공(나트랑, 다낭), 스카이마크항공(씨앤티), 사천항공(연대/연타이, 대용/장자제), 중국남방항공(연길/엔지), 제주항공(타이베이/타오위안)
 - 2021년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로K 출범에 따라 청주~제주 노선 취항 예정임
- 1997년 개항 첫해 연간 이용객 약 37만 명을 시작으로, 2015년 연간 이용객 2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2019년 300만 명을 달성하여 명실상부한 중부권 대표 공항으로 발돋움하였음

〈표 1-5-22〉 청주국제공항 운항실적

(단위 : 편, 명, 톤)

연도	운항			여객			화물		
	도착	출발	계	도착	출발	계	도착	출발	계
2010	4,594	4,591	9,185	652,853	643,989	1,296,842	6,958.4	5,543.1	12,501.5
2011	4,544	4,538	9,082	675,439	662,352	1,337,791	8,783.5	7,395.8	16,179.3
2012	4,579	4,580	9,159	658,896	650,098	1,308,994	8,625.1	7,799.4	16,424.4
2013	4,788	4,791	9,579	693,121	685,483	1,378,604	6,886.8	6,107.4	12,994.2
2014	5,817	5,816	11,633	853,046	849,492	1,702,538	8,268.0	9,490.5	17,758.5
2015	7,077	7,076	14,153	1,055,403	1,063,089	2,118,492	9,450.0	10,351.7	19,801.7
2016	8,731	8,687	17,418	1,367,564	1,365,191	2,732,755	10,843.9	11,419.5	22,263.4
2017	7,912	7,913	15,825	1,283,758	1,287,793	2,571,551	10,233.5	8,979.1	19,212.7
2018	7,843	7,840	15,683	1,227,959	1,225,690	2,453,649	9,301.8	8,684.5	17,986.3
2019	9,326	9,322	18,648	1,505,523	1,503,528	3,009,051	9,851.6	9,066.0	18,917.6

자료 :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I 상하수도

□ 상수도 보급현황

○ 2018년 기준 충청북도 전체의 상수도 보급률은 92.2%로 전체 지역 중 보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증평군 99.9%, 가장 낮은 지역은 보은군 52.3%임

〈표 1-5-23〉 상수도 보급현황

구분	총인구	급수인구	보급률 (%)	시설용량 (㎥/일)	급수량 (㎥/일)	1일1인당 급수량	급수전수
충청북도	1,638,789	1,510,702	92.2	318,000	705,734	467	260,528
청주시	851,328	826,639	97.1	126,600	392,845	475	88,897
충주시	215,859	198,691	92.0	55,000	73,502	370	45,607
제천시	136,906	128,643	94.0	53,000	45,630	355	28,594
보은군	34,189	17,867	52.3	8,100	8,426	472	6,111
옥천군	52,251	45,387	86.9	21,750	17,152	378	13,413
영동군	50,318	39,569	78.6	29,650	16,911	427	15,445
증평군	38,062	38,010	99.9	-	16,759	441	7,037
진천군	84,265	75,638	89.8	700	47,260	625	17,923
괴산군	40,032	26,479	66.1	1,000	11,660	440	7,533
음성군	105,103	91,229	86.8	-	63,951	701	22,391
단양군	30,476	22,550	74.0	22,200	11,637	516	7,577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9

□ 하수도 보급현황

○ 충청북도 전체의 하수도 보급률은 87.7%로 전체 지역 중 보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마천가지로 상수도 보급률이 가장 높았던 증평군이 97.1%로 충북 전체보다 9.4% 높았으며 보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괴산군 50.4%임

〈표 1-5-24〉 하수도 보급현황

구분	총인구(A)	미처리인구(B)	처리대상인구 (A-B)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인구	하수도 보급률(%)
충청북도	1,638,789	201,294	1,437,495	1,353,893	87.7
청주시	851,328	58,808	792,520	732,698	93.1
충주시	215,859	17,077	198,782	187,232	92.1
제천시	136,906	9,312	127,594	126,824	93.2
보은군	34,189	9,919	24,270	24,270	71.0
옥천군	52,251	6,335	45,916	45,003	87.9
영동군	50,318	15,698	34,620	34,620	68.8
증평군	38,062	1,119	36,943	36,943	97.1
진천군	84,265	16,915	67,350	57,098	79.9
괴산군	40,032	19,869	20,163	20,163	50.4
음성군	105,103	39,211	65,892	65,597	62.7
단양군	30,476	7,031	23,445	23,445	76.9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9



7) 교육 및 문화

□ 교육시설

○ 2019년 4월 기준 충청북도 내 유치원 328개소, 초등학교 259개소, 중학교 126개소, 고등학교 84개소, 전문대학 5개소, 교육대학 1개소, 대학교 10개소가 분포하고 있음

〈표 1-5-25〉 교육시설 현황(2019. 4. 기준)

구분	학교 수	학급(과) 수	교실 수	학생 수	교직원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유치원	328	1,033	713	16,629	1,656	10.9
초등학교	259(9)	4,299	6,097	86,709	7,786	13.0
중학교	126	1,689	3,018	40,839	4,272	10.6
국공립	107	1,501	2,661	36,086	3,815	10.4
사립	19	188	357	4,753	457	11.8
고등학교(합계)	84	1757	3145	44053	4500	-
일반계 고등학교	47	996	1,694	26,606	2,421	12.0
국공립	33	671	1,146	17,534	1,693	11.3
사립	14	325	548	9,072	728	13.7
특수목적고등학교	7	108	258	2,196	348	7.4
특성화 고등학교	24	496	934	11,159	1,319	9.6
국공립	17	352	695	7,686	985	9.0
사립	7	144	239	3,473	334	11.3
자율고등학교	6	157	259	4,092	412	10.8
특수학교	10	257	404	1,264	516	2.9
국공립	3	89	108	451	185	2.9
사립	7	168	296	813	331	2.9
전문대학	5	231	-	20,414	725	47.9
교육대학교	1	12	-	1,242	128	18.5
대학(교)	10(1)	716	-	97,160	4,968	34.1
대학원	42	710	-	10,888	278	39.7
기타학교	4	42	-	624	132	6.9

주1 : 2019. 4. 1. 기준

주2 : ()는 분교 수이며 학교 수에 미포함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9

I 공공도서관

○ 충청북도 내 공공도서관은 47개소로 시지역 중 청주시가 15개로 가장 많은 공공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지역 중 진천군과 음성군이 각 4개소로 가장 많은 도서관을 가지고 있음

〈표 1-5-26〉 충청북도 공공도서관 현황

구분		좌석 수	연간 이용자 수
충청북도 (47개소)		11,998 (개)	7,485,280 (명)
청주시 (15)	청주시립도서관	366	521,800
	청주상당도서관	391	274,832
	청주청원도서관	402	370,579
	청주오창도서관	212	47,715
	오창호수도서관	491	570,352
	청주시립오송도서관	486	460,941
	청주서원도서관	284	326,079
	청주흥덕도서관	288	404,362
	청주신울봉어린이도서관	221	68,015
	강내도서관	185	82,865
	옥산도서관	52	40,049
	청주기적의도서관	380	115,900
	충북교육도서관	1,352	533,300
	충북학생교육문화원	128	13,579
	미원교육도서관	138	50,941
충주시 (4)	충주시립도서관	698	597,452
	엄정꿈터도서관	124	41,359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	446	212,854
	중원도서관	158	23,643
제천시 (6)	제천시립도서관	156	438,185
	제천여성도서관	144	166,661
	봉양도서관	48	30,092
	제천시립의병도서관	5	2,010
	제천기적의도서관	200	66,708
	제천학생회관	425	154,249
보은군(1)	보은도서관	183	100,455
옥천군(2)	옥천도서관	355	98,887
	옥천군민도서관	272	134,350



구분		좌석 수	연간 이용자 수
영동군(2)	영동도서관	209	76,050
	레인보우영동도서관	200	162,044
증평군(2)	증평도서관	228	129,280
	증평군립도서관	423	270,421
진천군 (4)	진천도서관	283	31,894
	진천군립광혜원도서관	100	60,123
	진천군립도서관	372	134,470
	생거진천혁신도시도서관	132	123,232
괴산군(1)	괴산도서관	326	45,908
음성군 (4)	음성도서관	235	85,735
	금왕도서관	102	66,783
	음성대소도서관	115	36,520
	감곡도서관	200	71,250
단양군(3)	단양도서관	187	25,539
	매포도서관	116	39,823
	다누리도서관	180	177,994

I 문화재

○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되어 보호 및 관리되고 있는 충북의 문화재는 2018년 기준 국가 지정문화재 183개, 시도지정문화재 591개, 등록문화재 29개로 총 803개임

〈표 1-5-27〉 전국 문화재 현황

(단위 : 개)

지역	2014년			2016년			2018년		
	국가지정 문화재	시도지정 문화재	등록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	시도지정 문화재	등록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	시도지정 문화재	등록 문화재
서울	884	417	166	896	516	177	1,021	584	203
부산	46	280	15	46	344	18	74	384	19
대구	71	150	10	76	159	11	92	167	11
인천	64	172	7	64	186	7	68	188	8
광주	21	107	10	21	110	13	25	112	19
대전	8	178	18	10	177	21	19	189	21
울산	15	104	5	18	107	6	20	116	6
세종	4	35	0	4	37	0	4	40	0
경기	280	624	54	273	665	68	297	737	85
강원	172	391	35	180	409	37	191	419	40
충북	153	554	23	168	565	23	183	591	29
충남	212	726	43	218	730	52	256	745	60
전북	178	579	48	187	597	59	202	636	68
전남	354	739	70	364	746	74	382	770	100
경북	618	1,288	31	631	1,308	35	678	1,392	47
경남	286	1,337	38	295	1,420	42	308	1,533	44
제주	78	120	21	79	121	22	86	277	24
기타	69	0	0	92	0	0	92	0	0
계	3,513	7,855	594	3,622	8,197	665	3,999	8,873	784

자료 : 문화재청, 문화재 연감 재구성, 2019 ((2018. 12. 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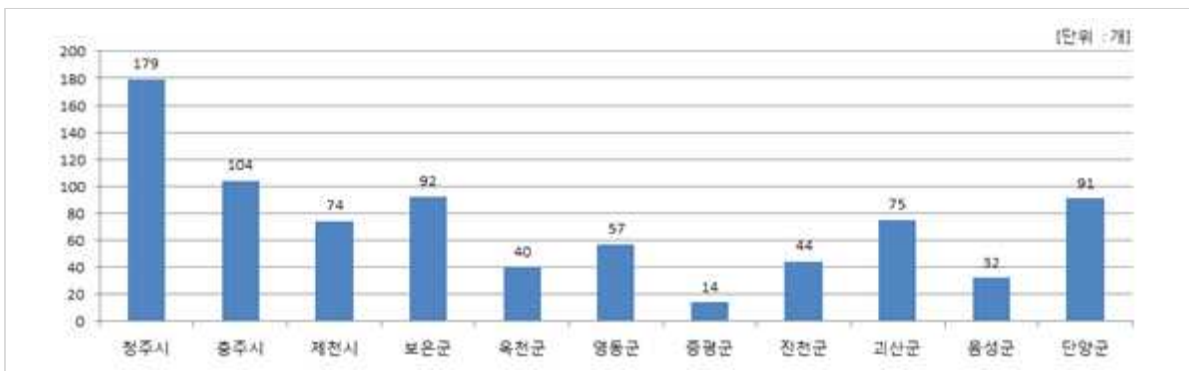
- 충북도는 시도지정문화재 중 유형문화재가 316개(63.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청주시가 문화재 179개(국가지정문화재 39개, 시도지정문화재 114개, 문화재자료 14개, 등록문화재 12개)로 가장 많았으며, 충주시 104개, 보은군 92개, 단양군 91개, 괴산군 75개, 제천시 74개 순으로 조사됨

〈표 1-5-28〉 충청북도 문화재 현황

(단위 : 개)

시·군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문화재 자료	등록 문화재
	국보	보물	사적 및 명승	천연 기념물	국가 민속 문화재	국가 무형 문화재	유형 문화재	시도 기념물	시도 민속 문화재	무형 문화재		
충북	12	94	29	23	21	4	316	136	20	28	91	29
청주시	3	24	4	2	6	-	74	27	3	10	14	12
충주시	3	11	7	-	2	1	40	20	-	3	16	1
제천시	-	6	2	1	2	-	41	12	2	1	2	5
보은군	3	13	3	4	2	1	34	9	4	4	15	-
옥천군	-	1	-	1	-	-	13	12	1	-	10	2
영동군	-	6	-	2	4	-	16	13	2	3	8	3
증평군	-	-	1	-	-	-	5	6	-	1	1	-
진천군	-	2	2	1	-	1	13	15	2	1	5	2
괴산군	-	6	3	7	2	1	24	11	4	1	14	2
음성군	-	6	-	-	2	-	13	5	1	-	3	2
단양군	3	19	7	5	1	-	43	6	1	3	3	-
충북전역	-	-	-	-	-	-	-	-	-	1	-	-

자료 : 충청북도, 문화재 현황 재구성, 2019 ((2019. 3. 기준))



〈그림 1-5-19〉 시·군별 문화재 현황

I 문화공간

○ 충청북도 내 공공공연장은 21개, 민간공연장은 6개, 영화관 21개가 있으며 미술관은 11개소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도내 전체 시·군 지역 중 영화관이 없는 지역은 보은군, 증평군, 단양군임

〈표 1-5-29〉 문화공간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공연시설			전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기타시설		
	공공 공연장	민간 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화랑	시군 구민 회관	종합 복지 회관	청소년 회관	문화원	국악원	전수 회관
충북	21	6	21	11	1	5	47	32	11	1	6
청주	4	6	11	9	-	-	16	3	1	-	3
충주	4	-	4	1	1	1	16	2	1	1	2
제천	2	-	1	-	-	1	3	8	1	-	-
보은	1	-	-	-	-	-	2	5	1	-	-
옥천	1	-	1	-	-	1	1	2	1	-	-
영동	4	-	1	-	-	-	2	3	1	-	1
증평	1	-	-	-	-	-	2	2	1	-	-
진천	1	-	1	1	-	1	3	3	1	-	-
괴산	-	-	1	-	-	-	-	-	1	-	-
음성	1	-	1	-	-	-	-	-	1	-	-
단양	2	-	-	-	-	1	2	4	1	-	-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9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1) 상위계획

(1)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Ⅰ 계획의 비전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 모두를 위한 국토

- 다양한 세대와 계층, 지역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포용국가 기반을 갖추고, 좋은 일자리와 안전하고 매력적인 정주 환경을 갖춰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지속 가능한 국토를 조성

□ 함께 누리는 삶터

- 삶의 질, 건강 등 우리 국민이 중요시하는 가치를 주거공간, 생활공간, 도시공간 등 다양한 국토 공간에서 구현하고, 깨끗하고 품격 있는 국토 경관 조성 및 산지, 해양, 토지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로 행복한 삶터를 구현



〈그림 1-5-20〉 제5차 국토종합계획 계획의 기초 : 비전, 목표, 전략

I 계획의 목표

□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국토 (국토기본법 제2조 및 제3조, 국토계획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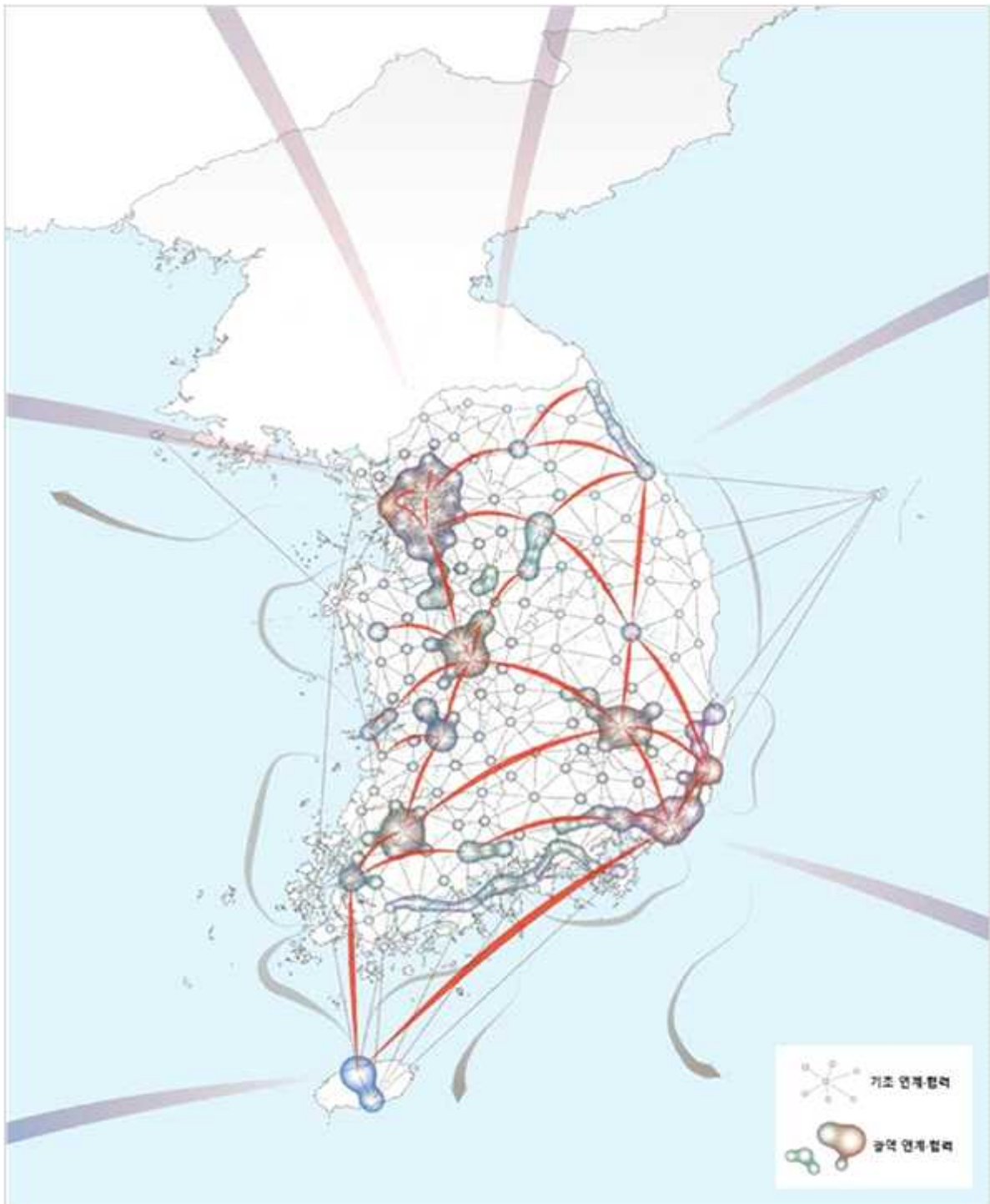
-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성과와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체계적으로 대비하여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국토를 조성
 -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어디에 살더라도 적절한 서비스를 누리고 기회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 추진의 한계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균형 국토를 조성
 - 중앙정부와 지역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 간 연대와 자율적 협력을 유도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추진

□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국토 (국토기본법 제2조 및 제5조, 유엔 지속 가능 발전 목표(UN SDGs), 국토계획헌장)

- 접근성 기반의 생활 SOC 확충, 국토의 회복력 제고 등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안심 생활국토 조성
 - 기후변화 등 환경 이슈에 대응하고, 생태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국토 자원과 경관 관리를 통한 국토매력도 제고
- 초연결·초지능화 시대로의 전환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발전을 국토관리와 이용에 활용하여 국민의 편리함과 국토의 지능화 실현
 - 네트워크 효율화와 고속서비스로 전국을 평균 2시간대, 대도시권은 30분대로 연결,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 추진, 지능형 국토관리체계 구축

□ 건강하고 활력 있는 혁신국토 (국토기본법 제2조 및 제4조, 국토계획헌장)

- 신산업 육성 기반 조성, 지역 산업 생태계의 회복력 제고 등 여건 변화에 맞는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활력 제고
- 3대 경제벨트를 중심으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이행하고, 유럽까지 이어지는 교통·물류 기반 조성과 국제협력 강화 등 글로벌 위상 강화
 - 대륙연결형 국토 골격을 형성하여 글로벌 국가경쟁 기반을 강화



〈그림 1-5-21〉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국토 구상

2) 법정계획

(1)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재수정계획(2011~2020)

Ⅰ 계획의 비전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 지역·부문·계층·산업 간 균형발전 -

Ⅰ 계획의 목표

□ 균형발전과 미래 산업의 중심거점

- 혁신주도형 경제발전 기반을 확립하고 유무형의 고부가가치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신성장동력으로 경쟁력 있는 다이내믹한 산업경제 선도지역 충청북도 달성
- 지역 산업입지 경쟁력을 제고하여 해외 기업유치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관광자원을 미래형 신산업으로 육성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 특색 있고 살맛나는 문화지역

-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 전체가 누릴 수 있는 고품격 문화·예술 기반 확충
-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명품 개발 추진과 충청북도를 선도할 창의적 명품관광 프로젝트 개발

□ 상생하며 발전하는 농촌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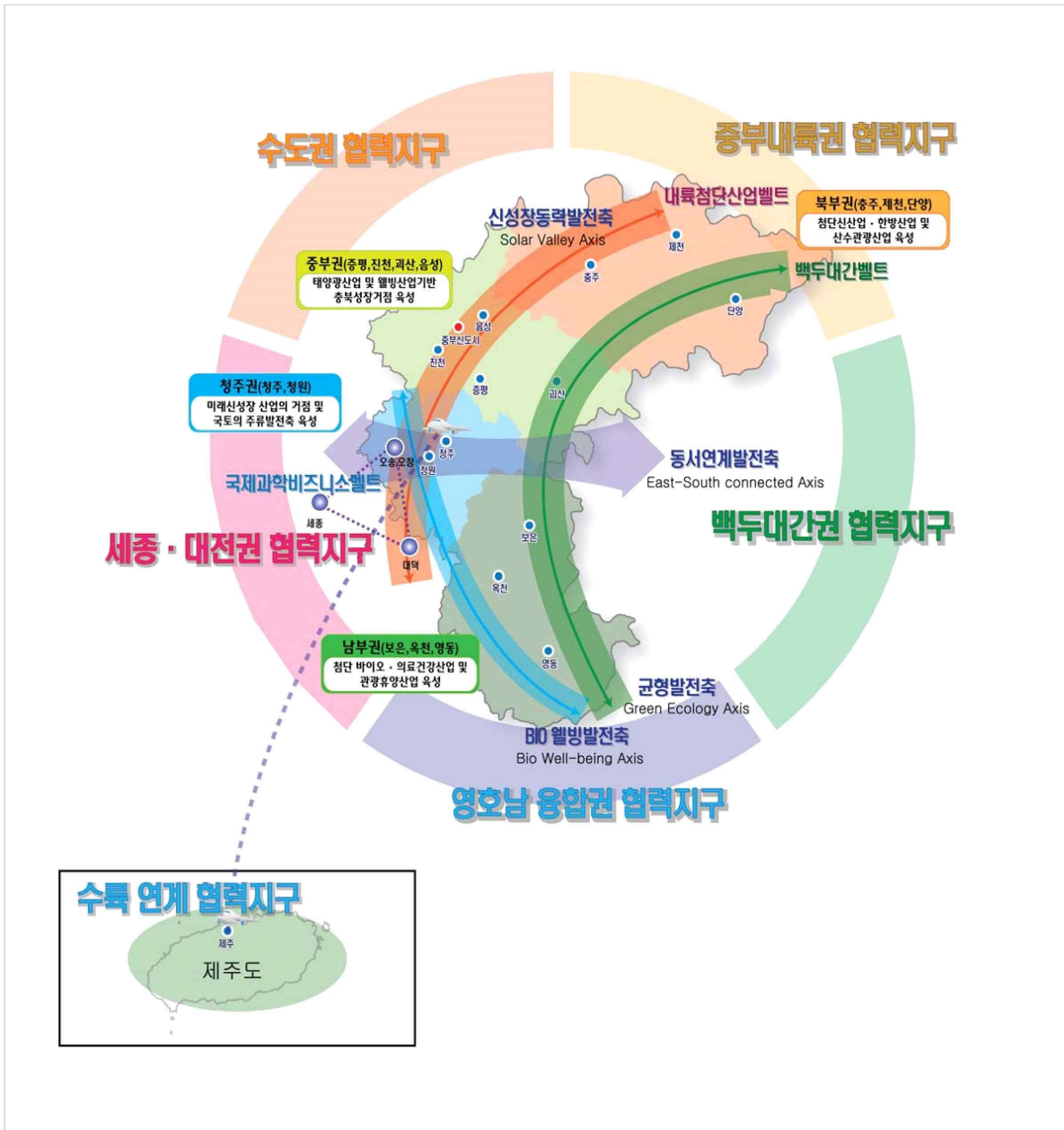
- 고품질의 농산물로 개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 어메니티를 증진하여 농촌 도시 균형발전 실현
- 농촌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도시민의 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 재창출과 이를 통한 농촌의 소득 증대로 균형 있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 도시의 균형발전 달성

□ 찾아가는 복지 건강한 녹색 사회

-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양극화로 양산된 취약계층의 사회적 소외를 해소하고,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여 공동이익이 균형 있게 배분됨으로써 함께 만족하는 성숙한 사회 구현
- 여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도내 다문화 가정에 대한 배려와 국민의 일원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평등사회를 구현

□ 생명이 숨 쉬는 아름다운 자연 충청북도

-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해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건강한 자연환경 창출
- 기후 변화 시대에 모든 도민을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민이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



〈그림 1-5-22〉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2차 수정계획(2011-2020) 발전계획도

I 추진전략

- ☐ 살기 좋은 농촌·도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 신산업과 전통산업이 조화된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 미래형 3차원 첨단 신산업 육성
 - 신성장 녹색친환경 고부가가치 농림축산업
 - 글로벌 시대 국제 교류 및 통상 역량 강화
- ☐ 함께하는 문화 충청북도, 명품 테마 관광 실현
 - 함께 누리는 행복 문화
 - 생명력 넘치는 선진형 웰빙관광 충청북도 실현
 - 활력 있는 녹색농촌관광 활성화
- ☐ 저탄소 녹색성장 교통·물류·정보 통신망 구축
 - 내륙권 발전과 연계한 통합 교통망 체계 구축
 - 차세대 정보 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U-거버넌스 구축
- ☐ 쾌적한 생활 및 따뜻한 복지체계 구축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안정적인 용수공급계획
 -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회복지·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
 - 창조 교육환경 조성 및 평생 생활체육 구현
- ☐ 기후변화에 대응한 자원의 개발과 효율적 관리
 - 지속 가능한 토지이용과 관리
 -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 신재생에너지 및 지역 자원 개발



☐ 환경 보전 관리 및 경쟁력 있는 경관 관리

- 환경 보전을 통한 자연이 숨 쉬는 청정 충청북도 실현
-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경관계획 수립

☐ 지역의 안전과 재난재해에 강한 충청북도 구현

- 방재형 도시 구축 방향 및 추진과제

(2) 제6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2017~2021)

Ⅰ 계획의 비전

생명, 자연, 여유 !
대한민국 최고의 힐링관광 충북

- ☐ 천혜의 자연환경에 첨단기술을 연계한 중부권 힐링관광의 중심지
- ☐ 수도권과 영남, 관동과 호남을 잇는 국토 X축의 결절지
- ☐ “이동은 짧게, 감동과 여운은 길게”를 주제로 하는 국민여가활동의 최적지

Ⅰ 계획의 목표

- ☐ 선제적 외래관광객 유치 - 국토 중심 힐링·슬로우 관광 거점화
 - ‘내륙의 섬, 충청북도’를 국토 중심의 힐링·슬로우 관광의 중부권 거점지로 육성함으로써 선제적 외래관광객 유치를 도모함
 - 선제적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2D3P 기반의 다양한 힐링 관광지 개발, 지정 관광지 및 관광 특구의 활성화, 경쟁력 있는 테마 명품길 조성 등의 전략을 추진함
- ☐ 도내관광의 외연 확장 - 지역별 테마관광 활성화 및 외연 확장
 - 정주권 중심의 생활관광, 근거리관광을 활성화함으로써 도민들의 도내관광의 외연 확장을 추진하며, 이는 외래관광객 도내 유치와 같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도내관광의 외연 확장을 위해 시군별 특화자원 인프라 구축, 도시관광의 활성화, 다양한 테마별 관광코스 개발 등의 전략을 추진함
- ☐ 관광향유를 통한 도민행복 증진 - 창조적인 관광진흥사업 육성
 - 창조적·차별적인 융복합 관광상품 개발과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방식 도입 등을 통해 도민의 관광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관광향유를 통한 도민행복 증진에 기여함
 - 궁극적으로 관광향유의 폭을 넓힘으로써 도민 모두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홍보 및 마케팅 도입, 차별적 축제상품 개발 및 육성, 융·복합 관광상품 콘텐츠 발굴 등의 전략을 추진함



〈그림 1-5-23〉 제6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 기본구상

Ⅰ 추진 전략

□ 국토 중심의 힐링·슬로우 관광 거점화

- 전국으로부터 최적의 접근성을 지닌 국토 X축의 중심이라는 이점을 살려, 중부권 대표적 여가 휴양지로서의 이미지를 현실화하고자, 외래관광객의 도내 유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국토 중심 힐링·슬로우 관광의 거점화’로 설정함
- 힐링 및 슬로우 개념은 새로운 능동적 여가문화 소비계층으로 등장한 ‘뉴 시니어(New Senior)’ 층의 ‘젊음, 향수, 자아’를 키워드로 하는 적극적인 관광 소비 행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 뉴 시니어(New Senior)
 - 기존 고령세대와 달리 여유 있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은퇴 이후에도 잠재 소비성향이 강함
 - 사회 및 여가·문화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
 - 우리나라에서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 주목

- 한편 백두대간 고갯길 및 충주호, 대청호가 연계된 천혜의 자연환경은 최근 점차 확산되어 가는 자전거, 등산 등 건강이 접목된 친환경 레포츠로서의 OR(Outdoor Recreation) 최적지로 부각되고 있음

□ 지역별 테마관광 활성화 및 외연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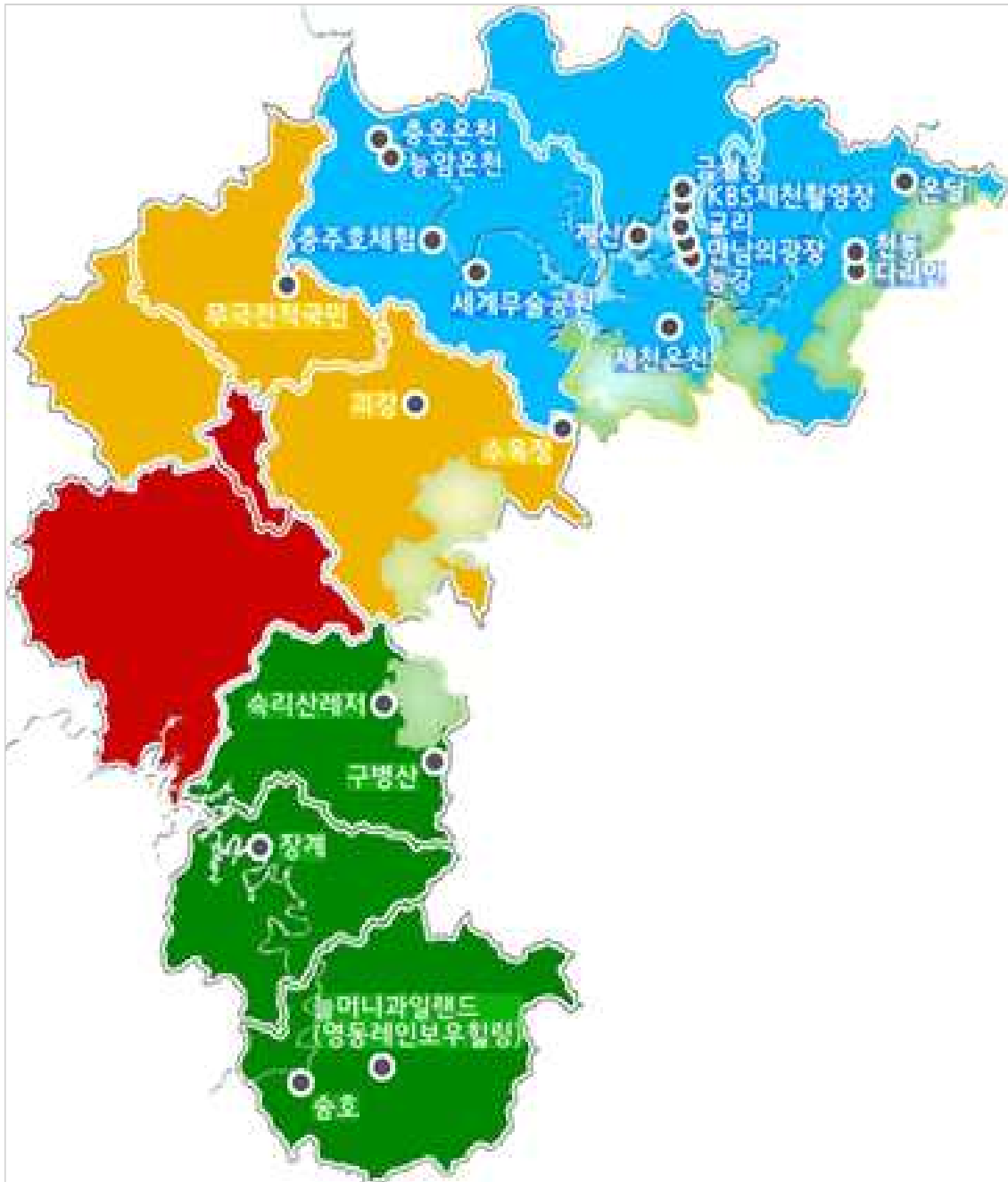
- 근자열 원자래(近者悅 遠者來),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는 공자의 말은 최근 여가·관광활동의 일상화 및 다양화, 일상 공간의 관광화 추세가 확산되는 경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 최근의 관광 추세인 키포크(Kinfolk) 라이프를 기반으로 한 단거리 여행 증가와 휴일을 활용한 근교 여행 선호, 경제 추세를 반영한 칩시크(Cheap-Chic) 추구 성향의 실속형 관광소비의 확산 등을 감안하여 단거리 관광 기반의 ‘지역별 테마관광 활성화 및 외연 확장’으로 설정함

- 키포크 라이프(Kinfolk Life)
 - ‘친척’이라는 의미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자연친화적으로 여유롭고 소박하게 사는 삶의 방식
- 칩시크(Cheap-Chic)
 - ‘저렴하면서 멋진’이란 의미로, 상품 브랜드보다 가격 대비 가치가 높은 상품을 중시하는 소비문화 영향

- 단거리 관광은 지역 내 관광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바, 지역 내 관광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측면에서 볼 때, 도민의 관광행위가 도내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외지관광객의 유입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지니고 있음

□ 창조적인 관광진흥사업 육성

- 최근 들어 점차 단체여행에서 개별자유여행으로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관광 분야에 있어 힘의 중심이 기존 관광 공급자에서 관광 소비자로 옮겨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 한편 관광행위의 기초가 되는 정보습득의 중요한 통로로 모바일이 이용되고 있는 바, 모바일 생태를 활용한 적극적인 관광홍보 방안이 필요함
- 이에 ‘창조적인 관광진흥사업 육성’을 통해, 중부권의 대표적 여가휴양지로서의 충청북도 관광 활성화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가속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관광상품 및 콘텐츠 개발과 관광 동향에 따른 현실적인 홍보·마케팅 전략 등을 제시함



〈그림 1-5-24〉 제6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2017-2021) 충북 지정관광지 위치도

(3) 2025년 행복 중심 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Ⅰ 계획의 비전 및 목표

비전	『중원국토의 블루오션 청주 광역권』		
목표	경제 (Economy)	환경 (Environment)	형평 (Equity)
	도시경제의 안정적 성장	생태적 지속 가능성 확보	균형 삶의 질 구현

Ⅰ 공간구조 개편 방향

□ 청주시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거점 기반 마련

- 세종시의 관문도시로서 청주국제공항으로부터 세종시까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변 거점 지역 간 연결로를 확충하고 교통수단 이용이 용이하도록 연계교통 체계를 구축
- 청주국제공항과 고속철도 오송역을 통한 세종시의 관문으로 국제 교류 및 광역적 도시 서비스 기능 보완

□ 첨단산업 (BT, IT, GT) 집중 육성으로 경제 기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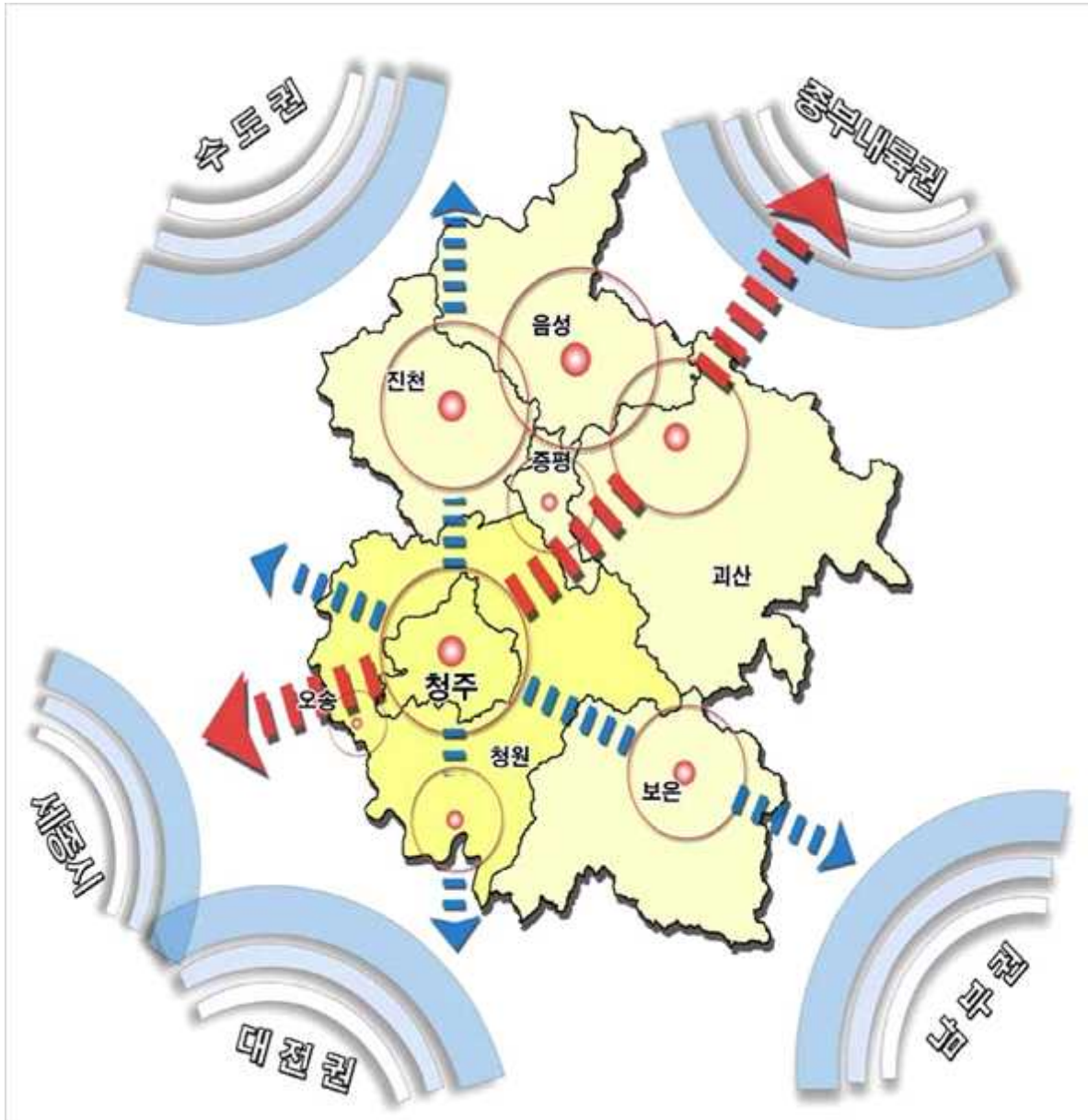
- 청주, 진천 등 지역 내 IT, BT 분야의 R&D 및 생산거점이자 대덕특구, 천안·아산,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양호함을 고려하여 충북의 중핵 클러스터 역할 기대
- 생명산업, 보건의료산업, 차세대 반도체, 항공우주(오송·오창) :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을 중심으로 육성
- 진천, 음성을 중심으로 증평, 괴산을 연계하는 BIT클러스터 구축

□ 연계교통망 확충을 통한 지역 간 사회 경제적 통합

- 청주공항과의 접근성 개선, 청주와의 직결노선, 중부 신도시와의 BRT 연결노선, 연기·공주 연결 도로 확장 등 연결도로망 정비
- 세종시 건설에 맞추어 KTX 오송분기역과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고,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외삼역과 연결하는 국도 1호선을 확장하면서 2개 노선에 BRT를 설치하여 대중교통수단 구축

□ 청주광역시 도시 간 녹색산업 R&D 허브 조성

- 광역권 내에 환경업체, 환경 분야 연구 자원 및 에너지 분야 연구기관 및 이들과 관련된 벤처기업, 저오염형 제조업체 등을 유치하고 이들을 산업생태 네트워크로 연계시키고 클러스터화
- 산업단지 경관개선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에코디자인(eco-design) 개념을 적용하여 산업-환경오염-자연 생태-경관이 조화되는 산업공원(industrial parks) 개발 전략으로 추진



〈그림 1-5-25〉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개발축 구상

3) 관련계획

(1) 제4차 충청북도 발전계획(2018~2022)

I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강호축의 중심 충북



목표

- ◆ 강호축 완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중심 충북
- ◆ 품격있는 삶을 누리는 행복 공동체 충북
- ◆ 조화롭게 발전하는 균형발전 선도지역 충북
- ◆ 초연결사회를 선도하는 혁신거점 충북
- ◆ 포용과 개방의 창조공간 충북
- ◆ 세계와 소통하는 개방형 네트워크 충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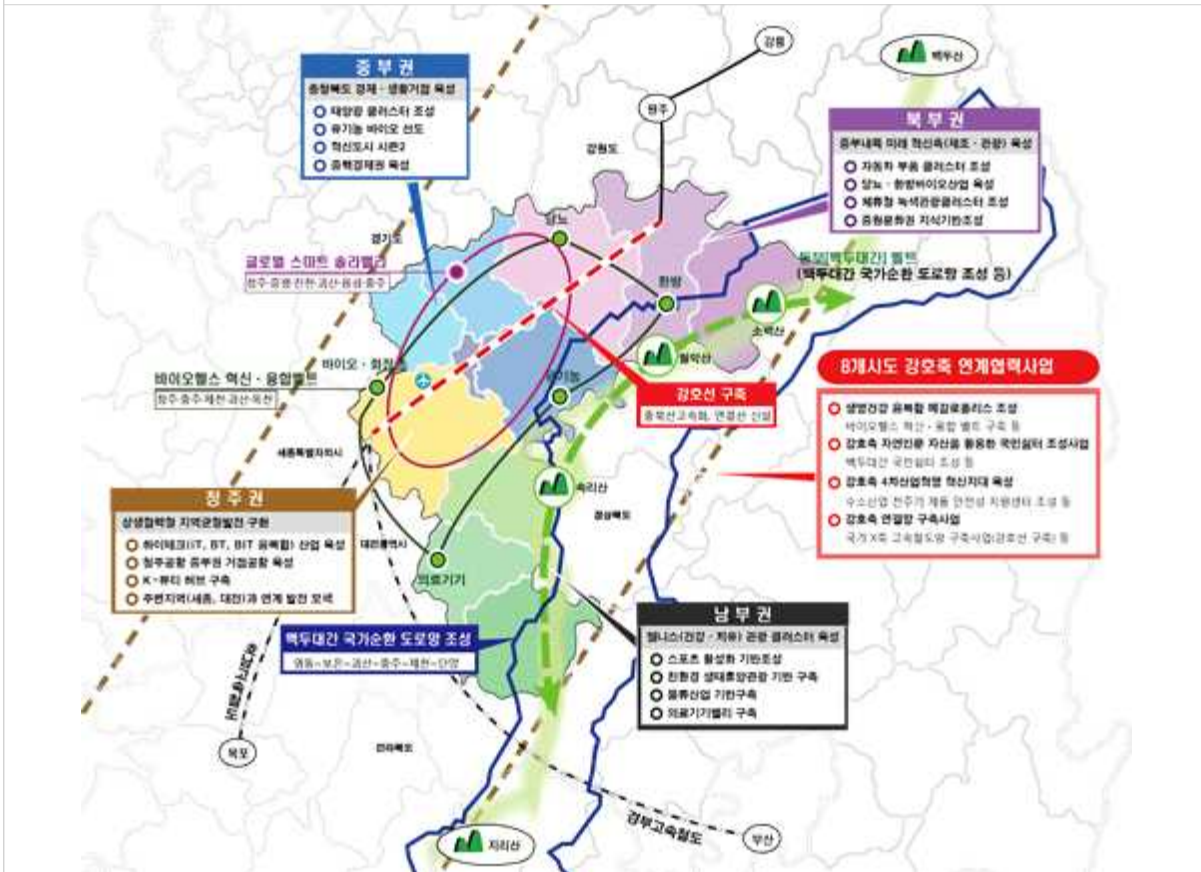
추진
전략

- ◆ 강호축 육성을 통한 미래먹거리 창출기반 구축
- ◆ 발전지역, 저발전지역 불균형해소 및 지역체감형 특화사업 발굴
- ◆ 행정주도에서 주민 주도의 참여기회 확대
- ◆ 계층적 행정시스템보다는 통합적 거버넌스체계 구축
- ◆ 시설 위주 사업(하향식)에서 프로그램 중심 사업(상향식) 확대
- ◆ 단편적, 형식적 자문에서 탈피한 통합컨설팅 시스템 구축

I 핵심성과지표 및 공간구상

□ 공간발전구상

- 경부축에 대응한 강호축 육성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는 개방형 네트워크 충북
- 권역별 특화발전을 위한 초연결사회를 선도하는 혁신거점 충북



〈그림 1-5-26〉 제4차 충청북도 발전계획(2018~2022) 발전구상도

□ 핵심성과지표

지표	단위	2018	2022	증감
(공통)1인당 GRDP	백만 원	37	45	8
(공통)일자리 수	천 명	689	790	101
(자율)관광객 수	천 명	27,280	32,003	4,723
(자율)도시재생사업 건 수(누적)	개소	8	26	18
(자율)수출액	백만 원	24,200,000	27,500,000	3,300,000
(자율)고용률	%	69.30	73.00	3.70

I 주요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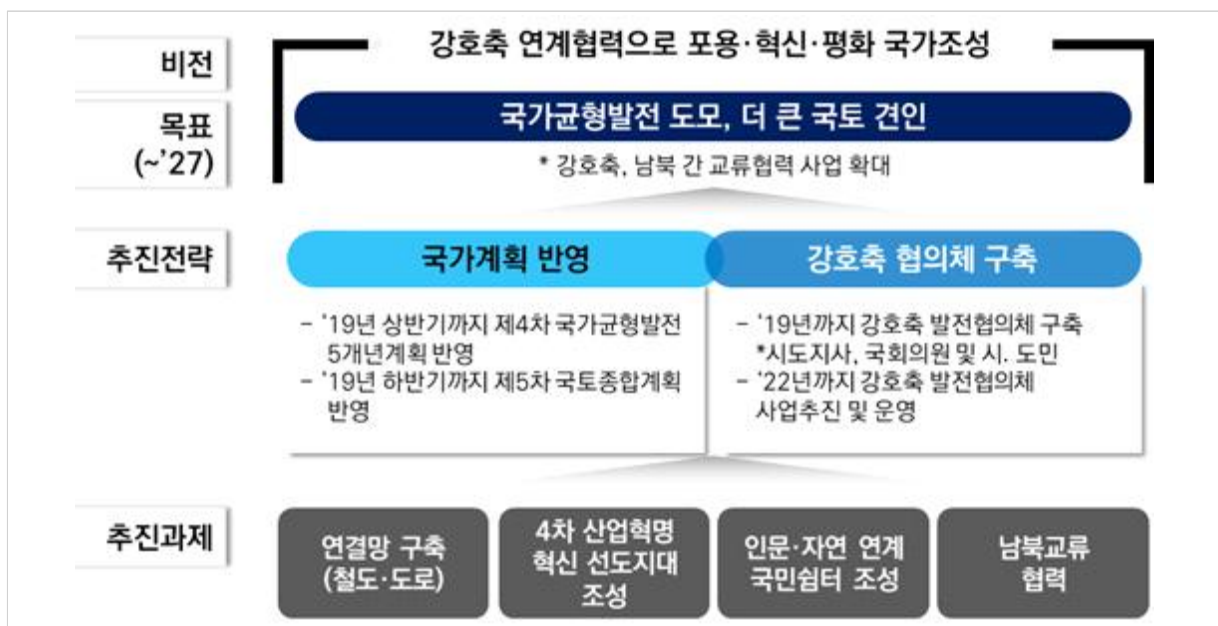
분야	주요사업
강호축 연계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호축 연결망 구축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X축 고속철도망 구축, 대전 ~ 세종 ~ 청주 간 광역 순환철도망 건설 ▶ 강호축 자연·인문 자산을 활용한 국민쉼터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두대간 국가 순환 도로망 조성, 백두대간 국민쉼터 조성 ▶ 강호축 생명건강산업 융복합 메갈로폴리스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방천연물 산업밸리 조성, 유기농 푸드밸리 구축 ▶ 강호축 4차 산업혁명 전이지대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주행 자동차 클러스터, 스마트 제조혁신 지역거점센터 구축
충북 특화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스마트(SMART) 솔라밸리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고층 태양광 설비 융복합 실증센터 구축, 신재생에너지 산학지구 육성
(사람) 품격있고 행복한 충북도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일자리) - 공급(인재) 맞춤형 연계 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전문대학 육성 ▶ 고령화 시대 누구나 행복한 복지전달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88 행복나눔미,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 문화향유권 보장 및 역사·문화·자연자원의 가치 창출을 위한 연계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청호 생태관광벨트 조성,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공간) 하나되어 어울리는 충북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호축 육성을 위한 교통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호선 구축(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동서 간 연계 발전을 위한 동부벨트 구축(백두대간 국가 순환 도로망 조성) ▶ 농촌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거주 강소지역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신활력 플러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생산적 일손 봉사 운영 지원 ▶ 건강한 스마트도시 육성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 뉴딜(중심시가지, 주거지 지원, 일반 근린 등)
(산업) 특색있게 살아나는 지역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및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 국가혁신클러스터 운영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헬스혁신·융합벨트 구축, K-뷰티 허브 구축, ICT 융복합 활성화 기반 구축 ▶ 지역 내 유휴자산의 활용을 통한 균형발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지역내 불균형 해소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권역 간 불균형 격차 해소를 위한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세포 확충형 모자이크 프로젝트 추진

(2) 강호축 종합발전계획(2018~2022)

Ⅰ 비전 및 목표

강호축 연계협력으로 포용·혁신·평화 국가 조성
- 국가균형발전 도모, 더 큰 국토 건인 -

□ 추진체계도



〈그림 1-5-27〉 강호축 종합발전계획(2018~2022) 비전달성 체계도

Ⅰ 추진전략

□ 국가계획 반영

- 국가계획 반영을 통해 국민 인식에 강호축을 각인하고 향후 국가 및 지역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근거로 활용
-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 반영
- '18년 10월, 시도별 발전계획 수립
 - 8개 시도별 발전계획에 강호축 종합발전계획 내용 연계 반영 완료
- '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 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확정 및 대통령 승인·고시

□ 강호축 시도협의회 구축

- 강호축 시도 간 협의회 구축을 통해 공동 추진체계 정립 및 국민 공감대 마련
 - 강호축 시도 연구원 네트워크 구축('18. 4) 및 정례 간담회 운영 중
 - 강호축 제1차 국회토론회('18. 2. 5) 및 제2차 국회토론회('18. 11. 5) 개최
 - (사) 목포포럼·박지원 국회의원·목포상공회의소 주관 강호축 고속철도 연결을 통한 목포발전전략 토론회('18. 12. 27) 개최 등 시도별 공감대 확산 중
- '19년까지 강호축 발전협의회 구축 (시도지사, 국회의원 및 사·도민)
 - 8개 지역 시장·도지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강호축 공동건의문 채택('17. 10)
 - 8개 지역 시장·도지사 강호축 공동선언문 채택('18. 2. 5), 제2차 강호축 공동건의문 서명식('18. 8. 14)
 - 강호축 충북 범도민협의회 발족 ('18. 8. 29)
- '22년까지 1단계 강호축 발전협의회 사업 추진 및 운영

Ⅰ 추진과제

□ 강호축 연결망 구축

- 철도 및 도로 구축을 통한 강호축 연계 기반 조성

□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지대 육성

-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창출

□ 인문·자연 연계 국민쉼터 조성

- 역사 문화 등 인문자산과 백두대간 등 자연자산 연계를 통한 강호축 문화관광 활성화

□ 남북 교류협력 촉진

- 산림, 스포츠 등 실질적인 남북 교류협력 사업 창출



〈그림 1-5-28〉 강호축 자산과 미래상

(3) 충청북도 지역개발계획

Ⅰ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 2017~2026

새로운 기회의 땅, 뉴-스타트(New-Start) 지대

- ☐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 ☐ 미래 가치자원의 발굴로 신 문화·관광 융합지대 조성
- ☐ 품격 있는 정주 환경 조성

Ⅰ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 2019~2028

새로운 번영의 땅, 뉴-허브(New-Hub) 지대 육성

- ☐ 중심기능 강화로 선순환 지역발전 도모
- ☐ 미래산업 육성과 통한 지역 경제영토 확장
- ☐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정주환경 개선

Ⅰ 계획의 공간권역 및 개발 방향

☐ 공간권역 설정 및 핵심 키워드

○ 지리적인 인접성과 인프라 확보 정도를 고려하여 권역을 구분하고, 잠재자원, 산업 경제, 생활권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발전축과 권역을 설정

- 청주권 : 첨단문화산업 기업 유치, 반도체 중심 IT업체 육성, 정주여건 고도화
- 중부권 : 신성장동력산업(태양광 + 전기·전자 융합 부품 + 첨단), 귀농·귀촌
- 북부권 : 중부내륙권 성장거점, 체험관광, 치유(한방)
- 남부권 : 지역특화산업, 자연·역사·문화·자원, 융·복합

□ 권역별 개발 방향

○ 청주권 : 통합 청주시

- 하이테크산업(IT, BT, BIT 융·복합 등)을 기반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
- 도시 비즈니스 관광 산업을 개발하여 새로운 도시 관광 자원을 창출 유도

○ 중부권 :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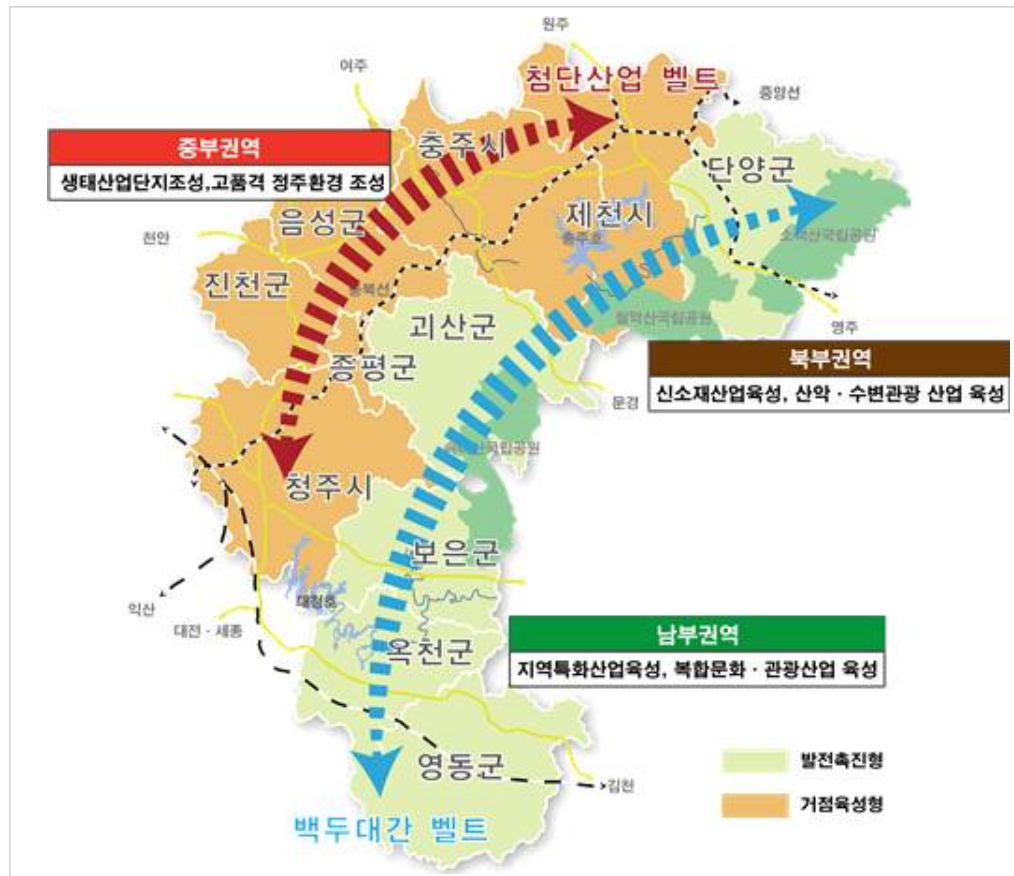
- 증평군의 태양광 발전 관련 벤처기업 육성, 진천군의 전자부품사업 중심의 기업유치, 음성군의 첨단 산업 유치 및 청정 기술형 첨단산업단지 조성

○ 북부권 :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 성장거점공간 육성(한방의료, 증원문화, 관광산업 육성 등), 관광산업 연계권역 형성
- 성장거점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우수 인력의 유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급인력이 선호하는 정주여건의 확충을 통한 지역 발전 도모

○ 남부권 :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 지역특화산업과 미래지향적 관광산업(지역 내 자연환경 + 역사·문화자원 연계) 등의 육성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지역발전 촉진



〈그림 1-5-29〉 충청북도 지역개발계획 공간구상도

제3절 여건변화 전망 및 도종합계획 재수정계획(2011-2020) 평가

1) 여건변화 전망

Ⅰ 거시적 여건변화와 전망¹⁾

□ 인구 감소와 구조 변화로 국토정책 방향의 전환 불가피

- 통계청이 공표한 장래인구 추계치를 기초로 2040년 장래인구분포 분석 결과, 2019년 현재 국토의 거주 지역 가운데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지역은 81.03%,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은 18.96%로 전망
-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자 비율이 증가하는 등 인구 구조의 변화는 국토정책 목표와 전략 우선순위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전망
- 고령자 가구가 증가하여 2040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45% 내외 정도를 차지하고 1인 가구, 다문화 가구의 증가 등 인구 구조와 가족 형태 변화 예상
 - 지금까지의 국토정책은 거시적·총량적인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였으나, 삶의 질·건강·안전 등 미시적·질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 예상

□ 경제성장 잠재력의 둔화와 양극화·노후화

- 글로벌 경제의 성장 잠재력 둔화와 함께 국내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경제성장률 저하 등으로 저성장 경제기조 지속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2018.12)에서 추정한 우리나라 잠재GDP성장률은 2020년 2.8%에서 2030년 2.3%, 2040년 1.5%로 지속 감소 전망
 - 1970~80년대 산업화·도시화 시기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산업단지 등 국가기반 인프라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국가 혁신성장 지체와 국민안전 위협 우려
 -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경우 2040년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단지 중 약 40%가 노후 산업단지로서 미래 국가혁신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로 작용
 - 저성장의 지속으로 재정 투자 여력이 감소하면서 인프라 신규 투자보다는 도시재생, SOC 유지관리 등 기존 시설 이용의 효율화 요구 증가
-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커지면서 세대 간, 계층 간 양극화 등이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공정에 대한 요구 증대 전망
 - 2017년 기준 전 국민의 32.6%가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 상위 10%가 전체 사유지의 77%를 소유, 토지소유 상위 1%가 31.7%를 소유하는 등 토지소유의 편중이 고착화되는 추세
 - 생활SOC 등 공공서비스 수혜의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국가 최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과 계층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 필요

1)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내용을 재구성

□ 기후변화 대응과 삶의 질에 대한 정책 요구 증가

○ 기후 변화에 따른 대형 재난·재해 증가로 지구적 차원의 공조 필요

- World Economic Forum(2019)은 미래 발생가능성과 파급력이 높은 글로벌 리스크로 극심한 기상 이변, 기후 변화 완화·적응 실패, 자연재해, 인공 환경 재해 등 환경 요소 선정
- 에너지와 자원 부족, 온실가스 국제 기준 준수 강화 등으로 에너지 과소비형 국토 이용 방식의 변화 요구가 증대할 전망

○ 삶의 질·환경·안전·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환경 가치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아지면서 국토 이용과 생활 방식의 변화가 예상

- 국민의식조사(2018) 결과, 국토 미래상 실현을 위해 핵심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로 삶의 질, 친환경 등을 중시해야 할 가치로 선정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혁신적 생활공간 조성 and 국토관리

○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 등 데이터 분석기술 발달은 경제사회와의 융합, 국토관리와 생활공간의 지능화를 가속화시킬 전망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버스 노선 조정 등 이전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정책 수행 방식이 대두되고, 국민의 정책요구 수준도 높아질 전망
- 자율주행 자동차 등 미래형 교통수단, 스마트항만·공항 등 교통·물류·인프라 혁신, 인공지능·수소 경제 등 다양한 신산업 출현으로 전 국토의 변화 예상

○ 새로운 정책 수요와 기술의 결합으로 혁신적 국토 이용 방식의 확산

- 일과 생활의 균형(work-life balance),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여가·문화 향유 요구, 공유경제 형태 등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확대
- 기술 발달로 인한 거리 단축, 산업입지 및 주거·이동·경제 활동에서 공간적 제약의 완화 등 국토 이용 방식의 변화 확산 전망

□ 남북 교류·협력 확대와 국가 간 주도권 확보 경쟁 심화

○ 남북한 교류·협력 확대와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통합적 경제 기반 실현을 위한 인프라와 제도 정비 필요

○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와 경제,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경쟁 증가 전망

- 중국의 일대일로, 중-몽-러 경제회랑 조성 등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을 둘러싼 국가 간 주도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 신북방·신남방정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동아시아 국가들과 경제·문화·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국가 간 협력모델이 형성될 전망

□ 분권화와 참여 확대를 통한 새로운 국토정책 거버넌스 요구

- 지방분권화의 전개로 지역의 주도권 확보 요구가 높아지고, 자치분권체제 확립으로 중앙-지방 간의 동반자적 협력 관계 확대
 - 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등 자치환경 변화에 따라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 행정 효율성 제고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확산 전망
-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직접 참여와 소통 요구 등 새로운 국토정책 추진 체계 실현 전망
 - SNS 등 소통도구를 활용하여 국정 및 지자체 정책 추진 과정에 참여가 확산되는 등 참여와 소통 기반의 거버넌스체제 운영 확대

Ⅰ 충북의 여건 전망

□ 균형성장을 위한 새로운 지역 발전 기반 필요성 대두

- 지역 간 균형발전과 새로운 성장 동력 구축을 위한 강호축 육성(교통인프라, 산업단지 등)
- 수도권 중심의 경제성장에서 저발전지역 육성을 통한 공간적 포용성장 요구

□ 남북 협력시대 도래와 유라시아 대륙 확장성 증대

- 남북 교류 증진과 활성화에 따른 한국 사회의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인프라 수요 증가
- 통일 대비 X축 국가교통망 완성 필요성 증대

□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都-農간 불균형 심화

- 도시지역은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여 안정적인 성장 예상
- 농촌지역은 혁신인력 부족, 혁신기업 부재, 혁신적 사회구조의 미비 등으로 수용력이 낮은 상황, 수용력 향상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

□ 백두대간, 국토발전의 변방에서 중심지로 변모

- 풍부한 자연자원에도 불구하고 국토 공간의 저개발 지대로 남아있는 백두대간 지역을 재조명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 확대
- 피로사회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쉼터에 대한 욕구는 급증할 것이며, 백두대간 지역은 ‘국민쉼터’의 기능을 담당할 최적지가 될 것임



□ 노후 교통인프라 정비,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시급

- 터널, 교량 등 교통인프라의 노후도 증가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및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
- 다양하고 광역화된 교통관리를 위한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

□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친환경·친인간 도시로의 전환

- 스마트 기술 적용으로 에너지 절약형 도시시스템이 구축, 산재된 도시 정보의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스마트도시 실현
- 기존 도시 및 건축물의 스마트 기술 적용에 따라 녹색도시, 녹색건축물 보급을 통한 에너지 절약형 환경 제공

□ 미래 신산업의 육성과 성장 기반 인프라 강화

- 과거 전통산업 중심에서 첨단바이오헬스산업, 친환경에너지산업, ICT융복합산업 등 신산업 성장의 주도지역으로 변화 예상
- 국토내륙중부권의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중핵기능의 핵심적인 산업 지역 공간으로의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

□ 여가·관광 수요의 구조적 변화와 관광 패러다임의 대전환

- 여가 및 관광 향유의 중요성 인식 증대, 경제성장으로 여가 및 관광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
 - 문화 접근성 제고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 플랫폼 필요성 증대
 - 새로운 관광목적지에 대한 호기심 증대, 광역교통 체계의 정비로 여가·관광 활동의 범위는 점차 광역화

□ 물 환경 중요성 대두와 생활안전 욕구 증대

- 물 부족, 수질 및 수생태계 악화, 높은 댐용수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한 대체 수자원 개발 절실
- 재난·재해·안전에 대한 관심과 재난안전 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가

2)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재수정계획(2011~2020) 평가

Ⅰ 지표별 평가

□ 인가지표

- 충청북도 종합계획(2011~2020)의 기준 연도인 2010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충북의 인구는 연평균 0.16% 증가하였고, 기존 계획에서 2020년까지 목표로 한 1,570천 명을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냄

□ 지역경제지표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31조 6,820억 원에서 2018년 기준 69조 6,570억 원으로 약 119% 증가하였으나, 2020년 목표치인 87조 5,760억 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충북의 GRDP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왔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6.3%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사회기반시설지표

- 충북의 도로 포장률은 2010년 77%에서 2018년 기준 85%로 신장되었으며, 이는 2020년 목표치인 89%에 못 미치는 수치임
- 자동차 보유 대수는 2010년 59만 대에서 2018년 기준 81만 대로 약 22만 대가량 증가하였으며, 도로 부문은 고속도로의 연장이 2010년 315km에서 2018년 388km로 1개 노선 73km 정도가 증가하였음
- 이와 같은 고속도로 및 국도, 지방도의 확충은 충북의 도시와 도시, 도시와 농촌 간의 교통 연계가 향상되었음을 의미함

□ 생활환경지표

- 생활환경 부문 상수도 보급률은 2010년 85.1%에서 2018년 기준 92.2%로 크게 향상되었으며, 하수도 보급률 또한 2010년 77.9%에서 2018년 87.7%로 크게 향상되었음
- 주택보급률은 2010년 110.3%에서 2018년 113.8%로 2020년까지 목표로 한 수치를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냄
- 생활환경 부문은 목표치를 초과하더라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과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됨



□ 복지부문지표

- 충북의 의료기관 수는 2010년 1,449개에서 2018년 기준 1,874개로 425개소 증가하였으나 2020년 목표치인 2,203개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임
- 사회복지시설은 기존 계획에서의 주요 사회복지 정책지표 데이터가 불확실하나 향후 사회복지 지표는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등 분야별 지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관광부문지표

- 2018년 충북의 관광객 수는 2,545만 명으로 2010년과 대비하여 약 1,824만 명 감소하였으며, 2015년과 비교했을 때 556만 명 증가하였으나 2020년 목표치인 6,820만 명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임
- 충청도 내 관광명소의 위상이 국내외적으로 높지 않은 이유는 그들을 유치하기 위한 명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국인에게 관광명소로서 뚜렷한 이미지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이전에 내국인 유치를 위한 노력과 정책이 성과를 거두는 특색 있고 차별화된 충북만의 대비책 마련이 요구됨

〈표 1-5-30〉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재수정계획(2011~2020)」의 추진성과

부 문 별		단 위	주 요 내 용				
			2010년 (현황)	2015년 (현황)	2020년 (목표치)	2018년	
						(실적치)	(달성률)
인구 및 소득	인 구	천 명	1,573	1,616	1,570	1,638	104%
	G R D P	10억 원	31,682	55,191	87,576	69,657	79%
	1인당 GRDP	만 원	2,014	3,414	5,578	4,250	76%
교 통	도 로 포 장 률	%	77.0	84	89.0	85	95%
	자동차보유대수	만 대	59	73	75	81	108%
	고 속 도 로	km, 노선 수	315(6)	383	915(11)	388	42%
	국 도	km	979.6	949.9	981.9	972	99%
	지 방 도	km	1,369.8	1,475.8	1,462.0	1,437.4	98%
생활 환경	주 택 보 급 률	%	110.3	111.2	110.0	113.8	103%
	상 수도 보 급 률	%	85.1	90.2	88.0	92.2	104%
	하 수도 보 급 률	%	77.9	86.2	90.0	87.7	101%
복 지	의 료 기 관 수	개소	1,449	1679	2,203	1,874	85%
	사 회 복 지 시 설	개소	129	202	127	219	172%
관 광	관 광 객 수	만 명	4,369	1,989	6,820	2,545	37%

주 :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원,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복지시설임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8. 국가통계포털, 2018

제4절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

1) 조사개요

Ⅰ 조사목적

□ 조사목적

- 충청북도민의 생활실태와 만족도 조사를 통해 바람직한 충청북도 종합계획(2021-2040) 수립의 발전 방향과 전략을 찾기 위함
- 충청북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충청북도 차원의 각종 정책과 개발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함

Ⅱ 설문조사 개요

□ 조사방법

- 시·군별 설문조사지 배부, 읍·면·동사무소 전달을 통한 방문조사 및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실시

□ 표본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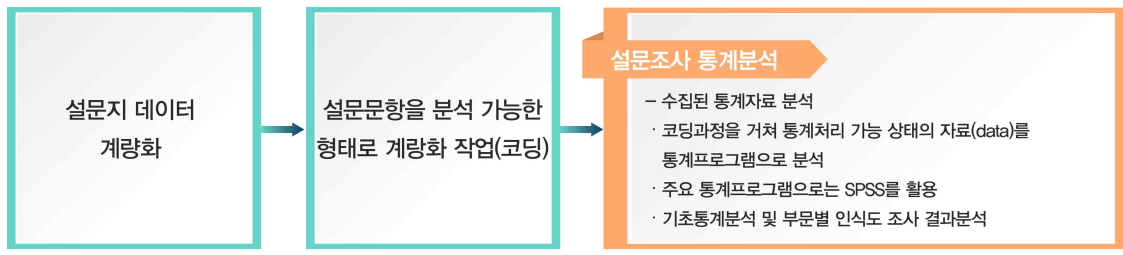
- 조사대상 : 충청북도 11개 시·군
- 표본 수 : 1,400명 (유효표본 1,314명)
- 표본오차 : $\pm 3.65\%$
 - 시·군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별 설문조사지를 배포함

시군	부수	시군	부수
청주시 상당구	145	옥천군	43
청주시 흥덕구	220	영동군	42
청주시 서원구	189	증평군	32
청주시 청원구	174	진천군	73
충주시	186	괴산군	34
제천시	118	음성군	91
보은군	28	단양군	25
합 계			1,400

- 조사기간 : 2020. 02. 20. ~ 2020. 03. 06. (약 2주간)



I 분석기법



I 조사내용

○ 본 조사는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2021-2040)』 수립을 위해 도민의 생활실태와 만족도 및 발전의 방향 및 정책에 대한 도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으로, 다음과 같이 설문문의 내용을 구성하였음

구분	세부내용
충청북도에 대한 인식	현재 충청북도의 모습, 삶의 만족도, 거주여건 및 이주의사 (거주기간, 계속 거주 희망 여부, 거주/이주의 이유)
충청북도 생활여건 만족도 및 발전 정도	생활여건 만족도, 발전 정도, 발전 요인 및 발전 장애 요인
충청북도 미래 및 발전 방향	충청북도 발전을 위한 도정의 모습, 발전의 방향, 희망하는 미래 충청북도의 이미지, 추구해야 할 목표 및 발전 방향, 중점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이슈, 본 계획에서 검토되었으면 하는 분야,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발전 전략

2) 주요내용 및 응답자 특성

Ⅰ 주요 내용

- 충청북도 도민은 충북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도·농 통합형 도시’로 인식하고 있으며, 도내에서의 삶에 보통 혹은 만족 응답 합이 약 89% 정도로 대체로 만족하는 편으로 나타남
- 거주지에서의 거주기간은 ‘20년~30년 미만’과 ‘30년 이상’이 약 65% 정도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장기간 거주지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속 거주를 희망함’의 응답률이 86.5%로 현 거주지에서 이주할 의향이 적음
 - 계속 거주하고 싶은 이유로는 ‘직장 관계’가 61.2%로 가장 높았으며 이주하고 싶은 이유로는 ‘생활환경 및 조건’이 39.1%로 가장 높았으나 ‘문화·사회복지’(19.0%)와 ‘교육’(16.8%)의 이유 또한 그다음으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임
- 충청북도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재난·재해에 대한 안전’과 ‘경관’, ‘범죄율’, ‘집값’ 순으로 만족스러워하는 생활여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북도민은 대체적으로 재난·재해 및 범죄로부터 도내에서의 삶에 안전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만족도 최하위(14위)는 ‘건축물 노후화’였으며 그다음으로 ‘지역 간 격차’, ‘문화/체육시설’이 선택되었으며 위 세 여건에 대한 불만족을 가지고 있음
- 충청북도의 발전은 보통 수준으로 여기고 있으며 가장 큰 발전 요인으로는 ‘도로 및 교통시설의 편리함’과 ‘지역개발에 대한 여건 조성’이 선택된 반면, 발전의 장애 요인으로는 ‘경제적 거점의 부족’과 ‘낙후된 정주 환경’이 선택되었음
- 발전을 위한 도의 모습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도정을 희망했으며 충청북도의 발전이 삶의 질 개선과 내실 있는 성장의 방향이 되길 희망하였음
- 미래의 충북의 이미지를 ‘안전·쾌적·행복’으로 선택했으며 충북도가 추구해야 할 목표 및 발전 방향은 현재 ‘균형발전’, 10년 후와 20년 후 ‘국민 삶의 질 개선’이 되길 희망함
- 미래의 이슈로는 인구(인구 감소 및 고령화, 저출산)와 이상기후, 자연재해를 선택했으며, 인구 문제에 대한 중점적 관리와 삶의 질, 여가 등에 대한 관리 또한 원하고 있음
- 본 계획에서 검토되길 희망하는 분야로는 ‘경제’와 ‘의료/보건’, ‘균형발전’이 발전이 필요한 분야로 선택되었고 ‘도로/물류’와 ‘사회복지’, ‘공항/철도’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발전 전략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생태계의 조성 및 환경 보전의 추진, 문화·관광의 인프라 확대가 선택되었음



I 응답자 특성

-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 응답자가 50.7%로 남성(49.3%) 응답자보다 많았음
- 거주 지역은 청주시가 58.2%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충주시 10.7%, 제천시 8.8%, 음성군 6.6%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인 지역은 보은군(1.4%)과 괴산군(1.6%)임
- 가구 소득은 100~200만 원 미만인 39.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00~300만 원 미만 32.9%로 나타났고 이는 전체 표본 중 72.3%의 비율을 차지함
- 표본 연령으로는 30대가 36.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20대(26.3%), 40대(21.0%)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이 1.7%, 20세 미만 0.3%로 적은 응답률을 나타냄
- 응답자의 직업으로는 공무원이 54.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 사무직 종사자가 17.6%로 나타났으나 그 격차가 매우 큼

〈표 1-5-31〉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_응답자 특성

(단위 : 표, %)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620	49.3	연령	20세 미만	4	0.3
	여성	637	50.7		20대	332	26.3
	합 계	1,257	100.0		30대	464	36.8
거주지	청주시	730	58.2		40대	264	21.0
	충주시	134	10.7		50대	175	13.9
	제천시	111	8.8		60대 이상	21	1.7
	보은군	18	1.4		합 계	1,260	100.0
	옥천군	35	2.8	직업	전문직	18	1.4
	영동군	40	3.2		경영/관리직	11	0.9
	증평군	31	2.5		사무직	222	17.6
	진천군	26	2.1		전문기술직	19	1.5
	괴산군	20	1.6		자영업자	40	3.2
	음성군	83	6.6		음식·숙박·서비스업	8	0.6
	단양군	27	2.1		제조·공업	5	0.4
	합 계	1,255	100.0		도·소매,상업	7	0.6
가구 소득	100만 원 미만	72	5.7		농·어·임·축산업	24	1.9
	100~200만 원 미만	494	39.4		공무원	692	54.9
	200~300만 원 미만	412	32.9		가정주부	49	3.9
	300~400만 원 미만	153	12.2		학생	32	2.6
	400~500만 원 미만	59	4.7		무직	13	1.0
	500만 원 이상	64	5.1		기타	120	9.5
	합 계	1,254	100.0		합 계	1,260	100.0

3) 분석 결과

(1) 충청북도에 대한 인식

Ⅰ 충청북도 현재 모습과 만족도

□ 현재 충청북도의 모습

‘도·농 통합형 도시’ (50.9%)

○ 충청북도를 ‘도·농 통합형 도시’로 인식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50.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 ‘교통이 편리한 도시’의 응답이 12.7%였으나, 그 격차가 매우 큼

〈표 1-5-32〉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_현재 충청북도의 모습

(단위 : 표, %)





□ 충청북도 삶의 만족도

‘보통’ (45.5%) / ‘만족’ (42.5%)

○ 충청북도 삶의 만족도는 ‘보통’의 응답이 45.5%, ‘만족’의 응답이 42.5% 차지하였으며, 충북도민 대체로 충북도에서의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5-33〉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_충청북도 삶의 만족도

(단위 : 표, %)



Ⅰ 거주여건 및 이주의사

□ 현 거주지 거주기간

‘20년~30년 미만’ (32.6%) / ‘30년 이상’ (32.2%)

○ 현 거주지에서의 거주기간에 응답한 사람 중 ‘20년~30년 미만’이 32.6%, ‘30년 이상’이 32.2%로 응답자 전체 중 64.8%를 차지하였으므로 충북도민의 약 65%는 거주하는 지역에서 대부분 장기간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5-34〉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_현 거주지 거주기간

(단위 : 표, %)



□ 현 거주지 계속 거주 여부

‘예’ (86.5%) / ‘아니오’ (13.5%)

- 현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은 응답자의 비율이 86.5%로 매우 높게 나타나, 충청도민은 현 거주지에서 이주할 의향이 적은 것으로 보여짐

〈표 1-5-35〉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_현 거주지 계속 거주 여부

(단위 : 표, %)

구 분	빈도	비율	
예	1,130	86.5	
아니오	176	13.5	
합 계	1,306	100.0	

□ 거주하고 싶은 이유

‘직장관계’ (61.2%) / ‘생활환경 및 조건만족’ (22.5%)

- 현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61.2%가 직장 관계를 이유로 계속하여 거주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충청북도에서의 생활환경 및 조건에 만족하여 계속 거주하길 희망하는 응답자가 그다음으로 많았으나 그 응답률이 22.5%로 ‘직장 관계’(61.2%)를 이유로 한 응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함

〈표 1-5-36〉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_거주하고 싶은 이유

(단위 : 표, %)

구 분	빈도	비율	
직장 관계	689	61.2	
생활환경 및 조건 만족	253	22.5	
본인 및 자녀 교육	58	5.2	
교통여건에 대한 만족	26	2.3	
문화/사회복지 만족	7	0.6	
친화적인 지역 분위기	61	5.4	
기타	31	2.8	
합 계	1,125	100.0	

□ 이주하고 싶은 이유

‘생활환경 및 조건’ (39.1%) / ‘문화·사회복지’ (19.0%) / ‘교육’ (16.8%)

- 현 거주지에서 이주하고 싶다고 응답한 274명의 39.1%는 생활환경 및 조건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문화·사회복지’(19.0%) 및 ‘본인 및 자녀 교육’(16.8%)의 응답자 또한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문화·사회복지 시설의 확충과 교육을 위한 시설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음

〈표 1-5-37〉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_이주하고 싶은 이유



Ⅰ 충청북도 생활여건 만족도 및 발전 정도

□ 생활여건 만족도

(1위) ‘재난/재해에 대한 안전’ / (2위) ‘경관’ / (3위) ‘범죄율’ / (4위) ‘집값’
 ↓
 (14위) ‘건축물 노후화’ / (13위) 지역 간 격차 / (12위) 문화/체육시설

- 조사 응답자 중 충청북도 생활여건에 만족하는 요인으로는 1순위로 ‘재난/재해에 대한 안전’이 제일 많았고 그다음으로 2순위 ‘경관’ 3순위 ‘범죄율’ 순으로, 충북도민의 재난과 재해와 범죄로부터 충청북도에서의 삶이 안전하다고 여기고 있음
- 또한, ‘집값’과 ‘공원, 녹지’ 역시 4, 5위로 충청북도에서의 생활여건 만족 요인으로 나타남
- 반면, 가장 만족하지 못하는 요인으로는 14위 ‘건축물 노후화’, 13위 ‘지역 간 격차’, 12위 ‘문화/체육시설’ 순이었으며, 충북도민은 노후된 건물과 지역 간 격차, 그리고 문화 및 체육시설의 부족을 불만족스러운 생활여건으로 여기고 있음

〈표 1-5-38〉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_생활여건 만족도

(단위 : 표, %)

구 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순위
재난/재해에 대한 안전	1,299	3.46	0.837	1
경관	1,301	3.32	0.831	2
범죄율	1,300	3.21	0.885	3
집값	1,298	3.1	0.852	4
공원, 녹지	1,301	3.1	0.87	5
교통환경 및 시설 편리	1,299	3.08	0.925	6
복지시설	1,299	3.03	0.758	7
환경오염	1,298	2.97	0.972	8
무분별한 개발	1,297	2.93	0.838	9
보건의료시설	1,301	2.89	0.897	10
일자리	1,299	2.82	0.815	11
문화/체육시설	1,301	2.81	0.916	12
지역 간 격차	1,296	2.78	0.791	13
건축물 노후화	1,300	2.7	0.805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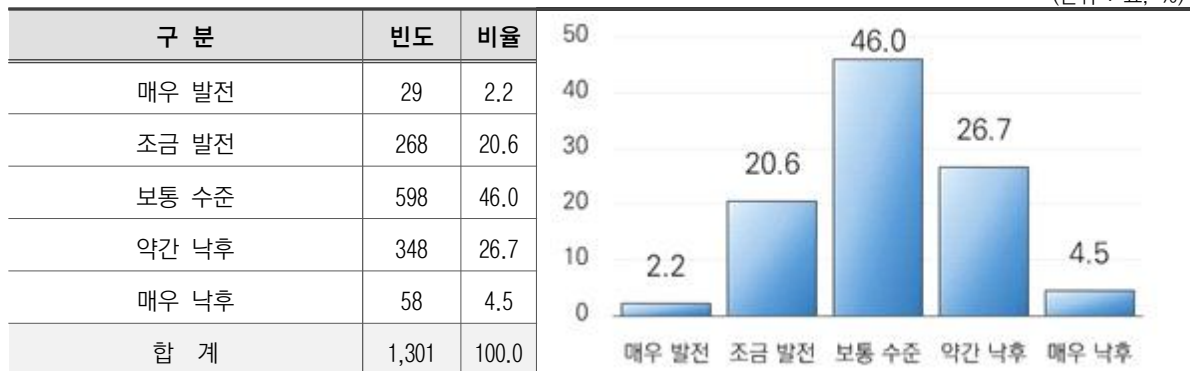
□ 발전정도

‘보통 수준’ (46.0%)

○ 충북도민은 충청북도의 발전정도를 ‘보통 수준’(46.0%)으로 여기고 있으며, 발전의 정도를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모호한 의견을 보이고 있음

〈표 1-5-39〉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_발전정도

(단위 : 표, %)



□ 가장 큰 발전요인

‘도로 및 교통시설의 편리함’ (35.9%) / ‘지역개발에 대한 여건 조성’ (23.4%)

○ 충청북도의 큰 발전요인으로 ‘도로 및 교통시설의 편리함’을 선택한 응답자가 35.9%이었으며, ‘지역개발에 대한 여건 조성’의 응답자가 23.4%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함

○ 따라서 충북도민은 도로와 교통시설의 편리함과 지역개발에 대한 여건 조성이 충청북도의 가장 큰 발전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음

〈표 1-5-40〉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_가장 큰 발전요인

(단위 : 표, %)



□ 발전 장애 요인

‘경제적 거점의 부족’ (31.0%) / ‘낙후된 정주 환경’ (17.1%)

○ 충청북도의 발전 장애 요인으로서는 ‘경제적 거점의 부족’의 응답이 31.0%로 충북도민은 도내 경제적 거점의 역할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음

○ 또한, 17.1%의 응답자가 정주 환경의 낙후를 발전 장애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5-41〉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_발전 장애 요인

(단위 : 표, %)





(2) 충청북도 미래 및 발전방향

□ 충북발전을 위한 도의 모습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도정’ (48.1%)

○ 도민의 48.1%가 도의 발전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도정’을 희망함

〈표 1-5-42〉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_충북발전을 위한 도의 모습

(단위 : 표, %)

구 분	빈도	비율	
도민과 지역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도정	203	15.7	도민과 지역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도정 15.7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도정	622	48.1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도정 48.1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끊임없는 협력	317	24.5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끊임없는 협력 24.5
타 국가 또는 지역과의 교류 및 협력을 주도하는 도정	124	9.6	타 국가 또는 지역과의 교류 및 협력을 주도하는 도정 9.6
공무원 관리 민원 해결을 위해 힘쓰는 도민 친화적인 열린 도정	28	2.1	공무원 관리 민원 해결을 위해 힘쓰는 도민친화적인 열린 도정 2.1
합 계	1,294	100.0	

□ 충청북도 발전 방향

‘삶의 질 개선과 내실 있는 성장’ (50.8%)

○ 충북도민의 50.8%는 미래 충청북도 발전의 방향으로 ‘삶의 질 개선과 내실 있는 성장’을 희망하고 있음

〈표 1-5-43〉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_충청북도 발전 방향

(단위 : 표, %)

구 분	빈도	비율	
삶의 질 개선과 내실 있는 성장	658	50.8	삶의 질 개선과 내실 있는 성장 50.8
개발과 성장 위주의 경쟁력 강화	193	14.9	개발과 성장 위주의 경쟁력 강화 14.9
환경과 녹지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개발	230	17.8	환경과 녹지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 17.8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81	6.2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6.2
지역 간 균형발전 추구	133	10.3	지역 간 균형발전 추구 10.3
합 계	1,295	100.0	

□ 미래 충청북도의 이미지

(1위) ‘안전’ (2위) ‘쾌적’ (3위) ‘행복’

○ 충청도민이 희망하는 미래 충청북도의 이미지는 ‘안전’, ‘쾌적’, ‘행복’으로 나타남

〈표 1-5-44〉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_미래 충청북도의 이미지

(단위 : 표, %)

구분	빈도	비율	순위	구분	빈도	비율	순위	구분	빈도	비율	순위
안전	477	12.2	1	풍요	143	3.7	11	공감	48	1.2	21
쾌적	319	8.2	2	활력	142	3.6	12	통합	38	1.0	22
행복	302	7.7	3	혁신	120	3.1	13	참여	35	0.9	23
발전	290	7.4	4	소통	107	2.7	14	보존	28	0.7	24
청정	270	6.9	5	상생	102	2.6	15	공유	21	0.5	25
성장	251	6.4	6	역동	100	2.6	16	개방	17	0.4	26
편리	241	6.2	7	국토중심	78	2.0	17	저항	7	0.2	27
웰빙	201	5.2	8	생명	68	1.7	18	기타	6	0.2	28
스마트	190	4.9	9	배려	63	1.6	19	선비	3	0.1	29
균형	178	4.6	10	공존	58	1.5	20				
합 계									3,903	100	-

□ 충청북도가 추구해야 할 목표 및 발전 방향

(현재/10년 후/20년 후) ‘국민 삶의 질 개선’

○ 충청북도가 추구해야 할 목표 및 발전의 방향으로서는 현재 ‘국민 삶의 질 개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10년 후와 20년 후 미래에도 삶의 질 개선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5-45〉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_충청북도가 추구해야 할 목표 및 발전 방향

(단위 : 점수)

구분	현재	10년 후	20년 후
국토균형발전	3,365	3,063	2,832
국가경쟁력향상	2,817	2,647	2,658
국민 삶의 질 개선	3,721	3,955	4,013
개발과 환경의 조화	2,663	2,793	2,942



□ 미래 이슈

(1위) ‘인구 감소 및 고령화’ / (2위) ‘저출산’ / (3위) ‘이상 기후/자연재해’

○ 미래 충청북도가 추구하였으면 하는 희망 이슈들로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저출산’, ‘이상 기후/자연재해’에 대한 항목들이었으며 그 외 ‘삶의 질/ 여가 등’, ‘경제 저성장’, ‘주거 환경 개선’, ‘4차 산업혁명’ 등 평균값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1-5-46〉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_미래 이슈

(단위 : 표, %)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순위
인구 감소 및 고령화	1,299	4.37	0.764	1
저출산	1,300	4.34	0.818	2
이상 기후/자연재해	1,299	4.16	0.831	3
삶의 질/여가 등	1,299	4.11	0.789	4
경제 저성장	1,297	3.89	0.746	5
주거 환경 개선	1,300	3.88	0.828	6
4차 산업혁명	1,298	3.83	0.803	7
역사/문화/자연환경 보전	1,300	3.77	0.855	8
지역 간 격차 심화	1,298	3.72	0.815	9
지방분권/주민참여	1,298	3.4	0.877	10
축소도시 대두	1,298	3.3	0.824	11

□ 중점 관리 이슈

‘인구 감소 및 고령화’ (19.9%) / ‘저출산 문제’ (15.6%) / ‘삶의 질, 여가 등’ (15.5%)

- 충청북도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중점 관리 이슈로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19.9%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저출산 문제’가 15.6%, ‘삶의 질, 여가 등’이 15.5%로 거의 동일하게 선택되었음

〈표 1-5-47〉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_중점 관리 이슈



□ 종합계획에서 검토할 분야

- 종합계획에서 검토하였으면 하는 분야의 첫 번째로 “발전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② 미래지향적 신산업 육성 - ‘경제’의 응답이 1순위로 나타났으며, 2순위 ① 공간구조 개편 및 인프라 확충 - ‘균형발전’, 3순위 ③ 도민 삶의 질 향상 - ‘의료/보건’이 선택되었음
- “만족 분야”의 응답으로는 ① 공간구조 개편 및 인프라 확충 - ‘도로/물류’가 1순위, ③ 도민 삶의 질 향상 - ‘사회복지’가 2순위, 1순위와 같은 항목의 ① - ‘공항/철도’가 3순위로 도민이 만족하는 분야로 선택되었음
- “시급히 추진할 분야”로는 1순위로 ② 미래지향적 신산업 육성 - ‘경제’, 2순위로 ③ 도민 삶의 질 향상 - ‘의료/보건’, 3순위로 ① 공간구조 개편 및 인프라 확충 - ‘균형발전’이 선택되어 ‘경제’, ‘의료/보건’, ‘균형발전’이 도민이 충청북도 종합계획의 수립에 있어 시급히 발전을 요구하는 분야로 선택되었음

〈표 1-5-48〉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_종합계획에서 검토할 분야

(단위 : 표, %)

구 분		발전이 필요한 분야			만족 분야			시급히 추진할 분야		
		빈도	비율	순위	빈도	비율	순위	빈도	비율	순위
① 공간구조 개편 및 인프라 확충	균형발전	417	10.7	2	128	3.5	13	325	8.5	3
	농촌발전	151	3.9	11	185	5.1	8	128	3.3	14
	도시관리	143	3.7	13	205	5.6	7	132	3.4	13
	도로/물류	106	2.7	16	409	11.3	1	87	2.3	17
	공항/철도	112	2.9	15	230	6.3	3	120	3.1	15
	스마트시티	168	4.3	10	38	1.1	23	167	4.4	12
② 미래지향적 신산업 육성	경제	495	12.8	1	125	3.4	15	454	11.9	1
	산업	98	2.5	17	139	3.8	12	117	3.0	16
	미래산업	295	7.6	4	56	1.5	21	278	7.3	4
	농업	49	1.3	19	224	6.2	4	50	1.3	20
	문화	186	4.8	9	185	5.1	8	179	4.7	10
	관광	151	3.9	11	166	4.6	11	185	4.8	8
③ 도민 삶의 질 향상	사회복지	209	5.4	6	359	9.9	2	178	4.7	11
	의료/보건	336	8.7	3	215	5.9	5	339	8.9	2
	생활SOC	199	5.1	7	98	2.7	16	185	4.8	8
	도시재생	141	3.6	14	84	2.3	19	195	5.1	7
④ 안심사회 기반 구축	토지이용계획	43	1.1	20	44	1.2	22	66	1.7	19
	산지자원	14	.4	23	90	2.5	17	18	.5	23
	에너지자원	58	1.5	18	60	1.7	20	74	1.9	18
	수자원/하천	34	.9	21	126	3.5	14	34	.9	22
	환경보전	252	6.5	5	172	4.7	10	255	6.7	5
	경관계획	30	.8	22	88	2.4	18	37	1.0	21
	재난/안전	190	4.9	8	209	5.7	6	223	5.8	6
합 계		3,877	100.0		3,635	100.0		3,826	100.0	

□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발전 전략

(1위)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조성’ (2위) ‘환경보전 추진’ (3위) ‘문화/관광 인프라 확대’

○ 본 계획의 수립에 있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발전의 전략으로는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조성’이 1순위, 그 다음으로 ‘환경보전 추진’, ‘문화/관광 인프라 확대’ 순으로 나타남

〈표 1-5-49〉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_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발전 전략

(단위 : 표, %)

구 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순위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조성	1,289	3.91	0.787	1
환경보전 추진	1,291	3.9	0.829	2
문화/관광 인프라 확대	1,291	3.9	0.798	3
재난공동체 구축	1,291	3.88	0.799	4
정주요건 개선	1,289	3.82	0.758	5
공간구조 개편/인프라 확충	1,289	3.79	0.761	6
사회지원 시스템 구축	1,291	3.73	0.773	7



4) 시사점

- 충북도민은 충청북도를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도·농 통합형 도시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충청북도에서의 삶에 만족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이주의 의사가 거의 없는 편으로 나타남
- 거주기간 또한 20년 이상이 전체 응답자의 65% 정도로 도민의 장기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도민이 불만족하고 있는 문화·체육시설, 교육 등의 문제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계획의 발전 방향 수립이 필요함
- 도로·교통 시설에 만족하고 또한 이를 충청북도의 발전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낮은 재난 / 재해 발생률과 범죄율은 도내에서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이는 충청북도가 가진 강점으로 여길 수 있음
- 발전의 장애 요인으로 경제적 거점의 부족과 낙후된 정주 환경이 선택되었으며, 국가X축 교통망의 구축과 오송역 주변 MICE 산업단지 유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신산업 기반의 집적 등 경제적 거점의 확충을 통하여 발전 장애 요소 해소를 위한 시설의 유입과 도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정 운영을 희망하고 있으며, 경제적 문제 또한 본 계획에서 검토되길 희망하는 분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생태계의 조성과 환경 보전이 공존하는 계획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으며, 환경 보존과 개발이 어우러진 종합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제5절 충청북도 발전여건 분석

1) SWOT 분석

- 국토 중심에 위치한 입지적 우월성을 가짐과 동시에 국가X축 교통망의 핵심인 오송역과 행정 도시 관문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지만, 세종·대전으로의 사회·경제권이 흡수되고 있음
 - 세종~서울 고속도로 완공 이후 가속 예상(2024년 개통 예정)
- 세종시 및 오송역세권 추진 등 청주권의 광역화 가능성이 있으며, 도로·교통 시설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
- 국립공원 3개소(월악산, 속리산, 소백산)와 다목적댐 2개소(대청댐, 충주댐)를 보유한 뛰어난 수변·자연환경 및 세계기록유산 직지 등 자연·역사·문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부권 3개 시·군(충주시, 제천시, 단양군)의 관광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반면, 개발규제지역 산재에 따른 공간개발 및 토지 기능 전환의 제약이 있음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신산업 기반 주력 산업(반도체, 바이오, 태양광 등)의 집적뿐 아니라 클러스터 구축 및 개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 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을 보유함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산학융합지구로 선정됨
 - 청정·신에너지 관련 전문인력의 부족이 약점 요인으로 작용함
-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감소에 대비한 인구문제에 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며 인구 감소로 인한 유희시설 발생 가능성과 고령화로 인한 고령자 대상 복지시설 수요의 증가가 예상됨
 - 이는, 복지시설 및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지역 발전의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음
- 이상 기후와 대기 환경 변화 등 재난·재해 및 미세먼지 등이 새로운 위협의 요소로 다가오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개발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COVID-19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예방대책 마련
 - 공공의료체계와 민간의료체계의 개편을 통한 선제적 대응

〈표 1-4-50〉 SWOT 분석 (충청북도 발전여건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p>포용과 혁신을 선도하는 강호축의 중심, 충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도로·철도 간선교통망의 결절지(국도중심, 입지적 우월성)로 국가 X축 교통망의 핵심인 오송역 및 행정도시 관문공항 청주국제공항 보유 • 수도권, 행복도시 광역권 등 배후시장 보유 • 수려한 산림·수변 경관 및 세계기록유산 직지 등 자연·역사·문화·관광지역자원 보유 및 북부권 3개 시·군의 관광경쟁력 지속 성장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추진율 전국 1위) • 타 시도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실현 • 미래기술 융합을 위한 기반 주력산업(반도체, 바이오, 태양광 등)의 집적과 미래 신산업 기반 클러스터 구축·개발 경험 보유 • 신재생에너지 산학융합지구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축에 비해 열악한 동서축 교통망 • 국립공원(3P)/댐(2D) 등 개발규제지역 산재와 공간 개발 및 토지 기능 전환 제약 •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도 시행 및 금강수계 제재 대상 선정 사례에 따른 강화된 환경규제 • 대표 축제 및 차별화된 콘텐츠 부족 및 체류형 관광 수요 부족 • 연료전지, IGCC 등 신에너지 관련 전문인력의 부족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R&D 역량 및 인프라 •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업단지 증가 등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및 생태계 훼손 지속적 증가 및 폐기물 발생 대책 마련 미흡 •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 부족으로 인한 예방적, 선제적 투자 부족
기회(Opportunity)	S-O전략	W-O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균형발전 견인 기반 강호축 개발 및 대북·유라시아를 바라보는 더 큰 국토 • 국제회의 도시로서 오송의 잠재력 • 국가산업단지 등 스마트시티 특화개발이 가능한 신도시 개발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적 경제변화로 ICT 산업과의 융합 수요 급증 • 농촌지역의 공간가치에 대한 중요성 인식 증대 • 복지에 대한 공공의 책무성 증가 및 보편적 사회복지정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중심지로서 신 국토의 중심지 역할 수행을 위한 인프라·산업 등 기반 확보 • 미래 신산업 중심의 경제환경 변화에 대비한 지역 내 관련 기업, 주력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신산업 중심지로서의 입지 확보 •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충북 오창 유치로 인한 관련 산업의 선도적 성장 가능성 확보와 함께 미래 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 가능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로 인하여 대전의 영향권이 확대된 경향이 있었으나,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와 국가 X축 교통망 형성 및 오송 국제회의 도시 추진 등 청주권 광역화 가능성 활용 • 미래 신산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 방안 모색 필요 • 국가X축 교통망 중심지 오송의 국제관광도시 육성을 통한 지역 내 관광지 연계로 충북의 새로운 관광모델 육성 	
위협(Threat)	S-T 전략	W-T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자원 도내 유입과 수도권 유출로 인한 어려움 • 기성 시가지 내 저이용·유희토지와 빈집·빈 상점의 지속적 증가 •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등 대기 환경변화 및 위험성 증가, 이상기상으로 인한 재난위험 및 불확실성 증가 • 고령화로 인한 고령자 대상 복지시설 수요의 증가 • 기존/신규 시설 관리를 위한 공공시설 유지관리 비용 증가로 인한 지역 발전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대전권으로의 사회·경제권 흡수에 대비한 청주권의 방어 및 대응전략 마련 • 미래 신산업 관련 지자체 경쟁 속에서 충북의 우위 선점을 위한 다양한 경험 및 연관 클러스터 연계활용 방안 모색 • 빈집·빈 상가, 폐쇄 복지시설 등 유희공간의 용도 전환과 활용을 위한 각종 사업 연계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공간 개발 전략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시티, 신도시 조성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및 연계 협력 체계의 마련 • 지역 특성을 고려한 통합물관리(수질, 수생태계, 유량 등) 체계 마련 •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성장을 위한 지역주민-기업 간 갈등 해소 방안 마련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규제·방안 마련 	

2) 계획과제 도출

□ 창의적인 지역발전, 연대와 협력의 상생지역

- 광역 산업·관광 및 교통 연결망 구축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 기여
- 광역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 내, 지역 간 연계·협력 인프라 조성
- 잠재적 가용토지의 계획적 관리
- 모두가 편안한 생활·주거공간 조성을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및 삶의 질 향상

□ 공간의 지능화와 효율적 인프라 운영·관리

- 유라시아 교통물류 기반의 네트워크 보완
-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도로교통 관리체계 정비
- 중부권 거점공항인 청주공항의 역할 확대

□ 혁신을 주도하는 신산업 기반 조성

- 바이오 헬스산업의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바이오헬스 선도지역 조성
-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에너지 클러스터 거점 구축 및 수소 등 신에너지 기술 활성화
-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존 산업 지능화 혁신 및 신성장 산업 발굴·육성
- 활력 있고 지속 가능한 미래 혁신 농축산업 육성
- 미래형 산업공간 확대 및 노후 산업단지의 지속적 혁신을 통한 구조적 전환 모색
- 정부 시스템 반도체 육성정책과 연계, 충북 시스템 반도체 융복합 산업타운 조성을 통한 반도체 특화지역 거점 구축

□ 국민여가지대, 치유형 문화관광 기반 조성

- 호수 및 백두대간 등 지역 생태자원의 가치 재창출을 통한 국민쉼터 조성
- 지역 고유 자산, 개성을 토대로 지역 문화관광 신가치 창출
- 바다가 없는 내륙에 해양의식 함양을 위한 해양문화인프라(미래해양과학관) 구축
- 국제교류 중심 기능 확충과 MICE 산업 육성
- 역사, 무예 등 전통문화가치 활성화 및 인문가치가 살아있는 문화 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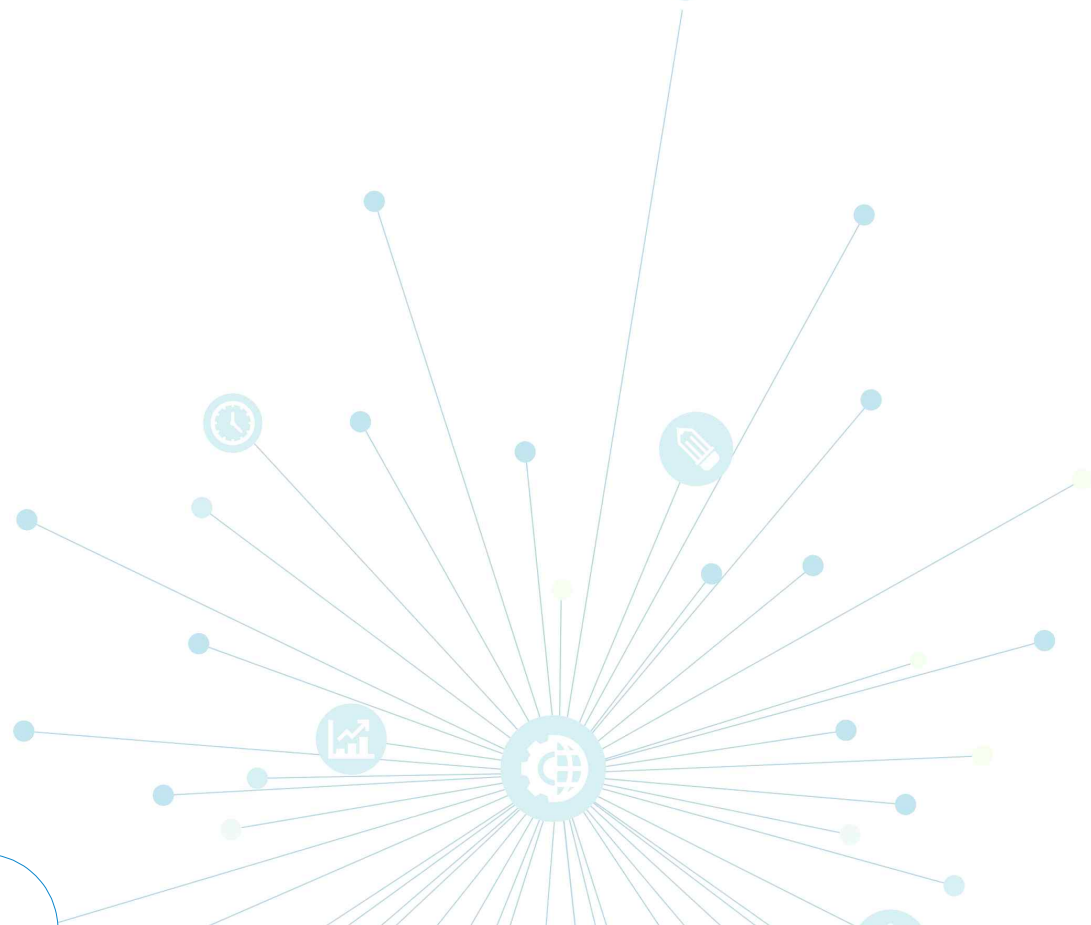


☐ 품격과 여유로움이 충만한 환경친화적 청정충북 실현

-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지속 가능한 친수공간 조성
- 지역사회 구성원 간 협의에 따른 환경 보전 전략 수립

☐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의 공간 창출

- 기후 변화에 대비, 안전 기반 구축 및 재난 수용력 강화
- 고령자 재택 돌봄 등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복지서비스 창출,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성 책임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시설 기능 강화 및 확충



제 II 편

도종합계획 기본방향

제1장 계획의 비전과 목표

제2장 공간구조의 설정

▶ 제 1 장

계획의 비전과 목표

제1절 계획의 비전과 목표

제2절 주요계획지표 설정



제1장 계획의 비전과 목표

제1절 계획의 비전과 목표

1) 계획의 비전과 목표

□ 계획의 비전과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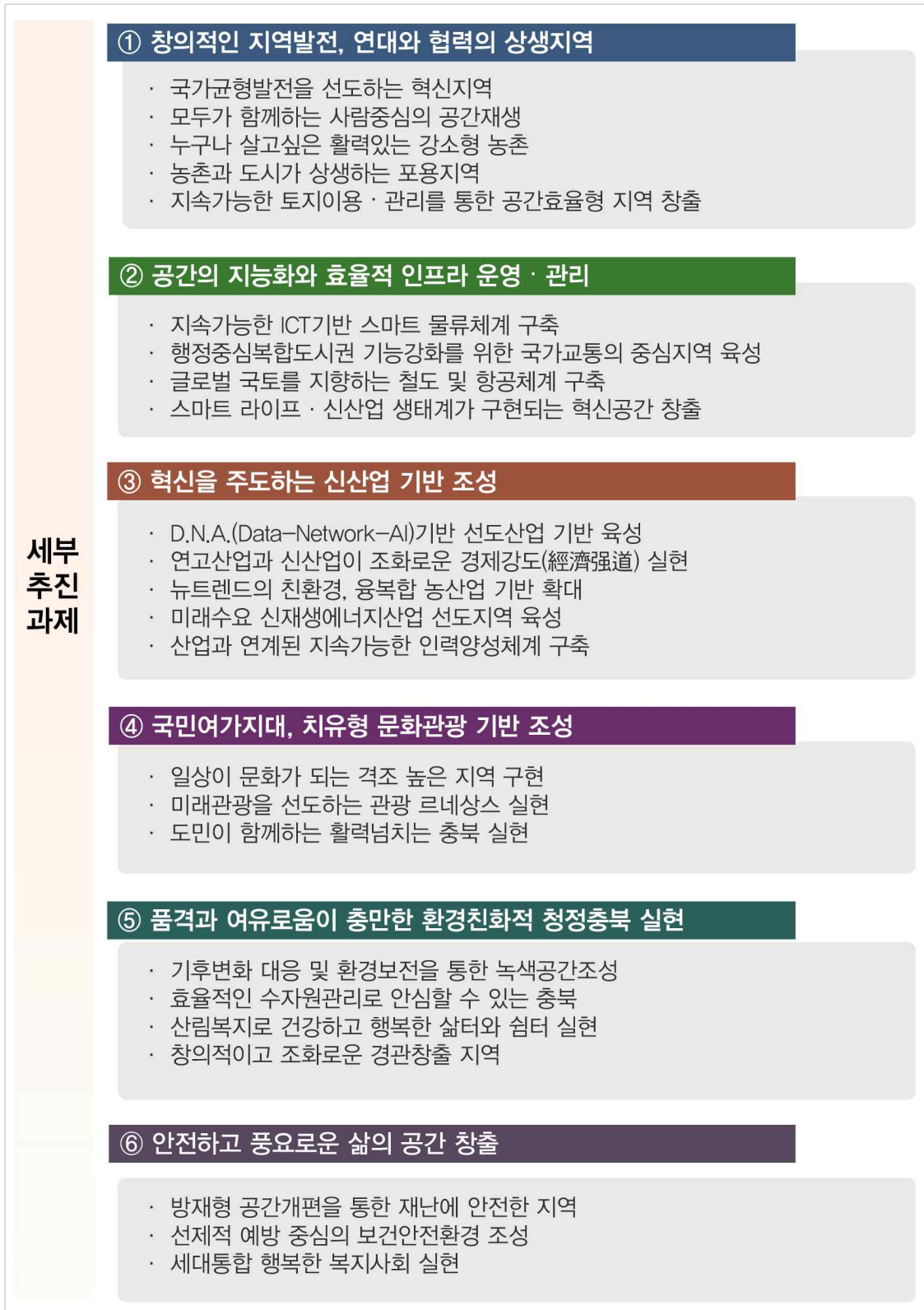
포용과 혁신을 선도하는 강호축의 중심, 충북

- 충청북도는 상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충청북도 비전과 목표의 방향성에 맞추어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2021-2040)』의 기본방향을 “포용과 혁신을 선도하는 강호축의 중심, 충북”으로 설정함
- 계획의 목표로 「더불어 함께 사는 풍요로운 상생지역」,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미래신산업 중심지역」, 「감성이 충만한 문화관광 창출지역」, 「안전하고 청정한 지속가능발전지역」 4대 목표를 선정하여, 그에 따른 6개의 추진전략을 선정함



〈그림 II-1- 1〉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2021-2040)의 비전체계도

2) 계획의 추진전략



〈그림 II-1- 2〉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2021-2040)의 세부추진과제

제2절 주요계획지표 설정

1) 인구조표

Ⅰ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2021-2040) 수립을 위한 인구조표 설정

□ 충북 인구조표 설정

- 통계청, 충청북도, 충북연구원, 제4차 충청북도계획 수립을 위한 ARIMA 분석 등에 의한 인구 추계 결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구조표를 설정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타당함

〈표 II-1-1〉 추계 주체별 인구예측치

(단위 : 명)

구분	2020	2025	2030	2035	2040
통계청	1,631,549	1,653,104	1,673,717	1,684,606	1,677,521
충청북도	1,629,704	1,672,870	1,709,661	1,733,101	-
충북연구원	1,658,515	1,689,229	1,708,379	1,710,948	1,692,618
ARIMA	1,663,917	1,710,316	1,756,721	1,803,127	1,849,533

- 인구추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ARIMA 모형에 의한 추계 결과가 가장 높은 낙관도를 보이고, 다음으로 충청북도 자체 추계, 충북연구원의 인구구조분석을 위한 인구추정, 통계청에 의한 추정 순으로 낙관도가 낮아지며, ARIMA 모형에 의한 추정에 의하면 충청북도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통계청과 충북연구원 추계는 2035년 인구가 최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ARIMA 모형에 의한 추정과 충북연구원의 추정은 2020년 3월 말 현재의 실측치 외국인 포함 1,637,793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자체의 추정과 통계청의 추정치는 2020년의 실제 인구수(1,637,793명)를 기준으로 과소 추정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추정 최종 연도가 2035년으로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의 목표연도인 2040년에 미치지 못하는 충청북도 자체 인구 추정치를 제외하면 통계청, 충북연구원, ARIMA 모형에 의한 추정치가 모두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의 인구조표 설정을 위한 활용 대상이 됨
- 따라서 인구추계 최종 연도가 맞지 않는 충청북도 자체 추정치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추정치를 결합하여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을 위한 인구조표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여기에서 이들 3가지 추정치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1) 통계청과 ARIMA 추정 결과의 평균치, 2) 통계청과 충북연구원 추정치의 평균, 3) 통계청 추정치, 충북연구원 추정치, ARIMA 모형 추정치의 평균 등 3가지를 고려할 수 있음

<표 II-1- 2> 결합방법 대안별 인구 추정치 변화

(단위 : 명)

구분	2020	2025	2030	2035	2040
통계청+AR	1,647,733	1,681,710	1,715,219	1,743,867	1,763,527
충청북도+CR+AR	1,651,327	1,684,216	1,712,939	1,732,894	1,739,891
통계청+CR	1,645,032	1,671,167	1,691,048	1,697,777	1,685,070

- 위의 3가지 각 대안별 결합방법을 볼 때 통계청, 충북연구원, ARIMA 모형의 추정치를 평균한 값이 2020년 3월 말 기준 충북 인구 실측치에 가장 근접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판단할 때 2020년에 이미 과소 추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35년 이후 인구가 감소하는 매우 보수적인 결과를 보이는 통계청과 충북연구원의 추정치를 평균한 값보다는 현재까지 충청북도의 인구변화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2035년 이후에도 좀 더 낙관적 경향을 보이는 ARIMA 모형의 추정 결과와 통계청, 충북연구원 추정치들을 평균한 값을 충북 인구지표 설정의 기준으로 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여기서 통계청, 충북연구원, ARIMA 모형 추정치를 평균한 결과를 100명 단위에서 절삭하여 반올림한 값을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인구지표로 설정함

<표 II-1- 3>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2021-2040) 인구지표

(단위 : 명)

구분	2020	2025	2030	2035	2040
충청북도 인구	1,651,000	1,684,000	1,713,000	1,733,000	1,740,000

- 충청북도의 과거 42년간(1975-2016)의 인구변화를 보면 1990년 이후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국가 간 기술분업 구조 변화, 이에 따른 한국 산업구조 변화와 이에 상응하는 국내 지역 간 기술분업 구조 재편 등의 영향을 수도권 인접 지역이라는 충청북도의 입지적 조건이 효과적으로 수용해왔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함
- 결론적으로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에서 설정한 인구지표 174만 명은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의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건설, 청주공항 신도시 건설, 북부권에 조성할 승강기 산업 클러스터 등에 의한 유발인구만 약 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점, 그리고 과거 충북의 인구 성장 동력과 지속성, 국내 및 국제적 기술분화 구조의 지속적 변화, 충청북도 특유의 입지적 호조건 등을 감안할 때 통계청의 추정치 167만 명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 부문별 장기발전지표

Ⅰ 부문별 장기발전지표 설정

□ (전략 1) 창의적인 지역발전, 연대와 협력의 상생지역

- 인구감소시대 축소지향형 농촌의 주민 수요에 기반한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이를 통한 생활편의시설 공급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주택을 공급함
- 주택 보급률은 2020년 110.0%, 2030년 112.0%, 2040년 118.0%

□ (전략 2) 공간의 지능화와 효율적 인프라 운영·관리

- 공간의 지능화와 효율적 인프라 운영·관리를 위해 충청북도를 행정중심복합도시권의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 교통의 중심지역으로 육성하고 스마트 라이프·신산업이 구현되는 혁신공간 창출을 위한 지표로 도로 포장률 개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함
- 도로 포장률은 2020년 89.0%, 2030년 93.0%, 2040년 96.0%를 성과지표로 제시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해 2020년 7개소, 2030년 12개소, 2040년 12개소를 성과지표로 제시

□ (전략 3) 혁신을 주도하는 신산업 기반 조성

- 미래지향적 신산업 혁신지대 조성을 위해 D.N.A.(Data-Network-AI) 기반 선도 신산업 기반 조성, 연고산업과 신산업이 조화로운 경제강도(經濟強道)실현, 뉴트렌드의 융복합, 친환경 농산업 기반 확대, 미래수요 신재생에너지산업 선도지역 육성, 산업과 연계된 지속 가능한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실현하고자 함
- 농가소득(백만 원) 2020년 40.06만 원, 2030년 49.71만 원, 2040년 61.69만 원으로 성과지표 제시
-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는 2020년 3,658개소, 2030년 10,571개소, 2040년 30,549개소로 성과지표 제시
- GRDP(조원)는 2020년 70.6조 원, 2030년 100.0조 원, 2040년 147.9조 원으로 1인당 GRDP(만 원)는 2020년 4,413만 원, 2030년 5,838만 원, 2040년 8,500만 원, 1인당 개인소득(만 원)은 2020년 1,986만 원, 2030년 2,919만 원, 2040년 4,675만 원으로 성과지표 제시
- 경제활동 참가율은 2020년 65.0%, 2030년 70.0%, 2040년 75.0%, 평생학습 참여율은 2020년 7%, 2030년 10%, 2040년 20%로 제시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2020년 1,303MW, 2030년 3,400MW, 2040년 4,200MW로 성과지표 제시



□ (전략 4) 국민 여가지대, 치유형 문화관광 기반 조성

- 국민 여가지대, 치유형 문화관광 기반 조성을 위해 일상이 문화가 되는 격조 높은 지역 구현, 미래관광을 선도하는 관광 르네상스를 실현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문화기반이 되는 도서관은 2020년 45개소, 2030년 50개소, 2040년 55개소를 박물관은 2020년 44개소, 2030년 50개소, 2040년 55개소를 성과지표로 제시
- 관광객 수는 내국인은 2020년 3,000만 명, 2030년 4,000만 명, 2040년 5,000만 명으로 외국인은 2020년 7만 명, 2030년은 50만 명, 2040년은 100만 명으로 성과지표를 제시

□ (전략 5) 품격과 여유로움이 충만한 환경친화적 충북 실현

- 품격과 여유로움이 충만한 환경친화적 공간 창출을 위해 환경 보전을 통한 자연이 숨 쉬는 녹색 공간 조성과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로 안심할 수 있는 충북을 실현하고자 함
- 이를 위해 1인당 공원 조성면적은 2020년 9.9m², 2030년 14.0m², 2040년 18.0m², 상수도 보급률은 2030년 93.2%, 2030년 100.0%, 2040년 100.0%로 성과지표를 제시

□ (전략 6)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의 공간 창출

-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의 공간 창출을 위해 방재형 공간 개편을 통한 재난에 안전한 충북, 세대가 함께 행복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충북을 실현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자연재난 피해액은 2020년 96.1십억 원, 2030년 90.0십억 원, 2040년 85.0십억 원, 사고 발생 건수는 2020년 11,685건, 2030년 9,000건, 2040년 8,500건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성과지표 제시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2020년 29.3%, 2030년 40.0%, 2040년 50.0%, 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20년 2개소, 2030년 7개소, 2040년 11개소를 공급하는 것으로 성과지표를 제시

〈표 II-1- 4〉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2021~2040) 계획지표

분 야	지 표		년 도		
			2020	2030	2040
창의적인 지역발전, 연대와 협력의 상생지역	인구(만 명)		165	171	174
	주택 보급률(%)		110.0	112.0	118.0
공간의 지능화와 효율적 인프라 운영 관리	도로 포장률(%)		89.0	93.0	96.0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개소)		7	12	12
혁신을 주도하는 신산업 기반 조성	농가소득(백만 원)		40.06	49.71	61.69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수)		3,658	10,571	30,549
	GRDP(조 원)		70.6	100.0	147.9
	1인당 GRDP(만 원)		4,413	5,838	8,500
	1인당 개인소득(만 원) ²⁾		1,986	2,919	4,675
	산업단지(개)		130	140	150
	사업체 수(만 개)		13.6	17.7	22.9
	100인 이상 사업체 수(개)		711	1,009	1,431
	경제활동 참가율(%)		65.0	70.0	75.0
	평생학습 참여율(%) ³⁾		7	10	20
	신재생에너지 생산량(MW)		1,303	3,400	4,200
국민 여가지대, 치유형 문화관광 기반 조성	문화 기반시설	도서관(수)	45	50	55
		박물관(수)	44	50	55
	관광객 수	내국인(만 명)	3,000	4,000	5,000
		외국인(만 명)	7	50	100
	숙박시설 수	관광호텔(개)	19	25	30
		콘도(수)	9	12	15
품격과 여유로움이 충만한 환경친화적 충북 실현	1인당 공원 조성면적(㎡)		9.9	14.0	18.0
	상수도 보급률(%)		93.2	100.0	100.0
	하수도 보급률(%)		87.7	100.0	100.0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의 공간 창출	자연재난 피해액(십억 원)		96.1	90.0	85.0
	사고 발생 건수(건)		11,685	9,000	8,500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29.3	40.0	50.0
	건강생활지원센터(개소)		2	7	11

2) 1인당 개인소득은 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총 처분가능소득을 의미함 (2018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 대비 개인소득 비율은 42.8%이며, 2020년에는 45%, 2030년 50%, 2040년 55%로 확대될 것으로 가정하였음)

3) (평생교육 참여자/2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100)

▶ 제2장

공간구조의 설정

제1절 포용국토 실현을 위한 총북발전 구상

제2절 포용국토 실현을 위한 상생형 연계협력 구상

제3절 상생발전을 위한 균형발전 구축전략



제2장 공간구조의 설정

제1절 포용국토 실현을 위한 충북발전 구상

1) 충북발전을 위한 기본전제

□ 포용국가를 견인하는 신 경제축으로서의 강호축 구상

- 정부축 중심의 국가산업정책과 왜곡된 공간정책에 따라 정부축에 대응하는 신 경제축 구상에 대한 수요 확대가 포용국토의 당위성 야기
- 국토 불균형 심화와 강원권과 호남권 연결성 문제를 야기하여 대륙연계 강호축에 대한 국가적 아젠다로 부상
- 지역 간 격차 및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강호축 조명

□ 혁신국가 창출의 선도지역으로 육성

- 사회경제 패러다임 전환기의 도래와 전환의 시대, 강호축 지역 시도의 잠재력 활용방안 필요
- 강호축 지역 시도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저성장·지방 소멸의 위기 극복을 모색하고 대한민국 성장의 한계 돌파구 마련

□ 평화국토 기반구축

- 교량국가 건설을 통한 한반도 신 경제지도 구상 마련
-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개최로 한반도 종전·평화 체제 구축 중
- 강호축 지역 시도는 남북 교류 협력의 실천적 지역으로 이미 자리매김
- 강호축 지역 시도의 인문자연 및 산업 자산을 활용하여 남북의 물리적 연결망, 자연적 연결망, 기능적 연결망 구축으로 평화통일 지역실천 도모



□ 환경친화적 국토 개발

- 단절된 생태축 연결 및 국민여가지대 조성
-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성 검토를 고려한 지역의 자연자원 보전 및 복원 방안 필요
-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시 각종 환경관련 보호구역 및 지역 등을 고려하여 개발에 따른 영향 최소화 필요

2) 충청북도 발전축 설정

□ (기본축) 포용국토 형성을 위한 강호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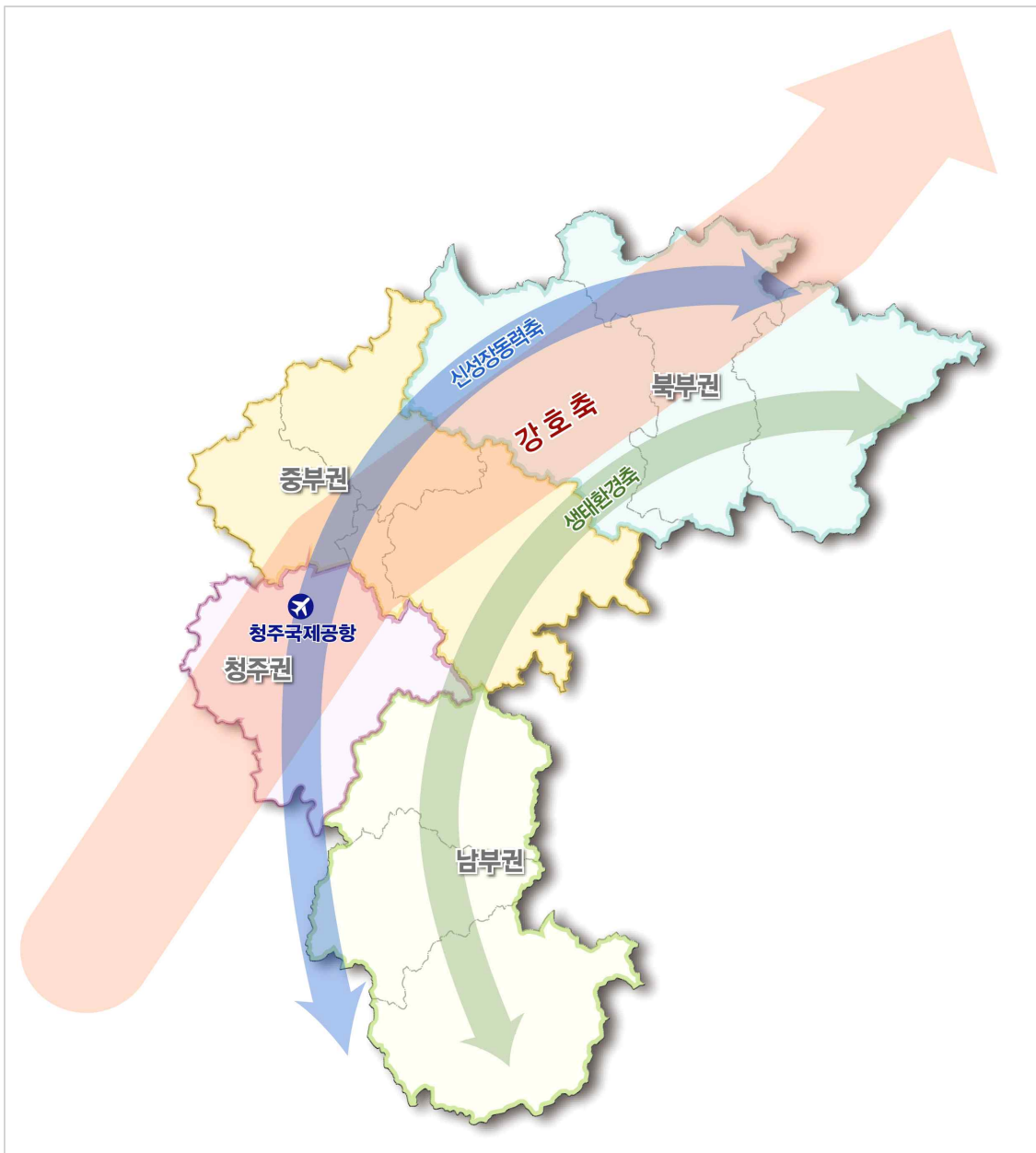
- 초광역개발 축인 내륙첨단산업권과 백두대간권과 연계된 포용국가 건설의 성장축으로 강호축 육성
 - 충북경제자유구역을 내륙 포용국토의 신성장동력 발전 거점으로 육성
 - 호남-충북(청주-증평-진천-음성-충주-제천)-강원을 연결하는 내륙첨단산업권
 - 호남-충북(영동-옥천-보은-괴산-충주-제천-단양)-경북-강원 연결 백두대간권
 - 강호축을 기본축으로 설정하고 보조축으로 신성장 동력축, 생태환경축을 설정

□ (보조축) 미래신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신성장 동력축

- 청주-증평-진천-음성-충주-제천을 연결하는 솔라밸리 육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축 육성
- 행정중심복합도시권(대전-세종)과 도내 BIO 벨트 연계 BIO웰빙 발전축 육성
 - 오송을 거점으로 한 제천(한방바이오)-충주(식품바이오)-괴산(유기농 바이오)-옥천(의료기지)연계
 - 옥천의 의료기기단지, 보은의 대도시 근교형 농업특화지구, 영동의 문화와 과일산업이 융합된 남부권 특화지구를 BIO 웰빙발전축 거점으로 육성

□ (보조축) 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생태환경축

-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로 생태계 건강성 증진
 - 백두대간권 자원의 특성화 개발을 위한 에코관광벨트 설정
 - 산림생태계 건강성 회복 향상을 위한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사업 추진



〈그림 II-2- 1〉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2021-2040) 발전축 설정

3) 권역별 발전을 견인할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를 통한 국가 R&D 거점 및 기초과학 전진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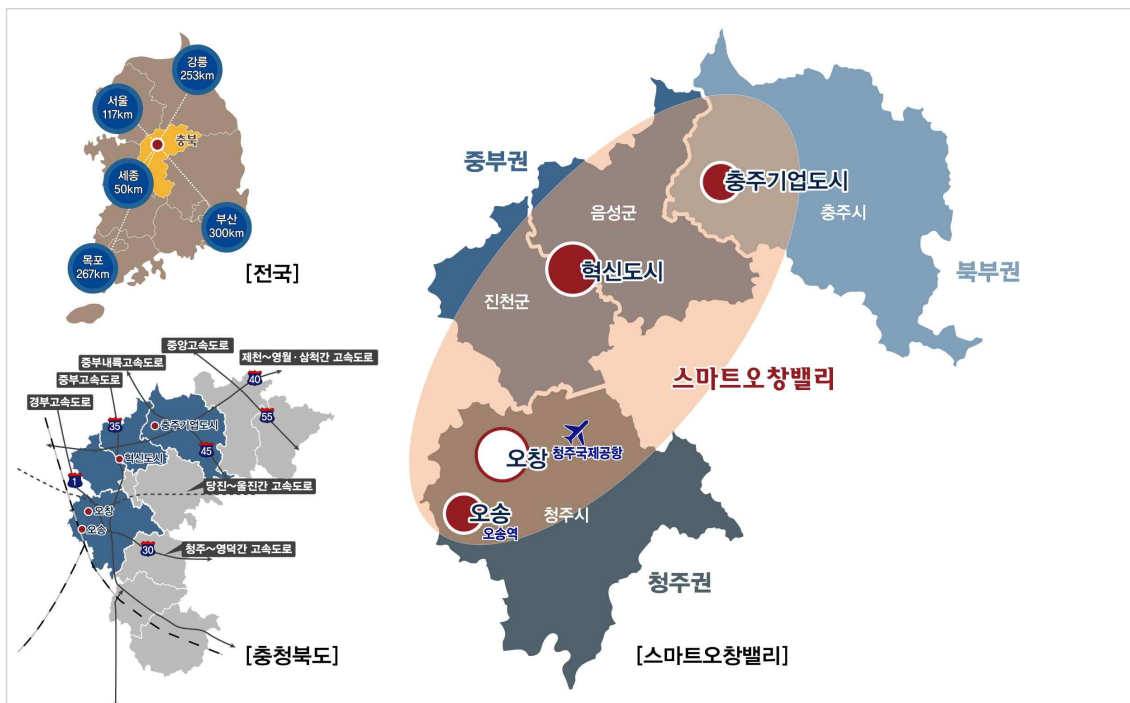
- 차세대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활용을 통한 미래 신산업인 소재·부품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담당하는 국가 거점화
- 오창-오송-대덕을 연결하는 기초과학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신산업의 거점 육성

□ 청주-오송-충주 국가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

- 바이오신약으로 특화한 오송과 의료기기로 특화된 강원도 원주시를 잇는 중부권 바이오헬스 혁신·융합 벨트의 한 축 담당
- 권역별 연계화 전략을 통한 국가내륙의 산업거점 역할 기대

□ 오송-오창-혁신도시-충주 국가 혁신거점 벨리 조성

- 오송, 오창, 혁신도시, 충주 일대의 혁신 기반을 연계하여, 판교벨리 등 수도권 혁신지구 대비 비교우위가 확보되는 국가혁신거점 벨리로 조성
- 세계 수준의 글로벌 과학기술 비즈니스 허브 구축 및 산업, 연구, 창업, 정주 등 혁신환경이 완비된 클러스터를 구축



〈그림 11-2- 2〉 오송-오창-혁신도시-충주 국가 혁신거점 벨리 조성 개념도

□ 국가 내륙 ICT 기반 스마트 물류기지 조성

- 충청북도 중·북부권은 국토 중심, 내륙지역으로 물류거점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정학적 위치를 선점하고 있음
- 5대 국가 물류기지 이외에 내륙지역 산업단지의 물류 수송을 지원할 물류기지 건설 필요

□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균형정책의 내실화

- 도 내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지역발전기반 필요성 대두에 따라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및 농업기술원 등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균형정책 내실화

□ 공공의료체계 개편을 통한 의료 사각지대 개선

- COVID-19로 촉발된 팬데믹 현상의 세계적 확산 추세로 인해 중요성이 커진 공공의료체계의 서비스 권역 재편
- 감염병 방역,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등의 공공의료서비스 증대 추세에 부응하여 공공의료기관의 확충, 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 수요기반형 의료서비스권역을 수요기반은 민간의료체계가 담당하고 공급기반은 공공의료체계가 담당하는 체계로 공공과 민간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

□ 백두대간권 관광루트 활성화를 통한 포용성장 견인

- 한반도에 생명의 혈류를 공급하는 깊은 산길과 물길의 땅, 자연에 순응하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리움의 땅 녹색감성관광의 선도지대를 위한 연계형 관광루트 개발
- 백두대간권 자원의 특성화 개발을 위해 에코관광벨트를 설정하고 지자체 간 연계를 위한 개발 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백두대간 관광순환도로망체계 구축

제2절 포용국토 실현을 위한 상생형 연계협력 구상

1) 상생협력을 위한 기본방향

□ 성장지역과 저발전지역의 균형적 성장(Stability)

-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충청북도만의 지역균형발전 정체성 확립으로 실현목표에 따른 키워드를 선정하여 실행계획 등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한 안정적 기반 마련
- 지역 브랜드 강화로 지역 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며, 창조지역산업의 육성을 통한 도내 지역 융성(영역적 발전) 도모

□ 포용국토 형성을 통한 미래먹거리 창출기반 구축

-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새로운 신발전축인 강호축 완성으로 미래먹거리 창출기반 마련
- 강원-충청-호남의 문화적 기술적 연결고리를 통해 지식기반, 신산업, 역사문화자원의 연계를 통한 미래먹거리기반 마련

□ Hardware 확충 전략에서 Software 확산 체계로 전환

- 저발전지역이 보유한 지역 특색이 담긴 고유한 문화, 지식, 기술, 감성 등 소프트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혁신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연계하고, 결과적으로 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함께 만들어 가는 참여·소통 강화(Communication)

- 지역주민 및 행정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추진체계 확립 및 자생적인 복지 구현
- 행정이 주도하고 주민이 소극적으로 참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 지역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지역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

□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상생발전(Win-win)

- 지역격차 해소를 통한 저발전지역에서 발전지역으로의 단계적 도약 및 균등화
- 각 지역별 지역 특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상생적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여 공동의 목표 설정을 통한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정주 환경(인프라 확충) 개선

□ 계층적 행정시스템에서 통합적 거버넌스체계로 구축

- 충청북도 차원에서 저발전지역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련 부서 간 통합적 협력 및 사업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도와 시·군 간 관련 부서의 책임성과 권한 부여
- 전통적, 계층적 행정구조로는 균형발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도-시·군-민간(전문가그룹 포함)이 참여하는 통합적 협치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참여 주체 간 파트너십 구축

2) 연계협력지구별 발전방향

□ 수도권 협력지구

- 수도권과의 연계망 구축을 통해 신 지역 발전축을 형성하고 수도권의 개발 효과가 이전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 혁신도시인 중부 신도시 및 충주기업도시와 연계발전 방안을 위한 공동협력 사업 추진
-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국토의 연결지대로서 지역 간의 연계성 제고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고속도로와 공항을 중심으로 다중(多種)·다층적(多層的)인 교통·물류 기반 조성
- 도시 간의 광역적 교류를 추구할 수 있는 생활양식의 재구축을 위한 소프트한 측면과 공공시설과 사회간접자본을 균형 있게 배치하는 하드웨어적 측면을 동시 검토

- 1) 수도권 내륙선과 중부내륙선 복선화 및 지선 건설을 통한 수도권 협력
- 2) 수도권 규제완화의 적정선 유지를 통한 상생협력 기반 마련
- 3) 충주호 물관리체계의 재구축을 통한 호수권역 발전 기반 마련

□ 행정중심복합도시권 협력지구

- 세종시와 충청북도의 관문 기능을 하게 될 오송역을 중심으로 세종시, 대전광역시, 청주시 간 공동협력지구 구축을 통해 내륙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 지역에 입지한 특성화 대학, 토지자원, 인적·문화적 토양 등을 활용한 청정·첨단산업의 기반 조성
- 전국 및 도 차원의 산업입지계획을 감안하고, 첨단화·고부가가치화·친환경화에 중점을 둔 입지전략 수립
- 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 시에 생산·연구·주거·문화 및 유통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입지한 복합단지의 개념을 도입하여 개발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1) 청주국제공항의 관문공항 지정을 통한 수도권 배후공항 위상 부여
- 2) 중부권 차세대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활용 산업 육성
 - 차세대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종합지원 인프라 구축
 - ①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접근 교통인프라 조성
 - KTX오송역 전용도로 개설
 -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철도망 구축
 - ②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활용지원 인프라 구축
 -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활용지원센터 구축·운영
 -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연관 특화산업단지 조성
 -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소재·부품·장비 테스트베드 구축
 - ③ 글로벌 사이언스타운 조성
 - 국제관(게스트하우스) 건립 조성
 - 사이언스 아카데미 빌리지 조성
 - 지식산업복합센터 조성

□ 중부내륙권 협력지구

○ 국제적 산악 문화관광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부내륙권 협력지구 구축

- 중부내륙권의 울창한 산림, 수려한 경관과 수변자원, 유서 깊은 역사·문화자원, 온천자원, 고유의 인적·문화적 토양 등을 연계시켜 국제적인 관광 거점육성
- 국가 및 도 차원의 관련 계획과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을 감안하고, 개발 목표의 단계적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광역적 관광개발사업의 전개
- 국제적인 산악·문화관광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산악과 역사 문화, 수변자원을 연계시킬 수 있는 기반 시설의 확충

○ 내륙의 새로운 성장지역으로 육성

- 개발촉진지구, 폐광지역진흥지구, 특정지역, 지방광역권 지정·개발 등 국가 차원에서 전개되는 일련의 개발계획의 활용을 극대화시켜 만성적 낙후지역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21세기 내륙의 새로운 성장지역으로 도약하도록 유도함

1) 바이오 전문인력양성 기반 구축

① 교육용 국제규격 GMP 시설 및 장비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배양, 정제, 완제 공정, GMP 유틸리티 등 시험생산 및 분석 교육을 위한 실습시설 구축
- 바이오공정 및 분석 교육용 기기·기자재 등 실험장비 구축

②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공정 교육커리큘럼 운영 (보건복지부)

-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시스템 도입
- 국내 수요를 반영한 바이오 교육과정 운영

③ 인력양성 연계 정주기반 확충 (국토교통부)

- 행복기숙사(연합 게스트하우스) 건립
- 바이오 전문 커뮤니티센터 건립

2)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을 통한 수소경제 거점화

- 수소 기반의 미래형 자동차 산업 거점
- 수송기계 및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 구축

□ 백두대간권 협력지구

○ 백두대간권 협력지구는 과거 경부축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수도권과 영남권의 연계협력 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고 내륙산악 발전을 위한 협력지구 구축

- 중부권과 경북 중·북부권 간의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조와 주민의 친선을 도모하는 지역 간 교류의 모범사례 지역으로 발전

○ 백두대간 생태회랑길 복원 사업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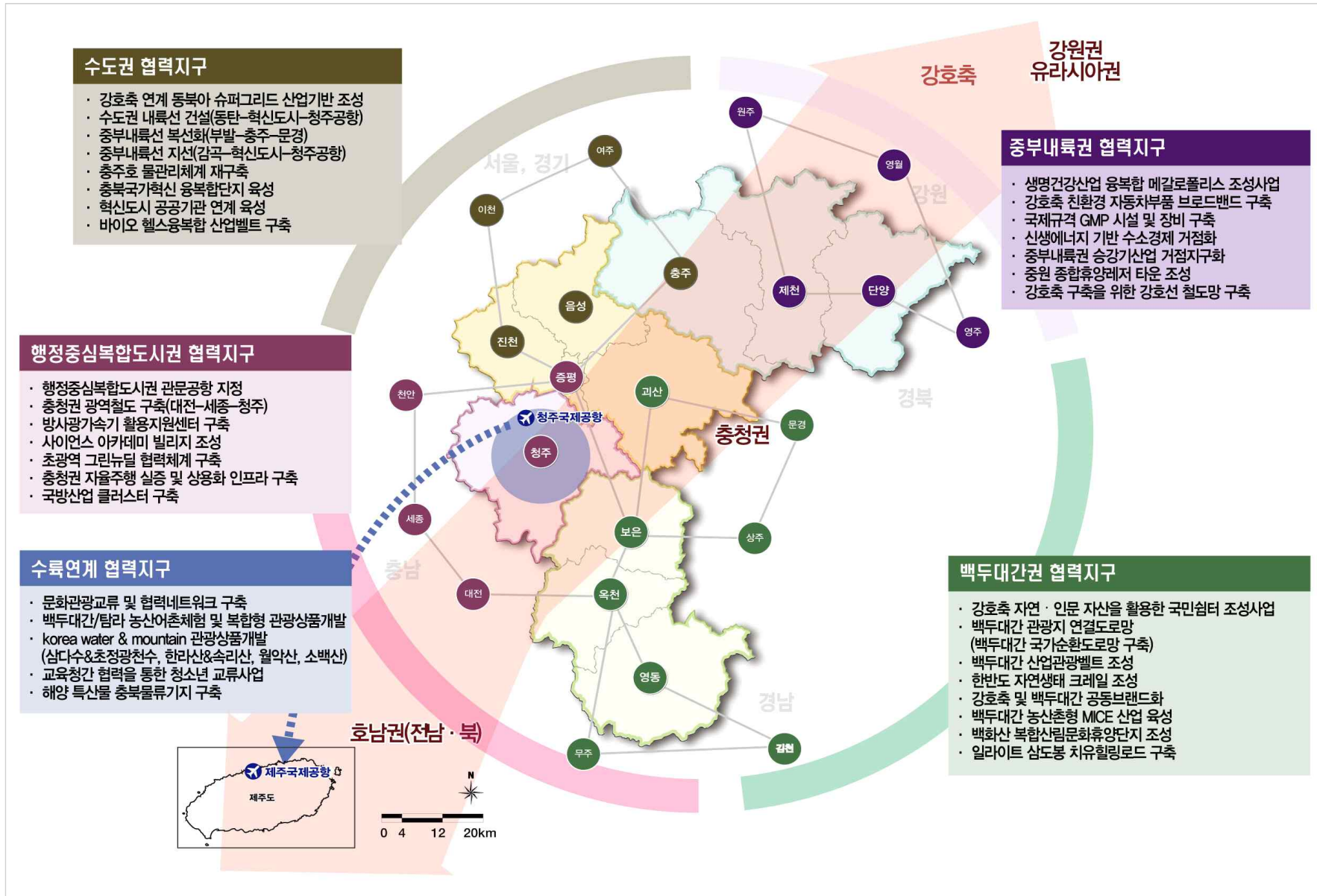
- 국내 최초의 경부축이었던 조선시대 과거길 재현 및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지자체에서 조성 중인 생태길을 연계한 역사문화자원의 발굴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추진

- 1) 백두대간 자원 활용기반구축
 - 백두대간 곤충생태 체험 연구관 건립
 - 백두대간 삼도봉 에코트레일 조성사업
 - 백두대간 국립생태원 건립
 - 붉은점모시나비 생태탐방로 조성
 -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성
 - 백두대간 교육·체험 복합문화공간 조성
- 2) 백두대간 지역특화자원 육성 사업
 - 백화산 복합산림문화 휴양단지 조성사업
 - 청정과일나라 포도 박물관 및 체험장 건립
 - 단양 수목원 조성사업
 - 속리산 말티재 치유의 숲 체험단지 조성사업
 - 일라이트 삼도봉 치유 힐링로드 구축사업
 - 옥천묘목공원 명소화 사업
 - 단양 에코 순환루트 인프라 구축사업
- 3) 백두대간 자원의 브랜드 가치 제고
 - 충청북도 백두대간 통합축제 및 콘텐츠 발굴
 - 충청북도 백두대간 경관 및 공공디자인 통합운영체계 구축
 - 충청북도 백두대간 여행자 플랫폼 조성
 - 충청북도 백두대간 스마트 마을숙박공유 플랫폼 조성
- 4) 백두대간 인프라 구축
 - 무주 ~ 영동 ~ 상주 고속도로 건설사업
 - 백두대간 국가순환생태도로망 구축

□ 수륙연계 협력지구

- “내륙의 섬 충청북도”와 “바다의 섬 제주” 간 유대강화를 통한 상호 상생관계를 형성하고 내륙과 해양의 상호교류로 블루오션 창출 기대와 섬과 바다를 꿈꾸는 도민의 소망 수용
- 제주도와 문화, 관광, 농·특산물 등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관광 및 항공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내륙지역의 경제 기반 마련
- 산악자원과 해양자원을 활용한 청소년체험 교류 사업을 추진

- 1) 해양 기지 진출의 전초기지 육성을 통한 사업구조 다변화 대응 체계 구축
 - 감굴 등 제주 섬 기반의 원료를 활용한 화장품 소재 산업 육성
- 2) 농협과 수협 간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농어민의 소득향상
 - 제주 수산물 및 과실류의 내륙 전초기지 육성을 위한 공항물류 강화
 - 내륙지역의 제주 진입을 위한 거점기반 마련
- 3) 충청북도와 제주 교육청 및 대학 간 교류 확대
 - 체험시설의 다변화 및 교류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기반 확대



〈그림 II-2- 3〉 연계협력지구별 발전방향

제3절 ▶ 상생발전을 위한 균형발전 구축전략

1) 생활권 설정

- 충청북도의 지역생활권은 네트워크형 도시체계의 형성을 전제로 하되, 세종시와 중부 신도시 및 기업도시 등을 고려하여 생활권을 설정토록 함
- 지역생활권은 기존 생활권 체계, 생활권 내부의 지역 간 기능적 연계성 및 공공부문의 서비스 공급망, 생활권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4대 지역생활권과 세종시 연계생활권, 대전연계 생활권 등 2대 연계생활권으로 구분
- 청주생활권은 도농통합을 전제로 청주·(구)청원권 전체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충청북도의 최 상위 도시 기능을 적절히 분담시키면서 천안·아산권, 세종시권 등과의 경쟁 관계를 고려하여 해당 도시권의 중추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동일 대생활권으로 구분
- 남부생활권은 역사적으로 지리적 입지특성에 의해 대전권과의 교류가 빈번함에 따라 청주권보다 대전권과 동질성을 갖고 있는바, 정서적 이질성 극복을 위한 연계망 구축을 통해 보은, 옥천, 영동을 동일 지역생활권으로 구분
- 중부생활권은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내륙 이동축 선상에 있는 생활권으로 청주권의 성장 효과가 북부권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생활권으로 혁신도시 연계 소생활권과 지리적 동질성이 약한 괴산을 포함하는 중부 대생활권으로 구분
- 북부생활권은 세종시 중심의 행정수도에 대응하는 신 발전축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축의 구심역할을 할 수 있는 생활권으로 녹색성장 시대의 도래와 4대강 유역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국토 내륙의 발전을 견인하는 백두대간권의 중추기능을 담당할 지역 대생활권으로 구분

〈표 II-2- 1〉 지역생활권 및 중심지 체계

생활권	중심지 체계		대상지역
	시군중심지	기초중심지(읍)	
청주권	청주	오송, 오창, 내수, 강내	청주
중부권	증평, 진천, 괴산, 음성	증평, 진천, 광혜원, 괴산, 음성, 금왕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북부권	충주, 제천, 단양	제천, 봉양, 단양, 매포, 주덕, 수안보	충주, 제천, 단양
남부권	보은, 옥천, 영동	보은, 옥천, 영동	보은, 옥천, 영동

2) 도농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 광역중심지는 권역 내 생활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키기 위해 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광역중심지와 배후지역 간 교통·정보통신연계를 강화하여 네트워크형 도시체계 구축
- 시·군 중심지 및 기초 중심지는 도시환경개선을 통한 전원도시화를 추진하되, 지역 실정에 맞도록 농촌 중심형, 대도시 주변형, 특수 기능형으로 발전전략을 차별적으로 적용
- 지역생활권에 포함된 시·군 간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와 공동 이용체계 구축으로 운영 효율성 제고
 - 충주시는 수도권과 중부권의 세력권 내에 있기 때문에 청주권 및 수도권의 개발수도가 북부권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촉진지구 기능 부여
 - 보은군의 회인·내북지역은 연계발전을 위해 청주 대생활권 계획과 연계 필요
 - 괴산군은 북부권과 남부권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완충지대 기능 부여



〈그림 11-2- 4〉 지역생활권과 중심지 체계

3) 365 기반 다기능복합화 사업 추진

- 행정구역 단위의 사업추진방식에서 탈피하여 행정 경계를 넘어서는 상위 중심지 간 광역적 생활 서비스를 공동·상호 이용하는 방식
- 해당 중심지의 특성에 따른 서비스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기존 시설의 운영 효율화 및 기본적인 필수 서비스는 농촌 중심지에 집중시키더라도, 농촌 중심지 입지 수요를 초과하는 고차 서비스에 대해서는 생활권 내 시·군 간 협력 강화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으로 해결
 - 이동도서관, 의료 순회 서비스, 문화예술회관 셔틀버스 운행 등은 좋은 사례
 - 인접 도시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바우처’를 발행하고 정기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찾아가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전국 획일적인 시설 설치비용보다 저렴
- 사업의 복합화·연계화, 유희시설 활용농촌 주민들의 필요에 근거한 시·군 중심지, 읍·면 중심지, 마을 단위에 설치 가능한 공동시설의 유형은 다음과 같음⁴⁾

〈표 11-2- 2〉 마을-읍·면-시·군 단위 반드시 필요한 농촌 공동시설 배치(안)

구 분	마을 단위 시설	읍면 단위 시설	시군 단위 시설
공공시설	-	농협 또는 은행	우체국
커뮤니티시설	마을회관, 경로당, 정자, 공원, 공동주차장, 정보화센터	주민자치센터	시장(장터), 공동주차장
건강·운동 관련 시설	건강관리실·목욕탕, 기타 소규모 운동시설,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보건소, 체육공원
문화·여가 관련 시설	-	도서관	박물관·전시관·미술관, 문화·예술회관
교육·보육 관련 시설	-	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농업생산 관련 시설	공동 농기계 창고, 공동 농산물 창고, 공동 집하장, 공동 육묘장, 공동 저온저장 및 예냉시설, 공동작업장	-	공동 산지유통센터, 공동 전시 및 판매시설, 미곡종합처리시설, 공동 가공시설, 축산물 종합처리시설
수산업 관련 시설	공동 어구보관소, 수산물 위판장	공동 냉동창고, 종묘생산시설 및 수자원 육성시설	수협시설
기타 소득시설	민예품·공예품 등 공동 제작실	체험관 및 체험학습장, 체험시설 내 숙소, 관광농원, 안내센터	휴양 단지

자료: 김광선·이규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 공동시설의 유희와 실태와 활용 증대 방안, 2012

4) 김광선, 「농촌중심지 육성 및 정비사업의 성과분석과 향후 추진전략 연구 서면자문요청서」, 2013, 인용



-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에 의해 이러한 공동시설을 농촌 중심지에 설치할 때에는 기존의 유휴시설을 조사하고 이를 활용하는 내용을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시에 포함하도록 할 필요
- 시설의 복합화 유도 역시 농촌 주민의 수요에 기반을 둘 필요가 있으며, 김광선·이규천(2012)은 주민 수요에 기반한 농촌 공동시설의 ‘기능 복합화 연결망’ 분석을 통해 기능 복합화 가능성이 높은 시설군(群)을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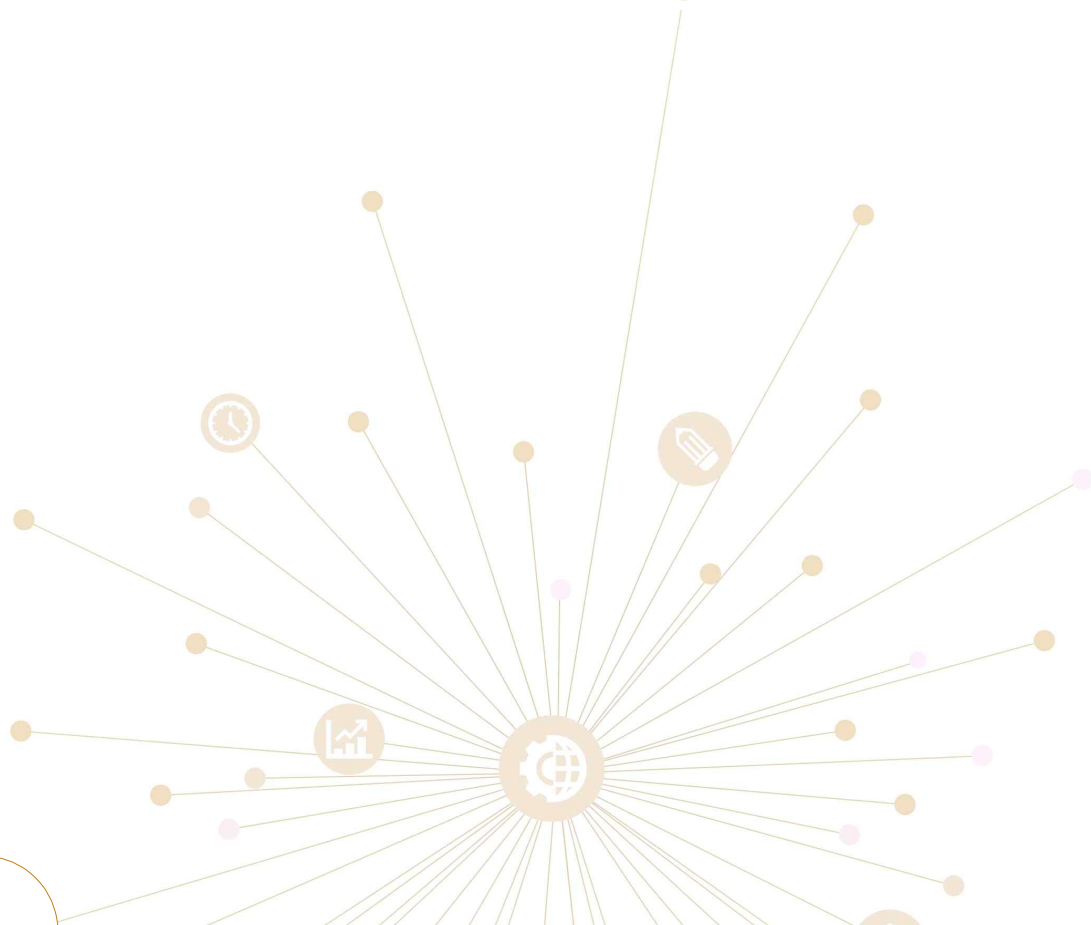
4) 거점지구 설정 및 거점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중심성 강화

□ 중심지 내 거점지구 규모 설정

- 2020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위원 회의자료(2019.3)에서는 거점지구 규모 설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대략의 규모를 면급 시가지는 반경 100m 내외, 읍급 시가지는 300m 내외로 제안하였으나, 이를 세분화하여 규모 및 형상
- 거점지구의 규모는 도보권내로 하고 도보권의 범위를 좁힐수록 효과가 크지만 현실적으로는 설정하는데 어려움
- 권장하는 안(도시재생뉴딜사업의 규모 참조)으로는, 중심시가지의 목표연도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인구 5천 명까지는 200m x 200m 내외 (5만㎡ 내외),
 - 1만 명까지는 300m x 300m 내외(10만㎡ 내외)
 - 2만 명까지는 400m x 400m 내외(16만㎡ 내외)
 - 2만 명 이상은 500m x 500m내외(25만㎡ 내외)의 블록 단위로 함
- 일반적으로는 도보권을 직선거리 기준 반경 400m-500m로 하지만, 고령자의 경우는 300m로 하는 것이 타당
- 읍면 시가지는 인구 5만 명 미만 소도읍임을 감안하여, 모두 단일 거점지구(one center)를 형성토록 하고, 형상은 정형화하며,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블록 단위로 함

□ 중심지 내 거점지구 중심지기능시설의 확보방안, 배치방안

- 중심지 내 중심지기능시설은 행정시설,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교육시설, 보건의료시설, 상업시설, 금융시설, 교통시설의 8종류임
- 중심지기능시설 확보방안, 배치방안(안)
 - 거점지구 내 기준대비 없거나 부족한 시설, 보완이 필요한 시설 도출
 - 도출된 시설에 대해 중심지 내 거점지구로 입지토록 하고, 가능한 복합화·연계화 도모. 대중교통과 연계방안 마련
 - 유사 시설 및 중복된 시설로 말미암아 통합이 필요한 경우, 폐합된 시설에 대한 사후활용방안과 단계적 추진, 유도·촉진/규제·억제 시책



제Ⅲ편

부문별 추진계획

제1장 창의적인 지역발전, 연대와 협력의 상생지역

제2장 공간의 지능화와 효율적 인프라 운영·관리

제3장 혁신을 주도하는 신산업 기반 조성

제4장 국민여가지대, 치유형 문화관광 기반 조성

제5장 품격과 여유로움이 충만한 환경친화적 청정 충북 실현

제6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의 공간 창출

▶ 제 1 장

창의적인 지역발전, 연대와 협력의 상생지역

제1절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혁신지역

제2절 모두가 함께하는 사람 중심의 공간재생

제3절 누구나 살고싶은 활력 있는 강소형 농촌

제4절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포용지역

제5절 지속 가능한 토지이용·관리를 통한 공간효율형 지역 창출



제1장 창의적인 지역발전, 연대와 협력의 상생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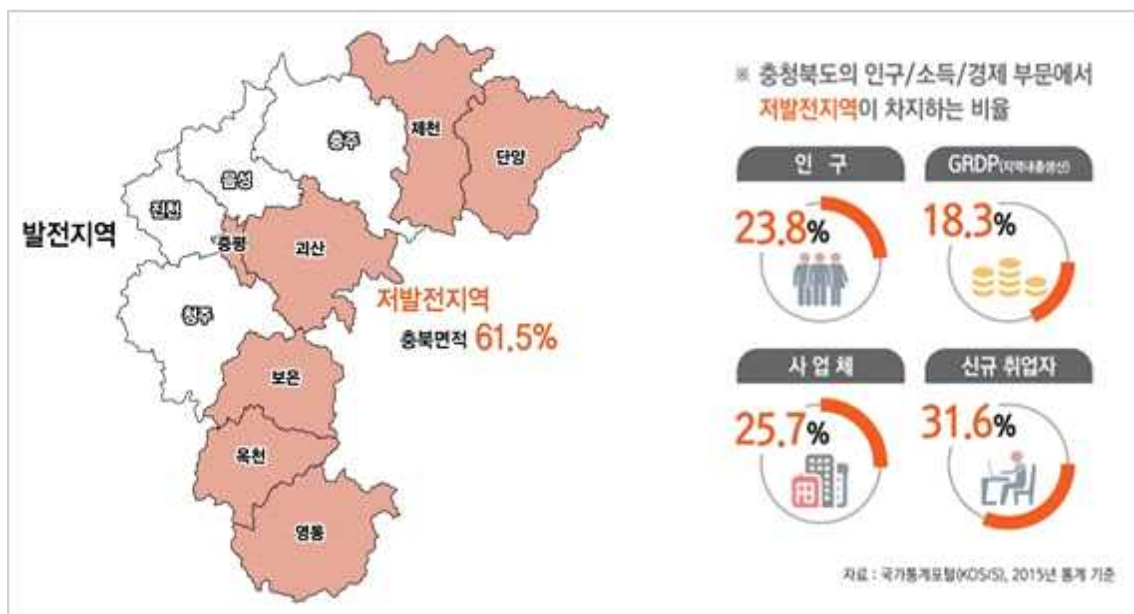
제1절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혁신지역

1) 현황 및 문제점

I 현황

□ 권역별 지역별 발전격차 확대

- 충청북도의 경우 발전지역(충청북도 면적의 약 38.5%)과 저발전지역(충청북도 면적의 약 61.5%) 간 발전 격차 심화로 인해 불균형 양상이 지속되고 있음
- 충청북도의 인구, 소득, 경제 부문에서 저발전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발전지역 대비 약 2~4배 정도의 격차를 보임
- 도 전체 인구의 52%(2016년 기준), 제조업 종사자 수의 42.8%(2015년 기준)가 청주권에 집중
- 진천·음성군이 신성장지역으로 부상하면서 남·북부권의 저발전 심화



〈그림 III-1-1〉 충청북도의 일반현황



- 특정 지역으로의 인구 집중 및 유출 현상의 심화는 지역의 낙후 및 경제적 쇠퇴를 유발
- 특히 낙후지역 주민들의 정책 소외의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감소 시대의 도래에 따라 지역 소멸의 우려 심화
- 지역 불균형 문제는 도민의 통합 및 지역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조속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임

□ 충청북도의 생활SOC 수요 확충의 필요성 대두

- 도민의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복지 서비스는 생활SOC를 필요로 하며 국가 기준에 맞춰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일부 생활SOC 시설은 관계 부처에서 공모제로 추진하여 미리 준비가 안 된 시·군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됨

□ 도시집중 및 농산촌의 인구감소 심화

- 충청북도내에서 진천군의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으나 그 외 군 지역은 인구 감소가 지속되어 생활SOC 시설을 확충할 때, 인구 집중지역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시설 입지의 격차가 상존할 수 있음
 - 청주시와 충주시는 완만한 인구증가 추세를 보이며 도시 세력을 유지하고 있음
 - 증평군의 경우가 콤팩트 도시로서 기초 생활SOC 공급이 비교적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음

□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 지속

- 충청북도의 출산율은 2018년 1.172명으로 전국 평균 0.977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충청북도의 전년도 1.235에 비해 하락하였음. 2019년 말 현재 충청북도의 고령화율은 17.09%로 2017년의 15.83%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음(통계청 KOSIS 인용)
 - 출산율의 저하는 영유아 및 어린이, 임산부 등을 위한 복지시설의 여유를 가져올 것임
 - 고령화의 지속으로 노인인구를 위한 시설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게 될 것임
 - 고령화는 장애인구의 증가와 동반하여 특수 차량의 보급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

-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정책 및 도내 저발전지역 대상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올해로 14년 차(2020년 기준)에 접어들었으며, 전국적인 수범 사례로 소개될 정도로 선도적인 위치에 있음



〈그림 III-1-2〉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과정(2006년~현재)

-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저발전지역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시·군의 지역 발전 수준을 5년마다 분석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
- 현재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기준으로 한 지역발전도 지표는 소득, 생활, 복지, 지역개발 등 4개 부문 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준화 분석에 따라 결과 값이 현저히 낮은 7개 시·군을 저발전지역이라 칭함
-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 12조에 의거하여 지역발전도 정도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을 원칙으로 함



I 문제점

□ 시군별로 격차 확대

- 시군별 재정 여건 및 인구 규모 등에 따라 기초 생활 인프라 시설의 입지 수준에 편차가 있음. 청주시와 충주시가 비교적 양호한 편에 있으나 그 외 군 지역은 대부분의 기초 생활 인프라 시설이 국가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군 지역의 공간적 특성으로 인구가 산재되어 있는데 비해 기초 생활 인프라 시설은 인구가 집중된 곳에 몰려있기 때문임. 혹은 군 지역에는 기초 생활 인프라 시설 자체가 태부족이어서 일어나는 일로 볼 수 있음
- 전체 시·군 모두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은 다른 기초 생활 인프라에 비해 비교적 접근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법적 기준에 충족하여 배치되거나 수요자에 대응하여 입지를 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그러나 노인교실과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공원 등은 공공시설임에도 접근성이 열악함. 이들 시설은 이용 특성상 거주지 주변에 위치해야 고령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음
- 의원과 약국은 공공이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민간에 의존하는 영역으로 시장 수요에 따라 인구 밀집 지역과 상권에 편중되는 것이 일반적임. 특히 군처럼 농촌형 정주 공간인 경우 의원이나 약국이 원거리에 입지하는 것이 군민에게는 불편한 일이지만 공공의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 자동차가 대중화되었다고 하지만, 공영주차장의 접근성도 좋지 않음. 이 경우는 상가 주변에 적절한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임. 다만 공영주차장이 적게 분포한다고 해서 상가나 주거지 주변의 주차 문제가 반드시 심각하다고 볼 수는 없음

□ 인구 감소 및 고령화시대 계층별 시설 편중 심화

- 충북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저출산 및 고령화의 인구구조 추이로 볼 때, 경로당을 제외한 노인교실, 고령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의원이나 약국 등의 접근성이 점점 악화되어 이용이 불편해질 가능성이 높음
-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우도 출산율 저하로 인해 시설 확충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접근성 자체가 개선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 국가 기준인 시간상 5~10분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용권역이 원거리화됨으로써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볼 수 있음
- 청소년 및 일반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서관의 경우는 국가 기준인 15분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며, 건물뿐만 아니라 장서도 비치하여야 하므로 개소수를 늘려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여건분석 및 전망

I SWOT 분석

- 국토의 중심지역으로 지역별·권역별 특화 전략산업의 발전 기반을 가지고 있으나 청주권의 지나친 집중으로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며 R&D를 포함 인적자원 여건이 열세함
- 혁신도시와 세종시 및 오송역세권 추진으로 균형발전과 청주권 광역화 가능성이 있으나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도내 고급 인적자원의 유입이 어려움
- 지역 간 불균형 완화를 위한 균형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 인구 유입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표 III-1- 1〉 SWOT 분석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중심지역으로 입지적 우월성 • 청정환경 및 산악-호수 관광자원 풍부 • 청주공항 활성화로 관문지역 위상 증대 • 지역별·권역별 특화 전략산업의 발전 기반 • 충북에 3개 국립공원이 입지하여 여가·휴양문화에 적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를 포함한 인적자원 여건 열세 • 지역 간 불균형 개선성과 및 사회통합성 미흡 • 국립공원(3P)/담(2D) 등 개발규제에 따른 공간개발 제약 • 청주권의 지나친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 심화 •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시설 수요·공급의 문제 발생 • 군 지역은 인구가 분산되어 접근성이 낮음(시설집중 및 이동서비스 필요)
기회(O) ⇒ 포착	위협(T) ⇒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 및 오송역세권 추진에 따른 청주권 광역화 가능성 • 혁신·기업도시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인한 균형발전 도모 • 지속적 증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귀농·귀촌 인구 • 지역별 인프라 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연계사업 추진 가능 • 자동차를 이용한 여가·휴양 문화의 증가로 도내 이용객 유입이 기대됨(시설 개선 수요도 증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및 고령화 지속으로 국가 인적 자원 유입의 어려움 •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주요 생태자원 훼손 우려 •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주요 기능 및 고급 인력의 수도권 유출 가능성 우려 • 기 낙후된 시설의 개선 수요가 증가함

I 여건전망

□ 지방자치단체의 잠재력을 기반으로 한 삶의 질 추구

- 1-3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대 및 자주적 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로 양적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인식의 전환
 - 전략사업 범위의 확대(H/W+S/W)를 통한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 강화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유형 고도화 기반 마련



□ 사업 추진에 대한 세부지침 수립 및 제도화

- 기본계획 내용을 수용하여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지향하여야 할 종합적인 실행계획 수립 및 시·군별 이행률 제고
 - 실행계획에 대한 저발전지역의 이행률 제고를 위해 제도화 추진(예시 : 조례 개정)
-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인 행정절차 문제(투융자심사, 보상협의 등)에 대해, 사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 계획 기간 내의 사업 완료 유도
 - 계획 기간 내 미종료 시, 페널티 부여 방안 강구
- 자주적 사업추진역량 제고를 통한 효율적 사업추진체계 구축 완료
 -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지표 선정 및 기능 강화로 사업 추진 독려
 - 단계별 차별화된 맞춤형 사업 지원과 중장기적으로 졸업제도 도입
 - '지역균형발전사업 사후관리 지침' 제정을 통한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 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 분석을 통한 성과 제고

- 시·군별 지역균형발전사업 특성에 따른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성과제고 체계 마련

□ 성장지역 내에서의 불균형 격차 문제 발생

- 저발전지역 이외의 성장지역 내에서도 거점지구 단위의 인구 및 시설집중으로 인한 발전 격차 발생으로 균형발전 정책의 확대 요구 예상

□ 행정서비스 사각지대에 대한 서비스 시설의 공급확대

- 인구 감소로 인한 행정서비스 사각지대에 행정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시설 공급에 대한 확대가 예상
- 시설의 집중화, 기능의 복합화를 통한 생활SOC 복합화 시설의 확대

□ 유희시설 및 유희토지의 활용

- 유희시설과 유희토지 및 대상 지역에 공급된 인프라에 대한 유지관리의 문제

3) 추진과제

□ 강호축 육성을 통한 미래먹거리 창출 기반 구축

-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새로운 신 발전축인 강호축 완성을 통해 미래먹거리 창출 기반을 마련
 - 강원-충청-호남의 문화적 기술적 연결고리를 통해 지식 기반, 신산업, 역사문화자원의 연계를 통한 미래먹거리 기반 마련
 - 내륙첨단발전권의 성장축과 백두대간권의 보전축을 활용한 발전계획의 구체화를 통한 미래먹거리 프로젝트 추진

□ 생활SOC 복합화의 추진

- 단일 시설의 확충보다 전 연령층, 일반인과 장애인 등이 공유하는 생활SOC 복합화가 비용 저감 및 이용률 제고
- 생활SOC 시설이 부족한 시군에서 개별 시설을 추진하기보다 다목적 다기능의 복합시설 확충을 통한 국가 최저기준에 부합하는 기초 생활 인프라 확보
 - 읍면의 거점지구 단위의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
 - 권역별 생활SOC 복합센터 확충

□ 충북균형발전정책의 확대

- 충청북도 내 지역발전을 포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통합지원기구를 설립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추진 유도
 -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충북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마을살리기 뉴딜사업, 농시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재생사업,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의 통합운영관리 필요
 - 충북 지역균형발전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사업 지원관리 역할의 센터를 설립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지원·관리하는 중간지원기구가 미흡한 실정
 - 충북발전광역연구센터 신설을 통한 국가지원사업과 충청도 지원사업의 통합운영관리체계 구축
- 저발전지역의 단계별 지원방안 마련과 졸업제도 도입을 통한 동기부여 제공
 - 도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소단위(읍면)에 대한 저발전지역 해소방안으로 읍면 단위로 확대하는 모자이크프로젝트사업 추진
 - 4, 5, 6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속추진과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시군 단위에서 읍면 단위로 지역균형발전 사업 확대 추진
- 기초자치단체 주도 균형발전사업 추진 시·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개편
 - 도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확대와 지원 유형 개편을 통한 도 균형발전 정책 확대 방안 마련

□ 경쟁력 있는 도시축소를 통한 소거점 단위 지역정책 추진

- 읍 중심의 상위 인프라 거점과 면 중심의 생활 인프라 거점 간 연계화 전략
 -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을 위계별로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 인구감소지역을 저차중심지(읍면)-중차중심지(군)-고차중심지(시군연계) 중심으로 재구성
 - 저차중심지는 다시 읍에는 '상위인프라 거점'을, 면에는 '생활인프라 거점' 조성
 -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 극복과 도시의 경제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시군 기본계획 상에 주요 시설을 집중 재배치할 수 있도록 유도
-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인구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활 인프라를 집중하고, 범부처가 융합적으로 생활기반시설을 조성 지원할 수 있도록 거점 조성전략 마련
 - 인구감소지역의 읍에 해당하는 생활 중심지에 다수 배후 마을(생활 인프라 거점)을 연계하는 거점 마을 조성 및 활성화 정책 추진
- 소거점 중심의 농촌지역개발정책
 - 시·군의 거점지역에 생활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인구 유출을 막는 댐을 곳곳에 설치하는 효과기대
 - 최소한의 경제권, 생활권, 교육권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읍면 단위를 소거점으로 중점육성하기 위해 소거점 단위의 농촌지역개발 정책 추진
 - 마을 단위에서 추진되어 왔던 농촌지역개발정책을 소거점 단위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적 지역개발모델 발굴을 통해 차별화된 농촌지역개발정책 추진

□ 생활중심지 계층별 서비스 전달 체계화 강화

-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지 이론에 따른 생활서비스 유형으로 재분류하고, 거점마을 등 중심지 위주로 생활서비스 집중
 - 공간구조 재편에 맞추어 일상적 수요를 감당하는 저차중심지로부터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차중심지를 구분하여 생활서비스 유형 재 배분
- 인구 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신규 생활서비스 수요 예측을 통한 수요맞춤형 생활서비스 발굴
 - 발굴된 신규 생활서비스 수요는 시군 중심지↔읍면 중심지의 생활 중심지 계층별로 서비스 전달 체계화 강화

□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서비스 활성화

- 인구감소지역 주민 중심의 생활 자치 활성화와 주민의 자발적 조직에 의한 민간서비스 활성화
 - 문화·복지 등 생활 밀접 사무의 협의, 주민 불편, 소규모 현안 등을 해결하는 주민 주도의 생활 자치 조직 기능 강화

□ 4차 산업혁명 및 인구 감소 대응 유연한 토지이용체계 구축

○ 자연보호형 토지이용체계 개편을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화 도모

- 수직적 토지이용을 통해 토지효율성 제고
- 도시재생사업 방식의 혁신적 개편
- 지역별 차등화된 용도지역지구제 재편을 통해 탄력적 토지이용 기반 마련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자연보호형 차등 용도지역지구제도 도입
 - 유연화된 인구유형별 ZONING 체계 도입을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도모

□ 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성과확산을 통해 경쟁력있는 농촌 조성

○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생존 가능한 농촌으로 발전을 위한 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재구조화

- 환경변화에 대응한 도 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사업 재구조화
- 저발전지역과 발전지역 간의 차별화된 전략사업 추진

□ 행정 주도에서 주민 주도의 참여기회 확대

○ 지역 전체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계획 초기단계부터 주민이 계획 수립과정을 수시로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역할 수행

- 주민 스스로가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행정이 지원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균형발전사업 추진
- 충청북도의 지역적 특성과 주거 형태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의 운영모델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지원방안 마련

□ 계층적 행정시스템보다는 통합적 거버넌스체계 구축

○ 충북도 차원에서 저발전지역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련 부서 간 통합적 협력 및 사업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도와 시·군 간 관련 부서의 책임성과 권한 부여

- 전통적, 계층적 행정구조로는 균형발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도-시·군-민간(전문가 그룹 포함)이 참여하는 통합적 협치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참여 주체 간 파트너십 구축

○ 지역 간 자율적인 협력으로 공공서비스 운영 및 투자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거버넌스 운영

- 11개 시군의 협력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중앙-지방 간 역량 강화
- 국책사업이나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지방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관련 법령 정비
- 국정 과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참여기반 마련



- 생활권 중심 연계협력 강화, 인구 감소에 대한 공동 대응 등 장소 기반형 지역지원제도 운영
- 도내 11개 시군을 생활권 중심으로 권역을 설정하고, 공동대응 추진
 - 인구추이 동향 모니터링, 인구감소에 대한 지역적 원인 및 지역 차원에서 추진할 공동 대응방안 모색
 -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권 중심의 연계협력 강화

〈표 III-1- 2〉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혁신지역을 위한 추진사업

전 략 명	과 제 명	단기 (20~25)	중기 (26~30)	장기 (31~40)	비고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혁신지역	1. 강호축 연계 미래먹거리 기반 확충				
	2. 권역별 생활 SOC 복합센터 확충				
	3. 세포 확충형 모자이크 프로젝트 추진				
	4.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5. 취약계층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6.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속추진				
	7. 도 균형정책 단계별 승급제도(졸업제도) 도입				
	8. 충북 균형발전정책 평가제도 도입				
	9. 시군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표 III-1- 3〉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혁신지역을 위한 시군계획지침

※ 시·군 계획지침

- 시·군은 생활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국가최저기준에 부합되는 생활SOC 공급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시·군은 인구구조 변화 및 도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접근성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한다.
- 시·군은 고령자, 여성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생활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한다.
- 시·군은 생활서비스 분야의 당면한 공통 문제나 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 지역과의 자율적인 연계·협력 방안을 우선 강구한다.
- 인구구조 변화 및 행·재정적 여건으로 인해 개별적 사업 수립·집행, 추진이 어려운 시·군은 인접 시·군과 연계하여 통합계획 수립 및 공동 집행 방안을 강구한다.

제2절 모두가 함께하는 사람 중심의 공간재생

1) 현황 및 문제점

I 현황

□ 도시쇠퇴

- 충청북도 내 11개 시군의 총 153개 읍·면·동 중 93개(60.8%) 읍·면·동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기준 2개 지표 이상 해당
- 쇠퇴지역 비중은 청주시가 23.7%로 가장 높고, 충주시, 보은군, 제천시, 옥천군의 쇠퇴지역 순임



자료 :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http://www.city.go.kr>), 충북연구원 재작성

〈그림 III-1-3〉 충청북도 시·군별 쇠퇴지역 비중현황

○ 인구사회지표

-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퍼센트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이거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126개 지역(8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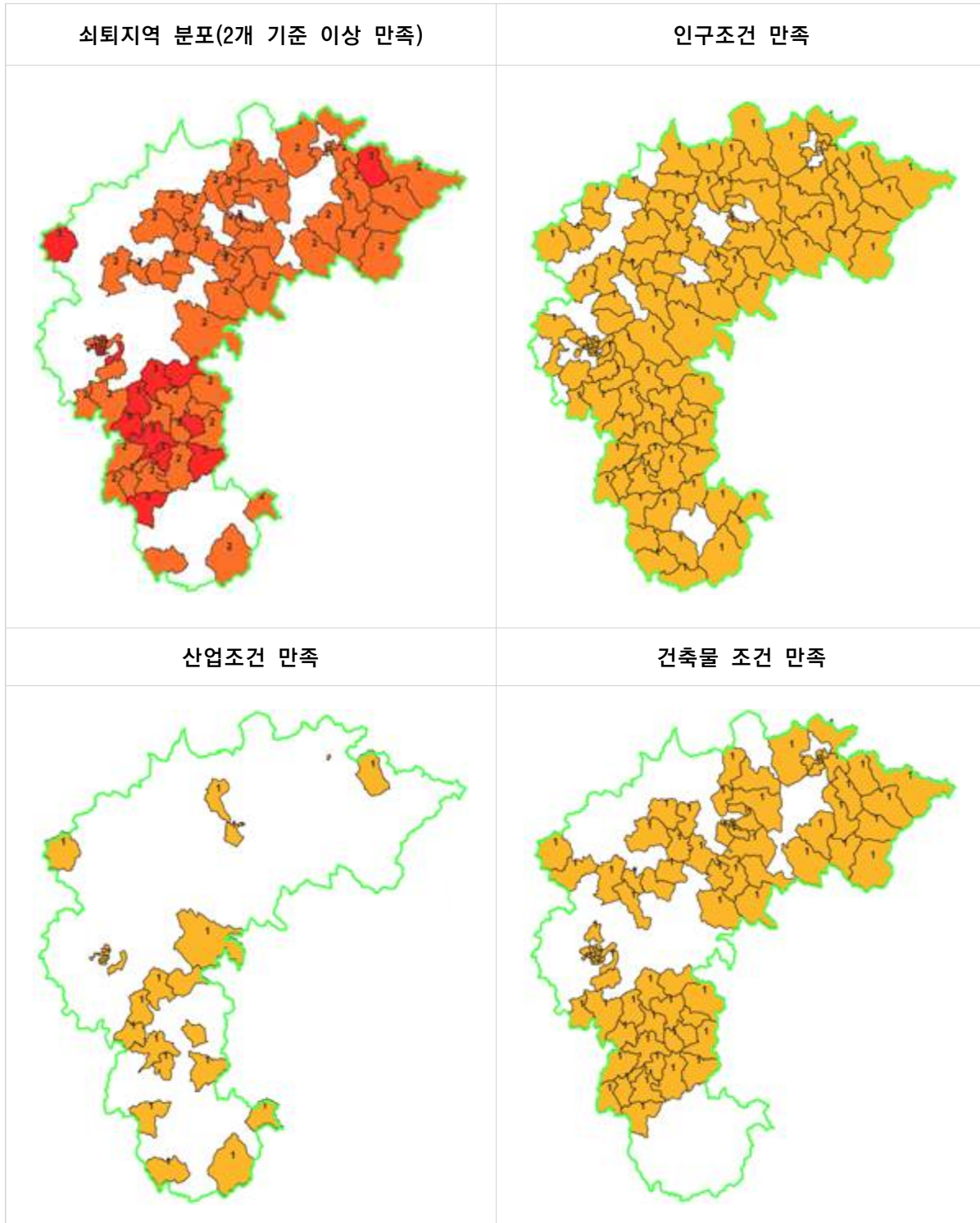
○ 산업경제지표

- 최근 10년간 전국사업체 조사 결과 총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이거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은 32개 지역(20.9%)

○ 물리환경지표

-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은 95개 지역(62.1%)

○ 충청북도 쇠퇴지역의 지리적 분포



자료 :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http://www.city.go.kr>), 충북연구원 제작성

〈그림 III-1- 4〉 쇠퇴지역 지정기준 별 쇠퇴지역의 지리적 분포

〈표 III-1- 4〉 충청북도 시·군별 쇠퇴지역 현황

시·군	읍면 동수	구분	지정기준 만족 읍·면·동		
			해당지역	개소	비율(%)
청주시	43	(1)	남일면, 문익면, 영운동, 용담·명암·산성동, 현도면, 사직2동, 사창동, 운천·신봉동, 봉명2·송정동, 내덕1동	10	23.3
		(2)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용암2동, 사직1동, 모충동, 수곡1동, 수곡2동, 복대2동, 봉명1동, 우암동, 내덕2동	12	27.9
		소계		22	51.2
충주시	25	(1)	주덕읍, 살미면, 수안보면, 신니면, 금가면, 동량면, 산척면, 엄정면, 중앙탑면, 교현2동, 용산동, 지현동, 호암·직동, 달천동, 목행·용탄동	15	60.0
		(2)	성내·충인동, 문화동	2	8.0
		소계		17	68.0
제천시	17	(1)	봉양읍, 수산면, 덕산면, 송학면, 교동, 청전동, 인성동, 남현동, 영서동, 신백동	10	58.8
		(2)	-	-	-
		소계		10	58.8
보은군	11	(1)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삼승면, 수한면	6	54.5
		(2)	탄부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5	45.5
		소계		11	100.0
옥천군	9	(1)	옥천읍, 동이면, 청성면, 군서면, 군북면	5	55.6
		(2)	안남면, 안내면, 청산면, 이원면	4	44.4
		소계		9	100
영동군	11	(1)	추풍령면, 상촌면, 학산면	3	27.2
		(2)	-	-	-
		소계		3	27.2
증평군	2	(1)	도안면	1	50.0
		(2)	-	-	-
		소계		1	50.0
진천군	7	(1)	초평면	1	14.3
		(2)	백곡면	1	14.3
		소계		2	28.6
괴산군	11	(1)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칠성면, 청천면, 사리면, 소수면, 불정면	8	72.7
		(2)	-	-	-
		소계		8	72.7
음성군	9	(1)	음성읍, 소이면	2	22.2
		(2)	-	-	-
		소계		2	22.2
단양군	8	(1)	단양읍, 매포읍, 단성면, 대강면, 가곡면, 영춘면, 적성면	7	87.5
		(2)	어상천면	1	12.5
		소계		8	100.0
총합	153				

주 : (1) 2개 기준 만족 / (2) 3개 기준 만족
 자료 :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http://www.city.go.kr>), 충북연구원 재작성



□ 충청북도 도시재생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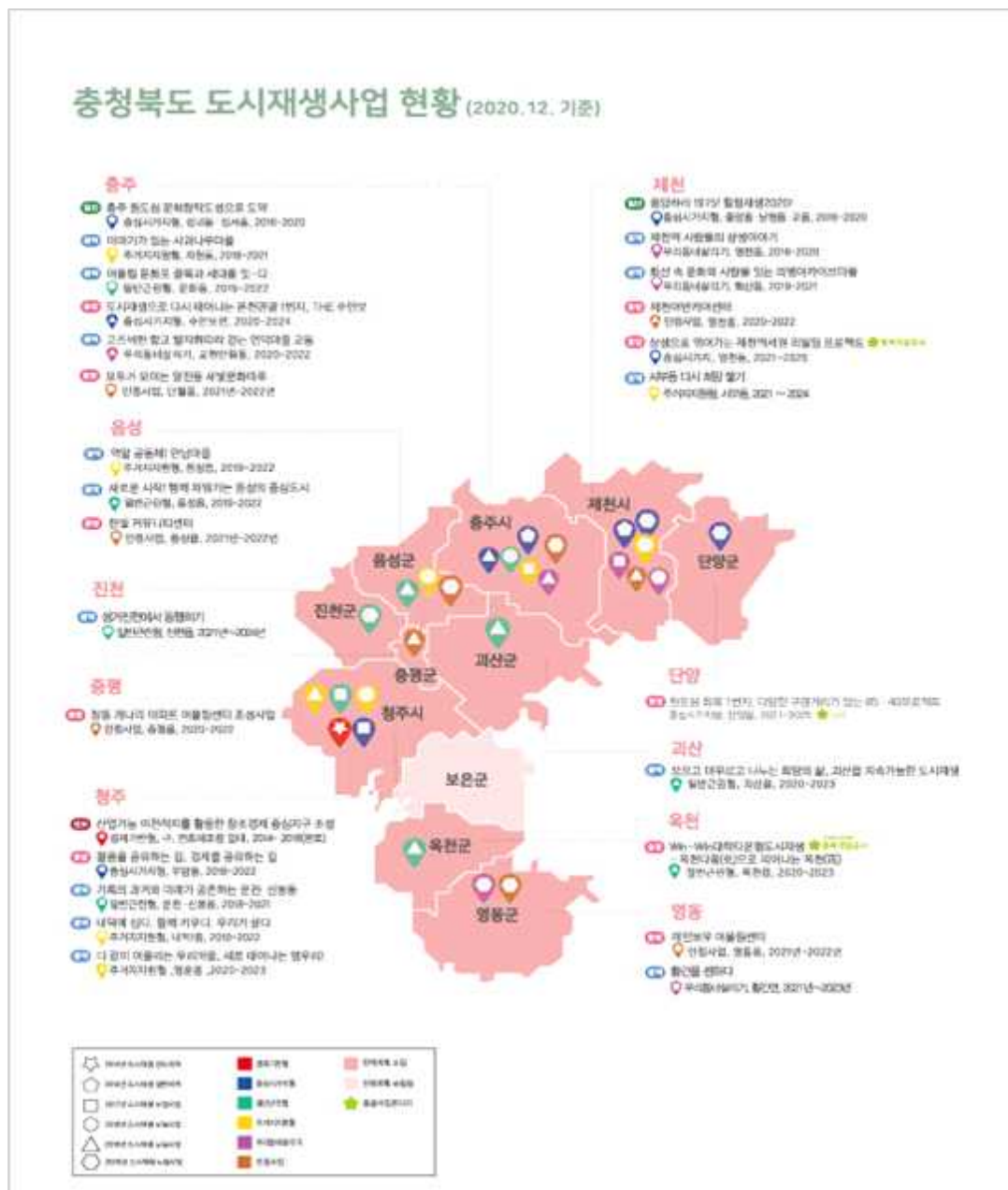
○ 충청북도 내 11개 시군 중 8개 시군에서 60개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

- 시군별로 살펴보면 청주시가 16개 사업으로 사업 수가 가장 많고 제천시가 11개, 충주시가 9개, 음성군 7개, 영동군 6개, 옥천군 4개, 증평군, 진천군이 각 2개, 괴산군이 1개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표 III-1- 5〉 충청북도 도시재생사업 현황(2020.12)

구분 (건)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중앙)			뉴딜사업(광역)			국토부지원사업			도자체사업	
	선도 사업	일반 지역	중심 시가 지형	일반 근린형	인정 사업	일반 근린형	주거지 지원형	우리 동네 살리기	소규모 재생사업	주민 참여 프로 젝트팀	생활 밀착형 스마트 기술지원 사업	마을 공동체 역량 강화사업	지역 역량 강화 사업
청주 (16)	안덕별 (2014, 경제 기반형) *준공완료		우암동 (2017)			운천 신봉동 (2017)	내덕동 (2018) 영운동 (2019하)		영운동 (2018 하)	우암동 (2018)	우암동 (2020)	내덕동 (2018)	북대동 (2019)
									성안동 (2019 상)			모충동 (2018)	영운동 (2019)
									내수동 (2019 하)			수암골 (2018)	탑대성동 (2020)
충주 (9)		성내성서동 (2016, 중심 시가지형)	수안보 (2019 하)		단월동 (2020 1차)		지현동 (2017)	교현안림동 (2019 하)	봉방동 (2020 하)			용산동 (2018)	교현안림동 (2019)
							문화동 (2018)						
제천 (11)		원도심 (2016, 중심 시가지형)	영천동 (2020 1차, 총괄사업관리자 *충북개발공사)		제천역 (2019 하)		서부동 (2020)	제천역 (2017)	서부동 (2019하)			화산동 (2018)	서부동 (2019)
								화산동 (2018)	청천동 (2020 하)				서부동 (2020)
옥천 (4)				옥천읍 (2019 하) *공공기관제 안 *대학 타운형					이원면 (2020 하)				옥천읍 (2019)
													옥천읍 (2020)
영동 (6)					영동읍 (2020 1차)			황간면 (2020)	황간면 (2020 상)			영동읍 (2018)	영동읍 (2019)
												황간면 (2018)	
증평 (2)					증평읍 (2019 하)								증평읍 (2020)
진천 (2)						진천읍 (2020)					이월면 (2020 하)		
괴산 (1)						괴산읍 (2019 하)							
음성 (7)					음성읍 (2020 1차)	음성읍 시장통 (2019 상)	음성읍 역말 (2018)		생곡면 (2019상)			음성읍 (2018)	감곡면 (2020)
									삼성면 (2020 하)				
단양 (2)			단양읍 (2020 3차, 총괄사업관리자 *LH)										단양읍 (2020)

자료 :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내부자료(2020)



자료 :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내부자료(2020)

〈그림 III-1-5〉 충청북도 도시재생사업 분포현황도(2020)

☐ 도시(시 지역)와 농촌(군 지역) 간의 도시재생사업 격차 발생

- 도시재생의 선도도시인 청주시를 주축으로 충주시, 제천시 등의 시단위 도시들은 각종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반면, 음성군을 제외한 군 단위 지역들은 도시재생사업의 첫걸음을 내딛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보은군, 영동군, 진천군, 단양군은 일부 도차원의 마중물사업을 제외하고 도시재생사업이 전무한 실정임



□ 빈집현황

○ 충청북도 내 빈집 수는 2018년 통계청 기준 약 74,757호로 집계됨

- 빈집 수는 2010년 56,920호에서 2015년 64,291호, 2017년에는 68,590호, 2018년 74,757호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표 III-1- 6〉 충청북도 빈집 수 변화

구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국	1,092,927호	1,254,617호	1,289,643호	1,335,083호	1,419,617호
충북	56,920호	64,291호	66,281호	68,590호	74,757호

자료: 통계청, 2018

□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빈집정비

○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도 빈집을 정비하고 재생하려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음

- 도시재생뉴딜사업 가이드라인에서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도시재생뉴딜사업 내용에 포함 시키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음
-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노후 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및 저층 주거지 정비 등을 통해 지역 내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장기임대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고 있음

○ 충청북도 내 시군에서도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다양한 빈집 정비사업들을 수행 중에 있음

- 도내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수행 중에 있는 기초지자체들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빈집 활용 사업들을 살펴보면, 크게 순환형 공공임대주택 활용,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주민 공동이용시설 활용, 뉴딜사업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의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음

〈표 III-1- 7〉 충청북도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내 빈집 정비사업 사례

지역명	세부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충주시 지현동 (2017년 선정)	공공임대사업	순환형 공공임대주택
	주거지원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
충주시 성내성서동 (2016년 선정)	-	-
충주시 문화동 (2018년 선정)	리본 프로젝트	쌈지공원 및 주차공원 조성
	현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현장지원센터 설치
제천시 중앙동 (2016년 선정)	공가 및 빈방 정비·활성화	공가 리모델링을 통한 주민공동이용시설, 마을민박 프로그램 운영 등 활용
충주시 교현·안림동 (2019년 선정)	노후주택 채움사업	노후 주거 집수리 및 지원프로그램, 집수리사업단 구성 및 운영
옥천군 옥천읍 (2019년 선정)	주민 행복 대학로 조성	옥천 마을조사 사업 (빈집 DB 구축)

자료: 충북연구원, 충청북도 빈집 현황진단 및 정책적 대응 방안

I 문제점

□ 광역차원의 도시재생 역할 부재

- 현재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은 도시재생사업 공모평가에 대한 업무대행 수준
 - 광역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른 유형별 사업 개수 조정 권한 미흡
- 국가공모사업 외의 충청북도 차원의 도시재생사업 미비
 - 도시재생뉴딜 5가지 사업유형이 아닌 충북형 사업의 유형사업 발굴 지원 필요
-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미흡
 -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도시재생 전담조직 확대 필요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이 아닌 공모 중심의 도시재생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생사업 발굴 미흡
 - 정부 공모사업으로만 도시재생사업 추진
- 가로환경 개선사업 등 주로 하드웨어 사업에만 집중
 -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프로그램)와 휴먼웨어(인적자원)사업 강화 필요
-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지역별 도시재생 특색 부족
 - 모든 시·군의 도시재생사업이 유사한 사업 위주로 진행 및 차별화된 아이템 부족
- 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대한 대비 부족

□ 도내 시·군 간의 재생추진 역량과 인프라의 차이 한계

- 시·군 간의 재생추진 역량과 인프라의 차이가 큼
 - 도시재생사업의 내용적 차이와 전담조직 및 중간지원 조직운영의 차이
 - 도시재생 관련 조직 강화(중간지원조직 포함) 필요
- 군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은 별도의 관점으로 접근이 필요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노하우 및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단계 미흡
 - 군의 도시지역인 읍면소재지는 군의 핵심지역인 만큼 쇠퇴기준 완화 필요
 - 읍면지역의 열악한 인프라를 고려할 때, 읍면지역 중 사업지역을 별도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으로 지역을 하나로 묶어 포괄하여 추진하는 통합시스템 미흡

- 도시재생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연계사업에 대한 관심 및 공동추진 시스템 부재
 - 지자체마다 특정 부처 사업 중심으로 운영
- 국가시책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을 위해 부처사업을 적극 연계 필요
 - 농촌, 문화·체육, 복지·여성, 고용·창업, 산업·경제 등 중앙부처사업 및 관련 정책 연계 필요



2) 여건분석 및 전망

I SWOT 분석

- 충청북도는 도시재생 선도도시 청주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역사·문화·관광 등 풍부한 지역 자산을 갖춘 충분한 도시재생 가능 지역을 보유하고 있음
- 반면, 충청북도 내 구시가지의 노후화 심화와 경쟁력 저하 및 도시 고유의 정체성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음
-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도시재생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주민들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참여가 필요함
- 각종 개발사업과 주택도시기금 등 인프라의 확충과 지원 강화에 걸 맞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이 필요함

〈표 III-1- 8〉 SWOT 분석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 선도도시 청주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기반 구축 • 역사·문화·관광 등의 지역 자산 풍부 • 충분한 도시재생 가능지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북도 내 구시가지의 노후화 심화 및 경쟁력 저하 • 도시 고유 정체성 부족 • 지역 간 도시재생 편차 • 주민참여가 형식적
기회(O) ⇒ 포착	위협(T) ⇒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도시재생이란 공감대 형성 •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으로 인한 각 시군의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프라 확충 • 주택도시기금 등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성장/경제성장 둔화 • 도시 간 브랜드경쟁 심화 • 획일화된 재생으로 다양성 결여 • 정부 지원에만 의존

I 여건전망

□ 전국적 지명도를 가진 선도도시 중심으로 재생사업 유도

- 청주연초제조창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성공모델로 전국의 모든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활용 가능하고 단시간 재생사업 후속 조치 가능
- 청주시 중앙동의 지역재생 사회적 협동조합은 주민 주도로 이루어진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담보로 도시재생 선순환 모델을 구축함

□ 도농통합형 재생사업 발굴 및 추진용이

- 타 지자체와 달리 다양한 부처연계사업을 통한 차별화 재생 가능

□ 장소통합형 도시재생 가능

- 문화와 경제 그리고 복지가 함께하는 공동체 삶 조성이 한국적 재생이라면 충청북도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지역적 차별적 재생으로 충북지역 도시재생 실현

□ 충청북도 도시재생 창출을 위한 제도 및 기반 조성

- 관련 조례의 제정, 전담조직 강화 등을 통한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문화 창출을 위한 기본적인 기반 확보
- 도시재생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관련 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한 도시재생의 저변 확대
- 지역 자원에 대한 DB구축 및 관리를 통한 지역 특색이 반영된 도시재생 추진 가능

□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주민참여를 통한 도민행복시대 여건 마련

- 생활공간의 안전성, 건강성, 쾌적성을 확보함으로써 도민 행복을 위한 여건 마련
- 도시재생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의 활발한 추진 기대

□ 지역 상생발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실현

-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구축, 일자리 창출을 실현시킴으로써,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 마련
- 지역 자산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스토리텔링, 원도심 재탄생 등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 창출
-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한 지역 내 녹색건축물 산업의 성장 기대



3) 추진과제

□ 충청북도 내 도시규모를 고려한 차별적 도시재생계획 수립

- 국가의 도시재생기본방침에 맞는 광역차원의 도시재생전략 수립
 - 충청북도의 발전 방향에 맞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방향 및 역할 정립
-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광역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구축을 통한 일관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
- 인구 감소 대비 도시 고밀도 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형태 조성
 - 공동화의 단계에 따라 적절한 도시계획적 방향설정과 도시관리체계 수립
- 국·공유지를 도 차원에서 통합적인 관점으로 공공시설 및 공간재활용 정책 실현
 - 활용도가 낮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공공기관을 참여시킨 위탁개발 시행
- 원도시의 환경생태 요소 및 생태적 기능을 고려한 계획 수립 필요

□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실현

- 사회적 경제 개념을 도입한 자생적인 마을 유지관리체계 구축
- 도시재생사업의 사후 관리를 위한 지역재생회사 육성 및 지원
- 마을공동체 육성 및 다양한 동아리, 마을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고 주민제안 중심사업 발굴 지원
- 주민주도의 자생적 지속가능시스템 중심지원
 - 취약계층 및 고령자 복지주택 및 행복주택 지원사업 추진
 -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 경제시스템 지원사업

□ 충청북도 차원의 재생기반시설 지원

- 충북형 도시재생 창출을 위한 제도 및 기반 조성
- 충청북도 차원의 도시재생 마중물 예산 확보 및 단계별 지원
 - 도차원의 재생보조기금 정책 도입 및 재생인센티브 정책 수립
- 지자체 특성과 위상에 맞는 충북형 도시재생사업 발굴 지원
 - 사업예산은 사업유형별로 지자체 매칭형식으로 추진
- 충청북도 빈집정비와 활용방향 및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
 - 빈집을 활용한 지역재생의 새로운 자원으로 빈집자산화 전략 제시
 - 도시형과 농촌형 등 유형별 맞춤형 빈집 활용전략 방안 마련

□ 통합 도시재생사업 시스템 구축

- 공간기반 충청북도 차원의 도시재생 통합 지원기구 마련(도시재생지원 협업시스템 구축 등)
- 장소중심형 각 중앙부처 사업의 통합 및 통합예산 운영(통합공모 시스템 구축 등)
-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주체에게 예산운영의 자율성과 재량권 확대
- 민간자본 참여시스템 구축
 - 민간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과 제도개선
 - 민간재생사업구역(가칭)을 통한 계획조건 완화(건축법 연계 및 정비)
 - 도시재생회사설립 유도(물리적 환경조성 및 비물리적 프로그램 운영 관리)

〈표 III-1-9〉 모두가 함께하는 사람 중심의 공간재생을 위한 추진사업

전 략 명	과 제 명	단기 (20~25)	중기 (26~30)	장기 (31~40)	비고
모두가 함께하는 사람 중심의 공간재생	1.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 경제시스템 지원사업				
	2.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기구 구성				
	3. 충북형 도시재생사업 발굴 지원				
	4. 저층주거지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5.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6. 도심거주 촉진사업				
	7. 도시재생사업(뉴딜)				

〈표 III-1-10〉 모두가 함께하는 사람 중심의 공간재생을 위한 시군계획지침

※ 시·군 계획지침

- 충북 도내 시군은 무분별한 신시가지 개발을 지양함으로써 도시의 공동화를 사전에 예방하는 도시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도시재생에서 각 주체별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하며 도시재생과 관련한 부처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통합적으로 쇠퇴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건축규제 완화 특례의 부여, 주민교육과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촉진한다.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활용도가 낮고 저평가된 국·공유재산에 대해 공공기관을 활용한 위탁개발을 우선한다. 또한 소규모 공유지, 비어있는 공유지 등을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하여 순환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 도민 모두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노후주거 밀집지역 등의 기초생활인프라 등을 적정수준으로 공급한다.
-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지역재생기업(CRC) 육성에 힘쓰고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강화한다.
- 충북형 도시재생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며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 실현한다.



제3절 ▶ 누구나 살고싶은 활력있는 강소형 농촌

1) 현황 및 문제점

I 현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 농촌 관련법 중 가장 최상위 법으로 국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농업과 식품산업, 농촌에 초점을 맞춘 5년 단위 계획이 존재하나, 계획 기간이 짧아 농촌의 미래 변화와 농촌 공간구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단기적인 산업육성 또는 개별 농촌개발 사업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음
- 지자체 관련 계획은 공간발전 구상과 관련하여 중심지 설정, 하위생활권 설정 및 시·군 공간발전 구상도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농촌 공간관리를 위한 토지이용의 방향보다는 농촌 개발사업을 구상하는 수준임

□ 농어촌정비종합계획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정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우는 계획이며 또한 마을 생활환경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마을정비구역을 설정하고 추진하는 절차를 제시하고 있음
- 농업·농촌의 미래 예측을 통한 장기발전 방향이나 공간구조 설정 방안은 미 포함되어, 환경, 안전, 에너지 등에 관한 문제에 대응할 수 없는 구조임
- 제도상으로는 다양한 사업에 걸쳐 현행 마을 정비구역제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전원마을조성사업, 농어촌뉴타운사업 위주로 활용되고 있음

〈표 III-1-11〉 농촌 지역에 적용되는 계획의 목적 및 주요계획내용 비교

계획	목적	주요계획내용
국토 종합계획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 국토발전의 기본이념 및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의 정립 · 국토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별 기능분담 방향 ·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산업육성, 국토기간시설 확충 · 토지·수자원·산림자원·해양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 주택·상하수도 등 생활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 · 수해·풍해 그밖에 재해의 방지 · 지하공간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 · 지속 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국토환경의 보전 및 제시

계획	목적	주요계획내용
도시·군 기본계획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경관에 관한 사항 · 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 방재·방법 등 안전에 관한 사항
국가 및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발계획)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형있는 개발·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및 소비확대 시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정부 추진 시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 농업경영비 절감 등 그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종합적·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농촌자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생산기반, 농어촌생활환경, 농어촌산업,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한계농지 등을 개발하고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정비사업의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 대상 지역의 현황 · 주요 농어촌정비사업 내용 · 추정사업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 국토 전망과 농촌의 계획적 정비방안 연구, 2019

□ 도시민과 농촌주민 간 만족도 격차⁵⁾ 확대 및 농촌 정주여건 악화

- 도시민과 농촌주민 간 만족도 격차가 큰 분야는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문화·여가 분야이며, 읍보다는 면지역 주민들이 더욱 격차를 느끼고 있음
- 또한, 수십 년간 진행된 고령화, 과소화로 농촌 정주여건이 낙후되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보건·의료 분야는 가장 격차가 큰 분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질적 수준, 응급의료 및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에서, 그리고 일상생활 서비스와 대중교통, 문화·여가 시설 및 프로그램 분야에서 격차를 크게 느끼고 있음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 2019.

〈표 III-1-12〉 최근 6년간 충청북도 농촌 정주여건 관련 현황

항 목	2012(A)	2014	2016	2017(B)	6년간의 변화(B-A)
전국가구 중 미달비율(%)	7.2	5.4	5.4	5.9	-1.3
충북가구 중 미달비율(%)	2.5	1.5	5.4	4.3	1.8
전국미달가구 중 충북비율(%)	5.6	0.9	3.2	2.3	-3.3
상수도 보급률(%)	87.6	90.2	91.1	91.8(P)	4.2
하수도 보급률(%)	84.7	85.5	85.9	86.1	1.4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년도, 국가통계포털 충청북도 기본통계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농촌 중심지에 교육·의료·문화·복지·경제 등 중심기능의 활성화 네트워크를 통한 배후마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충청북도 내 11개 시·군(읍·면지역, 동지역은 제외)을 대상으로 80개소(준공 54, 계속 26)가 추진됨

□ 기초생활 인프라 현황

- 고령화, 과소화가 심화 되면서 농촌주민 실생활에 절실한 기초생활 인프라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 충청북도 농촌마을의 주요 서비스 항목별 10분 내에 이용 가능한 마을 비율을 보면(2015년 기준), 약국 36.5%, 병·의원·한의원 30.2%, 재래시장 23.1%, 은행 18.2%, 목욕탕 22.9% 등으로 나타남

〈표 III-1-13〉 충청북도 농촌마을의 서비스항목별 10분 내에 이용가능한 마을비율

구 분	2010(A)	2015(B)	5년간의 변화(B-A)
음식료품 위주 소매점(%)	-	50.6	
재래시장(%)	26.4	23.1	-3.3
임시보습학원(%)	33.6	30.5	-3.1
예능학원(%)	34.7	32.1	-2.6
약국(%)	39.2	36.5	-2.7
보건소(%)	13.2	48.1	34.9
병·의원·한의원(%)	30.4	30.2	-0.2
우체국(%)	48.3	48.0	-0.3
은행(%)	11.9	18.2	6.3
이미용실(%)	43.6	41.9	-1.7
목욕탕(%)	23.6	22.9	-0.7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지역조사)

2018년			2019년		2020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선도지구 80억 이하, 5년 이내		농촌중심지활성화 150억원±∞, 5년 이내	읍 소재지와 배후마을 통합개발	부처 지원	
	일반지구 60억 이하, 5년 이내		기초생활 거점 40억원+∞, 5년 이내+∞	면 소재지 및 지역거점과 배후마을 기초생활 거점 육성	부처 지원	
창조적 마을만들기	권역단위 40억 이하, 5년 이내	종합개발 (발전단계)	폐지	인근 마을을 포함한 종합개발 마을간 갈등 발생으로 사업 폐지	폐지 (계속사업 2개 지구 이상)	
		종합개발(발전단계) 10억 이하, 5년 이내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10억 이하, 5년 이내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및 이에 준하는 마을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 마을개발	지방이양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진입단계) 5억 이하, 5년 이내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5억 이하, 5년 이내	사업 추진 역량이 갖춰져 있고, 구체적인 발전목표를 가지고 있는 마을 개발		
		경제(체험·소득)(진입단계) 5억 이하, 5년 이내				
		환경(경관·생태)(진입단계) 5억 이하, 5년 이내	신규(전원)마을 1.5~36억 이하, 5년 이내	변동 없음		
시·군 역량	시·군단위	시·군 창의 아이디어 10억 이하, 5년 이내	폐지	창의적인 S/W 중심 자율사업 정부 시책 변경에 따른 사업 폐지	폐지 (계속사업 3개 지구 이상)	
		시·군역량강화 0.5~2.5억 이하, 1년 이내	시·군역량 강화 3억 +∞, 1년 이내	사업지원규모 변동	부처 지원	
기타	기계화경작로	계속사업 '18년까지 3,723.5km(95.3%) 완료 잔여 3,907.5km 12억/km 지원	계속사업 '19년 14.8km 시행 1.2/km 지원	변동 없음	지방이양	
	농촌생활환경정비	시군당 기초생활인프라 한도내(국비 30억원) 신청	30억 이내	변동 없음		
	기초생활인프라 정비	시·군자율편성 사업	시·군 자율편성 사업 '19년 중평, 진천 편성	변동 없음		
신규			농촌다움복원사업 20억원 +∞, 5년 이내	농업유산의 보전, 하천·산림 생태권 보전, 신재생에너지활용 등 농촌가치 보전에 가치를 둔 사업	지방이양	

〈그림 III-1-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현황



2) 여건분석 및 전망

Ⅰ SWOT 분석

- 충청북도는 수도권과 가깝고 국토의 중심인 입지여건과 깨끗한 자연자원,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면 단위, 마을 단위 개발 및 서비스 공급 정책, 주민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공공서비스의 확대 정책 등 농촌지역 단위의 특성에 맞는 개발사업과 서비스 공급 및 확대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기존의 농촌 관련 정책은 종합적인 정책적 대응과 관련 추진체계가 부재한 상황으로 농촌에 대한 투자 재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
- 농촌지역의 생활서비스 여건이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 환경보전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개발제한구역이 많아 관련 시설 설치에 제한
- 농촌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로 농촌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자연친화적인 농촌관광, 치유, 힐링, 돌봄 등의 수요가 증대하면서 농촌에 관심이 증가
- 유리한 입지와 유기농업 특화 등의 지역여건으로 귀농·귀촌인구 유인 환경이 조성
 - 2000년대 이후 귀농·귀촌 현상이 확산되고 있으며, 수도권 장년층을 중심으로 충북으로의 인구 순유입 현상 발생
- 저출산과 청년 및 가임여성인구 유출 등 인구 감소로 인한 농촌 생활환경 낙후와 사회안전망의 부족으로 지방소멸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음
- 농촌 과소화 속에서 보육, 교육, 의료서비스 공급이 약화되고 있음
 - 농촌마을의 과소화가 진행되면서 보육, 교육, 의료, 교통 서비스 공급 환경이 악화

〈표 III-1-14〉 SWOT 분석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과 가깝고 국토의 중심인 입지 여건과 깨끗한 자연자원,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가지고 있음 농촌 지역 단위의 특성에 맞는 개발사업과 서비스 공급 및 확대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에 대한 투자 재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농촌 지역의 생활서비스 여건이 도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기회(O) ⇒ 포착	위협(T) ⇒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로 농촌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유리한 입지와 유기농업 특화 등의 지역여건으로 귀농·귀촌 인구 유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감소로 인한 농촌 생활환경 낙후와 사회안전망의 부족으로 지방소멸의 위기가 도래 농촌 과소화 속에서 보육, 교육, 의료 서비스 공급이 약화되고 있음

I 여건전망

□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증가

- 농촌의 인구는 1970년대 전국 인구의 58.8%로 약 1,817만 명이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에는 전국 인구의 18%인 939만 명으로 감소
 - 2017년에는 전국 인구의 18.7%인 963만 명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귀농·귀촌인의 도내 유입이 원인으로 파악됨
- 농촌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15년 기준으로 21.4%로 전체 읍·면의 84.2%가 해당되어 대다수의 농촌이 초고령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음

□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

- 2000년대 중반 이후 농업 목적 이외에도 공동체나 생태적 가치 추구의 다양한 이유로 농촌으로 이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장래 농촌지역사회의 변화 가능성이 확대되는 추세임
 - 장래의 잠재적인 농촌거주민이 될 수 있는 도시민들은 살고 싶은 농촌 조건으로 일자리와 소득기회를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함
- 귀농·귀촌은 도시·농촌 문제 완화, 청년·장노년 세대의 행복 욕구 실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기존 주민들과 갈등을 야기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내재하고 있음

〈표 III-1-15〉 귀농·귀촌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구분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개인	· 개인 삶의 질 향상 · 건강 회복 · 자급자족의 삶 가능 · 소득창출 기회	· 의료·복지·문화·교통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 외로움(2016년 기준, 1인 귀농인 64.3%) · 생계유지의 어려움(초기 농업소득 부족) · 청년들의 자금 부족 및 주택문제
지역	· 농촌지역 활성화 · 도시 과밀 문제, 주택 등 완화 · 마을 소득 증대(가공 및 신제품 개발, 도시 인맥 활용 등) · 지역사회에 기부 · 새로운 공동체 형성(귀농·귀촌인 간, 귀농·귀촌인 - 원주민 간)	· 지역 원주민과 갈등 심화 · 한정된 농업자원을 놓고 기본 주민과 경합 · 일부 지역의 분산, 난개발 문제 발생 · 귀농·귀촌정책 등으로 인한 기존 농가의 상대적 박탈감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행복한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 유토피아 구상, 2019



□ 농촌의 여가·휴양 수요 증대

- 농촌에서 휴식·휴양, 지역 음식·맛집 체험, 농촌생활문화 체험 등에 의하여 농촌에서 힐링을 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이 증가(농촌진흥청, 2017.)

□ 저밀도 경제의 농촌 활력

- 집적경제, 규모의 경제라는 논리를 벗어난 저밀도 경제(Low-Density economy)⁶⁾에서는 농촌이 새로운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전환되는 상황임
 - 농촌의 총 일자리 수는 도시에 비해 약 1/3 정도로 규모가 작지만 15세 이상 인구 대비 일자리 수는 도시지역보다 농촌이 약 0.36명 더 높음
 - 농촌의 상용 종사자의 비율은 68.0%로 도시의 63.5%보다 고용측면에서 농촌이 더 안정적인 면을 보이고 있음

□ 농촌의 미래 전망

- 농촌은 삶터, 일터, 공동체 터라는 측면에서 각각 차별적 영향을 미치며 상호작용하면서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
 - 삶터의 측면
 - 원격지로 갈수록 인구 희박 지역이 증가하고 도시 근접지역에서는 귀농·귀촌자가 더 증가하여 양극화될 가능성이 있음
 - 일터의 측면
 - 농촌의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고 도시 근접 지역에서는 제조업 및 첨단사업의 입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스마트 농업 활동이 증가하고 대농과 기업농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쉼터의 측면
 - 농촌은 다지역 거주 및 도농 교류 활동이 증대될 것이며, 미래의 농촌은 휴양 기능 및 문화 기능이 중요하게 대두될 것임
 - 농촌의 난개발과 경관 훼손이 도시 근접 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원격지에서는 방치되는 토지가 늘어 환경 정비 및 경관 보존에 대한 요구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
 - 공동체터의 측면
 - 미래의 농촌은 전통적인 공동체성이 계속 약화될 것이며, 사회적 경제 및 공유 경제, 도농 파트너십 등의 필요와 수요, 그리고 활동이 증대될 것으로 보임

6) 낙후된 농촌지역에서도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전문화된 산업을 육성하면 지역의 발전과 국가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OECD 2015; Kuhmonen & Kuhmonen 2015)

□ 삶의 질 악화 및 과소화지역 증가

○ 농촌주민 삶의 질 악화와 농촌다움 상실

- 농촌인구 고령화, 농촌주민 삶의 질 여건과 맞물려 건강한 농촌사회의 유지·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인들이 심각하며 이로 인해 농촌다움을 상실
- 충청북도의 경우 2018년 기준 주민등록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6.4%에 달하고, 2017년 기준 농촌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3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촌 근교 난개발, 환경오염 등으로 농촌다움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며 성장·경쟁력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농촌사회와 농촌환경은 상대적으로 질적·양적으로 저하되고 있음
- 농촌의 정주 여건은 인구 감소, 상권 축소, 일자리 부족 등에 의한 활력 저하로 보건·복지, 안전, 정주생활 기반, 문화·여가 측면에서 불리해지고 있음

○ 농촌지역의 과소화 지역 증가

- 지역 정주 여건이 좋아지고 경제 활동도 활발해지면서 읍 단위 지역은 인구 유입이 예상되나, 면 단위 지역은 정주 여건과 경제활동 기반이 미흡하여 읍면 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과소화 지역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농촌의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

- 전통적인 농촌의 기능은 물론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관광·휴식 공간, 국토 균형발전 등의 다기능적 가치를 지닌 공간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음
- 농촌이 지닌 경제적 가치 이외에 참여·관계, 도농상생, 생태·환경 등의 비경제적 가치(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돌봄·치유, 문화·여가, 공동체 활동 등의 기능도 재조명되고 있음

○ 농촌 공간의 역할 증대

- 저성장시대 베이비붐 세대 은퇴, 귀농·귀촌과 생태·환경 가치의 선호 등은 도농상생의 공간으로 농촌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3) 추진과제

□ 활력이 있는 농촌 건설

-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농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 환경과 농촌의 생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필요함
 -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특성을 살린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는 통합적 지역개발로 농촌 재생사업 추진
 - 단순한 산업 공간의 농촌을 넘어 삶터·쉼터·일터의 복합기능과 자연 환경과 농업 생태계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농촌 공간 조성
- 농촌 공간구조가 분화되면서 읍 인구는 증가하고, 면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고령층·장애인·여성농업인·다문화 가정 등 정책의 유형과 수요 다양화
 - 식량공급, 생태계 보전, 지역사회 유지·발전의 근원적인 역할 수행으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도시 수준의 소득, 생활, 문화, 의료 등 인프라 확충
-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한데 묶어서 지원하는 신활력 플러스 등 통합적 지역개발로 농촌을 활력이 있게 만들어서 본래 농촌을 다시 복원하는 사업 본격화 필요
 - 농촌 중심지, 기초생활 거점, 마을 간 상호기능 연계 강화로 농촌지역 생활여건 조성
 - 농촌 경관·생태·문화 등 농촌이 지닌 농촌다움을 보전·복원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 실현
- 고령농·다문화 가정, 청장년층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여 교통·주거·보육·의료 등 다양하게 농촌특화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확대하여 농어촌 삶의 질 개선
- 지역 내 인적자원과 사회적 자본을 증진·활용하기 위한 지역공동체 조직과 여성농업인 등 지역 역량 강화
 - 시장기능으로 해결이 어려운 농촌 문제를 위하여 사회적 기업, 농촌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

□ 4차산업혁명 관련 스마트농촌 구현

- 기존 국토공간전략이 농촌 중심지에 공공서비스를 집중해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식이라면, 미래의 농어촌지역 공간전략은 지역중심지에 스마트 건강거점을 조성하는 것임
 - 읍소재지 대중교통결절지의 보건의료센터에 스마트 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생활인프라를 통합 배치하며 부족한 기능 보완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 전달체계(찾아가는 서비스, 원격서비스 등) 구축
-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 드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5G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와의 격차 해소
 - 복지, 의료, 교육 및 농촌 생활환경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ICT 통합 플랫폼을 설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농촌 구현

- 돌봄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조직을 중심으로 보육 및 독거노인 관리를 위한 스마트 복지공유 플랫폼 구축
- 농촌 거주민의 스마트농촌 기술에 적응하고 이용할 수 있는 농촌 생활환경 관련 어플리케이션 개발
- 스마트농촌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확대 추진으로 실용화를 위한 지원 확대
- VR/AR 등의 하드웨어 개발로 교육, 오락, 쇼핑 등 다양한 여가문화 정보 제공기반 마련
- 자율주행서비스, 공유형 교통서비스, 수요응답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활용 시스템 운영
- 초등학교 학군, 정서적 유대관계 등으로 형성된 농어촌마을 간 기존 커뮤니티 단위를 바탕으로 서비스 접근성이 양호한 기초생활서비스거점, 농식품가공거점, 도농교류거점, 문화복지거점 등 다양한 형태의 중간거점 조성

〈표 III-1-16〉 누구나 살고싶은 활력 있는 강소형 농촌을 위한 추진사업

전략명	과제명	단기 (20~25)	중기 (26~30)	장기 (31~40)	비고
누구나 살고싶은 활력 있는 강소형 농촌	1. ICT 기반형 스마트빌리지 조성				
	2. 총북형 농시 확대				
	3. 귀농귀촌 지원형 융복합산업지구 지정				
	4. 귀농귀촌인의 정착지원 농촌유토피아조성				
	5.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6.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7.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구축				
	8. 지방이양 마을만들기 사업				
	9. 유전자 질병연구센터 설립				
	10. 내륙어촌 재생사업				

〈표 III-1-17〉 누구나 살고싶은 활력 있는 강소형 농촌을 위한 시군계획지침

※ 시·군 계획지침

- 시·군은 계획수립 시 운용방향, 적용범위, 지원대상, 포괄보조사업 도입 취지 등을 숙지한 후 작성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사업별 정책방향 및 목표, 성과지표 등과 부합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 사업목표와 성과지표는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하여, 향후 모니터링 및 사업평가 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지역별 사업군 중 농식품부 주관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군 이외 지역(행안부, 국토부 주관)에서 추진하는 농림사업은 기초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동 계획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 시도, 시군에서 수립하는 시도발전계획,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등 상위계획과 내역사업의 법정(임의)계획 등과 연계·수립한다.
- 인구구조 변화 및 행·재정적 여건으로 인해 개별적 사업 수립·집행, 추진이 어려운 시·군은 인접 시·군과 연계하여 통합계획 수립 및 공동 집행 방안을 강구한다.

제4절 ▶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포용지역

1) 현황 및 문제점

Ⅰ 현황

- 산업화로 촉발된 도시로의 인구집중은 도시의 거대화와 농촌의 왜소를 가져왔으며, 최근 저출산 고령화는 농촌이 더욱 침체되는 결과를 낳고 있음
 - 도시의 성장에 비해 도시화의 그늘 또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으며, 부족한 주거지, 열악한 삶의 환경, 비정규직의 문제 등 도시화의 이면엔 또 다른 문제가 양산되는 상황임
- 4차 산업혁명기술의 발달과 확산은 행정, 교육, 복지 등 도시 부분에 ICT 첨단 인프라가 적용된 지능형 공간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음
 - ICT 기반의 스마트도시로부터 확산된 4차 산업혁명기술은 농촌까지 확산되는 추세로 최근 ICT 기반형 스마트 빌리지 조성이나, 스마트 팜 등이 대표적인 사업임
- 결국 공간상에서 도시와 농촌의 주거 환경이나 삶의 질 개선 등 소외된 영역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확산되는 상황으로 이러한 문제접근방식을 포용성장이라 할 수 있음
 - ‘포용도시’에 주목하는 것은 산업화 및 도시화, 경제성장과 함께 증대된 부(富)는 소수에게 집중되고 다수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여전히 가난하다는 것임
 - 기술진보가 거부할 수 없는 성격의 것임을 인정한다면 이들이 본질적으로 소득불평등을 확대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IMF, OECD 등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간의 소득격차(가처분소득 총액 기준)가 1980년대에는 대략 7배, 2000년대에는 9배, 최근에는 9.6배로 증가함
-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ICT의 발전은 우리 사회가 포용해야 할 사회적 약자와 쇠퇴도시 및 농어촌지역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공간정책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임
- 포용도시란 경제적 수단, 성별, 민족, 종교 등에 관계없이 모든 도시민들이 도시가 제공하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기회에 참여함으로써 공정한 성장을 촉진하는 도시를 뜻함
 - 첫째, 사회적 배제를 극복해 나가는 도시, 둘째, 서로를 배제하지 않고 포용하는 도시, 셋째, 사회적 약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 넷째, 의사결정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도시

7) 마강래(2017), 스마트 포용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재생 전략,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7 추계학술대회 통권 30호

I 문제점

□ 왜곡된 불균형적 도시성장

- 청주권의 성장과 남부권 및 북부권의 침체로 시·군 간 불균형 심화
 - 오송·오창을 중심으로 신산업지대가 형성되어 청주권의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청주시의 오창, 오송 등이 급속히 성장
 - 청주시와 진천군은 지속적으로 인구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타 지역의 인구는 정체 혹은 감소하고 있어 지역 간 인구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교통망에 따른 지역의 불균형구조 고착
 - 수도권 지향의 교통망 발달은 남·북부권의 저발전에 따른 정주·생활여건 낙후

□ 중소규모 도시의 중심지 기능 약화

- 교통·정보통신체계 개선에 따른 지역생활권의 광역화와 지역주민의 대도시 지향성이 강화됨에 따라 중심기능의 상향 이동(Upward Shift)으로 중소도시 중심지 기능이 약화됨
- 청주권을 제외한 충주·제천 및 읍급 도시들의 중심지 기능과 역할 쇠퇴
 - 대다수 시·군청 소재의 중심지 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읍·면급 도시 또한 본래의 중심지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
- 중소도시의 지역발전을 위한 거점역할 미흡
 - 대도시를 중심으로 경제권, 생활권이 형성됨에 따라 전통적인 농촌지역에서는 중소도시의 발전을 위한 거점역할이 쇠퇴함

□ 난개발에 의한 기형적 도시 구조

- 대부분의 도시가 지역 간 간선도로 및 철도역 중심의 비정형적 도시형태를 보임
 - 교통결절점이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여 교통혼잡과 시가지의 인위적 단절에 의한 불균형적인 발전 초래
- 저밀도의 외연적 개발에 따른 기존 시가지의 노후화와 공동화 진행
 - 기성 시가지의 노후화로 주거환경 악화 및 지역 재래상권의 침체 가속



2) 여건분석 및 전망

Ⅰ SWOT 분석

- 세종시, 혁신 도시, 기업도시 등 신성장거점으로 인한 인구 유출로 인한 구도심의 침체 가속
- 인구, 산업, 금융 등 전 분야에서 청주권 중심의 집중 문제는 불균형 격차의 해소에 대한 도민들의 욕구가 증대되는 상황
- 도농통합 지자체의 경우 구도심의 침체와 함께 통합적 군지역인 농촌의 난개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
- 인구감소에 대응하지 못하는 공간정책 추진으로 인한 비경제적 시설의 입지로 이용율의 저하와 활용성의 문제에 직면함
- 농촌지역의 생활서비스 여건이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표 III-1-18〉 SWOT 분석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중심복합도시권의 등장에 따른 경쟁력 강화 • 수도권 배후지역으로서의 낙수효과 기대 • 도시와 농촌의 체계적 개발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 중심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경쟁환경 심화 • 농촌의 난개발로 인한 축소지향형 도시계획의 어려움
기회(O) ⇒ 포착	위협(T) ⇒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뉴딜 정책의 추진에 따른 공간의 활력 프로젝트 추진 가능 •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이양사업으로 인한 자주적 농촌 활성화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농촌 활력 해소 필요 •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 및 소외지역/계층에 대한 포용성장형 지원정책 필요 • 도심재개발의 어려움으로 인한 침체 가속

Ⅰ 여건전망

□ 대규모 신도시 개발에 따른 도시체계 변화

-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신도시가 지역발전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면서 풍선효과로 주변 도시 특히, 구시가지의 침체·쇠퇴를 야기할 가능성이 병존

□ 광역도시권의 형성과 확대

- 청주시와 세종시, 대전광역시 등이 새로운 형태의 초광역도시권 형성 가능
 - 청주시는 현재의 개발추세 지속으로 인구 100만 명에 육박하는 광역도시권으로 변모될 전망
 -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중소도시들이 연합하는 새로운 도시권 형성
- 광역도시권의 형성과정에서 개발압력을 수용하지 못 할 경우 난개발 예상

□ 네트워크 도시체계로의 전환

- 광역교통망의 정비로 지역 간 구분이 모호하게 됨에 따라 도시 간의 관계는 과거 수직적, 계층 관계에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수평적 네트워크 체계로 전환 예상
-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을 계기로 신도시와 주변 도시 간, 거점도시와 주변도시 간 공동발전을 위한 연계네트워크 구축 필요

□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도시정책으로 전환

- 주 5일제, 4+3 다차형 여가시대 도래에 따라 도농공생형·도농교류형 생활 방식으로 전환
 - 물리적 기반 중심의 도시정책으로부터 생활환경 중심의 소프트 도시정책으로 변화
- 세계화·정보화가 확산됨에 따라 지역의 개성 및 문화·어메니티 자원이 중요한 도시경쟁요소로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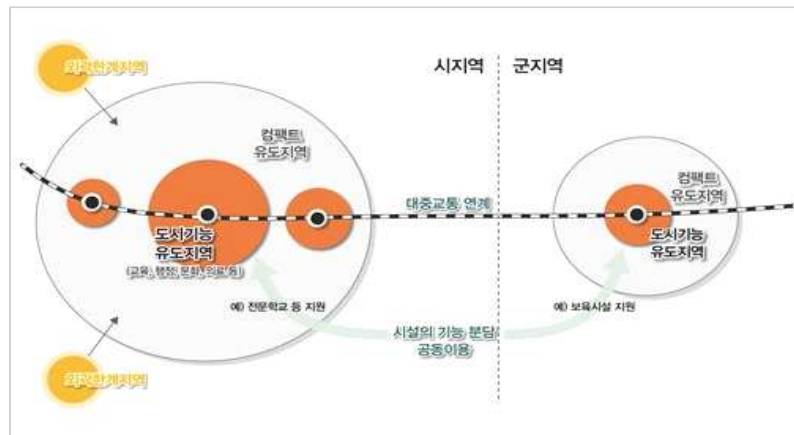
3) 추진과제

□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포용도시체계 구축

- 대도시의 인구 집중이 지속되고 있으나, 대도시권의 바깥 지역은 가임여성인구가 감소하고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등 소멸지역 확산
- '01~'16년 지역별로 주민 1인당 소요예산 변화현황을 살펴보면, 대도시의 경우 1,192만 원이 증가한 반면 군지역의 경우 5,385만 원이 증가하는 등 지역 간 큰 차이 확대
 - 교통·유통·교육·의료·복지·문화 서비스 공급의 거점 역할을 하는 중심지와 특히 지방소멸의 우려가 높은 주변 지역에 일정 수준의 공공서비스 공급
- 도시서비스,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지가 입지보다 얼마나 빨리 이동, 소비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네트워크 균형'시대가 도래
 - 고속도로의 직접 영향권 내에 있는 IC연접부와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지역 활성화 거점으로 개발 함으로써, 주변 농어촌 및 낙후지역 발전 촉진
- ICT의 발전이 우리 사회가 포용해야 할 사회적 약자와 쇠퇴도시 및 농어촌지역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 설정
 -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협력사업 추진,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건립사업 추진

□ 광역도시권 네트워크 연합도시체계 강화

- 수도권 및 대전권, 청주권의 광역적 확산에 따라 연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광역도시권과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한 중소도시 연합도시권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
 - 청주권은 성장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난개발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계획 수립
 - 오송역세권과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주변 지역은 난개발을 억제하면서 개발효과 주변지역 확산
- 청주권과 대전권, 세종시권의 연합 틀 속에서 광역도시권 네트워크 도시체계성장관리 유도
 - 성장관리정책은 스마트 성장의 원칙과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통합된 토지이용계획과 친환경성 및 미래성을 확보하는 방향 제시
- 지역발전을 선도할 중핵도시, 중소도시 간 창조적이고 협력적인 네트워크 관계 구축을 통한 경쟁력 있는 도시지역(City-Region System) 형성 유도
 - 중핵도시의 광역 및 지역생활권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육성하며, 인접한 중소도시는 특성에 따라 공간적, 기능적으로 특화하여, 충북 전체를 유기적인 네트워크 도시체계 형성
 - 도시와 주변 농어촌지역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농어촌지역 기초생활중심지의 서비스기능 강화



자료 : 이왕진·박소영·권규상, 2017년 국토연구원 정책세미나 자료, 도시재생 뉴딜의 실효성 제고 방안, 2017

〈그림 III-1- 7〉 축소도시 전략에 따른 컴팩트-네트워크 시티 개념도

○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스마트 도시성장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광역시설의 효율적 상호이용체계 및 광역조정기능 강화

- 스마트 성장을 위해 무분별한 교외개발을 억제하고, 광역조정기능을 강화하며 광역차원의 토지이용시스템 구축
- 지역주민의 편리성 향상과 활발한 역내 교류, 역외 인구유출 감소 등에 대비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종합병원, 운동 및 공원 등 광역시설의 공동이용체계 구축

□ 신도시를 활용한 지역혁신거점 육성

○ 세종시 건설이 충북의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 마련

- 세종시 인접 지역은 세종시의 기능과 연계할 수 있는 기능을 발굴·육성하며, 세종시와 경쟁환경에서 대등한 수준으로 정비

○ 혁신도시, 기업도시, 청주권의 개발효과가 중부권, 북부권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충북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충북의 경쟁력 제고 및 도민통합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

-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소도시 연합체계를 구축하여 내륙발전을 위한 거점도시권 형성
-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타 지역과 연계성 강화

○ 세종시, 혁신도시, 충주기업도시 등 신도시 개발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발전의 혁신거점으로 형성하고, 주변 도시와의 상생발전 도모

○ 상대적인 침체가 예상되는 중소도시는 지역 잠재력과 고유의 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새로운 지역혁신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균형발전 도모

- 미래형 혁신도시 추가 조성 및 국가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육성 사업 추진
-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과 지리적·공간적 장점을 적극 육성
- 교통결절점인 IC연접부 등의 특성을 살린 개발체계 구축
- 충북선 고속화에 대비한 역세권 개발사업계획수립 시 지구별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화 추진

□ 차별화된 중소도시 활성화와 인본적 도시환경 정비

- 대도시와 주변도시, 중소도시 간, 도시와 주변 농촌, 신도시와 기존 도시 간의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 행복도시와 주변도시와의 광역네트워크 도시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적, 국가적, 광역적 기능을 수행
 - 세종시 광역도시권내의 지역들은 행정도시의 주요 기능인 행정·연구기능, 문화·국제교류기능, 첨단 지식기반·교육기능 등과 연계할 수 있는 기능설정을 통한 상생발전 도모
 - 오송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세종시의 배후 정주 및 상업유통의 거점지역으로 조성
 - 보은은 역사·문화·관광과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주변 레저형 지원기능 부여
 - 옥천은 대전권과 오송권의 의료기기의 테스트베드 기능을 부여
 - 영동은 수요자 근접형 친환경 첨단농업 육성을 통한 네트워크 체계 강화
- 혁신도시와 주변도시는 중소도시 연계 네트워크체계 구축
 - 혁신도시와 주변도시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별 기능을 특화·분담
 - 혁신도시와 세종시 및 기업도시, 주변 도시 간 교통·정보 네트워크를 구축
- 도시특성과 잠재력을 살려 중소도시를 활성화하고, 살고 싶은 인본적 도시환경으로 정비
 - 중소도시의 중심시가지와 주변지역을 기능적으로 특화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인간 중심의 도시 구축
 - 수직적, 계층적 도시 간 모형에서 탈피하여 수평적 상생의 네트워크형 도시권 구축
- 차별화된 도심재생, 재래시장 및 상가환경 정비, 읍면소재지 정비 등과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책 등을 연계 추진하여, 지역의 특성과 문화적 이미지 창출
 - 중심시가지는 독창성 강화하고 체계적 정비함으로써 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상권 활성화 촉진
 - 사람이 편리하고 행복한 스마트테크시티 개발
 - 군사시설 이전 등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환경 개선 등 인본적 도시환경 정비

□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형 도시계획체제 구축

- 계획수립 및 개발과정에 관계인의 적극적 참여를 전제로 한 거버넌스형 도시계획체제 구축
 - 주민에 의한 도시계획 입안제도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의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며, 이를 행정분야에 반영토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강화
- 도시계획 결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부응하여 도 및 시·군 차원에서는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각종 조례, 시책·사업 개발

〈표 III-1-19〉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포용지역을 위한 추진사업

전략명	과제명	단기 (20~25)	중기 (26~30)	장기 (31~40)	비고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포용지역	1.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립사업				
	2.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3. 충북선 및 중부내륙선 역세권 개발사업				
	4. 지구별 도시개발사업 추진				
	5. 군사시설 이전사업 추진				
	6. 진천 스마트테크시티 개발사업				
	7. 자립형 충북혁신도시발전계획 추진				
	8. 혁신도시를 활용한 지역혁신거점 육성				

〈표 III-1-20〉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포용지역을 위한 시군계획지침

※ 시·군 계획지침

- 시·군은 교통, 환경, 토지이용 분야에서 당면한 공통의 문제나 인접 시군 간의 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변지역과의 자율적인 연계협력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한다.
- 인구감소로 인하여 개별적인 사업계획의 수립/집행이 어려운 시군은 인접 시군과 연계하여 통합계획의 수립 및 공동집행방안을 강구한다.
- 시군은 대규모 H/W 신축 등의 시설 입지 결정 시 축소지향형 토지이용방안을 위해 거점지구 내 시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설의 융복합화 방안을 강구한다.

제5절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관리를 통한 공간효율형 지역 창출

1) 현황 및 문제점

I 현황

□ 도시계획 현황

○ 행정구역 면적

- 2019년 기준 충청북도의 행정구역 면적은 7,406.8km²로 도시지역 면적은 731.0km²(9.9%), 비도시지역은 6,675.9km²(90.1%)

○ 도시지역

- 2018년 기준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 면적이 562.56km²로 가장 넓고 주거지역 94.1km², 공업지역 61.6km²의 순으로 넓음
- 2005년 이후 도시지역 면적은 연평균 0.48% 증가하였으나 공업지역 면적은 연평균 4.57% 증가, 주거지역 면적도 연평균 1.24% 증가
- 2018년 공업지역 면적은 2005년에 비해 27.15km² 증가, 도시지역 면적 증가분의 61% 차지

〈표 III-1-21〉 도시지역 용도지역 현황

(단위 : km², %)

구분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지역	
	면적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2005	686.5	80.19	11.72	10.44	1.93	34.45	5.41	560.92	80.73	0.52	0.21
2010	713.4	85.9	12.04	11.9	1.67	46.0	6.44	566.54	79.41	3.17	0.44
2015	724.5	93.2	12.86	12.2	1.69	55.7	7.69	562.69	77.66	0.71	0.10
2018	731.0	94.1	12.87	12.0	1.65	61.6	8.43	562.56	76.96	0.71	0.10

자료 : 국가통계포털, 도시지역 용도지역 현황, 각 년도

○ 비도시지역

- 2018년 기준 비도시지역 면적은 6,675.9km²로 2005년 대비 68.9km² 감소
-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중 농림지역 면적이 3,586.5km²로 가장 넓고 관리지역 2,257.8km², 자연환경보전지역 831.6km² 순으로 넓음
- 2005년 이후 비도시지역 면적은 연평균 0.08% 감소하였으나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관리지역은 각각 0.40%, 0.25% 증가, 농림지역은 연평균 0.38% 감소
- 2018년 관리지역 면적은 2005년에 비해 70.9km² 증가

〈표 III-1-22〉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현황

(단위 : km², %)

구분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면적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2005	6,744.8	2,186.9	32.42	3,768.1	55.87	789.8	11.71
2010	6,717.1	2,130.0	31.71	3,745.6	55.76	841.5	12.53
2015	6,679.6	2,273.0	34.03	3,571.0	53.46	835.6	12.51
2018	6,675.9	2,257.8	33.82	3,586.5	53.72	831.6	12.46

자료 : 국가통계포털,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현황, 각 년도

□ 토지이용계획 현황

○ 시가화용지

- 2018년 기준 충청북도의 시가화용지 면적은 282.9km²로 관리용지 116.3km², 주거용지 100.0km², 공업용지 53.6km²임
- 시가화용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주거용지 35.3%, 상업용지 4.0%, 공업용지 19.0%, 관리용지 41.1%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주거용지 면적은 33.7km² 증가하여 시가화용지 면적 증가분의 58.8%를 차지
- 시가화용지 중 상업용지는 2.8km² 증가하였으나 공업용지는 4.4km² 감소

○ 시가화예정용지

- 2014년 155.4km²에서 2018년에는 206.3km²로 2014년 기준 50.9km²가 증가함(32.8% 증)
- 시가화예정용지의 증가폭은 감소하고 있으나 도시화율 증가의 영향으로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

○ 보전용지

- 2018년 기준 보전용지 면적은 6,946.3km²로 2016년에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4년에 비해서는 83.6km² 증가

〈표 III-1-23〉 시가화(예정) 용지 현황

(단위 : km²)

구분	시가화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보전용지
	소계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관리용지	소계	소계
2014	225.6	66.3	10.2	58.0	91.2	155.4	6,862.7
2016	277.5	99.1	12.7	53.3	112.3	204.7	6,958.6
2018	282.9	100.0	13.0	53.6	116.3	206.3	6,946.3

자료 : 국가통계포털, 토지이용계획 현황, 각 년도



□ 인구 1인당 도시지역 면적 현황

○ 도시지역 인구 1인당 면적

- 도시지역 인구는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 131만 명으로 정점에 오른 후 소폭 감소하였으나 도시지역 면적은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음
- 주거, 상업, 공업지역 면적을 인구로 나눈 1인당 면적은 2005년 107.73km²에서 2015년 123.01km², 2018년 131.08km²로 지속적으로 증가
- 1인당 녹지지역 면적은 2005년 483.10km²에서 2015년 429.57km²로 감소하였으나 2018년 439.63km²로 소폭 증가

〈표 III-1-24〉 인구 1인당 도시지역 면적

(단위 : 명, km², m²)

구분	도시지역 인구 (명)	도시지역 면적 (km ²)	1인당 면적 주거+상업+공업지역 (m ²)	1인당 면적 녹지지역 (m ²)
2005	1,161,085	686.5	107.73	483.10
2010	1,232,422	713.4	116.63	459.70
2015	1,309,888	724.5	123.01	429.57
2018	1,279,616	731.0	131.08	439.63

자료 : 국가통계포털, 인구 1인당 도시지역 면적, 각 년도

□ 개발행위허가 현황

○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2005년 4,527건에서 2018년 7,346건으로 62.3% 증가
- 개발행위허가 면적은 2005년 8.8km²에서 2018년 30.0km²로 21.2km² 증가
- 건별 허가면적은 2005년 1,944m²에서 2010년 5,508m²로 확대된 후 2015년 4,460m², 2018년 4,084m²로 소폭 감소하고 있음

〈표 III-1-25〉 연도별 개발행위 건수

(단위 : 건, km²)

구분	2005	2010	2015	2018
건수	4,527	7,244	8,992	7,346
면적	8.8	39.9	40.1	30.0

자료 : 국가통계포털, 개발행위허가, 각 년도

- 도시지역의 전체 허가 실적은 2005년 1,266건에서 2018년 1,682건으로 32.9% 증가
- 동기간 용도지역별 허가 실적은 공업지역 105.9%, 주거지역 52.8%, 녹지지역 30.3% 증가

- 2018년 기준 도시지역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실적을 보면 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실적이 전체 개발행위허가의 82.0%인 1,379건을 차지, 주거지역 246건(14.6%), 공업지역 35건(2.1%), 상업지역 22건(1.3%)의 순임

〈표 III-1-26〉 도시지역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실적

(단위 : 건, km²)

구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2005	1,266	4.37	161	0.16	30	0.02	17	0.33	1,058	3.86
2010	1,597	4.85	290	0.39	26	0.02	26	0.09	1,255	4.34
2015	1,911	4.95	413	0.80	33	0.03	26	0.10	1,439	4.02
2018	1,682	3.96	246	0.21	22	0.01	35	0.29	1,379	3.46

자료 : 국가통계포털, 개발행위허가, 각 년도

- 비도시지역의 전체 허가 실적은 2005년 3,269건에서 2018년 5,746건으로 75.8% 증가
- 동기간 주요 용도지역별 허가 실적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각각 92.0%, 12.6% 증가하였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4.3% 감소
- 2018년 기준 비도시지역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실적을 보면 관리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실적이 전체 개발행위허가의 84.7%인 4,867건을 차지, 농림지역 731건(12.7%), 기타 82건(1.4%), 자연환경보전지역 1.1%(66건)의 순임

〈표 III-1-27〉 비도시지역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실적

(단위 : 건, km²)

구분	계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기타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2005	3,269	4.5	2,535	3.3	649	1.1	77	0.1	8	0.0
2010	5,741	35.6	4,498	19.4	988	12.2	161	3.5	94	0.6
2015	7,201	35.6	6,282	27.4	729	7.5	70	0.3	120	0.4
2018	5,746	26.3	4,867	18.4	731	7.4	66	0.2	82	0.2

자료 : 국가통계포털, 개발행위허가, 각 년도

□ 토지이용현황

○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 2018년 충청북도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을 보면 임야 66.6%, 전 8.7%, 답 8.3%, 도로 3.2%, 대지 2.3%로 농업용 토지의 비중이 높음
- 임야, 전, 답 등 농업용 토지의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등 도시용 토지의 면적은 증가추세에 있음

〈표 III-1-28〉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단위 : km²)

지목	계	대지	공장 용지	학교 용지	공원	체육 용지	전	답	도로	창고 용지	임야	기타
2005	7,431.4	136.5	46.4	17.1	3.9	6.0	684.2	694.9	181.8	2.6	5,040.9	617.2
2010	7,433.2	148.7	58.6	19.1	5.8	10.0	666.3	668.9	208.4	5.3	5,015.1	627.0
2015	7,407.2	164.5	71.2	20.1	10.2	15.6	649.3	631.3	228.9	7.3	4,954.7	654.2
2018	7,407.8	173.9	82.7	19.8	12.1	16.5	644.1	617.5	237.7	8.4	4,930.0	665.1

자료 : 국토교통 통계누리, 지목별 국토이용현황, 각 년도

I 문제점

□ 성장기반의 도시계획 패러다임 고착화에 따른 과잉 개발

- 장래 인구감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면적 증가, 비도시지역에서의 시가화 예정용지 과잉 설정 등 도시개발과 기반시설 물량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도시 외곽의 지속적인 개발로 도시 내 저이용·유휴 토지 증가, 인구 유출 등으로 원도심의 기능 쇠퇴가 발생하여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화·고착화

□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심화

- 도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도시지역뿐 아니라 비도시지역에서의 성장관리 정책 부재로 난개발이 심화되고 있음
- 토지이용 관리체계 일원화, 토지적성평가를 통한 용도지역 세분화, 개발행위허가제 도입 등 비도시지역에 대한 관리 수단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지가가 저렴한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지속
- 농업용 토지인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지속적으로 도시적 토지이용으로 전환되고 있어 토지이용의 체계적 관리가 요구

□ 보전가치가 있는 토지의 지속적 감소

- 산업단지 개발, 개별입지공장 증가 등에 따라 농업용 토지 및 임야의 용도 전용이 빈번
- 우량 농지와 산지 등 농촌경관 유지와 보전 가치가 충분한 토지에 대한 철저한 보전, 관리 요구 증대

2) 여건분석 및 전망

I SWOT 분석

- 충북은 청정환경 및 산악·호수·절경 등 활용가치가 높은 지역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내륙의 청정자원과 그 활용가치가 높은 지역임
- 반면 대청댐 등 개발규제지역(2D3P) 산재에 따른 토지 기능 전환에 제약이 많으며, 도 내 도시 지역 과밀화와 농촌지역 과소화 등 토지이용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음

〈표 III-1-29〉 SWOT 분석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정환경 및 산악·호수·절경 등 활용 가치가 높은 지역 자원 풍부 • 입지경쟁력 증대에 따른 산업입지 수요의 지속적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규제지역 산재에 따른 토지의 기능 전환 제약 •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 산업입지 노후화
기회(O) ⇒ 포착	위협(T) ⇒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가치관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 신수요 발생 • 농촌지역의 공간가치에 대한 중요성 인식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지역 과밀화와 농촌지역 과소화 등 토지이용의 양극화 심화 • 기성 시가지 내 저이용·유헌토지와 빈집빈 상점 등의 지속적 증가

I 여건전망

□ 인구감소시대 진입에 따른 공간구조 개편 요구 증대

- 인구감소·고령화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 공간정책의 수요와 공급, 공간전략의 목적과 우선순위에 큰 변화가 예상
 -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감소는 신규·대규모 개발수요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
 - 과소지역 확대, 과소화 심화에 따른 지역 쇠퇴와 이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공간 격차가 초래될 가능성이 농후함
 -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시가화용지 또는 시가화 예정용지는 다양한 검토를 거친 후 보전용지로의 전환을 고려해야함

□ 저에너지소비형 토지이용 확산

- 자원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집중형 공간구조로 개편
 - 분산형에서 집중형 공간구조로 개편하여 집적의 이익 최대화
 - 대중교통과 보행자, 자전거 중심의 녹색교통을 강화하여 교통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기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시키는 공간구조를 형성



○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고려한 지역 및 도시계획 등이 촉진될 전망이다

- 토지이용 및 도시구조에 대한 계획 수립단계에서 에너지 계획을 반영하고 도시재생 등의 계획 시 재생에너지 사용을 고려해야 함

□ 가치관 변화와 삶의 질 확보를 위한 공간수요 증가

○ 개인의 삶의 질, 건강, 여가, 안전,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 이에 따른 수요의 다양화 예상됨

- 시민들의 문화·여가 향유 욕구 증대에 따라 거점공간의 기능 강화가 예상되며 산지, 수변공간 등 지역 자원을 토대로 한 서비스 수요 증가 전망

○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 소득 이외의 요인들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므로 삶의 질을 확보하고 보장해주는 도시환경 조성 및 서비스 공급체계가 필요

□ 토지이용의 질적 향상 요구 증대

○ 생활환경 개선과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요구 증대

- 토지의 공익적 가치 증대, 녹지 확대, 깨끗한 물 공급, 친수공간 수요 증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 등 사회적 형평성 요구 증대

□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유연한 토지이용체계 지향

○ 신규공급 위주의 무리한 토지개발정책에서 탈피하고, 기존 주택 및 산업단지 리모델링, 직주 균형개발, 도심재생 등 신규 토지수요를 절감할 수 있는 통합적 수요관리 정책 추진

○ 지역별 차등화된 용도지역제 도입 등 제도 개편을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화 도모

□ 성장관리제도의 적극적 도입을 통한 난개발 방지

○ 도시적 기능의 무분별한 비도시지역 확산 방지와 입지 억제에 위한 성장관리계획제도 도입과 토지이용 규제 강화 검토

○ 중·장기적인 산업용지 전망 및 배분 시 계획입지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무분별한 개별입지를 억제하기 위한 계획적 수단 강구

3) 추진과제

□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압축축소지향형 도시정비전략 수립

- 도내 도시지역에서는 대규모 신규 주택지가 도심 외곽에 집중 개발 중
- 도심으로부터 급격한 인구 유출이 진행됨에 따라 도심부의 주거기능 향상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인구 공동화를 방지하고 도심부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 증대
- 기성시가지 내 저이용·유허토지의 현명한 이용과 도시 외곽으로의 공간적 확장을 지양하는 성장관리 정책의 적극 도입을 위한 계획적 공간관리 정책 도입

□ 사회 통합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생 지속 추진

- 구도심지역의 인구·물리적 쇠퇴 현상 심화, 주거안정성 취약과 거주만족도 격차 확대, 기준미달 주택이 다수 분포, 빈집, 공터, 좁은 골목길 등 범죄 사각지대가 다수 존재
- 구도심의 열악한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사회적 통합과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지역 맞춤형 지역재생 적극 추진할 필요성 대두
- 소규모 필지가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의 새로운 주거환경 정비 및 재생 방향 모색
- 주거, 상업·업무, 서비스 등 여러 기능이 한 장소 내지 공간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능의 복합화·혼재화·압축화 적극 추진

□ 농촌지역의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공간계획 강화

- 농촌지역의 계획적 관리와 농촌자원과 환경 보호를 위한 공간계획의 체계적 수립 유도
- 과소지역의 공동체 유지와 기초 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농촌 중심지의 중심기능 강화와 배후지역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 농촌공간의 계획적 관리를 통해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비도시지역 토지이용의 질적 관리 수준 향상

□ 유허토지의 활용과 정비를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강화

- 저에너지소비형 토지이용 확산, 토지이용의 질적 향상 추구 등 환경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유허지의 활용 필요성 제기
- 도시지역 내 나대지, 빈집 등 유허 토지자원의 현황, 활용실태 점검 등 토지이용 모니터링 강화
- 비도시지역 내 유허 농지, 한계 농지 등 농촌지역의 유허토지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토지의 입지특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적극적 활용방안 모색



□ 지속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통합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도시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저에너지소비단지 개발, 친환경적인 도시용지의 공급 등 양질의 도시용지 공급 방안 마련
- 토지이용 실태와 환경분석을 통한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하고, 환경친화적 개발지침에 따라 개발 계획 수립

〈표 III-1-30〉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관리를 통한 공간효율형 지역 창출을 위한 추진사업

전 략 명	과 제 명	단기 (20~25)	중기 (26~30)	장기 (31~40)	비고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관리를 통한 공간효율형 지역 창출	1. 집약적 공간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정비사업				
	2. 시가지내 유휴지의 녹지화사업				
	3. 코로나사태에 대응한 건강도시연계 미래형 주거지 조성				
	4. 충북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 용도 변경				
	5. 시군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				

〈표 III-1-31〉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관리를 통한 공간효율형 지역 창출을 위한 시군계획지침

※ 시·군 계획지침

- 시·군은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정주체계의 집약화와 효율적인 인프라 공급·관리방안을 마련한다.
- 시·군은 도시지역의 압축적 토지이용,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관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 시·군은 인구감소에 대비하여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시가화지역으로 입지를 유도하는 등 적정 개발을 지향한다.
- 시·군은 유휴·방치공간과 미·저이용 토지, 국공유지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 시·군은 노후 건축물·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 제2장

공간의 지능화와 효율적 인프라 운영·관리

제1절 지속가능한 ICT기반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제2절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기능강화를 위한 국가교통의 중심지역 육성

제3절 글로벌 국토를 지향하는 철도 및 항공체계 구축

제4절 스마트 라이프·신산업 생태계가 구현되는 혁신공간 창출



제2장 공간의 지능화와 효율적 인프라 운영·관리

제1절 지속가능한 ICT기반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Ⅰ 현황

□ 물류시설 현황

- CY는 31개역, CFS는 5개역, 시멘트사일로 32개역에 설치되어 있고, 그밖에 철강기지, 지류센터, 자동차하치장, 광석·광재창고, 유류기지, 무연탄기지, 군화물기지 등이 주요 화물처리역에 설치되어 있음
- CY 중 충청북도에는 충주역과 옥천역의 CY가 운영 중에 있고, 청주역의 CY는 현재 철도수송이 중지되어 있음

〈표 Ⅲ-2- 1〉 국내 철도물류시설 현황

구분	면적	물류기지 조성역
CY	31개 역 958,851㎡	오봉, 두정, 삽교, 소정리, 충주, 옥천, 악목, 부산진, 울산항, 석포, 군산, 동익산, 동산, 흥국사, 신광양항, 신탄진, 옥계, 문수, 동해, 인천, 아포, 가야, 온산, 괴동, 청주, 부강, 매폐, 하남, 부산신항, 광양항, 월롱
CFS	5개 역 42,636㎡	오봉(10,712), 부산진(3,981), 부산신항(3,520), 신창원1(14,320), 신창원2(7,603), 신탄진(2,500㎡)
시멘트 사일로	32개 역 8571,504천톤	수색, 오봉, 수원, 광운대, 덕소, 팔당, 초성리, 부강, 매폐, 대전조차장, 신탄진, 흑석리, 연무대, 청주, 음성, 도안, 간치, 신성, 주평, 악목, 신동, 괴동, 가천, 한림정, 북전주, 무릉, 신령, 극락강, 장성, 부용, 춘천, 남문산
철강기지 하치장	7개 역 42,897㎡	창고 - 의왕(6,970), 오봉냉연(5,249), 오봉열연(1,736), 괴동(4,565), 태금(3,030) 하치장 - 인천(7,003), 신례원(3,364), 태금(7,260), 삽교(3,720)
지류센터	7개 역 57,884㎡	온산(4,255), 오봉1(2,254), 오봉2(2,226) 수색(11,405), 장항화물(3,313), 서빙고(1,617), 진주(1,905), 광운대(30,909)
자동차 하치장	2개 역 20,690㎡	광운대(16,500), 태화강(4,190)



구분	면적	물류기지 조성역
광석·광채창고	5개 역 77,242㎡	광석창고 - 동해(2,318), 석포(2,040), 태금1(1,494), 묵호항(47,634), 괴동 한중1(6,578), 한중2(4,749), CJ1(4,996), CJ2(3,476) 광채창고 - 태금2(800), 괴동(3,157)
유류기지	6개 역	온산, 장생포, 만종, 회덕, 가수원, 적량
무연탄기지	23개 역	철암, 동해, 인천, 안인, 석항, 도계, 금천구청, 점촌, 밀양, 달천, 회덕, 동백산, 영동, 와룡, 간치, 화순, 효천, 추전, 영주, 나원, 김천, 의성, 천원
군화물기지	22개 역	오류동, 청천, 동두천, 연무대, 오근장, 우암, 덕산, 동량, 평택, 원주, 진해, 벽제, 지평, 김유정, 왜관, 연화, 청평, 경산, 능곡, 문산, 전의, 성환
기타	14개 역	(석고) 태화강 (석회석) 고명, 입석리, 석항 (변압기) 부산진 (경석) 암 (황산) 석포, 봉화, 온산 (백운석) 연당, 쌍룡, 도담 (철광석) 예미, 동해

주 : 읍영은 현재 철도수송 중지
자료 : 한국철도공사 내부자료(2018)

□ CY(Container Y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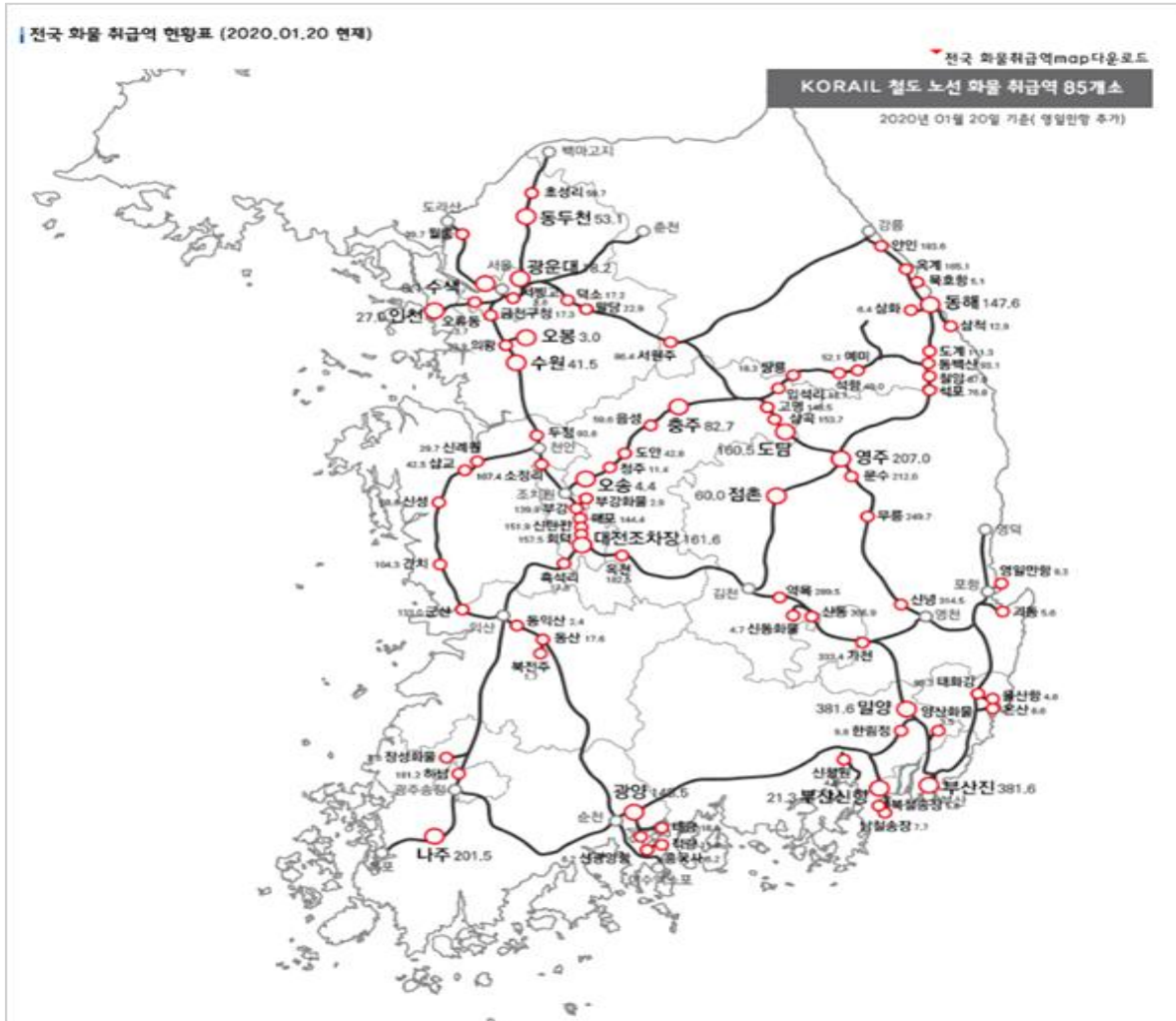
- 충북선 내 오송역은 과거 한일시멘트 공장이 있어 화물만 취급하던 간이역이었으나, 공장을 철거한 자리에 KTX역사가 신설되어, 경부,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으로서 여객 중심 역으로 운영 중에 있음
- 충북선 청주역의 경우 물류편제역으로서 CY도 충북선 내 가장 넓게 확보하고 있으나 코레일의 화물역 거점화 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컨테이너 수송이 중지된 상태이며, 현재는 시멘트, 사업용 화물 수송을 운영하고 있음
- 경부선 내 옥천역에 CY가 설치되어 있어 컨테이너 수송을 운영하고, 지탄역과 각계역은 무배치 간이역으로 화물수송이 없으며, 심천역은 2019년 화물수송이 중지되었고, 나머지 이원역, 영동역, 황간역, 추풍령역은 소규모 화물을 취급하고 있음
- 철도CY는 수출입 컨테이너 내륙운송을 위해 철도역에 설치된 컨테이너 야드로서 충청북도에는 경부선 옥천역과 충북선 청주역, 충주역에 CY가 설치되어 있으며, 컨테이너 취급량은 충북선 청주역이 비교적 많은 컨테이너를 취급함
- 과거 경부선 매포역과 부강역은 충청북도 청원군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세종시로 편입되어 있고, 부강역이 컨테이너 처리실적이 비교적 높았으나, 2014년 컨테이너 화물의 집적화로 인해 전체적인 컨테이너 취급물량이 감소하였고, 기존 컨테이너 화물 취급역의 처리실적이 급격히 낮아짐을 볼 수 있음
- 현재 충청북도 내 철도역 중 컨테이너 야적장(CY)이 설치되어 있는 역은 청주역, 충주역, 옥천역 등 3개소이며, 규모는 청주역CY가 가장 크지만 2014년 5월 코레일의 부강화물역으로 기능이 이전되어 현재는 택배회사에 임대 중

○ 충주역CY는 코레일로지스와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에서 공동 조성하여 현재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에서 운영 중이며, 옥천역은 현대와 천일정기화물차(주)에서 조성하여 현재 운영 중이나, 수송량은 많지 않은 실정임

〈표 III-2- 2〉 충청북도지역 철도 CY 운영현황

철도역	충주역	충주역	옥천역
CY 면적(㎡)	17,692	7,664	5,449
조성업체	국보(8,942), 코레일로지스(8,687)	코레일로지스	현대, 천일
취급능력(천TEU/년)	59	25	18
운영현황	철도수송 중지 중 (택배회사 임대 중)	천일정기화물차(주)에서 운영	운영 중

자료 : 코레일 내부자료



〈그림 III-2- 1〉 전국화물취급역 현황



□ 시멘트 사일로(Silo)

- 충청북도 내 시멘트 사일로는 청주역과 음성역, 도안역이 있으며, 청주역과 음성역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고, 도안역은 민간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음
- 충청권에서는 기존 청주, 충주, 조치원, 부강, 매포 등 기존 컨테이너 취급 역의 화물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대신 부강화물역으로 집적화되어 컨테이너 화물처리량이 급증하였고, 배송지도 단순해짐을 볼 수 있음

〈표 III-2- 3〉 충청북도 내 철도역 시멘트 사일로 운영현황

구분	청주역	음성역	도안역
기수	1기	1기	2기
용량	5,000톤	5,000톤	3,000톤
운영현황	운영 중	운영 중	운영 중

자료 : 코레일 내부자료

□ 공영도매시장

- 충청북도에는 청주와 충주에 각각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위치하고 있음

〈표 III-2- 4〉 충청북도지역 공영도매시장 현황

시장별	소재지	개장일	법인수 (시장도매인)	규모(㎡)	
				부지	건물
청주	흥덕구 제1순환로 895	1988.11.10	3	44,088	20,302
충주	목행동 426-4	1995.11.15	3	45,756	15,340

자료 : 국토해양부, 제2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2012.12.

□ 화물수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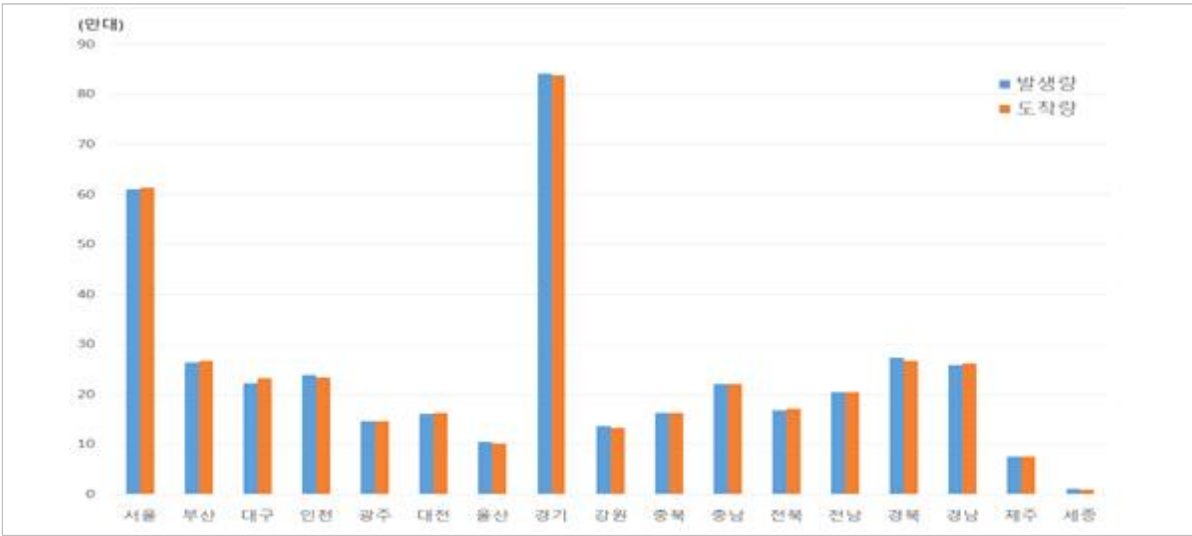
- 전국 화물자동차의 일 평균 통행량은 약 409만 대/일로 산출되었으며, 이는 2014년도(약 393만 대/일)에 비해 4.3% 증가한 수치임
- 화물자동차 발생량 및 도착량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가 각각 20.5%, 20.43%이며, 충북은 발생량 163천 대(3.97%), 도착량 162천 대(3.96%)를 나타냄

〈표 Ⅲ-2- 5〉 시·도별 화물자동차 1일 통행량

(단위 : 대/일, %)

구분	발생량	비율	도착량	비율
합계	4,513,133	100.00	4,513,133	100.00
서울	641,789	14.22	693,402	14.17
부산	298,218	6.61	301,107	6.67
대구	227,851	5.05	229,817	5.09
인천	299,591	6.64	298,085	6.60
광주	151,097	3.35	151,059	3.35
대전	166,913	3.70	167,062	3.70
울산	108,136	2.40	109,502	2.43
경기	937,251	20.77	948,905	21.03
강원	150,602	3.34	147,919	3.28
충북	180,039	3.99	181,256	4.02
충남	238,040	5.27	234,835	5.20
전북	187,776	4.16	185,494	4.11
전남	223,961	4.96	221,770	4.91
경북	297,074	6.58	294,453	6.52
경남	302,619	6.71	300,655	6.66
제주	84,161	1.86	84,161	1.86
세종	18,014	0.40	17,657	0.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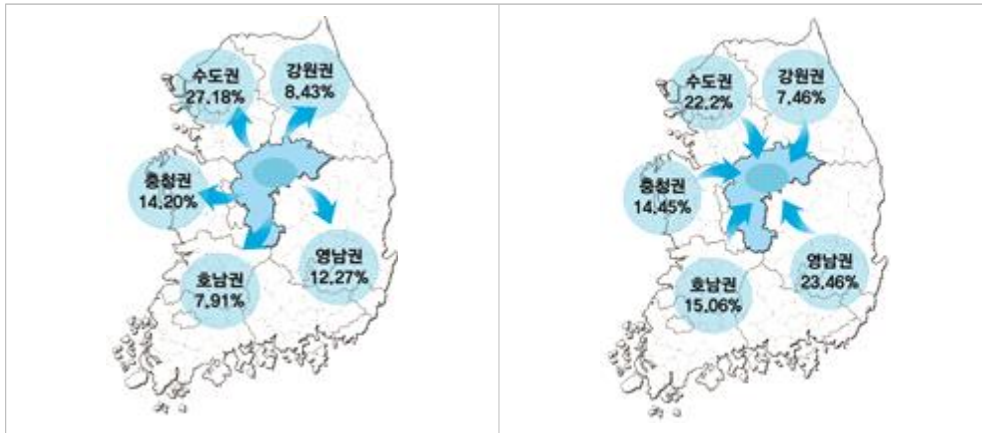
자료 : 국가교통DB, 2018년 국가교통조사·DB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전국화물 O/D 전수화 및 장래수요 예측, 2018.12.(2017년 기준)



〈그림 Ⅲ-2- 2〉 시·도별 화물수송 현황

□ 도로화물 통행 O/D

- 유출화물의 경우 대전·충남 지역인 충청권으로 25.91%로 가장 많은 화물이 이동하고, 서울·인천·경기 지역인 수도권 지역으로 20.09%로 그다음으로 많이 이동
- 유입화물의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 23.05%로 가장 많은 화물이 유입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충청권 지역에서 19.5%로 많은 화물이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2- 3〉 충북 화물유출 지역 간 비율

〈그림 III-2- 4〉 충북 화물유입 지역 간 비율

자료 : 제2차 충청북도 물류기본계획, 2018.

□ 물류시설 공급현황

- 충청북도에는 물류터미널 2개소, 물류단지 2개소, 철도CY 3개소, 농수산물시장 2개소 등 총 9개의 물류시설(부지면적 기준 총 703천㎡)이 공급되고 있음

〈표 III-2- 6〉 충청북도 물류시설 공급현황

구분	사업장명	위치	운영사	면적(㎡)	사업기간	비고
물류 단지	영동	영동군 황간면	-	263,179	'09~'15	운영 중
	음성	음성군 대소면	-	283,934	'98~'07	운영 중
	소계			547,113		
물류 터미널	청주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청주화물 터미널(주)	19,654	-	운영 중(주선업)
	보은	보은군 보은읍 자산리	형제기업(주)	13,127	-	기능상실(조사결과)
	소계			32,781		
철도 CY	옥천역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	5,449	1996.01	운영개시일
	청주역	청주시 흥덕구 정봉동	-	18,862	1995.09	운영개시일
	충주역	충주시 봉방동	-	8,260	2007.01	운영개시일
	소계			32,571		
농수산물 도매시장	청주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	44,088	1988.11	운영개시일
	충주	충주시 목행동	-	45,756	1995.11	운영개시일
	소계			89,844		
총계				703,453		

주 : 중부내륙물류기지 및 매포역, 부강역은 세종시로 편입됨에 따라 제외함
 자료 : 국토교통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2010. 12.

- 장래계획을 반영하여 물류시설 과부족을 검토하였으며, 『제2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변경), 2016.7, 국토교통부』에서는 충북에 439천㎡의 신규물류단지 시설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표 III-2- 7〉 물류시설 배치계획

구 분	물류시설 기능	세부시설 구분	시설명	부지면적 (천㎡)	배치지역
신규공급 시설	국제물류거점	공항물류터미널 공항배후단지	-	-	-
	광역물류거점	내륙물류기지	-	-	-
	지역물류거점	물류단지	영동황간물류단지	264	영동군
			신규물류단지	439	충북
	운송수단장치	공영차고지	-	-	-
		항공시설	-	-	-
기능개선 시설	검토대상시설	일반물류터미널	삼원공용화물터미널	1	제천시
			청주화물터미널	20	청주시
		농산물도매시장	청주농수산물시장	44	청주시
			옥천	5	옥천군
			청주	19	청주시
			충주	8	충주시
이전시설	-	-	-	-	-

자료 : 국토교통부, 제2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변경), 2016. 7.

〈표 III-2- 8〉 충청북도 권역별 물류시설 공급현황

(단위 : ㎡)

구분	물류단지	물류터미널	ICD, CY	농수산물 도매시장	계	비율
청주권	-	20,231	18,862	44,088	83,181	11.8%
중부권	283,934	-	-	-	283,934	40.4%
북부권	-	-	8,260	45,756	54,016	7.7%
남부권	263,587	13,286	5,449	-	282,322	40.1%
계	547,521	33,517	32,571	89,844	703,453	100.0%

자료 : 충청북도 물류기본계획, 2018.



□ 필요시설 규모산정 결과

○ 2022년 기준 충청북도의 장래 물동량에 따른 필요 물류시설 규모를 산정한 결과 총 805천㎡의 면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보관 및 집배송 시설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표 III-2-9〉 충북 권역별 필요시설 규모(2022년 기준)

구분	물류시설				ICD, CY(㎡)
	화물취급장(㎡)	보관 및 집배송시설(㎡)	계(㎡)	비율	
청주권	46,722	219,825	266,547	36.4%	72,472
중부권	46,722	226,046	272,768	37.3%	
북부권	62,296	36,736	99,032	13.5%	
남부권	15,574	78,213	93,787	12.8%	
계	171,314	560,820	732,134	100.0%	

주 : 물류시설 + ICD = 804,606㎡

자료 : 충청북도 물류기본계획, 2018.

- 2027년 기준 물류시설 규모를 산정한 결과 총 837천㎡의 면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표 III-2-10〉 충북 권역별 필요시설 규모(2027년 기준)

구분	물류시설				ICD, CY(㎡)
	화물취급장(㎡)	보관 및 집배송시설(㎡)	계(㎡)	비율	
청주권	46,722	228,861	275,583	36.5%	82,992
중부권	46,722	235,823	282,545	37.5%	
북부권	62,296	37,477	99,773	13.2%	
남부권	15,574	80,731	96,305	12.8%	
계	171,314	582,892	754,206	100.0%	

주 : 물류시설 + ICD = 837,198㎡

자료 : 충청북도 물류기본계획, 2018.

□ 과부족 검토

○ 물류시설 과부족 검토

- 2012년 7월 1일자로 중부내륙물류기지가 위치한 청원군 부용면이 세종시로 편입됨에 따라 중부내륙 물류기지를 미반영할 경우의 과부족 검토를 수행함
- 2022년 기준 장래 충북 물류시설은 약 151천㎡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권역별로 보면 청주 권과 북부권이 부족하고, 중부권과 남부권은 여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III-2-11〉 충청북도 물류시설 과부족 검토결과(2022년 기준)

구분	공급면적(㎡)	수요면적(㎡)	과부족 검토(㎡)
청주권	20,231	266,547	-246,316
충부권	283,934	272,768	11,166
북부권	-	99,032	-99,032
남부권	276,873	93,787	183,086
계	581,038	732,134	-151,096

주 : 공급면적 중 농산물시장과 CY는 제외함
 자료 : 충청북도 물류기본계획, 2018.

- 2027년 기준 충북의 물류시설은 약 754천㎡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공급면적은 약 581천㎡로 약 173천㎡의 물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됨
- 원활한 물동량 처리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물류시설 공급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청주권과 북부권의 물류시설 공급이 시급할 것으로 예상됨

〈표 III-2-12〉 충청북도 물류시설 과부족 검토결과(2027년 기준)

구분	공급면적(㎡)	수요면적(㎡)	과부족 검토(㎡)
청주권	20,231	275,583	-255,352
충부권	283,934	282,545	1,389
북부권	-	99,773	-99,773
남부권	276,873	96,305	180,568
계	581,038	754,206	-173,168

주 : 공급면적 중 농산물시장과 CY는 제외함
 자료 : 충청북도 물류기본계획, 2018.

○ ICD 과부족 검토

- 2022년 기준 ICD에 대한 시설규모의 과부족을 검토한 결과 수요 대비 공급면적은 39,901㎡가 부족할 것으로 분석됨
- 2027년 기준 ICD 시설규모의 과부족을 검토한 결과 장래 82,992㎡의 컨테이너 처리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급면적은 32,571㎡로 50,421㎡의 처리시설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충북의 원활한 컨테이너 물동량의 처리를 위해서는 장래 철도역 CY 기능개선 계획과 동시에 별도의 처리시설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III-2-13〉 충청북도 ICD 과부족 검토결과(2022년, 2027년 기준)

구분		공급면적(㎡)	수요면적(㎡)	과부족 검토(㎡)
충북	2022년	32,571	72,472	-39,901
	2027년	32,571	82,992	-50,421

- 『제2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변경), 2016.7, 국토교통부』에서는 충북에 439천㎡의 신규물류단지 시설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신규 물류단지의 권역별 적절한 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남
- 439천㎡의 물류시설이 공급될 경우 장래 목표연도의 물류시설 부족 부분을 충족하는 것으로 검토됨

I 문제점

□ 미약한 수출입 비중

○ 충청북도 무역비중은 전국 9-10위 수준으로 충청북도 경제 3%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 충청북도의 수출액은 전국 32%, 수입액은 전국의 1.4%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출의 경우 전국적인 수출 감소 현상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기록함
- 충청북도 수출의 지속적 성장은 지역 수출의 근간이 되고있는 반도체, 태양광 등의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데 기인하였음
- 반면, 충청북도 수입은 50-60억 달러 수준의 박스권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수입 품목에서도 자본재(전기전자) 수출을 위해 소요되는 원재료 수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표 III-2-14〉 2019년 지자체별 수출입 현황

(단위 : 만불, %)

구분	수출			수입		
	수출액	수출증감률	비중	수입액	수입증감률	비중
총계	542,232	-10.4	100.0%	503,343	-6.0	100.0%
경기	116,686	-18.6	21.5%	122,271	-7.1	24.3%
충남	79,951	-13.1	14.7%	34,721	-10.2	6.9%
울산	69,530	-0.9	12.8%	32,742	-9.1	6.5%
서울	57,380	-11.2	10.6%	157,399	-3.9	31.3%
인천	38,018	-6.8	7.0%	42,114	-7.8	8.4%
경북	37,711	-7.8	7.0%	14,783	-2.5	2.9%
경남	39,352	-2.2	7.3%	21,363	4.9	4.2%
전남	32,587	-11.0	6.0%	32,808	-8.8	6.5%
충북	22,080	-5.0	4.1%	6,883	3.1	1.4%
광주	13,414	-8.5	2.5%	5,899	-6.1	1.2%
부산	13,924	-3.4	2.6%	13,798	-6.8	2.7%
대구	7,490	-7.6	1.4%	4,369	-6.1	0.9%
전북	6,537	-16.5	1.2%	4,986	-8.4	1.0%
대전	4,048	-10.3	0.7%	3,171	-7.4	0.6%
강원	2,087	-0.4	0.4%	4,048	-15.4	0.8%
세종	1,285	4.5	0.2%	1,562	25.2	0.3%
제주	149	-18.3	0.0%	420	-34.5	0.1%

자료 : '지자체 수출입', 한국무역협회, 2019.

□ 무역집약도, 교역국 다양성 취약

○ 무역집약도, 교역국 다양성도 높지 못한 상황

- 지역별 무역액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무역집약도 수준도 전국 10위권으로 나타남
- 충청북도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충청북도의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며, 충청북도 경제의 외연 확대를 위해서는 수출과 수입 등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반증임
- 또한 교역상위 5개국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교역국 다양성에서 전국 16개 지자체 가운데 15위를 차지하여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남
- 교역국 다양성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은 결국 중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의 비중이 타 지역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교역 상대국의 경기상황 변동에 따라 수출에 미치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것임
- 충청북도 경제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서는 교역국 다양성 비중 제고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해상화물 위주의 수출입

○ 충청북도 수출입은 부산항 중심의 해상운송 루트가 가장 보편적

- 충청북도 수출입은 해상화물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충청북도에서 선적된 화물은 부산항 또는 평택항, 인천항 등을 통해 해외로 수출되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 충청북도 수출입화물의 주요 항만 선택과 관련하여 부산항의 경우 국내 최대 항만으로 미국, EU 등 장거리 노선을 운송하는 국제선대(우리나라의 경우 현대상선)의 이용이 대부분(실제 전 세계 수출입 물품의 95%가 컨테이너 해운임)

○ 충청북도 수출입 물류에서 항공운송 활용률 제고 가능성 잠재

- 충청북도 수출입 화물의 경우 반도체, 태양광 모듈 등 소규모 고가 제품이 상당하며, 향후 바이오 산업 활성화에 따른 콜드물류 시장 확대도 개진되고 있음
- 현재 기존 제품의 항공물류는 대부분 인천국제공항의 물류 라인을 활용하고 있으나,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한 국제물류 활성화는 매우 시급한 현안임
- 기존 청주국제공항 물류 노선 이용 빈도가 미미한 것은 글로벌 물류업체의 청주공항 미취항과 청주국제공항 물류인프라 미확보 등의 사유에 기인함. 최근 인천국제공항 과포화 상황 도래 등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의 대체물류 전문공항으로서 청주국제공항 중심의 복합운송 체계(Multi Model Transportation) 구현이 매우 시급함

2) 여건분석 및 전망

I SWOT 분석

- 충청북도는 국가 교통 중심지(국가 X축 교통망 중심, KTX 분기 등)에 위치하여 전국 어느 곳에 서나 최단거리로 접근 가능하다는 이점을 지닌 물류의 최적지임
- 오송의 바이오산업, 오창의 IT산업 등 항공화물로 적합한 소규모 고가제품인 바이오의약품, 반도체,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산업이 기구축되어 있어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한 항공물류, 콜드체인 물류 가능성을 보유함

〈표 III-2-15〉 SWOT 분석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중심 위치, 전국 어느 곳에서나 최단거리 접근 가능하며, 수도권과 접해 있어, 배후 물류기능 최적지 -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50%, 100대 기업 본사의 95% 입지 등 국가 자원 집중으로 상시 포화상태 - 경기 동남부 광주, 용인, 안성 등 물류 수요 급증 • 전국 교통망의 중심, KTX, 고속도로 분기점 • 국가 행정의 중심 세종시 연계를 통한 산업 연계 효과와 물류 수요 증가 가능 • 인천공항의 포화도에 따라 물류기능 대체 가능한 중부권 거점 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의 잠재력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물류 대응력 부족 - 충북도가 철도화물 발생량은 전국에서 제일 높으나, 제천·단양의 양회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대부분의 화물은 도로 중심의 비효율적인 수송체계 • 청주국제공항은 활주로, 화물터미널 등 항공화물 처리시설 및 국제선 정기노선 부족 등 항공화물 활성화를 위한 기반 부족 • 특정 대기업 수출 주도, 중소기업 물류비 증가 - 반도체(SK하이닉스, 동부하이텍 등), 태양광(한화큐셀, 신성솔라 등), 이차전지(LG화학 등)가 충북의 수출을 주도하는 반면, 중소기업 물류비는 증가하여 경쟁력 저하
기회(O) ⇒ 포착	위협(T) ⇒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축 고속교통망 확충 정책으로 통일/유라시아 시대를 대비하는 글로벌 연계/확장형 물류 지향하고 있으며, 이는 관련 물류산업 성장 가능성을 의미함 • 청주국제공항 및 KTX 오송역 등 교통물류거점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활성화 노력 -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화물터미널 증축 등 청주공항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의지가 강하고,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한 MRO 산업 등 물류수요 증가 예상 •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사업 추진으로 평택당진항~청주국제공항 연계가 가능하며, 내륙도인 충북의 수출입 물류처리를 위한 항만 연계로 지역의 산업경쟁력 상승과 충남북부 산업단지와 청주공항 접근성 개선으로 인한 항공물류 활성화 가능성 보유 • 바이오, 반도체, 태양광 등 항공물류 적합 화물을 생산하는 산업 선점으로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한 항공물류, 콜드체인 물류 가능성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공사의 철도화물 거점화 정책에 따라 지역 내 기확보된 물류시설 유희화 - 지역 내 청주역에 대규모 CY가 설치되어 있으나, 철도 화물 거점화 정책에 따라 청주역 화물취급이 중단된 상태로, 지역의 철도물류 활성화 정책에 차질 우려 • 정부의 인천공항 중심 육성정책 - 정부의 인천국제공항 동북아 허브공항 육성정책과 예산 집중에 따른 지방공항의 국제노선 및 이용객 감소 등 지방공항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 충북은 청주공항을 국가 제2의 항공물류 중심공항으로 육성하고자 하나, 기존 물류 시스템이 인천공항 중심으로 구축되어, 청주공항의 물류중심공항 육성에 한계 • COVID-19 등 교역국과의 관계 변화에 따른 수출입 영향 - 충북의 경우 교역국이 다양하지 못하고 중국, 미국, 일본 등 몇몇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사드 등 교역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그에 따른 피해가 비교적 큼

I 여건전망

□ 도로화물 물동량 예측

○ 2017년 충청북도의 품목별 도로화물 물동량은 66,307천 톤으로 5년 뒤인 2022년 70,592천 톤, 10년 뒤인 2027년 75,422천 톤으로 1.3%의 증감률을 나타낼 것임

〈표 III-2-16〉 충북 대분류 품목별 도로화물 예측

(단위 : 천 톤/년)

구분		2017년	2022년	2027년	증감율
농림수축산업	1.농림수축산품	2,365	2,507	2,657	1.2%
광업	2.광산품	14,030	16,242	18,803	3.0%
제조업	3.금속기계공업품	8,643	9,950	11,464	2.9%
	4.화학공업품	30,492	30,545	30,655	0.1%
	5.경공업품	5,659	5,771	5,886	0.4%
	6.잡공업품	1,017	1,025	1,035	0.2%
	7.기타	172	171	169	-0.2%
도매업		2,111	2,254	2,408	1.3%
컨테이너		1,819	2,127	2,345	2.6%
합계		66,307	70,592	75,422	1.3%

주 : 도로화물 물동량은 발생량 기준이며, 본 계획의 목표연도에 맞게 보정한 결과임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16년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2016.12

□ 철도화물 물동량 예측

○ 2017년 충청북도의 철도화물 물동량은 12,960천 톤으로 5년 뒤인 2022년 13,651천 톤으로, 10년 뒤인 2027년 14,560천 톤의 물동량이 예측되며 1.2%의 증감률을 나타낼 것임

〈표 III-2-17〉 충북 철도화물 물동량 예측

(단위 : 천 톤/년)

구분	2017년	2022년	2027년	증감률
컨테이너	130	144	156	1.8%
비컨테이너	12,830	13,508	14,405	1.2%
계	12,960	13,651	14,560	1.2%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16년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2016.12



□ 항공화물 물동량 예측

- 2017년 충청북도의 항공화물 물동량은 7,717톤으로 5년 뒤인 2022년 10,204톤, 10년 뒤인 2027년에 12,408톤의 물동량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증감률은 4.9%를 나타낼 것임

〈표 III-2-18〉 충북 항공화물 물동량 예측

(단위 : 톤/년)

구분	2017년	2022년	2027년	증감율
물동량	7,717	10,204	12,408	4.9%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16년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2016.12

□ 내륙권 물류거점 가능성 진단

- 충주 금가신호장 인근 반경 50km 이내에는 충북(충주, 제천,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경기(여주, 이천, 강원(원주) 등 10개 시군이 위치하고 있음
- 해당 지역의 산업여건을 분석한 결과, 경제규모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장되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GRDP : 47.7조 원, 2000년 대비 3.2배(전국은 2.6배) 증가
 - 사업체 수 : 109,359개, 2006년 대비 1.32배(전국은 1.25배) 증가
 - 산업단지 수 : 109개, 2008년 대비 1.8배(전국은 1.6배) 증가
- 전국 대비 점유율과 특화도가 모두 높은 핵심 기반 산업군들은 육상 및 철도물류를 필요로 하는 업종이 대다수인 것으로 분석됨
- 핵심 기반 산업군 : 금속광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임업, 농업, 음료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 광업, 식료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소매업 등
 -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을 살펴본 결과, 비금속광물이 10.3%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음식료품(9.1%), 목재·나무·가구(7.6%), 펄프·종이·인쇄·출판(7.5%),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산업은 대부분 해당 지역의 핵심 기반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임

〈표 III-2-19〉 2018년 업종별 매출액 대비 물류비

(단위 : %)

구분	매출액 대비 물류비	구분	매출액 대비 물류비
제조업	6.3	비금속광물	10.3
도소매업	7.8	제1차광물	4.9
음식료품	9.1	금속가공	5.9
담배제조	1.2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	3.7
섬유·의복	4.4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7.1
가죽·가방·마구·신발	6.2	전자장비	8.0
목재·나무·가구	7.6	기타기계·장비제조	4.5
펄프·종이·인쇄·출판	7.5	자동차·트레일러·운송장비	5.5
코크스·석유·석탄	4.9	기타제품제조	4.8
화합물·화학·고무·플라스틱	5.9	도매·상품중개업	7.8

자료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매출액 대비 물류비, 2018

- 따라서 중부내륙권 소재 기업의 가격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중부내륙권 물류기지 구축을 통한 물류비 절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추진과제

□ 교통수단 간, 도로위계 간 효율적인 교통망 확충

-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물류 네트워크를 위한 교통망 시설의 확충
 - 육상, 항공의 교통수단 간 연계 계획 등
- 대륙횡단철도 운영과 연계한 도내 국제물류 거점 필요
 - 강호축 고속철도망 완성, 남북 간 경협으로 한반도 철도망 및 대륙횡단철도 연결
- 중앙선 복선화 사업을 통한 중앙선의 물류기능 강화를 통한 북부권 내륙물류거점 육성
 - 신산업지대로 부상하는 중북부권의 물류거점 기능 구축

□ 물류시설 확충 및 고부가가치 물류기능 강화

- 국내외 사례와 물류환경 변화를 반영한 지역별 물류 인프라 조성 및 공항시설, 배후단지 개발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포스트 코로나 19로 인한 한국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비대면 산업인 첨단 물류시설 확충에 따른 첨단 물류기지 구축 필요
 - 4차산업 기반의 첨단물류운송관리 체계가 갖춘 신개념의 국가물류기지 건설
 -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형 물류산업 육성 및 강호축 개발 계획과 연계 필요
- 지역별, 품목별 수요와 공급에 적합한 물류 인프라 공급
 - 단순 보관 및 수송 업무에서 물류 인프라의 복합화, 집적화, 다양화를 반영한 물류단지 조성 등
 - 스마트 로봇활용 미래형 물류센터 조성

□ 고효율 친환경 물류체계 강화

- 물류 서비스의 강화 및 환경친화적인 물류 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물류 시스템 구성
 - 물류시설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녹색물류 실현을 위한 정책 실현 및 고급 물류인력 양성
 - 기존 물류 유통단지의 스마트 물류단지로 전환 사업 추진
- 지역 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영차고지 조성 등 생활밀착형 도시물류 성장기반 확충
 - 도내 콜드체인 조성, 공항 배후단지 조성 벌크화물 야적시설 입체화를 통해 물류기반 확충
 - 소음 및 매연, 교통 불편 해소, 도시환경 쾌적화를 위한 도시물류 기반 조성 및 기능 강화

□ 지속 가능한 물류경쟁력 강화

- 물류공동화, 공항 물류배후단지의 지속 가능한 물류, 물류정보화와 물류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을 통해 친환경적인 물류체계와 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강화
 - 4PL 지능형 물류 플랫폼 구축
- 국가기간교통망 확충에 따른 중북부권의 산업 및 기업의 입지여건 개선과 연계한 물류경쟁력 강화
 - 중북부권 물류량 증가 대비 물류 기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 도모

□ 청주국제공항 활용 국제물류 활성화

-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교두보 마련
 - 스마트 기반 국가내륙권 물류기지 추진
- 다양한 수송교통망을 활용한 항공과의 연계 구축
 - 저비용항공사 급신장에 따른 항공수요 증가, 첨단기술기반의 스마트공항으로 고도화되어 서비스 편의 향상 전망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수송교통망 연계를 위한 환승체계 구축, 인입선 확충 등 물류네트워크 구축

〈표 III-2-20〉 지속가능한 ICT 기반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사업

전략명	과제명	단기 (20~25)	중기 (26~30)	장기 (31~40)	비고
지속가능한 ICT 기반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1. 스마트 기반 국가내륙권 물류기지 추진				
	2. 언택트 시대에 대응 드론배송체계 구축				
	3. 스마트 로봇활용 미래형 물류센터 조성				
	4. 4PL 지능형 물류 플랫폼 구축				
	5. 오송물류복합단지 조성				

〈표 III-2-21〉 지속가능한 ICT 기반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시군계획지침

※ 시·군 계획지침

- 시·군은 지속 가능한 ICT 물류 기반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하여 상위계획의 물류계획 및 유통단지 계획에서 제시한 권역계획에서 제시한 범위 내에서 유형 및 시설 규모를 반영하여 추진한다.
- 국도변의 무질서한 유통시설의 입지 결정에 대해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시설 입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 간 협의체계를 구축한다.



제2절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기능강화를 위한 국가교통의 중심지역 육성

1) 현황 및 문제점

I 현황

□ 도로시설

○ 충청북도의 도로등급별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으로 고속국도 7개 노선에 388,406m, 일반국도 13개 노선에 972,058m, 지방도 45개 노선에 1,446,293m, 시군도 284개 노선에 4,143,214m가 운영되고 있음

○ 특히, 고속국도는 남북축 6개 노선의 4개 노선이 충청북도를 경유하고 있음

〈표 III-2-22〉 충북 도로별 연장 현황

(단위 : m)

도로등급		노선수	총연장	미포장도	미개통도
고속국도		7	388,406	-	-
일반국도		13	972,058	-	-
지방도	소계	45	1,446,293	27,835	37,920
	국지도	7	284,484	-	34,420
	지방도	38	1,161,809	27,835	3,500
시군도	소계	284	4,143,214	509,752	472,072
	시도	33	1,537,827	2,515	163,315
	군도	251	2,605,387	507,237	308,757
계		349	6,949,971	537,587	509,992

○ 차로별 비율은 1차로 4%, 2차로 67%, 4차로 24%, 6차로 이상 4%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군도의 2차로 이하 비율은 86%에 달하고 있음

〈표 III-2-23〉 충북 도로별 차로수 현황

(단위 : m)

도로등급		총연장	1차로	2차로	4차로	6차로 이상
고속국도		388,406			313,876	74,530
일반국도		972,058		312,945	650,132	8,981
지방도	소계	1,380,538	4,810	1,177,136	173,632	24,960
	국지도	250,064	-	171,770	76,534	1,760
	지방도	1,130,474	4,810	1,005,366	97,098	23,200
시군도	소계	3,161,390	256,908	2,471,309	301,852	131,321
	시도	1,371,997	179,071	798,577	263,028	131,321
	군도	1,789,393	77,837	1,672,732	38,824	-
계		5,902,392	261,718	3,961,390	1,439,492	239,792

○ 미포장 비율은 지방도 2.0%, 시군도 13.9%이며, 미개통 비율은 국가지원지방도 12.1%, 지방도 0.3%, 시군도 11.4%를 나타냄

〈표 III-2-24〉 충청북도 도로별 포장현황

(단위 : m)

도로등급	총연장	포장비율(%)		
		포장유무		미개통
		포장	비포장	
고속국도	388,406	100.0		
일반국도	972,058	100.0		
지방도	소계	1,446,293	98.0	2.0
	국지도	284,484	100.0	-
	지방도	1,161,809	97.6	2.4
시군도	소계	4,143,214	86.1	13.9
	시도	1,537,827	99.8	0.2
	군도	2,605,387	77.9	22.1
계	6,949,971	91.7	8.3	7.3

자료 : 충청북도 도로현황조사, 2019

□ 자동차 보유대 수

○ 충청북도의 자동차 등록대수에 대한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는 2020년부터 증가 추이는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지만 이러한 추세는 1가구 2~3차량의 보편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당분간 완만한 증가 추이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됨

〈표 III-2-25〉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

(단위 : 년, 만 대)

구분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추이			
	1980	1990	2000	2010	2019	80~90	90~00	00~10	10~19
합계	53	339	1,206	1,794	2,368	44.7	7.0	2.0	1.3
서울	21	119	244	298	312				
부산	6	29	81	115	140				
대구	-	-	69	95	119				
인천	-	15	65	93	164				
광주	-	8	34	52	68				
대전	-	9	38	57	67				
울산	-	-	29	44	57				
세종	-	-	-	-	16				
경기	6	45	249	419	577				
강원	1	9	42	61	78				
충북	1	8	39	62	84	84.0	10.5	2.2	1.4
충남	3	10	49	83	112				
전북	2	10	48	71	93				
전남	3	10	47	71	106				
경북	6	17	75	111	145				
경남	3	25	80	138	172				
제주	1	4	16	25	60				

자료 : 국가 통계자료, 2020



□ 교통사고

- 충청북도의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사고건수는 전국사고 건수의 4.15%이고, 인구 10만 명당 사고건수는 전국평균의 1.32배, 자동차 1만대당 발생건수는 전국 평균의 1.10배에 해당함
- 한편, 도로 1km당 사고 발생 수는 전국평균 0.66배 수준이지만 이는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

〈표 III-2-26〉 교통사고 현황

구분	전체 사고 건수	인구 10만 명당 발생 건수	자동차 1만 대당 발생 건수	도로 1km당 발생 수
전국	229,600	444.0	83.5	2.1
서울	39,258	406.3	108.6	4.7
부산	12,992	385.2	83.8	3.8
대구	14,536	597.6	108.0	5.0
인천	8,698	295.4	49.8	2.5
광주	8,169	546.9	111.2	4.4
대전	8,337	552.6	115.4	3.9
울산	4,347	379.1	66.8	2.0
세종	922	278.4	50.2	2.3
경기	55,463	419.0	87.1	4.0
강원	7,554	498.1	80.2	0.8
충북	9,538	586.7	92.6	1.4
	(4.15%)	(1.32배)	(1.10배)	(0.66배)
충남	9,404	429.8	65.8	1.3
전북	7,615	422.3	65.0	0.9
전남	10,877	613.5	78.9	1.0
경북	14,648	549.7	76.8	1.1
경남	12,830	383.0	61.9	1.0
제주	4,412	669.0	67.1	1.4

자료 : 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2018

I 문제점

□ 국가 교통체계의 문제점

- 남북방향 국가 간선도로 6개 노선에서 4개 노선(66%)이 충청북도를 경유하고, 교통량이 가장 많은 2개 노선이 충청북도 서측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임
- 남북방향 국가 간선도로의 간격이 불균형하다는 것임(서측은 공간 간격이 매우 좁은 반면, 동측은 매우 넓은 공간을 가짐)



〈그림 III-2- 5〉 국가교통체계 개요

□ 지역 교통체계의 문제점

- 국가지원지방도의 12.1%, 시군도의 11.4%가 미개통 구간으로 남아있다는 것임
- 미개통 구간은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을 상회하는 충청북도의 내부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입지적 문제점

- 북측은 동서축에 비하여 고속국도, 일반국도 중심의 노선 수는 많지만 충청북도 행정구역의 특성 즉, 남북이 130km로 긴 반면, 동서축은 27km ~ 100km로 짧은 특성으로 북부권(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과 남부권(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은 사실상 사회·경제적으로 단절상태

□ 도로 안정성에 대한 문제점

- 인구 10만 명당 발생 건수, 자동차 1만 대당 발생 건수에서 알 수 있듯이 전국평균 사고 건수에 비하여 높은 사고 건수를 나타냄
 - 이러한 현상은 운전자의 교통안전의식과 더불어 도로시설상태가 교통안전에 미흡하다는 것을 반증함

2) 여건분석 및 전망

I SWOT 분석

- 행정중심복합도시 입지로 확장되는 대전·세종권역으로 교통 중심축 이동과 이로 인하여 대전에 대응하는 사회·경제권을 키워가던 충청북도 청주권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음
- 따라서 대전·세종권의 확장에 반하여 소외되어가는 경북 중·서부권을 포함한 독자적 교통영향권을 구축하여, 미래를 대비함
- 충북도의 녹색물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물류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화물의 철도화물 전환을 유도하고, 청주역 물류중심역 육성정책을 추진하여 CY 등 기존 철도 물류시설 활용으로 지역 내 철도 물류 활성화
- 충주첨단산업단지, 기업도시 등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공동물류 기능을 활성화하고, 물류 스타트업 등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여 충북도의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표 III-2-27〉 SWOT 분석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방향 국가 교통체계의 중심에 입지(도로, 철도)하여 전국 어느 곳에서나 최단거리 접근 가능 수도권과 접해있어, 배후 물류기능 최적지 국가 행정의 중심 세종시 연계 가능 중부권 거점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의 잠재력 청정한 자연환경·수려한 관광자원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종시 입지로 대전권의 영향권 확대 상대적인 입지 경쟁력 축소 개발규제지역 산재에 따른 제약 내륙지역으로 수출입 항만과 이격 충북 내 물류산업의 취약성 및 녹색물류 대응력 부족 청주공항의 항공화물 기반 부족 특정 대기업 수출 주도, 중소기업 물류비 증가
기회(O) ⇒ 포착	위협(T) ⇒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향권 확장지역과 축소지역의 중간 위치 영향권 축소지역에서 가장 큰 사회·경제권 형성 청주화물터미널에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사업 지정 청주국제공항 및 KTX 오송역 등 교통물류거점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활성화 노력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사업 연계 평택당진항~청주국제공항 연계 바이오, 반도체, 태양광 등 항공물류 적합 화물을 생산하는 사업 선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종·대전권으로의 사회·경제권 흡수 이러한 현상은 세종에서울 고속도로 완공 이후 가속 예상 철도공사의 철도화물 거점화 정책에 따른 지역 내 기확보된 물류시설 유휴화 사드 등 교역국과의 관계 변화에 따른 수출입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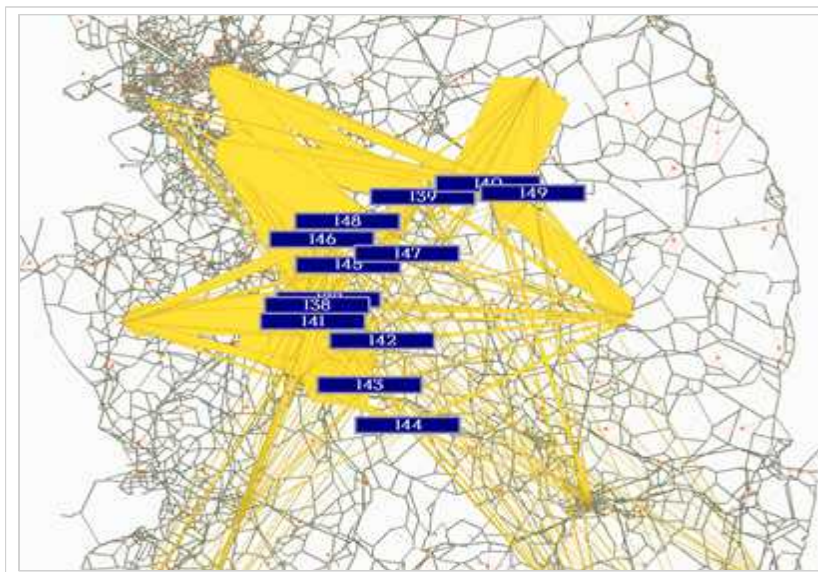
I 여건전망

□ 광역교통체계의 변화

- 충청북도(청주시) 서측 외곽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입지함에 따라 사회·경제 중심축이 충청북도 서측으로 이동되고 있음
- 세종~서울 고속도로의 건설이 완료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될 것임

□ 충청북도의 통행패턴

- 충청북도의 O/D를 토대로 분석한 희망 선도에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충청북도 장래 희망 선도는 초승달 모양의 충청북도 지형적 특성을 반영하여, 국도 36호선(충청내륙고속화도로)을 따라 내부교통의 움직임이 큼
- 중부지역은 충남지역과의 통행이 크게 나타남
- 남부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보다는 분산되는 교통행태를 보이고, 통행량은 경상북도 통행량이 다른 지역보다 큰 것에 비하여 도로시설은 열악함
- 북부지역은 제천, 충주를 중심으로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제천~평창)을 이용한 강원도 해안 지역과 경북지역과의 통행이 크게 나타나고, 남부지역도 경북지역과의 통행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북부지역의 제천시, 단양군, 괴산군의 경북 방향 통행량은 각각 19.12%, 27.15%, 19.04로 나타나고, 남부지역의 보은군과 영동군의 경북 방향 통행량은 각각 10.67%, 18.67%로 나타남



존번호	지역
137, 138, 141	청주시
139	충주시
140	제천시
141	청원군
142	보은군
143	옥천군
144	영동군
145	증평군
146	진천군
147	괴산군
148	음성군
149	단양군

자료 : 충청북도, 제3차 충청북도 도로건설관리계획, 2015

〈그림 III-2- 6〉 충청북도 희망 선도 분석

- 따라서 남북방향의 교통체계를 강화하고, 경상북도를 포함하는 광역 교통체계구축에 비중을 두고 계획을 수립함
- 개별 노선으로는 강원도 해양지역을 최단 거리로 연계하는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제천~평창)과 증평~합천 간 고속도로(신설) 건설을 검토함
- 향후 충청북도가 세종시를 포함한 대전권에 버금가는 독자적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선 강원권과 경북권을 포용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러한 교통체계는 충청북도를 교통 결절지로 하여야 하는 연접한 광역권의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임

□ 내륙첨단산업벨트로 국토 균형발전 도모

- 국토의 X축 완성으로 교통 중심기능 수행 및 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되고, 국가 미래전략산업의 신성장지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됨

□ 산업분야 지표 예측에 따른 성장가능성

- 충북의 2040년 지표는 대체적으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기업체 유치와 수출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전체 GRDP가 12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1인당 GRDP 또한 2010년 2,014만 원에서 2020년 4,009만 원으로 99%에 가까운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투자유치, 기업체 유치, 농가소득 등 지역 경쟁력 관련 지표도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표 III-2-28〉 충청북도 장기발전 주요 지표

분야	지표	년도		
		2010	2015	2020
경제	GRDP(10억 원)	31,682	46,876	69,356
	1인당 GRDP(만 원)	2,014	2,875	4,009
	공장용지(km ²)	57.78	69.01	80.22
	투자유치(조 원)	2	22	37
	수출(억 달러)	100	150	225
	기업체수	6,680	7,480	8,378
	대기업	47	62	83
	중소기업	6,633	7,464	8,295
	취업자수(천 명)	735	792	854
농업	농가소득(만 원)	3,293	3,876	4,562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개소)	5,641	6,500	8,000
국제통상	외국인투자업체(개사)	172	222	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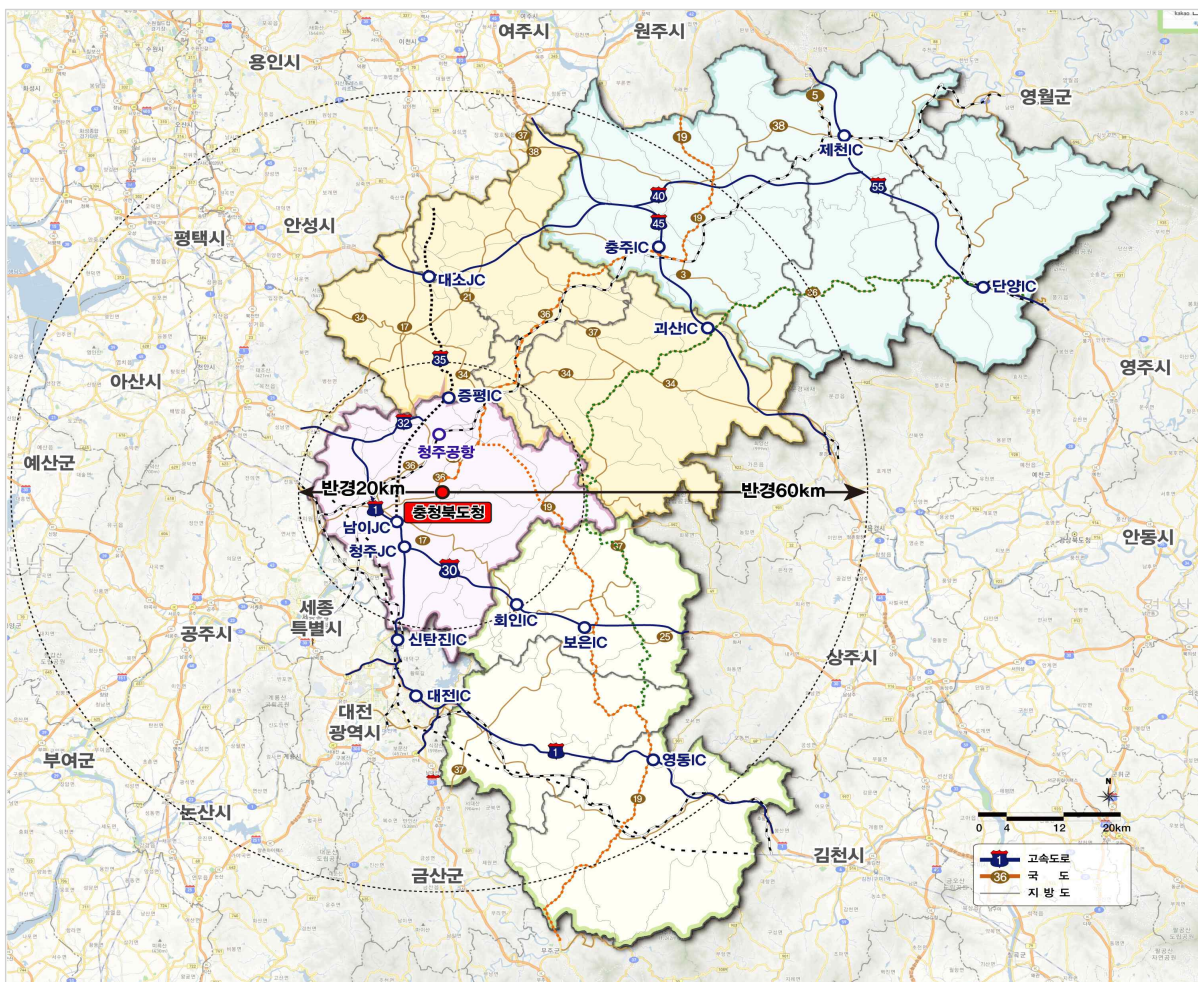
자료 :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2차 수정계획(2011-2020)

3) 추진과제

□ 외부 광역도로 교통계획

○ 충청북도 중심의 광역적 교통인프라를 구축

- 세종·대전권 중심으로 재편되는 광역교통체계 구축에 대응하여 강원과 경북을 포함한 독자적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여 명실상부한 포용하는 강호축으로서의 교통체계 구축
- 세종·대전권에 편입되지 않는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독자적인 사회·경제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교통기반시설 제공
- 광역적 교통인프라는 충청북도 도청을 중심으로 서측은 반경 20km, 동측은 반경 60km 설정



〈그림 III-2- 7〉 충청북도 중심의 광역적 교통인프라 구축 개요

- 경부축의 중심으로 성장한 대전권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주어진 집약적 교통체계에서 벗어난 독자적 교통체계를 구현 및 경상북도를 포괄하는 포용적 지역발전을 위한 공간구조 개편
- 순환 도로망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순환 도로망에서 분기하여 강원과 경북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또는 고속화) 건설

○ 충청북도를 교통 결점지로 하는 강원권 연결 간선교통축 구축

- 현재 건설하고 있는 북측 충청내륙고속화도로(청주~제천)와 연계하여 대전·호남권과 강원·동해안권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국가 간선도로망 구축(제천~평창 간 고속화도로 등)

○ 충청북도를 결점지로 하는 경북권 연결 간선교통축 구축

- 증평에서 영동까지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남측 구간으로 대체하고, 이후 구간은 대전~진주 및 중부 내륙고속도로의 공간을 보완하는 증평~합천 간 고속도로 건설

□ 내부 간선도로 교통계획

○ 충청북도 교통체계의 취약점은 남북 길이가 130km에 이르는 행정구역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짧은 통행시간으로 연계할 수 있는 교통시설 미비

- 충청북도의 취약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국토교통부가 충청북도 북부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연계하여 충청북도 최남단까지 연결하는 교통동선 구축

○ 현재 건설하고 있는 북측 충청내륙고속화도로(청주~제천)에 대응하는 남측 고속화도로를 건설하여 충청북도 남북 간선교통체계 완성

- 충청북도 내부순환망의 서측도로로서 현재 도로용량을 초과함에 따라 용량 제고를 위한 확장사업 마련 및 추진

○ 남북방향의 중심축으로 건설되고 있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우리도 전역(남북방향)으로 연계하는 교통축 확대

- 도로위계 간 연결성 확보를 위한 승격도로 발굴 및 건설사업 추진

□ 내부 집산도로 교통계획

○ 도로의 향후 도로번호체계 개편을 고려한 도로의 방향성과 도 전체 및 지역별 교통체계를 하나의 도로망 체계 구축

□ 백두대간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파크웨이 구축

○ 현존하는 자연자산(국립공원 8개소, 도립공원 5개소, 군립공원 9개소, 자연휴양림 12개소, 관광특구 6개소, 관광단지 7개소)을 이용한 국가적 휴양·관광시설로서의 가치 제고 및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접근 도로망 구축

-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백두대간을 순환하는 국가순환도로망(일주도로)을 조성하여, 국민 쉼터로 체계적인 광역 관광권 구축 및 동북아의 대표적인 관광·경관도로로 발전시켜 충청북도의 관광산업 육성

○ 백두산에서 금강산, 설악산을 거쳐 지리산에 이르는 한반도 중심 산줄기(총길이 약 1,400km)라는 자연자산에 대한 접근 도로망을 구축하여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의 활성화 도모

- 백두대간 국가순환도로망의 조성 및 경관도로 운영

○ 백두대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성(환경영향평가 등) 고려



□ 자율기반형 도로체계구축

- 도로 건설 및 정비는 자율주행차의 자율주행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기능으로 전환
- 자율주행차량의 상용화 등 도로의 환경이 급속히 변화될 것으로 예측
 -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스마트 도로망 구축
 - 지능형 도로 관리 통합체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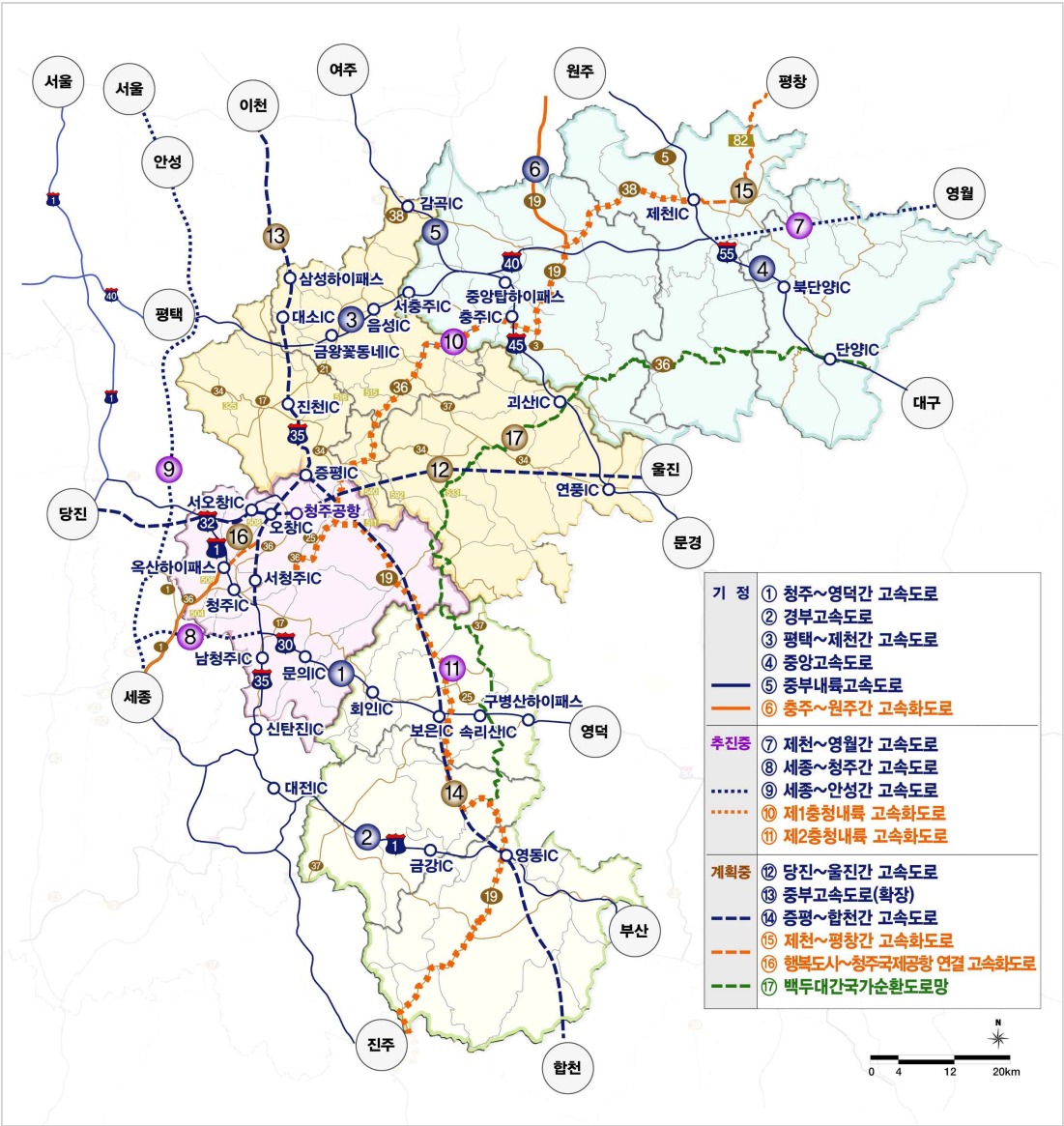
□ 충청북도 내부순환 및 격자도로망 구축

- 수도권 방향 중심으로 구축된 국가 간선도로에 의지하여 교통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충청북도 내부 도시에서 도시의 이동에 긴 통행시간을 필요로 하고, 경로 선택에 불편이 있는 내부도로의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부순환 및 격자 도로망 구축
- 충청북도 내부순환 및 격자 도로망 구축을 위한 사업개요는 아래와 같으며, 고속도로의 주요 사업은 도로의 연결체계 구축을 위한 교차로 개설 및 정비이고, 일반국도는 자동차전용도로 수준으로 도로 시설상태 개량

〈표 III-2-29〉 도로망 구축 사업개요

구분	노선명	차로수	연장(km)	운영상태	검토
고속국도 (6개 개선)	중부	4차로	291.8	운영 중	기존시설 이용 (장기적으로 다른 국도 도로망과의 연계성 개선)
	중부내륙				
	청원~상주				
	대전~통영				
	경부	6차로 이상	100.2		
일반국도 (5개 노선)	음성~충주	4차로	32.8		4차로 확장/정비 도로 주변 정비 4차로 확장/정비 4차로 확장/정비 도로 주변 정비
	19	2차로	33.9		
		4차로	77.4		
	25	2차로	13.4		
	36	2차로	46.5		
	38	4차로	28.3		
	34	4차로	21.1		
지방도 (2개 노선)	505	2차로	14.8		국도19호선 사업과 연계추진
	511	2차로	20.7		국지도 승격(4차로 확장)검토

- 내부 도로망에서 중요한 축을 이루는 중부 고속국도는 현재 용량 도달상태로 확장



〈그림 III-2- 8〉 충청북도 도로구축계획

〈표 III-2-30〉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기능강화를 위한 국가교통의 중심지역 육성을 위한 추진사업

전 략 명	과 제 명	단기 (20~25)	중기 (26~30)	장기 (31~40)	비고
행정중심복합 도시권 기능강화를 위한 국가교통의 중심지역 육성	1. 제천~영월간 고속도로				고속 도로
	2.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3. 세종~안성간 고속도로				
	4. 당진~울진(오창-괴산)고속도로				
	5. (경북권 연결도로) 증평~합천 고속도로				
	6. 무주~영동~보은간 고속도로 건설				
	7. 보령~대전~보은 간 고속도로 건설				
	8. 중부고속도로 확장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2021-2040)

전 략 명	과 제 명	단기 (20~25)	중기 (26~30)	장기 (31~40)	비고
	9. 제1충청내륙고속화도로 신설				고속화
	10.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신설				
	11. 제천~평창 간 고속화도로				
	12.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 고속화도로				
	13. 백두대간 국가순환도로망 구축				
	14. 오창 지하차도				국도
	15. 고은~상당 국도 6차로 확장				
	16. 미원 단구간 도로 확/포장공사(위임 국도)				
	17. 영동~보은 국도 2차로 개량				
	18. 영동~용산 국도 4차로 확장				
	19. 입장~진천 국도 2차로 개량				
	20. 동면~진천 국도 4차로 확장				
	21. 진천 백곡~진천 국도 2차로 개량				
	22. 괴산~감물 국도 2차로 신설				
	23. 괴산~음성 국도 4차로 확장				
	24. 감곡IC~이천 진암교차로 국도(38호) 도로개설사업				
	25. 단양~영월 국도 2차로 개량				
	26. 용곡~미원2 지방도 확포장공사				지방도
	27. 대율~증평IC 지방도 확포장공사				
	28. 신촌~오산 지방도 확포장공사				
	29. 현암~지산 지방도 확포장공사				
	30. 충주 조동도로 개량공사				
	31. 제천 수산~청풍 국지도 2차로 개량				
	32. 황석~월굴 지방도 확포장공사				
	33. 매화~동이 도로확포장공사				
	34. 영동 양산~양강 국지도 2차로 개량				
	35. 영동 상촌 둔전~상도대 국지도 2차로 개량				
	36. 초정~증평간 지방도 확포장공사(2구간)				
	37. 국지도49호선(음성~신니) 2차로 시설개량 사업				
	38. 대소~삼성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 2단계 구간 시행				
	39. 금왕~삼성 지방도 확포장공사				

〈표 Ⅲ-2-31〉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기능강화를 위한 국가교통의 중심지역 육성을 위한 시군계획지침

※ 시·군 계획지침

- 시·군은 미래형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급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맞춤형 교통수단인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보급 및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최적의 방안을 제시한다.
- 시군은 자율기반의 교통체계 운영방안 등에 대비하여 자율기반의 도로운영체계를 강구하며, 인접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 시·군은 교통인프라 신설이나 개량 시 새로운 기술의 적용가능성을 적극 검토한다.

제3절 ▶ 글로벌 국토를 지향하는 철도 및 항공체계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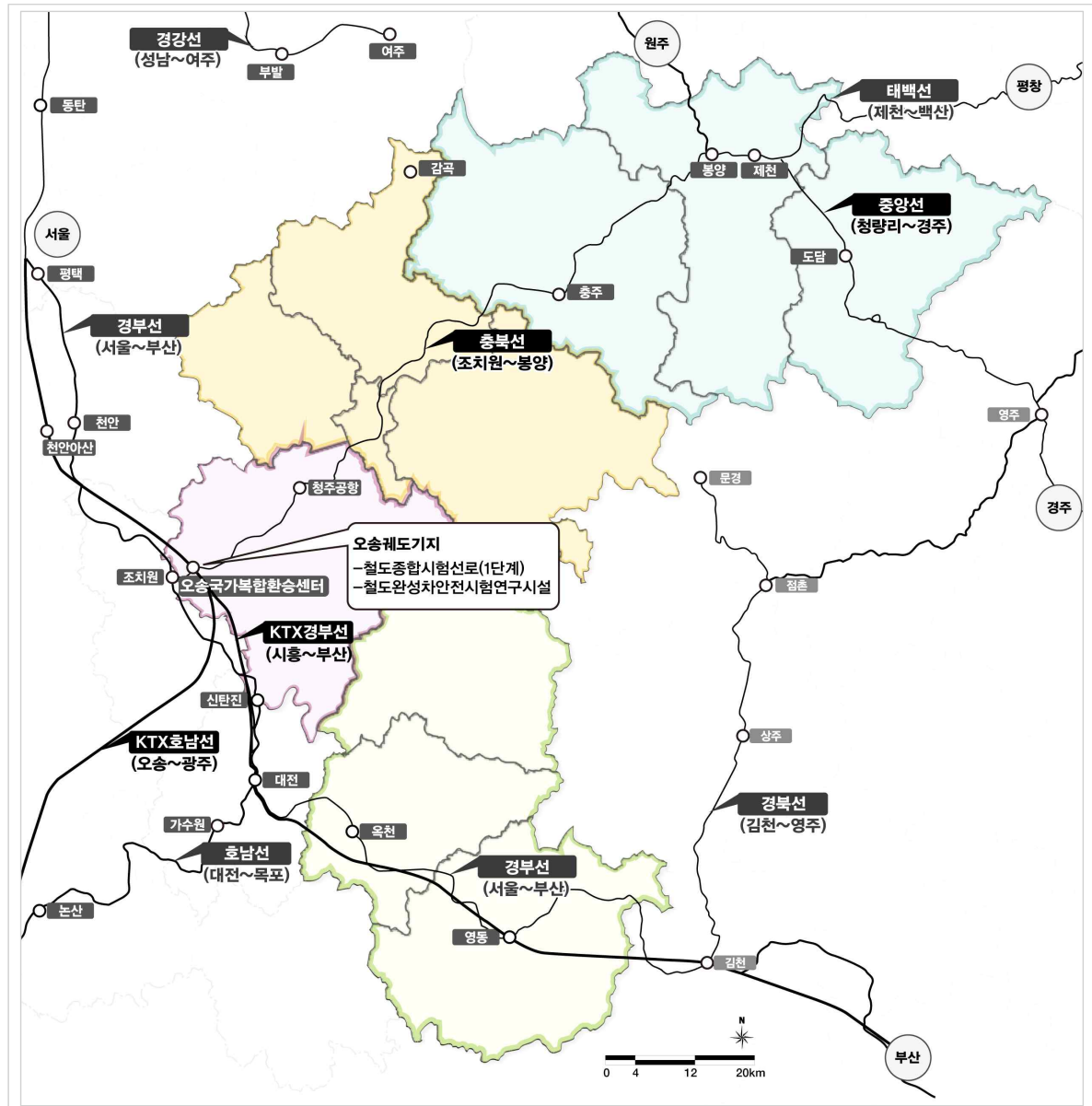
□ 철도시설

-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충북은 2개의 고속철도 노선과 4개의 일반철도 노선이 통과하고 있으며 현재 건설 중인 중부내륙선은 ‘21 이천~충주, ‘23 충주~문경 개통 예정이고 중앙선은 복선전철화로 ‘21년 원주~제천, ‘22년 도담~영천 개통 예정임
-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의 분기역인 오송역을 보유하고 있음
- 대부분 노선은 수도권과 지방 지역을 연결하기 위해 충북지역을 관통하는 성격을 띠고 있으며, 충북선(조치원~봉양)만이 도내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함

〈표 III-2-32〉 충청북도 철도노선 현황

구분	노선	전체구간			충북구간			최초개통	선로 최고속도
		기점	종점	연장	기점	종점	연장		
고속철도	경부고속선	시흥	부산	398.2	오송	영동매곡	73.8	시흥~칠곡 (2004년) 동대구~부산 (2010년)	305km/h
	호남고속선	오송	광주송정	183.8	오송	청주강내	8.1	2015년	305km/h
일반철도	경부선	서울	부산	441.7	오송	영동추풍령	56.8	1905년	140km/h
	중앙선	청량리	경주	373.8	제천봉양	단양죽령	43.6	1942년	140km/h
	충북선	조치원	봉양	115	오송	제천봉양	113	1959년	120km/h
	태백선	제천	백산	104.1	제천	제천송학	14.7	1957년	150km/h

자료 : 국토교통부, 철도통계연보, 2018



자료 : 충청북도 내부자료

〈그림 III-2- 9〉 충청북도 철도노선 현황

○ 2017년 기준 충청북도에는 총 35개의 철도역이 운영 중인 것으로 집계됨

- 이들 중 도안역, 보천역, 소이역, 달천역, 목행역, 동량역, 공전역, 봉양역(이상 충북선)과 제천조차장역, 고명역, 삼곡역, 도담역, 단성역, 죽령역(이상 중앙선), 그리고 입석리역(태백선) 등 16개역은 현재 여객취급이 중단되었음
- 중앙선 단성역과 죽령역은 현재 여객 및 화물수송이 없으며, 2022년 도담~영천 간 중앙선 복선화 사업이 완료되면 폐역 예정임

〈표 Ⅲ-2-33〉 충청북도 시·군별 철도역 현황

구분	노선	철도역
전국	-	693개
충청북도	-	34개
청주시	충북선, 경부고속선	청주역, 오근장역, 오송역(충/경), 청주공항역
충주시	충북선	주덕역, 달천역, 충주역, 목행역, 동량역, 삼탄역
제천시	충북선, 중앙선, 태백선	공전역(충), 봉양역(충), 제천조차장역(충), 제천역(충), 고명역(충), 입석리역(태)
옥천군	경부선	옥천역, 이원역, 지탄역
영동군	경부선	심천역, 각계역, 영동역, 황간역, 추풍령역
증평군	충북선	증평역, 도안역
음성군	충북선	음성역, 소이역, 보천역
단양군	중앙선	삼곡역, 도담역, 단양역, 단성역, 죽령역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9



자료 :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정보센터 홈페이지

〈그림 Ⅲ-2-10〉 충청북도 철도노선 및 철도역 지점도

□ 철도이용

○ 2018년 기준 충북 도내 철도여객 이용인원은 연간 총 1,116만 명, 철도물류 이용현황은 연간 약 1,338만 톤으로 집계됨



- 철도여객 이용객의 절반에 해당하는 599만명이 KTX 오송역을 이용하며, 최근 5년 연평균 이용객 증가율 28%로 전국 최고 수준임
- 철도물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도담역(단양군)이 680만톤으로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입석리역(제천시) 457만톤, 청주역 58만톤 순으로 집계됨

〈표 III-2-34〉 충청북도 철도역별 여객·화물 수송현황(2018년 기준)

(단위 : 명, 톤)

구 분		여객			화물		
		승차인원	하차인원	합계	발송톤수	도착톤수	합계
총 계		5,617,624	5,540,206	11,157,830	10,485,873	2,893,713	13,379,586
경부선	옥천역	222,931	225,676	448,607	5,503	9,042	14,545
	이원역	15,094	12,886	27,980	-	750	750
	지탄역	949	481	1,430	-	-	-
	심천역	8,422	8,115	16,537	65,500	22,905	88,405
	각계역	405	8	413	-	-	-
	영동역	616,938	626,497	1,243,435	-	-	-
	황간역	40,660	39,549	80,209	-	-	-
	추풍령역	16,062	16,090	32,692	-	-	-
충북선	오송역	3,046,290	2,944,775	5,991,065	20,812	14,793	35,605
	청주역	133,083	142,595	275,678	-	582,483	582,483
	오근장역	150,200	145,870	296,070	-	30,064	30,064
	청주공항역	39,012	47,637	86,649	-	-	-
	증평역	108,310	105,323	213,633	-	837	837
	도안역	-	-	-	59	186,597	186,656
	음성역	69,259	72,473	141,732	-	391,842	391,842
	소이역	-	-	-	-	-	-
	보천역	-	-	-	-	-	-
	주덕역	29,839	40,914	80,753	-	2,409	2,409
	달천역	-	-	-	-	-	-
	충주역	297,911	292,719	590,630	1,489	15,444	16,933
	목행역	-	-	-	-	-	-
	동량역	-	-	-	-	45,031	45,031
	삼탄역	6,818	7,199	14,017	-	639	639
	공전역	-	-	-	-	-	-
	봉양역	-	-	-	258	16,095	16,353
	조차장역	-	-	-	4,580	16,294	20,874
	제천역	711,003	715,546	1,426,549	3,867	5,467	9,334
	고명역	-	-	-	341,087	47,884	388,971
중앙선	삼곡역	-	-	-	123,500	51,679	175,179
	도담역	-	-	-	5,721,355	1,079,350	6,800,705
	단양역	93,898	95,853	189,753	-	-	-
	단성역	-	-	-	-	600	600
	죽령역	-	-	-	-	-	-
	입석리역	-	-	-	-	-	-
태백선	입석리역	-	-	-	4,197,863	373,508	4,571,371

주 : 오송역은 KTX 오송역 여객실적 포함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9

□ 청주국제공항 운영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청주국제공항(1997년 개항)은 중부권 내 국내선 수요 및 중거리 국제선 수요를 처리하는 중부권 거점공항이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관문공항임

〈표 III-2-35〉 청주국제공항 시설현황

시설현황		수용능력	
부지(㎡)	1,909,645	운항횟수(회/년)	140,000
활주로(m)	2,744×60 / 2,744×45	여객(만 명/년)	441
계류장(㎡)	115,243	화물(만 톤/년)	3.75
여객터미널(㎡)	29,926	동시주기(대)	13
화물터미널(㎡)	2,257	동시주차(대)	4,546
주차장(㎡)	125,122	운항항공기	A319, A320, A321, B737
항행안전시설	06L, 24R : ILS(CAT-I) 24L, 6R : PAR(정밀)	최저착륙시정	RVR 730m

자료 : 항공정보포털시스템 홈페이지, 2020

- 2020년 1월 기준 국내선은 5개의 항공사가 1개 노선(청주~제주)을 일평균 38편, 주 평균 266편을 운항 중에 있으며, 국제선의 경우 6개 항공사가 8개 노선을 운항 중인 것으로 집계됨
- 국내선(청주~제주)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 국제선 : 이스타항공(타이페이/타오위안, 대용/장자제, 연길/엔지), 비엠펙항공(나트랑, 다낭), 스카이양 코르항공(씨애티), 사천항공(연대/연타이, 대용/장자제), 중국남방항공(연길/엔지), 제주항공(타이페이/타오위안)
 - 2021년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로K 출범에 따라 청주~제주 노선 취항 예정임
- 1997년 개항 첫해 연간 이용객 약 37만 명을 시작으로, 2015년 연간 이용객 2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2019년 300만 명을 달성하여 명실상부한 중부권 대표공항으로 발돋움하였음

〈표 III-2-36〉 청주국제공항 운행실적

(단위 : 편, 명,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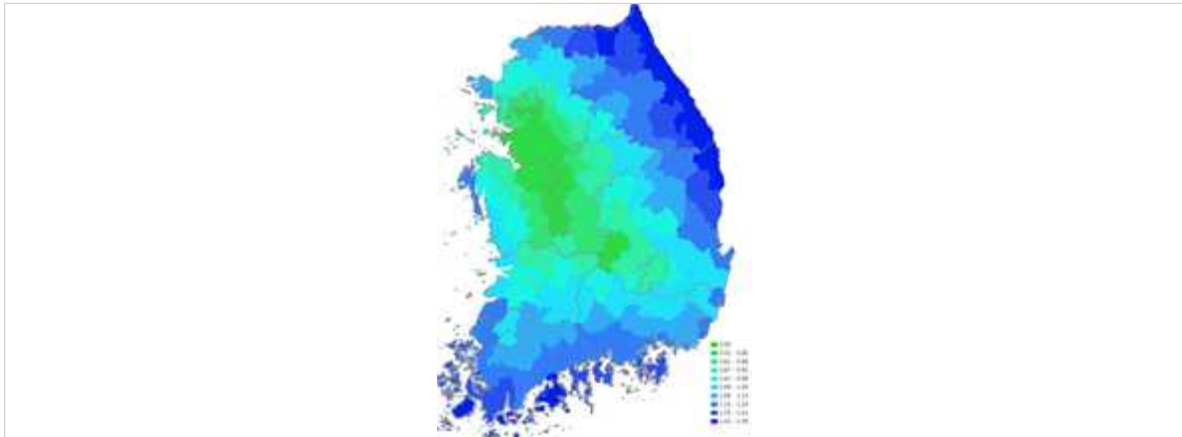
연도	운항			여객			화물		
	도착	출발	계	도착	출발	계	도착	출발	계
2010	4,594	4,591	9,185	652,853	643,989	1,296,842	6,958.4	5,543.1	12,501.5
2011	4,544	4,538	9,082	675,439	662,352	1,337,791	8,783.5	7,395.8	16,179.3
2012	4,579	4,580	9,159	658,896	650,098	1,308,994	8,625.1	7,799.4	16,424.4
2013	4,788	4,791	9,579	693,121	685,483	1,378,604	6,886.8	6,107.4	12,994.2
2014	5,817	5,816	11,633	853,046	849,492	1,702,538	8,268.0	9,490.5	17,758.5
2015	7,077	7,076	14,153	1,055,403	1,063,089	2,118,492	9,450.0	10,351.7	19,801.7
2016	8,731	8,687	17,418	1,367,564	1,365,191	2,732,755	10,843.9	11,419.5	22,263.4
2017	7,912	7,913	15,825	1,283,758	1,287,793	2,571,551	10,233.5	8,979.1	19,212.7
2018	7,843	7,840	15,683	1,227,959	1,225,690	2,453,649	9,301.8	8,684.5	17,986.3
2019	9,326	9,322	18,648	1,505,523	1,503,528	3,009,051	9,851.6	9,066.0	18,917.6

자료 : 항공정보포털시스템 홈페이지, 2020

I 문제점

□ 수도권 집중의 철도 인프라

- 철도에 대한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로 국가교통망의 골격은 형성되었으나, 여전히 선진국 수준의 철도망 공급에는 못 미치는 수준임
 - 국내 철도 총 연장은 5,444km로 일본(7,457km), 프랑스(29,190km), 독일(33,440km), 영국(15,848km)에 비해 스톡 규모가 부족할 뿐 아니라 수송분담률 미약
- 부족한 철도 인프라는 결국 수도권 철도노선 집중과, 수도권으로 향하는(경부축 등) 철도노선이 중복을 관통하는 형태로 형성되는 한계로 연결됨
- 국토 균형발전 및 균형 있는 접근성 개선을 위해 수요기반의 수도권 집중에서 벗어나 포용적 국가 철도망 구축을 위한 기틀 마련이 요구됨



자료 : 국토연구원, 혁신과 포용을 위한 국가교통망 구상 연구, 2019

〈그림 III-2-11〉 전국 주요도시 접근성(도로+KTX 기준)

□ 지역 내 철도 서비스/이동성 불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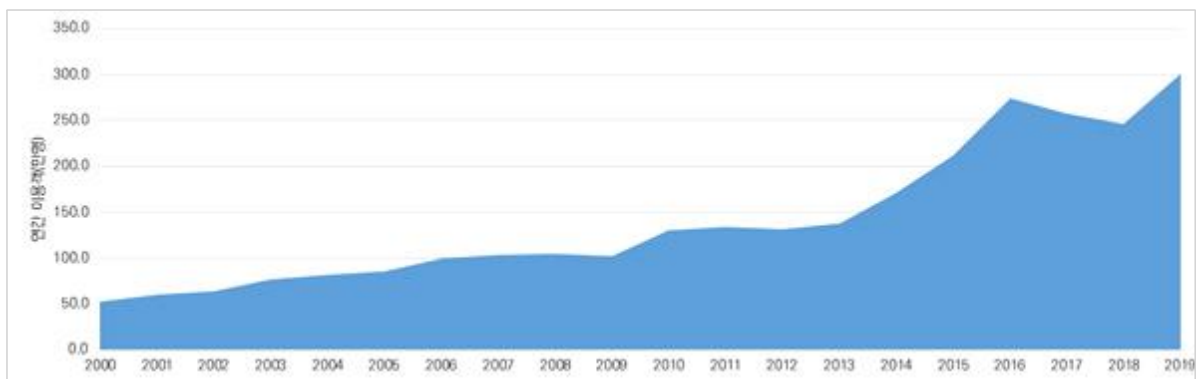
- 충청북도 내 보은군, 진천군, 괴산군 등 철도노선이 존재하지 않아 철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철도 소외지역 존재함
- 고속철도 KTX 오송역을 보유하고 있는 청주시를 제외한 충북 도내 기타 지역의 경우에도 충북선 철도를 제외한 기타 광역 기반의 철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임
 - 사업 진행 중인 증부내륙선 및 중앙선 복선전철 사업이 완료되면 수도권 방면 서비스 개선 기대됨
- 지역 내 서비스 불균형은 철도의 수단분담률 저하로 이어지며, 실제 2017년 기준 충북의 철도부문 수단분담률은 0.2%에 불과함
 - 충북의 수단분담률은 승용차(62.7%), 버스(16.4%), 택시(13.1%), 기타(4.7%), 자전거(2.9%) 순
 - 충청권역 시도별 철도 수단분담률 : 대전광역시(4.0%), 세종시(0.5%), 충남도(0.6%) 순임

□ 대도시권을 담아내는 철도교통 부재

-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에 따라 중부권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기틀이 마련된 가운데, 세종시, 대전광역시 및 청주시를 아우르는 중부권 대도시권 형성을 통한 균형발전의 거점화가 필요함
 - 2020년 1월 기준 대도시권(청주시, 세종시, 대전시) 주민등록인구는 약 265만명으로 집계됨
- 대도시권을 대중교통 기반의 광역생활권으로 운영하기 위한 철도 기반의 인프라 확충노력 필요함

□ 도약을 위한 청주국제공항 시설한계

- 중부권 거점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은 1997년 개항 이후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연간 이용객 300만을 달성하는 성과를 도출함
 - 2011년 100만(11년 소요), 2015년 200만(4년 소요), 2019년 300만(4년 소요)
 - 청주국제공항의 입지적 장점 및 관련한 계획들을 토대로 할 때 장래 이용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청주국제공항의 여객 수용능력은 연간 441만 명/년으로 2019년 수송실적에 근거할 때 터미널활용률은 68.3% 수준으로 판단됨
 - 향후 청주국제공항의 지속적인 도약을 위해서는 수송능력 증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그림 III-2-12〉 청주국제공항 연간 이용객 추이

2) 여건분석 및 전망

Ⅰ SWOT 분석

- 충북은 국가 간선교통망의 결절지로 고속교통망의 핵심인 오송역을 보유하고 있으나 남북축에 비해 열악한 동서축 교통망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
- 하지만, 균형발전 및 다핵화를 중시하는 정책기조와 대북 및 유라시아를 바라보는 더 큰 국토와 함께 열악한 동서축 교통망을 위한 국가 X축 고속교통망의 구축이 예정되어 있음
-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SOC 기반 조성사업으로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수요와 시설의 불일치의 문제 발생 확률이 있음

〈표 III-2-37〉 SWOT 분석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중심!! 국가 간선교통망의 결절지 X자형 고속교통망의 핵심 오송역 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중부권 대도시 형성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교통의 중요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축에 비해 열악한 동서축 교통망 철도서비스 소외지역 발생 인구감소에 따른 수요와 시설의 불일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SOC 사업
기회(O) ⇒ 포착	위협(T) ⇒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균형발전 및 다핵화를 중시하는 정책기조 대북 및 유라시아를 바라보는 더 큰 국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통서비스 다변화 삶의 질 중시에 따른 충북지역 관광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 인구증가 지방지역 인구감소 및 고령화 1등 공항과의 경쟁 심화 제한적인 정책적 의사결정권

Ⅰ 여건 전망

□ 강호축 철도망(충북선 고속화)을 비롯한 철도노선 확충

-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강호축 교통망의 핵심 사업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고 사업에 착수
 -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을 통해 강호축 발전을 위한 X축 국가 고속철도망 구축 기틀 마련
- 이를 포함한 다양한 철도사업이 시행 중에 있어 계획기간 전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 중부내륙선 철도 건설사업의 시공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수도권과 충북 북부지역(충주, 제천)간의 철도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사업 등이 설계 중에 있으며, 사업 완공 시 고속철도 분기역으로써 오송역 위상 강화 및 수도권에서 청주국제공항 접근을 더욱 용이하게 함으로써 공항 활성화에 기여함

- 관련 철도 노선 확충 시 강호축 핵심 교통망 확충뿐 아니라, 충북 및 국토공간을 보다 촘촘히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으로 국토공간의 통합·다핵·개방형 구조 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표 III-2-38〉 충청북도 관련 철도사업 주요 추진현황

구분	사업구간	연장	사업비	현황	비고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청주공항~봉양	84.7km	1조 2,807억원	기본계획중	복선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	평택~오송	46.4km	3조 4,477억원	기본계획중	2복선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사업	천안~청주공항	56.1km	8,216억원	기본설계중	복선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1단계)	계룡~신탄진	35.4km	2,307억원	실시설계중	복선
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이천~충주~문경	94.3km	2조 2,363억원	시공중	단선
중앙선(원주~제천) 복선전철화 사업	원주~제천	44.1km	1조 1,895억원	시공중	복선
중앙선(도담~영천) 복선전철화 사업	도담~영천	148.6km	4조 1,065억원	시공중	복선

자료 : 계획이 확정되어 공사, 설계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 오송역, 청주국제공항 서비스 수요 다양화

- 2019년 통계 기준 오송역 연간 이용객은 862만명, 청주국제공항 연간 이용객은 300만명을 돌파함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균형 발전을 위한 국토공간의 다핵화 정책, 소득 및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삶의 질을 추구하는 문화 변화, 지역의 문화와 관광 활성화 노력 등을 감안할 때 이들 시설에 대한 이용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변화는 차별화된 교통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특히 오송역 및 청주국제공항과 같은 교통 결절점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역할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 X축 국가 고속철도망의 국내 유일 분기역, 행정수도 관문공항으로의 상징성을 감안할 때, 보다 질 높은 교통서비스 제공이라는 국가 차원의 미션이 요구됨

□ 4차 산업혁명시대 교통서비스 혁신

-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ICT 기반의 과학기술 발달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주도하고 있음
- 수송 분야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 공유교통 및 전기·수소자동차 등 많은 변화와 혁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 모빌리티로 대변되는 변화흐름은 다양하고 진보된 통행수단을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통합모빌리티(MaaS)로 진화하며, 더불어 다양한 신교통수단의 도입이 예상됨
- 철도와 항공 모두 파편화된 통행수단이 아니라, 기타 교통수단과 연계하여 통합되어 운영함으로써 보다 큰 틀에서 사람과 사물의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형태로 발전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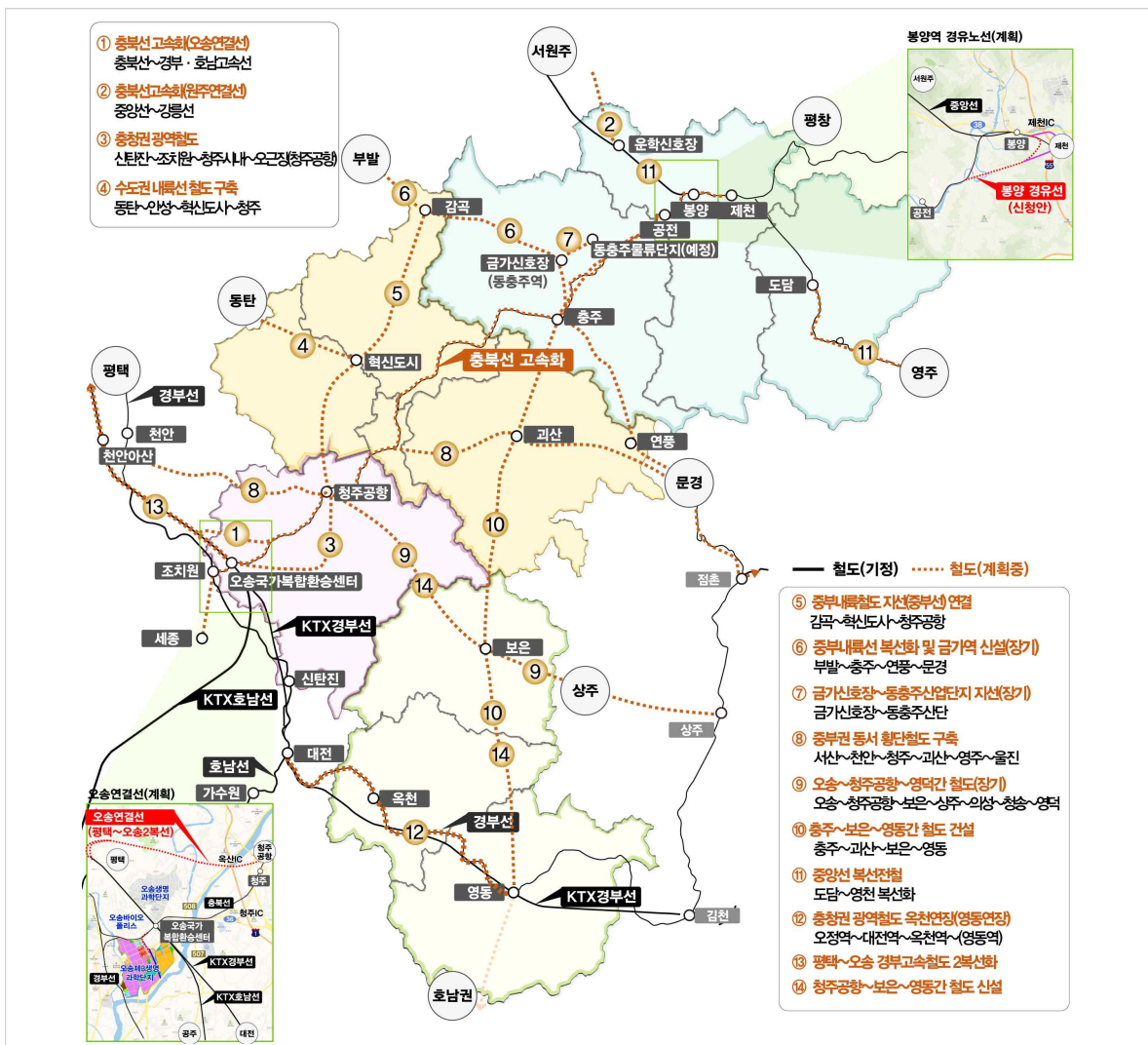
□ 대륙으로 진출하는 교통물류 네트워크

○ 남북 및 동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위한 교류여건 진전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틀 마련
- 동북아 경제권 주도를 위한 국가 간 경쟁력 협력 가속화

○ 대륙연결형·개방형 국토 구상을 통해 대륙과 해양을 잇는 관문국가로의 위상 강화 노력

- 남북한 철도인프라 연결 및 현대화를 통한 한반도 남북철도망 구축을 위한 노력 진행
- 한반도 남북철도를 중국횡단철도(TCR), 몽골횡단철도(TMGR),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결함으로써 유라시아로 진출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 진행(동아시아철도공동체 등)



자료 : 충북연구원작성

〈그림 III-2-13〉충청북도 철도구축계획

3) 추진과제

□ 강호축 기반 X축 국가 고속철도망 완성

-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구축으로 X축 국가 고속철도망 완성
 - 충북선 철도 고속화 및 연결선(오송, 봉양, 원주)의 조기완공을 통해 강호축 고속교통망 완성
- 나아가 대북·유라시아를 연결하는 국토 구상을 통해 대륙과 해양을 잇는 관문국가로의 위상 강화
 -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아젠다 설정과 유라시아 교통물류 네트워크의 초석 마련
- 병목구간인 경부선 평택~오송 경부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을 통해 분기역인 오송역 기능 강화

□ 균형발전 거점 간 철도 네트워크 확충

- 국가 균형발전 및 중장기 철도발전을 위한 철도교통망 확대를 통한 국가철도망 구축 효과 극대화 도모
 - 중부내륙선 철도, 중앙선 복선전철, 중부내륙선 복선화 및 금가역 신설
- 지역 내 혁신거점 간 철도망 연계강화를 통해 통합·다핵·개방형 국토 조성 기여
 - 충북혁신도시,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철도 네트워크 확충
 - 감곡~청주공항 중부내륙선 지선, 수도권 내륙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및 동충주산업단지 지선
- 경부선 이용수요를 분담하는 중부내륙선 기능 강화(감곡~청주공항 중부내륙선 지선) 및 철도 노선 간 연계방안 지속 추진
 - 중부내륙선(이천~충주) 철도 개통 및 대규모 산업단지 입지(기 조성 12개소, 추진·계획 중 16개소)에 따른 여객 및 화물 수요증대 대응
- 철도 소외지역 철도서비스 공급을 통한 포용적 철도 네트워크 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 오송~청주국제공항~영덕 간 철도, 청주공항~보은~영동 간 철도 및 충주~보은~영동 간 철도
 - 충청북도 동남 4군에서 유일하게 철도 소외지역인 보은을 지나면서 균형 발전 제고(오송~청주공항~영덕 간 철도 신설)

□ 대도시권 철도기반 대중교통망 구축

- 행복도시 이전에 따른 중부권 광역도시권 형성(청주시, 대전광역시, 세종시)으로 철도기반의 광역대중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대도시권 혼잡해소 및 광역생활권 구축 기여
 - 광역권 내 인구 약 265만 명(2040년까지 지속적인 인구증가 예상), 유동인구 다수
 - 충청권 광역철도(신탄진~조치원~청주시내~오근장),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등
- 충청권 지역 교통인프라 확충 및 주민편의 증진하고, 충청권 광역철도와 연계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 철도기반의 성장거점 확보

-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인 오송역의 위상과 서비스 기능 강화
 - 오송역 복합환승센터, 오송 철도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한 국가철도망의 전략적 성장거점 기능 강화
- 대북교류 및 유라시아 진출을 고려한 철도기반의 물류기능 강화
 - 강호축 고속철도망 완성, 남북 간 경협으로 한반도 철도망 및 대륙횡단철도 연결사업 추진
- 오송역 인근 대한민국 미래철도 기술개발을 위한 국가적 시험연구 인프라 집적에 따른 철도산업 육성기반 확충
 - ①철도종합시험선로, ②오송궤도기지, ③철도완성차 안전시험 연구시설, ④무가선 트램 시험선, ⑤ 초고속 자기부상열차 시험선
 - 차세대 미래형 음속열차 하이퍼튜브 익스프레스에 대응한 철도기술의 메카로서의 기능을 도모하고, ICT,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스마트 철도시스템 운영
- 행정수도를 포함한 행정중심복합도시권을 대상으로 하는 신교통수단의 도입 방안 검토

□ 청주국제공항 행정수도 관문공항 위상 확립

- 행정수도 세종시의 수도공항으로 역할과 기능을 강화
 - 인천공항 일극 체제 완화와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노선다변화 및 거점 항공사 출범
 - 청주국제공항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청주공항중심 경제권 육성
 - 글로벌 공항성장에 대비한 스마트 공항인프라 확충
 - AI기술과 자율주행 시스템을 활용한 신 항공모빌리티 UAM 상용화
- 청주공항 급성장에 대비한 시설인프라 확충
 - 청주국제공항의 여객 수용능력은 연간 441만 명/년으로 2019년 수송실적에 근거할 때 68.3% 수준
 - 글로벌 공항성장에 대비한 스마트 공항인프라 확충
 - 활주로 확장 등 공항의 물리적 용량한계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설인프라 확충
 - 항공시장의 가파른 성장세, 거점 항공사 등장 등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노선다변화 노력
- 공항패러다임을 기존 여객운송 중심과 더불어 경제활동 중심으로 전환
 - 산업·비즈니스 등과 결합하여 신성장거점화 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모색 차원 필요
 - 청주국제공항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항공수요 창출 및 중부내륙 국제교류거점 형성

〈표 III-2-39〉 글로벌 국토를 지향하는 철도 및 항공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사업

전 략 명	과 제 명	단기 (2020~2025)	중기 (2026~2030)	장기 (2031~2040)	비고
글로벌 국토를 지향하는 철도 및 항공체계 구축	1. 충북선 철도 고속화(오송·원주연결선)				
	2. 충청권 광역철도				
	3. 수도권 내륙선 철도 구축				
	4. 중부내륙철도 지선 연결				
	5. 중부내륙선 복선화 및 금가역 신설				
	6. 금가신호장~동충주산업단지 지선				
	7.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구축				
	8. 오송~청주공항~영덕간 철도				
	9. 충주~보은~영동간 철도 건설				
	10. 중앙선 복선전철				
	11.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연장 사업				
	12. 충청권 광역철도 영동연장 사업				
	13. 평택~오송 경부고속철도 2복선화				
	14. 청주공항~보은~영동 간 철도 신설				
	15. 중부내륙선 철도건설				
	16.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17. 오송역 복합환승센터				
	18. 한국형 하이퍼루프(HTX) 상용화 시험시설 유치				
	19. 행정수도공항 위계 재편				
	20. 공항성장에 대비한 시설인프라 확충				
	21. 노선다변화 및 거점 항공사 출범				

〈표 III-2-40〉 글로벌 국토를 지향하는 철도 및 항공체계 구축을 위한 시군계획지침

※ 시·군 계획지침

- 시·군은 철도망 구축을 위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을 준수하여 구상계획을 강구하여야 한다.
- 시·군은 철도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역세권 및 교통수단 간 연계성을 고려한다.
- 시·군은 도로 및 철도망 구축 시 청주국제공항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제4절 ▶ 스마트 라이프·신산업 생태계가 구현되는 혁신공간 창출

1) 현황 및 문제점

Ⅰ 현황

□ 스마트시티의 도래

- 스마트시티 건설은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며, 안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21세기의 첫 번째 신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
 - IBM, 구글 등 글로벌 거대기업이 신문명이 구현되는 도시산업으로 스마트시티 분야에 진출하였고, 국내에서도 LG유플러스, 카카오, 현대 등 통신, 플랫폼, 모빌리티 등의 주요 대기업 및 창업기업이 스마트시티 분야에 진출하고 있음
- 국내·외 주요 도시에서는 스마트시티 조성을 통해 도시 거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4차 산업혁명 연계의 신산업 육성, 새로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비전을 정립하여 실행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주요 광역 대도시를 중심으로 스마트 시티 추진 비전을 정립하고 실천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스마트도시법 제정 및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

- 정부는 2017년 9월 전 세계 최초로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하여 기존 관계법(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한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스마트도시법)」을 제정하고 스마트시티를 정의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의 역할을 제도화
 -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정의
- 2018년, 2019년에 스마트시티 조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법률을 개정
 - 국가 전략적인 차원의 시범도시를 통해 스마트도시 조성단계부터 다양한 스마트기술과 서비스를 접목해 신기술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스마트도시 유관 산업을 육성해 세계적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국가시범도시 조성 추진 (‘18. 8. 14 일부개정)
 -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제안을 공모하는 민간제안제도를 신설하고, 사업시행자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을 추가 (‘19. 4. 23 일부개정)



자료 : 4차산업혁명위원회,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2018

〈그림 III-2-14〉 유비쿼터스 도시에서 스마트도시로의 전환, 7대 혁신변화

□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국가정책 사업 추진

○ 스마트도시법 제정 및 정부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18.1)」 발표 후 기존 제1·2차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신도시 중심 U-City 조성 한계를 극복하고, 현재 여건에 부합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 정책방향 마련을 위해 전문가·기업·지자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3)」 수립

- 비전 :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혁신의 플랫폼, 스마트시티
- 전략 : 성장단계별 맞춤형 모델 조성, 스마트시티 확산기반 구축,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 이니셔티브 강화

○ 핵심 추진과제로 도시 성장 단계별로 신규 개발단계의 국가 시범도시 성과 창출 및 확산, 도시 운영단계의 기존 도시 스마트화 확대, 노후 쇠퇴 단계의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확립의 맞춤형 스마트시티 모델 제시

- 4차 산업혁명 관련 융·복합 新기술 테스트베드, 도시 문제 해결 및 삶의 질 제고, 혁신 산업생태계 조성을 함께 추진
- 향후 5년간 총 100곳 이상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테마형 특화단지(‘18~), 챌린지(‘19~)등 기존도시 스마트화 사업 추진
-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도시 성장 단계별로 공모를 통해 매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 중

- 국가시범도시, 국가전략 R&D 대상지 선정 완료
- 스마트시티 챌린지와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를 통합하여 매년 대상지 선정 추진 중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2015년 이후 현재까지 확대 추진 중

I 문제점

□ 충청북도 및 시·군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마련

- 스마트도시법 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 그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에서 스마트 도시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 도시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음
-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스마트 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의무 수립하여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충청북도 차원의 스마트시티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충청북도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충청북도의 스마트시티 육성방향 마련이 필요하고, 이와 동시에 충청북도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연계의 시군별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마련 필요
- 충북도 및 시군에서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정보화 계획은 스마트시티 하위의 도시 서비스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별도의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마련이 필요
- 스마트시티 사업의 총괄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중앙과 지역계획의 정합성 유지를 위해 시도 및 시군의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권장하고 있음

□ 스마트시티 전담기관 구축

- 충청북도의 스마트시티 전담기관이 불명확하고, 시군의 경우에도 스마트시티팀이 조직된 경우가 많지 않음
- 2017~2019년 사이 충청북도에서 중앙정부의 스마트시티 사업 등에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 혁신도시를 공간적 대상으로 대응하였고, 2020년 현재 성장동력과에서 대응 중
- 타 시도에서는 스마트시티과를 발족하여 운영하는 스마트시티 업무를 전담하는 추세
- 주요 시군에서 스마트시티과 혹은 스마트시티팀이 신설 운영 중으로, 도내 시군 가운데에서는 청주시, 충주시에서 스마트시티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 중
- 청주시는 정보통신과 스마트시티팀, 충주시는 정보통신과 공간정보팀 운영 중

□ 국가정책사업 연계 충북 특화 모델 구축

- 국가정책사업으로 성장단계별 스마트시티 조성이 추진 중이나, 도내에서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충북 특화모델 구축이 미약한 실정
- 오송, 오창, 혁신도시 등 제4차 산업혁명 집적지 및 청주국제공항, 오송역 등 국가 인프라가 밀집한 성장거점지역을 판교밸리에 비견되는 충북형 스마트시티로 육성
- 향후 국가정책사업과 연계한 충북 실정에 맞는 특화 모델을 구축하여, 도내 전역에 스마트시티의 성과를 향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필요

2) 여건분석 및 전망

I SWOT 분석

- 충청북도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에 있어 전국 1위의 사업추진율을 달성함
- 반면, 전담조직 미비로 인한 도-시·군 간, 행정부서 간 연계협력이 미약하며 시·군별 종합계획 미수립에 따른 체계적 로드맵이 부족한 실정임
- 글로벌 주요 기업의 수도권 중심 스마트시티 서비스 구현과 국가정책사업을 통한 타 시·군 스마트시티 역량 고도화 등 수준과 격차가 심해지고 있지만, 제천 등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착수로 인한 발전가능성을 보유함

〈표 III-2-41〉 SWOT분석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특화 스마트시티 연관 R&D 추진 중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추진율 전국 1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담조직이 미비하여 충북도·시군 간, 행정 부서 간 스마트 시티 연계협력 미약 충북도, 시군의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미수립에 따른 체계적인 로드맵 부재
기회(O) ⇒ 포착	위협(T) ⇒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산업단지 등 스마트시티 특화개발이 가능한 신도시 개발 시기 도래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착수 (제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주요기업의 수도권 중심 스마트시티 서비스 구현으로 스마트시티 수준 격차 심화 국가정책사업 등을 활용하여 타 시도, 타 시군의 스마트시티 역량이 고도화

I 여건전망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여건 양호

- 2020년 충청북도 광역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확정, 시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연계 기틀 마련



〈그림 III-2-15〉 충청북도 광역 통합플랫폼 구축 비전 및 목표

- 2019년까지 4개 시·군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 구축되었고, 2020년 2개 시·군에 추가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이 확정됨

- 2019년 말 기준 본 사업 진행률 전국 평균 20% 대비 충청북도 36%로 전국 1위 기록 중임



〈그림 III-2-16〉 충청북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추진현황



□ 충청북도 성장거점 대상 스마트시티 관련 계획 마련

- 2018년 국가정책사업 공모를 통해 충북혁신도시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 비 전 : 편리하고 안전한 살기 좋은 e-토피아
 - 유형 및 전략 : 스마트 라이프(도시문제 해결형), 스마트 에너지(특화 경쟁력 창출형) 유형 4대전략 마련
 - 모빌리티 도시, 생활안전 도시, 문화 도시, 창의 도시 구현 전략 수립 및 전략 달성을 위한 11개 추진 과제 도출
 - 2020년 현재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 구축사업, 태양광 기반 다목적 버스쉼터 사업,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 예산 확보·추진 중
- 신규 국가산업단지 오송, 충주 스마트시티 계획 수립
 - 오송, 충주 국가산업단지 계획(신규)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충주시 대소원면 일원
 - 기 간 : 2017~2030년
 - 규 모 : 8.99km²(오송6.75, 충주2.24)
 - 사업자: LH
 - 스마트시티 요소를 반영하여 조성 예정

□ 스마트시티 연관 R&D 추진으로 스마트 특화서비스 창출 계기 마련

-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무선 제어차단 가스용품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 추진
 - 위 치 : 충북혁신도시 및 오창산단 일원 (134,297.4m²)
 - 기 간 : 2019. 8. ~ 2023. 7. (4년)
 - 사업자 :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TP 및 9개 기업
 - 내 용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사업법 등에 따라 현행 법령상 제조할 수 없는 인공지능과 IoT기술을 도입한 무선 가스용품 개발, 실증, 상용화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추진
 - 유선 연동 차단 제어 → 유/무선 차단 제어
- 산업통상자원부 '18년 에너지 연구개발사업 전략프로젝트 「스마트 제로 에너지 시티」 사업으로 충북혁신도시 친환경에너지타운 일원 선정, 관련 연구개발 사업 추진 중
 - 위 치 : 충북혁신도시 친환경에너지타운 일원
 - 규 모 : 총사업비 53억원 (국비 43.7, 민간 9.3)
 - 주 관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내 용 : 친환경에너지타운 기존 시설을 개선하여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마이크로 그리드) 구축 사업 추진 및 에너지 거래시장 개척
 - 에너지 생산시설(학교) 및 수요시설(어린이집 등 공공시설) 거래 네트워크 구축, 에너지 데이터 수집·저장 장치 개발(게이트웨이), 실시간 수요공급 분석 모델 구축

3) 추진과제

□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 안전, 인프라, 문화 예술 등 도시정보가 연계되어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및 가상 플랫폼을 구축하여 스마트시티 기반 확장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 제47조 신설(2019. 11. 26)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의 근거뿐만 아니라 스마트도시법 제35조 등의 신설에 따라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
 - 데이터를 활용한 교통, 물류 및 지역, 도시공간 혁신 구축
 - 충청북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지정 및 스마트규제 혁신지구 조성

□ 도시성장 단계·지역별로 차별화된 스마트 공간 조성

- 신도시 및 성장거점 지역은 신기술이 집약된 지역거점 육성
 - 신도시 건설단계에 스마트 인프라 확보 및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스마트 솔루션 적용 확산
- 기존도시는 스마트화와 도시재생 연계
 - 도시문제 해결 및 노후쇠퇴지역 재생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 도입
-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로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적극 도입하고 설계 단계에서 스마트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진행
 - 스마트 바이오 및 스마트 에너지 등 지역전략산업 연계기업의 도시 실증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하여 스마트 신산업 육성
- 기술검증 완료된 서비스를 활용한 기존 도시 교통, 문화, 에너지 등 부문별 스마트화 추진으로 지역 쇠퇴, 정주여건 애로 등 도시문제 해결
 - 청주시 등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 충북혁신도시 스마트 버스 쉼터 조성사업, 제천시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사업 등 추진 증으로, 향후 우수 사업을 도 전역으로 확대 추진

□ 지역전략산업 연계 스마트시티 신산업 실증 공간 조성

- 스마트도시법에 근거한 스마트규제혁신지구 및 국가시범도시 등의 신산업 실증 특례를 활용하여 바이오, 에너지 등 지역전략산업 분야 스마트시티 신산업 육성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8)의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혁신도시 육성 5대전략의 하나로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사업 비전 제시
- 충북혁신도시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
 - 스마트혁신도시 및 노후산단 고도화 사업 추진
 - 지역성장의 거점육성을 위한 제2판교밸리 구축사업



□ 추진체계 재정비

-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수립 및 전담조직 강화로 변화된 도시의 스마트화 패러다임에 부응
 - 충청북도 및 시군별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수립 강화
 -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전담조직 구성 및 위상 확대 도모
- 시도, 시군에서 스마트시티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31개이고, 충북 도내에는 관련 조례가 부재한 상태
- 일반도는 법정 의무계획 대상이 아니지만, 다수 일반도에서 스마트시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군 스마트시티 조성을 견인
- 국가 스마트시티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충청북도 전반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방향성을 정립하고, 시군별 지역 실정에 맞는 스마트시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스마트 공간 추진 필요
- 스마트시티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신사업을 지속 발굴·관리하기 위한 총괄 전담 조직 구성 확대
 - 스마트시티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 제도적 근거 마련
 -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수립, 전담조직 구성 및 조례 제정

〈표 III-2-42〉 스마트 라이프·신산업 생태계가 구현되는 혁신공간 창출을 위한 추진사업

전 략 명	과 제 명	단기 (20~25)	중기 (26~30)	장기 (31~40)	비고
스마트 라이프·신산업 생태계가 구현되는 혁신공간 창출	1. 충청북도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 구축				
	2. 충청북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지정				
	3. 충청북도 스마트규제 혁신지구 조성				
	4.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5. 제2판교밸리 구축사업				
	6. 충청북도 디지털트윈 가상플랫폼 구축				
	7. 국가산업단지(신규) 스마트공간 조성				
	8. 스마트시티 조성				

〈표 III-2-43〉 스마트 라이프·신산업 생태계가 구현되는 혁신공간 창출을 위한 시군계획지침

※ 시·군 계획지침

- 시·군은 도시발전 수준 및 유형에 적합한 스마트 도시기술개발 및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와 연계한 혁신적인 신산업 창출방안을 마련한다.
- 시·군은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국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빅데이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제3장

혁신을 주도하는 신산업 기반 조성

제1절 D.N.A.(Data-Network-AI)기반 선도산업 기반 육성

제2절 연고산업과 신산업이 조화로운 경제강도(經濟強道) 실현

제3절 뉴트렌드의 친환경, 융복합 농산업 기반 확대

제4절 미래수요 신재생에너지산업 선도지역 육성

제5절 산업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인력양성체계 구축



제3장 혁신을 주도하는 신산업 기반 조성

제1절 D.N.A.(Data-Network-AI)기반 선도산업 기반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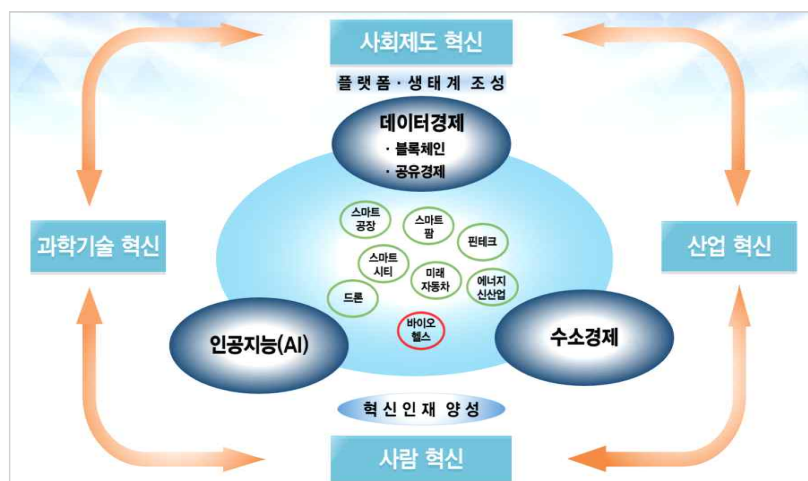
1) 현황 및 문제점

I 현황

□ 국가 미래산업 육성 전략

○ 국가 3대 전략 투자분야⁸⁾

-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 신뢰성 제고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고도화, 공유 경제 기반 구축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활용의 기반이 되는 AI 기술을 고도화,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고부가 가치 新산업 창출
- (수소경제) 미래 친환경 에너지로서 단계별 수소 밸류체인 구축과 수요기반 확충
- (공통분야 : 혁신인재 양성) 미래 성장유망 분야의 고급기술 보유 핵심인력 1만 명 육성, 혁신적 인재 양성 시스템 마련



〈그림 III-3-1〉 국가혁신성장 추진체계

8) 관계부처 합동(20180813), “Innovative Platform”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 pp.2-3

○ 국가 8대 선도사업 육성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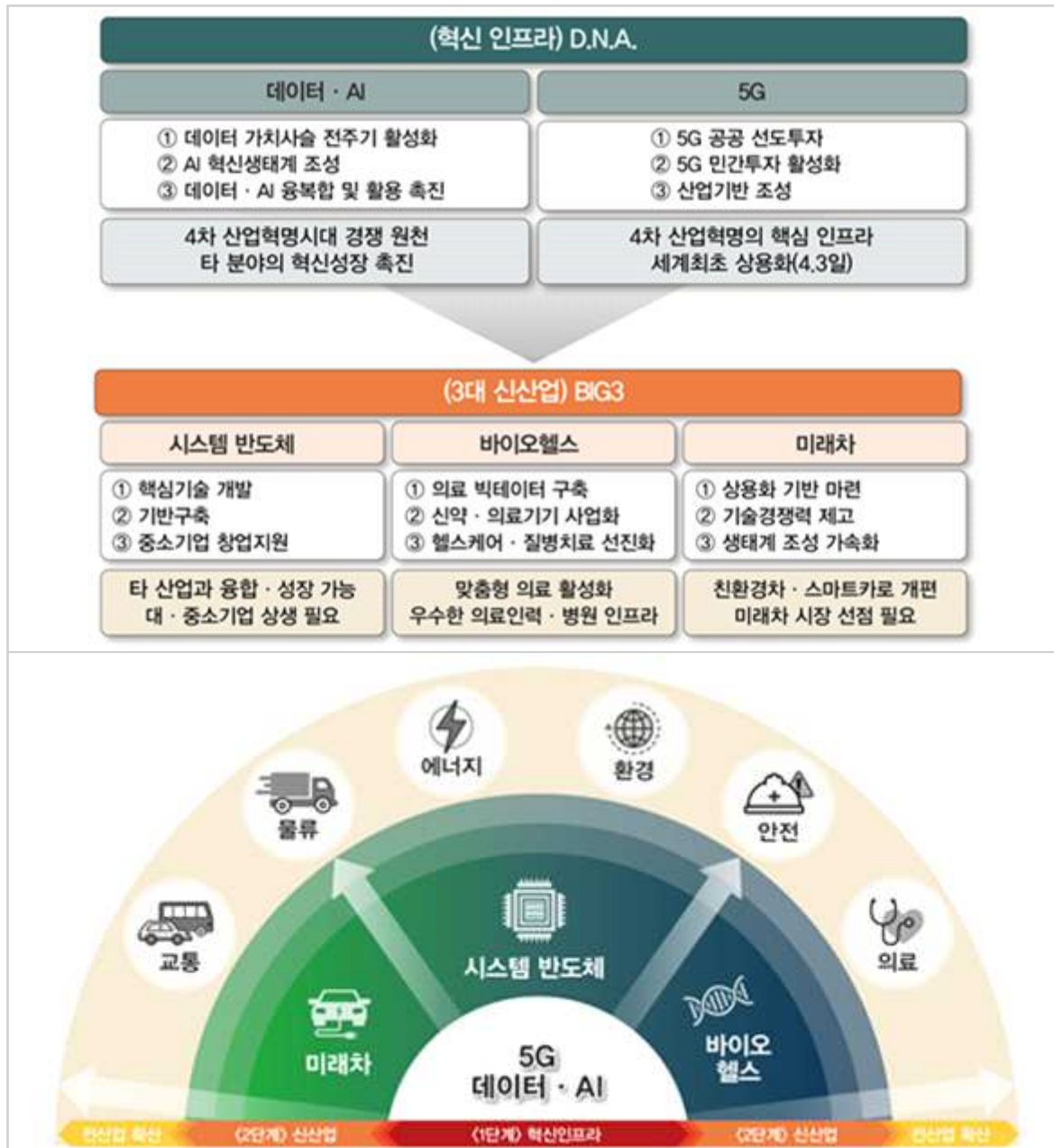
- (미래 자동차)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해 자율주행차의 핵심 HW·SW 개발 및 도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여 미래차 시장을 조성
- (드론) 공공구매 대폭 확대 및 시험비행장 등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초기시장 조성에 주력하고, 드론의 연구개발·안전검증을 위한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
- (에너지 신산업) 기술개발, 실증 및 설비구축 재정·금융 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전력생산 설비보급을 지원하고, 전력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증 등을 수행
- (바이오헬스) 바이오 융복합 기술 R&D 지원 및 맞춤형 정밀의료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기반을 구축
- (스마트공장) 보급·고도화 지원과 한국형 모델 개발을 통해 스마트공장 도입을 확대하고, 스마트화 수준 향상을 위한 R&D를 지원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하고, 도시문제 해결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데이터 기반 모델을 개발
- (스마트팜) 원예·축산·수산 분야 혁신거점 조성 통해 스마트 영농 확산을 도모
- (핀테크)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의 테스트베드 참여 및 기술·서비스 개발 비용 등을 지원하고, 대 국민 관심제고를 위한 홍보·체험행사를 개최

〈표 III-3- 1〉 국가 8대 선도사업 주요성과(2019. 8. 관계부처합동)

선도사업	주요 추진사항 및 성과
① 미래자동차	▶ 전기차 보급('18년 31천대, 118% ↑) · 충전인프라('18년 6천여기, 104% ↑) 확충 ▶ 테스트베드 준공, 정밀도로지도(1,741km) 구축, 자율차법 제정 · 공포('19.4월)
② 드론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제정('19.4 공포) ▶ 지속적 시장 확대(기체 : '17년 3,894대 → '18년 8,105대, 이용기업: '17년 1,501社 → '18년 2,382社)
③ 에너지 신산업	▶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초과달성('18년 목표 1,737MW 보급 2,989MW(72%초과) ▶ 소규모 전력중개시장('19.2), 전력 빅데이터 플랫폼('19.4) 등 개설
④ 바이오헬스	▶ 신약개발('15년 26건 → '18년 30건), 신약기술 수출확대('17년 1.4조원 → '18년 5.3조원) ▶ 국내외 벤처캐피탈의 바이오투자 확대('18년 8,417억원, 122% ↑)
⑤ 스마트 공장 · 산단	▶ 도입기업의 경쟁력 향상(생산성 30.0% ↑, 불량률 43.5% ↓, 원가 15.9% ↓ 등) ▶ 지역제조혁신 분위기 확산(지자체 예산: '18년 6개 시도 96억원 → '19년 14개 시도 271억원)
⑥ 스마트시티	▶ 선도모델 개발을 위한 국가시범도시 지정(세종, 부산) ▶ 지자체와 기업참여 확대(지자체·기업 공동 사업기획, 실증을 추진하는 챌린지 사업 등)
⑦ 스마트팜	▶ 스마트팜(원예 기준) 보급 확대('17년 4,010ha → '18년 4,900ha(22.2% ↑)) ▶ 도입농가의 경쟁력 향상(생산성 31% ↑, 소득 29% ↑, 고품질 생산 39% ↑ 등)
⑧ 핀테크	▶ 핀테크 기업의 양적 확대('17.4월 146개 → '18.12월 269개(84.2% ↑)) ▶ 신금융서비스 이용 증가(인터넷은행 계좌수 '17년 780만개 → '19.4월 1,756만개(125.1% ↑))

○ 2021 전략투자 방향⁹⁾

- 초기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핵심 분야에 대해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오는 '도미노 전략' 추진
- 혁신 인프라(1단계) 및 핵심 신산업 (2단계)에 대한 전략투자로 혁신성장의 쏠산업 확산 촉진



〈그림 III-3- 2〉 2020 전략투자 방안

9) 관계부처 합동(20190821),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 방향'-D.N.A. + BIG3: Domino 확산 전략-, pp.2-3



□ 충청북도 추진현황

○ 충청북도 6+3 신성장산업¹⁰⁾

- ‘충북 신성장산업 육성전략(2016.3)’을 수립하여 바이오산업, 태양광·신에너지산업, 화장품·뷰티산업, 유기농·식품산업, 신교통·항공산업, ICT 융합산업 등 6대 신성장산업 육성을 추진

〈표 III-3- 2〉 충청북도 6대 신성장산업 특화분야

구 분	특화분야
바이오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의약, 한방바이오, 의료기기 ■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 당뇨바이오, 감염병대응, 건강친화산업(웰니스산업)
태양광·신에너지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에너지 : 태양광, 바이오매스 ■ 신에너지 : 이차전지, 연료전지, ESS(Energy Storage System)
화장품·뷰티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산업 : 향노화물질, 기능성화장품 ■ 뷰티산업 : K-뷰티산업, 뷰티헬스 등
유기농·식품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농산물 생산, 유기농 가공식품 및 발효식품, 기능성 음료 등
신교통·항공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교통산업 : 미래철도, 자율주행자동차 ■ 교통서비스산업 : 복합운송물류서비스 ■ 항공산업 : 항공 MRO, 드론, 공항교통서비스(청주국제공항)
ICT 융합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 반도체, 전기전자융합부품, 스마트센서, 웨어러블디바이스

-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 충북이 선점하여야 할 특화분야로 기후·환경산업, 관광·스포츠산업, 첨단형 뿌리기술산업 등 미래유망산업 육성을 추진

〈표 III-3- 3〉 충청북도 3대 미래유망산업 특화분야

구 분	특화분야
기후·환경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산업, 물산업, 환경복원산업(오염방지설비, 수질측정 및 관리), 자원 리사이클링산업(폐기물 처리 및 활용)
관광·스포츠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관광인프라 확충 ■ 스포츠테마연계 창조관광(산악, 수상, 스포츠파크) ■ K-뷰티 서비스(에듀팜, 밀레니엄타운 활용)
첨단형 뿌리기술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면처리, 소성가공, 금형 등 뿌리기술 산업 (응용분야 : 동력기반기계부품산업)

10) 충청북도(2016. 10), 충북 신성장산업 육성전략

○ 충청북도의 주력 및 협력 산업

- (스마트 IT 부품) 지능화 솔루션 및 연결성 강화를 통한 신기술 육성에 초점을 두고, 타 산업과의 협력을 통한 융합 가속화 추진
- (바이오헬스) 거래관계 내 주축이 되는 기업의 핵심기술 개발 및 제품고도화 지원을 통한 산업생태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확보
- (수송기계 소재 부품) 경쟁력 강화, 핵심기술·원천특허 확보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및 전·후방 산업의 동반성장 도모



〈그림 III-3- 3〉 충청북도의 주력 및 협력 산업 변화(충청북도 지역산업발전계획)

I 문제점

□ 국가 미래신산업 분야 생산 및 기술 경쟁력 간 불균형

- 충북의 경제구조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은 약 49%로 생산 경쟁력은 우수하며, 특히 주력 산업인 스마트IT부품, 바이오헬스, 수송기계소재부품 분야에서 높은 성장이 이루어짐

〈표 III-3- 4〉 충청북도 주력산업의 부가가치

(단위 : 백만원, %)

산업명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성장률
스마트 IT부품	6,329,959	7,120,836	5,973,484	2,439,901	9,398,988	10.4
바이오헬스	2,044,592	2,229,254	2,566,843	2,800,258	3,000,060	10.1
수송기계소재부품	1,145,302	1,230,068	1,161,040	1,138,363	1,333,452	3.9

출처 : 충청북도, 2020년 충청북도지역산업진흥계획

- 반면, 충청북도의 기술혁신 경쟁력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위 수준으로 기술혁신 자원 역량과 협력활동 그리고 성과창출 전반에 대한 대외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3- 5〉 충청북도 과학혁신 역량지수

구분	2016	2017	2018	2019
충청북도	7.226	7.337	7.050	7.855
전국평균	9.090	8.926	9.103	9.620
시도순위	10	11	12	13

자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9년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2020

□ 기술개발 주기 단축에 따른 산업여건 변화 가속화

- 4차 산업혁명 이슈에 대한 세계적 공감대의 확산과 Post COVID-19 영향으로 언택트 기술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기존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의 상용화 시기가 단축될 것으로 전망
- 기술개발 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산업전환이 가속화되어 미래예측의 한계 시점이 더욱 짧아짐
- 4차 산업혁명 동인 기술 기반의 국가 8대 선도사업 중심으로 지역의 미래경쟁력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충청북도 전략산업의 구조고도화가 요구됨

□ 데이터(D), 네트워크(N), 인공지능(A) 인프라 기반 지능형 산업환경 도래

-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팩토리, 제조업 지능화, 스마트산업단지 등 생산공정 효율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략산업 분야 DNA 인프라 기반 강화 필요
- DNA 인프라는 디지털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플랫폼으로 성장함에 따라 데이터의 생산(IoT), 공유(5G), 저장(Cloud), 분석(AI, 슈퍼컴퓨팅), 활용(융합신산업)에 이르는 새로운 데이터 기반 경제체제에 대한 대응이 요구됨

2) 여건분석 및 전망

Ⅰ SWOT 분석

- 충청북도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전략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온 결과, 주력산업(스마트IT, 바이오헬스, 수송기계부품)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강화해 왔음
- 하지만, 생산기능 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인해 미래신산업 분야의 생산역량과 기술역량 간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능화 사회 구현에 요구되는 시설, 제도, 인력 등 미래지향적 과학기술 및 혁신역량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임
- 최근 빠른 기술개발 주기와 산업구조 전환 환경으로 인해 신기술 기반의 산업생태계 구조가 등장하고 있어 주력산업 분야의 첨단기술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신시장 선점 및 적응을 위한 대응이 요구됨
- 최근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오창 유치로 부족했던 미래 신산업 육성 인프라가 확보되어 이를 활용한 첨단산업기술 개발분야의 성장이 기대됨

〈표 Ⅲ-3- 6〉 SWOT 분석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차 산업혁명 기반 전략산업 육성 지속 주력산업(스마트IT, 바이오헬스, 수송기계부품)의 지속적 성장을 통한 대외 경쟁력 강화 지역 내 R&D 투자 증가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유치로 미래 신산업 육성 인프라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지향적 과학기술 및 혁신역량 부족 미래신산업 분야 생산 및 기술 경쟁력 간 불균형 지능화 사회 구현을 위한 시설, 제도, 인력 등 인프라 부족
기회(O) ⇒ 포착	위협(T) ⇒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단기술 기반 전략산업 육성 인프라(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강소연구개발특구, SW융합클러스터) 확대 주력산업 분야 글로벌 수요 확대 및 정부지원 강화 엔택트 기술 및 산업 수요 확대에 따른 신시장 창출 가속화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연구성과가 전국에 확산되어 과학기술 기반 신산업 균형성장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빠른 기술개발 주기로 인한 산업구조 전환 속도 가속화 신기술기반의 산업생태계 구조 등장 DNA 인프라 기반 지능형 산업환경으로 전환 가속화

I 여건변화

□ 충북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¹¹⁾

- (공간적 범위)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청원구 오창읍 일원, 2.20km² (기술핵심기관(충북대학교) 1.41km² / 배후공간 0.79km²)
- (특화분야) 스마트IT 부품·시스템 기반 혁신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스마트전자부품, 스마트센서, 이동체통신시스템 분야 특화 육성
- (주요사업) 스마트IT 부품/시스템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술을 발굴하고 출자·이전 등 수요기업 연계를 통해 기술 창업과 사업화 성과 창출
 - (기술발굴 및 연계) 최종 제품의 수요기반 전·후방 산업연계 및 스마트IT 부품/시스템 분야 협의체 통한 기술발굴·창출
 - (기술이전 사업화) 스마트 IT 부품/시스템 연계 분야 기술고도화 및 사업화 과제 지원
 - (강소형 기술창업) 창업기술 실증 지원을 통한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 연계를 통한 창업 활성화
 - (강소특구 특화 성장지원) 스마트 IT 부품/시스템 분야 ONE-STOP 실증 지원 및 미래기술 융합 제품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
- (지정혜택) R&BD 자금 지원, 인프라 건립 지원·보조,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 세제감면(법인세 3년 면제, 2년 50%) 등



〈그림 III-3- 4〉 스마트IT 부품·시스템 기반 혁신성장 거점 조성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충청북도·청주시(201908),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pp.3-10

□ 차세대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유치

- (공간적 범위)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일원(오창테크노폴리스), 14.93km²(산업단지 면적)
 - 연관산업단지 :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활용 주요 연구기관·기업 유치
 - 확장가능부지 :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소재·부품·장비 특화산업 조성 검토
- 총 제공부지 면적은 0.54km²이며 기본 제공부지엔 가속기 및 부속시설 조성, 초과 제공부지엔 국제관과 활용지원센터, D.N.A.센터와 편의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임
-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유치로 대전, 세종, 천안, 청주, 충북혁신도시를 잇는 국제과학비즈니스거점 조성이 가능해짐
-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활용분야로는 바이오의료산업, 반도체·전자산업, 에너지산업, 첨단기계·부품산업 등이 있음
 - 바이오의료산업 : 단백질 구조분석 신약개발, 바이러스 구조관찰
 - 반도체·전자산업 : 정밀 나노소자 구조분석, 공정과정의 불량원인 규명
 - 에너지산업 : 친환경 에너지 개발, 차세대 ESS 소재 개발
 - 첨단기계·부품산업 : 질병진단 나노로봇용 기계부품, 첨단 미세가공



〈그림 III-3- 5〉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조성 부지 위치도

□ 충청북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¹²⁾

- 공간범위 : 혁신도시 인근 20km(진천·음성(혁신도시 포함), 청주, 증평, 괴산, 충주 일원)
- 지구지정 : 산단 39개 및 혁신도시 1개 산업용지 일부
- 지정면적 : 14.4km²(미조성지구 8.8km² + 준공완료 지구 5.6km²)
- 대표산업 : 반도체, 전기전자, 에너지, 수송기계부품 분야
- 주력 기술개발 : 에너지 신산업(에너지 첨단 부품) 중심 첨단부품개발, 실증기술 개발, 비즈니스모델 확산 추진



〈그림 III-3- 6〉 충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현황도

□ 과학기술 혁신과 융복합에 따른 신산업(서비스) 출현

- 과학기술의 혁신적 변화와 융복합은 경제·사회 전반에서의 혁명적 변화를 초래하며 새로운 산업 및 서비스를 창출시킬 것으로 전망됨
- 인공지능,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등과 관련된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등의 신기술과 기존 사업 분야의 융복합 확대가 가속화되면서 OECD 발굴 미래기술 트렌드와의 기술적 연관성이 상승
- 사회서비스 혁신 및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경제 확산 및 협력성장·포용성장의 새로운 주역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

12) 충청북도(201808), 충청북도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및 2018년도 연차계획(안)(요약본), pp.3-14

- 소비자 및 수요기업의 맞춤형 제품을 설계부터 제작, 배송까지 해주는 서비스 플랫폼이 구축되어 다양한 분야의 업체들이 동반성장하는 상생 경제의 활성화
- 응용서비스 분야의 경우 글로벌 플랫폼의 이용 확산에 따라 스타트업 등 소규모·신생 기업들의 성장 기회 발생



〈그림 III-3- 7〉 과학기술 혁신 및 융합이 가져올 미래 신산업(서비스) 분야

□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산업 생태계 변화

- 기존 제조업의 성장 한계를 극복한 신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의 성장동력 확충과 신기술 기반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됨
- 충청북도 신성장동력 대표산업과 OECD 발굴 미래기술 트렌드와의 기술적 연관성은 다음의 그림과 같음



자료 : 충청북도, 충북 미래비전 2040, 2017

〈그림 III-3- 8〉 충청북도 대표산업 및 신성장산업(6+3)과 OECD 미래기술 트렌드와의 연관성



3) 추진과제

□ (바이오헬스) 국가 바이오헬스 융·복합산업 거점기능 강화

- 오송바이오벨리는 오송제1생명과학산업단지(첨단의료복합단지)와 오송제2생명과학산업단지에 이어 오송제3국가산업단지가 2030년 준공될 예정이며, 오송화장품산업단지 조성
- 오송은 강호축(국토X) 중심, 통일시대의 중국대륙철도(TCR)/시베리아철도(TSR) 기종점으로서의 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어 대외적 위상 강화 전망
- X축 국토공간의 중심인 오송을 단기적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권 간 지역전략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하는 국가 융복합산업의 거점으로서 위상 강화
 -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활용 바이러스 DNA 구조 분석 및 신약개발, 고해상도의 종양 촬영으로 암 치료법 개발 등 바이오헬스 글로벌 선도기술 거점 육성

□ (반도체)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클러스터 구축

- 충청북도의 반도체 생산량은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서 메모리 반도체와 더불어 시스템반도체 분야 중 후공정 플랫폼 중심의 특화 육성 노력이 이루어짐
- 판교, 화성, 이천 등 경기 남부지역의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한 청주-충북혁신도시-괴산을 잇는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미래 반도체 산업의 선점전략 요구
 - 판교(팹리스)-평택·화성·용인·이천(팹)으로 이어지는 국가반도체 클러스터 전략과 연계하여 충북혁신도시(후공정) 중심의 충북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광역적 산업전략지대 조성
 -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활용 산학연 공동협력을 통해 고집적 메모리 반도체 개발, 반도체 신소재 개발 등 초격차 기술의 확보를 지원하고, 미래 신산업 분야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클러스터 구축

□ (차세대모빌리티) 충청북도 모빌리티 기술혁신밸리 조성

- 세계 미래차 시장의 높은 성장과 차세대 모빌리티산업의 등장으로 첨단기술 기반의 제품 다양화에 따른 수평적 협력구조로의 산업 전환이 전망되며, 충청북도는 차체 및 트레일러 등 자동차 부품기업을 중심으로 전장부품, 친환경 동력장치, 특장완성차 분야의 대외 경쟁력 보유
- 미래차 산업의 국가의 미래 BIG3산업(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의 핵심분야로서 옥천-청주(오창)-충북혁신도시-충주-제천을 중심으로 차세대 모빌리티 부품산업(미니전기차, 친환경버스, 특장차, 지능형 수송기계부품)이 집적
 - 자율차 전장 기술혁신거점(청주), 친환경 동력장치 기술혁신거점(혁신도시), 미래형 특장완성차 기술혁신거점(음성), 차세대 자동차부품 기술혁신 거점(충주, 제천), 미래형농기계 기술혁신거점(옥천)을 육성하고, 기술혁신거점을 잇는 충북모빌리티 기술혁신밸리 조성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특화

- (태양광)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북도 6개 시·군 연계 태양광산업특구(전국 셀 생산 73%, 모듈 생산 63%)를 중심으로 한 태양광소재부품산업의 거점으로서의 위상 확보
- (이차전지) 전국 이차전지 생산의 4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LG화학(중대형 배터리) 중심의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의 중점 육성구
 - 태양광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산업(암모니아→수소 생산, 오창 / 시멘트 공장 발생 Co2→포집→수소 생산, 제천·단양), 수소차 연료전지 생산(현대모비스 충주공장 연계, 2021년 4만 대 생산), 수소안전(충북혁신도시 내 가스안전공사 연계), 수소신교통(수소철도/수소드론/수소버스) 중심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 촉매 물질들의 반응 메커니즘, 에너지, 전기 소재 및 촉매 등 화학소재 전자구조의 변화 실시간 측정 등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기반의 친환경 미래 에너지기술 개발

□ (과학기술 기반) 국가전략산업 분야 신소재부품산업 육성

- 차세대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오창 테크노폴리스)를 활용하여 미래 신산업인 소재·부품의 연구 개발 및 산업화를 담당하는 국가 거점화가 요구됨
 - 오창을 중심으로 대전, 세종, 천안, 청주, 충북혁신도시를 잇는 국제과학비즈니스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기술기반의 창업이 활성화되는 신기술 창업거점 조성
 - 산업 DNA(Data, Network, AI)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오송, 오창 등 첨단기술 중심의 산업 집적 지역의 생산시설에 대한 지능화 추진

□ (D.N.A. 인프라) 충북 전략산업 도약을 위한 D.N.A. 인프라 구축

- 전략산업 분야의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통한 디지털 시대 전환이 빠르게 전개
- 기존 스마트팩토리 보급사업을 제조업 지능화 사업으로 전환, 데이터 기반의 생산성 효율화 도약을 위한 산업생산 인프라의 고도화 요구
 - 전략산업 혁신을 위한 데이터 생태계(생산, 이동, 분석, 활용)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데이터 경제 기반의 사회 시스템 구축



〈표 III-3- 7〉 D.N.A.(Data-Network-AI)기반 선도산업 기반 육성을 위한 추진사업

전 략 명	과 제 명	단기 (20~25)	중기 (26~30)	장기 (31~40)	비고
D.N.A. (Data-Network-AI)기반 선도산업 기반 육성	1. 글로벌시험인증산업 융복합클러스터 조성				
	2. 충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3.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 및 안전성 평가 테스트베드 구축				
	4. 중부권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연계 기초과학기술 및 기업 육성사업				
	5. 충북형 바이오헬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6. 중부권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클러스터 구축				
	7. 의료영상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8.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유치				
	9. 북부권 수송기계부품클러스터 육성				
	10. 전기수소자동차 ONE-STOP 지원센터 구축				
	11. 미래형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12. 북부권 승강기산업 거점지역 조성				
	13. 바이오헬스 규제자유특구 지정				
	14. 만성질환 유전체데이터 중심병원 유치				
	15. 천연물 제제 시생산시설 구축				
	16.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				
	17. 천연물 신소재개발 지원센터 구축				
	18.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클러스터 조성사업				
	19. 천연물 제제 다각화지원 기반구축사업				
	20. 보은 드론클러스터구축				
	21. 혁신도시 공공기관연계육성사업(Open LAB)				
	22. 반도체 융복합산업타운(충북혁신도시) 조성				
	23. 자율주행시험운행 지구 조성				
	24. 충북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25. 충북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플랫폼 구축				
	26. 특장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기술개발				
	27. 소방산업 클러스터 조성				
	28.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29.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 지원 확대				
	30.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31. 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구축 사업				

〈표 III-3- 8〉 D.N.A.(Data-Network-AI)기반 선도산업 기반 육성을 위한 시군계획지침

※ 시·군 계획지침

- 시·군은 성장동력 및 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역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지식기반형 산업단지 등 미래 산업 형태에 적합한 산업기반 확충에 노력한다.
- 시·군은 신산업 관련 새로운 시설 도입 시 지가상승, 주변 환경 격차 발생 등 각종 문제점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 시·군은 지역혁신기관 및 주체 간 협력과 융복합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축소시대 압축형 공간구조에 적합한 도시계획기준 등을 전면 재검토한다.

제2절 연고산업과 신산업이 조화로운 경제강도(經濟強道) 실현

1) 현황 및 문제점

I 현황

□ 산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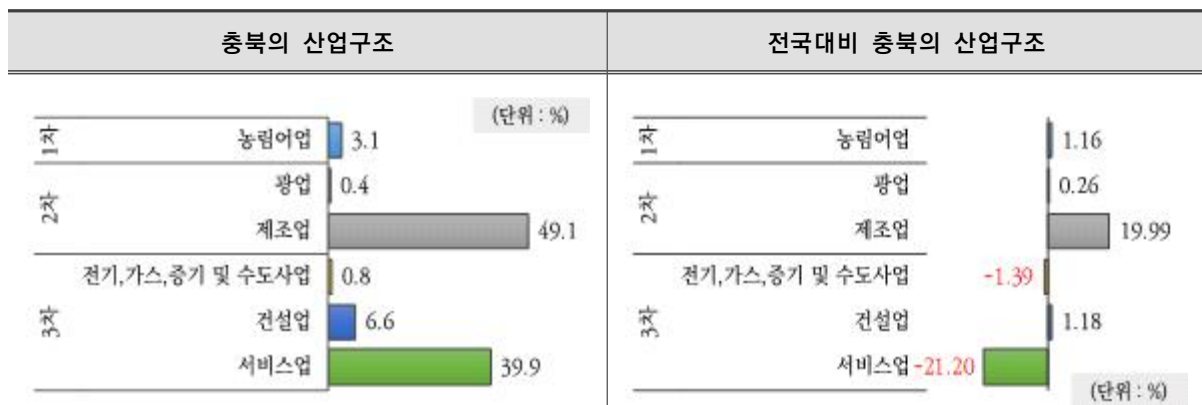
- 충청북도는 농림어업 3.1%, 광업 0.4%, 제조업 49.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8%, 건설업 6.6%, 서비스업 39.9%로 구성된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음
- 전국의 산업구조 : 농림어업 2.0%, 광업 0.1%, 제조업 29.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2%, 건설업 5.4%, 서비스업 61.2%로 구성
- 최근 제조업(1.72%p), 건설업(0.36%p), 광업(0.02%p)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 반면,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0.03%p), 농림어업(-0.24%p), 서비스업(-1.84%p)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음

〈표 III-3- 9〉 전국 및 충북의 산업구조

(단위 : %, %p)

구분		전국		충북		
		2018년(A)	변동	2018년(B)	변동	(B-A)
총부가가치		100.0	0.00	100.0	0.00	0.00
1차산업	농림어업	2.0	-0.03	3.1	-0.24	1.16
2차산업	광업	0.1	-0.01	0.4	0.02	0.26
	제조업	29.2	0.14	49.1	1.72	19.99
3차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2	0.01	0.8	-0.03	-1.39
	건설업	5.4	-0.40	6.6	0.36	1.18
	서비스업	61.2	0.29	39.9	-1.84	-21.20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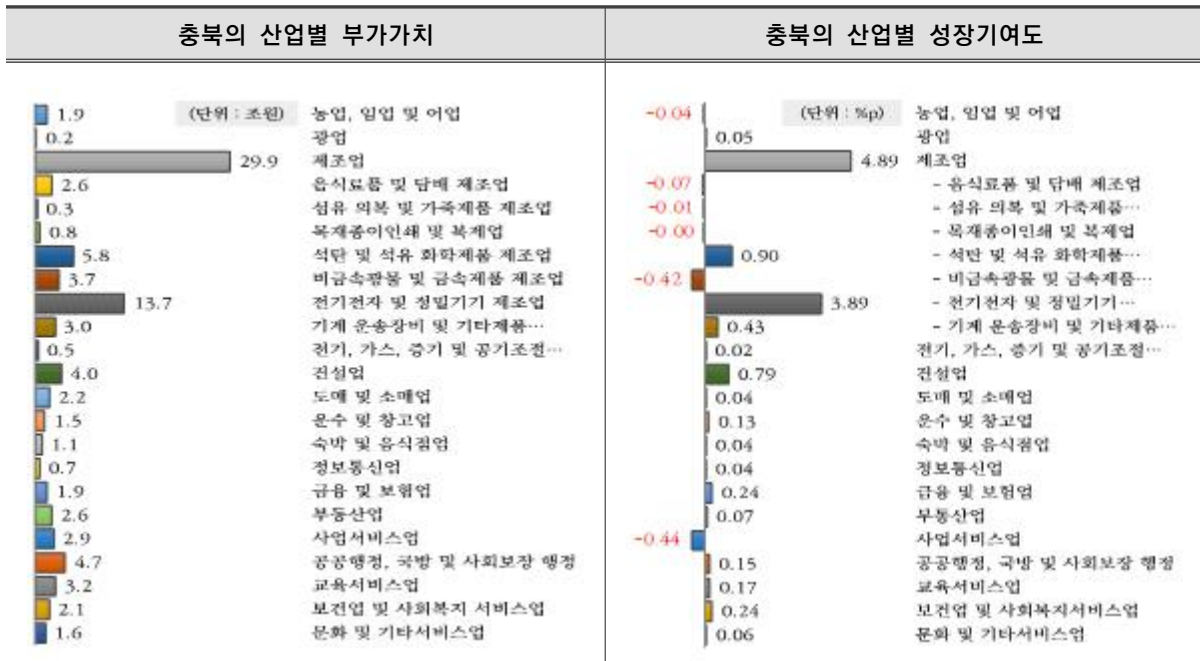


〈그림 III-3- 9〉 충청북도의 산업구조

□ 산업별 부가가치 및 성장기여도

- 충청북도의 산업별 부가가치를 살펴보면,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이 13.7조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제조업(5.8조 원),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4.7조 원), 건설업(4.0조 원),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3.7조 원), 교육서비스업(3.2조 원),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제품 제조업(3.0조 원), 사업서비스업(2.9조 원),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2.6조 원), 부동산업(2.6조 원) 등의 순임
- 반도체 중심의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2차전지 중심의 화학제품 등 대기업이 포진해 있는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의 부가가치 집중도(CR2¹³⁾)가 32.1%에 달하고 있음
- 산업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이 19.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광업(13.4%), 건설업(12.6%),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제조업(9.7%),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제품 제조업(8.8%), 금융 및 보험업(8.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1%) 등도 높은 성장세를 시현
- 반면, 목재종이인쇄 및 복제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 제조업,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등은 부가가치가 오히려 감소
- 산업 규모를 감안한 산업별 경제성장 기여도를 살펴보면,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이 3.89%p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석탄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0.90%p), 건설업(0.79%p),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제품 제조업(0.43%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0.24%p), 금융 및 보험업(0.24%p), 교육서비스업(0.17%p) 등도 충청북도의 경제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
- 부가가치 증가율(6.47%)에 대한 제조업의 성장기여도는 4.89%p로, 그 기여율이 75.5%에 달하고 있는 반면,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서민형 서비스업은 부진한 모습

13) 하나의 산업 또는 시장에서의 시장집중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이를 통해 특정 산업에서 기업 간 시장구조가 경쟁적인지 혹은 독점적 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위 3개사 시장점유율 합계를 나타내는 CR3가 쓰임(CR3가 75% 이상이면 과점으로 해석)



〈그림 III-3-10〉 충청북도의 산업별 부가가치, 성장기여도

〈표 III-3-10〉 충청북도의 산업별 부가가치

(단위 : 조 원, %)

구분		2017년	2018년	비중	증감률	성장기여도
총부가가치		62.0	60.8	100.0	6.47	6.47
농림어업	농업, 임업 및 어업	4.8	1.9	3.1	-1.2	-0.04
광업	광업	57.1	0.2	0.4	13.4	0.05
제조업	제조업	1.9	29.9		10.3	4.89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0.2	2.6	4.2	-1.6	-0.07
	섬유의복 및 가죽제품 제조업	27.1	0.3	0.5	-1.3	-0.01
	목재종이인쇄 및 복제업	2.6	0.8	1.3	-0.2	-0.00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제조업	0.3	5.8	9.6	9.7	0.90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0.8	3.7	6.0	-6.2	-0.42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	5.3	13.7	22.5	19.4	3.89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제품 제조업	3.9	3.0	5.0	8.8	0.43
SO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1.5	0.5	0.8	2.9	0.02
	건설업	2.8	4.0	6.6	12.6	0.79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0.5	2.2	3.6	1.1	0.04
	운수 및 창고업	3.6	1.5	2.5	5.3	0.13
	숙박 및 음식점업	2.2	1.1	1.8	2.2	0.04
	정보통신업	1.4	0.7	1.2	3.6	0.04
	금융 및 보험업	1.0	1.9	3.1	8.0	0.24
	부동산업	0.7	2.6	4.2	1.5	0.07
	사업서비스업	1.7	2.9	4.7	-8.1	-0.4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5	4.7	7.6	1.9	0.15
	교육서비스업	3.1	3.2	5.2	3.1	0.1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4.6	2.1	3.5	7.1	0.24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3.1	1.6	2.6	2.1	0.06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

□ 산업별 특화도

○ 산업별 특화도를 분석한 결과, 2018년을 기준으로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3.26), 광업(2.85),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2.37),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제조업(1.73), 농업, 임업 및 어업(1.59), 목재종이인쇄 및 복제업(1.5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1.31), 건설업(1.2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21), 교육서비스업(1.00) 등 제조업과 전통산업을 중심으로 특화되어 있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비교우위는 열악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음

- 광업(0.41), 건설업(0.15),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0.15),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제조업(0.05),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제품 제조업(0.02) 등은 전국에 비해 부가가치가 빠르게 증가하며 특화도가 높아지고 있음
- 반면, 사업서비스업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서비스업은 비특화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특화도 또한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

〈표 III-3-11〉 충청북도의 산업별 특화도

(단위 : p)

구분		특화도	변동
총부가가치		1.00	0.00
농림·어업	농업, 임업 및 어업	1.59	-0.10
광업	광업	2.85	0.41
제조업	제조업	1.69	0.05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3.26	-0.22
	섬유·의복 및 가죽제품 제조업	0.55	-0.02
	목재종이인쇄 및 복제업	1.58	-0.06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제조업	1.73	0.05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1.31	-0.10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	2.37	0.15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제품 제조업	0.77	0.02
SO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0.36	-0.01
	건설업	1.22	0.15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0.45	-0.02
	운수 및 창고업	0.70	-0.01
	숙박 및 음식점업	0.75	-0.02
	정보통신업	0.24	-0.01
	금융 및 보험업	0.52	-0.01
	부동산업	0.53	-0.02
	사업서비스업	0.51	-0.0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21	-0.06
	교육서비스업	1.00	-0.0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0.74	-0.03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0.91	-0.03

주 : 실질부가가치 기준의 추정치이며, 변동은 2017년 대비 2018년의 특화도 변화를 의미함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 (2019년 12월 23일 공표)



□ 산업별 노동생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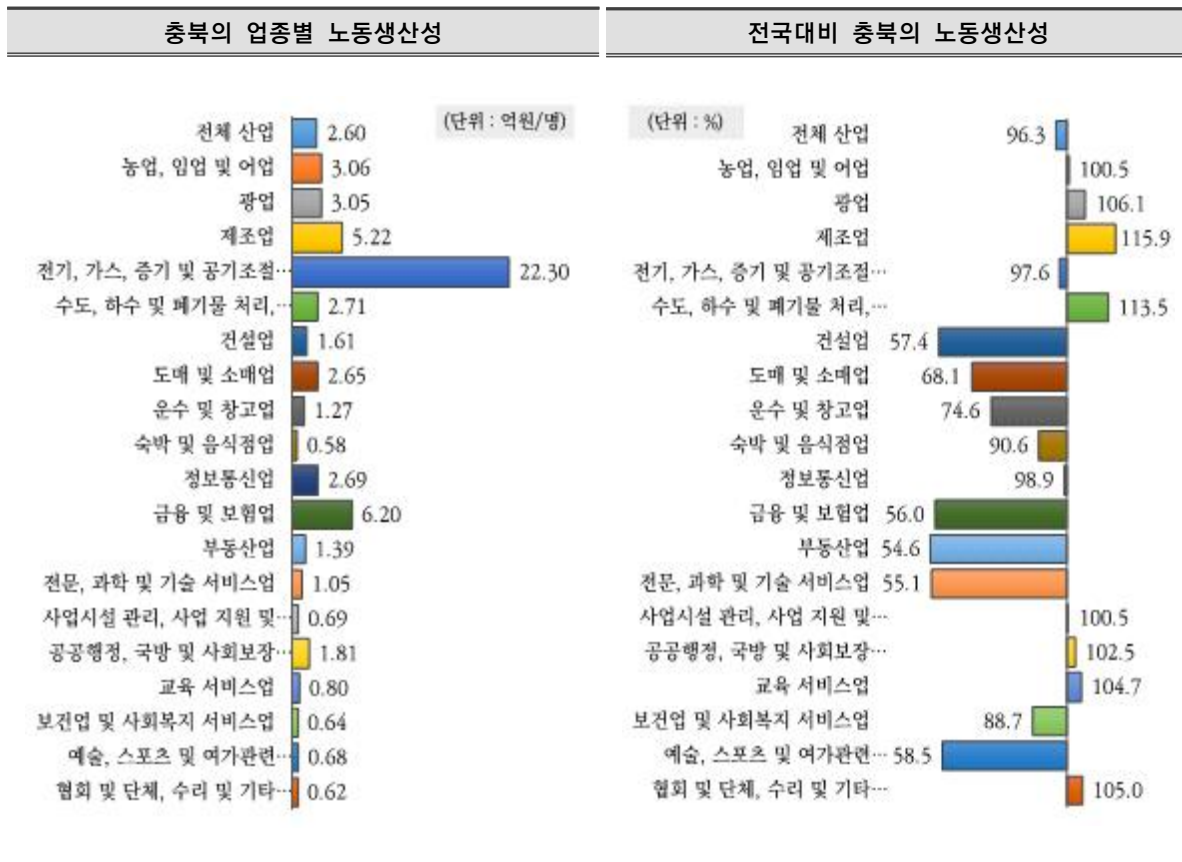
- 충청북도의 1인당 매출액(노동생산성)은 2.6억원으로 전국(2.7억원) 평균을 하회하고 있음
- 부동산업(54.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55.1%), 금융 및 보험업(56.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58.5%), 정보통신업(98.9%)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과 도매 및 소매업(68.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8.7%), 숙박 및 음식점업(90.6%) 등 서민밀착형 전통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있음
- 사업서비스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전통 주력산업의 생산성 향상이 필요함
 - 사업서비스업은 다른 기업체의 효율성 혹은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여타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산업으로 지식기반 경제가 가속화되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표준산업분류에서는 연구개발업(7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3), 사업지원서비스업(75)으로 분류하고 있음

〈표 III-3-12〉 전국 및 충청북도의 노동생산성

(단위 : 억 원, %)

업종	전국(A)	충청북도(B)	(B-A)	전국=100
전체 산업	2.70	2.60	-0.10	96.3
농업, 임업 및 어업	3.04	3.06	0.02	100.5
광업	2.88	3.05	0.18	106.1
제조업	4.50	5.22	0.72	115.9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2.86	22.30	-0.56	97.6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38	2.71	0.32	113.5
건설업	2.81	1.61	-1.20	57.4
도매 및 소매업	3.89	2.65	-1.24	68.1
운수 및 창고업	1.70	1.27	-0.43	74.6
숙박 및 음식점업	0.64	0.58	-0.06	90.6
정보통신업	2.72	2.69	-0.03	98.9
금융 및 보험업	11.07	6.20	-4.87	56.0
부동산업	2.55	1.39	-1.16	54.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91	1.05	-0.86	55.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0.68	0.69	0.00	100.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76	1.81	0.04	102.5
교육 서비스업	0.77	0.80	0.04	104.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72	0.64	-0.08	88.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16	0.68	-0.48	58.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0.59	0.62	0.03	105.0

주 : 노동생산성은 원래 1인당 부가가치를 의미하나, 자료의 부재로 인해 1인당 매출액을 대리변수로 활용하였음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



〈그림 Ⅲ-3-11〉 전국 및 충청북도의 노동생산성

□ 대외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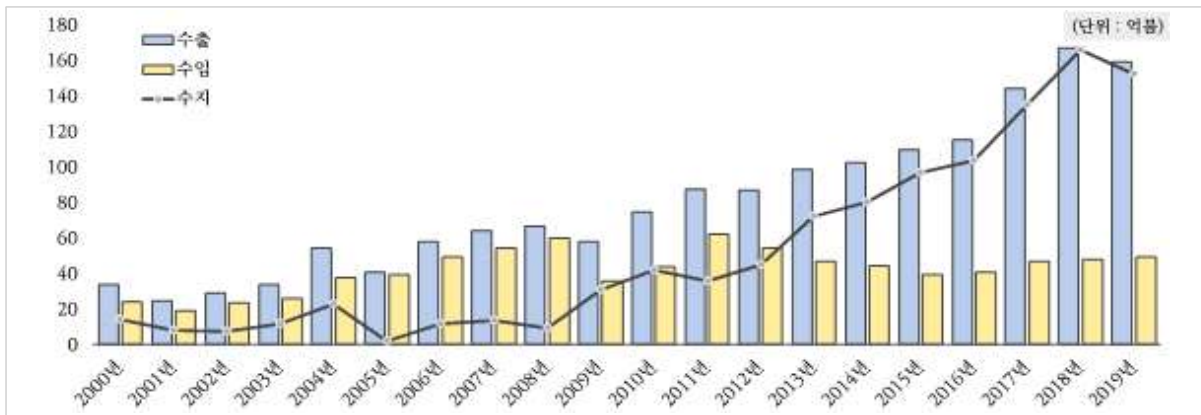
- 2019년 충청북도의 수출액은 221억 달러로 2018년(232억 달러) 대비 5.0% 감소한 반면, 수입액은 69억 달러로 2018년(67억 달러) 대비 소폭 증가하였음
- 수출은 전국대비 3.8%를, 수입은 전국대비 1.2%를 차지하고 있음

〈표 Ⅲ-3-13〉 충북의 수출입 현황

(단위 : 억불, %)

년월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01년	34.5	-27.3	26.8	-19.2	7.7
2005년	56.6	-24.9	54.9	4.6	1.7
2010년	103.3	27.8	61.2	23.2	42.1
2015년	152.1	7.1	55.1	-10.9	97.0
2016년	160.0	5.2	56.6	2.8	103.4
2017년	200.0	25.0	65.0	14.9	135.0
2018년	232.3	16.2	66.8	2.7	165.6
2019년	220.8	-5.0	68.8	3.1	152.0

자료 : 한국무역협회, 지자체별 수출입



〈그림 III-3-12〉 충북의 수출입 현황

I 문제점

□ 제조업 기반의 편중된 산업구조

- 제조업은 충북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외부시장 의존적 특성으로 인해 경기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신흥국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제조업 주도의 성장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임
- 충북경제가 3% 프레임을 탈피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팩토리의 확산, 혁신 기반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 특정 제조업 분야에 대한 높은 성장 의존도

- 충청북도는 반도체 중심의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2차전지 중심의 화학제품 등 대기업이 포진해 있는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의 부가가치 집중도(CR2)가 32.1%에 달하고 있음
- 또한 부가가치 증가율(6.47%)에 대한 제조업의 성장기여도는 4.89%p로, 그 기여율이 75.5%에 달하고 있는 반면,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서민형 서비스업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경기변동에 대한 위험 분산력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 조선 및 자동차 등 제조업 일변도의 성장동력을 지니고 있던 전북 군산, 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등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음
- 충청북도가 4차 산업혁명을 위시한 산업 트렌드의 대변혁(Big Bang)에 대응하는 동시에 경기변동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비교우위에 있는 충북형 미래 유망산업을 설정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성장동력을 다각화해야만 함

□ 특정 제조업 및 전통산업 중심의 특화에 따른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부문의 열악한 비교우위, 제조업 등 소수 업종을 제외하면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낮은 노동생산성

○ 충청북도는 특정 제조업과 전통산업을 중심으로 특화되어 있는 반면, 사업서비스업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서비스업은 비특화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특화도도 낮아지고 있어 경쟁력을 지닌 특화분야가 취약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음

- 사업서비스는 다른 기업체의 경영 효율성 혹은 전문성을 제고하는 업무를 통칭하는데, 자체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여타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산업인 사업서비스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과 혁신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 지식기반 경제가 가속화되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으로 구분됨

□ 특정 국가 및 품목에 편중되어 있는 대외거래

○ 2019년 기준 충청북도의 주요 7대 교역국에 대한 무역집중도(CR7)는 78.4%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의 31.4%, 수입의 35.6%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음

- 수출국 CR7 80.8% : 중국(69.3억 불, 31.4%), 홍콩(45.3억 불, 20.5%), 미국(17.9억 불, 8.1%), 베트남(15.0억 불, 6.8%), 일본(11.3억 불, 5.1%), 폴란드(10.3억 불, 4.6%), 대만(9.3억 불, 4.2%)

- 수입국 CR7 71.0% : 중국(24.5억 불, 35.6%), 일본(10.0억 불, 14.5%), 미국(7.5억 불, 10.8%), 베트남(3.9억 불, 5.6%), 독일(3.1억 불, 4.5%), 대만(2.6억 불, 3.8%), 말레이시아(1.1억 불, 1.6%)

〈표 III-3-14〉 충청북도의 국가별 교역

(단위 : 억\$, %)

구분	수출입금액	비중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지
계	289.6	100.0	220.8	68.8	152.0
중국	93.8	32.4	69.3	24.5	44.7
홍콩	45.7	15.8	45.3	0.3	45.0
미국	25.3	8.7	17.9	7.5	10.4
베트남	18.8	6.5	15.0	3.9	11.1
일본	21.2	7.3	11.3	10.0	1.3
폴란드	10.4	3.6	10.3	0.1	10.1
대만	11.9	4.1	9.3	2.6	6.7

주 : 한국무역협회, 지자체별 수출입

○ 2019년 기준 충청북도의 주요 7대 품목에 대한 무역집중도(CR7)는 69.9%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의 35.3%, 수입의 13.4%가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음



- 수출품목 CR7 69.9% : 반도체(77.8억 불, 35.3%), 건전지 및 축전지(22.8억 불, 10.3%), 플라스틱 제품(14.9억 불, 6.8%), 광학기기(12.8억 불, 5.8%), 전력용기기(10.2억 불, 4.6%), 컴퓨터(8.3억 불, 3.7%), 정밀화학원료(7.4억 불, 3.3%)
- 수입품목 CR7 26.7% : 반도체(9.2억 불, 13.4%), 정밀화학원료(6.3억 불, 9.1%), 동제품(4.7억 불, 6.8%), 합성수지(2.4억 불, 3.5%), 플라스틱 제품(2.0억 불, 2.9%), 알루미늄(2.0억 불, 2.9%), 기타화학공업제품(1.9억 불, 2.8%)

〈표 III-3-15〉 충청북도의 품목별 교역

(단위 : 억 불, %)

구분	수출입금액	비중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지
계	289.6	100.0	220.8	68.8	152.0
반도체	87.1	30.1	77.8	9.2	68.6
건전지 및 축전지	23.0	7.9	22.8	0.1	22.7
플라스틱 제품	17.0	5.9	14.9	2.0	12.9
광학기기	13.0	4.5	12.8	0.2	12.6
전력용기기	10.6	3.7	10.2	0.4	9.8
컴퓨터	8.3	2.9	8.3	0.1	8.2
정밀화학원료	13.7	4.7	7.4	6.3	1.1

주 : 한국무역협회, 지자체별 수출입

2) 여건분석 및 전망

I SWOT 분석

- 충청북도는 경제발전에 대한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바탕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해오고 있으며, 국가 균형발전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강호축 개발이 확정됨에 따라 국토 내륙 신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미래기술 융복합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바이오, 태양광 산업 등이 집적되어 있고, 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미래 신산업 기반 클러스터가 구축되어 있음
- 반면, 소규모 지역경제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경기변동성이 높고, 지역 내 불균형 발전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미래 신산업과 관련된 계획이 부재하고 R&D 역량 및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이므로 미래 신산업의 융복합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성장기반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표 III-3-16〉 SWOT 분석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성장에 대한 지자체의 확고한 의지 • 전국 최고 수준의 경제성장률 시현 • 국토내륙 신산업 핵심 거점지로 부각 • 미래기술 융합을 위한 기반 주력산업(반도체, 바이오, 태양광 등)의 집적 • 바이오 중심의 미래 신산업 기반 클러스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지역경제로 인한 기저효과에 따른 높은 경기변동성 • 지역경제의 불균형 발전 구조 고착화 • 제조업 일변도의 취약한 산업구조 • 연관 전후방산업의 집적 미흡 • 상대적으로 열악한 R&D 역량 및 인프라 • 지능정보화사회에 대응한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취약한 경쟁력
기회(O) ⇒ 포착	위협(T) ⇒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산업 및 신기술에 대한 정부의 투자 및 지원 확대 • 4차 산업혁명 확산에 따른 ICT산업과의 융합수요 급증 •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바이오산업의 성장 가속화 전망 • 소비자 기호의 다양화로 인한 신시장 창출 가능 • 미래 신산업의 특성에 따른 공간제약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 미래 신산업 육성 관련 지자체 간 경쟁 심화 • 신흥국과의 경쟁 심화 •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투자유치 애로 •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인한 교역여건의 불확실성 확대 • 연구개발투자 격차 심화에 따른 지역별 기술역량의 양극화 심화

I 여건전망

□ 충청북도 산업육성정책의 추이

- 지역의 산업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정책수단은 지역산업 육성, 산업단지 혁신 및 지역투자촉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역산업육성정책의 내용과 범위가 확장·변화되고 있음
- 2000년 이후 충청북도 산업정책은 지역균형발전 산업정책 전개기(2002~2012년), 지역특화기반 산업육성의 과도기(2013~2014년), 지역주도의 산업육성정책 추진 정착기(2014~2018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지역균형발전 산업정책의 전개기(2002~2012년)
 - 충북전략산업육성사업
 - 지역전략산업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기반 정비, 지역특화센터 지원 등 하드웨어 사업에 집중
 - 1단계 : 바이오, 반도체, 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 등 충북의 4대 전략산업 육성
 - 2단계 : 전략산업(기술개발, 기술지원, 마케팅, 인력양성)과 특화산업(RIC, RIS)으로 이원화
 - 충청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 단기성과(3년 이내 사업화) 중심의 사업들로 구성, 지역기업에 대한 우수인력 양성·공급
 - 1단계 : NewIT 산업(차세대무선통신, 그린반도체), 의약바이오산업(의약바이오허브연계, 신약실용화)
 - 2단계 : 미래성장동력산업(의약바이오, 차세대에너지), 대표주력산업(융합전자기기, 융합기계부품)
- 지역특화기반 산업육성의 과도기(2013~2014년)
 - 충북특화산업육성사업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용창출 극대화에 주력
 - 지역특화사업은 지역경제 전반을 견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바, 이후 연고자원 위주의 지역주력·연고산업, 뿌리산업, 문화융합 생활산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등으로 개편
- 지역주도 산업육성정책 추진의 정착기(2014~2018년)
 - 충청북도 지역산업발전계획
 - 지역산업정책 및 대내외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주력산업(주력사업), 경제협력권산업(시도 간 경제협력권사업), 연고산업(연고사업) 등 지역 대표산업 전체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위한 5년간('14~'18년)의 기본방향을 제시
 - 주력산업 : 시도단위에서 육성하여 지역 내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역 내 핵심 중추산업
 - 경제협력권산업 : 산업생태계, 산업클러스터 등이 시도의 경계를 넘어 분포하여 개별 육성보다 시도 간 협력육성이 더 효과적이고, 시도 주력산업을 기반으로 IT, SW, 지식서비스(디자인, 콘텐츠)와의 융합을 통하여 주력산업의 성장 동력화를 촉진할 수 있는 융합형 산업

○ 6+3 신성장산업 및 미래유망산업 선정

- 2016년 3월 충북경제 성장동력 발굴, 투자유치 전략 수립, 기반인프라 구축 등 산업정책 재정립을 통해 충북경제 4% 조기달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
- 정부 또는 민간 전문기관 발표 신성장동력산업과의 연계성, 지역자원, 산업기반 등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진 산업분야, 충북 산업정책에 부합하며 장기적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산업, 타 산업에 파급효과가 크고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산업, 대규모 실적 창출과 함께 충북경제 4%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 등을 고려하여 충북경제 4% 시대 구현을 견인할 중점 육성산업으로 6대 신성장산업과 3대 미래 유망산업을 선정
- 6대 신성장산업 : 바이오산업, 태양광·신에너지산업, 화장품·뷰티산업, 유기농산업, 신교통·항공산업, ICT융합산업
- 3대 미래유망산업 : 기후·환경산업, 관광·스포츠산업, 첨단형 뿌리기술산업



〈그림 III-3-13〉 6대 신성장산업 및 3대 미래유망산업

□ 사람중심으로의 산업패러다임 전환

-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기존의 양적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은 급변하는 미래환경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제한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신기술 도입의 확산, 과학기술 혁신 속도의 가속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은 산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성장중심 패러다임이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 중심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III-3-14〉 산업경제부문 정책패러다임 전환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새로운 혁신창출의 가속화

- 클라우드 기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적 변화동인과 산업환경 및 업무방식의 변화,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사회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 동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제4차 산업혁명이 태동하게 되었음
- 과학기술의 급격한 진보, 제조업의 서비스화, 초연결사회의 도래,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플랫폼 경제의 도래, 기업의 모듈화, 스마트공장의 확산 등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향후에는 새로운 혁신의 창출이 가속화되고 신산업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됨
 - 제조업의 서비스화 :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의 혁신기술이 접목되면서 제조와 서비스가 융합
 - 초연결사회의 도래 : 사람, 프로세스, 데이터, 사물 등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사물 스스로 정보를 교환하고 통제
 -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 네트워크를 통한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
 - 플랫폼 경제의 도래 :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수요·공급을 연계
 - 혁신플랫폼(Innovation Platforms) : 플랫폼의 보완적 기술과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 유통,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예 : 구글, 애플 안드로이드, iOS 등)
 - 거래플랫폼(Transaction Platforms) : 사용자들 간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를 수반하는 플랫폼 (예 : 아마존, 알리바바, 우버 등)
 - 통합플랫폼(Integrated Platforms) : 혁신플랫폼과 거래플랫폼이 통합된 플랫폼 (예 : 구글, 아마존, 알리바바 등)
 - 투자플랫폼(Investment Platforms) : 여행, 음식 등과 같이 특정 주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 및 관리를 하는 지주회사 성격의 플랫폼 (예 : 프라이스라인, 오픈테이블 등)

〈표 Ⅲ-3-17〉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 플랫폼의 종류

구분	내용
혁신플랫폼 (Innovation Platforms)	• 플랫폼의 보완적 기술과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 유통,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예 : 구글, 애플, 안드로이드, IOS 등)
거래플랫폼 (Transaction Platforms)	• 사용자들간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를 수반하는 플랫폼 (예 : 아마존, 알리바바, 우버 등)
통합플랫폼 (Integrated Platforms)	• 혁신플랫폼과 거래플랫폼이 통합된 플랫폼 (예 : 구글, 아마존, 알리바바 등)
투자플랫폼 (Investment Platforms)	• 여행, 음식 등과 같이 특정 주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 및 관리를 하는 지주회사 성격의 플랫폼 (예 : 프라이스라인, 오픈테이블 등)

- 기업의 모듈화 진행 : 기업의 생산 및 관리활동에 지능정보기술이 적용되면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의 기능 표준화가 촉진됨에 따라 개별기업이 기업활동 전반을 수행하던 형태에서 표준화된 기능별 전문기업이 등장
- CPS(사이버물리시스템) 기반의 스마트공장 확산 : 설계·개발, 제조 및 유통·물류 등 생산 과정에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된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여 생산성, 품질,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생산공장
- 이에 따라 원가절감을 위해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했던 기존 노동집약적 제조업 부문의 리쇼어링 현상이 확대되고 향후 유통기업의 증가가 예상됨

〈표 Ⅲ-3-18〉 기존의 노동집약 제조공장과 스피드팩토리 비교

구분	기존 노동집약 제조공장	스피드팩토리
공정 소요시간	생산에서 배송까지 수주 이상	생산에서 배송까지 1일 이내
공장입지	저임금 근로자 공급 중심	수요자 중심
주요 생산수단	저임금 인력	로봇, 3D프린터 등
근로자 규모	수십만명의 생산 근로자	재료관리 및 자동화시스템 운영 인력
재고 부담	매장 진열 등 1년 이상 재고 부담	주문 후 즉시 제작으로 재고 없음
물류 비용	높은 유통, 물류, 홍보비용 부담	물류비용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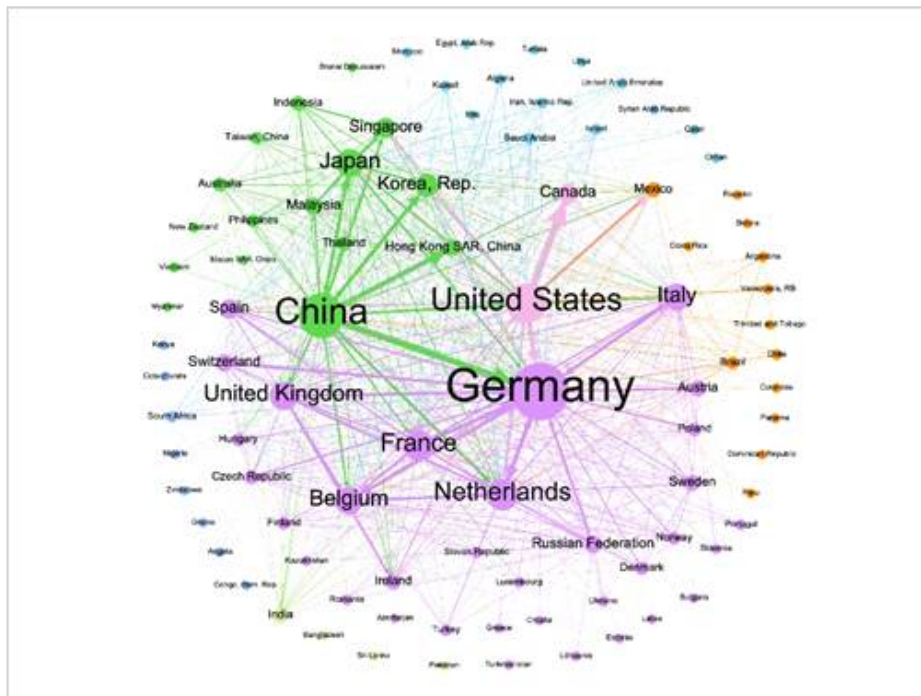
○ 한편, 새로운 혁신이 기존 산업의 붕괴 및 신산업의 출현 등을 야기함에 따라 예상치 못한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이 생성되어 불확실성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모바일 On-Demand 기반의 공유경제 확산

-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 등이 온라인 또는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 즉각적으로 제공되는 온디맨드 경제(On-Demand Economy) 시스템이 정착되고, 네트워크 기반의 초연결 사회가 도래하면서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개방형 혁신 비즈니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모든 유무형가치를 공유하고 자원을 공동으로 소비하는 공유경제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 스마트폰 등장 이후 온라인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확인·결재하고 오프라인에서 구매 또는 사용하는 현상인 웹루밍(Webrooming)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처럼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방식인 O2O 서비스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숙박앱 서비스, 모바일 배달 주문 서비스, 택시 호출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O2O 서비스에 해당
- 한편, 공유경제는 필요에 따라 임시로 계약을 맺은 후 업무를 맡기는 독립형 일자리 경제로서의 킥 이코노미(Gig economy)와 온디맨드 경제의 융합분야에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의 대두

- 최근의 COVID-19 사태는 글로벌화에 제동을 걸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실익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신보호주의(Neo-protectionism) 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탈세계화(Deglobalization) 및 자국 내 또는 지역적 가치사슬(Local value chain, LVC)의 확대 등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에 관한 재평가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음



출처: World Bank, UNCTAD-EORA database

〈그림 III-3-15〉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국가 네트워크(2019년 기준)

□ 글로벌 제조기업들의 리쇼어링 현상 가속화

- 글로벌화가 기업이 생산비용이 낮은 국가로 이동해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을 극대화시켰으나, COVID-19 사태는 글로벌 공급망 수급여건의 악화에 따른 각종 차질을 야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해외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기업들이 본국으로 회귀하는 리쇼어링(Reshoring)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3) 추진과제

□ 미래 대응형 첨단 성장기반 구축

-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의 여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미래대응형 첨단 성장기반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도모
-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대한 재평가 확대에 따른 리쇼어링(니어쇼어링) 분위기 확산, 경자구역에 대한 인식 변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 기존 주력산업의 혁신역량 강화

- 기존 주력산업과 첨단산업 간 융복합 기반 마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 기존 주력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국가 경제성장의 전진기지로 육성
- 기업지원수요 조사분석을 통해 업종 및 기업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관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혁신형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약 발판 마련
- 집적화되어 있는 지원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재정비를 통한 R&D 지원 확대

□ 산업구조 고도화 및 성장동력의 다각화

- 제조중심적 사고에서의 탈피를 통해 안정적인 지속적 성장 도모
- 충청북도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제조업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으로 인해 경기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신흥국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제조업 주도의 성장이 한계 직면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첨단산업과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발현으로 인해 급성장이 예상되는 서비스 부문을 전략적 육성이 필요함으로써 산업구조 고도화
- 제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지식기반서비스업과의 연계를 통해 New Business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성장동력의 다변화 모색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 각종 환경변화와 충청북도의 특성을 감안한 충북형 미래 신산업 분야의 발굴 및 전략적 육성을 통해 다가올 미래사회에 대한 효율적 대응시스템 구축
- 특히 4차~N차 산업혁명, 저성장 고착화, 고령화 심화, Post COVID 비대면 경향 확산 등에 따라 글로벌 메가트렌드 및 산업패러다임의 변화 예상
- 수도권·세종·대전권·충부내륙권·백두대간권 등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순환 산업생태계 구축
- 산업 내-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혁신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 기반 마련

□ 지역 불균형 발전 및 양극화 해소

- 역량을 결집하여 더욱 풍요로워지고, 그 과실을 도민 모두가 함께 나누는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지역 불균형 발전 및 양극화 해소 방안 모색
- 상생형 지역 경제발전 모델의 기획·발굴, 시군별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적 불균형 발전 해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

〈표 III-3-19〉 연고산업과 신산업이 조화로운 경제강도(經濟強道) 실현을 위한 추진사업

전 략 명	과 제 명	단기 (20~25)	중기 (26~30)	장기 (31~40)	비고
연고산업과 신산업이 조화로운 경제강도 (經濟強道) 실현	1. 충북형 미래유망산업 발굴 및 육성				
	2. 산업단지 환경개선 충북도 공모사업 추진				
	3. 충북 K-코스뷰텍 비즈타운 조성				
	4. 사이언스 아카데미 빌리지 조성				
	5.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6. 뉴로모픽 기반 인공지능지원센터 구축				
	7. 차세대 정밀진단 플랫폼 제품화 지원센터 구축				
	8.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				
	9. 인체삽입형(고정밀) 바이오 3D프린팅 기술개발				
	10. 충주 지식산업센터 건립				
	11. 수소인프라 구축을 통한 수소산업 육성				
	12. 수소산업 기반 규제자유특구 조성				
	13.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				
	14.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조성사업				
	15. 바이오헬스 기술지원센터 건립				
	16.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RLRC) 구축				
	17. 반려동물 연구·지원센터 건립				
	18.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				
	19. 와인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20.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				
	21. 영동양수발전소 건설				
	22.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23. 투자기업산단형 행복주택 건립 지원				
	24. 과산첨단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				
	25.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조성				
	26. 에너지 산학융합지구 조성				
	27. 태양광기반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				
	28. 뷰티헬스 종합지원센터 구축 및 특화산업단지 조성				



전 략 명	과 제 명	단기 (20~25)	중기 (26~30)	장기 (31~40)	비고
연고산업과 신산업이 조화로운 경제강도 (經濟強道) 실현	29. 에코밸리 친환경 농공단지 조성				
	30. 맞춤형 메디푸드 산업육성 기반 구축				

〈표 III-3-20〉 연고산업과 신산업이 조화로운 경제강도(經濟強道) 실현을 위한 시군계획지침

※ 시·군 계획지침

- 시·군은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술 및 산업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 특화 산업경제계획을 수립한다.
- 단지 조성 등 하드웨어 사업 조성 시 환경성(환경영향평가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시·군은 경제·산업 분야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 지역과의 연계협력 방안을 강구한다.
- 시·군은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후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을 정비하는 통합 재생 및 스마트화 방안을 강구한다.
- 시·군은 행·재정적 여건으로 인해 개별적인 사업 집행·추진이 어려운 경우 인접 시군과 연계하여 통합 계획 수립 및 공동추진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3절 뉴트렌드의 친환경, 융복합 농산업 기반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I 현황

□ 충북의 시·군별 재배면적

- 충청북도의 시·군별 재배면적은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 순으로 넓은 반면, 증평군과 단양군은 재배면적이 미미했음
- 논 재배면적은 청주시가 10,240ha로 전체의 26.5%를 차지하고 있음
- 밭 재배면적은 충주시, 음성군, 괴산군 순이며, 논 재배면적 분포에 비해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표 III-3-21〉 2018 충북 시·군별 경지면적

(단위 : ha, %)

행정구역	전체 경지		논		밭	
	경지면적	비율	경지면적	비율	경지면적	비율
충북	102,870	100.0	38,613	100.0	64,257	100.0
청주시	16,934	16.5	10,240	26.5	6,694	10.4
충주시	13,747	13.4	5,324	13.8	8,423	13.1
제천시	9,559	9.3	2,280	5.9	7,278	11.3
보은군	8,494	8.3	4,061	10.5	4,432	6.9
옥천군	7,369	7.2	2,052	5.3	5,317	8.3
영동군	8,710	8.5	1,171	3.0	7,539	11.7
진천군	7,555	7.3	4,526	11.7	3,028	4.7
괴산군	10,897	10.6	3,098	8.0	7,799	12.1
음성군	12,615	12.3	4,468	11.6	8,147	12.7
단양군	4,987	4.8	310	0.8	4,677	7.3
증평군	2,005	1.9	1,082	2.8	923	1.4

자료 :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B002&conn_path=13



□ 주요 작목 재배현황

○ 충청북도는 각 권역별로 재배하는 농산물 특징이 상이함

- 북부권은 사과를 중심으로 한 과수작목과 약용작물을 주로 재배하고 있음
- 중부권은 벼농사를 중심으로 수박·인삼 등의 밭 작목을 재배하고 있으며, 벼농사 비중이 다른 권역에 비해 높은 편임
- 남부권은 복숭아, 포도 등의 과수작목을 중심으로 재배하고 있음

〈표 Ⅲ-3-22〉 2018년 충청북도 북부권역 재배면적 상위 5개 작목

(단위 : ha)

순위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작목	재배면적	작목	재배면적	작목	재배면적
1	벼	4,548	벼	1,417	콩	944
2	사과	1,359	콩	993	건고추	435
3	복숭아	1,185	사과	553	들깨	258
4	밤	1,112	들깨	420	사과	242
5	콩	938	건고추	334	벼	20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http://uni.agrix.go.kr/docs7/biOlap/dashBoard.do>

〈표 Ⅲ-3-23〉 2018년 충청북도 중부권역 재배면적 상위 5개 작목

(단위 : ha)

순위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작목	재배면적	작목	재배면적	작목	재배면적	작목	재배면적	작목	재배면적
1	벼	9,435	벼	955	벼	4,126	벼	2,280	벼	4,323
2	들깨	645	인삼	100	수박	771	콩	1,456	복숭아	1,241
3	콩	628	콩	84	콩	184	옥수수	1,316	수박	1,135
4	건고추	579	옥수수	72	오이	182	인삼	682	콩	619
5	옥수수	467	건고추	60	인삼	176	사과	537	인삼	487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http://uni.agrix.go.kr/docs7/biOlap/dashBoard.do>

〈표 Ⅲ-3-24〉 2018년 충청북도 남부권역 재배면적 상위 5개 작목

(단위 : ha)

순위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작목	재배면적	작목	재배면적	작목	재배면적
1	벼	3,608	벼	1,832	복숭아	1,252
2	대추	608	들깨	505	벼	1,214
3	인삼	534	복숭아	481	포도	951
4	콩	513	콩	469	호두	658
5	사과	504	인삼	344	뽕은감	574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http://uni.agrix.go.kr/docs7/biOlap/dashBoard.do>

□ 가축별 농가수 현황

- 충청북도의 가축별 농가수는 한우(5,666호)를 사육하는 농가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산란계(1,157호)를 사육하는 농가가 많았음
- 충청북도의 가축별 농가수 현황은 전국의 추이와 크게 다르지 않고 비슷했음
- 다만, 전국에서 충청북도가 차지하는 비율을 봤을 때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가 9.3%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반면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는 5.6%로 낮은 비율을 보였음

〈표 Ⅲ-3-25〉 2019 가축별 농가수

(단위 : 호, %)

가축	전국	충청북도	
	가구수	가구수	전국 대비 비율
한우	89,616	5,666	6.3
육우(젓소수컷 포함)	7113	368	5.2
젓소암컷	6232	327	5.2
돼지	6133	341	5.6
육계	1508	117	7.8
산란계	963	73	7.6
오리	486	45	9.3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A1019&conn_path=I3

□ 경영주 연령별 농가 현황

- 충청북도의 경영주 연령별 농가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대비 40대 미만과 70대 이상의 비율이 낮음
- 40대 이하 청년농업인의 비율은 전국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으로 청년농업인의 유입이 필요함
- 50~60대의 비중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임
- 70대 이상의 비율은 낮아 타 도에 비해 농업인구의 고령화가 적은 편이나, 60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농업인구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음

〈표 Ⅲ-3-26〉 2018 경영주 연령별 농가수

(단위 : 호, %)

연령	전국		충청북도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30세 미만	624	0.1	50	0.1
30~40대	56,988	5.6	3,442	4.9
50대	186,469	18.3	14,206	20.0
60대	324,101	31.7	25,784	36.4
70세 이상	452,655	44.3	27,393	38.7
합계	1,020,838	100.0	70,874	100.0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A1019&conn_path=I3



I 문제점

□ 농축산식품 소비패턴 변화에 대한 농축산식품 생산 대응 미흡

- 충청북도는 소비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벼 재배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쌀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과잉생산에 대응하여 논을 밭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전략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충청북도는 벼 재배비율이 높음
- 인구변화에 따른 간편식 수요 증가에 대응한 가공식품 개발 미흡
 - 1·2인 가구의 증가와 간편식 수요 증가에 대응한 가공식품 개발과 더불어 제품 포장·마케팅 필요

□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농업노동력 약화

- 현재 충청북도 농촌의 고령화율은 타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나, 청년농업인이 적고 60대 비중이 높아 고령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지역의 농업노동인구 고령화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타 시도에 비해 미흡한 첨단농업 도입

- 충청북도는 스마트팜 농가수가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적고 농업인들의 스마트팜에 대한 이해도도 낮은 편임. 따라서 청년농업인들을 중심으로 한 첨단농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지역 여건에 맞는 충북형 농기계개발은 필요하나, 새로운 농기계 개발에는 연구비, 시간, 성능 시험 등 개발에 제약이 많으며, 시장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모든 지역에 보급할 수 있는 안목에서의 개발보급 필요

□ 국정과제인 국가 푸드플랜 구축과 연계한 지역 푸드플랜 추진 미흡

-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공공급식 확대, 중소농 농가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모든 지자체가 적극 추진 중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충북도는 미흡한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

2) 여건분석 및 전망

I SWOT 분석

-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은퇴를 앞둔 수도권 베이비부머 세대(55세~65세)의 귀농·귀촌을 적극 추진
 - 청정한 환경을 활용한 친환경농축산물 생산 강화
- 충청북도의 특화농산물을 대상으로 하여 스마트팜, 스마트 축사 등 첨단농업을 도입
 - 첨단농업 중심의 청년농업인 육성
- 충청북도 특화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
- 소비자 농축산물 선호에 맞는 새로운 충청북도 특화 농축산물 개발
 - 충청북도 권역별 특징에 맞는 스마트농업 확대
- 소비자 농축산물 선호에 맞는 새로운 충청북도 특화 우수농축산물 개발
- 농산물 수확 등의 농촌체험을 활용한 농촌관광 활성화
- 충청북도 지형에 맞는 수확·무인·자율농기계 및 농업 로봇, 농업용 드론 개발
- 각종 자연재해 및 전염병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기획생산체계 구축
- 지방자치단체 먹거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표 III-3-27〉 SWOT 분석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 중앙에 위치하여 농축산식품 유통 유리 • 청정지역 중심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환경 우수 • 복숭아, 대추, 인삼 등 지역 대표 우수농산품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팜 등 첨단농업 보급 취약 • 일부 산간지 농기계 활용 어려운 지형적 한계 • 논 농업 중심의 농산물 생산체계
기회(O) ⇒ 포착	위협(T) ⇒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귀농·귀촌 증가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ICT결합 농업기술 발달 •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한 수요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업노동력 감소 • 미세먼지, 전염병 등에 의한 농업환경 악화 • FTA 확산에 따른 수입 농식품 증가

I 여건전망

□ 농축산식품 소비패턴 변화

- 1·2인 가구 증가로 인한 농축산식품 소비 변화
 - 1·2인 가구는 신선 농축산물보다는 간편하고 조리가 쉬운 가공·반조리식품을 선호하고 있으며 향후 해당 가구 증가가 더 증폭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간편식에 대한 수요는 더 증가할 것임



○ 농축산식품 소비의 다양화 및 고품질화

- 국민의 건강과 안심 먹거리에 대한 관심 증가로 기존 일반 농산물에서 기능성, 친환경농산물 소비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한식 위주의 식생활에서 양식·일식·중식을 넘어 동남아 국가까지 농축산식품 소비가 다양해지고 있음
- 미세먼지, 각종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욕구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됨

□ 농축산물 유통체계 변화

○ 2010년대는 농축산물 유통이 전통시장에서 대형마트로 전환되었다면 앞으로는 소셜마켓(Social Market)과 오픈마켓(Open Market)에 의한 판매가 확대될 전망이다

- 저장시설과 포장재의 발달로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신선 농축산물의 소셜마켓을 이용한 구매도 증가할 전망

○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

□ 농업노동력의 질적·양적 감소

○ 70대 농업경영주의 비율은 전국평균에 비해 낮지만 60대 비중은 높고 청년농업인(40세 이하) 비중은 낮아, 농업노동력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고강도 농업노동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 첨단기술, ICT가 결합된 첨단농업 발전

○ 스마트팜의 보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개발·보급에 힘쓰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충청북도 제천의 바이오첨단농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기술교육 및 보급을 실시하여, 향후 스마트팜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첨단기술의 접목을 통한 지형·농작업 맞춤형 농기계가 개발될 것임

- 농업용 드론, 자율농기계 등이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충청북도 또한 콩 수확기계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음

□ 지역단위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필요

○ 안전, 건강 등 먹거리의 양적, 질적 보장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지역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전략 및 실행계획으로서의 푸드플랜 수립이 필요

- 전국 6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

3) 추진과제

□ 청년농업인·귀농인 중심의 스마트팜 육성

-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농업에서도 기존의 농업방식에 정보통신이 융합된 최첨단 농업에 대한 개발 및 보급 확산
- 첨단농업의 도입으로 각종 재해 및 전염병을 빠르게 예방할 수 있으며 재배현황 데이터 분석을 통해 효율적 농장경영이 가능함. 미래에는 이러한 첨단농업이 더 활성화할 것이라 예측되며 첨단 농업을 활용한 스마트농업의 확산 지원 필요
 - 충청북도 지형에 맞는 노지·시설 스마트팜 육성
 - 지역의 폐건물을 활용한 고소득 작목 중심의 식물공장 육성
 - 내수면 어업을 중심으로 스마트양식장 육성
 - 축종별 스마트 축사 보급 확대
 - 청년농의 스마트농업 분야 취창업을 위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 첨단산업과 융합한 충북형 농기계 개발

- 농촌인구가 감소하여 절대적 노동력이 부족함과 더불어 고령화됨에 따라 고강도 노동 어려움
- 노동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농기계이지만 충청북도는 북부, 중부, 남부에 따라 농지의 지형이 상이해 고도에 따라 농기계 도입 가능 정도가 다르므로 지형에 대한 고려
- 충청북도 지형별 여건에 맞는 현장 맞춤형 농기계 개발 지원으로 노동력 절감, 안전사고 예방 강화 등을 위한 전략마련
 - 농업용 드론 및 무인·자율주행 농기계 개발 및 보급
 - 고도가 높은 지역의 밭작물 재배를 위한 농기계 개발
 - 이식작업·시비 방제·수확 등 농업용 로봇 개발 및 보급

□ 소셜마켓 및 오픈마켓 판매 확대

- 농가의 농산물 유통비 절감을 통한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산물 직거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소셜마켓(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활동)과 오픈마켓(소셜마켓의 한 종류로 인터넷 통합 판매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활동)에 의한 판매가 확대될 전망으로, 신유통망 도입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 전략 필요
 - 교육을 통해 농가 스스로 유통·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 보급
 - 농축산물 구입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구매패턴 연구
 - ICT 융복합 스마트팜 교육장 설치 및 운영



□ 신성장 거점 기반 확충을 통한 내륙의 신산업거점지역

- 농산물은 기존의 식품으로써의 역할 외에도 정부의 바이오산업 강화정책에 따른 바이오산업의 소재로써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바이오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 소재로의 개발
 -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
 - 바이오·한방산업과 특화연계 한 기능성 바이오작물 첨단 농업단지 육성

□ 융복합농업 확대 지원

- 신선농산물 생산 및 판매로는 농가소득 증대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타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가치창출 필요
- 미래에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식품소비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또한 삶의 질 향상으로 가사에 투입되는 시간을 취미생활 등으로 활용하려는 경향 확대
- 농촌의 평화로운 자연환경에서 새로운 체험을 통해 휴식을 얻기 위한 욕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농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소비자 맞춤형 식품개발 지원이 필요함과 동시에 농사체험(식품 가공 포함)이 가능한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 충청북도 주요 농축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
 - 1·2인 가구 대상 농축산물 소포장 개발
 - 지역특성을 반영한 융복합산업지구 지정

□ 친환경농업 생산단지 및 유통·소비체계 확립

- 각종 전염병과 미세먼지 등의 환경오염에 의한 공포심이 증가하면서 청정한 농식품에 대한 필요성 증대에 따라 충청북도의 청정한 자연을 활용한 친환경 농업 육성
 - 대청댐·충주댐, 단양 등의 청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농업 및 축산 생산단지 개발
 - 로컬푸드 시스템을 활용한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 확립 및 친환경 유기농업에 대한 생산·유통·소비의 선순환체계 구축
 - 친환경농업 가치 홍보와 유기농업을 미래 신성장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국·내외 친환경 농업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주기별 국제행사 개최

□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및 추진

- 소비자의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아 더욱 신선하게 먹을 수 있어 지역농산물에 대한 선호가 커지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효과적인 중복형 푸드플랜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먹거리통합 지원센터 건립 추진
- 먹거리 민관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 생산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을 통한 지역농산물 인식 제고

〈표 III-3-28〉 뉴트랜드의 친환경, 융복합 농산업 기반 확대를 위한 추진사업

전 략 명	과 제 명	단기 (20~25)	중기 (26~30)	장기 (31~40)	비고
뉴트랜드의 친환경, 융복합 농산업 기반 확대	1. 스마트팜 도입 및 지원				
	2. 융복합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사업				
	3. ICT기술 융합 첨단 농업 육성				
	4. 농산물 신유통망 개발 및 교육				
	5. 농촌융복합사업 개발 및 지원				
	6.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확립				
	7.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8. 과수 품종갱신사업				
	9. 먹거리 종합전략 지원				
	10.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				
	11. 악취없는 환경친화형 축산농가 조성				
	12. 광역 계란유통센터 건립				
	13. 과수 안정생산 기반시설 모델과원 조성				
	14. 충북 과수 종합 연구센터 설립				
	15. 생산안정화 기반기술개발 지원				
	16.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17. 농촌체험관 건립사업				
	18. ICT융·복합 스마트팜 교육장 설치 및 운영				
	19.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20. 친환경 농업 미생물 배양센터 시설 확대				
	21. 농촌유학센터설립				
	22. 유기농산업복합센터 조성사업				
	23. 유기농 국제연수원 건립(가칭)				
	24. 괴산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25.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26. 화훼종합단지 및 화훼치유농장 조성				



〈표 III-3-29〉 뉴트렌드의 친환경, 융복합 농산업 기반 확대를 위한 시군계획지침

※ 시·군 계획지침

- 시·군은 농축산식품 소비패턴 변화에 대해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맞는 농축산식품 생산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 시·군은 농축산식품 유통체계 변화에 따라 성장하는 유통채널에 대해 농업인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 시·군은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질적·양적으로 감소한 농업노동력을 회복할 방법을 강구한다.
- 시·군은 첨단기술, ICT가 결합된 첨단농업이 빠르게 보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 시·군은 농축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콘텐츠를 개발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제4절 미래수요 신재생에너지산업 선도지역 육성

1) 현황 및 문제점

I 현황

□ 세계 에너지 수요 및 전망

○ 세계 에너지 수요는 인구 증가, 도시화의 가속, 경제성장 등으로 '17년~'40년 기간 중 2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III-3-30〉 세계 1차 에너지 수요 전망 및 비중

(단위 : MOTE, %)

원별	실적		전망		연 평균 증가율 ('17~ '40)
	'00	'17	'25	'40	
석유	3,665(37%)	4,435(32%)	4,754(31%)	4,894(28%)	0.4%
천연가스	2,071(21%)	3,107(22%)	3,539(23%)	4,436(25%)	1.6%
석탄	2,308(23%)	3,750(27%)	3,768(24%)	3,809(22%)	0.1%
원자력	675(7%)	688(5%)	805(5%)	971(5%)	1.5%
재생에너지	662(7%)	1,334(10%)	1,855(12%)	3,104(17%)	3.6%
계	10,027	13,972	15,388	17,715	1.0%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8, 산업통상자원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재인용, 2019

○ 특히,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는 '40년 기준으로 74%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재생에너지는 '40년까지 1차 에너지 수요 증가분의 약 45%의 비중을 차지하며, '40년 1차 에너지 수요 중 17%(발전량 중 41%)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천연가스는 '40년까지 연평균 1.6%로 증가하여 '30년부터는 1차 에너지 수요 비중이 석유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됨
- 석유는 아직까지 1차 에너지 수요 비중이 가장 크나, 수요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소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석탄은 산업 가정 발전 수요가 가스로 전환되고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서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인도와 동남아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원자력은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이 확대되는 추세이나, OECD 국가의 원자력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국내 에너지 소비 추이('00년 ~ '17년)

○ 국내 총 에너지와 최종 에너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2.7%로 '80~'00년의 연평균 증가율(7.2%)보다 증가율은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에너지 소비는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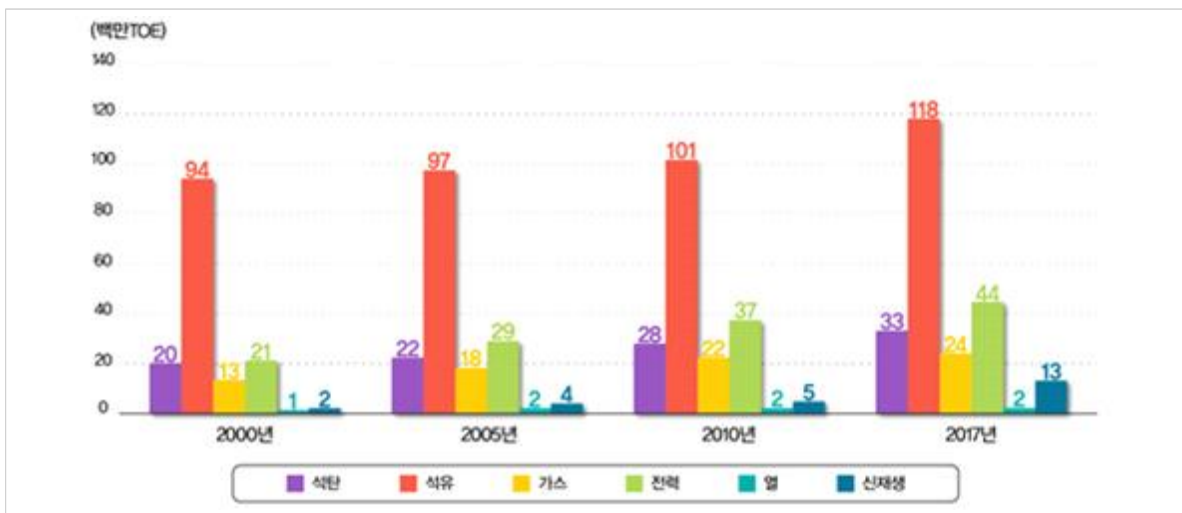
○ 에너지원별 소비량을 보면, 전력, 도시가스, 석탄 등이 최종에너지 소비 증가를 주도하고 있음

- 전력은 연평균 4.5%의 증가세로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며, 도시가스는 배관망 보급 확대로 평균 이상의 증가세(연 3.7%↑)를 기록하였고, 1차 금속 업종 등의 생산 증가로 석탄 소비도 높은 증가세(연 3.2%↑)를 보임

- '90년대 증가율(연 9.8%)에 비하면 최근 전력 소비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양상임

- 석유의 소비는 증가(연 1.3%↑)하였으나, 전체 소비의 비중에서는 62.6%에서 50.4%로 감소함

- 신재생에너지는 '10년대 이후 빠르게 증가함(연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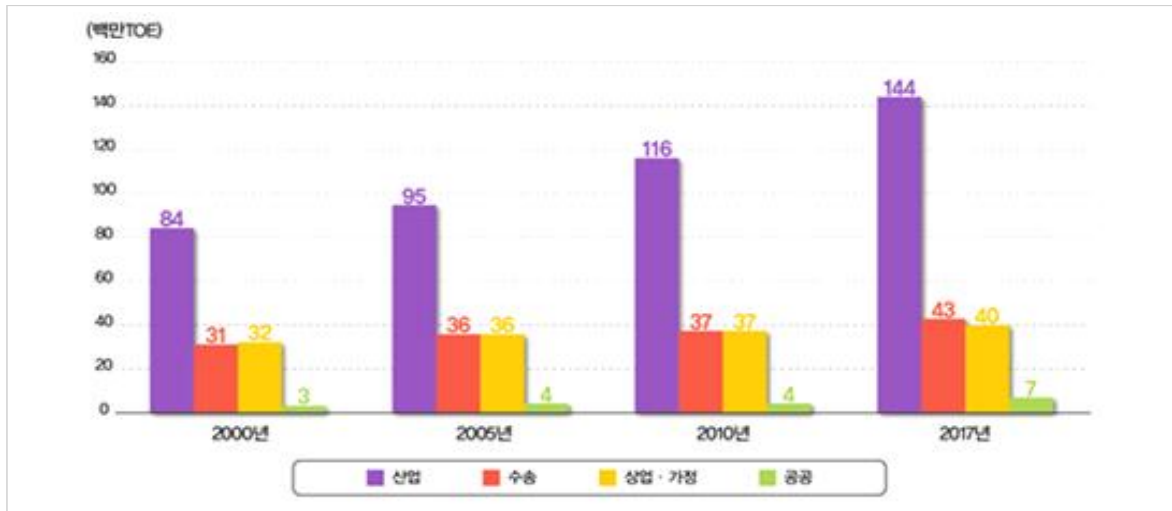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2019

〈그림 III-3-16〉 최종에너지 원별 소비량 변화 1

○ 최종에너지의 부문별 소비량을 보면, 산업(연 3.2%↑), 상업(연 2.7%↑) 등의 부문이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수송 부문은 약간 증가(연 1.9%)하였으며, 가정 부문은 정체(연 0.4%)를 보이고 있음

- 산업 부문의 업종별 소비량은 철강, 석유화학, 조립금속(반도체, 자동차, 기계) 업종 등의 생산활동 증가함에 따라 제조업이 연 2.9% 증가하였으며, 광업도 연 2.2%로 증가함

- 건설업은 연 1.2% 증가로 정체에 있으며, 농림어업은 연 2.4%로 감소하는 추세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 2019
 〈그림 III-3-17〉 최종에너지 원별 소비량 변화2

□ 화석연료의 고갈시기 도래

- 에너지자원 중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전통 화석연료는 한정된 자원으로서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음
- 현재의 채굴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석유와 천연가스는 50여 년, 석탄은 110여 년 후에 고갈될 것으로 예측됨
- 전통적 화석연료인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은 셰일가스, 오일샌드 등 비전통 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 정도에 따라 고갈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표 III-3-31〉 주요 화석연료의 가채 매장량 및 가채년수(2015년 기준, BP)

구분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가채 매장확인량(Reserves)	16,976억배럴	8,915억톤	186.9조㎥
년 생산량(Production)	334억배럴	78억톤	3.5조㎥
가채년수*(R/P ratio)	51년	114년	53년

주 : *가채년수 : 확인매장량(R: reserve)을 그 해의 생산량(P: production)으로 나눈 값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6, 충청북도,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에서 재인용,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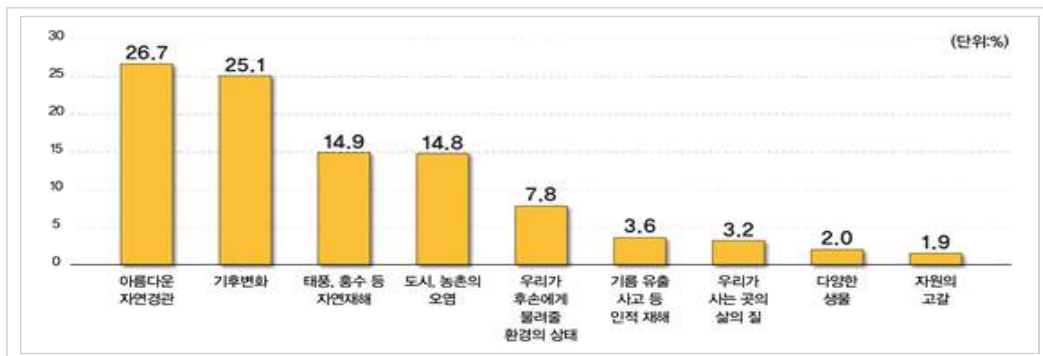
□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

- 국토연구원의 국민의식조사(2018년)에 따르면, 미래에 핵심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로서 삶의 질과 함께 친환경이 선정됨



자료 : 국토연구원, 국민의식조사 :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재인용, 2018
 〈그림 III-3-18〉 국토미래상 실현을 위한 핵심 추구가치 : 국민의식조사(2018)

-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 최상위 계획인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3,600만톤 감소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화석연료 사용의 저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함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국민환경의식조사(2017년)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이미지로 ‘기후변화’를 응답한 비율이 2016년부터 이전 대비하여 2배 이상 급증하였음



자료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 포커스 6(3), 2017 국민환경의식조사, 2018
 〈그림 III-3-19〉 환경과 관련된 이미지

-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기후변화 대응과 삶의 질에 대한 정책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과소비형 국토이용방식의 변화 요구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특히, 인간다운 삶, 품격있고 건강한 정주여건 조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증가는 환경오염과 훼손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공간 조성을 위해 에너지 저감형 건축물 및 주택 정책의 필요성으로 이어짐
- 이와 같이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에너지정책, 에너지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친환경에너지 보급과 소비에 대한 정책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I 문제점

□ 노후건축물 및 노후주택 등 낮은 에너지 효율

- 노후건축물은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노후화로 2036년에는 건축물의 약 60%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단독다가구주택의 노후화는 특·광역시와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특히 인구 15만 이하의 도시는 30% 이상으로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 특히, 단독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의 노후화가 심각하며, 30년 이상의 단독주택 58.8%, 공동주택 13.5% 등으로 주택 유형에 따른 노후격차가 심각함

□ 신재생에너지 공급 실적의 저조

-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을 위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의무 제도, 신재생 투자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신설 및 조정, 태양광 대여사업 활성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비율 확대 등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대비하여 전체 전력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기존에 설정했던 202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10%를 2024년으로 연장함
 - 이는 '14년을 기준으로 독일, 미국, 일본 등 다른 해외 국가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이 매우 저조한 실적이며, 보급 속도도 매우 낮음

□ 신재생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의 불균형

-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에 집중된 에너지 공급정책으로 인한 과잉공급과 태양광 설치지역에서의 민원문제, 재생에너지 공급의 한계발생
- 새로운 신재생에너지의 발굴과 재생에너지 연구를 통한 공급방안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 여건분석 및 전망

I SWOT 분석

- 도 내 태양광 기반 에너지 산업클러스터의 육성, 태양광 에너지 생산보급 확대 등 관련 정책의 강한 의지와 관련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생산량이 저조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 및 지자체의 관련 규제 완화로 인한 활성화 도모를 위한 노력과 중앙정부로부터의 예산 및 확대된 사업 지원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표 III-3-32〉 SWOT 분석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보유 • 태양광 기반 에너지 산업클러스터 육성, 태양광에너지 생산보급 확대 등 관련 정책의 강한 의지(충청북도청 신성장산업국 신설, 6+3 신성장산업) • 신재생에너지산업융합지구 선정 • 에너지산업융합단지 지정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에너지 관련 생산량의 저조 • 연료전지, IGCC 등 신에너지 관련 전문인력의 부족 • 낮은 전력자립도
기회(O) ⇒ 포착	위협(T) ⇒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 테마 신재생에너지사업 조성 • 중앙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 확대 및 공공기관 태양광 지원사업 확대 • 기존 발전시설의 미비로 인한 신 발전시설 설치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 민원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인허가 취소 •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제(기초자치단체)로 인한 활성화 저해 • 전력 부문의 소비증가

I 여건전망

□ 진천·음성 일원 충북혁신도시 건설

- 충북혁신도시는 2005년 진천군 덕산읍과 음성군 맹동면 일원(6.9㎢)에 선정되었으며, 11개 공공기관이 이전
 - 이전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가기술표준원, 법무연수원 등 3개 정부 소속기관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4개 준정부기관 및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소비자원 등 4개 기타공공기관 등임
- 충북혁신도시의 콘셉트는 태양광·에너지, 정보통신·과학기술, 교육·인재개발, 공공서비스 등으로 특화한 친환경 녹색 치유도시임

- 충북혁신도시의 특징 중 하나는 태양광·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친환경 녹색도시로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관 다수 입주(태양광 특구 전국 최초 지정)해 있으며, 태양광 중심의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전국 최초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 제정

- 충청북도는 태양광산업을 주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함
- 이 조례의 목적은 충청북도의 태양광산업 발전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기술개발·이용·보급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은 태양광산업육성계획 수립, 태양광산업육성위원회 설치, 태양광산업 전문 인력양성, 기업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충청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선정

- 충청북도는 경남, 경북, 부산-울산, 대구, 제주, 충남 등 7개 시·도가 지정 신청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에 선정됨(7개 시도 중 4개소 선정)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지역으로 국가적 육성이 필요한 에너지 중점산업 분야의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 및 기술혁신·융복합의 거점이 되는 에너지산업클러스터임
- 충청북도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디지털기반 융복합 에너지 안전산업 거점 조성”을 비전으로, 태양광(PV), 에너지효율향상(ESS), 스마트그리드(IoE) 등을 중점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임
 - 이를 위하여 에너지 안전산업(실증인증표준화) 육성, 에너지 제조산업 생태계 조성, 기업 및 기관 유치, 인력양성 등을 추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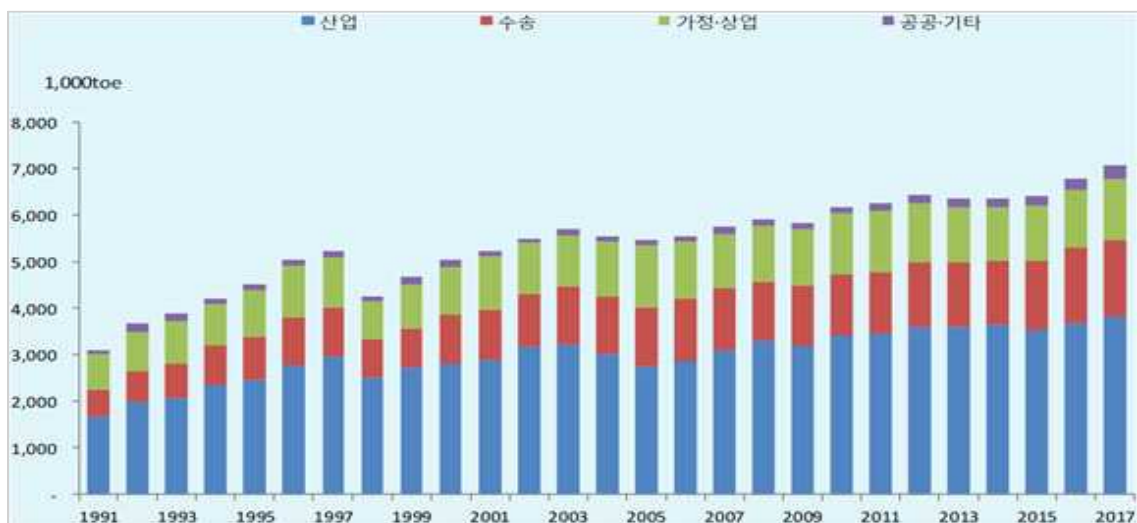
□ 충청북도 인구증가와 산업발전에 따른 에너지 소비 증가

- 충청북도의 인구는 2013년 1,600천 명에서 2017년 1,631천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40년까지 1,737(단위 1,000명)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충청북도의 총사업체 수는 2000년 94.7천 개소에서 2017년 126.2천 개소로 약 33% 증가하였으며, 종사자 수는 2000년 418.9천 명에서 2017년 681.9천 명으로 약 63% 증가함
- 인구증가와 산업발전은 에너지소비량과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충북의 에너지소비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 다만 환경오염의 주범인 탄소를 배출하는 석탄과 석유제품의 소비량은 다소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는 반면, 친환경에너지인 재생에너지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통계연보, 2018
 〈그림 III-3-20〉 충청북도의 에너지원별 소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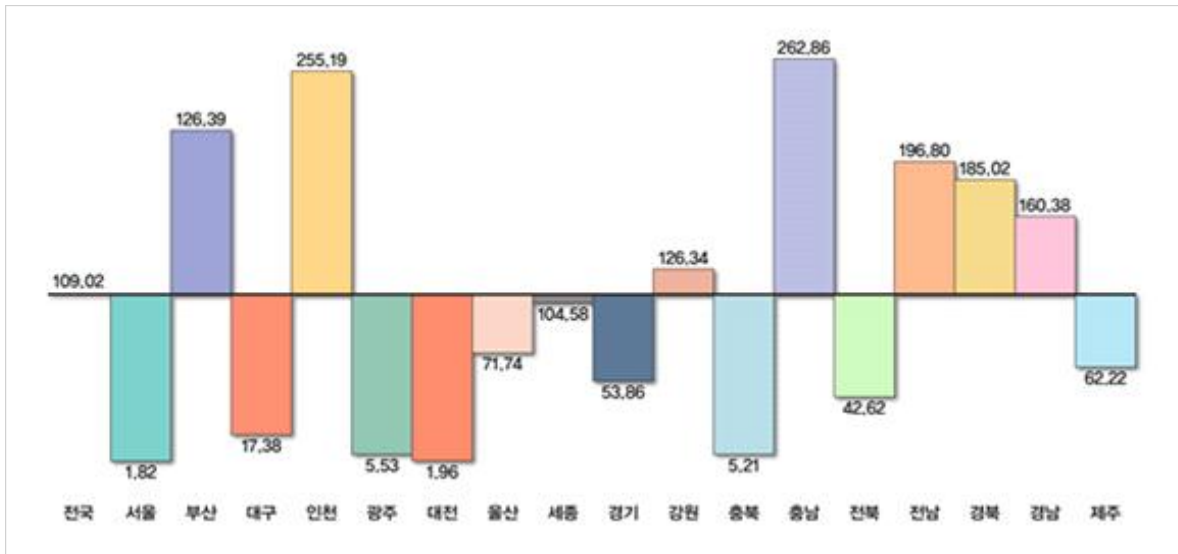
○ 충청북도 에너지 소비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은 산업이며, 수송과 가정·산업, 공공·기타의 순으로 나타남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통계연보, 2018
 〈그림 III-3-21〉 충청북도의 부문별 에너지 소비

□ 충청북도의 낮은 전력자립도

- 산업 부문뿐만 아니라 가정·상업 부문에서도 전력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충청북도의 전력 자립도는 다른 시·도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편임
- 2017년 우리나라의 전력자립도는 109.02%임에도 충청북도의 전력자립도는 서울, 대전에 이어 전국 최저 수준임



자료 : (재)충북연구원 설영훈, 에너지 자립과 충북경제, 2019

〈그림 III-3-22〉 2017년 광역자치단체별 전력자립도

□ 충청북도의 경제성장과 에너지 수요 전망

○ 충청북도의 경제성장률과 전력소비 증감률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자료 : (재)충북연구원 설영훈, 에너지 자립과 충북경제, 2019

〈그림 III-3-23〉 충청북도의 경제성장률과 전력소비 증감률



- 충청북도는 2030년까지 연평균 2.19% 증가하며, 최종에너지소비량은 8,714천 toe로 전망됨
 - 산업부문은 반도체, 화학 등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업체들이 많이 입주하여 있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송 부문도 강호축 등 중부권 거점의 물류정책 추진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 에너지원별 수요와 관련하여, 전력부문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천연 및 도시가스 와 신재생에너지, 열에너지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석유와 석탄은 에너지효율 및 친환경 문제, 규제강화 등으로 수요가 감소할 것임

□ 충청북도 신재생에너지 시장 전망

- 수소산업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주요 분야로 높은 성장이 예측되며, 수소경제사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들은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한국수소산업협의 국내수소기업현황(2018.10.02.)을 보면, 수소산업 관련 업체수는 전국적으로 511개가 있으며, 충청북도지역에는 36개의 사업체가 있음
 - 전국의 수소산업 생산액과 부가가치는 각각 3조 7천억 원과 1,331억 원이며, 충북은 전국 대비 약 8%를 차지하고 있음
 - 충청북도의 수소산업은 2022년 모비스 2공장이 완공되는 시점부터 한국시장의 24%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수소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도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파리협정으로 인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됨
- 이차전지산업은 모바일 IT용에서 EV, ESS로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2025년 세계시장 규모는 190조로 성장하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됨
 - SNE Research(2018)와 IEA(2018)에 따르면, 세계 리튬 이차전지 시장은 2017~2025년 중 금액 기준으로 연평균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3) 추진과제

□ 제품의 생산성·품질 강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구축

- 세계 에너지 수요는 인구 증가, 도시화의 가속, 경제성장 등으로 '17년~'40년 기간 중 2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는 '40년 기준으로 74%까지 감소 예측
-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제품 생산성과 품질 개선은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하며, 기술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공급이 필요하며 이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활성화·안정화 되어야 가능하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수요 창출을 위한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
 - 공공부문의 경쟁입찰에 RPS(Renewable Portfolil Standard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와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 인증서) 제도를 적극 활용하거나,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과 같이 재활용 기술 확보를 통해 새로운 시장 육성
 -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을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등의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인력을 양성·공급

□ 충북형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조성

- 미국의 기후변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그린뉴딜'사업 추진
- 그린뉴딜은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과 세계 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쳤으며, 2021년 파리협정의 이행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대안
- 마크 제이콥스 스탠포드대 교수 연구팀이 공개한 '그린뉴딜 에너지 정책이 전력공급 안정화와 비용, 일자리, 건강, 기후에 미칠 영향' 보고서에서 한국이 석탄·석유 같은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공급체제를 2050년까지 100%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 바꿀 경우 2050년 시점에 일자리가 144만 개 이상 순증할 것으로 추산
 - 전통적 화석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에너지 소비유도 및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그린뉴딜 충청북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구축

□ 충청북도 기업의 RE100 사업 활성화

- RE100은 전기소비 주체가 '소비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으로서, '19년 현재 구글, 애플, 비엠더블유 등 185개 글로벌 기업 참여 확대
- RE100은 세계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이슈 대응 및 물관리 전략 등에 관련한 지배구조, 위험과 기회, 전략, 온실가스 배출회계, 커뮤니케이션 등을 질문지를 통해 평가하며, 영국에 설립된 비영리 기관인 CDP위원회 담당



- 산업부는 RE100 이행을 위해 녹색요금제 신설, 발전사업 지분투자 인정, 자가용 설비 건설투자 촉진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19.4.5) 공표
- 녹색요금제, 발전사업 지분투자 인정, 자가용 설비 건설투자 등의 추진을 위한 충북 기업의 RE 100 사업 가입 추진

□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복지서비스 제공

- 에너지 빈곤층은 소득에 비해 에너지 지출 부담이 과도하거나, 적정수준의 난방(거실 21℃ 그 외 사용하는 방 18℃)을 하지 못하는 가구 의미
- 에너지 빈곤층의 주된 난방 에너지원은 석탄, 석유 등을 활용하는 화석연료로서, 낮은 에너지 효율과 탄소 배출 확대
-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도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생활공간 조성', '품격있고 환경친화적 공간 창출' 등을 강조
-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은 세계적으로 중국과 유럽 및 미국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국내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확대에도 국내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은 다소 취약
-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복지서비스 제공 및 확대 시행

□ 신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굴과 육성

- 태양광에너지뿐만 아니라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핵융합에너지, 풍력, 지열 등 신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발굴·육성 필요
- 전력에너지 생산에 원자력발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 오염수 등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
- 정부는 원자력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신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신재생 에너지산업 분야로 확산
- 신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 8개 분야와 신에너지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음
 - 해양에너지를 제외한 10개 분야에 대해 충청북도의 지역적·산업적 특성에 맞는 신규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굴
 - 충청북도에 위치한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중심으로 수소안전기술의 표준화, 안전관리, 홍보, 교육, R&D, 인력양성 등 충청북도가 국가 수소 안전의 중심지 역할 수행
 - 도 내 이차전지업체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핵심·원천 기술 개발로 지역 이차전지산업 발전
-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과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전통적 화석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에너지의 소비를 유도하며, 에너지의 효율성 제고

- 전 세계가 탄소배출 저감에 모두 동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을 통해 에너지이용에 따른 환경 훼손 최소화 추진
- 산업, 가정·상업, 수송 등 모든 부문에서 에너지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고효율의 에너지소비 제품 교체 및 에너지저감 장치 및 시설 설치

□ 태양광산업 종합관리체계 구축

- 태양광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태양광 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 태양광 관련 각종 연구기술개발 사업을 통한 실증연구 활성화, 태양광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등 추진
- 태양광 설비의 안전성 제고와 관련하여 풍수해, 산사태 등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법령 및 조례, 시공 및 시설관리 기준 등을 보완 및 노후설비에 대한 지속적 현장점검 체계 확립
- 태양광산업의 확대에 따른 환경훼손, 입지갈등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센터 운영

□ 신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갈등 조정 기구 구성

- 충청북도는 국내 유일의 태양광산업특구(128만 평 규모)가 지정되어 있으며, 한화큐셀, 신성이엔지 등 태양광 관련 설비시공 및 제조장비 69개 기업 집적
-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태양광 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태양광산업의 비교우위 확보 및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육성 계획
- 충청북도의 태양광산업은 발전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선도하는 태양광산업의 고도화 추진
- 지역 주민의 반대와 민원으로 인해 태양광발전사업이 불허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불복한 사업자의 행정소송 제기로 사업의 지연,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 등 불필요한 인적·물적 낭비 초래
-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기구’ 운영 필요

〈표 III-3-33〉 미래수요 신재생에너지산업 선도지역 육성을 위한 추진사업

전략명	과제명	단기 (20~25)	중기 (26~30)	장기 (31~40)	비고
미래수요 신재생에너지 산업 선도지역 육성	1. 그린뉴딜 충북 신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구축				
	2. 충북 기업의 RE100 사업 가입 추진				
	3. 에너지복지서비스 제공				
	4. 신재생에너지 산업 통합지원센터 설립				
	5.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수소안전 메카				
	6. 이차전지특화밸리조성				
	7. 소득증대 및 관광산업 연계 에너지 테마파크				
	8.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9. 수소 상용차 부품 시험평가센터				
	10. RE 100 스마트산업단지 조성				

〈표 III-3-34〉 미래수요 신재생에너지산업 선도지역 육성을 위한 시군계획지침

※ 시·군 계획지침

- 시·군은 에너지 수급현황, 산업별 에너지 소비량, 전력 공급 시설 등 에너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에너지 정책에 부합되는 에너지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시·군은 인구구조 변화 및 산업부문, 물류 및 유통 체계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계획을 수립한다.
- 시·군은 에너지 빈곤계층을 위한 맞춤형 에너지복지서비스 전달 계획을 수립한다.
- 산업, 건물, 공공, 수송 등 에너지 효율화 및 절약 계획을 수립한다.
- 시·군은 에너지 생산 및 공급 분야의 당면한 공통 문제나 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지역과의 자율적인 연계·협력 방안을 우선 강구한다.
- 인구구조 변화 및 행·재정적 여건으로 인해 개별적 사업 수립·집행, 추진이 어려운 시·군은 인접 시·군과 연계하여 통합계획 수립 및 공동 집행 방안을 강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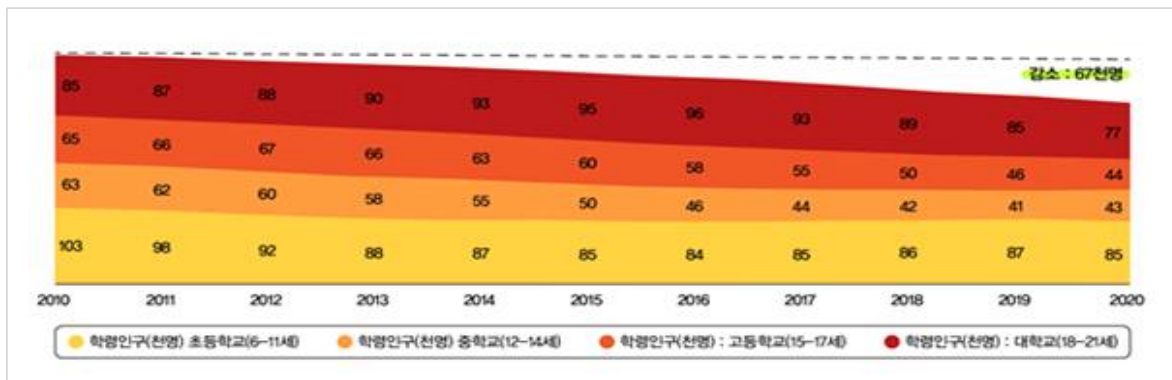
제5절 산업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인력양성체계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I 현황

□ 학령인구

- 충청북도의 학령인구(6~21세)는 2020년 249천 명으로 2010년 316천 명보다 26.9%(67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동기간 전국의 학령인구는 9,950천 명에서 21.4%가 감소한 7,821천 명으로 나타남
- 충청북도의 학령인구의 변화를 학교 수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초등학교(6~11세) : 2010년 103천 명 ⇒ 2020년 85천 명 ※18천 명(17.5%) 감소
- 중 학교(12~14세) : 2010년 63천 명 ⇒ 2020년 42천 명 ※21천 명(33.3%) 감소
- 고등학교(15~17세) : 2010년 65천 명 ⇒ 2020년 44천 명 ※21천 명(32.3%) 감소
- 대 학교(18~21세) : 2010년 63천 명 ⇒ 2020년 42천 명 ※21천 명(33.3%) 감소



자료 : KOSIS, 장래인구추계

〈그림 III-3-24〉 충청북도지역 학령인구 변화(2010 ~ 2020년)

□ 핵심인적자원

- 충청북도지역의 전출 인구 중 청년층(15~29세) 비중은 2010년 27.3%에서 2019년 29.1%로 1.2%p 상승하였으며, 2017년 이후 정체되어 있었으나 2019년 상승추세로 전환되는 등 핵심인적자원인 청년층의 역외 유출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또한, 2019년 기준 충청북도의 청년 전출인구 중 55.8%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충청권 23.0%, 영남권(대구, 울산, 경북, 경남, 부산) 등의 순으로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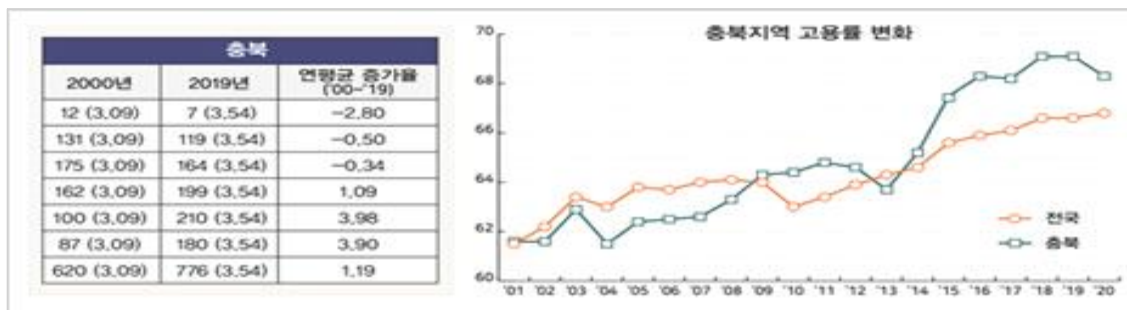


자료 : KOSIS, 국내인구이동통계

〈그림 Ⅲ-3-25〉 청년층 비중 및 청년층의 지역별 역외유출 비중

□ 고용관련 양적지표

- 2019년 기준 충북의 고용률(15~64세)은 68.3%로 전국 66.8%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연평균증가율('10~'19년)면에서도 0.59%로 전국 0.58%보다 높은 수준임
- 하지만, 연령별로 살펴보면 핵심 노동층(20~39세) 취업자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를 기록함



〈그림 Ⅲ-3-26〉 충청북도지역 고용률 변화

- Armstrong&Taylor(1981)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2018년 현재 충청북도는 여전히 수요·공급의 불일치, 선호도·정보의 불일치로 인한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음
 - 구조적 미스매치 : 2015년 46.8% ⇒ 2018년 60.8% ※ 14.0%p 상승
 - 마찰적 미스매치 : 2015년 26.2% ⇒ 2018년 28.6% ※ 2.4%p 상승
- 2019년 충청북도(300인 미만) 제조업 인력 부족률은 2.7%로 전국 3번째 수준을 기록하는 등 인력난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표 Ⅲ-3-35〉 2019년 하반기 충북지역 규모별 인력부족률

(단위 : 명, %)

규모	현원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 인원	부족인원	채용 계획인원	부족률
5-300인 미만	314,685	21,433	19,336	2,097	7,345	7,396	2.3
300인 이상	61,846	2,963	2,766	197	605	725	1.0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 고용관련 질적지표

- 충청북도의 근로시간은 2019년 184.8시간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5위 수준이며, 임금은 3,143천 원으로 전국 9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상용 월 총 근로시간 : 2018년(183.2시간, 전국 1위) ⇒ 2019년(184.8시간, 전국 5위)
 - 상용 월 급여액 : 2018년(3,035천 원, 전국 9위) ⇒ 2019년(3,143천 원, 전국 9위)
- 또한, 고용의 질적 수준인 일·생활균형 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17년 기준 전국 17위에서 18년 전국 3위로 상승함

〈표 III-3-36〉 일·생활균형지수

(단위 : 점, 순위)

구 분	2017년 기준(18.12월 발표)			2018년 기준(19.12월 발표)		
	전국	충북	전국순위	전국	충북	전국순위
일생활균형지수	37.1	34.8	17	50.1	53.2	3

자료 : 고용노동부(2018, 2019), 보도자료, 각 년도

□ 충청북도 일자리 로드맵

- 충청북도는 정부의 국정과제 일자리로드맵을 기반으로 하는 4대 분야 특화·차별화 전략을 구사 중임
 - 4대 분야 : 고용환경 변화대응, 맞춤형 일자리 대응, 좋은 일터만들기, 거버넌스 재구조화

〈표 III-3-37〉 충청북도 일자리 로드맵

구분	중앙정부(100대 국정과제)	충청북도
분야1. 고용환경 변화대응	ICT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대표산업·혁신자원 고도화 및 지역성장 신거점 조성 산업육성 전략의 Two-트랙화
분야2.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구축	청년 일자리 인프라 건설화 및 역량 강화 여성 경력개발 유지 친화적 환경 조성 중장년 지속 가능한 일자리 역량 확보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창의적 일자리
분야3. 좋은 일터 만들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 경제의 확장과 균형성장 고용안전망 구축 및 원하는 일자리 창출 지원 현장밀착형 일자리 지원 서비스 제공
분야4. 거버넌스 재구조화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 노동존중 사회 실현	참여-합의-시행 평가의 선순환체계 구축

자료 : 충청북도(2020), 2019 충청북도 일자리대책 추진실적

I 문제점

□ 인적자원에 바탕을 두는 지역발전전략 필요

- 저성장·양극화, 지방소멸 등 現 충청북도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과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물적 확대전략 이외에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한 전략을 통한 지속가능성의 확보가 필요함
- 사람 중심의 통합적 균형발전은 지역의 역량 강화가 선결조건이며, 지역 역량 강화의 핵심은 지역 인적자원 개발임

□ 現충청북도의 고용상황에 대한 냉정한 점검 필요

- 충청북도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향후 자동화 등의 영향으로 부가가치는 증가하지만, 신규 고용력은 감소될 가능성이 있음
- 실물투자 중심의 충청북도 성장모델은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산업·고용 연계 여건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냉정한 점검이 필요함
 - (기회요인) 기술혁신·실물투자 → 일자리 창출 → 경제성장과 고용증가
 - (위협요인) 기술혁신·실물투자 → 일자리 소멸 → 경제성장과 고용감소
- 또한, 지역 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재구조화, 지역형 일자리 사업 발굴 등 지역주도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고용관련 질적 지표의 지속적 개선 노력 필요

- 충청북도의 근로환경·소득 등 고용 관련 질적 지표는 개선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또한, 구인·구직 간 미스매치, 인력의 고학력화 등과 같은 근원적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함

□ 뉴노멀시대에 대응하는 일자리 대응체계 구축 필요

- COVID-19 이후 뉴노멀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추진 중인 산업과 고용 관련 전략을 연계 세분화하고 장기적 미래인력수급 대응체계가 필요함
-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대비한 인력양성체계 구축 및 이와 연계된 인력의 이·전직 및 일자리 유치·창출 지원이 필요함

2) 여건분석 및 전망

Ⅰ SWOT 분석

- 도 내 국가·미래 신산업 관련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으며, 지속적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확보되고 있음
- 수도권으로의 핵심 노동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과 미래 일자리에 대한 대응·적응력 강화를 통해 다가올 미래 신산업 시대에 대비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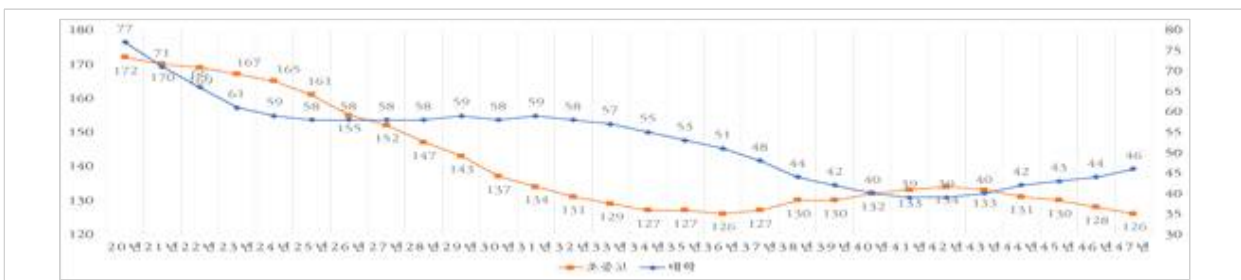
〈표 III-3-38〉 SWOT 분석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적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확보 국가·미래 신산업 관련 인프라의 집적 타 지자체 대비 양호한 고용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으로의 핵심 노동인력 유출 심화 미래 일자리에 대한 대응·적응력 부족 일자리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 증가
기회(O) ⇒ 포착	위협(T) ⇒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집중 지원 지역 내 성장거점 확충에 따른 일자리 기반 확대 언택트 기술 등 신시장의 창출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가능인구·학령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심화 자동화 등에 따른 일자리 소멸 및 기술적 실업 확대 신산업 관련 인력양성의 지역별 경쟁 심화

Ⅰ 여건전망

□ 학령인구의 감소 추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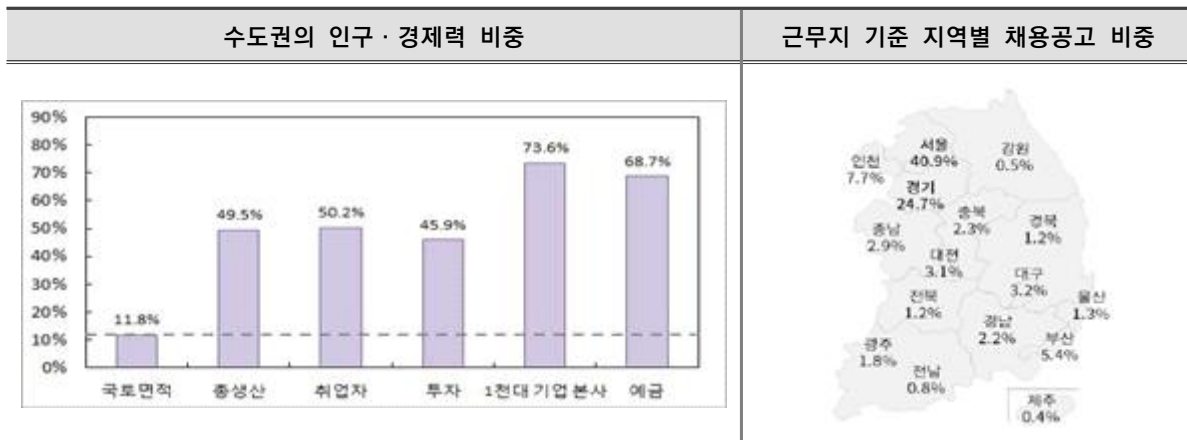
- 충청북도의 학령인구는 2020년 249천 명에서 2047년 171천 명으로 31.3%(78천명) 급감할 것으로 전망
- 특히, 대학교(18~21세) 학령인구의 경우 2020년 77천 명에서 2047년 46천 명으로 40.3%가 감소할 것으로 지역경쟁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또한, 초·중·고 학령인구의 경우에도 동기간 22%~31%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학교 기능의 재구조화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 : KOSIS, 장래인구 추계
〈그림 III-3-27〉 학령인구 변화

□ 핵심인재의 유출 심화 가능성 내재

- 다양한 지역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인구·경제력, 생활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수도권으로의 집중화 현상은 오히려 심화됨
- 수도권 중심의 인구 및 생산 활동의 집중화로 지역의 핵심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비수도권은 갈수록 취약해지는 즉, 인적자원 배분의 불균형이 심해지는 악순환을 거듭하여 결국에는 지방소멸로까지 연결될 수 있음



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2019, 충남연구원, 지역인재 채용제도 대전·충청권 광역화 방안, 2019

〈그림 III-3-28〉 수도권의 인구·경제력 비중 및 근무지 기준 지역별 채용공고 비중

□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른 고용의 변화 예상

- 자동화 대체 영역 확대에 의한 일자리 감소 및 기술적 실업 발생 예상
 - 로봇 등의 영역이 단순 반복 업무,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중급 사무 업무, 감성노동 분야로 확산되어 고용구조의 양극화가 우려됨
- 반면, 장기적으로는 과거 산업혁명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산업의 출현으로 新직업이 발굴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기술혁신을 반영한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2015~2030), 2017

〈그림 III-3-29〉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시장 파급경로

□ 기술혁신을 반영한 장기 인력수요전망(2018~2035)

- 한국고용정보원(2019년)에 따르면 기술혁신과 상관관계가 높은 전기전자제조업, 의료관련제조업, 화학관련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
- 충청북도 주력산업과 관련된 전기전자, 의료, 화학, 장비제조 등에서 취업자수 연평균 증가율이 높음
- 또한, 저출산·고령화 및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산업 중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도 취업자수 증가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표 III-3-39〉 기술혁신을 반영한 장기 인력수요전망(2018~2035)

(단위 : 천 명, %)

산업명	2018	취업자수		취업자수 증감		연평균 증가율	
		2035		2035		2035	
		기준	혁신	기준	혁신	기준	혁신
전체	26,815	27,742	28,219	927	1,404	0.20	0.30
농업, 임업 및 어업	1,340	998	946	-342	-395	-1.72	-2.03
광업	19	17	15	-2	-4	-0.67	-1.51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447	474	440	27	-7	0.34	-0.09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387	303	296	-84	-91	-1.44	-1.57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업	214	168	164	-45	-50	-1.40	-1.5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90	230	245	41	55	1.15	1.5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81	88	126	7	45	0.52	2.6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1	239	251	-12	0	-0.30	0.01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0	132	133	2	4	0.10	0.16
1차 금속제품 제조업	153	113	122	-40	-30	-1.75	-1.29
금속제품 제조업	332	321	307	-11	-24	-0.20	-0.4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542	583	704	41	162	0.43	1.5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117	145	213	28	97	1.28	3.62
전기장비제조업	280	314	427	33	147	0.66	2.50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484	473	547	-11	63	-0.14	0.72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552	553	520	1	-32	0.01	-0.35
기타운송장비제조업	125	131	139	7	14	0.32	0.65
가구 및 기타제품제조업	173	173	174	0	1	0.00	0.0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70	58	53	-12	-17	-1.06	-1.59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업	127	171	175	44	48	1.78	1.91
건설업	2,034	1,967	1,970	-67	-64	-0.20	-0.19
도매 및 소매업	3,723	3,716	3,642	-6	-81	-0.01	-0.13
운수 및 창고업	1,407	1,396	1,405	-11	-1	-0.05	-0.01
숙박 및 음식점업	2,242	2,315	2,229	72	-14	0.19	-0.04
정보통신업	837	960	1,023	123	185	0.81	1.18
금융 및 보험업	840	792	768	-48	-72	-0.34	-0.53
부동산업	613	614	608	1	-5	0.01	-0.0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096	1,273	1,398	177	301	0.88	1.44
사업지원서비스업	1,226	1,311	1,332	85	106	0.40	0.4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110	1,258	1,262	148	152	0.74	0.76
교육서비스업	1,847	1,748	1,800	-99	-47	-0.32	-0.15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046	2,878	2,934	832	887	2.03	2.14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1,781	1,829	1,851	47	70	0.15	0.23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기술혁신을 반영한 장기 인력수요전망(2018~2035), 2019.

□ 산업과 일자리를 연계한 지역 발전전략 필요

○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공통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식하고 산업과 일자리를 양대축으로 하여 중장기 대책을 수립·추진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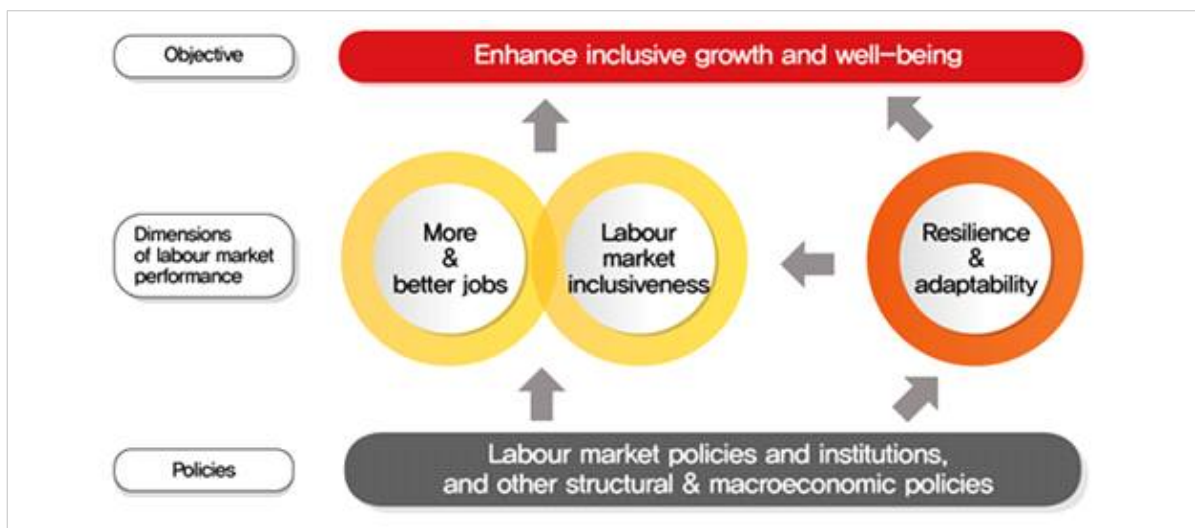
〈표 III-3-40〉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체계

구분	전략명	일자리 육성 방안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독 일	인더스트리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단기술전략 프로그램 실행 차세대 공학인 적극적 양성 민간연구소 등 민간파트너십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버물리 기반 스마트 공장 강소기업과 지역연구소가 참여한 R&D 프로젝트 진행 지능형 시스템 분야 국제표준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미 국	미국혁신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품질의 STEM 교육 및 접근성 향상 기술직 및 숙련공 양성을 위한 온라인 직업훈련을 통한 맞춤형 인재 양성 지역사회혁신센터 설립 운영을 통한 기술개발 및 혁신 인식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정부 단위로 성과기반 혁신 인프라 구축 산업계, 대학 정부 등 합동으로 구성된 지역 혁신클러스터 투자 전 지역의 신흥 혁신 생태계 형성을 위한 자금 지원
일 본	일본재흥전략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의 직무역량 강화 서비스업 업무 중심의 일자리 창출 전략 데이터과학, 인재, 기술, 금융산업, 취업 구조, 지역경제 등 7대 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종합특구 전략을 통한 특화산업 육성 비즈니스 환경 정비 산업·기능의 집적 거점 형성 및 투자 규제완화를 통한 구조개혁 및 지역 활성화

자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응 전략, 2018

□ 일자리의 양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질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 필요

○ OECD(2018)에서는 새로운 고용전략의 핵심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 일자리 수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과 노동시장의 포용성, 기회에 대한 적응력과 회복력을 강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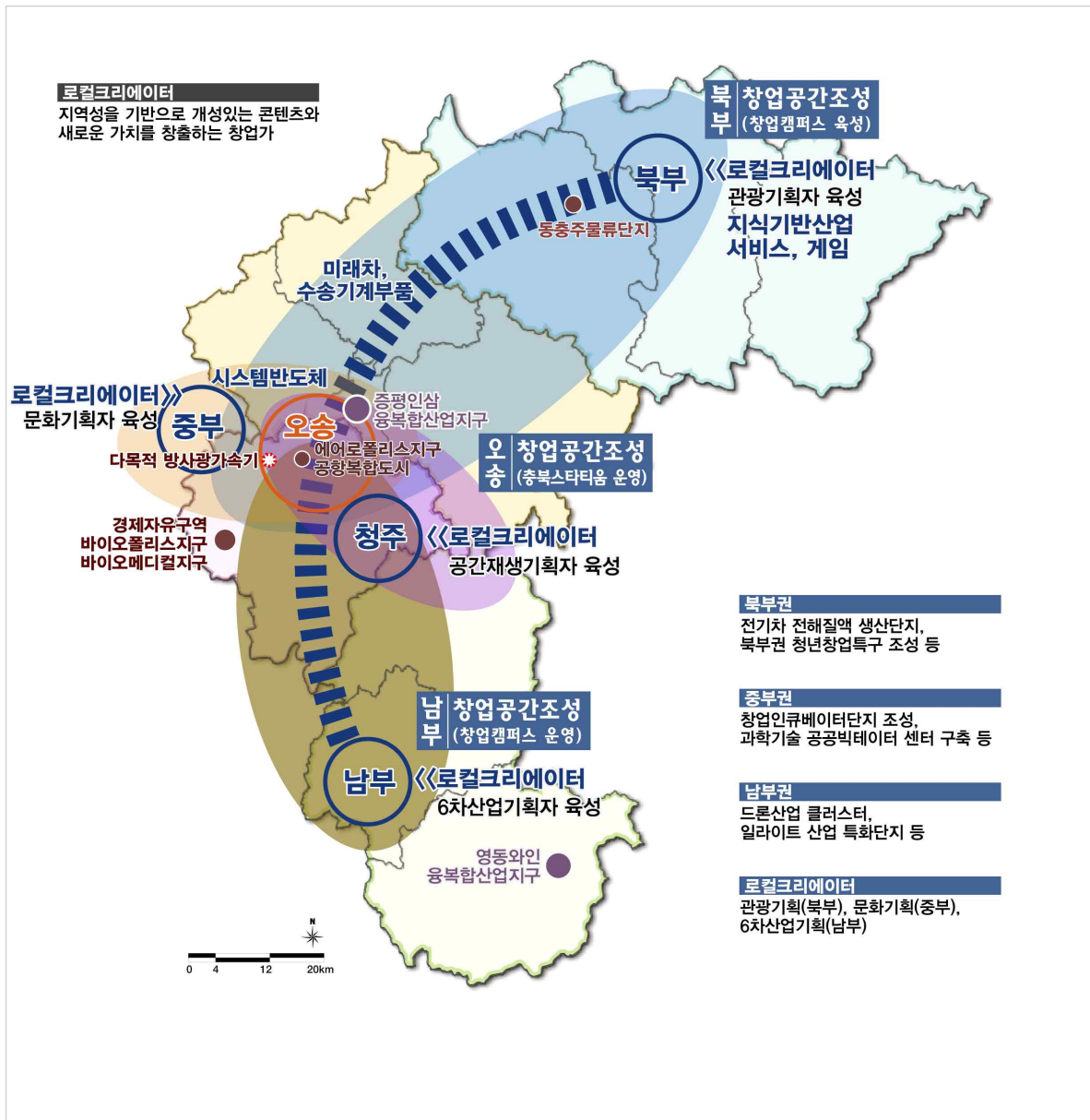


자료 : OECD 대한민국 대표부, OECD 2018 새로운 고용전략 주요 내용, 2018

〈그림 III-3-30〉 새로운 고용전략의 프레임워크 1

□ 지역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필요

- 경제활성화, 혁신기술개발, 인력양성 측면에서 창업은 국가경쟁력 및 지역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중심은 전통산업에서 스타트업 중심으로 이동 중에 있음
-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글로벌 트렌드·정부 정책·지역 산업을 고려한 혁신에 바탕을 둔 차별화된 중장기적 창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함



〈그림 III-3-31〉 혁신 창업 생태계 구상안

3) 추진과제

□ 미래지향형 일자리협력체계 구축

- 도내에는 일자리 관련 기관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나, 이들 기관 간의 중복성이나 유사성이 발생하여 예산의 비효율성 및 사업 간 통합·연계의 비효율성 발생
 - 민·관·산·학 협의체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인재 수요 대응과 미래 고용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통합적 고용정책 거버넌스 구축
- 최근 타결된 광주형·구미형 일자리 등 지역상생형 일자리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각 자치단체의 관심 증대
-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신성장동력 발굴 지연,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으로 경제의 고용 창출이 약화되는 가운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모델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성장 기반 마련
 - 충청북도 특성에 맞는 충북형 일자리 모델 구축
- 도시화의 확산과 농촌인력의 고령화에 따라 농촌지역의 인력수급 문제 발생
- 도시지역 유흥인력과 농촌지역 인력 수요를 매칭하는 일자리사업을 적극 확대하여 농촌지역 인력 부족 현상 해소 및 도시 유흥인력의 일자리 창출 촉진
 - 도-농 상생형 생산적 일자리 사업 운영 추진
- 노동·자본 등 기존 생산요소를 지능화하여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4차 산업혁명은 지역 차원에서 산업뿐 아니라 고용 측면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 필요
- 적극적 투자유치, 리쇼어링의 확대로 충북으로 신설 및 이전 기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하여 투자단계부터 민·관이 연계된 인력양성로드맵 구축을 통한 인력수급체계 확립
 - 지역산업 적합형 인재정보 플랫폼 구축 및 인력양성 로드맵 마련

□ 일자리 거점 구축 지원

- 4차 산업혁명시대 선도적 대응을 위한 지역의 6대 신성장산업 및 3대 미래유망산업 관련 기업의 중점 유치
 - 국내외 기업유치를 통한 항구적 일자리 창출
- 경제 활성화, 혁신기술 개발, 인력양성 등 국가·지역경쟁력 확보의 키워드로 부각되고 있는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충북형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 지역경제의 주체인 기업에게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 설립을 통해 기업 및 지역 경쟁력 강화
 - 기업의 역량 제고를 위한 충북기업연수원 건립
- 디지털정보격차의 해소 및 교육-일자리-삶의 질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기반 구축
 - 스마트시대에 발맞춘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 추진

□ 산업연계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지원

- BIG3, D.N.A 등 국가미래산업뿐만 아니라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등 지역 내 신성장산업분야와 연계된 인력양성 사업 추진
- 충청북도지역 주력산업 관련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혁신 인프라를 활용하는 직업교육 연계체계의 구축을 통한 미래 신기술 습득 및 융합 역량 강화
 - 대학과 산업단지를 공간적으로 통합, 연구개발(R&D)-인력양성-고용의 집적화를 구현하고, 현장 중심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실현
 - 농업기계의 이용률 증대와 산업적 활용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전문교육과 현장이용 교육 전담 교육 기관 설립
 - 수도권 및 대도시로 유출되고 있는 청년 인적자원의 충청북도지역 정착률을 높일 수 있게 청년 일자리 확보 측면의 청년창업생태계 조성
- 정부 및 정치권에서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화와 규제완화 정책 추진 등의 청년창업 특구 조성을 위한 외부적 환경과 긍정적 분위기 조성이 양호함
 -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외부지역 청년인재 등을 충청북도지역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주기반 복합형 청년창업특구 조성

〈표 III-3-41〉 산업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사업

전 략 명	과 제 명	단기 (20~25)	중기 (26~30)	장기 (31~40)	비고
산업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인력양성체계 구축	1. 미래지향형 NEW고용거버넌스 구축				
	2. 충북형 일자리 모델 구축				
	3. 도-농 상생형 생산적 일자리 사업 운영				
	4. 인재정보 플랫폼 구축 및 인력 양성 로드맵 마련				
	5. 국내외 기업유치를 통한 항구적 일자리 창출				
	6. 충북형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7. 충북기업연수원 건립				
	8. 디지털역량강화 사업 추진				
	9. 중부권 농업기계 전문교육기관 설립				
	10. 신성장산업분야 인력양성사업 추진				
	11. 바이오헬스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12. 충북혁신도시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표 III-3-42〉 산업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위한 시군계획지침

※ 시·군 계획지침

- 시·군은 지역산업 여건 및 인구구조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요 맞춤형 일자리계획을 수립한다.
- 시·군은 일자리 분야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지역과의 자율적인 연계·협력 방안을 우선 강구한다.
- 시·군은 행·재정적 여건으로 개별적 사업 수립·집행 추진이 어려운 경우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그림 III-3-32〉 충청북도 산업발전계획도

▶ 제4장

국민여가지대, 치유형 문화관광 기반 조성

제1절 일상이 문화가 되는 격조 높은 지역 구현

제2절 미래관광을 선도하는 관광 르네상스 실현

제3절 도민이 함께하는 활력 넘치는 충북 실현



제4장 국민여가지대, 치유형 문화관광 기반 조성

제1절 일상이 문화가 되는 격조 높은 지역 구현

1) 현황 및 문제점

I 현황

□ 문화기반시설

- 문화기반시설은 「도서관법」상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중전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회관) 및 「지방문화원진흥법」상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등임
- 2019년 기준 전국 문화기반시설은 총 2,825개로 2018년 2,749개보다 2.8% 증가하였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충청북도는 2019년 국공립 및 사립 박물관 2개가 개관하여 132개의 문화기반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년대비 3.1% 증가함(2018년 문화기반시설 128개)
- 충청북도는 공공도서관 47개, 박물관 44개, 문예회관 12개, 미술관 11개, 지방문화원 11개, 문화의집 7개 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과 박물관이 주요 문화기반시설을 차지함

〈표 III-4- 1〉 충청북도 주요 문화기반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시·군	합계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계	지자체	교육청	계	국공립	사립	대학	계	국공립	사립			
계	132	47	30	15	44	26	13	5	11	5	6	12	11	7
청주시	40	15	12	3	12	6	3	3	8	3	5	2	1	2
충주시	17	7	3	2	6	4	1	1	2	1	1	1	1	-
제천시	14	6	5	1	5	3	2	-	-	-	-	1	1	1
보은군	5	1	-	1	2	2	-	-	-	-	-	1	1	-
옥천군	6	2	1	1	2	1	1	-	-	-	-	1	1	-
영동군	9	2	1	1	4	2	2	-	-	-	-	1	1	1
증평군	6	2	1	1	1	1	-	-	-	-	-	1	1	1
진천군	9	4	3	1	1	1	-	-	1	1	-	1	1	1
괴산군	6	1	-	1	3	2	-	1	-	-	-	1	1	-
음성군	12	4	2	2	6	3	3	-	-	-	-	1	1	-
단양군	8	3	2	1	2	1	1	-	-	-	-	1	1	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2019



○ 지역별로 청주시가 40개로 가장 많으며, 충주시 15개, 제천시 14개, 음성군 12개 순으로 나타남(청주·충주·제천에 문화기반시설 53.0%가 집중 분포됨)

〈표 III-4- 2〉 연도별 충청북도 문화기반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시·군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119	126	126	126	128	130
청주시	40	41	40	41	40	40
충주시	16	16	16	15	16	15
제천시	13	13	13	13	14	14
보은군	5	5	5	5	5	5
옥천군	6	7	6	6	6	6
영동군	8	9	9	9	9	9
증평군	5	6	6	6	6	6
진천군	7	9	8	8	9	9
괴산군	5	5	6	6	6	6
음성군	7	7	9	9	9	12
단양군	7	8	8	8	8	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량, 2019

○ 충청북도는 ‘10~20년 미만’ 문화시설이 42개로 가장 많았으며, ‘10년 미만’ 문화시설은 28개로 나타났으며, 20년 이상된 노후 문화시설은 총 56개로 조사됨

〈표 III-4- 3〉 충청북도 문화시설 노후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10년 미만 (2010~)	10~20년 미만 (2000~09)	20~30년 미만 (1990~99)	30~40년 미만 (1980~89)	40년 이상 (1970~)
문화시설	도서관	17	7	9	7	4
	박물관	8	21	6	5	4
	미술관	3	5	-	-	-
	문예회관	-	3	4	5	-
	지방문화원	-	-	1	-	10
	문화의집	-	6	1	-	-
합계		28	42	21	17	1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9

- 지역별 인구 백만 명당 문화시설 수는 제주 205개, 강원 141개, 전남 115개, 전북 86개, 충북 80개 순으로 나타남
- 인구대비 문화시설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보다는 지방에 더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됨
- 2018년 기준 전국의 문화재단은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 16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71개 등 총 87개가 설립·운영되고 있음
- 충청북도는 광역단위의 충북문화재단과 기초단위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충주 중원문화재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2018년 전국 공연장은 1,062개로 충청북도는 21개(민간 5개, 공공 16개)가 등록되어 운영 중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부터 국민 일상 속 문화예술 활동 확대를 위해 기존 문화시설 및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활동공간인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2018년 12월 기준 전국 119개 생활문화센터 운영 중
- 충청북도는 청주시, 충주시, 괴산군 3개가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 및 북카페, 공연장 등 지역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문화시설로 조성됨

〈표 III-4- 4〉 충청북도 생활문화센터 현황

(2018.12.31. 기준)

시·군	센터명	운영방식	선정연도	개관연도	인력현황(명)
청주시	청주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5	2017	3
충주시	충주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2015	2016	2
괴산군	괴산 생활문화센터	직영	2014	2015	3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재구성, 2019



○ 충청북도는 전국 555개 영화상영관 중 19개(3.4%)의 영화상영관이 개관·운영되고 있으며, 청주시가 10개로 가장 많은 영화관이 위치하고 있음

〈표 III-4- 5〉 충청북도 영화상영관 현황

(2020.1. 기준)

시·군	영화상영관명	스크린 수	좌석수	개관일	운영형태
충청북도 (19)	총 계	125	19,816		
청주시 (10)	소 계	79	13,182		
	메가박스 청주사창	4	431	2018.11.30.	위탁
	CGV 청주(서문)	10	2,027	2007.10.09.	직영
	롯데시네마 청주	8	1,402	2008.12.02.	직영
	CGV 청주성안길	8	1,239	2008.07.24.	위탁
	CGV 청주지월시티	8	1,675	2014.04.24.	직영
	CGV 청주터미널	8	1,292	2019.02.01.	위탁
	CGV 청주올량	11	1,535	2018.11.28.	직영
	롯데시네마 청주용암	8	1,282	2016.11.25.	직영
	롯데시네마 서청주	6	1,286	2012.11.09.	직영
	메가박스 오창	8	1,013	2017.12.14.	위탁
충주시 (3)	소 계	23	3,616		
	롯데시네마 충주	5	746	2019.09.19.	위탁
	씨네큐 충주연수	8	1,191	2018.06.15.	위탁
	메가박스 충주	10	1,679	2002.12.19.	위탁
제천시(1)	메가박스 제천	7	1,200	2004.12.16.	위탁
옥천군(1)	옥천 향수시네마	2	95	2018.08.02.	직영
영동군(1)	영동 레인보우 영화관	2	97	2016.10.13.	직영
진천군(1)	메가박스 진천점	4	593	2015.12.30.	위탁
괴산군(1)	괴산자연드림파크 괴산극장	3	234	2018.11.01.	직영
음성군(1)	CGV 충북혁신	5	799	2019.04.19.	위탁

주 : 보은군, 증평군, 단양군은 영화상영관 없음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http://www.kobis.or.kr>), 2020.02.07. 확인.

□ 문화예술 활동 현황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전국 17개 시·도 문화예술 활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이 공연예술 7,018건, 시각예술 6,199건으로 가장 많은 공연 및 전시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그다음 순으로 경기지역이 공연예술 2,568건, 시각예술 1,457건으로 높게 나타남
- 충청북도는 공연예술 407건(16위), 시각예술 299건(13위)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및 경기지역 중심으로 문화예술 활동의 상당 부분이 발생하고 있음
- 충청북도의 시각예술 평균 전시 기간은 28.4일로 경기 38.9일, 전남 36.5일에 이어 4번째로 전시 기간이 길게 나타남
- 인구 대비 문화예술 활동 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경기지역으로 31.3건으로 나타났으며, 충북 도는 44.3건으로 17개 시·도 중 14위를 차지함
- 총 문화예술 활동 건수에서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집중되는 듯 보였으나, 인구 대비 평균 수치를 조사한 결과 수도권 외 지역에도 문화예술 활동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음

〈표 III-4- 6〉 인구 10만 명당 문화예술 활동 건수

(단위 : 건)

지역	인구 수 (단위:천 명)	공연예술						시각예술	계
		국악	양악	연극	무용	혼합	소계		
서울	9,857	6.3	36.2	16.9	5.1	6.6	71.2	62.9	134.1
부산	3,471	2.0	27.7	14.8	3.7	4.6	52.8	26.3	79.1
대구	2,475	2.0	28.9	16.0	2.8	4.8	54.6	33.5	88.0
인천	2,949	1.3	14.2	9.8	1.7	3.4	30.5	23.4	53.9
광주	1,464	4.5	26.4	17.4	2.4	8.0	58.6	39.0	97.6
대전	1,502	3.0	26.2	16.5	2.4	6.7	54.8	26.9	81.7
울산	1,165	3.4	23.1	10.3	2.5	9.7	49.0	19.3	68.3
세종	280	3.2	7.5	9.3	1.4	10.7	32.1	10.7	42.8
경기	12,874	0.9	8.6	6.9	1.0	2.4	19.9	11.3	31.3
강원	1,550	6.7	25.7	21.0	3.1	8.8	65.3	35.7	101.1
충북	1,594	2.8	7.8	8.3	1.1	5.5	25.5	18.8	44.3
충남	2,117	2.9	12.7	11.6	2.6	5.1	34.8	13.7	48.5
전북	1,855	4.7	22.2	16.6	3.2	7.9	54.5	30.8	85.4
전남	1,896	4.1	14.7	13.7	1.4	7.3	41.2	18.8	60.0
경북	2,692	2.2	12.7	9.5	1.9	2.2	28.6	14.6	43.2
경남	3,380	2.0	18.0	13.0	1.7	3.8	38.6	16.1	54.7
제주	657	4.0	44.6	24.2	5.3	9.4	87.5	44.4	131.9
전국		3.1	20.4	12.6	2.6	5.0	43.7	28.2	71.9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연감, 2018 (2017년 기준)

- 충청북도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문화예술 활동내역을 정리한 결과, 시각예술은 2015년 352건에서 2017년 299건으로 매년 감소하였으며 공연예술은 2015년 279건에서 2017년 40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2015년에는 시각예술 활동이 352건(55.8%)으로 공연예술 활동 279건(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2017년에는 공연예술 활동이 407건(57.6%)으로 시각예술 활동 299건(42.4%)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III-4- 7〉 충청북도 문화예술 활동 현황

(2017년 기준)

구분		공연예술						시각예술	계
		국악	양악	연극	무용	혼합	소계		
2017년	활동 건수	44	124	133	18	88	407	299	706
	비율	6.2%	17.6%	18.8%	2.5%	12.5%	57.6%	42.4%	100%
	10만 명당 활동 건수	2.8	7.8	8.3	1.1	5.5	25.5	18.8	44.3
2016년	활동 건수	43	114	168	19	39	383	305	688
	비율	6.3%	16.6%	24.4%	2.8%	5.7%	55.7%	44.3%	100%
	10만 명당 활동 건수	2.7	7.2	10.6	1.2	2.5	54.1	19.2	43.2
2015년	활동 건수	47	96	106	17	13	279	352	631
	비율	7.4%	15.2%	16.8%	2.7%	2.1%	44.2%	55.8%	100%
	10만 명당 활동 건수	3.0	6.1	6.8	1.1	0.8	17.9	22.5	40.4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연감, 2018

- 2017년 기준 충청북도에서 공연과 전시 등 문화예술 활동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문화시설은 청주예술의전당, 제천시문화회관, 제천문화원,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충주시문화회관 순으로 나타남
- 청주예술의전당은 197건의 전시와 공연을 개최하며 다른 시설에 비해 활동 건수가 매우 높음

〈표 III-4- 8〉 충청북도에서 문화예술 활동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시설(상위 5개)

(단위 : 건)

순위	문화시설	공연예술						시각예술	계
		국악	양악	연극	무용	혼합	소계		
1	청주예술의전당	17	76	24	10	32	159	38	197
2	제천시문화회관	1	15	24	0	10	50	1	51
3	제천문화원	0	0	0	0	0	0	33	33
4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0	0	0	0	0	0	29	29
5	충주시문화회관	3	7	3	3	7	23	4	27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연감, 2018 (2017년 기준)

I 문제점

□ 주요 문화기반시설의 지역편차 심화

- 문예회관, 문화의집, 지방문화원은 사업시행 단계부터 지역별로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공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의 시설은 청주·충주·제천 등 3개 시에 주로 위치하고 있음
- 충청북도에서 공연과 전시 등 문화예술 활동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문화시설은 청주예술의전당, 제천시문화회관, 제천문화원,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충주시문화회관 등으로 지역 간 문화예술 활동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
- 충청북도는 매년 도서관, 박물관 등 주요 문화시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 간 문화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지원 필요

- 충청북도는 공공도서관과 박물관에 비하여 미술관의 설립·운영이 매우 저조한 상황임
 - 현재 충청북도의 미술관은 총 11개이며, 청주·충주·진천 이외 타 시·군은 미술관을 운영하지 않고 있음
- 또한 시각예술 분야의 활동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공연예술 분야의 경우 양악과 연극 활동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시각예술 향유를 위한 다양한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할 수 있는 미술관 및 문화공간을 확대하고, 국악과 무용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공연예술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여건분석 및 전망

Ⅰ SWOT 분석

- 충청북도는 충청유교문화권 및 중부내륙권 중원문화 중심지로서 그 문화관광 자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
- 국제규모의 지역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대형 복합문화센터 부재로 인한 대규모 문화행사 유치의 한계점을 동시에 가지며, 지역 내 문화예술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 주 52시간 근로단축으로 인한 문화향유 및 여가 활동 분위기 확산에 걸 맞는 타 지역의 축제와 달리 지역의 특색을 갖춘 문화적 축제 및 관광대상지의 개발이 필요함

〈표 Ⅲ-4- 9〉 SWOT 분석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유교문화권 기반 구축 • 중부내륙권 중원문화(고구려문화) 중심지 부각 • 국제규모의 지역 문화축제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복합문화센터 부재로 인한 대규모 문화행사 유치 한계 • 지역 내 문화예술 전문인력 부족 • 일상생활 문화 참여 부족
기회(O) ⇒ 포착	위협(T) ⇒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52시간 근로 단축으로 문화향유 및 여가 활동 분위기 확산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인간 소외감 증대에 따른 문화 예술 필요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간 문화격차 지속 • 세계화, 기술발달 등으로 문화의 획일화 확산 • 인구감소, 고령화로 인한 지역문화 소멸 위기

Ⅰ 여건전망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문화정책 수립 필요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의 변화는 인간의 고유한 사유력과 상상력의 쇠퇴 및 소외현상을 가져올 수 있어 우려되고 있음
-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기술혁신으로 인해 인간이 하던 단순 노동 직종들은 우선적으로 사라질 우려가 있는 반면 소설가, 음악가, 무용가 등 문화예술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가장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됨(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 2018)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움을 받아 인간의 문화예술의 표현과 창작 잠재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주도권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문화자치를 통한 지역문화 시대 도래

- 문재인 정부는 높아진 지역의 자치분권 요구에 대응하여 ‘지방자치와 분권’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으며, 분권에 따른 지역문화의 중요성 또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 설정 필요
- 지역문화는 지역민의 생활문화, 전승되어 온 생활양식 또는 전통문화, 미래의 창조문화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써 지역정체성의 발견과 그에 근거한 지역 발전의 기초가 됨
 - 지역문화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함(「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제1호)
- 중원문화(고구려문화)의 중심인 충북(충주시)은 삼국시대 백제, 고구려, 신라가 차례로 차지한 지역으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음
 - 충주고구려비(중원고구려비)는 고구려 시대의 유일한 비석으로 당시 3국의 국제적·정치적 관계, 문화적 교류와 영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 국토의 중심, 철의 고장, 교통의 요충지, 구국전쟁의 고장, 전통무예 택견의 성지 등 충청북도의 역사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일과 삶의 균형으로 개인의 생활문화 활동 확대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워라밸(Work-Life Balance)’ 등 삶의 질을 우선하는 가치관이 높아지고 있음
- 생활문화를 확산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리는 여가가 있는 삶을 달성할 수 있도록 문화가 일상이 되는 정책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주민의 일상적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문화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음(2019년까지 누적 191개소 조성, 2020년 161개소 추가 조성 예정)
- 기존의 유희 공간 문화·복지시설 등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생활권에 기반한 커뮤니티형 문화공간을 확대해 나아가야 함
 - 생활문화는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무형·유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함(「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제2호)



□ 다양한 문화 간 교류 및 소통 활성화

- 다문화사회로의 도래,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 급격한 도시화 등 국내외 정책 환경에 대한 변화에 따라 다양한 문화적 표현이 존중되고, 향유될 수 있는 여건 및 제도적 기반 조성 필요
-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 및 문화 창조를 위하여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됨
 - 충청북도는 2017년 11월 「충청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확산됨에 따라 성별·소득계층·세대·지역·장애, 농어촌과 도시 문화 등 다양한 소수문화를 보호하고 소수문화와 주류문화 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이 발굴·개발되고 있음(다양한 문화계층에 대한 문화권 확대)
- 충청북도는 문화다양성법에 의해 2015년부터 매년 5월 21일 시행하고 있는 ‘문화다양성의 날’ 최초 행사를 청주문화산업단지 일대(옛 연초제조창)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한국의 문화다양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화두를 제시함

□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

- 문화복지는 궁극적으로 소득, 지역, 성별, 연령, 직업의 격차 없이 국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문화권의 확산을 전제로 함(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 2018)
- 문화소외는 계층·지역과 상관없이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외 대상의 새로운 정의와 확대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복지가 실현되어야 함
- 경제적 소외에서 발생하는 문화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2006년 문화바우처(2014년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로 통합)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다양한 소외계층의 여건에 따라 사용에 한계를 가짐
- 전 국민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정책 마련 필요

□ 코로나19가 가져온 문화예술의 변화

- 문화예술 환경의 변화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밀폐된 공간에서의 불안감이 지속됨에 따라 조명, 음향 등의 문제로 대부분 실내에서 진행한 문화예술 공연 및 행사를 실외로 확장하는 등 과감한 시도 및 전환 필요
 - 실내 공간이 필수적인 공연 및 행사의 경우 기술을 활용하여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마련을 모색해야 하며, 함께 있지만 완전히 개별적인 감상이 가능한 공간(객석과 무대 간의 개별적 격리 등)으로 변화 가능

○ 실시간 문화예술 운영 플랫폼 구축

- 현재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문화예술 전시 및 공연을 녹화하여 이를 업로드하는 방법은 공연의 현장성, 수익성 등에서 한계를 가짐
- 실시간 소통 미디어기술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대안 마련 필요

○ AI를 활용한 문화예술 향유

- 문화예술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창작활동이 지속되어야 함
- AI는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학습하고 새롭게 창작하는 단계까지 발전했으며, 인간과 협업하여 문화예술능력을 함께 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됨



3) 추진과제

□ 지역문화 자치기반 구축

- 문화체육관광부는 높아진 문화자치와 분권 요구에 맞춰 지역에서 여건에 맞는 문화정책을 시행하고 자율성과 권한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지역문화 예산 4천억원을 지방으로 이양
 - 문화소외계층, 기반시설, 재정 현황 등 문화취약지역에 대한 기준 마련으로 도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맞춤형 문화정책 수립
 - 도내 관련 공모사업 추진 시 해당 문화취약지역에 대한 할당제·가점 부여 등 우선지원을 통해 지역 간 균형있는 문화기반 구축 유도
 - 현재의 낙후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 등을 고려한 중장기 정책 수립
- 변화하는 지역문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지역문화 전문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방안 마련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지원 필요
 - 충북문화재단이 중앙·지자체 거점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되어 문화예술교육가 등 전문인력들의 경력 관리 및 교육 지원
 -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생활문화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전문인력 취업 지원
- 지역문화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전담기관(예 충북문화재단)을 지정하여, 체계적·효율적인 지역문화 사업 추진기반 마련 필요
 - 지역문화 협력체계 구축으로 도 내 지역문화 기관별, 예산·규모 등 실태파악을 통해 지원사업 기관 간 연계·협력 추진
- 지역문화 분권·자치 및 다양한 주체 간 소통과 협업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충북도 내 자율적 문화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수립 필요(충청북도는 2014년 ‘충북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2015~2019)’ 수립)
 - 2020년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이 수립·발표됨에 따라 충청북도 또한 지역문화진흥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여 분야별로 주기가 상이한 문화예술분야 지자체 법정 계획들을 효율적으로 수립·관리체계 마련
- 지역문화예술의 창작 활성화 및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의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창작활동 지원
 - 예술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예술활동을 발굴하고 새로운 지역의 문화가치 창출

□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을 통한 충북 지역정체성 확립

-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유·무형 문화재에 대한 발굴·수집·보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소재 대학, 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체계적인 보존 및 전승 방안 마련이 시급
 - 시도 무형문화재 등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지원 및 생활 안전망 구축을 통해 건강한 예술 생태계 구축
 - 활용도가 낮은 기존의 지역 문화기반 시설 또는 도시재생 지역 유휴공간을 예술인 창작공간으로 조성하여 예술 활동 지원
- 2019년 기준 784개의 등록문화재 중 충청북도는 29개의 등록문화재가 지정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발굴 및 지정을 통해 미래 문화자산으로써 활용 지역문화유산의 미래 자산화 필요
 - 문화재야행 등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특색있는 문화 콘텐츠를 제작 및 지원
-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문화자원의 융합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각 분야의 연구개발(R&D) 체계 구축 필요
 - 관광, 체육, 인문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여 창의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발굴 및 지원
 - 지역 기업과 문화 관련 기관·단체와의 매칭펀드 사업(메세나 등)을 통해 젊은 예술가·창작자, 문화 벤처의 실험적 시도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기획
- 문화재청은 2018년 등록문화재 보호체계를 점단위에서 선·면단위 체계로 조정하여 도시재생과 연계한 근대역사문화공간을 조성, 지원하고 있음(2018년 최초 3개소 등록 : 군산, 목포, 영주)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등록문화재, 민속문화재 등의 보존 및 활용추진 기반 조성으로 지역민이 함께 즐기고 참여하며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역사회·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문화도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 또한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하여 문화도시 지정 근거 마련
 - 정부는 문화적 기반과 역량을 갖춘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5~10개 문화도시를 지정한다고 발표하였으며, 2022년까지 전국 30개 내외 문화도시¹⁴⁾ 지정
- 무분별하게 방치된 지역의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복원과 활용을 통해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을 통한 문화재보수사업 및 종합정비사업 추진

14) 문화도시 : 문화적인 사회발전 구조와 체계를 갖춘 법적 지정도시(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

- 지역주민들의 일상적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문화센터’의 지속적인 확충 필요
 -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기반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컨설팅 및 운영자 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 노후화된 문화기반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컨설팅과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생활사회 간접자본(SOC) 시설과의 복합화를 유도해 내실있는 운영 지원
 - 가상·증강현실,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박물관·미술관의 전시·교육 서비스 개발 지원 등 다양한 보조시설 구축 및 활용
-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문화모임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및 유휴공간을 지원하는 ‘1관(館) 1단(團)’ 사업을 도입하여 단계별 생활문화동호회 지원방안 마련
 - 생활 속 문화 확산을 위해 ‘문화의 달’, ‘문화가 있는 날’, ‘박물관·미술관 주간’ 등 문화체험 기간의 홍보 및 참여 독려
 -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보편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으로 문화향유 기반 강화 추진
- 청소년, 직장인, 노인(중장년층) 등 생애주기별 문화복지 정책을 수립하여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로 전환
- 빈곤계층, 노인, 어린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산간오지, 농산어촌 등 접근성이 취약한 문화소의 지역을 대상으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필요
 -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박물관·미술관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시설 및 서비스 개선
 - 점자 안내문, 터치형 작품 개발 및 설치, 청각장애인용 수화안내서비스, 관람 동선 개선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이용 가능한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사용자들이 영화 관람, 도서 구입 등 특정 분야에 이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추진
- 정부는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라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2020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2020년 전국 289개의 사업 선정, 추진 중)
- 충청북도는 2020년 8개의 복합화시설을 조성해 25개 생활SOC 시설을 새로 설치할 예정으로 국비 421억 원을 포함해 총 1,078억 원이 집행 예정
 - 생활SOC 복합화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사업으로써 생활문화센터와 미술관, 도서관 등의 유치를 통해 내실 있는 문화기반 시설 운영 필요
- 충청북도의 2020년 문화누리카드 오프라인 가맹점은 문화분야 459개, 관광분야 451개, 체육분야 107개로 총 1,017개임

- 문화분야 충청북도 오프라인 가맹점 중 청주시가 230개로 충청북도 가맹점의 50.1%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미술, 도서 분야의 가맹점은 대부분 서점과 사진관으로 나타나 특정 분야에 이용이 편중(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문화누리카드 이용객들의 가장 많은 사용처는 서점과 영화관으로 조사됨)
 - 문화누리카드 사용 가능한 가맹점을 다양화하고, 지역별로 균형있는 가맹점 확보 및 선정
- 지역을 대표하는 충북도립도서관 건립
 - 도서관법 제22조(설치)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지역대표도서관 설립·운영)에 따른 광역차원의 도서관 정책 수립 필요
 - 도립대표도서관 유치를 통해 도민들의 도서문화 생활화와 이용자 중심의 효율적인 도서관 서비스 제공 필요

□ 지속가능한 新 문화콘텐츠 산업 생태계 육성

- 코로나19 이후 대부분의 산업들이 전통적인 대면 서비스에서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
- 실시간으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줌(Zoom)', '웹엑스(Webex)', 구글 '지스위트(G-suite)' 등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 수요 대비
 - 향후 많은 문화콘텐츠들이 제작되고 유통됨에 따라 통합적으로 아카이빙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 비대면 문화콘텐츠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및 콘텐츠 다변화 추진
- 스마트 공연·전시장 구축
 - 융복합 기술과 문화예술 콘텐츠의 결합을 구현할 수 있는 스마트 공연장을 구축하여 예술인들의 안전한 창작활동을 보장하고 저자본 공연예술의 영상화 지원
 - 디지털 환경의 접근성이 낮은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대면 공연 및 전시의 경우, 관람객들의 안전한 관람이 가능하도록 관람환경을 고려한 설계
 - 충청북도의 다양한 콘텐츠를 아카이빙 및 관리함으로써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물 축적뿐만 아니라 예술활동을 위한 예술인들의 참고자료 활용
- 디지털 환경 적응을 위한 예술인 교육
 -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공연예술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적응하기를 원하는 예술가들에게 관련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자발적인 온라인 예술활동 창작 유도
 - 정보 접근성 및 공유와 활용성 제고를 위해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예술가들을 위한 디지털콘텐츠 아카이빙과 교육시스템 구축 및 제공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 및 예술인 권익보호 등 기초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예술 현장에서 요구되는 인력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역량진단 척도개발, 희망진로별 디지털·온라인교육 신설



- 온라인 공연과 관련된 저작권 관련 규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예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공연영상물 이용 환경 구축

○ 새로운 Culture Technology 실현을 위한 문화벤처 육성

- 비대면 온라인 관객들에게 현장감 있는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디지털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첨단 문화예술 산업의 집중 지원
- 4차 산업 핵심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전시, 공연을 기획하고 운영하기 위한 전문 기업 육성 및 인재 양성 기반 마련
- 기술 집약적 비대면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해 언택트 문화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 및 판로 모색

〈표 III-4-10〉 일상이 문화가 되는 격조 높은 지역 구현을 위한 추진사업

전 략 명	과 제 명	단기 (20~25)	중기 (26~30)	장기 (31~40)	비고
일상이 문화가 되는 격조 높은 지역 구현	1. 증강현실 가상 문화체험센터 건립				
	2. 드론, AI로봇 메이커존운영을 통한 미래형 교육문화 복합시설 설립				
	3. IoT, AI 활용 디지털기반 미래형미술관 건립				
	4. 문화도시 지정 추진				
	5. 지역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				
	6. 교육복합문화시설(생활문화센터 등) 확충				
	7. 문화누리카드 충북 가맹점 확대				
	8. 문화권리 확산을 위한 예술교육				
	9. 충북 도립도서관(충북미래도서관) 건립				
	10. 충주 미륵리 종합정비사업				
	11. 우국이세(祐國利世) 한글문화관 건립				
	12. 생활문화체육센터생활SOC복합화 사업				
	13. 옥천묘목세계 박람회 개최				
	14. 국립호수생태자원관 건립				
	15. 역사문화박물관 건립				
	16. 일광굴 테마공원 조성				
	17. 권역별 미술관 건립				

〈표 III-4-11〉 일상이 문화가 되는 격조 높은 지역 구현을 위한 시군계획지침

※ 시·군 계획지침

- 시·군은 문화소외계층, 기반시설, 재정 현황 등 문화취약지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군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맞춤형 문화정책을 수립한다.
- 시·군은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또는 유희공간을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 시·군은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유·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발굴·수집·보전을 위하여 지역소재 대학, 연구원 등 기관 간 협력을 통한 보존 방안을 우선 강구한다.
- 시·군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보편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산하여 문화향유 기반을 강화한다.
- 시·군은 접근성이 취약한 문화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제2절 ▶ 미래관광을 선도하는 관광 르네상스 실현

1) 현황 및 문제점

Ⅰ 현황

□ 관광개발 현황

○ 관광지

- 2019년 기준, 전국에 지정된 관광지는 총 228개소이며, 이 중 충청북도에 지정되어 있는 관광지는 22개소로, 전국 대비 9.6%에 해당됨. 충청북도의 지정관광지는 충주시·제천시·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음성군·단양군 등 8개의 시군에 분포되어 있음
 - 제천시가 7개소로 가장 많은 지정관광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어 충주시 4개소, 단양군 3개소, 보은군·영동군·괴산군 각 2개소, 옥천군·음성군 각 1개소임

○ 관광단지

- 2019년 6월 기준, 전국 47개소 관광단지 중 충청북도에 지정된 관광단지는 증평 에듀팍특구 관광단지 1개소이며, 전국 대비 2.1%에 해당됨
 - 증평 에듀팍특구는 충청북도 첫 관광단지이자 중부권 최대 관광단지로 증평군 도안면 연춘리 일원에 조성되었으며, 총면적 3,035,203㎡의 부지에 관광단지 2,622,825㎡를 갖추고 있음
 - 증평군과 농어촌공사가 2005년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2009년 관광특구로 지정된 후 2016년 민간사업자인 블랙스톤을 영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음

○ 관광특구

- 2019년 4월 기준, 전국 32개소 관광특구 중 충청북도에 지정된 관광특구는 3개소로 전국 대비 9.4%를 차지함. 충청북도의 관광특구 3개소는 충주의 수안보온천, 보은의 속리산, 단양의 단양 등임

□ 자연관광자원 현황

○ 자연공원

- 자연공원은 세부적으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질공원으로 구분됨. 2017년 기준, 전국에 자연공원은 총 86개소로, 22개의 국립공원과 29개의 도립공원, 27개의 군립공원, 8개의 지질공원이 지정되어 있음
- 충청북도에는 속리산, 월악산, 소백산국립공원 3개소가 존재하며, 도립공원과 군립공원, 지질공원은 지정되어 있지 않음

○ 농촌관광자원

- 농촌자원을 활용한 대표적인 관광개발사업으로 관광농원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2018년 기준, 전국 726개의 관광농원 가운데 충청북도에 52개의 관광농원이 운영 중이며, 전국 대비 7.2%에 해당됨
-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경우, 2018년 전국 1,073개의 마을 중 충청북도에 73개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정된 것으로 나타남
 - 시군별로는 보은군이 10개소로 가장 많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양군 9개소, 청주시·영동군·옥천군 각 8개소, 충주시·제천시 각 7개소, 괴산군 6개소, 증평군 4개소, 진천군·음성군 각 3개소 순으로 나타남

○ 산림관광자원

- 2018년 기준, 전국에는 170개소의 자연휴양림(130,828ha)이 운영되고 있으며, 산림욕장은 199개소(10,108.8ha)가 운영됨. 자연휴양림은 전국적으로 국유 43개소(106,562ha), 공유 104개소(21,988ha), 사유 23개소(2,340ha)가 운영 중임
- 충청북도에 20개소의 자연휴양림(3,715ha)이 운영되고 있으며, 산림욕장은 13개소(736ha)가 운영 중임. 충청북도지역 자연휴양림은 주체별로 국립 자연휴양림 3개소(714ha)와 충북 자연휴양림 17개소(3,001ha)가 구성되어 있어, 전국 대비 개소 수는 11.8%, 면적은 2.8%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온천

- 2018년 기준, 전국에 366개의 온천이 지정되어 있어, 연간 6,093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충청북도에 21개의 온천이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188만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전국 대비 이용객 비율이 온천 개소 수 비율보다 낮은 3.0%로 나타남

□ 축제

○ 문화관광축제

- 문화체육관광부가 세계적인 축제 육성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1995년부터 시행해온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에 2019년 전국적으로 41개의 축제가 선정되고 13억 원이 지원됨
 - 전체 41개의 문화관광축제 중 강원·전남이 6개로 가장 많으며, 이어 경기·경북·충남 5개, 경남·전북 4개, 대구·충북이 2개 순으로 나타남



〈표 III-4-12〉 충청북도 지역축제 현황

(단위 : 개)

구분	축제명
청주시(9)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청원생명축제, 젓가락 페스티벌, 청남대 재즈토닉 페스티벌, 청주읍성큰잔치, 청주문화재야행, 청주공예비엔날레, 가드닝 페스티벌, 한마음축제
충주시(4)	충주세계무술축제, 수안보온천제, 충주호벚꽃축제, 양성온천축제
제천시(5)	제천겨울벚꽃축제, 제천얼음축제, 청풍호 벚꽃축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창익124주년 제천의병제
보은군(4)	보은대추축제, 속리산 신(神)축제, 오장환문학제, 보은동학제
옥천군(5)	옥천묘목축제, 옥천참웃축제, 지용제,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 중봉충렬제
영동군(4)	영동난계국악축제, 대한민국와인축제, 영동포도축제, 영동꽃감축제
증평군(2)	증평들노래축제, 증평인삼골축제
진천군(2)	생거진천 농다리축제, 생거진천 문화축제
괴산군(6)	괴산고추축제, 괴산 사리면 백마권역겨울놀이축제, 감물감자축제, 칠성둔울울갱이축제, 청천환경문화축제, 연풍조령제 및 이화령산악자전거대회
음성군(4)	음성품바축제, 설성문화제, 음성청결고추축제, 음성인삼축제
단양군(5)	쌍둥이 힐링 페스티벌, 단양 소백산 철쭉제, 단양 온달문화축제, 단양마늘축제, 단양아로니아축제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충청북도는 음성품바축제와 괴산고추축제가 유망축제로 지정되었으며, 2018년 관광객 수는 각각 23만 명과 17만 명으로 조사됨
- 2019년 기준, 충청북도 지역축제는 49건이 계획되어 전국 884건의 5.5%에 해당하며, 소권역별로 보면, 북부권이 14건, 남부권 13건, 중부권과 청주권이 11건으로 동일하게 개최됨

□ 관광사업 현황

○ 여행업

- 2017년 기준, 충청북도의 여행업체는 총 663개로, 청주권에 전체의 74.1%인 491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어 북부권에 119개, 남부권에 32개, 중부권에 21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음. 세부업종별로는 국내여행업체가 214개로 가장 많으며, 국외여행업과 국내외여행업 각 207개, 195개, 일반여행업 47개 순임

○ 관광숙박업

- 2017년 기준, 충청북도의 관광숙박업체는 33개, 북부권에 22개(66.7%) 업체가 집중되어 있으며, 청주권 7개, 중부권과 남부권에 각 2개 업체가 운영 중임. 관광호텔업이 21개로 가장 많으며, 휴양콘도미니엄업 8개, 가족호텔업 2개, 기타호텔업은 2개 업체가 운영 중임
- 시군별로 보면, 충주시에 14개소로 가장 많은 관광숙박업체가 운영 중이며, 영동·증평·진천·괴산 등 4개 군에는 등록된 관광숙박업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관광객이용시설업

- 2017년 기준, 충청북도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체는 31개로 북부권에 20개(64.5%), 중부권 7개, 청주권 4개가 있으며, 남부권에는 관련 업체가 전무함. 세부업종별로는 자동차야영장업 25개소로 가장 많으며, 전문휴양업 5개, 종합휴양업 1개로 나타남

- 시군별로는, 충주시가 8개소로 가장 많으며, 단양군 7개, 제천시 5개, 음성군 4개, 청주시 3개, 진천군 2개, 증평군과 괴산군 각 1개 순으로 나타남

○ 국제회의업

- 국제회의시설업과 국제회의기획업으로 분류되며 충청북도에는 국제회의기업체만 청주시에 3개소, 진천군에 1개소가 등록되어 있음

○ 유원시설업

- 2017년 기준, 충청북도의 유원시설업체는 80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작년과 비교하면 약 1.7배 증가하였으며, 청주권에 47개(58.8%), 북부권 17개, 중부권 7개, 남부권 9개 업체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기타유원시설업이 65개, 일반유원시설업이 15개이며, 종합유원시설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47개소로 유원시설업체가 가장 많으며, 이어 제천시 8개소, 충주시와 영동군 각 7개소, 음성군 4개소, 진천군 3개소, 단양군 2개소, 보은·옥천·증평군이 각 1개소 순으로 나타남

○ 관광편의시설업

- 2017년 기준, 충청북도의 관광편의시설업체는 52개로, 북부권에 전체의 48.1%인 2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청주권에 15개, 남부권 11개, 중부권 1개 업체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는, 한옥체험업이 28개로 가장 많으며, 관광펜션업 10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7개, 관광극장유흥업 5개, 관광식당업 2개로 나타남
 - 한옥체험업 28개소 중 11개소가 남부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관광식당업과 관광펜션업은 북부권에, 관광극장유흥업은 청주권에 한정됨



〈표 III-4-13〉 충청북도 관광사업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북부권				중부권				청주권			남부권			
			계	충주	제천	단양	계	진천	괴산	음성	계	청주	증평	계	보은	옥천	영동
여행업																	
일반여행업		47	9	4	5	-	3	1	1	1	34	33	1	1	-	-	1
국외여행업		207	34	25	2	7	3	-	-	3	161	161	-	9	7	2	-
국내여행업		214	38	26	3	9	4	-	-	4	163	161	2	9	4	3	2
국내외여행업		195	38	22	16	-	11	4	-	7	133	131	2	13	4	4	5
합계		663	119	77	26	16	21	5	1	15	491	486	5	32	15	9	8
관광숙박업																	
호텔업	가족호텔업	2	2	1	1	-	-	-	-	-	-	-	-	-	-	-	-
	관광호텔업	21	10	6	3	1	2	-	-	2	7	7	-	2	1	1	-
	기타호텔업	2	2	2	-	-	-	-	-	-	-	-	-	-	-	-	-
휴양콘도미니엄업		8	8	5	2	1	-	-	-	-	-	-	-	-	-	-	-
합계		33	22	14	6	2	2	0	0	2	7	7	0	2	1	1	0
관광이용시설업																	
전문휴양업		5	3	3	-	-	2	1	-	1	-	-	-	-	-	-	-
종합휴양업		1	-	-	-	-	-	-	-	-	1	1	-	-	-	-	-
자동차야영장업		25	17	5	5	7	5	1	1	3	3	2	1	-	-	-	-
합계		31	20	8	5	7	7	2	1	4	4	3	1	0	0	0	0
유원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	-	-	-	-	-	-	-	-	-	-	-	-	-	-	-
일반유원시설업		15	9	4	3	2	-	-	-	-	4	4	-	2	1	-	1
기타유원시설업		65	8	3	5	-	7	3	-	4	43	42	1	7	-	1	6
합계		80	17	7	8	2	7	3	0	4	47	46	1	9	1	1	7
관광편의시설업																	
관광유희음식점업		-	-	-	-	-	-	-	-	-	-	-	-	-	-	-	-
관광극장유희업		5	-	-	-	-	-	-	-	-	5	5	-	-	-	-	-
외국인전용 유희음식점업		-	-	-	-	-	-	-	-	-	-	-	-	-	-	-	-
관광식당업		2	2	1	1	-	-	-	-	-	-	-	-	-	-	-	-
시내순환관광업		-	-	-	-	-	-	-	-	-	-	-	-	-	-	-	-
관광사진업		-	-	-	-	-	-	-	-	-	-	-	-	-	-	-	-
관광펜션업		10	10	-	7	3	-	-	-	-	-	-	-	-	-	-	-
관광캐도업		-	-	-	-	-	-	-	-	-	-	-	-	-	-	-	-
한옥체험업		28	10	7	1	2	-	-	-	-	7	5	2	11	7	4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7	3	3	-	-	1	1	-	-	3	3	-	-	-	-	-
합계		52	25	11	9	5	1	1	0	0	15	13	2	11	7	4	0

주 : 여행업에서 하나의 사업체가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모두 등록한 경우 국내·외여행업으로 분류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7

□ 관광시장 현황

○ 2018년 기준, 충청북도의 주요관광지점 입장객(이하 관광객)은 2,545만 명으로 집계되며, 이 중 내국인이 2,540만 명(99.8%), 외국인이 5만 명(0.2%)으로 내국인 관광객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최근 5년 동안 관광객 수는 추세적으로 증가하며 연평균 21.9%를 나타냄

〈표 III-4-14〉 충북 주요관광지 입장객 추이

(단위 : 명,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증가율
합계	11,508,816	18,281,713	19,413,686	23,785,413	25,452,411	21.9
내국인	11,357,570	18,155,462	19,252,737	23,725,948	25,399,634	22.3
외국인	151,246	126,251	160,949	59,465	52,777	-23.1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

I 문제점

□ 거점시설 확충 지속

○ 충북 청주 전시관 및 미래해양과학관(청주), 국립충주박물관, 증평에듀팜관광단지 등 지역별 관광 거점시설이 건립을 확정하였거나 활발한 조성 중에 있음



〈그림 III-4- 1〉 충북도 내 주요 관광거점 시설

□ 한국관광 100선 및 한국관광의 별 선정 등 북부권 성장세 뚜렷

- ‘한국관광 100선’은 명소로서 지속성의 평가와 외국인 방문객 유치에 기여하고 있는데 충청북도 내 성과는 상대적으로 부족함. 2021~2022년 선정지역은 충청북도 4개소(제천 청풍호반 케이블카, 제천 의림지, 청주 청남대, 단양 만천하 스카이워크&잔도)인데 반해, 경기 12개소, 강원 10개소, 서울 9개소, 부산 8개소, 전남 7개소, 제주 7개소 등으로 나타남
- ‘한국관광의 별’은 한 해 동안 한국 관광 발전에 기여한 우수한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제도로 2010년 처음 도입되어 매년 시행되었음. 2019년에는 기존의 분야·부문별 시상 체계를 본상 및 특별상 시상 체계로 개편해 관광자원의 매력도와 기여도에 더욱 중점을 두었음. 2020년 제천 청풍호반 케이블카가 본상을 수상함



〈그림 III-4- 2〉 제천 청풍호반 케이블카

□ 내국인 중심 관광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 최근 5년간 관광객 추이를 살펴보면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기준, 충청북도 주요관광지 관광객 중 내국인 비중이 97.8%를 나타내어 내국인 관광객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외래관광객 1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검토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 중 충북 방문 비율은 전체 0.4%로 나타나 관광목적지로서 위상을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임

□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분야 미흡

- 청주국제공항 및 오송역 등 행정수도 세종시의 관문이 충청북도에 집적되어 있음에도 관련 수요의 적극적 유치를 통한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분야에 대한 육성 미흡
- 청주국제공항 및 오송역을 중심으로 국제회의 복합지구 육성, 스마트 마이스 인프라 조성, MICE 유니크 메뉴 확대 등 고부가가치 산업인 MICE 분야에 대한 집중 육성이 필요

□ 대규모 시설 중심 관광자원 육성

- 거점시설은 지역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시설을 확충했다는 결과적인 측면에서 성과라 할 수 있으나, 지역사회에 대한 편익, 주민 주도 관광상품 기획 등 소프트적인 측면에서의 논의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지니고 있음

□ 미호천 선사문화특구 프로젝트

- 금강의 지류인 미호천은 구석기시대부터 인류 역사 발전의 시작점이었고, 다양한 유적이 조사된 청동기유적이 널리 분포하여 두루봉, 큰용굴, 작은용굴 등 동굴유적 등이 분포하고 있으며 선사시대 동물상 및 문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동물화석과 석기유물 등이 출토됨
 - 조사 유적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만수리, 봉명동, 서촌동, 송절동, 율량동, 청주시 흥덕구 옥산읍 소로리, 진천군 진천읍 송두리, 진천읍 장관리유적 등 구석기유적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쌍청리, 영하리유적 등의 신석기유적, 그리고 집터, 고인돌, 선돌 등
- 동굴유적에서 출토된 동물화석은 옛코리끼·쌍코뿔이·동굴곰·하이에나·큰원숭 등 전 세계에서 멸종되어 현재 한반도에서 살지 않는 동물들이며, 석기유물은 전기~후기 구석기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음
- 소로리유적에서는 석기뿐 아니라 농경의 진화를 엿볼 수 있는 벼씨(고대 벼)까지 출토되어 미호천 유역에는 지속적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음
- 문화유적 조사를 통해 발굴된 유물의 단순 전시를 벗어나 선사시대 동물상과 식물상 등을 활용한 전시와 체험활동 및 현장학습 등 현대인의 감성 및 체험 중심의 소비욕구에 충족하는 관광자원의 개발이 필요함



2) 여건분석 및 전망

I SWOT 분석

- 충청북도는 백두대간 및 국립공원, 충주호와 대청호 등 풍부한 생태자원과 이를 통한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음
- 또한, 북부권 3개 시·군의 관광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한 8개 시·군 지역은 관광목적지로서 인식이 부족함
- 수도권과 행복도시 광역권 등 배후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도내로 유입하기 위한 관광 목적지의 발굴과 개발이 필요함

〈표 III-4-15〉 SWOT 분석 관광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두대간 및 국립공원, 충주호·대청호 등 세계적 생태자원 • 행복도시 관문 청주국제공항 성장 및 철도 인프라 확충 지속 전망 • 북부권 시·군의 관광경쟁력 지속 성장 • 국립현대미술관, 미래해양과학관, 충북 청주 전시관, 국립충주박물관 등 관광 거점 시설 확충 지속 • 수도권, 행복도시광역권 등 배후 시장 • 전통사찰, 직지 등 세계유산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부권 3개 시·군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관광목적지로서 인식 부족 • 지역주민 일상을 여행하기 위한 공간 부족 • 원도심 지역의 노후화 및 불균형 • 국내 관광시장 편중 및 체류형 관광 수요 부족 • 대표 축제 및 차별화된 콘텐츠 부족 • 관광 전담기관 부족 • 음식관광 대표 콘텐츠 및 이미지 부족 • 공정·생태·무장애관광 등 환경 및 지역사회 중심적 접근 미흡
기회(O) ⇒ 포착	위협(T) ⇒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 교통 접근성 획기적 개선 • 중국 성장에 따른 교류확대와 관광수요 급증 • 영상·음악·음식 등 한류 열풍 지속 • 국제회의 도시로서 오송의 잠재력 및 국가산단 등 산업경제 지속 성장 전망 • 친환경 패러다임 확산 및 치유관광 수요 성장 지속 전망 • 귀농·귀촌 인구 증가 추세 지속 전망 • 수상레저활동 수요 증대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도시 및 지방정부 간 관광객 유치 경쟁 심화 • 지방정부 주도 관광 개발 및 상품 기획 전문성 요구 증대 •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부담 가중 •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 관광경쟁력 지역 간 불균형 가중 • 산림·내수면 관련 규제 지속 • 테러, 전염병, 자연재해 등 불확실성 확대

I 여건전망

□ 청주국제공항 및 강호축 등 항공 및 철도 교통 중심 국제도시로 부상

- 행복도시 관문 청주국제공항의 성장 잠재력이 높게 평가받고 있음. 향후 이를 중심으로 공항 도시로의 발전이 모색될 전망이다
- 충북선 철도 고속화 예타 면제, 강호축 국토종합계획 반영 등 철도 교통 중심지가 될 것임. 이를 기회로 지역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관광개발 사업이 추진될 것임
- 이와 함께 편리하고 안전한 광역 관광교통네트워크가 확충되어야 할 것임. 국토 중심 오송에서 전국을 연결하는 첨단 대중교통망이 다양하게 공급되어야 할 것임

□ 관광 거점 시설 확충과 도시관광 경쟁력 제고

-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개관에 이어 미래해양과학관, 국립충주박물관, 충북 청주 전시관(충북 최초 컨벤션센터) 등 문화관광 및 융복합관광 거점시설이 확충될 예정임
-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과 미래해양과학관은 도시관광목적지로서 청주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임
- 충북선 철도 고속화, 중부내륙철도 개통 등 충주시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예정임.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도시재생사업 등 신·구 관광자원을 조화롭게 활용하여 관광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임
- 충북 청주 전시관 완공 시점에 맞춰 컨벤션뷰로와 같은 전담기관 설립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며, 그간 논의되지 못했던 융복합관광분야의 MICE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임
- 자원은 도시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여가 공간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감을 제고할 것임

□ 오송·오창 등 국제도시 성장 잠재력

- 강호축 중심, 행복도시 관문 오송의 입지적 강점을 활용하여 국제회의 복합지구 등 MICE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오창과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항공산업과 공항도시로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복합기능이 설정되어야 할 것임

□ 미래 관광을 주도할 생태관광을 위해 청정호수와 백두대간 적극 활용

- 충주호와 대청호, 백두대간과 국립공원 등 보호규제로 오랜 시간 보존되어 온 청정호수 및 산림의 창의적 활용과 매력도 제고를 통해 지역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임
- 다양한 생태관광명소를 만들어냄으로써 배후지역과의 연계발전을 도모하고 생태관광벨트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전망임

□ 관광개발 및 자원육성 정책 영역과 방식의 전환

- 중앙정부 주도의 수직적 거점 개발에서 중앙·지방정부 및 이해관계자(민간, 비영리 또는 NGO) 간 상호협력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에 직접 지원하여 지역 자체적으로 내발적·지속적 사업 추진의 원동력을 확보하게 할 것으로 전망됨

- 단순 하드웨어(H/W) 중심의 물리적 대상에서 소프트웨어(S/W), 콘텐츠웨어(C/W), 오그웨어(O/W), 휴먼웨어(H/W) 등이 패키지화되어 지속적 관광유입 매력물로서의 관광자원을 육성
- 문화체육관광부¹⁵⁾에서 관광DMO(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 설립 유무를 대규모 공모사업 등 국가 선정 사업에서 중요한 평가지표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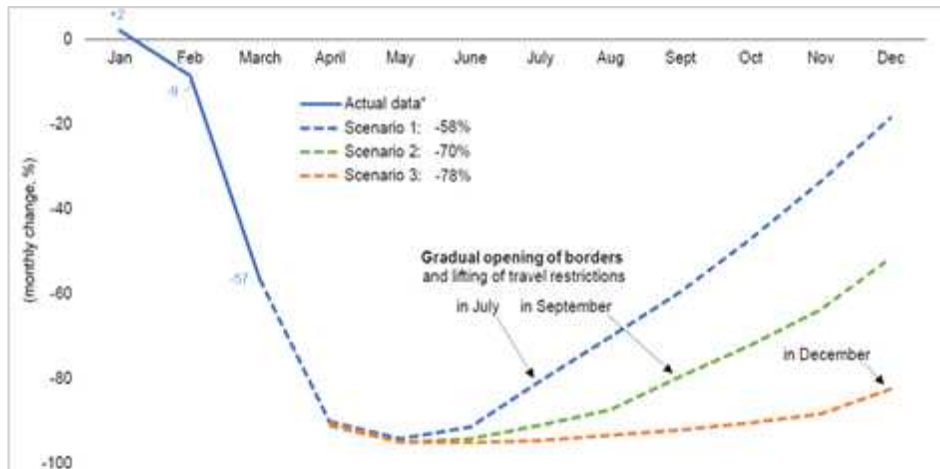


〈그림 III-4-3〉 한국형 DMO와 개념 체계

□ 넥스트 노멀 시대, 관광부문 충격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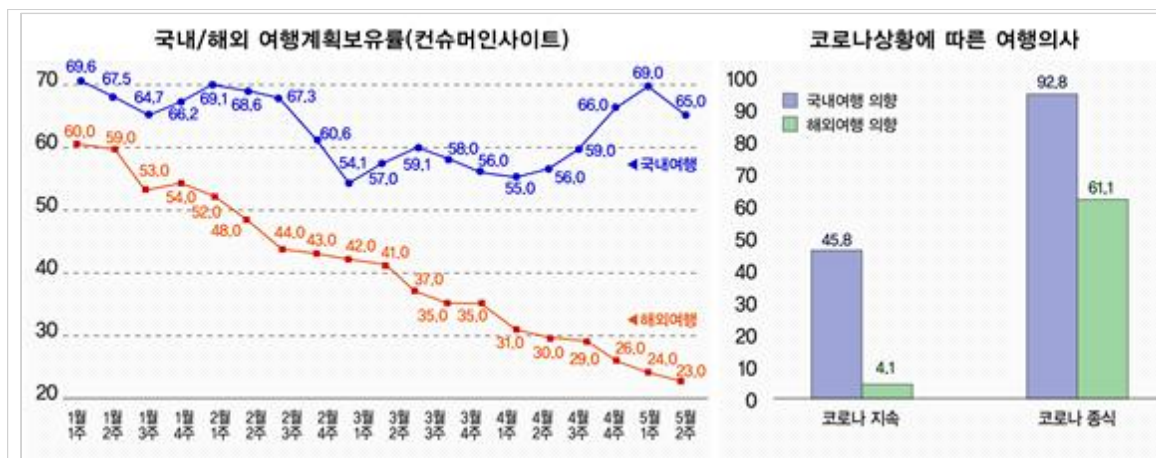
- UNWTO(세계관광기구)는 2020년 국가 간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8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이는 기록을 시작한 1950년 이후 최악의 위기로 평가되고 있음. 지난달 기준 96%의 전 세계 도착자들이 해외여행 제한이나 금지를 조치하고 있는데, 향후 전개 방향에 따른 3개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시나리오 1 : 2020년 7월 초 국가 간 점진적 개방과 여행 제한 완화 시 58% 감소
- 시나리오 2 : 2020년 9월 초 국가 간 점진적 개방과 여행 제한 완화 시 70% 감소
- 시나리오 3 : 2020년 12월 초 국가 간 점진적 개방과 여행 제한 완화 시 78% 감소

15)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DMO란 지역관광 추진조직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을 지칭함. 지역관광 사업 기획 역량, 사업의 특성에 부합하게 실행하기 위한 협력 네트워크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주요 요건임



〈그림 III-4- 4〉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in 2020: three scenarios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된 2020년 3월 우리나라 관광 수입과 관광 지출은 각각 7억2천980만 달러(8천904억 원), 8억8천150만 달러(1조754억 원)로 잠정 집계되었음.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각각 67%, 60% 감소한 수치임
- 하지만, 인간에게 체화된 관광 욕구는 큰 위기를 극복하는 순간부터 행복으로 바꾸는 마음의 근력인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작동하기 때문에 전염병 및 테러 등으로 위축되더라도 이를 벗어나려 하는 회복속도는 예상보다 빠르다는 것이 과거 사례를 통해 확인되었음(김창수, 2020; 최승담, 2020)
- 코로나 발생 후 여행에 대한 위험인식도 높아졌지만, 국내 수요는 상황 국면에 따라 높은 회복탄력이 기대되고 있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2020.05.)에 따르면, 다수가 국내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해외여행 수요가 국내 수요로 전환되어 국내 관광시장 회복을 더욱 촉진시키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임



출처: 관계 부처 합동, 국가관광전략회의, 케이(K)-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 2020.5.26.

〈그림 III-4- 5〉 국내/해외 여행계획보유율 및 여행의사



3) 추진과제

□ 미호천선사문화특구 조성

- 선사문화를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 선사문화전시관 및 체험관 건립
 - 선사시대 자연환경(동, 식물상 등), 유물, 생활상 등을 전시
 - 석기제작 및 사용, 발굴체험을 통한 문화유적에 대한 이해 제고
 - 현장학습 및 체험학습을 통한 유물의 이해 및 문화유적에 대한 교육
-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 육성
 - 관광 및 체험에 따른 수요 창출
 - 어린이, 청소년, 성인, 가족 등 소비자에 따른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제공
- 문화유적의 보존 및 관리를 통한 역사의식 고취
 - 선사시대 미호천 지역 농경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 고취
 - 선사유적 보존의 자발적 참여로 인한 지역공동체 형성

□ 세계인이 찾아오는 관광 르네상스 실현

- 대청호 및 주변지역은 높은 발전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증축 규제로 발전이 정체되고 낙후되어 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대청호 친환경 국가생태·휴양벨트 조성’이 국정과제로 포함되어(2017.05.), 우리나라 최고의 생태·휴양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국가의 지원근거와 관련 정책과 사업을 가시화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대청호 생태관광벨트 조성으로 대청호 및 주변 자원들의 효율적 연계와 활용을 통한 친환경 생태관광휴양벨트 및 힐링·레저 체험시설 조성을 추진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충주호는 다목적댐 조성으로 형성된 인공호수로서 수도권 상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규제 적용 사항이 많지 않고 휴양관광지로 운영되고 있어 대청호와 대비
 - 충주호를 둘러싸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등인데, 각 지역별로 기형성되어 있거나 향후 잠재력이 기대되는 분야를 특화 육성하여 충주호 권역별 복합레저벨트 조성
-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백두대간 국민쉼터 조성’이 반영되었음. 여가와 힐링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관광 및 자원활용이 적극적으로 요구 전망
 -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백두대간 국민쉼터 관련 사업추진

- 충주호와 대청호는 도내 11개 시군 중 7개 시군과 연계되어 있으나 관광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개발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적인 트렌드에 편승한 획일적 중복사업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
- 충주호와 대청호를 아우르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전체적인 비전하에 각 호수별 서브비전 및 추진 과제를 제시하여 중장기적으로 설립되어야 할 가칭 ‘호수 문화관광진흥재단’의 모태로 활용

□ 융복합 관광 육성을 통한 한국 관광 미래 선도

- 오송은 행정수도 세종의 관문이며, 바이오 관련 국가 1~3산단이 집적하게 되는 ‘동북아 최대의 바이오·메디컬 산업 클러스터’임. 또한 코레일 미래철도 기술연구 중심지이기 때문에 MICE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 마련
- 특화 전략 사업으로 오송읍은 융복합관광 대표 분야인 MICE 산업 육성, 오창읍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항공산업 육성 및 공항도시로서 도약 제안
- 인구구조 변화로 향후 대부분 지역에서 인구 유입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전망이다. 미래 관광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충청북도 관광정책의 확장과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관광 벤처·육성 정책을 추진하여 생애주기별 관광행태 분석 및 수요자 맞춤형 관광정책 개발 기여
- 중앙정부 차원 및 지역 단위의 관광벤처 육성 사례가 확대되는 가운데 관광벤처가 관광산업정책의 新수단으로 활용
- 다양한 세대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관광벤처·스타트업 육성

□ 포용적 관광 역량 강화 및 도민 삶의 질 향상

- 지역 내 친환경 유기농산물 소비 확대를 통한 농업생산 기반 유지 및 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대청호 권역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지 확대를 통한 환경개선으로 상·하류 지역주민의 대청호 환경에 대한 지지 확산
- 친환경유기농 소비 확대를 통한 생산지역 확대로 환경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대청호 상·하류지역 유기농 CSA(공동체지원농업: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를 통한 푸드 CO2 마일리지 저감효과 기여
- 충청북도는 주요 관광시장의 특정 지역 편중, 관광사업체의 양적, 질적 열세, 저조한 외래관광객 유입률 및 민간자본 유입 등 지역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함께 관광목적지로서 충청북도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전담기관 설립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
- 지방정부 주도의 관광정책 추진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광활성화의 컨트롤타워로 활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광 전담기관 설립



- 국내 여행시장이 세대와 연령, 계층에 따른 특성과 요구가 분명해지고 더욱 세분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관광산업 부문에서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한 경영 전략과 마케팅이 필요한 상황
- 또한 보편적인 권리의 하나로 여행자유권이 정착되면서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관광향유 기회 보장과 접근 가능한 관광 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 증가 전망
- 도시와 농촌 간 관광편익이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공정관광 추진,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관광향유의 권리가 공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열린관광지 조성, 자연환경의 생태적 공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강조하는 생태관광 추진 등 그동안 충청북도에서 관심이 부족했던 관광분야에 대한 전략적 육성

〈표 III-4-16〉 미래관광을 선도하는 관광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추진사업

전 략 명	과 제 명	단기 (20~25)	중기 (26~30)	장기 (31~40)	비고
미래관광을 선도하는 관광 르네상스 실현	1. 언택트시대에 맞춘 관광거점 조성 사업				
	2. 내수면 마리나항만조성사업				
	3. 중앙선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				
	4. 단양관광휴양지구 조성(MICE산업 개발)				
	5. 백두대간 관광치유벨트(단양 수목원) 조성				
	6. 백두대간 생태원 유치				
	7. 사주당 태교랜드				
	8. 문화산수 옥화구곡관광길(청주)				
	9. 탄금대 명승지				
	10. 입신양명 과거길(제천)				
	11. 문화산수 속리구곡관광길(보은)				
	12. 옥야동천 유토피아				
	13. 월류예술마을				
	14. 입신양명 과거길(영동)				
	15. 송강문화창조마을				
	16. 초평 책마을				
	17. 화양동 선비문화체험단지				
	18. 자린고비 청빈마을				
	19. 단양 명승문화마을				
	20. 문화산수 속리구곡관광길(단양)				
	21.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				
	22.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사업				
	23. 세계국악엑스포 개최				
	24.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				
	25. 도마령 관광자원 개발사업				
	26. 양수발전소 주변 관광자원화				
	27. 둔주봉 관광자원화 조성사업				

전 략 명	과 제 명	단기 (20~25)	중기 (26~30)	장기 (31~40)	비고
미래관광을 선도하는 관광 르네상스 실현	28. 장령산 산림어드벤처조성 사업				
	29.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성사업				
	30. 게르마늄 건강플라자 조성				
	31. 원남저수지 체험휴양관광공원 조성				
	32. 무극전적국민관광지 확대 조성				
	33.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산림레포츠 시설 설치				
	34. 산림치유복합문화밸리 조성				
	35.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기념관 건립				
	36. 괴산역 활용 조령산 일원 관광활성화 종합개발사업				
	37. 말산업 테마로드 조성사업				
	38. 정이품송지구 관광활성화 사업				
	39. 속리산 휴양관광지 루지체험장 조성사업				
	40. 속리산 말티재 치유의 숲 체험단지조성사업				
	41. 세계유산 연계 속리산 힐링특구 조성사업				
	42. 의림지 삼색빛 국민정원 조성사업				
	43.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				
	44. 초평호 관광 모노레일 조성				
	45. 충주남한강 물길100리 힐링로드 조성				
	46. 비룡저수지 둘레길조성사업				
	47. 제천 드림팜랜드 조성사업 (의림지둘레 자연치유특구 조성사업)				
	48.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49. 계명산 민간개발사업				
	50. 강호축 연계 생활형 관광도시 조성 (도심 생활관광 모노레일)				
	51.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사업				
	52. 충주호 플로팅 사이트 개발사업				
	53. 송호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사업				
	54. 천태산 은행나무 관광자원화 사업				
	55. 백곡호 둘레길 조성사업				
	56. 초평호 제2하늘다리 건설사업				
	57. 농다리 관광명소화 조성사업				
	58. 향수호수길 생태관광 명소화 사업				
	59. 장계관광지 리뉴얼 사업				
	60. 옥천묘목공원 명소화 사업				
	61. 괴산 역세권 관광벨트조성				
	62. 괴산 인문학 관광벨트 조성				
	63. 내수면 테마공원 조성				
	64. 충주 동락전승지 성역화사업(2단계)				
	65. 오송·오창 국제관광도시 육성				
	66. 관광벤처·스타트업 육성				
	67. 충북형 의료관광 육성				
	68. 호수 문화예술 르네상스 추진				
	69.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전략명	과제명	단기 (20~25)	중기 (26~30)	장기 (31~40)	비고
미래관광을 선도하는 관광 르네상스 실현	70. 충북 관광 전담기관 설립				
	71. 대청호 생태관광CSA(공동체지원농업) Plan				
	72. 대한민국 대표축제 육성				
	73. 죽령관광레저지구 조성				
	74. 우덕리 관광레저단지 조성				
	75. 관광휴양지구 조성				
	76. 양방산 테마공원 조성				
	77. 사인암관광지 관광명소화 사업				
	78. 불교테마파크 조성				
	79. 갑산체리마을 산림레포츠 시설 설치				
	80. 충주댐 및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				
	81. 한강 및 탄금호 재해예방 사업 추진				

〈표 Ⅲ-4-17〉 미래관광을 선도하는 관광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시군계획지침

※ 시·군 계획지침

- 시·군 관광개발의 중단기적 종합지침이 될 수 있도록 상위계획과 하위계획 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 관광 정책 환경변화(지방분권 등 정치변화, 인구구조 등 사회변화, 기후변화 및 감염병 등 환경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 저성장 및 디지털 등 경제변화, 충북 내 주요 국책사업 및 인프라 사업 등)를 고려하되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 관광으로 인한 편익이 지역 내로 환원되고, 환경의 보존적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 관광 개발 관점을 우선하여 강구한다.
- 광역 관광자원(호수·백두대간)이 당면한 공통 문제나 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 지역과의 연계·협력 방안을 우선 강구한다.
- 관광산업 혁신 지원, 디지털 관광경제 확산, 전통적 관광 개발을 포함한 융복합 관광 분야 육성, 관광서비스 부문 연구개발(R&D) 확대를 통해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한다.



〈그림 III -4- 6〉 충청북도 관광구상도



제3절 도민이 함께하는 활력 넘치는 충북 실현

1) 현황 및 문제점

I 현황

□ 공공체육시설 현황

-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 학교체육시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운동종목과 시설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음
- 공공체육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운영·관리하는 체육시설임(공립학교 체육시설은 학교체육시설로 공공체육시설에서 제외)

〈표 III-4-18〉 충청북도 공공체육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시설	계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계	1,933	707	238	69	94	270	68	98	153	23	172	41
공공체육시설(시군)	315	47	34	37	26	30	27	14	27	16	29	28
종합운동장	17	2	2	2	3	1	1		2	1	2	1
축 구 장	36	5	7	3	5			2	4	3	2	5
하 키 장	1			1								
야 구 장	12	2	2	2	2				2		1	1
싸이클경기장	1										1	
테 니 스 장	32	4	3	5	1	3	3	2	3		6	2
씨 림 장	3						1	1			1	
체 육 관	39	11	4	5	1	2	2	3	2	2	3	4
전천후 게이트볼장	102	11	7	12	11	11	13	3	6	8	10	10
수영장	실내	13	4	2	1		1		1	2		1
	실외	1									1	
로올러 스케이트	실내	1	1									
	실외	7	1	1	1		1	1	1			1
사 격 장	3	1							1			1
국 궁 장	13	2	1	1	1	2	1	1	1	1	1	1
양 궁 장	3	2								1		
골프연습장	3	1					1					1
조정카누장	4		2						2			
요트경기장	1		1									
기타체육시설	23		2	4	2	10	4		1			
동네체육시설	1,618	660	204	32	68	240	41	84	126	7	143	13

자료 : 충북도청 홈페이지(<https://www.chungbuk.go.kr/www/contents.do?key=1672#none>), 2020.02.21확인

- 공공체육시설은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충청북도 공공체육시설은 2017년 기준 총 1,933개이며 청주 707개, 충주 238개, 옥천 270개, 음성 172개, 진천 153개 순으로 나타남
- 도민들의 지속적인 체육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충북도는 체력단련기구 등 간이 운동시설이 설치된 동네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증설하고 있음

〈표 III-4-19〉 충청북도 동네체육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개소수	1,618	660	204	32	68	240	41	84	126	7	143	13
조성면적 (㎡)	1,376,826	702,052	92,933	100,011	42,504	3,760	115,339	745,24	63,095	40,844	33,551	108,213
체력단련 시설	8,453	3,670	755	235	290	942	1,165	84	591	48	617	56
부대시설	4,012	2,632	374	273	15	102	152	138	75	100	116	35

자료 : 충북도청 홈페이지(<https://www.chungbuk.go.kr/www/contents.do?key=1672#none>), 2020.02.21확인

- 2016년 기준 충청북도 11개 시·군에서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 노후 현황을 조사한 결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공체육시설이 110개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0년 이상의 노후된 공공체육시설은 총 38개로 전체 288개 시설 중 13.2%를 차지함

〈표 III-4-20〉 충청북도 11개 시·군별 공공체육시설 노후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25년 미만	25년 이상
충청북도	288	30	110	86	24	14	24
청주시	40	1	14	11	1	4	9
충주시	33	3	14	11	2	1	2
제천시	33	2	12	13	1	2	3
보은군	20	—	9	11	—	—	—
옥천군	30	7	14	6	1	1	1
영동군	25	5	10	6	2	2	—
증평군	13	2	4	1	1	1	4
진천군	27	3	13	7	3	—	1
괴산군	16	1	7	5	2	1	—
음성군	25	4	8	6	3	1	3
단양군	26	2	5	9	8	1	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2016

□ 민간체육시설 현황

- 민간체육시설은 체육단체, 사회복지단체, 종교단체, 민간단체 또는 개인이 영리목적이 아닌 일반인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비영리 체육시설과 개인·영리 단체 또는 기업에서 영리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상업용 체육시설로 구분함
- 전국 체육시설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충청북도의 경우 등록체육시설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신고체육시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충청북도 체육시설업은 2018년 기준 당구장이 754개로 가장 많았으며, 체육도장 593개, 골프연습장 345개, 체력단련장 250개 순으로 나타남

〈표 III-4-21〉 충청북도 체육시설업 현황

(단위 : 개소)

업종	2016년		2017년		2018년	
	업소수(개소)	비율(%)	업소수(개소)	비율(%)	업소수(개소)	비율(%)
계	1,765	100	1,828	100	2,037	100
골프장	37	2.10	34	1.86	36	1.77
스키장	1	0.06	1	0.05	1	0.05
골프연습장	312	17.68	337	18.44	345	16.94
승마장	3	0.17	5	0.27	7	0.34
체육도장	401	22.72	394	21.55	593	29.11
당구장	713	40.40	779	42.61	754	37.02
수영장	10	0.57	14	0.77	15	0.74
체력단련장	252	14.28	222	12.14	250	12.27
자동차경주장	-	0.00	-	0.00	-	0.00
요트장	-	0.00	-	0.00	-	0.00
빙상장	1	0.06	3	0.16	2	0.10
카누장	-	0.00	-	0.00	-	0.00
종합체육시설	8	0.45	7	0.38	5	0.25
썰매장	10	0.57	14	0.77	11	0.54
무도장	-	0.00	1	0.05	4	0.20
무도학원	17	0.96	17	0.93	14	0.69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재구성, 2018

□ 조직 및 인력

- 2017년 기준 충청북도의 체육행정조직 인력은 124명이며, 행정직 81명, 기술직 39명, 기능직 3명, 별정직 1명으로 조사됨
- 대한체육회의 2019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충청북도의 운동부 및 클럽 소속 선수는 총 168명임

○ 12개 종목 중 육상이 총 65명으로 가장 많으며, 사격 22명, 배드민턴 15명, 탁구 14명, 롤러 11명, 씨름 10명 순으로 조사됨

〈표 Ⅲ-4-22〉 충청북도 소속 선수 현황

(단위 : 명)

종목	계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음성	제천	증평	진천	청주	충주
계	168	16	7	5	15	5	11	14	11	8	50	26
롤러	11	0	0	0	0	0	0	0	0	0	11	0
배드민턴	15	0	0	0	7	0	0	0	0	0	0	8
보디빌딩	6	6	0	0	0	0	0	0	0	0	0	0
복싱	8	0	0	0	0	0	0	0	0	0	0	8
사격	22	0	0	5	0	0	0	5	1	0	11	0
스쿼시	2	0	0	0	0	0	0	0	0	0	2	0
씨름	10	0	0	0	0	0	0	0	10	0	0	0
육상	65	8	0	0	8	5	5	9	0	8	12	10
자전거	6	0	0	0	0	0	6	0	0	0	0	0
탁구	7	0	7	0	0	0	0	0	0	0	0	0
탁구	14	0	0	0	0	0	0	0	0	0	14	0
테니스	2	2	0	0	0	0	0	0	0	0	0	0

자료 : 대한체육회, 전문체육 등록통계현황, 2020 (2019년 12월 기준)

○ 충청북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충북도청 소속 운동경기부 5개 팀, 시·군 소속 운동경기부는 총 33개 팀으로 일반체육은 총 38개 팀으로 조사됨

〈표 Ⅲ-4-23〉 충청북도 운동경기부 현황

(2020년 1월 기준)

구분	팀 현황	선수단 인원(명)				
		계	감독	코치	남	여
직장운동경기부	38팀	327	35	21	165	114
충북도청	5팀	48	5	3	21	27
청주시	8팀	71	8	7	30	26
충주시	5팀	49	5	2	28	14
제천시	4팀	30	3	4	11	12
보은군	2팀	17	2	2	13	0
옥천군	2팀	18	2	0	5	11
영동군	2팀	17	2	0	5	10
증평군	1팀	12	1	1	10	0
진천군	2팀	19	2	2	12	3
괴산군	3팀	19	1	0	13	5
음성군	3팀	22	3	0	17	2
단양군	1팀	5	1	0	0	4

자료 : 충청북도, 체육진흥과 시군운동경기부 현황, 2020



- 충청북도 장애인 운동경기부는 청주시와 음성군에 각각 1개 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사격과 역도 종목에서 총 11명으로 선수단이 조직됨

〈표 III-4-24〉 충청북도 장애인 운동경기부 현황

(2020년 1월 기준)

구분	종목 수	선수단 인원(명)				
		계	감독	코치	남	여
청주시	1팀(장애인사격부)	7	1	1	4	1
음성군	1팀(장애인역도팀)	4	1	0	2	1

자료 : 충청북도, 체육진흥과 시군운동경기부 현황, 2020

- 충청북도는 전국 최초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장애인스포츠실업팀을 창단(2개 기업, 12종목 53명)하여 ‘장애인 먼저 충청북도’를 구현에 힘쓰고 있음

〈표 III-4-25〉 충청북도 민간기업 창단 장애인스포츠실업팀 현황

(2020년 1월 기준)

구분	창단일	선수단 인원(명)												
		계	육상	역도	당구	볼링	펜싱	사격	축 구		수영	역도	조정	골볼
									지적	시각				
에코프로	'19.2.20.	23	8	4	3	3	2	3						
한화큐셀	'19.7.23.	30						3	12	6	1	3	3	2

자료 : 충청북도, 체육진흥과 민간기업 창단 장애인스포츠실업팀 현황, 2020

□ 체육활동 참여

- 전국적으로 매년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소비가 높아지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충청북도의 체육활동 참여 비용은 50,447원임
- 충청북도는 2016년 체육활동 참여 비용이 23,551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17년 58,514원으로 급격하게 높아졌으나, 2017년에 비하여 2018년도에는 체육활동 소비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표 III-4-26〉 월평균 체육활동 참여 비용(평균)

(단위 : 원)

지역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평균	48,430	56,755	60,992
서울	58,749	69,105	85,147
부산	44,041	50,465	57,591
대구	33,703	46,118	48,542
인천	54,027	60,673	58,119
광주	38,861	32,917	67,158
대전	24,006	50,294	54,897
울산	46,978	33,810	45,151
세종	47,164	75,374	73,052
경기	61,976	70,220	62,803
강원	42,189	56,226	53,782
충북	23,551	58,514	50,447
충남	33,910	50,272	50,246
전북	29,158	42,145	60,112
전남	42,649	50,491	47,437
경북	37,847	26,373	38,322
경남	40,393	46,167	52,744
제주	41,752	52,057	54,768

자료 : 충청북도, 충청북도 발전계획(2018~2020), 2019



I 문제점

□ 수요에 따른 맞춤형 체육시설 구축 필요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여가시간이 확대됨에 따라, 도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으며 체육활동이 여가생활의 대표적인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도민들의 지속적인 체육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및 시·군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개인 종목 생활체육 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친화적 프로그램 및 시설이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유소년의 다양한 체육활동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스포츠산업 분야 지원 한계

- 충청북도의 스포츠 관련 사업체는 대부분 영세한 상황으로 타산업 간 융복합화를 통한 신규시장 창출 및 R&D 투자에 한계가 있음
- 스포츠산업은 프로구단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으며, 지자체는 각 구단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음
- 충청북도의 프로팀은 WKBL 프로농구팀 KB스타즈, 남자 핸드볼 실업팀 SK호크스, WK리그 보은 상무팀, 남자 풋살 리그 제천 FS팀 등이 있으며, 스포츠산업 붐 조성 및 지역 활력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특히 4대 스포츠인 축구, 야구, 배구, 농구의 프로팀을 지역 내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음

□ 체육시설 운영 활성화 및 접근성 강화 필요

- 도민들은 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공공·민간 체육시설에 대한 정보 부족과 운영상의 이유 등으로 이용이 쉽지 않음
- 또한 대부분의 공공체육시설이 동호회 중심으로 활용되면서 개인종목 활동을 위한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임
- 다양한 규모와 시설의 체육시설이 지역의 수요에 맞게 구축되고, 행사 일정 및 예약상황 정보 공개 등을 통해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2) 여건분석 및 전망

I SWOT 분석

- 도 내 진천선수촌이 위치함과 함께 충청북도는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특화 체육시설의 설치
가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반면,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시설이 취약하며 생활체육시설의 인프라가 부족하고 노후
화되어 있음
- 여가 확대에 의한 체육활동 및 관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스포츠산업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간 생활체육시설의 양극화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표 III-4-27〉 SWOT 분석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북도의 체육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 도 내 진천선수촌 위치 충청북도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특화 체육시설 설치 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시설 취약 생활체육시설의 인프라 부족 및 노후화 전문체육 육성 및 신인 발굴 취약
기회(O) ⇒ 포착	위협(T) ⇒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민들의 여가확대로 인한 체육활동 및 관람에 대한 관심 증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스포츠산업 성장 가능 전국 규모 대회의 성공적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기 종목에 대한 편중 현상 지역 간 생활체육시설의 양극화 심화 장애인, 노인, 유소년 등의 지원 부족

I 여건전망

□ 4차산업 기술을 접목한 스포츠산업 생태계 변화

- 정부는 지속적인 스포츠 신시장 창출 및 선도를 위해 스포츠와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위치정보 등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스포츠산업 생태계를 조성함
- 체감형 가상스포츠 시뮬레이터 기술의 개발로 스크린골프, 스크린야구 등 가상스포츠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놀이형 생활체육 시설로 확대되고 있음
- 또한 지역별 레저·관광 복합스포츠 상품 발굴 등 스포츠 연계 파생산업 창출 및 스포츠 복합 시장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육성 가능



□ 생애주기 맞춤형 체육활동 여건 조성

- 정부는 인간의 생애주기를 유소년기, 청소년기, 성인기, 은퇴기 이후로 구분하고 생애주기별 주요 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맞춤형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함
- 생애주기별로 신체·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상 속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생활체육 지원 체계를 구축함
- 유아,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 유형별 맞춤형 스포츠 지원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확대 배치 필요

□ 국내·외 대규모 체육대회 개최

- 충청북도는 전국장애인체전 및 전국체전, 전국장애학생체전, 소년체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
- 국제적 규모의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 등 국내외 대규모 대회의 추진으로 인한 스포츠 교류 활성화에 대한 도민의 기대 증대
- 향후 다양한 국제 경기 유치에 위해 스포츠산업에 대한 전략적 발전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규격의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전문 체육인 지원

- 선수 생애 관리제를 도입하여 선수 은퇴 이후 취업지원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 체육인 복지 확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선수와 지도자를 전문적으로 육성·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3) 추진과제

□ 충청북도형 평생생활체육 조성

○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체육활동 지원

- 유아기부터 체육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유아 스포츠활동 지원 강화
- 연령, 성별, 체력, 거주환경, 대인관계 변화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프로그램 구성을 통한 노년층까지 지속 가능한 운동 참여 환경 조성
- 방과 후 스포츠활동 확대를 위해 지역·학교 스포츠클럽 연계 및 다양한 체육지도자 지원 강화
- 직장인들의 여가시간 스포츠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직장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및 참여 장려

○ 지역별 규모를 고려한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대

- 지역별 규모에 따른 체육시설 건립
- 마을단위 동네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유휴 교실을 활용하여 체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돌봄 교실 운영
- 지역 내 돌봄교실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생활체육습관 형성 및 안전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표 III-4-28〉 시군별 지역맞춤형 체육시설 확충 계획

(단위 : 개소)

시군	확충방향	주요시설
청주시	체육시설 균형 배치	야구장 2, 축구장 1, 국민체육센터 6
충주시	조정 특화도시 육성	실내조정훈련장 1, 야구장 1, 축구장 1 체육관 2, 국민체육센터 2
제천시	대규모 실내체육시설 확충	체육관 2, 국민체육센터 6, 체육공원 2
보은군	전지훈련 특화도시 육성	종합운동장 1, 사격장 1
옥천군	야외 체육시설 균형 배치	야구장 2, 축구장 2, 풋살장 4, 체육관 3
영동군	생활SOC 복합 체육시설 확대	국민체육센터 2, 체육공원 1
증평군	거점형 종합 체육시설 확충	종합운동장 1, 체육공원 1
진천군	국가대표선수촌 연계 체육시설 확충	국민체육센터 4, 체육공원 1, 파크골프장 1
괴산군	지역 특화 스포츠타운 조성	체육관 1, 축구장 2, 테니스장 9, 국민체육센터 4
음성군	실내체육시설 균형 배치	국민체육센터 4, 체육공원 3
단양군	레저 특화도시 육성	국제인라인경기장 1, 체육관 1

- 현재 스포츠과학센터는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10개 지역에 센터가 위치하고 있음

- 충청북도에도 지역스포츠과학센터가 설립되어 충청북도 내 선수들이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스포츠 심리학 등 과학적 훈련기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



- 준공 20년 이상의 노후화된 체육시설은 안전 우려와 체육시설로서의 기능이 저하되어 리모델링 및 개보수 실시
- 규모가 큰 종합운동장은 체육행사 등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체육단체에서 상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전반적인 시설 이용계획 수립
 - 시설보수를 통해 전국단위 행사 유치 및 전지훈련 장소로 이용
 - 정부에서 추진하는 ‘생활SOC 체육시설 공모사업’ 등의 공모를 통해 예산 확보
- 체육 소외계층 지원기반 조성
 -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각 지자체 내 보건·복지 등 관련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지원 기반 마련
 - 시·도 장애인체육회 내 전담 센터 도입을 통한 장애인체육지도사 양성 및 파견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 및 저소득층 유·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스포츠 캠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 전문선수 육성 기반 마련

- 전문선수 육성시스템 구축
 - 무예 종목에 관심이 많은 충청북도의 특성에 따라 운영 종목, 생애주기가 반영된 스포츠클럽 운영 등 다양한 참여 기반 구축
 - 도 내 선수들의 체력 및 경기력 수준, 대회 성적, 진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스포츠 정의 실현을 위하여 체육단체 및 체육인을 대상으로 스포츠 공정 교육 상시 추진
- 현재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개방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나, 견학 위주의 일부 시설 안내 및 개방이 대부분임
 -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훈련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일반 국민(우수 스포츠클럽 등)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우수 체육지도자 양성 및 취업 지원
 -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개선을 통한 전문스포츠와 생활스포츠 간 연계성 및 전문성 강화
 - 지역체육회 등을 중심으로 전문선수 은퇴 이후 취업지원을 위한 전문 교육전담기관 마련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권익 보호 등을 위한 복지전담 기관 도입
- 지역체육단체 협력체계 강화
 - 충청북도 및 시·군, 체육회, 지역종목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건전한 충북 체육문화 구축
 - 학교와 지역의 스포츠클럽 연계·협력을 통해 부족한 지역 내 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 전문 선수 발굴 및 육성체계 구축

○ 충청북도는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6+4 신성장 및 미래 유망산업’을 선정하였으며(2016.03.), 이를 추진하기 위한 육성전략을 수립한 바 있음(2016.10.)

- 프로스포츠 활성화 및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프로스포츠 구단 적극 유치
 - 4대 프로스포츠(축구, 야구, 농구, 배구) 중심 구단 유치로 스포츠산업 붐 조성 및 지역활력 제고
- 프로스포츠 구단을 유치함으로써 구단과 연계한 학교·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및 관람형 스포츠 관련 산업 분야 활성화 기반 마련

□ 미래 스포츠산업 기반 구축

○ 충청북도 스포츠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 스포츠 유망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기술 개발 및 해외 진출 지원
- 초기 창업기업 및 영세 스포츠기업의 맞춤형 자금지원 체계 구축으로 기업의 성장 가능성 제고
- 지역 내 스포츠기업 창업을 위한 지원센터 마련으로 창업 교육, 시제품 제작, 체험공간, 마케팅·홍보 지원 등을 통해 창업 여건 조성

○ AR, VR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실내 체육지원 공간 마련으로 시설과 장소의 제약을 넘어 다양한 종목 도전과 체력 향상 기회 제공

-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스포츠 시설 및 관람 환경 조성
- 증강현실을 접목한 선수 및 경기데이터 실시간 제공, 입장 간소화 서비스, 스포츠 구단 관련 빅데이터 제공 등 IoT 기술 등과 결합한 스마트 관람플랫폼 구축
 -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은 프로젝션 맵핑 기술, 증강현실(AR) 등을 활용한 ‘스마트경기장’을 조성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 한국은 세계 4대 스포츠 국제대회인 하계·동계 올림픽, FIFA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모두 유치한 스포츠 강국임

○ 충청권은 성장률에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국제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충분한 저력과 여건을 보유하고 있음

○ 충청북도는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나,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충북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국제대회 유치 시에는 경기장 신축비 등 국비지원을 통한 재정확보가 가능함

- 2030 충청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 유치

- 충청권(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이 세계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로 2030 하계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협력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을 중심으로 한 스포츠테마타운 조성으로 관련 시설 확충과 전문선수 육성 기반마련

- 국립 한국체육대학교 진천캠퍼스 건립을 통해 국가대표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 및 미래 스포츠산업 기반 구축
-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스포츠테마타운, 국립한국체육대학교 진천 캠퍼스를 연계한 국내 최대 스포츠 융복합클러스터 구축 추진

〈표 III-4-29〉 도민이 함께하는 활력 넘치는 충북 실현을 위한 추진사업

전 략 명	과 제 명	단기 (20~25)	중기 (26~30)	장기 (31~40)	비고
도민이 함께하는 활력 넘치는 충북 실현	1. 충북스포츠과학센터 건립 추진				
	2.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실내체육시설 구축				
	3. 무예 활성화를 위한 시설 구축				
	4. 노후 복합 스포츠여가공간 리모델링				
	5.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확충				
	6. 전통무예진흥시설 확충				
	7.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				
	8. 실내체육관 건립				
	9.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10.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11.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12. 다목적 구장 건립				
	13.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공사				
	14. 수상스포츠파크 조성				
	15. 체육공원 조성사업				
	16. 국가대표선수촌 훈련시설 및 프로그램 체험				
	17.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스포츠테마타운 조성				
	18. 괴산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 조성				
	19. 산업단지 개방형체육관 건립사업				
	20.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21.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22. 복합체육관 건립				
	23.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표 III-4-30〉 도민이 함께하는 활력 넘치는 충북 실현을 위한 시군계획지침

※ 시·군 계획지침

- 시·군은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노년층까지 지속 가능한 운동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한다.
- 시·군은 체육 소외계층(장애인, 다문화, 저소득층 등)을 위해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 시·군의 보건·복지 관련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한다.
- 시·군은 지역 내 체육회, 지역종목단체, 스포츠클럽 등과의 협력을 통해 건전한 충북 체육문화를 구축 및 전문 선수 발굴을 위한 육성방안을 강구한다.
- 시·군은 국제적 또는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고 충청북도 체육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5장

품격과 여유로움이 충만한 환경친화적 청정 충북 실현

제1절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전을 통한 녹색공간 조성

제2절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로 안심할 수 있는 충북

제3절 산림복지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터와 쉼터 실현

제4절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경관창출 지역



제5장 품격과 여유로움이 충만한 환경친화적 청정 충북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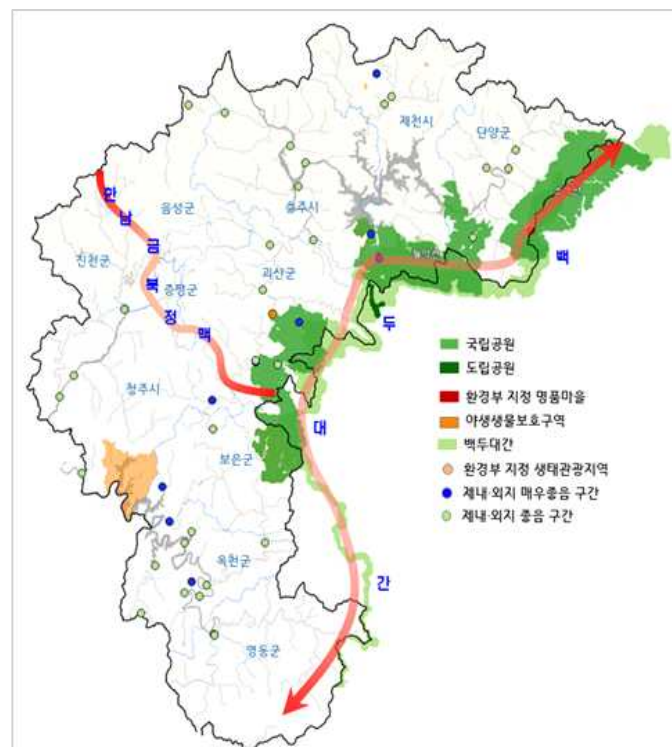
제1절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전을 통한 녹색공간 조성

1) 현황 및 문제점

I 현황

□ 자연환경

- 충청북도 지역에는 백두대간과 한남금북정맥의 주요 산줄기와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국립공원이 위치하고 있음
- 월악산 골짜골과 소백산 북부 죽령 마을의 환경부 지정 명품마을, 괴산 산막이옛길과 괴산호의 생태관광지역, 그리고 31종의 천연기념물이 지정되어 있고 제내지 및 제외지 주변 환경이 자연상태를 잘 보전하고 있는 수생태계 건강성이 좋은 구간들이 다수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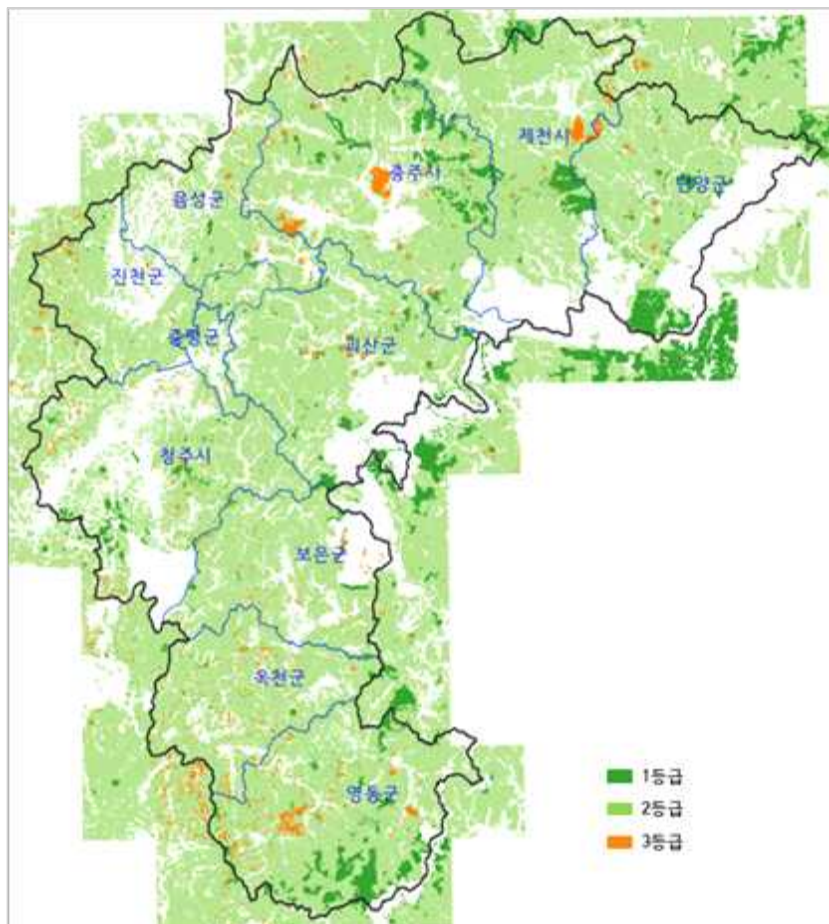
〈그림 III-5- 1〉 자연환경 현황

○ 충청북도의 생태자연도 총면적은 7,411.2㎢으로, 1등급에 해당하는 지역은 284.2㎢(3.8%), 2등급 3,403.3㎢(45.9%), 3등급 3,023.4㎢(40.8%)로 분포하고 있음

〈표 III-5- 1〉 충청북도 생태자연도 현황

구 분	합계	생태자연도			
		1등급	2등급	3등급	별도관리지역
면적 (㎢)	7,411.2	284.2	3,403.3	3,023.4	700.3
비율 (%)	100.0	3.8	45.9	40.8	9.4

자료 : 에코뱅크(국립생태원, <https://www.nie-ecobank.kr/cmmn/Index.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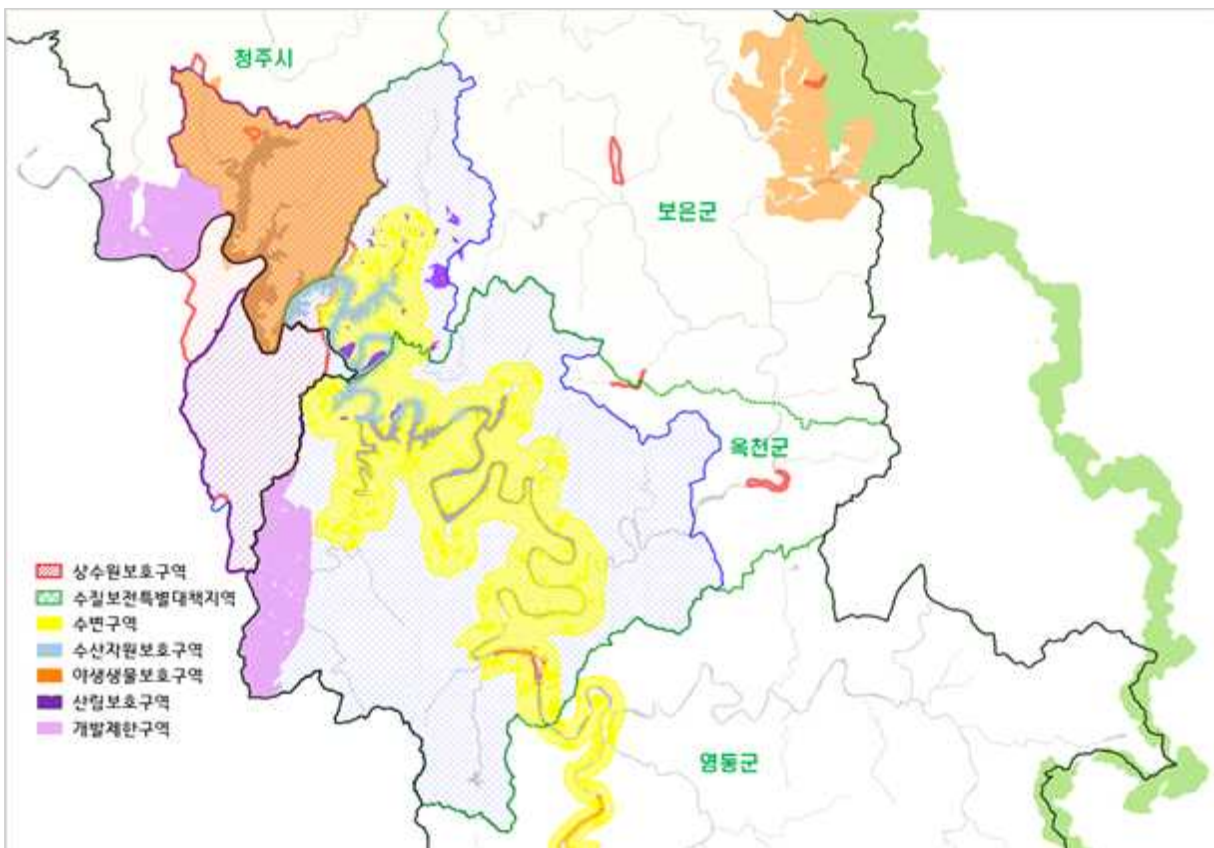


〈그림 III-5- 2〉 충청북도 생태자연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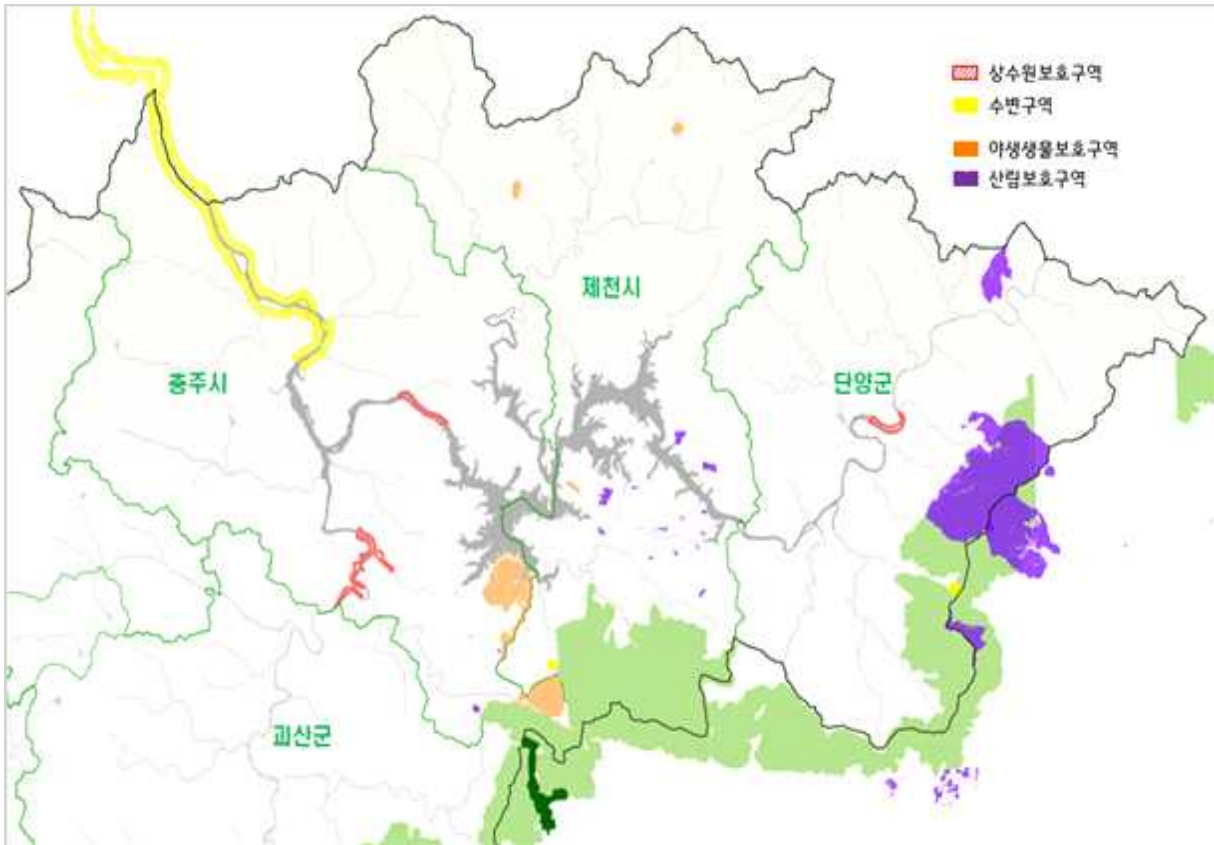
○ 8개 시·군(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단양군)의 일부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의 환경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임

〈표 III-5- 2〉 환경규제 현황

구 분	대청호				충주호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상수원보호구역	○	○			○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	○	○					
수변구역		○	○	○	○			
수산자원보호구역		○	○					
야생생물보호구역	○	○	○	○	○	○		○
산림보호구역		○	○	○		○	○	○
개발제한구역	○		○					
총 계	4개	6개	6개	3개	3개	2개	1개	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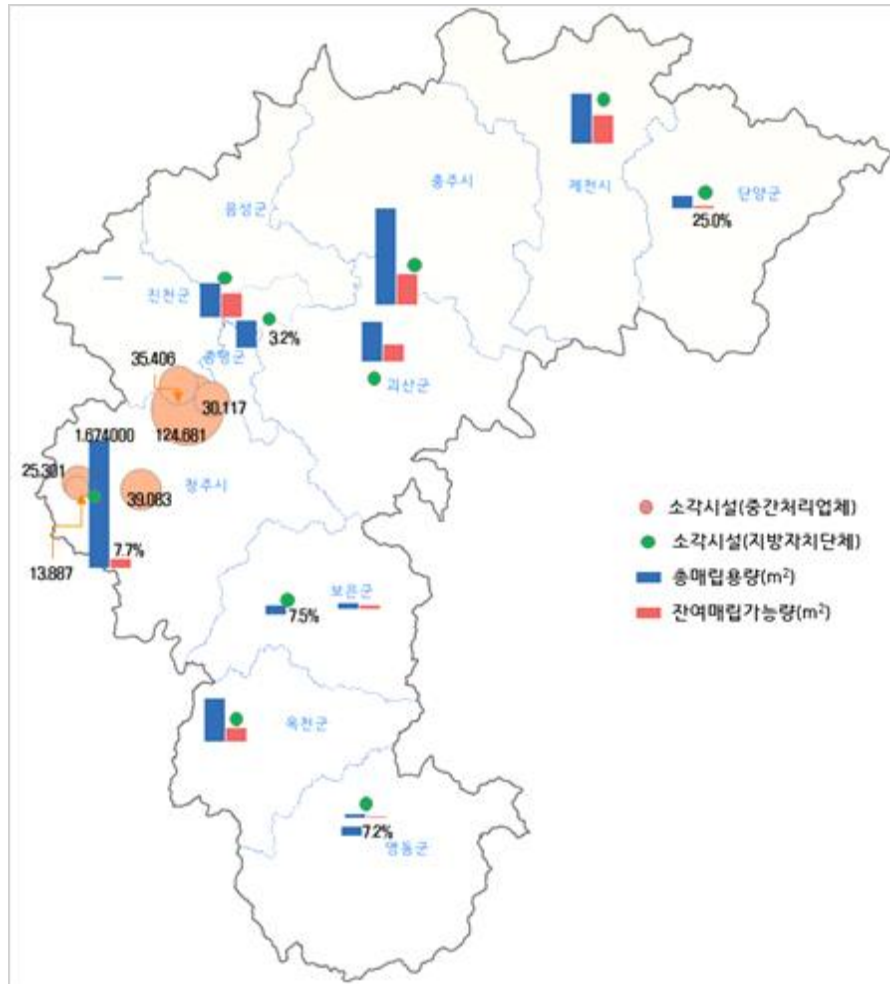
〈그림 III-5- 3〉 대청호 환경규제 현황



〈그림 III-5- 4〉 충주호 환경규제 현황

□ 폐기물

-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매립시설은 13개소(전국 218개소, 6.0%)가 위치하고 있으며, 총 매립용량 6,081,889 m^3 중 2018년 매립량 191,081 m^3 을 포함하여 4,272,006 m^3 이 기 매립되었음
 - 도내 11개 시·군마다 각 1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보은군과 영동군은 각 2개소의 매립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소각시설은 11개소(전국 178개소, 6.2%)가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용량은 총 709톤/일로 1일 21시간 평균 가동하여 2018년에 213,730톤을 처리하였음
 - 진천군은 음성군에 위치하고 있는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2018년 소각시설 증설을 추진하여 2020년 증설 소각장 입지에 대해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입지 결정·고시하였으며, 기본 및 터키공사 발주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
- 특히, 도내 폐기물 중간처분업체 10개소 중 소각시설 6개소가 모두 청주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처리용량 2,062톤/일 중 소각시설이 1,455톤/일을 차지하고 2018년에는 총 처리량(277,384톤)의 96.8%에 해당하는 268,475톤/일을 소각 처리하였음



〈그림 III-5- 5〉 폐기물 매립 및 소각시설 현황

□ 기후변화 및 대기질

- 기후변화는 집중호우, 가뭄, 이상고온과 같은 기상이변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와 기후 위기 상황
- 지방정부가 선도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요구가 확산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그린회복이 강조되고 있음
 -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20.7.7.)// 충청북도를 비롯한 17개 광역시·도 및 64개 기초지자체 동참
- 충청북도 온실가스 배출량(2017.기준)은 26.9백만톤CO₂eq으로 전국(709백만톤CO₂eq)의 약 3.8%임
- 충청북도의 미세먼지(PM10) 배출량(2017년 기준)은 9,588톤으로 전국 발생량인 218,476톤의 약 4.4% 수준이며,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 충청북도 배출량은 3,733톤으로 전국의 약 4.1% 차지¹⁶⁾

〈표 III-5-3〉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단위 : $\mu\text{g}/\text{m}^3$)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PM10	PM2.5	PM10	PM2.5	PM10	PM2.5	PM10	PM2.5	PM10	PM2.5	PM10	PM2.8
전국 평균	48	26	47	26	45	25	41	23	41	23	33	19
충북	51	30	45	26	44	27	44	27	44	28	35	21

자료 : 에어코리아

○ 중부권 대기관리권역 지정으로 체계적 광역적인 대기오염원 관리

-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지역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0.4.3.)

〈표 III-5-4〉 중부권 대기관리권역 지정 현황

충청 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 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대 전 광역시	전 지역
세종특별 자치시	전 지역
전라 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16)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https://airemiss.nier.go.kr>)

I 문제점

□ 다양한 환경자료 활용성 미흡

- 대청댐 및 충주댐 상류지역을 중심으로 44.0%(91개 구간 중 40개 구간)의 제내지 및 제외지 건강성 등급이 좋음 이상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보전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수질 및 총량 측정망뿐만 아니라 전국자연환경조사, 물환경측정망(호소, 수생태계 건강성 등) 등 다양한 자료 활용 필요
- 건강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속적인 관리(사후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필요

□ 다양한 환경규제에 대한 지역 간 격차 발생

-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 요구로 인한 상수원 댐 상류지역의 개발 제한과 개발 제한으로 인한 생활 및 경제적인 피해에 대한 환경규제 완화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불만이 발생하고 있음
- 상수원관리구역의 규제완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저발전, 낙후지역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경기도의 경우, 전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 강도, 피해 정도, 재정 여건 등을 분석하여 3등급으로 구분하여 1등급을 부여받은 규제가 심한 상위 11개 시군에 대해 도가 주관하는 지원 사업을 선별해 10% 이내의 가산점 부여,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분야 중심으로 도비 적극 지원, 상수원관리지역의 규제 합리화를 위해 '경기 동부 상수원관리지역협의체'(가칭) 구성 등 주민 생활 불편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규제연계형 지원정책” 시행을 결정함

□ 폐기물 매립량 증가 및 매립시설 용량 부족

- 충청북도에 위치하고 있는 13개소 매립시설은 1992년부터 사용하여 2018년 기준으로 총 매립용량 대비 잔여 매립 가능량은 29.8%(1,809,883㎡)임
- 전국은 44.9%(215,629,115㎡)이며, 청주시, 보은군이 매립시설 증설사업을 추진 중으로 잔여 매립 가능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잔여 매립 가능량이 15.0% 미만 시군은 청주시(7.7%), 증평군(3.2%)이나, 증평군은 2019년 괴산 광역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및 괴산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준공으로 매립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며, 청주시는 매립시설 증설사업 추진 중으로 매립 시설 신설을 통해 매립용량을 확보할 계획임
- 청주시와 보은군은 매립시설 용량 확보를 위해 매립시설 증설사업을 추진 중이며 단양군은 증설사업 추진 계획에 있음
- 증평군은 사용기간 종료일이 2022년이나 괴산군과 협력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매립 물량 감소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에 있음

□ 일상속의 안전위협 요인 증가 대비 필요

○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충청북도 장기저탄소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저탄소사회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의 중·장기 비전 설정

○ 미세먼지 자체 발생량 대비 농도가 높아 도민 건강 우려

- 2017년 기준 충청북도의 PM10 배출량과 PM2.5 배출량은 각각 전국 발생량의 4.4%와 4.1%로¹⁷⁾ 외부요인으로 인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발생량 대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 도내 미세먼지(PM-10) 농도($\mu\text{g}/\text{m}^3$)는 2015년 51, 2016년 45, 2017~2019년 44로 감소 후 정체, 2020년 35로 대폭 감소(환경기준 $50\mu\text{g}/\text{m}^3$)
- 도내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2015년 $30\mu\text{g}/\text{m}^3$, 2016년 $26\mu\text{g}/\text{m}^3$, 2017년 $27\mu\text{g}/\text{m}^3$, 2018년 $27\mu\text{g}/\text{m}^3$, 2019년 $28\mu\text{g}/\text{m}^3$ 로 감소 후 정체, 2020년 $21\mu\text{g}/\text{m}^3$ 로 대폭 감소(환경기준 $15\mu\text{g}/\text{m}^3$)
- 2019년에는 초미세먼지의 나쁨($36\sim 75\mu\text{g}/\text{m}^3$ 이상) 일수가 67일이었으나, 2020년에는 29일로 대기질이 크게 향상되었고, 2019년 대비 평균 농도가 $21\mu\text{g}/\text{m}^3$ 로 25%가($\Delta 7\mu\text{g}/\text{m}^3$) 감소되어 개선 추세¹⁸⁾

○ 기후변화, 미세먼지, 물관리, 폐기물 등 지역 현안 환경문제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 필요

- 충북 기후환경연구센터 설립 등

17)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https://airemiss.nier.go.kr>)

18) <http://www.dynews.co.kr>

2) 여건분석 및 전망

Ⅰ SWOT 분석

- 깨끗한 상수원 관리를 위한 환경규제로 인해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 개발 제한으로 인한 지역 간 격차 및 피해 등에 대한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관리가 미흡함
- 폐기물 재활용률 등 자원순환에 대한 이용 증대 및 처리 시설(소각, 매립)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흡함

〈표 III-5- 5〉 SWOT 분석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수원관리구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을 포함하여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청정함 중복 환경규제로 개발 제한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유용한 자연자원 풍부 충북권 대기환경연구소, 화학물질안전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기상기후인재개발원 등 기후대기 관련 인프라 확대 대기오염총량제 선제적 대응과 안정적 추진으로 조기 안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업단지 증가 등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및 생태계 훼손 지속적 증가 상수원 상류지역의 규제로 인한 지역 간 격차 발생 다양한 환경정보 활용 미흡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미흡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에 대한 대응력 부족 및 한계 수소충전소 불안정 운영으로 수소차 보급 확대 차질 환경오염배출 사업장 수의 증가로 행정지도·관리 지난
기회(O) ⇒ 포착	위협(T) ⇒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정하고 쾌적한 생태계 서비스 욕구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통합물관리(수질, 수생태계, 유량 등) 체계 마련 지자체 및 주민 참여와 연계한 환경 보전관리 추진 자원순환에 대한 이용 확대 대기오염 총량제 시행을 대기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 기후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 전략과 기후변화 적응대책 시행계획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개발 및 규제에 따른 지역 간 요구 상충으로 인한 주민 민원 발생 폐기물 소각 중간처분업체 한 지역에 집중 분포 유해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건강영향 위해 요인 증가 배출사업장 대기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전문조직인력 확충

Ⅰ 여건전망

□ 자연환경 훼손 및 생태계 악화

- 자연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난개발, 무분별한 개별공장입지 증가,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유발 및 자연환경 훼손(산림 훼손 및 녹지 감소 등)
- 생태계 교란(생물 다양성 감소, 보호지역 감소 등) 지속적인 증가



□ 환경규제 개선 요구 증대

- 충청북도는 주요 상수원인 2개의 대형 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연환경보전과 개발에 대한 의견 상충
- 개발 제한에 따른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 요구 증대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규제 완화,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등

□ 생활환경 악화

- 폐기물 매립용량 부족 및 처리 곤란으로 인한 무단 배출 증대에 따른 쾌적한 생활환경 악화
-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재이용(재사용, 재활용 등) 등에 대한 자원 순환 이용 증대

〈표 III-5- 6〉 폐기물

구분	사용기간 (년)		총매립지 면적(㎡)	총매립 용량(㎡)	기매립량 (㎡)	잔여매립		매립 후 이용계획
						가능량(㎡)	비율(%)	
전국	-		26,744,838	480,221,830	264,592,715	215,629,115	44.9	
충청북도			488,435	6,081,889	4,272,006	1,809,883	29.8	
청주시	2001	2021	119,640	1,674,000	1,545,140	128,860	7.7	공원
충주시	1999	2032	62,296	1,258,079	850,412	407,667	32.4	미정
제천시	2007	2035	64,900	664,200	289,211	374,989	56.5	확장매립
보은군	1992	2028	14,148	132,426	122,517	9,909	7.5	녹지조성
보은군	1996	2026	11,060	86,800	37,286	49,514	57.0	녹지조성
옥천군	1998	2051	38,006	561,573	371,562	190,011	33.8	공원
영동군	2010	2023	9,270	46,540	19,476	27,064	58.2	녹지
영동군	2001	2026	18,441	118,342	109,863	8,479	7.2	녹지
증평군	1994	2022	58,100	363,061	351,413	11,648	3.2	미정
진천군	1995	2020	9,918	28,500	17,103	11,397	40.0	산림녹지
괴산군	1999	2035	32,400	527,000	291,060	235,940	44.8	녹지조성
음성군	2010	2035	35,654	457,306	143,843	313,463	68.5	녹지조성
단양군	2016	2022	14,602	164,062	123,120	40,942	25.0	녹지조성

□ 생태계 서비스 수요 증대

- 생태계 서비스는 물, 공기 등 자연환경 제공뿐만 아니라 심미, 여가, 관광, 힐링, 교육 등 인간의 정서를 순환시키고 음식, 질병 등 인간 삶의 전반적인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욕구가 증대할 가능성이 큼
- 충청북도 지역에는 백두대간, 공원(국립 및 도립), 지역 규모의 유용하고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자연환경, 여가, 힐링 등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른 자연보전지역 확대를 통한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 자원순환 환경부 정책 추진

- '30년부터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 '30년까지 상업적 목적의 비닐봉투 사용 전면 금지
- '30년까지 플라스틱 용기 생산 시 재생원료 30% 사용 의무화



3) 추진과제

□ 녹색공간 조성 및 관리 강화

- 국가 차원에서 한국형 그린뉴딜과 관련하여 생태계 복원을 통해 녹색 생태계 기능 회복 계획
 - 타 지역 대비 청정하고 풍부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특성을 이용하여 하천, 호소 등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자원을 활용하거나 훼손된 공간에 대한 복원을 통해 녹색공간 확보와 녹지축 등과 연계 가능한 생태네트워크 구축
-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으로 생물 다양성 훼손이 가속화되고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요구 증대
 - 체계적인 DB 구축 및 관리를 통한 생물 다양성 증가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물자원 보전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지속 가능한 관리 강화

□ 환경규제 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

- 안전하고 깨끗한 물공급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상수원 댐 상류지역의 환경규제 및 피해에 대한 주민 불편 발생
 - 환경관리방안, 규제연계형 지원정책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 환경기반시설 운영 효율화 및 자원순환을 제고

- 소각시설 집중화, 매립장에서 배출되는 침출수, 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
- 환경기반시설에 대한 위생 관리 강화, 공공처리시설 설치 등을 통한 운영의 효율화 및 재활용 등 생활 실천을 통한 자원순환 이용 확대가 시급히 요구
 - 한국판 그린뉴딜과 관련하여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추진

□ 신 기후체제 대응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온실가스 체계적 감축

- 일상생활의 편리를 위해 소비하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탄소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집중호우, 가뭄, 사막화 등 환경변화가 발생하고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제적인 약속으로 파리협정 체결
 - 한국판 뉴딜종합계획 중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통해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경제기반을 저탄소, 친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해 그린 뉴딜 추진 전략수립
- 신 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탄소를 저장할 산림을 조성하거나 석탄과 석유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를 흡수할 방안 마련
 -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 및 노후경유차 조기 퇴출, 무공해 미래자동차 보급 확대 등 도민 참여를 통한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문화 추진

□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고 깨끗한 푸른 하늘 조성

- 한국판 그린 뉴딜과 관련하여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 숲, 생활밀착형 숲, 자연안심 그린 숲 등 도시숲 조성을 통한 녹색 생태계 회복 계획
- 충청북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발생량 대비 전국에서 가장 높아 도민의 건강이 우려되고 있는 바, 중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2024) 확정
 - 충청북도에 지정된 6개 시·군(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발생원을 차단하는 대기질 개선사업 확대 및 미세먼지 등 지역현안 환경문제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 설립

〈표 III-5-7〉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전을 통한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추진사업

전 략 명	과 제 명	단기 (20~25)	중기 (26~30)	장기 (31~40)	비고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전을 통한 녹색공간 조성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2. 생물다양성정보시스템 구축				
	3. 폐차후 LPG 화물차 구매시 지원 확대				
	4.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5. 자원순환(재활용) 활성화사업				
	6. 수소자동차 보급				
	7.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8. 수소충전소 구축				
	9. 충청북도 기후환경연구소 설립				
	10. 폐기물 공공매립시설 설치				
	11.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12. 충북권 대기환경연구소 설치				
	13.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유치				
	14.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확대				
	15.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				
	16.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				
	17. 백두대간(한남금북정맥) 마루금 생태축 복원				
	18. 생태관광지역 육성				
	19.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20. 국립 기후환경센터 건립				
	21.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				
	22. 생태공원 조성사업				
	23.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24. 폐기물 공공소각시설 설치				



〈표 III-5- 8〉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전을 통한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시군계획지침

※ 시·군 계획지침

- 시·군은 자연 및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시·군은 공유자원에 대한 이해력 부족으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보전과 개발에 대한 주민의 인식도 향상 및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 시·군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폐기물 분리배출 교육, 실천, 홍보, 재활용 등 폐기물 감소 방안을 마련한다.
- 시·군은 기후변화, (초)미세먼지 등의 위험요인으로부터 시·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기후변화를 기회요인으로 시군의 경제성장을 도모한다.

제2절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로 안심할 수 있는 충북

1) 현황 및 문제점

I 현황

- 지방 및 광역상수도 보급률은 92.2%로 전국 97.0%보다 낮은 수준이며, 타 시·군 대비 보은군·괴산군은 급수보급률이 70.0% 이하로 낮은 반면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인구를 포함한 급수보급률은 98.5%로 전국 99.2%보다 약간 낮은 수준임
 - 급수보급률 : 보은군과 괴산군은 52.3%와 66.1%로 매우 낮음
 - 상수도 미급수인구 : 진천군 6.27%(5,287명), 음성군 5.41%(5,689명), 괴산군 3.49%(1,399명), 충주시 2.78%(6,001명) 등 미급수지역은 지하수, 계곡수, 자가수도 등을 이용
- 상수도 누수율은 전국(10.8%)과 유사한 수준인 10.6%로, 괴산군(41.4%), 영동군(34.9%), 보은군(31.4%)은 30.0% 이상으로 높은 편임

〈표 III-5- 9〉 충청북도 시·군별 상수도 보급률 및 누수율

구분	총인구 (명)	급수인구 (지방 및 광역상수도) (명)	미급수인구 (명)	보급률 (%)		누수율 (%)
				지방 및 광역상수도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인구 포함	
충청북도	1,638,789	1,510,702	24,387	92.2	98.5	10.6
청주시	851,328	826,639	4,349	97.1	99.5	5.5
충주시	215,859	198,691	6,001	92.0	97.2	15.3
제천시	136,906	128,643	144	94.0	99.9	14.0
보은군	34,189	17,867	786	52.3	97.7	31.4
옥천군	52,251	45,387	0	86.9	100.0	27.6
영동군	50,318	39,569	0	78.6	100.0	34.9
증평군	38,062	38,010	52	99.9	99.9	21.7
진천군	84,265	75,638	5,287	89.8	93.7	9.4
괴산군	40,032	26,479	1,399	66.1	96.5	41.4
음성군	105,103	91,229	5,689	86.8	94.6	12.4
단양군	30,476	22,550	680	74.0	97.8	15.0

자료 : 환경부, 2018 상수도통계, 2019

- 20년 이상 된 노후 상수관로의 충청북도 평균 비율은 25.8%(전국 33.0%)로, 보은군과 진천군의 노후 비율은 각각 2.8%와 5.9%로 매우 낮은 반면, 청주시, 충주시, 옥천군, 증평군, 단양군은 30.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표 Ⅲ-5-10〉 충청북도 시·군별 상수관로 노후 현황

구분	총 관로 연장(km)	5년 이내 (km)	6년~10년 이내 (km)	11년~15년 이내(km)	16년~20년 이내 (km)	21년 이상 (km)	노후 관로 비율(%)
충청북도	10,092.8	2,021.4	2,297.1	1,764.9	1,403.2	2,606.3	25.8
청주시	2,819.7	460.4	302.4	479.6	526.7	1,050.7	37.3
충주시	1,709.8	360.4	407.3	227.4	162.7	552.0	32.3
제천시	1,041.6	160.4	288.0	159.0	166.5	267.8	25.7
보은군	314.4	99.1	97.6	57.5	51.5	8.8	2.8
옥천군	598.2	139.6	169.3	45.1	52.1	192.1	32.1
영동군	700.3	172.5	234.6	149.2	40.7	103.3	14.8
증평군	293.0	24.9	47.4	73.0	59.6	88.0	30.0
진천군	794.9	223.0	201.0	235.3	89.0	46.6	5.9
괴산군	497.4	124.6	128.0	109.2	77.9	57.6	11.6
음성군	911.7	163.1	343.6	139.7	162.8	102.6	11.2
단양군	411.8	93.3	77.9	90.0	13.7	136.8	33.2

주 : 노후 관로 : 21년 이상 상수관로
자료 : 환경부, 2018 상수도통계, 2019

- 상수관로 GIS 구축률은 52.2%(전국 69.4%)로, 옥천군, 괴산군, 음성군은 미구축 상태임
- 상수도 소블록 배수블록시스템 구축률은 52.8%로 전국 68.3% 대비 낮은 수준임
- 제천시, 진천군, 단양군의 소블록 배수블록시스템은 구축완료 상태임(도농(시·군) 간 비교 시 51.5%~53.6% 범위로 큰 차이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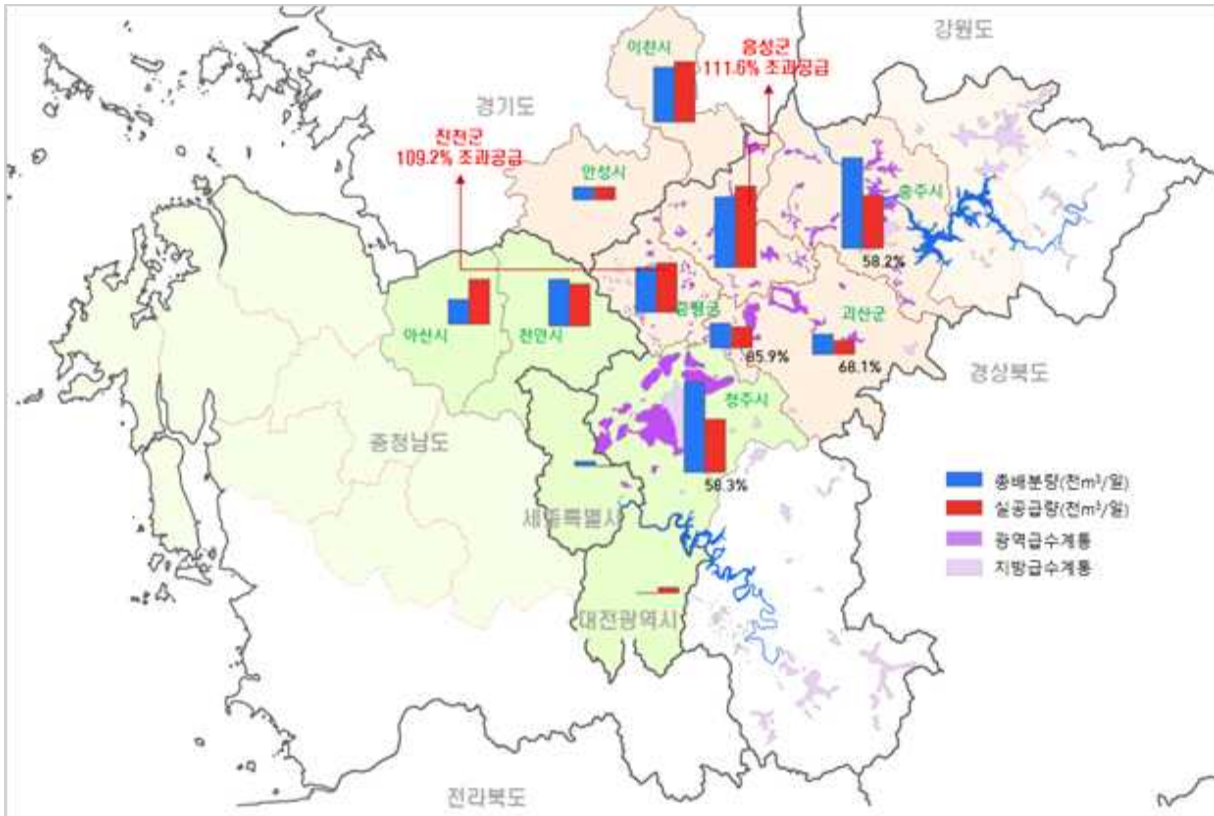
〈표 Ⅲ-5-11〉 상수도 관로 GIS 구축 및 배수블록시스템 구축 현황(%)

구분	충청 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GIS	52.2	86.2	38.5	71.0	35.3	0.0	18.5	0.0	99.1	0.0	0.0	100.0
배수 (소)블록 시스템	52.8	38.1	60.0	100.0	0.0	23.0	50.0	0.0	100.0	18.0	91.0	100.0

자료 : 환경부, 2018 상수도통계, 2019
※ 배수블록시스템 구축률은 대, 중, 소블록 중 소블록 기준 수치임

- 충청북도 내 주요 상수원인 대청댐과 충주댐에서 충청북도 지역에 44.5%(475,783톤/일) 경기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등 충청북도 외 지역에 55.5%(594,505톤/일) 용수를 공급하고 있음
- 대청댐계통 : 충청북도 36.2%(303,986톤/일), 충청북도 외 63.8%(536,546톤/일)

- 충청북도 지역 중 충주댐계통의 진천군과 음성군의 경우 총배분량 대비 각각 111.6%(63,951톤/일)과 109.2%(38,762톤/일)로 초과하여 공급하고 있어 8,851톤/일과 3,262톤/일이 부족한 실정임



〈그림 III-5- 6〉 충주댐 및 대청댐 계통 용수공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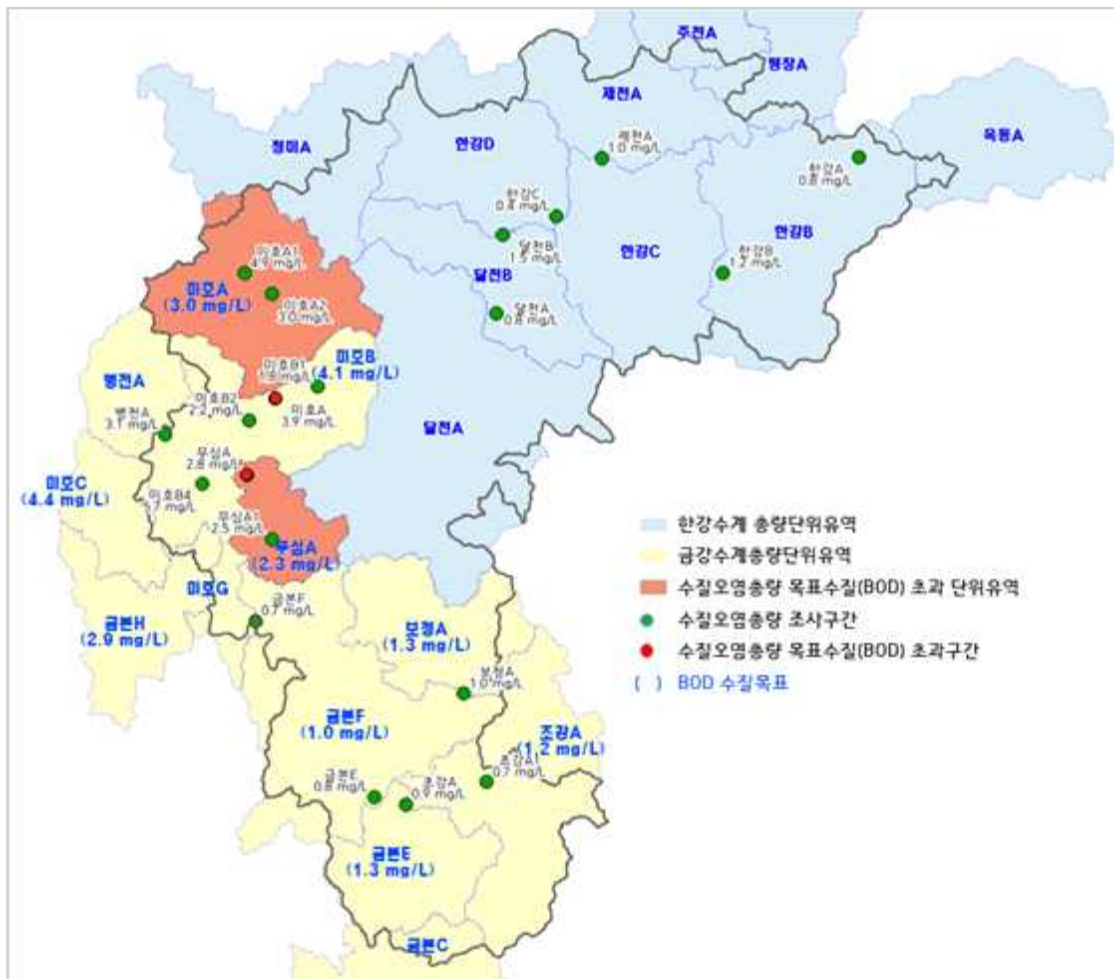
- 환경부에서는 2002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내 금강수계에 해당하는 유역은 3단계(2016년~2020년), 한강수계에 해당하는 유역은 2021년부터 오염총량관리 2단계를 시행할 계획임
 - 현재, 금강수계 4단계, 한강수계 2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용역 시행 중
- 충청북도 지역에는 총 20개의 수질오염총량 측정망을 운영, 관리하고 있음
 - 2016년~2020년 동안 5개 측정망(무심A, 무심A1, 미호A1, 미호A, 미호B4)의 BOD 평균값은 해당 단위유역의 수질 목표값을 초과하였음
 - 금강수계 3단계 오염총량(2016년~2020년)을 실시하고 있는 금강수계의 경우 BOD 수질농도는 2015년 대비 2019년 기준으로 금본F, 초강A 단위유역을 제외하고 높아졌고, 평균값 비교 시 오염총량관리 단위유역 중 무심A, 미호A 단위유역이 BOD 목표수질을 초과하였음

〈표 III-5-12〉 수질오염총량 측정망 BOD 현황

금강3단계 총량단위구역	BOD 수질목표	2015년	금강수계 3단계 (mg/L)				
			2016	2017	2018	2019	평균
금본E	1.3	0.70	0.71	0.74	0.90	0.92	0.82
보청A	1.3	0.91	0.95	0.90	1.22	1.01	1.02
금본F	1.0	0.71	0.84	0.66	0.71	0.61	0.70
초강A	1.2	0.71	0.74	0.75	0.95	0.80	0.81
무심A	2.3	1.70	2.36	2.93	2.71	3.47	2.87
미호A	3.0	3.20	3.98	4.38	3.70	4.53	4.15
미호B	4.1	4.00	3.88	4.36	3.98	3.59	3.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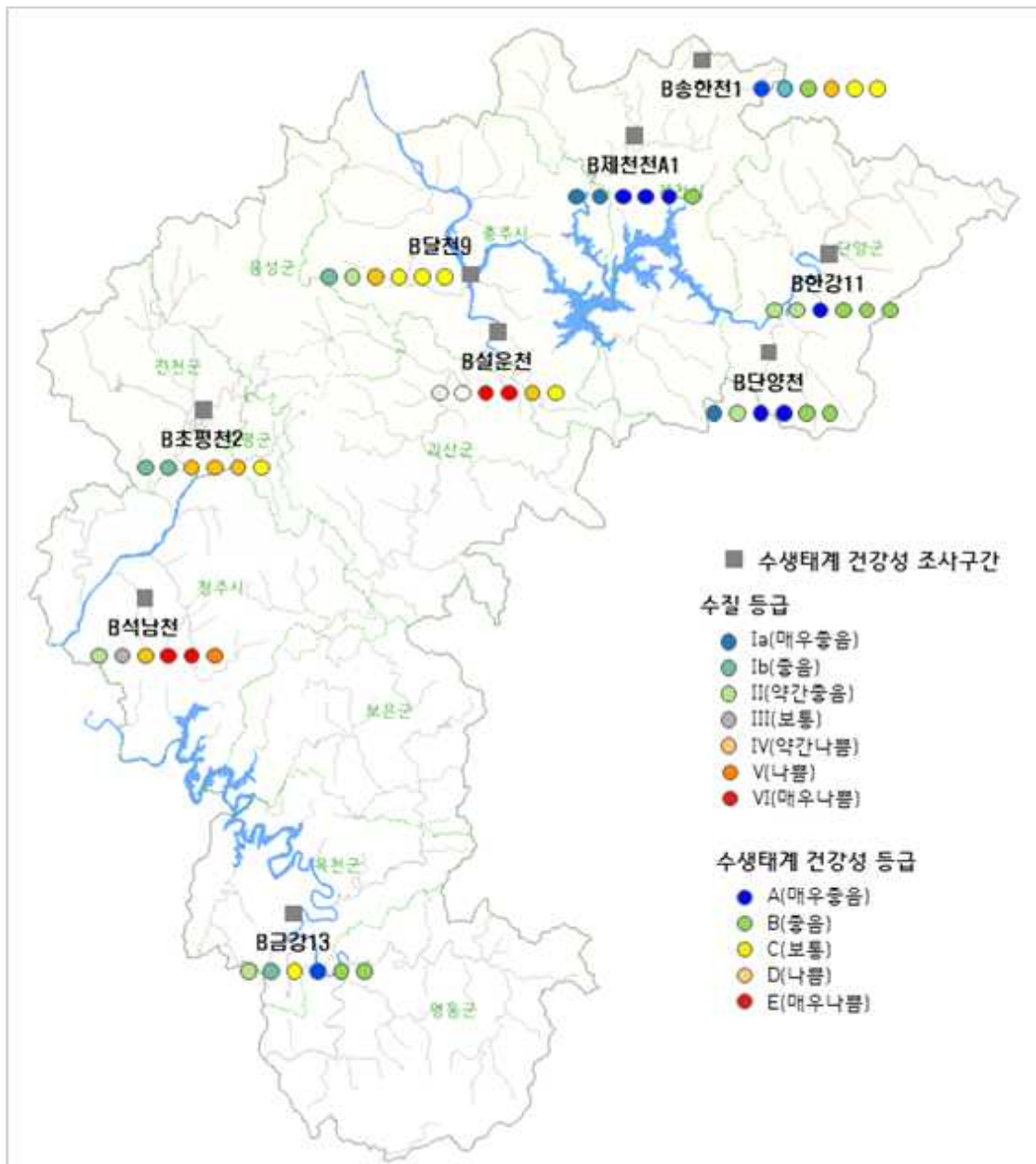
자료 :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 2004년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한 이후, 최초 1단계 시행계획(2005년~2010년) 평가결과 청주시(구 청원군)는 할당부하량을 초과하였고 삭감계획 등이 이행되지 않아 2012년 제재대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개발사업에 제한을 받았었음



〈그림 III-5- 7〉 수질오염총량측정망 운영 현황(2016년~2019년 평균 BOD)

- 충청북도 지역 내에는 91개의 생물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수질보다 수생태계 건강성이 악화된 상태로 평가됨
- 단양군 B한강11, B단양천, 제천시 B제천천A1 구간은 수질과 수생태계 건강성이 좋은 상태인 반면, 충주시 B설운천, 진천군 B초평천2, 청주시 B석남천 구간은 수생태계 건강성이 나쁨 이하 등급으로 나타남(단, B설운천 구간은 조사 시 건천화로 인해 수질 평가 불가)
- 충주시 B송한천1, B달천9, 옥천군 B금강13 구간은 수질과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남



주 : 원형 순서대로 : BOD, TP, TDI, BMI, FAI, HRI 등급 상태
 <그림 III-5- 8>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좋음 이상 및 나쁨 이하 구간



-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 보급률은 87.7%로 전국 93.9% 대비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시 지역(청주시, 충주시, 제천시)과 군지역 중 증평군은 90.0% 이상으로 높은 반면, 괴산군(50.4%), 음성군(62.7%), 영동군(68.8%)은 70.0% 미만의 낮은 보급률을 보임
- 하수도 설치율은 72.8%로 증평군(89.2%), 옥천군(81.7%), 충주시(80.5%), 제천시(77.6%)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전국 76.8%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37개소(11.12%)로 증평군과 괴산군에 각각 1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 재이용의 55.9%가 장내용수, 44.1%가 장외용수로 이용되며, 장내용수의 장내기타용수(87.2%)와 장외용수의 하천 등 유지용수(86.3%)가 대부분을 차지함

〈표 III-5-13〉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구분	총인구 (명)	하수처리 구역 내 인구(명)	공공하수 처리구역 인구보급률 (%)	하수도 설치율 (%)	공공하수처리시설주)				
					개소수	시설용량 (m3/일)	연간하수 처리량 (천톤/년)	재이용현황	
								총계 (천톤/년)	재이용률 (%)
충북	1,638,789	1,437,496	87.7	72.8	37	606,350	182,490.6	41,950.6	23.0
청주시	851,328	792,520	93.1	72.6	10	303,100	97,521.7	20,315.9	20.8
충주시	215,859	198,783	92.1	80.5	5	95,700	25,424.9	902.9	3.6
제천시	136,906	127,594	93.2	77.6	4	72,800	20,586.8	1,581.4	7.7
보은군	34,189	24,270	71.0	57.6	3	11,600	3,096.0	774.4	25.0
옥천군	52,251	45,916	87.9	81.7	2	18,900	6,120.6	5,472.3	89.4
영동군	50,318	34,620	68.8	59.6	2	11,250	3,630.2	916.3	25.2
증평군	38,062	36,943	97.1	89.2	1	25,000	7,604.2	3,456.0	45.4
진천군	84,265	67,350	79.9	58.2	4	30,000	7,570.3	7,569.6	100.0
괴산군	40,032	20,163	50.4	48.0	1	6,000	2,171.7	434.9	20.0
음성군	105,103	65,892	62.7	50.6	3	21,000	6,768.1	508.9	7.5
단양군	30,476	23,445	76.9	58.5	2	11,000	1,995.8	18.0	0.9

주 : 대상 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이 500㎥/일 이상
 자료 : 환경부, 2018 하수도통계, 2019

I 문제점

□ 도·농간 환경기반시설 격차 발생

- 환경기반시설 중 상수도과 하수도 관련하여 일부 현황들에 대해 시·군별 현저한 격차가 발생함
 - 상수관로 GIS 구축률 및 배수블록시스템 구축률이 시지역이 군지역 보다 각각 2.2배, 1.7배로 높은 반면 상수도 누수율 및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은 군지역이 각각 2.4배, 3.1배 높게 나타났음

〈표 III-5-14〉 충청북도 상수도 보급 현황

구분		전국	충청북도		
			전체	시	군
상수도 보급률(%)	지방 및 광역상수도	97.0	92.2	95.8	82.1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수도시설 포함	99.2	98.5	99.1	96.8
상수도 누수율(%)		10.8	10.6	7.7	18.5
상수관로 GIS 구축률(%)		69.4	52.2	68.7	31.8
상수 배수블록시스템 구축률(%) - 대블록		72.4	52.4	71.4	42.9
하수도 보급률(%)		93.9	87.7	92.9	73.3
하수도 설치율(%)		76.8	72.8	75.8	62.4
공공하수처리수재이용률(%)		15.5	23.0	15.9	49.2

주 : 배수블록시스템 구축률은 대, 중, 소블록 중 대블록 기준 수치임(소블록의 경우 시·군 간 거의 비슷)

□ 스마트 물관리체계 구축 미흡

- 관망도 전산화 및 배수구역별 수압 모니터링 등 현장과 연계한 제어(감압, 가압 등) 시스템 구축이 미흡한 실정임

□ 수요에 따른 용수 공급 부족

- 물을 공급받는 일부 지역의 경우 총배분량과 배분계약량 보다 실제 더 많은 용수를 초과하여 공급받고 있음

□ 수질오염총량제도 목표 기준 초과

- 1단계(2005년~2010년) 수질오염총량제도 시행평가결과, 충청북도 지역에는 청주시와 (구)청원군에 해당하는 무심A, 미호B, 미호C(구 청원군, 현 세종시) 3개 유역이 오염부하량을 초과하여 행정제재 대상으로 선정되었음(2012년에 해제)
 - 제재 대상 제한사항 : 도시개발사업, 산업·관광단지 개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설치 등에 대한 승인·허가 제한
 - 할당된 부하량 대비 초과부하량 : 총 1,828.5kg/일(무심A 222.2kg/일, 미호B 1,571.8kg/일, 미호C 34.5kg/일)



- 미호C 유역은 목표수질을 초과하였으나 이에 대한 제재 대상 선정이 아니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초과로 제재 대상이 되었으며, 계획수립 시 환경 여건을 반영한 오염부하량 및 할당부하량 산정이 필요함

☐ 통합물관리체계 필요

- 물관리 패러다임이 통합물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화학적 방법에 의한 수질(BOD, TP) 평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수질뿐만 아니라 수생태계, 수량 등을 고려한 물관리 체계가 필요함
 -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 환경변화를 반영한 생물과 생물이 서식하는 건천화, 인공 및 자연화 정도 등 주변 환경을 반영

☐ 물 재이용 저조

- 공공하수처리시설 일정 규모(5,000㎥/일) 이상 시설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처리량의 10%를 공급하도록 함
- 빗물이용시설은 7개 시·군(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영동군,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에서 조경용수(303㎥/일)로 사용되며, 중수도는 3개 시·군(청주시, 충주시, 진천군)에서 처리용량의 58.8% (11,086㎥/일)를 이용하고 있음

2) 여건분석 및 전망

Ⅰ SWOT 분석

- 충청북도 지역 특성상 2개의 다목적댐 보유로 한강수계와 금강수계의 수자원을 공급하고 있으나, 충청북도 일부 지역의 개발수요 급증으로 일부 지역의 용수 수요량에 따른 공급이 어려움
- 물관리가 통합관리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는 융복합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재난 사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적인 유역 관리 및 물 재이용 등 물순환체계 관리가 필요함

〈표 III-5-15〉 SWOT 분석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청댐과 충주댐의 대형 다목적댐 보유로 수도권과 중부권의 주요 용수 공급원 상류지역 수질보전정책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대응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하고 안정적인 물공급 및 물관리 시스템 체계화 부족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도 시행 및 금강수계 제재대상 선정 사례에 따른 강화된 환경규제
기회(O) ⇒ 포착	위협(T) ⇒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 제·개정에 따른 물환경 패러다임 변화 수자원에 대한 지역 수요 반영 쾌적한 환경 및 깨끗한 물 제공 수질, 수생태계,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 물순환체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농 간의 환경기반시설 격차 증가 충청북도 외 타지역으로 물 공급량 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위기 영향 증대

Ⅰ 여건전망

□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

- 전반적인 충청북도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누수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시·군별 누수율의 연간 변화를 살펴보면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의 누수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쾌적한 환경 및 상수도 보급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노후관로 개선, 스마트 상수관로(GIS 구축) 및 상수관망(배수블록시스템 구축)의 체계적 관리에 대한 투자 확대 등으로 인한 물 공급 개선에 대한 기대가 증대됨

〈표 III-5-16〉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의 상수도 누수율 연도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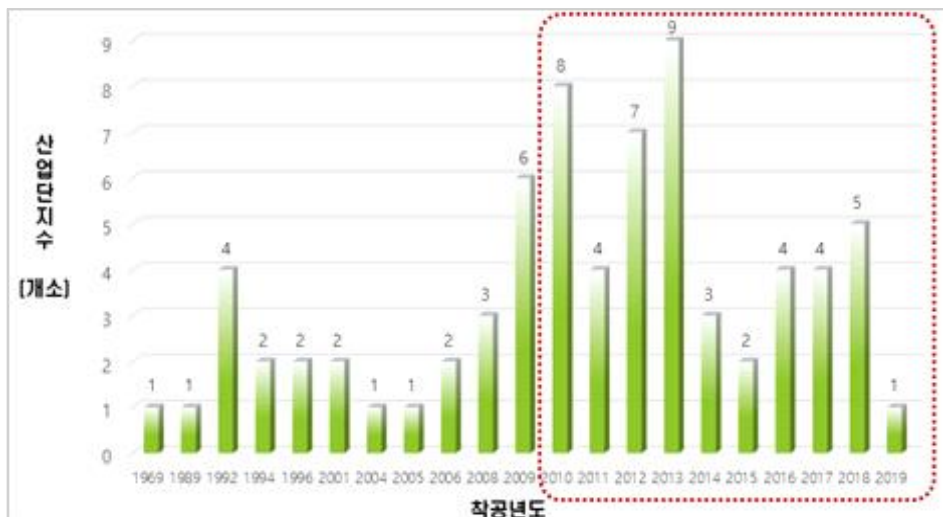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충북	81.1	82.7	83.7	85.1	86.0	86.8	87.6	88.9	90.2	90.2	91.1	92.2
보은군	23.1	20.1	19.3	18.7	17.0	24.0	25.1	29.5	39.1	33.4	32.0	31.4
영동군	24.1	15.6	15.4	15.0	14.7	14.3	13.9	36.4	38.1	35.0	37.3	34.9
괴산군	16.6	16.6	23.1	21.4	21.7	17.0	16.1	37.9	39.2	41.3	44.6	41.4



〈그림 III-5-9〉 충북 상수도 보급률 및 누수율

□ 공업용수 공급 확충

- 충청북도 지역의 산업단지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과거 대비 최근 10년 동안 매년 증가 추세를 보임



〈그림 III-5-10〉 충북 지역 산업단지 착공년도에 따른 개소수

- 2018년 기준으로 충주댐계통의 진천군, 음성군은 배분량보다 초과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 산업단지 개소수가 증가함에 따라 2035년 기준으로 356,691톤/일의 공업용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표 III-5-17〉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총 용수 수요량 추정(톤/일)

구분		기존	2021년	2025년	2030년	2035년
용수량	배정량	285,944	285,944	285,944	285,944	285,944
	수요량	294,244	382,613	633,775	639,816	642,635
	부족량	△8,300	△96,669	△347,831	△353,872	△356,691

주 : 수요량 산정기준은 기존 산업단지, 승인고시 산업단지, 계획(미고시, 투자의향서 등) 산업단지 포함
 자료 : 충청연구원, 충청북도 공업용수 공급방안 연구, 2019. 12

-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대청댐계통과 충주댐계통의 총 배분량 2,480천 톤/일 중에서 충청북도 지역에 배분된 용수량은 764천 톤/일(30.8%)로 65.1%가 타 지역으로 배분되어 있음
- 대청댐계통의 71.4%와 충주댐계통의 36.6%가 타 지역으로 배분되어 있으며, 2021년까지 “2035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공업용수 확충을 위한 수요량을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와 지속적 협의
- 충청북도에는 상수도 공급을 위한 2개의 대형 댐이 위치하고 있으나, 중복규제로 인해 주변지역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지역에 대한 배려, 국토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지역 간 수자원 배분원칙 및 기준이 필요함

〈표 III-5-18〉 대청댐계통 광역상수도 지자체별 용수 배분량(단위 : 천 톤/일)

구분	계	충청 북도	세종	충청남도(1,364.7천톤/일)									예비
		청주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예산	청양	공주	홍성	태안	
계	2,030.0	478.5	84.5	388.3	542.7	43.4	234.3	26.9	2.3	58.4	40.4	28.0	102.3
비율(%)	100.0	23.6	71.4										5.0
대청댐 I단계	250.0	130.0	8.0	84.0	28.0	-	-	-	-	-	-	-	-
대청댐 II단계	980.0	317.5	65.5	201.3	222.7	-	173.0	-	-	-	-	-	-
대청댐 III단계	800.0	31.0	11.0	103.0	292.0	43.4	61.3	26.9	2.3	58.4	40.4	28.0	102.3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표 III-5-19〉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지자체별 용수 배분량(단위 : 천 톤/일)

구분	계	충청북도							경기도			예비
		소계	충주	제천	증평	진천	괴산	음성	소계	이천	안성	
계	450.0	285.1	90.8	0.1	34.7	59.9	23.5	76.1	164.7	154.7	10.0	0.2
비율(%)	100.0	63.4							36.6			0.0
충주댐 I단계	250.0	197.3	71.0	0.1	19.5	35.5	16.1	55.1	52.7	42.7	10.0	-
충주댐 II단계	200.0	87.8	19.8	-	15.2	24.4	7.4	21.0	112.0	112.0	-	0.2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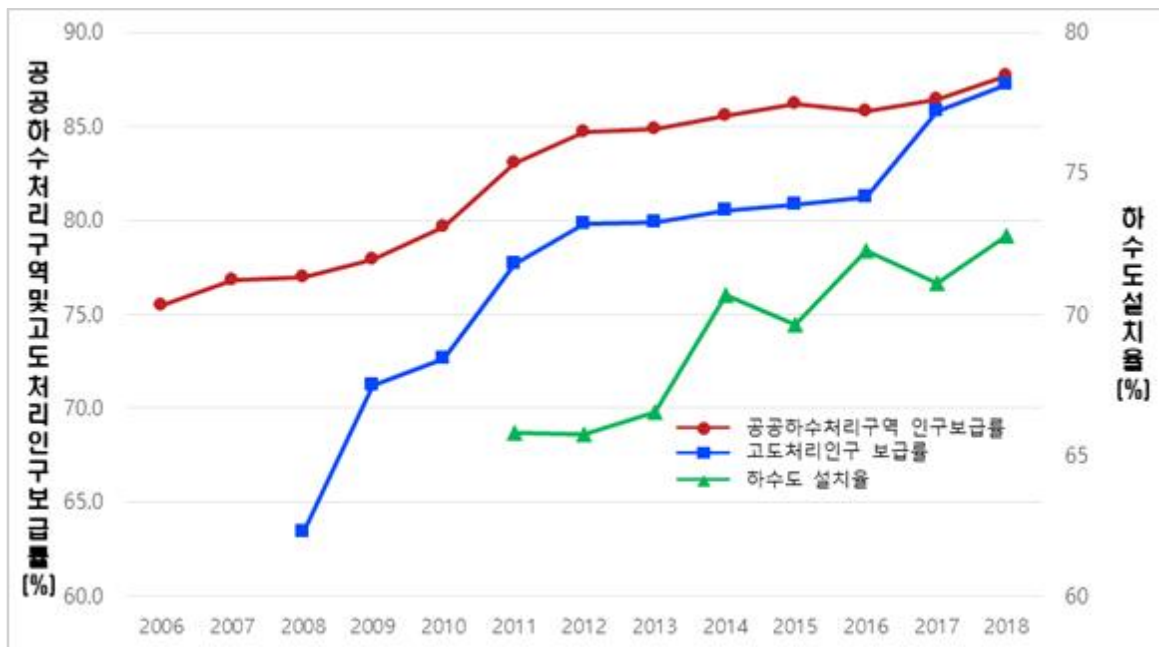
〈그림 III-5-11〉 대청댐 III단계 및 충주댐 II단계 용수 배분 계획 현황

□ 수질, 수량, 수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물관리 체계 전환

- 과거의 이화학 중심의 물관리에서 통합물관리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수질,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물관리 지방분권화, 유역관리, 거버넌스 등 참여 및 협력에 기반한 물 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추세임
 - 2019년부터 물관리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
 - 문제 해결을 위한 단일 사업이 아니라 융·복합 사업 추진 필요

□ 하천오염 및 수질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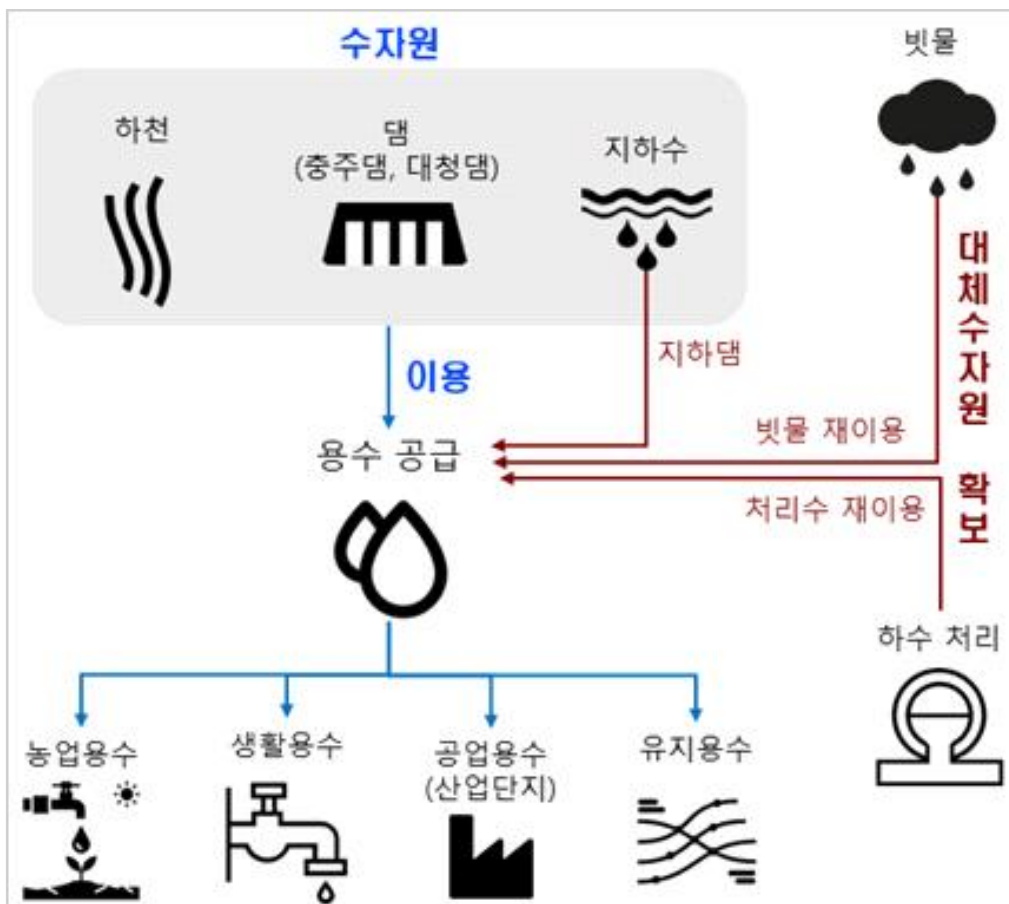
- 충청북도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 및 설치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거나 영동군, 괴산군, 음성군 등 일부 시·군은 저조한 편이며, 노후관로 개선, 하수관로 설치 투자 확대 등으로 인한 쾌적한 환경 및 수질 개선에 대한 기대가 증대됨



〈그림 III-5-12〉 충북 하수도 보급률 및 설치율

□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

- 용수 공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에 대한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지방 및 광역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한정된 수자원에 대한 수량 및 양질의 대체 수자원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빗물 재이용 등 물순환체계를 유도하는 등 지역 중심의 분산정책을 고려해야 함



〈그림 III-5-13〉 수자원 활용방안

□ 스마트 물관리

- 수자원 현황 분석, 정화, 분배, 이용, 재순환 등 물 흐름의 전 과정을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하여 관리하는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는 추세임



〈그림 III-5-14〉 수자원 활용방안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생산 및 구축 기반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기본적인 인프라(수자원 및 상하수도 시설, 수문정보, 기상 및 강우 등) 및 실시간 계측(유량, 수압, 수질, 누수, 시설상태, 재이용수 등)을 통해 센서, 통신, 연산, 자료관리 분야의 음성 및 영상 인식을 통한 설비 제어,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한 사고 예측, 무인 원격공정 제어, 실시간 물수급 자동화 등 지능형 물 공급 가능

3) 추진과제

□ 수자원 관리 및 물 공급 다원화

- 충청북도 지역에는 대형 다목적댐(대청댐, 충주댐)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역 수요 대비 용수 부족이 예상
- 반면에 65.1%가 타 지역으로 공급되고 있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자원 확보 및 수자원 배분원칙 마련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농촌지역 상수도시설 확충 및 보급 등을 통한 부족 용수, 재난사고 등 비상용수 확보 및 물순환체계를 이용한 다양한 물 공급

□ 지역 간 격차 및 불균형 최소화

- 상수도 및 하수도 환경기반시설 관련하여 도·농 간 격차가 현저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상수도 현대화, 공공하수도 보급 확대, 노후 인프라(노후관망, 배수지 등) 개선 등 지역 간 불균형을 최소화하여 도민들 모두가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격차 해소 필요

□ 수질, 수생태계, 수량 등을 연계한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

- 물관리 패러다임이 통합물관리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수질, 수량, 수생태계 등이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통합물관리를 위한 국가 및 유역물관리계획을 수립 중
- 오염원 사전 예방, 수질오염총량제도, 환경생태유량, 수생태계 건강성, 참여형 거버넌스 간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물환경 전반을 개선하고 관리함으로써 주요 현안을 해결 필요
- 지역 여건에 맞는 유역 중심의 물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

□ 지능형 물관리체계 구축

- 물관리 전 과정에 대한 패러다임이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으로 변화하는 추세로, 한국형 그린뉴딜 중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AI, ICT 기반의 수돗물 공급 전 과정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지능형 하수처리장 및 스마트 관망 관리를 위한 도시침수 및 악취관리 시범사업 추진, 수질개선·누수방지 등을 위해 12개 광역상수도 정수장 고도화 및 노후상수도 개량 세부과제를 계획
- 상·하수관로와 관망의 시스템화 및 전산화 확대를 통해 관로, 관망, 수량, 수질 등과 연계한 제어 시스템 구축

〈표 Ⅲ-5-20〉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로 안심할 수 있는 충북을 위한 추진사업

전 략 명	과 제 명	단기 (21~25)	중기 (26~30)	장기 (31~40)	비고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로 안심할 수 있는 충북	1. 안정적인 수자원 관리 및 물 공급 다원화				
	2. 물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				
	3. 스마트 물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				
	4. 하수처리장 확충				
	5. 스마트 댐 안전관리 체계 구축				
	6. 상수원 실시간 수량·수질 통합감시체계 구축				
	7. 완충저류시설 설치확대				
	8. 오염 삭감시설 확대발굴·설치				
	9. 지능형 물관리시스템 구축				
	10.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Ⅲ단계 조기 추진				
	11. 지방하천 조동천 유로변경 사업				
	12.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13. 하수도 정비사업				
	14. 공촌계통 비상연계관로 구축				
	15.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				
	16. 스마트 관망관리사업				
	17. 단양 수중보 갑문(도크) 조성				
	18.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표 Ⅲ-5-21〉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로 안심할 수 있는 충북을 위한 시군계획지침

※ 시·군 계획지침

- 시·군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보급률 향상, 누수율 감소, 블록시스템 및 관망도 구축, 노후관로 개선 등 상수도 및 하수도와 관련된 환경기반시설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 시·군은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해 지역 간 물 배분방안 및 용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공급방안을 강구한다.
- 시·군은 수질오염총량제도에 대비하여 오염원 사전 예방 및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수생태계의 연계 방안을 강구한다.
- 시·군은 지속 가능한 물 안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질, 수량, 수생태계 등을 연계한 건강한 물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안전성, 효율성을 확보하는 통합물관리 계획을 마련한다.



제3절 산림복지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터와 쉼터 실현

1) 현황 및 문제점

I 현황

□ 산지기본현황

- 전국 산지면적은 6,359,020ha이며 충청북도 산지면적 비율은 66.6%(493,237ha)로 17개 시도 중 3위에 해당함
- 보전산지 비율은 80.0%로 전국(78.6%)과 비교했을 때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임업용산지(53.3%)는 전국(52.2%)와 비교했을 때 높은 비율로 나타남

〈표 III-5-22〉 충청북도 보전산지 면적 및 비율

(단위 : ha, %)

구분	전체면적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소계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전국	6,359,020	4,996,111	78.6	3,321,018	52.2	1,675,093	26.4	1,362,909	21.4
충청북도	493,237	394,441	80.0	262,967	53.3	131,474	26.7	98,796	20.0
청주시	47,095	35,386	75.1	18,871	40.1	16,515	35.0	11,709	24.9
충주시	61,257	43,229	70.6	34,444	56.2	8,785	14.4	18,028	29.4
제천시	64,250	51,489	80.1	33,710	52.5	17,779	27.6	12,761	19.9
보은군	39,810	33,928	85.2	22,357	56.2	11,572	29.0	5,882	14.8
옥천군	34,941	30,070	86.1	16,262	46.5	13,808	39.6	4,871	13.9
영동군	65,781	55,633	84.6	46,700	71.0	8,933	13.6	10,148	15.4
증평군	3,988	2,367	59.4	1,590	39.9	777	19.5	1,621	40.6
진천군	22,950	17,280	75.3	15,019	65.4	2,261	9.9	5,670	24.7
괴산군	62,109	52,076	83.8	31,803	51.2	20,272	32.6	10,033	16.2
음성군	26,818	16,134	60.2	15,343	57.2	791	3.0	10,684	39.8
단양군	64,238	56,850	88.5	26,869	41.8	29,981	46.7	7,389	11.5

자료 : 산지정보시스템, 산지통계, 2019

○ 보전산지 면적 변화

- 충청북도 산지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1년 일부 증가하였으나 2008~2017년 연평균 909ha 산지가 감소함(국유림 포함)
- 10년 전 대비 산지 1.7% 감소, 준보전산지는 6.3% 감소함
- 충청북도 최근 5년간 산지면적의 변동은 2015년 495,997ha에서 2019년 493,237ha로 2,760ha 감소함
- 임업용산지(53.3%) : 261,672ha(2015년)에서 262,967ha(2019년)로 1,295ha 증가함
 - 임업용산지 중 채종림, 시험림, 임업진흥권역, 기타임업용산지는 감소하였으나, 2018년 보전국유림의 현황화로 인하여 임업용산지가 전체적으로 증가한 형태를 보임
- 공익용산지(26.7%) : 129,837ha(2015년)에서 131,474ha(2019년)로 1,637ha 증가함
- 준보전산지(20.0%) : 104,488ha(2015년)에서 98,796ha(2019년)로 5,692ha 감소함

〈표 III-5-23〉 충청북도 보전산지 변화(국유림 포함)

(단위 : ha, %)

구분	합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5개년 변화율
		소계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2008	501,162	392,416	262,295	130,121	108,746	-
2009	503,152	393,445	260,837	132,608	109,707	-
2010	434,924	336,523	215,319	121,204	98,401	-
2011	501,711	393,298	262,612	130,686	108,413	-
2012	498,532	392,254	262,344	129,910	106,278	-0.52
2013	497,408	391,724	261,599	130,125	105,684	-1.14
2014	496,353	391,632	261,656	129,976	104,721	14.12
2015	495,997	391,509	261,672	129,837	104,488	-1.14
2016	495,717	391,944	262,152	129,792	103,773	-0.56
2017	494,814	391,734	262,051	129,683	103,080	-0.52
2018	494,128	391,621	261,734	129,887	102,507	-0.45
2019	493,237	394,441	262,967	131,474	98,796	-0.56

자료 : 산지정보시스템, 산지통계, 2019

□ 산지자원 현황

○ 자연공원

- 충청북도의 자연공원은 속리산(보은군, 괴산군), 월악산(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소백산(단양군) 등의 3개의 국립공원이 있으며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국립공원 3개소의 총면적은 884.35km²로 전국 국립공원 총면적 6,579.85km²의 13.4%를 차지함

〈표 III-5-24〉 충청북도 자연공원

(단위 : km²)

구분	공원명	공원구역 면적*	지정일자	행정구역
국립공원	전국	6,579.85	-	서울(1), 대전(1), 경기(1), 강원(3), 충북(3), 충남(2), 전북(4), 전남(5), 경북(6), 경남(3), 제주(1)
	합계	884.35	-	-
	속리산	274.77	' 70.03.24.	보은군, 괴산군
	월악산	287.57	' 84.12.31.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소백산	322.01	' 87.12.14.	단양군

주 : * 공원구역 면적은 속리산(경북 상주), 월악산(경북 문경), 소백산(경북 문경)을 포함한 면적임
 자료 :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2018

○ 자연휴양림 및 삼림욕장 현황

- 자연휴양림 중 국유자연휴양림은 3개소(전국 대비 7.0%), 공유자연휴양림 17개소(전국 대비 16.3%)가 구성되어 있음
- 국유자연휴양림은 청주시 상당산성, 보은군 속리산, 단양군 황정산이 구성되어 있으며, 공유자연휴양림은 제천시 박달재, 옥천군 장령산 등 17개소, 사유자연휴양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표 III-5-25〉 충청북도 시군별 자연휴양림 현황

(단위 : ha)

구분		개소	소재지	면적
국유 자연휴양림	속리산말티재	1	보은군 장안 속리산로	283
	황정산	1	단양군 대강 황정산로	252
	상당산성	1	청주시 내수 덕암길	179
	계(전국/충북)	43/3	-	106,562
공유 자연휴양림	박달재	1	제천시 백운 평동	170
	장령산	1	옥천군 군서 금산	200
	조령산	1	괴산군 연풍 원풍	766
	봉황	1	충주시 가금 봉황	174
	계명산	1	충주시 종민	362
	옥화	1	청주시 미원 운암	136
	민주지산	1	영동군 용화 조동	180
	소선암	1	단양군 단성 대잠	66
	수례의산	1	음성군 생극 차곡	89
	문성	1	충주시 노은 문성	56
	충북알프스	1	보은군 산외 장갑	90
	좌구산	1	증평군 증평 울리	73
	백야	1	음성군 금왕 백야	37
	생거진천	1	진천군 백곡 명암	221
	성불산	1	괴산군 괴산 검승	81
	보은	1	보은군 속리 갈목	110
	소백산	1	단양군 영춘 하리	190
	계(전국/충북)	104/17	-	22,085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9

□ 산림복지서비스

○ 산림복지시설 이용현황

- 충청북도 자연휴양림 총 이용객은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나, 지자체별로 일부 차이
 - 증평군 좌구산 자연휴양림의 경우 2019년 이용 인구가 40만 명으로 2016년도에 비해 약 20만 명 증가(증가율 : 100%)
 - 이용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2017년 7월 명상구름다리 건설, 2018~2019년 인프라 확충의 결과로 예상
- 인근 산림복지서비스와의 인프라 연계 등을 통한 유지관리방안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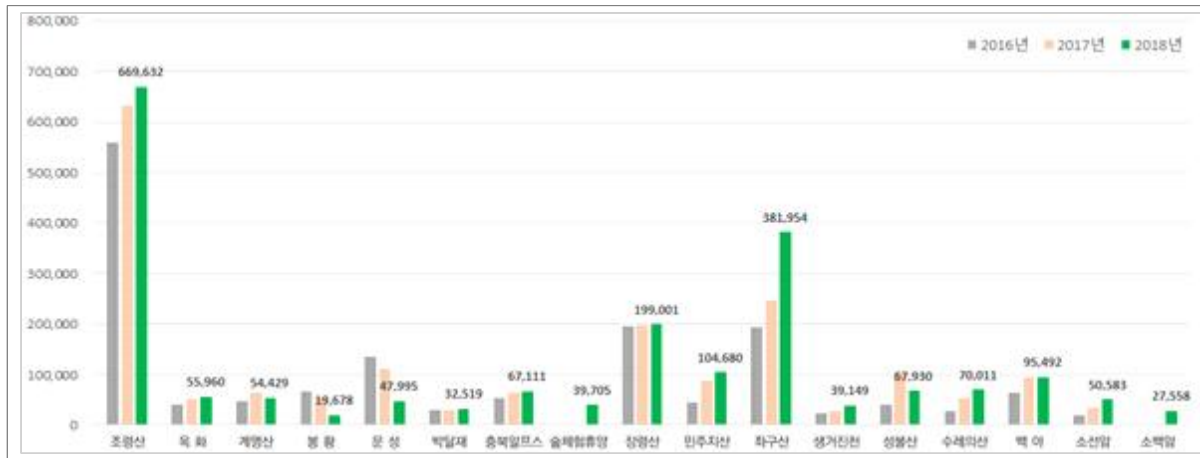
〈표 III-5-26〉 충청북도 자연휴양림별 이용객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시군구	명칭				
합계		1,542,837	1,854,846	2,023,387	2,199,614
산현연*	조령산	559,303	631,242	669,632	683,254
청주시	옥 화	41,186	51,217	55,960	57,150
충주시	계명산	46,133	64,727	54,429	77,747
	봉 황	66,909	53,218	19,678	41,840
	문 성	135,939	112,459	47,995	85,600
제천시	박달재	30,875	29,995	32,519	43,007
보은군	충북알프스	54,605	63,987	67,111	95,345
	숲체험휴양	-	-	39,705	45,142
옥천군	장령산	195,833	198,489	199,001	191,013
영동군	민주지산	45,052	88,978	104,680	57,616
증평군	좌구산	194,345	247,054	381,954	400,087
진천군	생거진천	22,652	26,996	39,149	50,939
괴산군	성불산	39,918	104,000	67,930	75,783
음성군	수례의산	27,468	52,848	70,011	72,302
	백 야	64,232	94,601	95,492	149,866
단양군	소선암	18,387	35,035	50,583	40,249
	소백산	-	-	27,558	32,674

주 :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

자료 : 충청북도 내부자료, 2019



자료 : 충청북도(2019) 내부자료

〈그림 III-5-15〉 연도별 자연휴양림 이용객 현황

□ 산지보전 현황

○ 산림보호구역 지정 현황

- 2019년 기준 산림보호구역은 17개 시·도 147,778ha 지정되어 있으며, 충청북도는 전국 대비 9.7% (14,361ha)로 6위를 차지함
- 충청북도 기준 산림보호구역은 2019년 기준 제천시(2,814ha), 영동군(2,481ha), 진천군(1,829ha) 등의 순으로 지정 면적이 분포하고 있음

〈표 III-5-27〉 전국 지자체 산림보호구역 지정 현황(국유림 제외)

(단위 : ha, %)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면적	147,778	-	-	7	13	-	8	4,537	72
비율	100.0	-	-	0.0	0.0	-	0.0	3.1	0.0
구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면적	10,279	16,142	14,361	14,447	26,226	6,880	33,208	21,525	73
비율	6.9	10.9	9.7	9.8	17.8	4.7	22.5	14.6	0.0

자료 : 임업통계연보, 산림보호구역, 2019

〈표 III-5-28〉 충청북도 산림보호구역 지정 현황

(단위 : ha, %)

구분	합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면적	14,361	132	1,437	2,814	1,272	1,820
비율	100.0	1.0	10.0	19.6	8.9	12.6
구분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면적	2,481	234	1,829	704	197	1,441
비율	17.3	1.6	12.7	4.9	1.4	10.0

자료 : 임업통계연보, 산림보호구역, 2019

○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현황

- 2019년 기준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6개 도 275,465ha가 지정되어 있으며, 충청북도는 전국 대비 13.6% (37,548ha)로 강원, 경북에 이어 3위를 차지함
- 충청북도 기준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2019년 기준 단양군(14,421ha), 제천시(7,980ha), 괴산군(7,352ha), 영동군(3,577ha), 보은군(2,610ha), 충주시(1,608ha)의 순으로 지정되어 있음
 - 도 전체임야의 7.65% 차지

〈표 III-5-29〉 전국 지자체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현황

(단위 : ha, %)

구분	합계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면적	275,465	143,346	48,062	37,548	23,127	18,140	5,242
비율	100	52	17	14	8	7	2

자료 : 산림청 고시, 2019

〈표 III-5-30〉 충청북도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현황

(단위 : ha, %)

구분	합계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면적	37,548	1,608	7,980	2,610	3,577	7,352	14,421
비율	100	4.3	21.3	6.9	9.5	19.6	38.4

자료 : 산림청 고시, 2019



I 문제점

□ 생태계 위협요인 증가에 따른 생물종 감소

- 기후변화, 도시화 등에 의한 산림면적 감소 및 환경변화에 따른 생물종 감소
- 생태자원으로서 자연표도 유실도 가속화 우려

□ 관내 산림면적 중 국유림의 비율이 낮고 규모가 작아 효율적인 산림경영에 취약

- 관내 총 산림면적 491,135km² 중 국유림 19%, 공유림 16%, 사유림 65% 수준으로 공유림 비율이 낮아 집약적인 산림경영이 어려움

□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요가 증대

-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위기, 경제침체로 인한 실업률 증가에 따른 사회불안 확산에 따라 탄소흡수원 확충,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산림의 중요성 부각
- 대도시 주변에 국유림이 위치하고 있어 산림경영을 겸한 공익기능의 증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산림관리가 필요함
- 도심지보다 비도심(농촌)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도시와의 교류를 지향하기 위한 녹색공간 및 휴양·문화서비스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
- 국유림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산림을 통한 일자리 확대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산림사업 추진

□ 사람 중심 방재시스템 구축으로 전환 및 기후변화 적응대책 미흡

- 산림 위주의 방재시스템으로 생활권 산림재해 대응 인프라가 절대 부족
-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발생 패턴 변화를 반영한 방제전략과 함께 생활권 산림 해충에 대한 접근 강화 필요
- 산불 진화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매뉴얼 등 운영기반 정착 필요

□ 산림복지 서비스의 수요증가에 부응 및 임업인과의 연계 미흡

- 휴양, 등산의 시설 인프라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계가 요구되며, 산림치유, 교육 등은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 역량 강화 필요
- 녹색일자리는 장기 안정적인 전문일자리 창출로의 정책 전환 필요
- 산림휴양, 산림치유, 산림교육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나, 이를 임업인의 소득으로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은 취약

2) 여건분석 및 전망

I SWOT 분석

- 충청북도는 지속적인 거주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산림의 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산림자원 보존관리의 중요성에 비하여 정책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으로, 사업의 시행 여건이 부족하며 인프라 조성 미흡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다수임
- 여가시간 증대 및 자연·휴양에 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에 대비한 충청북도의 풍부한 산림자원과 산촌개발사업에서 조성된 인프라 활용을 통해 산림의 활용을 위한 개발이 필요함

〈표 III-5-31〉 SWOT 분석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부한 산림자원과 산촌개발사업에서 조성된 인프라 활용 가능 • 산촌마을의 자연환경 특성을 이용한 치유헌동으로 연계 가능 • 지역 내에서 재배되는 특용작물을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고 마을 사업과도 연계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산림 관리의 전문성 미흡 및 인력예산 부족 • 지속적인 거주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자체 운영의 어려움
기회(O) ⇒ 포착	위협(T) ⇒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휴양·생태·환경에 대한 도민의 수요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 •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휴양림 이용수요 급증, 산림문화 여건 조성 •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가 가능한 기회요건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자원 보존관리 중요성 대비 정책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 • 사유림의 편중으로 인한 산림사업의 시행여건 부족 • 대부분의 산촌마을의 자연환경은 접근성이 불편한 경우가 다수

I 여건전망

□ 경제성장과 삶의 질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행복 추구 요구 증대

- 주 40시간 근무제, 고속철도 확충 등 시간 및 공간 이용 패턴 변화로 야외 휴양 수요 증가
- 삶의 질에 대한 가치관이 단순한 편리성·편안함 추구가 아닌 적극적 참여에 의한 행복감·건강 증진으로 변화
- 고령화 등 사회 여건 변화로 건강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 노령화 지수¹⁹⁾는 '11년에 71.0에서 '19년에는 119.4로 증가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도 급증
 -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 ('10) 2,839천 원 → ('17) 4,255천 원(1.5배)으로 증가

19) 유소년(14세 이하) 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65세 이상) 인구의 비



□ 환경친화적 주거공간으로 산림 및 산촌 역할 증대

-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실버타운, 산림욕 치료, 전원주택지로서 산촌의 역할은 증대할 것임. 아울러, 친환경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 고급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전망이다
- 국민소득증가에 따라 외국산 식품보다 안전한 국내산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더덕, 장뇌삼과 같이 친환경 임산물은 평지재배에서 산지 재배가 예상되고 버섯, 산채, 약용식물 중심의 고가 임산물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

□ 사회·경제·환경적 지속성 증진을 위한 국유림의 기능 확대 요구

- 공익기능을 담보할 국유림 비율이 전국에 비해 저조하고 지역적 분포도 편중
 - 국유림 비율 : 전국 25.5%, 충북 19.9%, 대전 18.4%, 충남 8.1%
- 국민경제 기여, 산림 생태계 보호, 지역발전 등 국유림의 다양한 역할 기대
 -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보전, 지역주민 소득증대 요구 등의 조화 필요

□ 산림자원 성숙에 따른 산림산업 육성과 시장 확대 전망

- 우리나라의 산림자원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영급 불균형 해소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생산 적기에 접어들어 목재 공급 증가 전망
- 목제품 사용의 인식 제고 및 목조건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목재산업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목재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장기간 탄소를 저장하여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소재로 인식
- 소득수준 증가와 웰빙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로 친환경 임산물 등 고급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

□ 산림자원 성숙과 산림산업 확장에 따라 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

- 기후변화 대응 산림관리, 산림바이오산업 성장, 산림복지서비스 확충 등에 따라 전문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전망
- 연간 약 12백 명²⁰⁾ 가량 배출되는 전문인력을 신규분야 일자리와 연계시키는 것이 주요 과제

20)산림자원학과 임산공학 전공자만 포함한 것으로 조경, 환경생태 등 연관 분야는 계상하지 않음

□ 산림자산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산촌 발전 유도

○ 산촌의 사회적 경제 실현체계 구축으로 산촌 활력 제고

- 지역주민(원주민+귀산촌인)이 중심이 되어 산촌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 설립 검토, 산촌개발사업 추진 주체의 역량 강화
- 마을별 경관계획에 따라 주택, 도로, 조경 등 산촌개발사업 종합적 추진
-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통합정보 전달, 원격 문화교실·의료지원 등 생활복지 여건 및 삶의 질 개선 지원

○ 귀산촌 정착 지원 강화 및 ICT 기반 산림관광 육성

- 도시민의 귀산촌 정착과정 지원 및 임업분야 창업 또는 주택 구입, 신축자금 지원을 통해 원활한 귀산촌 정착을 지원
- 산촌특구를 조성하여 토지가격이 저렴한 국공유림 활용, 장기 임대주택 공급 및 임산물재배단지 등 생산활동기반 제공으로 안정적인 산촌 정착을 지원
- 국립공원별 지역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관리와 경영전략을 통해 충청북도 여건에 맞는 산악관광벨트 수립 추진
- 지역의 다양한 산림관광 자원·정보를 결합하는 산림관광정보 통합플랫폼 및 서비스 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3) 추진과제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확대 및 관리 효율화

- 산림보호구역의 양적 증가보다는 관리기반 확보 등 질적 향상을 추진
 - 행위제한 등 ‘규제위주’에 의한 보호지역 관리에서 벗어나 ‘보호와 이용이 조화’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전·관리

- 행정 주도의 국유림 경영으로 국유림 이용 및 관리가 경직되는 등 국유림의 지역사회 기여도가 낮은 실정
- 관내 총 산림면적 491,135㎢ 중 국유림 및 공유림의 비율이 약 35%로 사유림 65% 수준에 비해 공유림 비율이 낮아 집약적인 산림경영이 어려운 상황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희귀식물 자생지, 산림습지 및 산림 내 계곡천 지역조사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핵심·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관리

□ 행정주도의 권역별 산지관리체계 수립

-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 보전, 산림서비스 제공, 재해방지 등을 위한 국유림의 다변화 역할 요구
- 생태계 위협요인 증가(도시화)에 따른 생물종 감소로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
- 국유림 분포가 소규모 파편화되어 있으므로 집약적인 산림경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권역주도적인 역할 증대
 - 빅데이터를 활용한 휴양·치유 등의 산림복지서비스 수요조사와 다양한 임산물 재배 및 활용 등 산지의 다원적 개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산림시스템 구축

□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효율적 관리

- 핵심·완충구역을 보다 명확히 하여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관리
 - 단절된 생태축 연결 및 생물다양성 증진, 산림생태계 건강성 회복 향상을 위한 백두대간 생태축(정맥) 복원사업 추진

□ 취약계층 및 청·장년 실업자 등에게 산림분야 사회서비스일자리 제공

- 임업·임산업 경쟁력 제고와 산림분야 영역 확장을 통해 장기 전문 일자리 확대
 - 산림산업 분야 : 단기임산물의 생산 확대 및 목재산업 육성
 - 산림자원 분야 : 벌채·수집 등의 확대에 따른 전문 임업기술자 확보
 - 산림보호·관리 분야 : 산지관리, 산림복원 등 전문분야 영역 확대
 - 산림복지서비스 분야 : 산림치유, 산림교육 등 생애주기 산림복지 확대

○ 새터민,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이 산림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 확대

- 녹색일자리 사업에서 소외계층에 일정비율 고용을 할당하고, 기능 교육 실시와 함께 향후 재취업 알선
- 일자리 제공과 함께 우리 사회에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언어, 문화 교육 프로그램 제공

□ 단기 녹색일자리의 확대와 근무여건 개선

○ 고령화와 귀농인구 증가에 따라 이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지역 산림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녹색일자리 확대 운영

- 벌채, 조림, 숲 가꾸기, 묘목 생산, 산불 예방, 병해충 방제 등
- 숲 해설가, 등산안내인 등 서비스 분야
- 대규모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의 수요에 부응하여 일자리와 소득을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타부처 소관 보호구역 산림에 대한 협력관리 체계 구축

○ 산림사업 추진 시 협의가 필요한 산림보호구역은 해당기관과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보호 구역 유형별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 보호구역 지정목적 달성을 위해 공동협력사업 발굴·이행



자료 : 충청북도(2018) 내부자료, 제6차 충청북도 지역산림계획(2018~2037)

〈그림 III-5-16〉 산지관리 관련 계획 간의 연계

□ 생활권 중심의 총복합형 그린뉴딜 시행

○ 산림복지서비스(복지단지, 치유공간, 미세먼지 저감 숲) 구현으로 남녀노소 관계없이 누구나 산림복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공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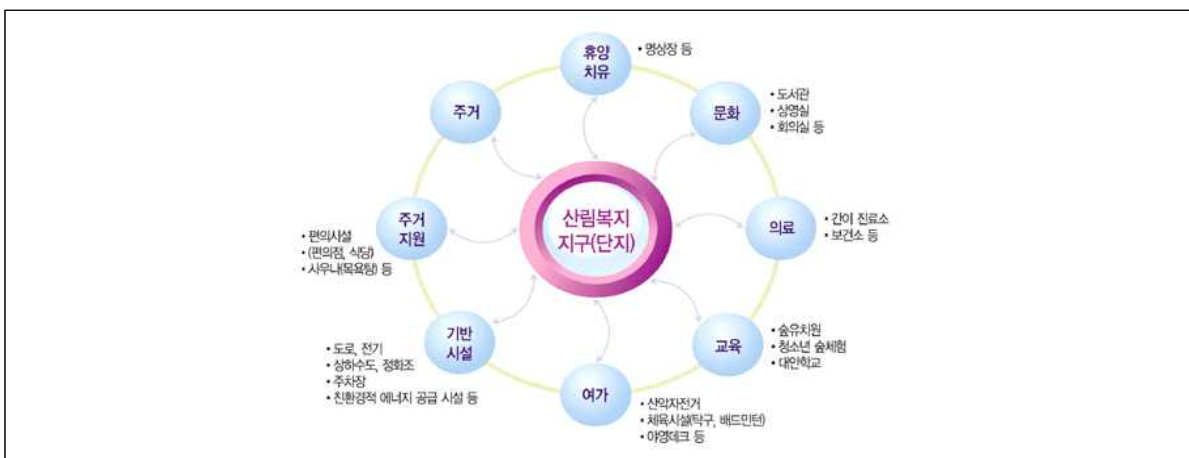
- 다양한 콘텐츠 및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객들이 체류시간을 연장하고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 도시에 비해 낙후되었으나 치유환경(청정)이 우수한 산촌마을을 산림치유 거점지역으로 육성

○ 산림 공간특성에 맞게 보급 및 운영

- 산림환경(편백림, 소나무림 등)별 단지나 치유의 숲 특성에 따라 적절한 프로그램을 보급·운영
- 치유공간 조성 시에는 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체류중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지역 맞춤형 경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역할 강화

- 경제수준 향상 및 여가시간의 증대에 따라 자연에서 여가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
- 휴양림, 치유의 숲 등 개별 산림복지시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복지단지 조성 지연
- 산림청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15)」제정(이하 「산림복지법」), 「산림복지진흥계획(‘18~’22)」을 수립하는 등 산림복지 제공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
- 도내에서는 「산림복지법」에 맞추어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 복지서비스를 제공
 - 국·공립 산림복지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신산업 육성기반 마련
 - 권역별로 국가·지방정원, 수목원 등을 조사하여 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복지 강화
- 산림복지서비스 구축 사업은 산림복지소외자,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및 제공자, 산림복지지구, 산림복지시설 등을 시군별로 구축하여 사람 중심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
 - 안정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및 운영을 위한 투자 확대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복지단지조성이 될 수 있는 정책·제도 정비



자료 : 충청북도(2018) 내부자료, 제6차 충청북도 지역산림계획(2018~2037)

〈그림 III-5-17〉 산림복지단지의 개념

□ 산지의 자연친화적 이용체계 구축

○ 산지의 이용 및 복원 등 자연친화적 산지관리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사후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산지 훼손 실태조사 및 드론, 앱을 활용한 사후관리 실시

○ 획일적 산지전용, 복원 및 사후관리 방법 개선

- 지역특성을 고려한 복구 및 사후관리로 타 용도 활용에 대한 요구 증가 기대

○ 채광·채석과 석재산업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강화

- 석재산업 관련 법률 제정에 따른 산업적 가치 부각 및 증대
-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고 불법행위, 주민 불편, 재해 위험에 대한 예방 실시

〈표 III-5-32〉 2018년도 시·도별 산지전용 현황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건수(건)	32,104	34	146	67	1,340	115	75	307	8,758
비율(%)	100	0.1	0.5	0.2	4.2	0.4	0.2	1.0	27.3
면적(ha)	9,623	8	20	33	139	32	11	143	2,181
비율(%)	100	0.1	0.2	0.3	1.4	0.3	0.1	1.5	22.7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건수(건)	2,242	2,130	3,546	3,316	3,566	2,638	2,290	1,220	314
비율(%)	7.0	6.6	11.0	10.3	11.1	8.2	7.1	3.8	1.0
면적(ha)	629	608	1,363	1,069	1,065	1,254	717	241	110
비율(%)	6.5	6.3	14.2	11.1	11.1	13.0	7.5	2.5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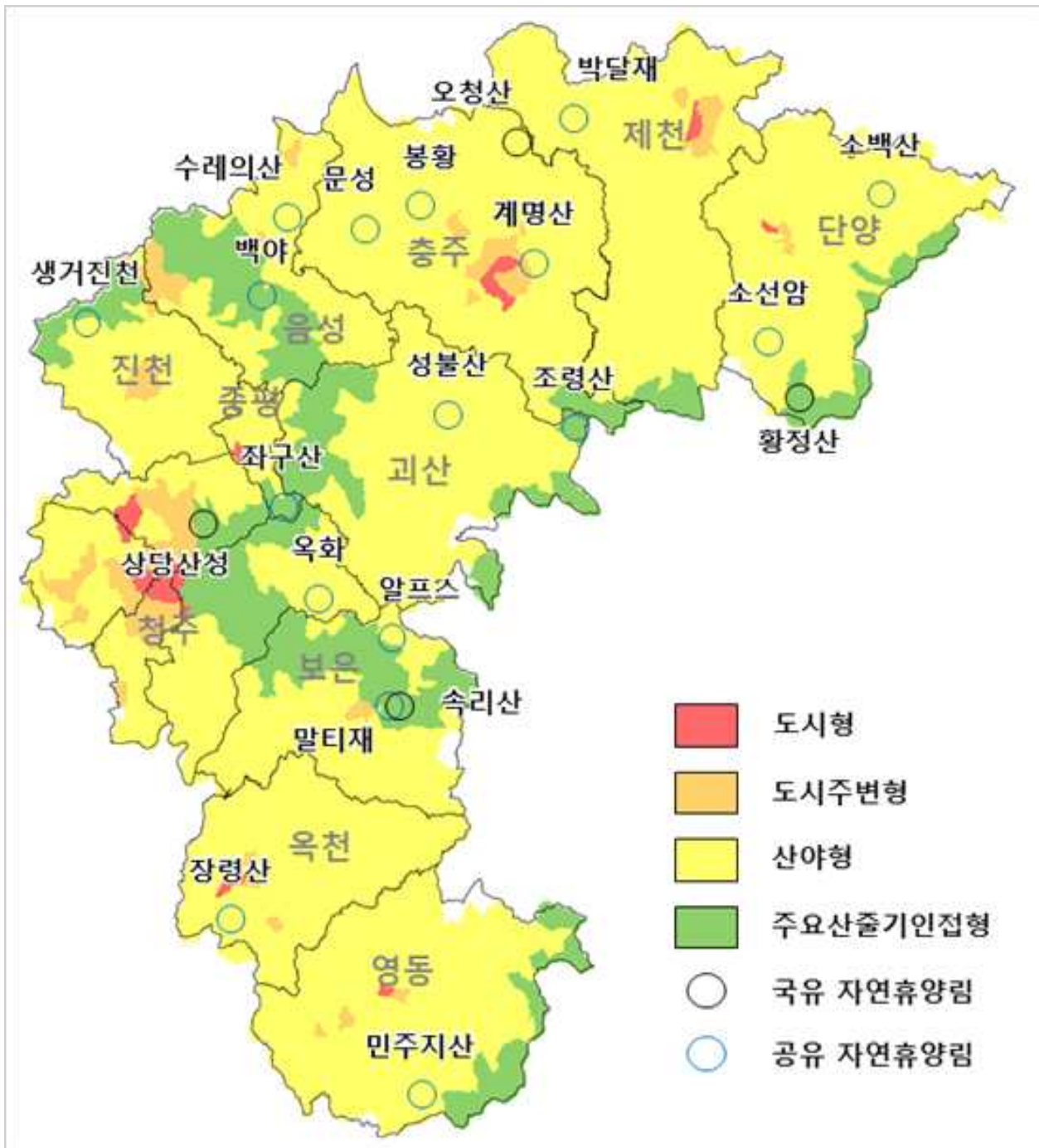
□ 지역상생형 산지관리체계 구축

○ 주요 산줄기 인접지역의 산지이용시설 및 산지관리체계 강화

- 백두대간, 한남금북정맥 인근 산지 매수를 통한 보전산지 전환 유도
- 도시 주변 방치된 산지를 테마 경관 숲으로 조성하여 산림복지공간으로 활용
-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복지시설과 연계한 사회적 가치창출 확대

○ 산촌소득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기 조성된 산림복지시설과 자연휴양림의 인프라 연계 및 확충
-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목적의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유도



자료 : 충청북도 내부자료(자연휴양림 현황), 2018

〈그림 III-5-18〉 충청북도 산지유역유형별 산림복지시설 현황

〈표 III-5-33〉 산림복지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터와 쉼터 실현을 위한 추진사업

전 략 명	과 제 명	단기 (20~25)	중기 (26~30)	장기 (31~40)	비고
산림복지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터와 쉼터 실현	1. 백두대간(정맥) 생태축 복원				
	2. 권역별 산림자원 및 산지관리체계 고도화				
	3. 산림복지단지 조성				
	4. 빅데이터, AI를 활용한 맞춤형 산림복지프로그램				
	5. 맞춤형 산림복지 체계 구축				
	6. 산림치유 공간 조성 및 기능보강				
	7. 지방정원 조성 및 기능보강				
	8. 수목원 조성 및 기능보강				
	9. 자연휴양림 조성 및 기능보강				
	10. 미세먼지 차단 숲 등 도시 숲 조성				

〈표 III-5-34〉 산림복지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터와 쉼터 실현을 위한 시군계획지침

※ 시·군 계획지침

- 시·군은 국민경제, 산림 생태계 보호, 지역발전 등 사회·경제·환경적 지속성 증진을 위한 국유림의 기능 확대방안을 강구한다.
- 시·군은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산림관리, 산림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시·군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백두대간 생태축(정맥)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 시·군은 임업·임산업 경쟁력 제고 및 장기 전문 일자리 확대를 위한 분야별(산림산업, 자원, 관리, 복지 등)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방안을 강구한다.
- 산림사업 추진 시 타 부처 소관 보호구역 산림에 대해서는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보호구역 유형별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제4절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경관창출 지역

1) 현황 및 문제점

I 현황

□ 수려한 산악과 호수로 대표되는 충북의 국토 자연경관

- 충청북도는 수려한 산악과 크고 작은 구릉지에 의해 형성되고 있는 전형적인 분지형 지역임. 우측으로는 소백산맥을 따라 아름다운 산악경관이 형성되고 있고, 좌측에는 크고 작은 구릉지가 형성되고 있음. 그리고 그 지세를 따라 많은 호수와 하천이 발달해 있음
- 특히 산악자원(소백산-월악산-군자산/대야산/칠보산-속리산-추풍령/민주지산)이 타 시·도와의 경계를 이루며 남북으로 큰 연봉을 이루고 있고, 「충북의 알프스」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절경을 이루며 사계절 변화하는 모습은 중요한 특성이라 볼 수 있음
- 또한 수변경관의 경우는, 이러한 지세를 따라 국내에서 가장 큰 호수인 충주호와 대청호가 각각 충청북도의 북쪽과 남쪽에 위치하며 아름다운 수변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 2개 호수를 중심으로 충청북도는 각각 중원문화권, 청주문화권이라 불리는 2개의 문화권이 발전하고 있음(이들 2개 호수는 그 규모가 크고 풍경이 아름다워 「내륙의 바다」라 불림)
- 충청북도의 남과 북을 가로지르는 이들 산악과 물줄기는 충청북도의 국토자연경관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청풍명월」의 중요한 실체가 됨

〈표 III-5-35〉 충청북도의 국립공원과 2대 호수(자연경관 보유 현황)

구분	항목	지정	면적(km ²)	인증	특성
국립공원	소백산	1987-12 제18호	322.011	2007-05 IUCN 카테고리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12명산 중 하나로 수려한 경관(철쭉, 겨울산 등) 보유 • 지질 관찰(능선/희망포곡/죽계구곡) • 한반도 온대중부의 대표적 식생지역
	월악산	1984-12 제17호	287.571	2007-05 IUCN 카테고리II 2012-12 「유네스코 E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주호반과 어우러진 탐방지(사적/명승지) • 제비봉 등 수려한 명산 아름다움 • 송계팔경과 용화구곡은 자연의 극치 • 주변에 다양한 역사유적/온천 발달
	속리산	1970-02 제6호	274.766	2009-11 IUCN 카테고리II 2012-12 「유네스코 E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팔경 중 하나로 높고 깊은 봉우리와 계곡이 절경을 이루며, 4계절의 특징이 뚜렷함 • 화강암의 첨봉과 산 전체를 뒤덮은 울창한 산림(황강리층, 반상화강암, 고기하성층 특성) • 법주사-화양동-화북-쌍곡의 4지구

구분	항목	지정	면적(km ²)	인증	특성
호수	충주호	1985 조성	면적 67.5 길이 464 저수량 27.5t		• 육지 속 바다로 불릴 만큼 소양호 (29억t) 다음으로 담수량이 큰 호수
		1986-10 사업완료	유역 6,648 (저수 97.0)		• 주변 경관이 뛰어나고, 풍부한 수량과 넓은 수면, 심한 굴곡과 경사도로 인해 여중 풍부
	대청호	1980년 사업완공	면적 72.8km ² , 호수길이 180k 저수량 15억t		• 청주, 대전지역 식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공급
		1981-06 (댐준공)	유역 3,204 (저수 72.8)		• 한국에서 3번째로 큰 규모의 호수(인공호수) • 호수 위로 해발고도 200~300m의 아산과 수목 펼쳐져 드라이브 코스, 철새와 텃새 유입 많음

자료 :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소개, 2020.02, 한국수자원공사, 수문제원현황, 2019.08

□ 역사문화경관

- 충청북도는 이러한 자연적 특성과 함께 국토의 중간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다양한 역사문화경관자원이 발달해 있음
- 북쪽에는 전통적인 수리시설인 의림지와 함께 탄금대, 증원문화재, 나룻터/고갯길, 온천/팔경이 발달해 있고, 남쪽에는 많은 재래시장과 함께 다양한 사찰과 성곽, 구곡, 다양한 형태의 근현대 유적 등이 발달해 있음. 특히 충청북도에는 각 지역에 많은 고갯길과 성곽, 구곡과 팔경, 종교시설이 발달해 있고, 풍토적 특성(청풍문화재단지, 문의문화재단지)이나 역사가 누적되어 있는 특별한 장소(청주시, 옥천군, 진천군)가 많음
- 이들은 충청북도의 역사 및 장소적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경관자원이 될 뿐 아니라, 충북의 풍토적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어메니티 요소들임

□ 도시경관

- 충청북도는 지형이 고구마처럼 길게 늘어져 있고, 서로 다른 환경 및 교역의 여건을 갖고 발전해 왔기 때문에, 각 지역 또는 권역마다 서로 다른 특성을 보임
- 북부권은 산악 및 수자원이 발달해 있고, 경기 및 강원지역과 가까이 위치해 있어, 주로 특용작물과 관광이 발전하고 있음. 중부권은 평야지역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농업이 발전하고 있지만, 수도권과의 접근이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제조공장 및 국가 주도의 신성장 산업 등이 발달하고 있음
- 청주권은 충청북도의 인구/산업/경제/문화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지만, 최근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교류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KTX오송역, 오창신도시 등이 들어서면서 외연의 확대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음. 또한 남부권은 전통적으로 농업이 발전한 지역이지만, 최근 지역 특산품 및 축제 등의 성공에 따라, 1차 산업과 관광을 조합한 6차 산업화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음

- 따라서 도시경관은 각 지역 또는 권역마다 서로 다른 특성과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공통적인 특성도 나타남. 그것은 충청북도의 도시와 취락의 경우,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로, 대부분 「시가지, 전원, 산지」가 매우 조화롭게 구성되고 있는 것임
- 특히 도시 주변에 면적인 범위를 갖는 전원이 크게 발달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특성이라 볼 수 있음. 이들 전원지대는 도시에 매우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주변의 하천이나 배후부에 있는 산지와 결합되며 매우 풍요롭고 여유로운 목가적 풍경을 만들어 내고 있음
- 이러한 「시가지, 전원, 산지」의 3중 계층 구조는 공간의 편안함과 여유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로서, 충청북도 도시경관의 중요한 아이덴티티이자 「청풍명월」의 또 다른 실체라 볼 수 있음

□ 리빙경관

- 최근에는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주민의 삶에 있어서는, 취미와 관련된 격조 있는 삶이나, 가족 및 이웃 등과 함께 하는 커뮤니티형 교류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도시지역에서는 최근 이웃 간의 교류나, 건강-취미-외식 활동 등이 발전함에 따라, 주거환경의 쾌적함과 함께 이러한 쇼핑이나 문화시설, 주차 및 교통안전, 텃밭이나 공원 등과 같은 것들의 의미가 상당히 커지고 있음
- 농촌지역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충청북도 농촌의 경우는 최근 이주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함께 협력적으로 살아가는 지역공동체활동이 증가하면서, 공동복지시설 및 공동자산의 의미가 상당히 커지고 있음. 또한 지역관광산업 및 지역축제의 비중이 커지면서 지역 및 주민의 삶은 이러한 관광지나 축제 등에 큰 영향을 받게 됨



자료 : 2019 충북사회조사 보고서(2019.12. 충청북도),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8.03. 충청북도)

〈그림 III-5-19〉 거주환경 만족도 및 개선 수요 등

□ 경관행정의 강화

- 2007년 경관법 시행, 그리고 2015년 및 2017년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를 비롯해 각 시·군에
서는 경관행정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음
- 도 내 경관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충청북도를 포함해 9개 시군에서 경관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고,
세부적인 건축물 조례 등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경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경관 관련 사업이나 각 사업에서 경관관리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청주시에서는 교량경관계획, 야간경관계획, 충주시에서는 경관가이드라인 작성 등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한 이후,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각종 경관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또한 단양군에서는 옥외광고물 관리, 지질공원 및 유원지 관리, 도시림 조성관리 등에서 경관을
매우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괴산군에는 관광지 관리 운영 등에서 적극적으로 경관을 도입
해 나가고 있음
- 그리고 충청북도에서는 「공공디자인」이란 사이트를 개설해, 공공디자인의 보급 및 올바른 사
업 추진을 위한 지도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표 III-5-36〉 경관행정의 변화

구분		경관조례	제정/개정일	담당부서	경관계획
충청북도		충청북도 경관 조례	2016-09-30	문화체육관광국 건축문화과	○
청주	청주	청주시 경관조례	2018-10-05	주택토지국 건축디자인과	○
	증평	증평군 경관조례	2018-12-28	행정복지국 민원과	
중부	진천	진천군 경관조례	2017-12-29	미래도시국 건축디자인과	-
	괴산	괴산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조례	2013-12-06	지역개발과	-
	음성	음성군 경관조례	2017-11-15	균형발전국 건축과	수립완료
북부	충주	충주시 경관조례/시행규칙	2017-12-01	경제건설국 건축디자인과	-
	제천	제천시 경관조례	2018-06-29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 도시재생과	○
	단양	단양군 경관조례	2015-10-16	민원봉사과	○
남부	보은	보은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2018-12-14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
	옥천	-	-	-	-
	영동	-	-	-	-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0.02.04

I 문제점

□ 국토 자연경관 : 지역경관자원으로서의 통합된 인식, 관리/활용적 기능 부족

- 백두대간을 잇는 충청북도의 6연봉과 2개 호수는 충청북도의 경관형성에 가장 중요한 축을 담당함. 그러나 이들은 충청북도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의 남북을 가로지르며 한쪽에 치우쳐 있고, 관리범위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지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명확한 지역경관 자산으로서의 인식은 적음
- 그리고 이들 자연경관은 그 대부분이 국립공원과 상수도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지역적 관리 및 활용도 결코 쉽지 않은 상태임
- 국토 자연경관을 살아있는 경관자원, 충청북도의 특성적인 어메니티자원으로서 관리·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역사문화경관 : 지역경관자원으로서 크게 어필되거나 기능하고 있지 못함

- 역사문화경관자원의 경우는 매우 특성적인 자원(구곡/팔경, 고갯길, 종교적 성지, 구읍/성곽 등)이 발전하고 있지만, 서로 떨어져 있거나 비교적 외진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그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배경이나 특별한 관리 및 활용적 요소가 없기 때문에, 지역경관자원으로서 크게 어필되거나 기능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이를 관광자원화하고 도민의 교육장소 등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지자체의 의지는 강하기 때문에, 이를 경관적으로 자원화하고, 활용해 나가는 방법이 요구됨

□ 도시경관 : 도시경관의 혼잡과 도시이미지의 중심성·통일성 부족

- 도시경관의 형태는, 인구 및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상당히 혼잡한 형태로 변해가고 있으며, 충청북도가 갖는 도시적 특성, 그리고 도시의 장소적 특성을 활용한, 도시경관의 형성이 요구됨
 - 각 도시 내에서의 전체적인 시설 및 공간 개발에 있어서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정제된 형태의 경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새로운 시설로 인해 도시 외연이 확대되고, 새로운 형태의 각종 산업이 입지하면서, 하나의 도시경관으로 갖는 정리된 이미지는 점차 약해지고 있는 상황임
 - 또한 도시 내부에서는 도심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은 외지인의 유입이나 관광객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전개방식은 대부분 유사한 형태의 점포개발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한편 전원지역에서는 공장입지와 더불어, 농경지의 축사와 폐수, 채굴지역의 환경문제도 지속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 리빙경관 : 생활환경을 함께 개선하거나 만들어 가는 자치활동

- 충청북도의 경우, 공공시설 및 건축환경의 질은 크게 좋아졌지만, 생활환경을 함께 개선하거나 만들어 가는 자치활동은 아직 약함
- 또한 생활공간에 있어서 거리의 간판이나 주차 문제는 아직 열악한 수준이고, 공원 규모도 다른 시도에 비해 아직 낮은 실정임
- 한편 농촌의 경우는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마을만들기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것에 있으나, 빈집이나 빈 땅 등이 방치된 경우는 상당히 많음. 그리고 경관의 관리는 거리나 거리 디자인 등에 멈추고 있을 뿐, 개별주택이나 하천 및 경작지 등 지역 공동자산의 관리에 있어서는 아직 크게 소홀한 형편임. 또한 지역에서는 관광산업의 진흥과 그를 위한 축제가 점차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있으나, 이들이 아직 안정적으로 지역자원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활성화나 집객 정도에 따라 큰 환경적 피해나 위험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음
- 그리고 도시와 농촌지역을 불문하고, 주변에 이주 및 별장 등이 증가하면서, 생활공간은 큰 변화를 맞고 있음. 이러한 문제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 볼 수 있음

□ 경관행정 : 사업추진 및 주민참여 등을 위한 구체적 장치 부족

- 경관행정은 지난 10년간 크게 발전해 왔음. 그러나 경관 관리 등의 실천에 있어서는 아직 많은 부분이 부족한 형편임. 우선 각 시군의 경관행정을 보면, 조례가 제정되고 있을 뿐 경관계획이 명확히 위치되지 못한 경우가 많음. 또한 그 대상은 주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이나 각종 개발사업에 국한되고 있을 뿐, 지역 경관에 대한 전체적인 통합관리 및 육성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최근에는 주민의 삶에 있어서 관광 및 축제의 영향이 크지만, 아직 이에 대한 특별한 관리지침도 없는 상태임
- 한편 경관 관리 등에 있어서는 시민의 참여나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한 것에 있으나, 주민의 참여는 참여가 보장되고 있을 뿐 아직 이를 촉진시킬 만한 구체적인 활동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없어, 그 활동은 공청회 참가 등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경관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한 것에 있음. 또한 경관을 다루는 행정에 있어서는 인력과 재원의 부족, 기술의 부족은 상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력과 재원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



2) 여건분석 및 전망

Ⅰ SWOT 분석

- 백두대간 6연봉, 대규모 호수를 비롯하여 충청북도는 충청북도의 아이덴티티를 설명하는 명확한 소재가 존재하며 이들은 비교적 잘 관리·보전되고 있음
- 또한 백두대간을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강호축 개발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들이 갖는 국토경관으로서의 의미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 예상됨
- 반면, 환경관리 측면에서의 관리와 규제 등으로 인해, 충청북도의 대표적인 풍경-경관자산으로서 갖는 상징성과 기능성은 아직 부족한 실정임
- 충청북도가 갖는 풍토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토-도시-리빙 경관에 대한 확실한 방향과, 이를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협력적 추진방법의 제시가 필요한 상태임

〈표 III-5-37〉 SWOT 분석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북도의 아이덴티티를 설명하는 명확한 소재 존재/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려한 경관미와 역사성을 갖는 백두대간 6연봉과 대규모 호수 존재 ② 이들은 비교적 잘 관리 보전되고 있음 ③ 이러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풍토성 높은 역사문화 자원이 위치 • 지역적 특성에 더해, 공동적 매력요소가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각 지역 및 권역별로 지역의 풍토적 특성이 발견 ② 각 지역은 시가지, 전원, 산지의 3중 계층 구조 형성 • 리빙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비교적 여유 있는 주거환경 형성 ②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애착 높음 • 경관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경관관리를 위한 기본체계 강화 ② 경관조례/시민참여제도/행동하는 시민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북도의 대표적인 풍경-경관자산으로서의 상징화, 기능화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환경관리 측면에서 관리, 규제받음 ② 업-다운 경관, 경관 활용의 콘텐츠 • 건축물 관리 등에 있어서는 큰 개선이 있지만, 도시의 특성과 이미지 관리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체적인 도시경관의 구조적 관리체계 ② 도시 외곽 관리, 도심 경관 • 리빙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간판/주차 문제, 오픈스페이스 부족 ② 빈집 빈 땅의 관리 부족, 축제자원화에 대한 대응 부족 • 경관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경관행정이 공간이 아니라 대상물이나 사업에 집중 ②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실천체계 부족
기회(O) ⇒ 포착	위협(T) ⇒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호축 개발이 국가사업으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자연자원에 대한 관심 및 활용기회가 증대 → 국토정책에 대한 유연한 사고 확대 • 협력적 사업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공동체/ 도시재생사업의 발전 → 스마트도시에 대한 공감대 증대 • 경관에 대한 관심 및 기대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시민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을 관리대상으로 보는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인 관리와 활용 요구 • 경관사업 및 정책의 연계적 추진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 필요 → 시설이 아닌 공간 및 지역에 대한 토달적 접근 필요 •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투자요소 증대 • 복지예산 증가 등에 따른 가용자금 감소 • 행정의 분산주의, 경관사업 주체의 모호성

I 여건전망

□ (국토경관) 강호축 개발에 따른 백두대간 6연봉의 가치와 의미 증대

- 강호축 개발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강호축의 본산인 충청북도의 경우는, 그의 직접적인 대상이 됨
- 특히 강호축 개발사업은 「국민의 쉼터」와 「경관도로」조성이 사업의 골자가 되기 때문에, 충북 자연경관의 주된 요소인 6연봉의 가치와 의미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충청북도의 경관 관리 및 육성에 있어서는 특히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태이며, 특히 국토경관을 상징화, 기능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이에 따라 교통터미널 및 게이트의 역할, 도보 및 차량 이용에 따른 경관관리 및 육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됨

□ (국민활동) 관광교류인구 및 2지역 거주인구의 증가

- 한편 현재도 관광교류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충청북도의 경우 강호축 개발과 청주국제공항 보유 및 수도권 근접의 지리적 강점으로 타지역 대비 관광교류인구 증가와 관광교류의 일상화가 예상됨
- 특히 충청북도의 경우는 관광객이나 이주인구뿐만 아니라, 2지역을 오가며 생활하는 2지역 거주인구가 매우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일본의 사례를 통해 보면, 이 경우 주택 및 농업의 관리 형태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게 됨



자료 : 제2차 강호축포럼(2019.12), 제5차국토종합계획
 〈그림 III-5-20〉 충청북도의 강호축구상과 제5차국토종합계획도

□ (도시경관) 권역별 변화의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 현재 각 지역에서는 그 자체로도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권역별 변화의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
- 북부권은, 강호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충주호를 이용한 대규모 수상레저사업과 의림지 특화산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교류인구는 현재보다 약 2배 이상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연간 약 2,000만 명의 관광객이 유입될 경우, 관광객의 안전 및 편리는 물론, 지역경관 및 거주민의 보호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됨
 - 중부권은 기존 공장에 더해, 신성장 첨단산업단지와 대학 등 공공기관의 이전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적 발달이 크게 예상됨. 또한 농산물의 공동구매나 생산 및 체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거리환경과 공원의 역할, 그리고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관리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됨
 - 청주권은 현재 문화산업의 발달과 함께, 신도시/신산업 발전과 확대에 따라 도시 주변의 외연화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음. 또한 현재에도 KTX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강호축 개발이 추진될 경우, MICE산업과 같은 교류산업의 수요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도시경관의 통합적 관리와 교류활동에 대한 품격적 대응은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됨
 - 남부권은 전통적인 농업지역으로 현재도 유기농산물의 생산과 축제이벤트가 크게 발전하고 있는바, 이러한 유기농산물 및 관광이벤트는 더욱 발전할 것이 예상됨. 또한 아직 진천군, 괴산군지역과 함께 가장 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고, 이주민의 이주수요가 큰 지역이기 때문에, 2지역 거주활동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이 경우 축제를 지역자원화 하거나, 농산지의 경관관리 등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

〈표 III-5-38〉 도시경관의 권역별 변화전망

구분	추진 형태 및 변화 예측	공통
북부권 (충주시-제천시-단양군)	□ 특용작물 및 관광산업 발전 → 대규모 관광수상레저사업 추진 → 관광산업의 비약적 발전이 예상	이주 및 교류인의 빠른 변화
중부권 (진천군-괴산군-음성군)	□ 농업과 공동 발전 → 새로운 첨단산업 추진/공공기관 이전 → 도시적 발달이 크게 예상	
청주권 (청주시-증평군)	□ 인구/경제/산업 집적 → 대규모 도시재생사업 추진, 외곽 발달 → 교류산업이 크게 발달할 것으로 예측	
남부권 (보은군-옥천군-영동군)	□ 농업 및 축제의 발달 → 축제 및 이주활동 증가 예상 → 6차산업을 통한 자체교역의 큰 증가 예상	

자료 : 문화재청(2020), 각 시군 홈페이지

□ (국내의 발전동향) 경관관리 대상 및 기능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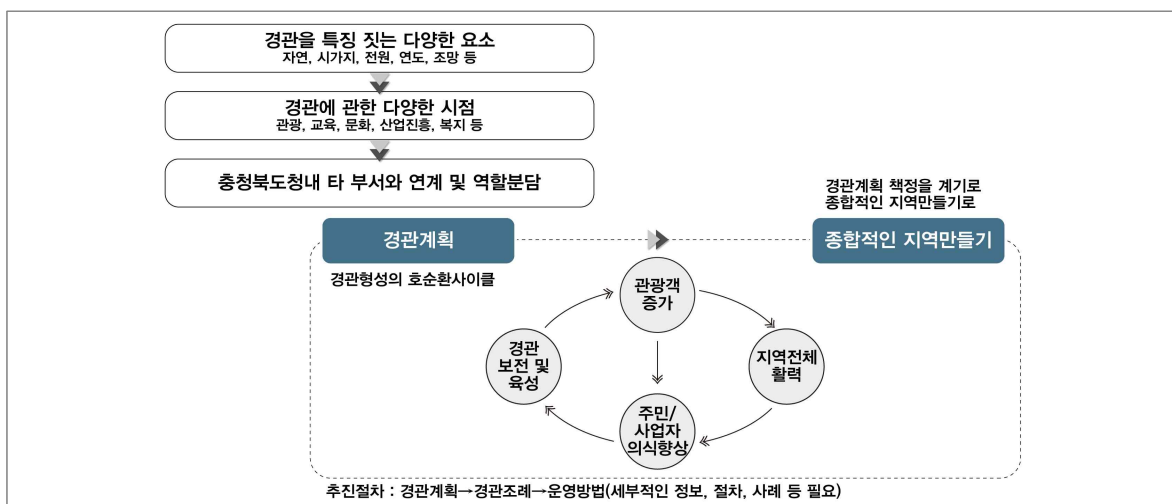
- 현재 국내 현황과 동향을 보면, 경관관리의 대상과 기능은 더욱 확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경관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관관리를 넘어, 각종 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 건축물까지 경관관리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음
- 인구 10만 이상 지역에서는 경관계획이 의무화되었고, 각 지역에서는 공공디자인지원센터 등이 설립 운영 중에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경관이 갖는 기능과 역할은 더욱 크고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됨

□ (경관의 기능과 역할) 경관은 관리를 넘어 새로운 지역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발전

- 경관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경관을 보다 전략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현상과 정책적 동향을 넘어, 최첨단의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왔음
- 일본에서는 2000년 이후 「경관지역만들기」란 용어가 이미 보편화되고 있고, 2016년 책정된 『명일의 일본을 지지하는 관광비전』에서는 관광지의 매력향상을 위해 2020년까지 주요 관광지에서 경관계획을 책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경관은 이제 관리의 대상이 아닌 지역만들기 및 지역의 매력을 향상시키는 틀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
- 따라서 경관은 단순한 경관 관리의 차원을 넘어, 지역자원의 발굴이나 육성, 지역의 이미지 및 브랜드 발전까지 적극 대응해 나가는 경관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볼 수 있음

□ (경관만들기의 추진방법) 경관은 함께 발견하고 만들어 가는 형태로 변화

- 주민참여형 경관만들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실천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와 세부적인 추진절차 등을 제공·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자료 : 景観計画の手引き(2019. 01 国土交通省 公園緑地景観課)

〈그림 III-5-21〉 경관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 그리고 주민참여를 위한 기본적인 요소

3) 추진과제

□ 아름다운 청풍명월의 산수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품격 있는 국토경관 창출

- 충청북도 국토경관의 가장 큰 특성은 남북을 가로지르는 백두대간의 연봉과 내륙의 바다라 불리는 수변자원
- 강호축 발전계획과 연동해 충청북도의 대표적인 자연과 역사·문화 경관자원을 충북의 실질적인 대표 매력 공간으로 발전
- 백두대간 생태축이 도민의 자산 및 국민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심벌화 및 기능화
 - 백두대간 6연봉을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풍토적 생태경관 지역으로 지정
 - 소백산-월악산-군자산/칠보산/대야산-속리산-추풍령-민주지산을 내륙의 6연봉으로 위치
 - 도민이 함께 보전·활용·자부해 나가야 할 자랑스러운 국토경관자산(충청북도의 알프스, 국민쉼터, 생태탐승활동)으로서 관리 운용
 - 내륙 6연봉 중 특히 지형 및 식생이 뛰어난 Up-Down경관지를 생태경관 지역으로 지정해, 충북의 대표적인 생태경관, 국민쉼터·생태교육의 장으로서 특별 관리 및 육성
 - 충청북도를 가로지르는 3가지 물줄기를 약동하는 수변경관지로 육성
 - 내륙의 바다라 불리는 충주호, 대청호를 경관농업과 일체화된 대표적인 수변관광지로 육성
 - 충청북도의 내륙을 관통하는 미호천을 레저활동 및 동식물 관찰 등에 대응한 대표적인 수변경관 지대로 육성(초평저수지, 정북도성 주변 등을 특별한 풍토적 경관농업지역으로 육성)
 - 충청북도의 산릉을 관통하는 박대천과 금강 하류를 관련 구곡과 팔경 등을 활용해 충청북도의 비경과 산수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충청북도의 대표하는 시크릿 가든으로 육성
- 충청북도의 주요 역사문화자원을 아름다운 한국의 인물과 만나는 향토문화 경관으로 조성
 - 북한강, 박대천, 금강하류를 따라 형성(단양군, 괴산군, 청주시, 영동군에 밀집 분포)되어 있는 구곡과 팔경 중 대표적인 자원을 주변 마을과 일체화하여 산수문화권으로 지정 발전
 - 충주 미륵사지, 청주 초정약수, 옥천 구읍, 보은 법주사 등 충북의 대표적인 역사유적지를 정비하여 관광경관 모델지역으로 육성
 - 주요 경승지 및 역사문화자원을 「충북 36경」으로 지정하여 도민 및 국민의 생애학습장소로 이용. 주변 시군 및 시도와 연계해 드라이브와 하이킹이 가능한 광역 경관도로 확충
- 충청북도는 많은 지역으로부터 접근되는 지역이고, 광역교통망이 발달해 있어, 지역에 대한 상징성 및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웰컴 관문경관 조성」 필요
 - 주요 터미널-게이트(청주국제공항과 KTX오송역, 충북선역사와 고속터미널, 타 시도와의 경계지점)에 웰컴 관문경관 조성
 - 강호축 발전 계획에 대응해, 백두대간 6연봉 및 역사성 있는 주요 고갯마루에 상징성 및 풍토성 높은 쉼터를 개발

□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매력있는 도시 및 농촌경관 창출

- 충청북도의 도시와 농촌은 주변에 넓은 전원이 발달해 있고, 그 배후로 크고 작은 하천 및 산지가 발달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구조는 충청북도의 정주 및 취락공간의 큰 특징
- 충청북도의 도시 및 농촌은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를 살리면서 각자의 매력을 창출해 가는 스마트 경관지역으로 발전 도모
- 공통 기반 : 시가지-전원-산지의 3층 구조를 기반으로 각 지역의 특성 유지
 - 시 가 지 : 확실한 중심과 지역 이미지가 살아 숨 쉬는 매력 있는 도시 및 농촌경관 형성
 - 전원지역 : 주변의 주요 하천과 그 농경지대를 농업경관 보전지역 등으로 지정 육성
 - 산지지역 : 진산/이산의 기능을 하는 주요 산지 및 도시 내 4ha이상 녹지에 대한 특별 관리
 - 지역의 농지/산지, 수자원을 활용한 특별한 농작문화를 「충북의 농업유산」으로 발굴 육성
- 매력 있는 도시경관의 창출
 - 특성적인 거리, 특성적인 상징물/광장, 특성적인 지대 육성을 통한 도시이미지의 창출
 - 메인 상업거리, 특성적인 가로, 교류지역에 대한 집중관리 및 예술화를 통한 모델경관지역 육성
- 매력 있는 농촌경관의 창출
 - 방치된 가옥, 폐건물, 축사, 절개지 등의 보완대책을 통한 마이너스경관의 제로화
 - 특성적인 「농업-농촌-경관 육성」을 통한 농촌정주환경 개선
 - 지역축제에 대한 특별한 경관 및 소음관리
 - 「충북 Most Beautiful Village 지정제도」를 통한 아름다운 농산촌의 발굴 육성
 - 2지역 거주정책에 대응한 농가주택 및 농업작물을 활용한 특성있는 대응 추진

□ 삶이 아름다운 쾌적하고 행복한 리빙공간의 창출

- 도민들은 거주환경에 대한 만족이나 지역에 대한 애착은 높으나, 생활환경을 함께 만들고 개선해 나가는 주민들의 자치활동은 아직 약한 상태
 -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 및 교류형 사회에 대응한 새로운 리빙공간 창출
- 삶이 아름답고 쾌적한 충북인의 생활거주공간 창출
 - 생활 속 Open Space, 경관도로, 도시농업, 지역 바자회 및 천공시장의 대폭적인 확대
 - 장소가 아름답고 사람이 행복한 커뮤니티 경관모델 지역의 선정 및 육성
 - 빈집과 빈 농토, 노약자와 이주민에 대한 시군별 경관 특별배려정책 추진
- 리빙공간 개선을 위한 주민자치활동 강화
 - 가든, 담장, 화단 등에 대한 「지역 넘버원 발굴대회」를 개최해 리빙경관모델 창출
 - 주민자치활동과 연계한 마을 단위의 주차관리 및 거리색채 연구회의 발동

□ 경관행정 및 경관사업 추진방식의 선진화

- 청풍명월 충청북도에서 경관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고, 경관 관리의 대상과 기능은 더욱 확대
 - 경관행정 및 경관사업 추진방식의 선진화를 목표로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향유해 가는 충북 경관의 실천계획수립
- 단순 경관 관리의 차원을 넘어 새로운 지역자원 및 인재 발굴·육성 체계로의 전환 필요
- 경관행정의 선진화
 - 도 차원의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지원센터 기능 강화
 - 경관계획에서 충청북도가 지향하는 경관 관리 및 활용 원칙과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
 - 공공디자인 지원센터의 기능을 건축디자인뿐만 아니라 관광지, 농림수산업으로 확대
 -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지원센터 추진 및 운영에 있어서 각 분야별 전문인력의 풀을 확대하고, 시군과의 협력 및 지원체계를 강화
 - 시군 차원의 경관계획 및 경관조례 등의 기능 확대
 - 그 적용 및 관리범위를 관광지, 농림수산업으로 확대하고, 지역의 품토성에 기초한 경관 관리 및 추진 원칙을 정해 추진
 - 지역주민 및 사업주와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경관계획 실천협의체를 설치 가동
- 지역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향유해 가는 충청북도 경관의 실천
 - 누구나 참여하고,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충북의 아름다운 경관자원 발굴 및 지정제도」를 설치·운영
 - 충청북도 경관의 우수성을 알리고 함께 만들어 가는 실천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각급 학교 및 노인 대학 등과 연계해 「충북의 아름다운 경관 및 경관만들기 이야기 포럼」을 설치·운영
 - 시·군 및 지역주민의 경관 활동을 독려하고, 전국적인 차원의 경관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충북의 아름다운 지역경관만들기 콘테스트」, 「전국단위의 강호축 경관 SUMMIT」을 개최 운영
- 토탈적인 경관관리
 - 시군 홈페이지 및 지역경관 맵 등을 통한 경관 정보력 및 활용력 강화
 - 지역의 대표적인 품토자원과 그를 활용한 경승자원 및 특산품 등을 탑재
 - 그를 손쉽게 활용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장치 마련
 - 충청북도의 미래를 열어가는 경관기금제도의 구축과 운영
 - 각종 환경 부담금, 경관수입금, 기부 등을 통해 경관기금 마련
 - 이를 지역 경관개선활동 및 관련 인재육성 등에 재투자

〈표 III-5-39〉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경관창출 지역을 위한 추진사업

전 략 명	과 제 명	단기 (20~25)	중기 (26~30)	장기 (31~40)	비고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경관창출 지역	1. 강호축 개발 대응 백두대간 생태축 심벌화/기능화				
	2. 아름다운 향토문화경관 조성				
	3. 웰컴 관문경관 조성				
	4. 누구나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스마트공간 창출				
	5. 삶이 아름다운 쾌적하고 행복한 리빙공간 창출				
	6. 경관행정 및 경관사업 추진방식 선진화				

〈표 III-5-40〉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경관창출 지역을 위한 시군계획지침

※ 시·군 계획지침

- 경관계획은 도시미관의 향상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의 보존 및 관리, 역사·문화자원의 가치 제고, 농산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마을가꾸기 사업추진 등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 경관계획은 정해진 하나의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지역적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독창성이 확보되고, 다양한 가치가 상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계획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최대한 확보해주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 경관계획은 경관관리와 관련된 도시계획, 자연환경관리, 역사문화 보존, 농산어촌 생활환경 개선 등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각 소관부처의 경관 관리의 목표와 추진방향, 실행수단을 고려한 총체적인 계획이어야 한다.
- 경관계획은 계획의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자연경관, 농산어촌경관, 역사문화경관 관련 사업계획 및 지구지정 등과의 연계, 실행을 위한 행정체계, 조직 및 절차, 예산확보 및 재원조달, 주민참여계획 등 구체적 실행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 제6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의 공간 창출

제1절 방재형 공간개편을 통한 재난에 안전한 지역

제2절 선제적 예방중심의 보건안전환경 조성

제3절 세대통합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



제6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의 공간 창출

제1절 방재형 공간개편을 통한 재난에 안전한 지역

1) 현황 및 문제점

I 현황

□ 충청북도 지역안전지수 현황(2019년 기준)²¹⁾

- 7대 분야 중 대부분 중간 수준인 3등급이며 범죄 분야가 4등급으로 낮고 교통사고 분야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편
- (화재) 최근 5년간('14~'18) 화재는 총 7,036건이 발생을 하였으며, 인명피해 456명(사망 96명, 부상 360명), 재산피해 934억 원 발생
- (교통) '15년부터 5년 동안 매년 사망자수 감소 유지
- (범죄) '15년 대비 5대 범죄 발생건수가 크게 감소(감소율 1.57%)
- (생활안전) 구급건수 매년 증가 : '16년 5,644명 → '17년 5,714명 → '18년 5,794명
- (자살) 만 명 당 자살 사망자수 전국에서 3위 수준 : 충북(3.01) < 강원(3.25) < 충남(3.41)
- (감염병) 만 명 당 법정 감염병 사망자수 전국 6위 수준 : 충북(0.70) < 전북(0.75) < 충남(0.84) < 전남·경북(0.89) < 강원(0.92)

21) 2019년부터 '자연재해' 항목 제외

〈표 III-6- 1〉 충청북도의 지역안전지수 변화 (2015~2019)

(단위 : 년, 건)

구분	화재					교통사고					범죄					생활안전				
연도	15	16	17	18	19	15	16	17	18	19	15	16	17	18	19	15	16	17	18	19
건수	2	4	3	5	3	2	2	2	2	2	4	4	4	3	4	2	3	3	3	3
구분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									
연도	15	16	17	18	19	15	16	17	18	19	15	16	17	18	19					
건수	3	3	3	3	3	3	2	3	3	3	4	3	4	1	-					

자료: 행정안전부, 2019

〈표 III-6- 2〉 충청북도의 주요 재난 발생 변화(2015~2019)

지표명	2015	2016	2017	2018	2019
교통사고 발생건수(건/만 명)	221.11	203.91	190.78	194.85	214.06
화재 발생건수(건/만 명)	8.33	8.47	8.27	9.36	8.42
산불발생건수(건/1km ²)	24.3	41.85	25.65	62.09	44.54
5대 범죄 발생건수(건/만 명)	108.77	106.03	97.16	87.95	86.58
생활안전 관련 구급 발생건수(건/만 명)	34.53	35.31	34.68	35.03	35.35
자살 사망자수(명/만 명)	3.12	3.01	3.17	2.740	3.00
감염병 발생건수(건/만 명)	16.59	17.56	20.33	26.68	34.83
자연재해 피해액(천 원/1km ²)	-	513.62	330.29	7,791.58	1,297.21
화학사고(건)	9	3	2	3	7
질병 및 사망외인 사망자수(명/만 명)	6.94	7.083	7.27	6.81	6.90

자료: 충청북도청 내부자료

□ 유해화학물질 사고 지속 발생 우려

- 2014~2021년 4월까지 충청북도의 화학물질사고는 32건이며 그중 누출사고가 24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²²⁾
- 최소 2건(2017년)에서 최고 9건(2015년)까지 매해 꾸준히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물질은 염산과 암모니아가 3회로 가장 많았음

22)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s://icis.me.go.kr/>)

□ 갈수록 폭염 피해가 가중될 위험 증가

- 매년 심각해지는 폭염에 최근 5년간 충청북도 내에서 가축 153만 7,166마리가 폐사하고, 축구장 5천 408개에 달하는 면적이 농작물 피해를 입었으며, 온열질환자는 602명이 발생
- 충청북도 지역 폭염일수(일 최고기온 33℃ 이상)는 해마다 늘어 2015년 13일, 2016년 38일, 2017년 25일, 2018년 46일로 증가. 2019년 26일로 증가. 2018년 여름 충주시 최고기온이 40.0℃ 도달

〈표 III-6- 3〉 연도별 충청북도 폭염 피해 현황

(단위 : 건, 백만 원, 명)

구 분		합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재산피해		1,537,166	98,836	210,558	211,978	845,811	169,983
인명피해	사망(실종)	5	1	1	1	2	-
	부상	597	59	107	113	207	111

자료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2019.11.22.

□ 태풍, 호우, 대설 등 자연재난 피해 지속 발생

- 최근 10년간 태풍을 비롯한 자연재난으로 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1,234억 원의 재산피해 발생
- 충청북도는 태풍 주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지만, 게릴라성 집중호우 피해에 유의해야 함
-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적 집중호우, 폭설로 인한 비닐하우스와 인삼재배시설 피해 지속
- 한파일수는 '15년 17일, '16년 23일, '17년 51일, '18년 43일 등으로 증가 추세

□ 충청북도의 도심침수 횡수 지속 증가

- 기후변화로 인해 일 80mm 이상 집중호우가 1970년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 게릴라성 집중호우, 특정 공간의 강우량 증가, 우수의 유출 속도 증가 등 피해 위험 증가

□ 지방하천정비사업 지속 추진 필요성 증대

- 2020년 현재 도 내 지방하천 74개소 121지구에 대하여 정비계획(2011~2035)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2020년까지 20지구 171.4km를 완료하여 전체 사업량의 32.5%를 정비 완료함

<표 III-6- 4> 연도별 지방하천 정비사업 투자계획

구 분	계	'20년까지	'21년	향후계획
추진목표	100%	32.5%	36.4%	100%
사업량(지구/km)	121/ 767	20/171.4	29/24.0	96/571.6
사업비(백만 원)	1,901,812	618,267	73,766	1,209,779

○ 2020년부터 도 내 하천을 대상으로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이상 기후와 과도한 개발로 인한 재해위험 증가, 일률적이고 치수 위주의 하천정비 사업으로 인한 주민 호응 부족, 하천정비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정비사업 재정여건 악화 등의 문제 내포

I 문제점

□ 예측 어려운 재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필요

- 기후 위기에 따라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대형화되는 자연재난에 대한 효과적 대응 필요
- 시설물의 노후화·고층화·대형화, 및 재난취약계층 등 사회재난 위험요인 증가
- 특히,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 우선 필요

□ 대형·복합·신종재난 등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 강화 필요

- IoT(Internet of Things),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재난안전분야에 접목한 재난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야 함
- 과학적 예측분석을 기반으로 재난관리 체계로의 전환 필요

□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 운동, 재난안전 교육 훈련, 홍보 등 확대 추진 필요

- 전 연령별(유아~성인), 직장 유형별, 활동 장소별 등 노출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재난 안전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 조성

□ 일상 속의 안전 위협요인 증가 대비 필요

- 발생량 대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초미세먼지 농도
- 출렁다리, 물놀이 등 도민의 야외활동 시 위협요인 증가
- 사업체 및 근로자 수 증가와 더불어 사업장 내 위협요인 증가 등

2) 여건분석 및 전망

Ⅰ SWOT 분석

- 충청북도는 안전한 충청북도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갈수록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이 예기치 않게 발생하고 있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은 실정임
- 특히,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폭염, 한파, 집중호우 등은 도민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관련 인프라 구축, 취약계층 지원, 교육, 제도개선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함
- 기후환경, 재난분야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주요한 요인이지만, 미래 충북도의 성장을 위한 기회요인이기 때문에 기후환경산업 및 재난산업 육성을 위한 기관 유치, 사업체 지원, 전문인력양성 등에도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임
- 미래 기후, 재난분야에서는 공간정보, 센서, 드론, 위성, AI 등의 적용 사례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역량을 강화해가야 할 것임

〈표 III-6- 5〉 SWOT 분석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안전에 대한 국가, 도, 도민의 높은 관심과 의지 다양한 재난안전체험 시설 보유(안전체험교육기관 등) 재난관리평가 우수등급 및 국가 안전대전단 우수도 선정 선제적인 미세먼지 저감 관리대책 시행 지방정부, 도민, 유관단체 간의 유기적인 의사소통 충북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도민 안전보험 가입으로 사회안전망 확대 충북권 대기환경연구소, 화학물질안전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등 대기환경 관련 인프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 재난 전문인력, 장비 부족 재난정보에 대한 생성과 공유체계 미흡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 위험이 증가하지만 사전투자 및 대응 부족 재난안전에 대한 정확한 현황진단 미흡 재난관련 ICT 적용사례 미흡 폭염, 집중호우, 가뭄 등 최악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능력 검증 미흡 실효성이 떨어지는 매뉴얼 및 훈련 부족 4차 혁명과 재난안전 연계를 위한 기반투자 및 전문가 미흡 예방사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미흡 미흡한 재난안전 체험교육
기회(O) ⇒ 포착	위협(T) ⇒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지진,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를 비롯해 큰 사건사고로 안전과 생존에 대한 시민 관심 증대 지방교부세(재난안전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합리적 운영 및 지원을 통한 재난안전 및 예방투자 확대 재난사태 선포권 부여 등 지자체 책임성 강화 재난대비 훈련 표준화 및 상시 훈련체계로 전환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안전콘텐츠 개발, 보급 대기오염 총량제 시행을 대기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사업 추진 지방하천의 국가 하천 승격 지속 추진 사회재난 국고지원 기준 마련 안전산업 발전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상기상으로 인한 재난 위험 및 불확실성 증가 유해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건강영향 위해 요인 증가 생활안전 위협요소의 불확실성과 다변화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비정상적 관행화 지진, 대규모 화재 등 주변 지자체의 대형재난으로 위협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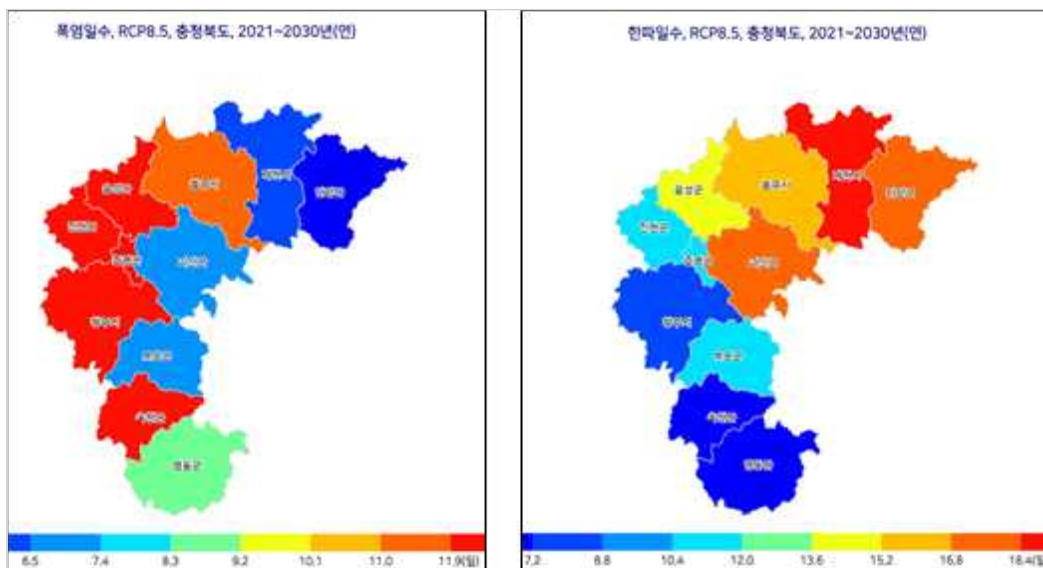
I 여건전망

□ 계속되는 기후변화와 불확실성 증대로 인류세 개념 주목

- 제6차 대멸종 예견 등 지구적 손실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구환경 훼손과 기후변화 등에 대해 인류의 책임을 강조하는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 개념 주목
- 우리나라는 기후온난화 속도가 세계 평균보다 높고 태풍, 폭염 등 극한기상이 더 자주 발생하여 기후피해비용도 3.6조 원(GDP 0.31%, '20년)에서 6.9조 원(GDP 0.59%, '50년)으로 급증할 우려(국립환경과학원, 2012)
 - 폭염일수 전망(RCP 8.5 기준) : 2017년 7.3일 → 2100년 30.2일

□ 기후변화 심화에 따라 자연재난이 대형화되고 새로운 유형의 재난 발생 가능성 증가

-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 증가 : '17년 3개 → '18년 5개 → '19년 7개 (과거 1981 ~ 2010 연평균 3.1개)
- 폭염, 한파 등 재난유형과 지역특성에 따른 구조적 비구조적 피해저감계획 마련 필요
 - 기후변화 시나리오(RCP 8.5)에 따르면, 충청북도 폭염, 한파 등의 이상기상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지속적인 기후변화 모니터링과 완화 및 적응 사업추진이 요구됨
- 포항·경주 지진,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밀양화재('18.1.), 구제역('17.2.), 중동호흡기증후군('15.5.), 코로나 감염병('19.2) 등 생활 속 위험요인에 대한 불안감 확산에 따른 생활안전 요구 증가
-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 필요



〈그림 III-6- 1〉 충북의 폭염 및 한파일수 전망 (RCP 8.5, 2021~2030)

□ 한반도 내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 상존

- 충청북도도 지진에 대해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 예방 사업 지속 추진
- 최근 10년간 충청북도에 15회의 지진이 발생

□ 기술의 초고도화 및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복합재난의 위험성 증가

- KT 통신국 화재, 열수송관 파열, 수소저장탱크 폭발, 불은 수돗물 등
- 31년 이상 노후 시설물의(1~2종) 개수 : ('10)1,674 → ('15)2,837 → ('30)26,209개
- 4차 산업혁명 기반, 재난안전 기술 선진화
- 재난의 대형복합화, 신종재난 발생 증가 등 재난환경 변화에 따라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기술의 재난현장 적용 확대

□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노인, 장애인, 비정규직 및 외국인 등 다양한 재난취약계층 증가

- 재난 위험이 사회적 취약집단인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에 집중되는 현상 발생(산업재해)
- 낮은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 속도로 '26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노인 빈곤율(49.6%)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안전사고로 인한 노인사망자 비율은 일반인의 4.3배 수준
- 노인 보행 교통사고율 : 54%('17) / 70대 폭염 온열질환 사망률 : 66.7%('18)

□ 동북아 복합 환경재해 위험 증가 등 환경 안보 관리요구 확대

- 이상기상 및 동북아 지정학적 입지 등에 따라 방사능, 미세먼지, 홍수, 지진, 화산 등에 따른 복합재해 발생 및 월경성 물질 확대 우려 증가

□ 안전권 및 기후환경 정의 실현을 위한 요구 증대

- 안전, 행복, 삶의 질 등이 중요한 키워드로 대두되면서 도민들이 질 높은 환경과 안전을 향유할 권리에 대한 요구가 강화될 것
- 빅데이터, 인공지능, 초연결기술 등을 활용하여 도민의 기후안전정보 접근성 확대 요구에 부응 필요
- 개인·주변의 안전 및 기후환경 상태에 관련한 의사 표출과 정책에 대한 참여 즉, 기후환경 민주주의 발전에 대응 필요
- 불공정한 환경 및 안전위협에 대한 예방, 처분, 피해에 대한 구제 요구에 부응 필요



□ 주요 재난안전 여건 변화

- 재난 발생 및 피해 취약요인이 되는 자동차 등록대수, 주점업체 수, 화학물질 제조업체 수, 독거노인 수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대응 요인인 의료인력, CCTV 및 AED 설치 대수 등은 증가하지만 소방공무원 수는 감소

〈표 III-6- 6〉 충청북도의 주요 재난여건 변화 (2015~2019)

지표명	2015	2016	2017	2018	2019
자동차등록대수(대/만 명)	4,432.09	4,608.88	4,675.13	4,826.15	4,971.34
위험물 제조소수(건/만 명)	46.76	47.87	46.70	46.24	46.1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업체수(의약품 제외)(개/만 명)	-	-	-	4.03	4.10
범죄예방 CCTV대수(대/만 명)	-	-	-	43.19	66.14
AED설치대수(대/만 명)	-	-	-	0.12	0.14
음식점 및 주점업체수(개/만 명)	147.54	146.79	150.71	152.81	158.061
독거노인수(명/만 명)	328.09	374.46	394.70	319.90	334.34
소방공무원수(명/만 명)	-	-	-	15.52	12.94
기초수급자수(65세이상)(명/만 명)	91.37	98.25	94.22	93.14	94.83
의료인력(명/만 명)	-	-	-	63.18	65.01

□ 풍수해 사전 피해 경감을 위한 예방투자 필요

- 충청북도는 대부분의 태풍에서 주 영향권에서 벗어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
- 집중호우에 의한 하천·하수관거 등 지방하천정비 및 시설별 설계빈도 조정 검토 필요
- 향후 이상기후 현상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비 필요

〈표 III-6- 7〉 충청북도 연도별 풍수해 피해 현황 (2014~2019)

(단위 : 건, 백만 원, 명)

구 분		평균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발생건수		4.0	1	2	4	3	9	5
재산피해금액		12,525	401	3,795	3,782	56,686	9,610	874
복 구 비		36,547	22	1,410	3,499	184,741	24,838	4,774
인명피해	계	1.7	0	0	2	5	3	0
	사망(실종)	1.5	0	0	1	5	3	0
	부상	0.2	0	0	1	0	0	0

□ 기후적, 지형·지질적, 인위적 원인으로 원천적으로 산사태에 취약한 구조

- 기후변화 등에 따라 산사태 규모는 점차 대형화 추세
- 귀농·귀촌 증가에 따른 소규모 산지개발에 의한 피해 저감을 위해 각종 산지전용 허가 시 배수정비 및 사면복구 계획 등 피해 저감 대책 강구

〈표 III-6- 8〉 충청북도 연도별 산사태 발생 현황 (2014~2019)

(단위 : ha, 백만 원, 명)

구 분		평균	2014	2015	2016	2017	2018
피해면적		12	0	0	0	54	5
재산피해금액		1,392	0	0	0	6,391	567
인명피해	계	0.4	0	0	0	2	0
	사망(실종)	0.4	0	0	0	2	0
	부상	0	0	0	0	0	0

자료 : 산림청 보고에 의함

□ 재난약자를 고려한 수용체 중심의 안전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반 확대

-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소화기 등 안전용품의 제공과 시설 개선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재난안전법 '19.12.3.)
- 취약계층·지역에 대한 주요 부문 환경 및 안전서비스에서 불평등 우려
- 사이버 범죄 등 신종 재난에 대한 취약계층 대응역량 강화
- 인구감소 시 우려되는 응급대응 사각지역 해소

□ 산업단지의 집적 구조로 대규모·연쇄 인명피해 위험 상존

- 지속적인 산업단지 지정·개발 및 기업유치로 근로자 수 증가와 더불어 사업장 내 위험요인 증가
 - 주요 피해사례 : 충주 증원산업단지 접착제 공장 폭발·화재('19.8.30 / 실종 1명, 부상 8명 / 재산 피해 : 41.5억 원)

□ 도시 노후화, 지하시설물 등 불안감 증대

- 기존 주거지의 인프라 노후화에 따라 도시재생 정책수요의 확대와 더불어 기후위험, 미세먼지, 싱크홀 발생 등 도시주민 생활 위협 요인 증가에 대응 필요
- 지하에 묻힌 상·하수도관과 열 수송관, 공동구, 가스, 전기, 통신, 난방 등의 시설에 대한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 필요
- 노후 산업단지의 공장들은 플랜트의 부품 노후화로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컨설팅·관련 시스템 업그레이드 지원사업 등 확대 및 안전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필요

□ 지속 가능 발전과 기후환경 위기관리의 시급성 증대

- 기후변화 추세 심화 및 이상기상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은 인간의 사회·경제 등 모든 활동에 변화 초래 예상
-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미세먼지 효과 등의 공동편익 확대와 저탄소 생활양식의 정착 확대 노력 필요
-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한 위기관리 비용 증가 및 도민의 기후복지 요구 확대 전망

□ 지역 내 환경 및 재난분야 전문인력 확충 시급

- 2021년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충청북도 내 온실가스 저감, 이상기상 적응, 미세먼지 대응, 환경 질 개선 등의 기반·응용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정책 지원 및 산업화로 연계시켜 나갈 전문인력 확충 시급
- 그 외, 대기환경 (총량)관리, 안전한 도시 조성, 수자원을 비롯한 각종 환경규제 이슈, 국토환경 정보 구축, 자원순환체계 구축, 재난예측 시뮬레이션 수행 등 갈수록 관리해야 할 환경 및 재난 이슈들이 늘어가고 있지만 도 내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과 기관 부재

3) 추진과제

□ 도민 체감형 포용적 안전서비스 정착

- 도민 누구나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인 ‘안전 기본권’ 확보
 - 집중호우, 태풍,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해, 감염병 등 신종재난, 대형화재·폭발 등 재난 유형 및 양상이 복잡·다양화되고,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확대
 - 가정, 공장, 도로, 야외 등 일상생활 속 안전 위협요인 저감을 위한 생활밀착형 도민 안전관리 강화
- 미세먼지 등 환경 위해로부터 도민건강 보호
 - 미세먼지, 화학물질 등 위해요인의 획기적 저감과 안전관리를 통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모두에게 미치는 피해를 예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 충청권 및 수도권 초미세먼지 발생과 흐름에 관련된 공동연구 수행
- 안전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전정의 구현
 - 재난약자가 재난에 심각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균형 있는 안전정책 유지
- 노후 사회기반시설 기후 리스크 및 국토 회복탄력성(Resilience) 관리 강화
 -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기후위험 평가 및 성능 검토, 보수·보강 방안 마련, 지하시설물 통합안전 관리 체계 구축
- 재난안전 정책, 관리적 측면에서 다각적 협력네트워크 강화
 - 부처 간 연계·협력을 통해 시도민이 공감하는 재난안전 서비스 확대, 공동 R&D 추진, 재난 관련 현안의 효과적 대응력 강화 방안 마련
- 도민 스스로 재난 위험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참여 확대
 - 재난안전 교육 세분화 및 재난안전 관련 리빙랩 등 주민 참여 방식 확대
 - 공공데이터, 유관 기관 가공데이터, 도민참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GIS기반의 빅데이터 재난 정보 양방향 플랫폼 개발
- 재난 후 물리적 복구 이외에 도민 심리안정 지원 서비스 확대
 - 재난 유형별 피해 규모별로 재난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 일상 복귀를 위한 재정 및 심리지원 서비스 강화

□ 미래 위험 이슈를 고려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공간관리 강화

- 탄소배출, 기후위험, 기후적응 등 도시공간환경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기후안전 기반시설, 안전 구역제 등 도시공간 안전관리체계 강화
 - 풍수해 사전 피해 경감을 위한 예방 투자 및 이상기후 대비 사회안전망 확충 지속
 - 충청남도 화력발전소의 충청권 대기영향 및 상생전략 마련



- 기후 위기와 환경재해 등에 사전 대응이 가능한 방재 국토도시 및 환경계획 수립 및 시행
 - 재해위험지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구조적, 비구조적 예방사업 추진
 - 기후재난 및 위험관리 등을 위해 공간환경 관리 강화가 필수이며 기존의 도시계획에서 벗어나 기후 안전 및 방재를 목적으로 하는 국토도시계획 수립
- 기후변화 대응 문제가 도민의 생존과 산업에 영향을 미쳐 발전과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리스크로 등장
 - 재난으로 인해 기업 및 산업계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 리스크를 저감·관리할 수 있다면 기업 혹은 산업 경쟁력을 강화
 - 기후변화 리스크 혹은 이상기상에 대한 재난관리를 주제로 한 새로운 사업 기반 마련
 - 충청권 및 수도권 대기환경연구소 구축 및 운영
-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홍수(집중호우), 태풍, 지진 등의 재난관리를 비롯한 생물자원, 감염병, 식량 확보 등을 위한 과학 기술 수요가 급증 예상
 -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정책 정착으로 반복 발생하는 악성 재난 차단 및 신속한 대응력 확보
 - 극한 기상에 따른 돌발 재난대응 체계 강화. 특히 극한 강우에 따른 침수대응력 강화
 - 내진 설계를 통한 안전성 확보

□ 스마트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 개발 및 적용 확대

- 스마트 지속가능도시(Smart Sustainable City)와 융합되는 재난안전관리 기술 기반의 재난관리 체계 구축
 - 건축물, 교통, 기상, SOC, 사람 등의 도시 내 위협과 안전관계를 분석하여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 안전 신진대사(Urban Safety Metabolism) 계획·관리기법 적용
 - 도시안전 측정·모니터링 기술을 바탕으로 대기, 폭염, 집중호우 등의 실시간 변화탐지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스마트 생활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 치수, 이수, 환경을 고려하고 도민이 공감하는 스마트 하천관리 체계 구축
 - 수문자동화, 자동수위계, 드론 활용 하천측량 및 피해 확인 등 스마트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 고층 고밀화에 따른 신종 복합재난 관리 및 산업단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대책 강화
 - 30층 이상 고층 건물이나 이동인구가 많은 복합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대책 강화
 - 산업단지, 유통물류센터 등 대규모 구조물에 대한 폭발, 화재에 대한 소방대응력 강화
- 재난안전사업 진흥법 제정으로 재난안전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장차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CT 기반의 스마트 재난관리체계 구축 필수
 - 지역특화 산업과 첨단기술 융합 및 R&D, 실증테스트베드, 창업 지원 등을 위한 국가재난안전 산업 육성 거점 조성

○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 폭염, 한파 등 도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환경 위험 요인들이 지속적 증가함에 따라 각종 센서를 생활 주변 및 주요 발생원과 피해 예상지역에 설치하고 이를 네트워크화하여 모니터링함으로써 도민들의 건강 위해 최소화

- 스마트 도시와의 연계를 위한 기후환경, 재난 분야 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IOT 활용 환경안전 센터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 Smart IT solution 기술 기반 노후 플랜트 스마트 안전 upgrade 구축 지원 사업

○ 충청북도 '실시간 소방시설관리시스템' 구축

- 충청북도 내 소방시설 100% 정상작동을 목표로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작동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 단계적 구축

〈표 III-6- 9〉 방재형 공간개편을 통한 재난에 안전한 지역을 위한 추진사업

전 략 명	과 제 명	단기 (21~25)	중기 (26~30)	장기 (31~40)	비고
방재형 공간개편을 통한 재난에 안전한 지역	1.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 도시 내 기후 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				
	3. 방재 국토도시 공간계획 수립				
	4. IoT 활용 환경안전센터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5. ICT 기반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안전 융복합기술개발 클러스터 추진				
	6. ICT 기술 활용 증강현실 기반 재난대응 통합훈련시스템 구축				
	7. 지방하천 정비사업				
	8.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				
	9.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10. 상습침수지역 해소				
	11.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표 III-6-10〉 방재형 공간개편을 통한 재난에 안전한 지역을 위한 시군계획지침

※ 시·군 계획지침

- 시·군은 기후위험 대응을 강화하고, 미래환경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심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시·군은 기후 및 재난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 방안을 비롯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재난안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 시·군은 화재, 지진, 폭염, 집중호우, 기반 시설 마비 등 어떤 재난상황 속에서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적, 물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이 일상화되도록 몸이 기억하는 체험형 안전교육·문화 확산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시·군은 다가올 기후환경 및 재난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공간환경정보를 비롯한 미래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및 활용전략을 수립한다.



제2절 선제적 예방중심의 보건안전환경 조성

1) 현황 및 문제점

I 현황

□ 의료시설

○ 의료기관수는 증가 추세이나 지역별 편차 존재

- 종합병원 미설치 지역 : 보은군, 영동군,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 병원 미설치 지역 : 옥천군, 진천군

〈표 III-6-11〉 의료기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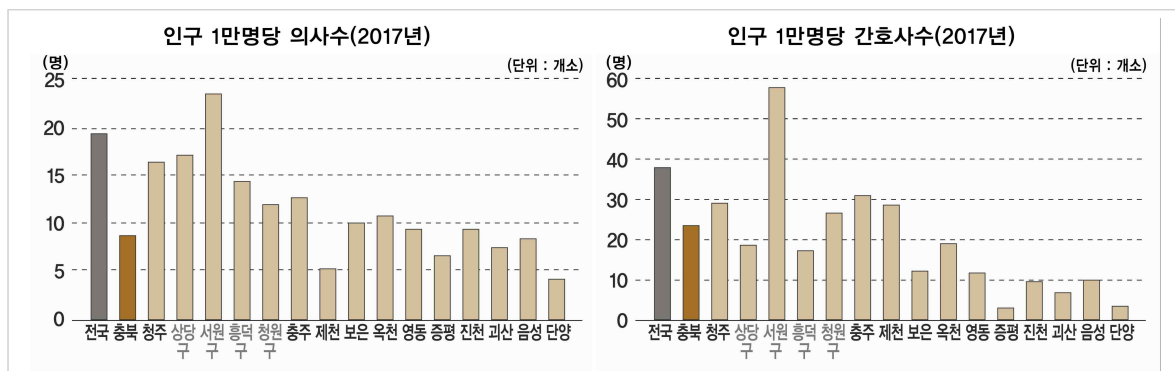
(단위: 개소, %)

구분	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병원	병상	병원	병상	병원	병상	병원	병상
2015	1,679	19,699	12	4,612	37	4,256	811	2,642
2018	1,874	22,428	13	4,872	39	4,653	983	2,372

출처 : 충북통계연보, 2019(2018년 기준)

○ 의료인력

- 인구 1만 명 당 의사수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전국 평균 19.36명 대비 13.57명으로 낮은 수준.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전국(4.16명/1만 명당)대비 1.84명(1만 명당)으로 극히 부족함
- 간호사수도 증가추세에 있으나, 전국(35명/1만 명당) 대비 24명(1만 명당)으로 적은 수준. 지역별 로도 청주시 서원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전국 대비 간호사 인력이 부족함
- 의사, 간호사 등 핵심 의료 인력이 부족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의 경우에는 의료 인력 지수가 WHO 기준에도 미달되는 것으로 평가됨



자료 : 7기 충북지역 보건의료계획

〈그림 III-6- 2〉 인구 1만 명당 의사수(2017년)

〈그림 III-6- 3〉 인구 1만 명당 간호사수(2017년)

□ 응급의료

- 충청북도의 응급의료기관은 2018년 현재 19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전국의 2.6%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
 - 지역별 균형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응급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확보가 필요함

〈표 III-6-12〉 응급의료기관 수

(단위: 개소, %)

2018년	계	권역 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 의료센터	지역응급 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외 응급실 운영기관
전국	520	36	117	248	119
충청북도	19	1	3	11	4
비중	3.7	2.8	2.6	4.4	3.4

출처 : 통계청, 응급의료기관

- 응급진료 결과 중 전원 조치는 2016년 대비 2018년 비슷한 수준임
 - 1~2차 의료기관 전원은 증가 이외에 응급처치 불가, 중환자실 부족, 병실 부족은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표 III-6-13〉 응급진료 결과 : 전원

(단위 : 명)

구분	전국		충북	
	2016	2018	2016	2018
계	5,939	5,101	2,323	2,341
병실 부족	1,050	517	29	41
중환자실 부족	318	192	108	165
응급처치 불가	711	523	254	305
상급병원 전원	970	882	676	672
1, 2차 의료기관 전원	320	264	48	120
장기시설로 전원	174	124	22	14
환자 사정으로 전원	2,212	2,342	1,138	988
기타	185	256	48	36

주 : 전국은 16개 시도 평균(세종 제외)
 자료 : 통계청, 응급진료결과 현황



□ 치매현황

- 치매인구는 26,388명이며 노인인구의 10.8%로 전국 유병률 10.0%보다 0.8%p 더 높음
- 성별로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 35.1%보다 더 높은 64.9%

〈표 III-6-14〉 치매유병환자수와 유병률

(단위: 명, %)

구 분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치매 추정					
		환자수	유병률	남	비율	여	비율
전국	7,066,201	705,473	10.0	254,676	36.1	450,797	63.9
충청북도	244,520	26,388	10.8	9,257	35.1	17,131	64.9

자료 : 중앙치매센터. 2018년 치매현황, 2019

- 치매 자원은 전국 평균보다 1인당 조기검진 소요예산은 101원, 치매환자 1천 명당 병의원은 12.4개소, 장기요양기관은 0.9개소가 낮은 수준이며, 치매인식표 발급률도 0.6% 낮음

〈표 III-6-15〉 치매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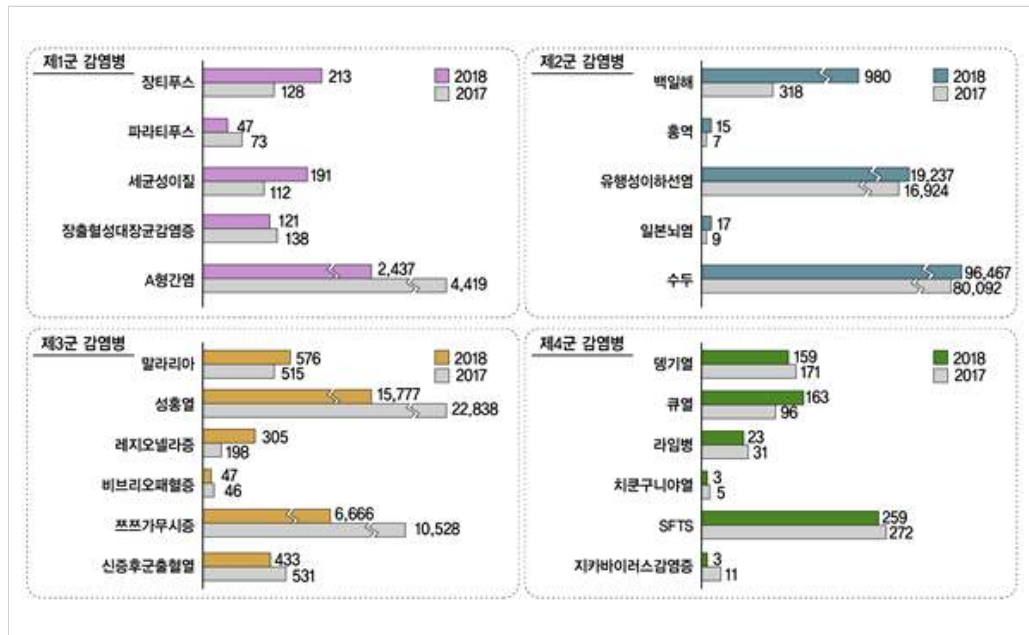
(단위: 명, 원, %, 개소)

구 분	광역 치매센터	치매 상담센터	치매 안심센터	치매상담센터 1인당 소요예산	치매환자 1천 명당 병의원	치매환자 1천 명당 장기요양기관	인식표 발급률
전국	17	254	256	2,954	46.4	28.9	2.7
충청북도	1	14	14	2,853	34.0	28.0	2.1

자료 : 중앙치매센터. 2018년 치매현황, 2019

□ 2018년 감염병 발생현황

○ 「2018년 감염병 감시연보」에 따르면,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 59종 중 40종의 감염병이 신고되었으며, 주요 감염병 군별 신고 현황은 다음과 같음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18 감염병 감시연보, 2019

〈그림 III-6- 4〉 2018년 군별 감염병 발생 현황

○ 제1군 감염병은 전년 대비 38.2% 감소하였으나, 장티푸스와 세균성 이질은 국외 유입 사례 증가로 전년 대비 각각 66.4%(‘17년 128명 → ‘18년 213명), 70.5%(‘17년 112명 → ‘18년 191명) 증가하였고, 국외 유입 사례의 비율이 장티푸스는 43.2%(92명), 세균성 이질은 75.9%(145명)에 달함

- 콜레라 신고 2건은 모두 국외 유입 환자(인도 2명)로 국내 발생은 없었음(‘17년 5명 → ‘18년 2명)

○ 제2군 감염병은 전년 대비 19.8% 증가하였고, 홍역은 전년 대비 114.3% 증가하였음(‘17년 7명 → ‘18년 15명)

- 홍역 발생 환자 15명 중 국외 유입 5명(중국 3명, 베트남 1명, 태국 1명), 국외유입 연관 8명 등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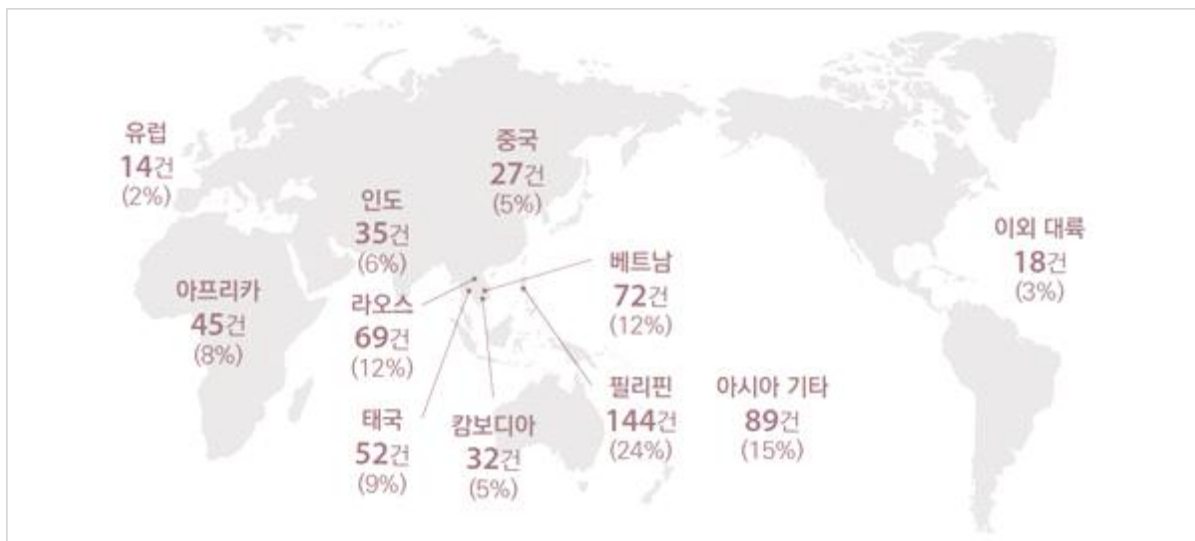
○ 제3군 감염병은 전년 대비 0.1% 감소하였으나(‘17년 4만 9100명 → ‘18년 4만 9063명), 말라리아는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1.8% 증가하였음(‘17년 515명 → ‘18년 576명)

○ 제4군 감염병은 전년 대비 4.3% 증가하였으며(‘17년 588명 → ‘18년 613명), 큐열은 163명으로 전년 대비 69.8% 증가(‘17년 96명 → ‘18년 163명)하였음

- 큐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충북(26명), 경기(23명), 충남(20명) 순으로 발생 보고가 많았음

□ 2018년 국외 유입 감염병 현황

- 국외 유입 감염병은 2010년 이후 매년 400명 내외로 신고되고 있으며, 2017년 531명에서 2018년 597명으로 12.4% 증가하였음
- 2018년에 신고된 주요 국외 유입 감염병은 뎅기열(27%), 세균성 이질(24%), 장티푸스(15%), 말라리아(1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주요 유입 지역은 아시아 지역(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태국, 인도, 캄보디아, 중국 등)이 전체의 약 87%를 차지하였고, 그다음 높은 지역은 아프리카 지역(나이지리아, 우간다, 가나 등)이 약 8%로 나타났음



〈그림 III-6- 5〉 2018년 국외 유입 신고수

〈표 III-6-16〉 2018년 국외 유입 신고수 및 주요 유입 감염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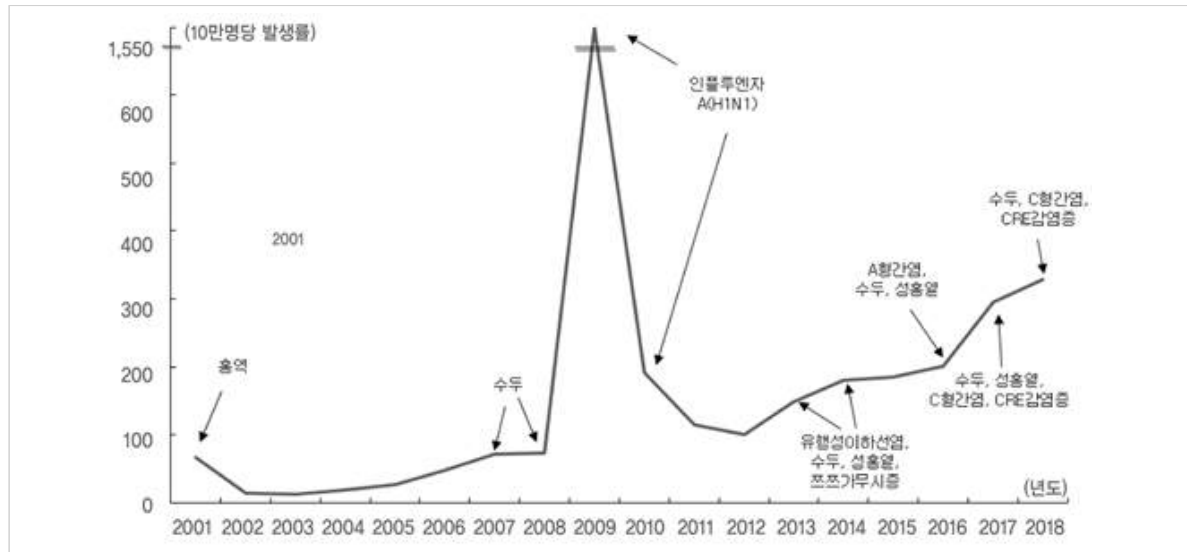
유입 지역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외 대륙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태국	인도	캄보디아	중국	기타			
신고수 (%)	144 (24%)	72 (12%)	69 (12%)	52 (9%)	35 (6%)	32 (5%)	27 (5%)	89 (15%)	45 (8%)	14 (2%)	18 (3%)
주요 유입 감염병	세균성 이질 뎅기열 말라리아	세균성 이질 뎅기열 말라리아	장티푸스 뎅기열 말라리아	뎅기열 말라리아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세균성 이질 뎅기열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뎅기열 세균성 이질 파라티푸스	C형 간염 A형 간염 홍역	뎅기열 C형 간염 세균성 이질	말라리아 세균성 이질	C형 간염 라임병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18 감염병 감시연보, 2019

□ 국내 주요 법정감염병 발생 추이

○ 2001년부터 2018년까지의 국내 주요 법정감염병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특정 감염병 발생 및 확산에 따라 특정 10만 명당 발생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호흡기 관련 감염병의 발생률이 매우 높음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18 감염병 감시연보, 2019

〈그림 III-6- 6〉 '01년~'18년 법정감염병 발생 추이

○ 또한 1970년부터 2018년까지의 10만 명당 발생률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발생률의 증가는 새로운 감염병의 지정으로 인한 증가로 볼 수도 있으며, 이와 함께 해외 유입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함

〈표 III-6-17〉 인구 10만 명당 법정감염병 발생률

연도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0만 명당 발생률	94.9	21.5	14.6	93.9	27.7	192.4	114.6	101.3	148.4	181.0	185.7	201.5	295.5	329.1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18 감염병 감시연보, 2019

*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은 별도 통계 작성 및 공표로 인해 제외하였으며, 표본감시 감염병도 제외함

○ 충청북도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법정감염병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제2군 법정감염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제2군 법정감염병 증가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두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제1군 법정감염병 감소는 제1군 A형간염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3군과 제4군은 비슷한 발생양상을 보임

〈표 III-6-18〉 충청북도 법정감염병 발생현황(2016~2018)

법정감염병군별		2016	2017	2018
제1군	소계	154	154	98
	콜레라	0	1	0
	장티푸스	3	6	8
	파라티푸스	4	1	1
	세균성 이질	5	2	3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3	3	3
	A형간염	139	141	83
제2군	소계	1,583	2,285	3,791
	백일해	4	6	28
	파상풍	2	0	1
	홍역	0	0	1
	유행성이하선염	314	426	522
	B형간염(급성)	16	13	11
	일본뇌염	0	0	2
	수두	1,243	1,832	3,202
	페렴구균	4	8	24
	소계	1,536	1,870	1,775
제3군	말라리아	8	2	3
	성홍열	215	500	310
	수막구균성수막염	0	0	0
	레지오넬라증	3	9	13
	비브리오패혈증	0	1	2
	발진열	0	1	0
	쯔쯔가무시증	252	241	183
	렙토스피라증	5	4	9
	브루셀라증	0	1	0
	신증후군출혈열	43	31	22
	매독(1기)	20	31	50
	매독(2기)	11	13	15
	매독(선천성)	0	0	1
	크로이츠펔트-야콥병(CJD)	1	2	0
	결핵	977	844	862
	한센병	1	0	0
	C형간염	-	141	211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49	94
	소계	35	44	44
제4군	Dengue열	4	1	4
	큐열	18	31	28
	라임병	1	0	0
	치쿤구니아열	1	0	0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11	12	12

자료 : KOSIS(국가통계포털), 감염병 발생현황-지역별(검색일 : 2021.05.16.)

I 문제점

□ 상대적으로 열악한 건강지표

- 지역 간 소득수준별 건강수명 격차가 높으며 타지역에 비해 충청북도의 건강수명이 상대적으로 짧음
- 건강 관련 지표로 연령표준화 사망률(10만 명당 359.7명/2017년),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률(10만 명당 15.8명/2017년), 암 사망률(102.8명/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률(58.5명/10만 명당, 2015년)은 인근 충청남도 지역보다 높은 수준(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중기발전방안 수립 연구, 2019)

□ 높은 치료 가능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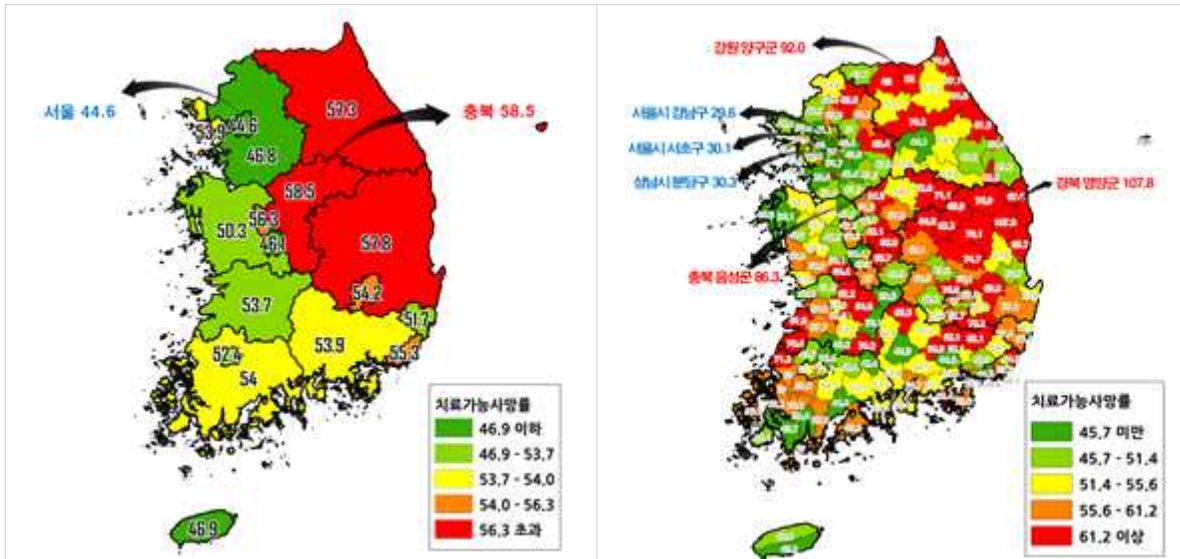
-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2017)」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충청북도가 58.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이 44.6로 가장 낮음
- 치료 가능 사망률은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고려했을 때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통해 피할 수 있는 원인에 의한 사망률로서 인구 십만 명당 사망자 수로 나타냄

〈표 III-6-19〉 시도별 치료 가능 사망률(2015년 기준)

지역	영국 통계청(2016) 산출기준	Nolte and McKee(2012) 산출기준
전국	69.3	50.4
서울	59.1	44.6
부산	75.2	55.3
대구	76.2	54.2
인천	74.5	53.9
광주	75.2	52.4
대전	66.8	46.1
울산	69.4	51.7
세종	74.3	56.3
경기	65.9	46.8
강원	80.7	57.3
충북	77.2	58.5
충남	68.3	50.3
전북	71.3	53.7
전남	75.0	54.0
경북	78.3	57.8
경남	74.0	53.9
제주	58.8	46.9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2017

- 이는 시도 간의 의료체계 불균형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도권과 대도시로 의료자원이 집중됨
-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따르면, 시·군의 치료 가능 사망률은 69%로 전국 평균(50.4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이 수도권에 비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을 의미함



자료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2018

〈그림 III-6- 7〉 시·도 및 시군구 치료 가능 사망률(2015년 기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 돌봄 필요 계층 증가

- 인구구성의 다층화는 복지 수요의 다양화로 이어져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및 재원 투입의 증가를 불러옴
- 특히 장애인, 노인, 다문화 인구와 같이 사회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예방 중심의 개입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절감이 요구됨

□ 의료시설 및 인력의 편차와 병원 관련 낮은 보건 인프라 수준

- 시군 지역 간의 의료자원 분포의 불균형으로 분만 및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존재하고, 의료접근성의 문제가 지속됨
- 2018년 충청북도의 의료 인력은 의사 2,472명, 치과의사 611명, 한의사 618명, 간호사 4,382명, 약사 1,093명, 물리치료사 1,194명, 작업치료사 164명, 사회복지사 120명 등 10,654명으로 조사됨
- 충청북도의 보건 의료 인력은 충청남도, 강원도, 전라북도 등과 비교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6-20〉 2018년 시도별 의료 인력 현황

지역	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 치료사	작업 치료사	사회 복지사
전국	430,795	102,471	25,792	20,759	195,314	37,837	38,015	6,807	3,800
서울	107,232	29,378	7,175	4,816	47,763	9,106	7,352	1,139	503
부산	34,495	7,852	1,739	1,655	16,696	2,701	2,912	579	361
대구	23,401	5,721	1,313	1,103	10,541	2,027	2,018	499	179
인천	22,173	4,893	1,250	945	10,355	1,856	2,181	464	229
광주	16,467	3,547	978	697	7,990	1,238	1,564	280	173
대전	14,586	3,629	841	728	6,274	1,247	1,433	321	113
울산	8,218	1,726	502	404	4,003	701	692	111	79
세종	973	270	111	99	171	167	146	2	7
경기	86,060	20,355	5,549	4,226	36,593	8,487	8,203	1,791	856
강원	11,373	2,661	649	508	5,509	987	856	119	84
충북	10,654	2,472	611	618	4,382	1,093	1,194	164	120
충남	13,168	3,114	893	810	5,284	1,409	1,320	183	155
전북	16,297	3,619	909	928	7,329	1,411	1,653	261	187
전남	16,040	3,086	744	801	8,051	1,281	1,740	140	197
경북	18,267	3,619	917	985	8,921	1,598	1,785	202	240
경남	26,074	5,392	1,338	1,213	12,862	2,076	2,440	474	279
제주	5,317	1,137	273	223	2,590	452	526	78	38

자료 : KOSIS(국가통계포털), 시도별 의료 인력 현황, 2018

□ 응급의료기관 및 음압병실 부족

- 응급진료 시 병실 부족, 중환자실 부족 등의 의료 인프라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감염병에 대비한 음압병실, 병상은 전국적으로 절대적 수치로도 부족(코로나19 확진자 수 고려 시)하다고 판단됨
 - 충청북도 인구가 전국의 3.08%인 점을 고려할 때 음압시설은 2.1% 밖에 없음
- 공공의료기관의 격리실 현황은 음압병실 7개에 13병상이며 음압 기계는 없음
- 단순 평균으로 환산 시 17개 시도에 각각 19.8개, 36.5병상이 필요하다고 볼 때 충청북도는 상당히 미달

〈표 III-6-21〉 공공의료기관 격리실 현황

(단위: 개)

구 분		음압공조		음압기계		비음압	
		병실	병상	병실	병상	병실	병상
전국	2015	203	499	33	58	145	418
	2018	336	620	47	66	164	480
충청북도	2015	7	13	0	0	9	37
	2018	7	13	0	0	7	33
		2.1	2.1	-	-	4.3	6.9

주 : 세종시 포함

○ 2017년 충청북도의 병상확보율은 1.36%로 충청남도(1.36%)와 같으며, 전라북도(2.07%)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6-22〉 2017년 시도별 의료기관 병상수 현황

지역	병원수	병상수	병상확보율
서울	17,142	86,800	0.86
부산	5,054	70,531	2.00
대구	3,664	36,327	1.45
인천	3,201	34,676	1.15
광주	2,062	39,073	2.63
대전	2,178	21,064	1.39
울산	1,346	15,243	1.29
세종	300	1,295	0.46
경기	14,106	129,793	0.98
강원	1,588	17,918	1.14
충북	1,762	22,152	1.36
충남	2,334	29,585	1.36
전북	2,409	38,929	2.07
전남	1,987	65,127	3.28
경북	2,774	43,712	1.59
경남	3,582	61,221	1.77
제주	827	4,699	0.69

자료 : KOSIS(국가통계포털), 시도별 의료 인력 현황, 2017

2) 여건분석 및 전망²³⁾

Ⅰ SWOT 분석

- 충청북도는 보건 관련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중앙부처가 오송에 위치해 있어, 공간적·시간적 근접성으로 인한 공중보건 정책 수립 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용이함
- 청주 오창지역의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유치 및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을 통해 보건안전산업 육성 및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음

〈표 III-6-23〉 SWOT 분석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 의료사업 확대 추진 및 증가하는 병원 및 병원 수 •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공중보건 위기관리 관련 중앙정부 위치 •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등 의료산업 관련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한 건강 관련 지표 • 지역 간 의료시설 및 인력의 불균형 • 응급의료시설의 부족 • 공공의료기관 부족 및 낮은 접근성 • 도시 및 농촌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기회(O) ⇒ 포착	위협(T) ⇒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의료기술 발전 • 감염병 예방에 대한 인식 확대 •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유치로 인한 보건의료 관련 산업 육성 용이 •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위험 증대 • 농촌지역 고령화 및 도시 유입으로 인한 지역 간 인구 격차 •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발생 위험 증대

Ⅱ 여건전망

□ 공중보건 패러다임의 변화

- 현대의 공중보건 패러다임은 과거 질병 중심의 보건정책 관점에서 지역특성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
- 이는 기존 공중보건 의료체계가 공공보건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 정부 주도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주도의 민관협력의 공중보건 거버넌스 체계 전환을 의미함

□ 지역사회기반 돌봄 서비스 제공 확대

- 커뮤니티 케어는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임

23) 여건 분석 및 전망은 2019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수행한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중기 발전방안 수립연구」 보고서를 인용하였음을 밝힘

- 격리된 대형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주하는 것이 고립이 아닌 좋은 삶이 되도록 보건의료, 요양 등의 서비스가 사람에게 맞추어 유기적이고 유연하게 작동하여 사회적 약자를 지역사회가 포섭하는 치료적인 지역사회 즉, 지역사회가 곧 긍정적 상호작용의 공간을 조성해야 함

□ 원격의료를 통한 의료접근성 제고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가속화 및 원격의료 발달에 따라 의료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 ICT 기술과 헬스케어 산업의 융합을 통한 의료기술 향상 및 인력 기반 보건복지서비스에 로봇 및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복지와 기술 결합 확산

□ 고령화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

-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및 돌봄 비용의 증가, 빈곤율의 증가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의문 제기
- 충청북도 고령화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예방적인 차원의 건강관리 강화 필요

〈표 III-6-24〉 노인의료비용

구분	2016년	2025년
노인진료비 (건강보험지출 비중)	25조 원(38.7%)	58조 원(50.8%)
노인 의료급여비 (의료급여지출 비중)	3.1조 원(46.3%)	5.7조 원(51.5%)
치매 관리비용 (GDP 대비)	13.6조 원(0.83%)	34.3조 원(1.8%, '30)

자료 :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 2018.11.20

□ 의료서비스의 지역별 격차 심화

- 민간부문에서 운영하는 병·의원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 논리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수요가 적은 농촌지역은 병·의원 유치가 어려움
-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으로 인하여 지역별 인구격차가 더욱 벌어져,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 수준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됨
- 이에, 공중보건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추진과제

□ 지역사회 기반 돌봄 서비스 확대 및 지역 간 의료불평등 해소

- 민간부문에서 운영하는 병·의원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 논리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 수요가 적은 농촌지역은 병·의원 유치 어려움 가중
-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으로 인하여 지역별 인구격차가 더욱 벌어져,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 수준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
- 보은군, 영동군,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등의 지역은 종합병원이 없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함
 - 공중보건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 스마트 로봇을 활용한 취약계층 돌봄 지원
 -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 돌봄 서비스 확대
 - 취약지역 국립대학병원 및 지방의료원 분산설치, 보건소·지소 확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대, 남북부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취약지역 의료접근성 향상 및 공공성 확보
 - 지역거점병원(충북대병원) 및 종합병원(지방의료원)과 지역 병·의원 간의 환자 의뢰·회송, 진료정보 교류 등 광역-기초(종합병원-병·의원) 의료서비스 협력체계 구축·확대

□ 고령자 안심사회 인프라 구축

- 충청북도 내 시설 수가 타 지역에 비해 적은 편은 아니나 시설 평균 이용률에서는 지역별 큰 편차를 갖고 있어 요양 인프라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 제기
- 노인주거·여가복지시설의 지역적 편중 극복과 조정 필요
 -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가족이나 친척 등으로부터 연락이나 소식 단절을 겪거나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배제되는 독거노인, 사별 노인 등에 대한 사회적 보호 확충
 - 노인 인구의 우울, 고독사, 자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공동 주거시설 확충
- 노인주거복지시설 수와 현원에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충주시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이 9개소로 가장 많고, 괴산군에는 시설이 전무, 또한 노인복지주택도 도내에는 미설치
- 경로당에 집중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은 2012년 대비 2017년 137개소 증가
 - 경로당을 세대 간 다기능 복합문화공간 활용

□ 권역별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권역별 책임 의료기관 지정 및 권역 내 민간 병·의원 간 협력체계 구축
 -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 의료,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재활, 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 정신, 장애인), 감염 및 환자안전 등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의 지역별 의료기관 분포에 따른 권역의 세분화 및 재조정 등 실시
- 보건 인프라가 낮은 의료 취약지역 공공병원의 기능보강 필요
 - 공공보건의료의 책임성 및 공공성 확보와 공공의료의 기능 강화

□ 공공보건 의료기관 역량 제고

- 2018년 충청북도의 의료 인력은 의사 2,472명, 치과의사 611명, 한의사 618명, 간호사 4,382명, 약사 1,093명, 물리치료사 1,194명, 작업치료사 164명, 사회복지사 120명 등 10,654명으로 조사
- 충청북도의 보건의료 인력은 충청남도, 강원도, 전라북도 등과 비교해 낮음
- 2017년 충청북도의 병상 확보율은 1.36%로 충청남도(1.36%)과 같으며, 전라북도(2.07%)에 비해서는 낮음
 -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의료 인력 및 장비 확보
 - 공공보건 의료기관 간의 의료 격차 해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 의료서비스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공중보건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확대

- 민간병원의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이 어려울 경우 공공의료 서비스 공급의 차질이 발생
- 이에 공공병원 설립 및 확충이 필요하며, 보건 인프라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공공병원 설립 및 역량 강화 사업 추진

□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위기 대응과 현장지휘를 위한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직화된 지원 제공과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현장의 대응능력 향상 추진
 - 충청북도 감염병 관리지원단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7월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로 공중보건위기대응 전문조직을 확대(충북대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 중)
- 감염병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음압병실 및 병상 확대, 감염병 위기 대응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

□ 공중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자원 확충

- 코로나19와 같이 지역사회 감염을 일으킬 경우 감염 환자를 수용하기에는 충청북도 의료기관 내 격리실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예방적 차원에서 병실확보 필요
 - 지역사회 감염 대응을 위한 음압병실 및 병상 확대
- 신종인플루엔자 H1N1, 사스, 메르스, COVID-19 등 신종감염병의 대비와 감염병 발생 및 확산에 따른 위기관리 단계별 신속한 의사결정 및 검역·방역 활동 등에 필요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
 - 민·관·학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현장 중심적 위기관리체계의 유연성 및 전문성 확보
- 감염병관리지원단, 건강사업지원단 등 각종 도 및 시군에 설치된 지원단과 연계한 공중보건 위기 관리 정책의 체계적 지원 및 추진을 위한 조직 필요
 - 공중보건 위기대응지원단 설치

□ 의료기관 간 의료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

- WHO, GHSA 등 보건 관련 국제기구의 정보를 취합하여 감염병 발생 및 확산 경로 파악, 확산 예방 등 선제적인 감시 및 검역 체계 강화 시급
 - 감염병 전파는 사람의 해외 출입뿐만 아니라 공기와 물, 동물 등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접 지역 간 감염병 감시 네트워크 구축
-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최종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까지 신속한 이송체계를 구축하여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필요뿐만 아니라 도민의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 간 진료 및 건강 정보 교류 필요
 - 충청북도 의료서비스 협력 및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사업

□ 감염병 위기대응 자원의 동원 계획 수립 및 확보

- 현재 충청북도 내에서 병·의원의 의료인력 수, 치료제 물량, 병상 수 등 파악을 통한 대규모 감염 및 확산사태 대비 부족한 인력 및 물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인접지역의 병원과의 협력 체계 구축 필요
 - 도 내 대학의 의학과, 간호학과 등과 비상협조체계 마련을 통한 대규모 감염 발생 시 신속한 자원 동원 체계 마련

□ 공중보건지수 개발을 통한 체계적 지역사회 건강관리

- 충청북도의 공중보건활동을 진단하고 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건강 지수를 개발·활용 필요
 - 충청북도 공중보건지수 개발 및 활용

〈표 III-6-25〉 선제적 예방중심의 보건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사업

전략명	과제명	단기 (21~25)	중기 (26~30)	장기 (31~40)	비고
선제적 예방중심의 보건안전환경 조성	1. 충북 의료서비스 협력 및 정보공유시스템구축				
	2. 권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사업				
	3. 감염병 위기대응 클러스터 조성				
	4. 음압병실 및 병상 확대				
	5. 공중보건 위기대응지원단 설치				
	6. 충북 공중보건지수 개발 및 활용				
	7.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8. 남북부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9. 충주의료원 뇌신경(심뇌혈관)센터 설치				
	10. 남부권 거점 공공보건의료기관 설치				
	11. 장애인 복지관 신축				
	12.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13. 소방가족치유힐링센터 유치				
	14.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				

〈표 III-6-26〉 선제적 예방중심의 보건안전환경조성을 위한 시군계획지침

※ 시·군 계획지침

- 시·군은 인구구조 및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 공급계획을 수립한다.
- 시·군은 장애인, 고령자, 여성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한다.
- 시·군은 지역주민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보건복지사업을 개발한다.
- 시·군은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관과의 연계·협력 방안을 적극 활용한다
- 시·군은 인구구조 변화 및 행·재정적 여건으로 인해 개별적 사업 수립·집행이 어려운 경우 인접 시·군과 연계하여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 공동활용방안을 강구한다.
- 시·군은 의료기관 유형별 기관수 및 병상수, 의사·간호사·약사 등 의료인력, 입원환자 등 보건의료실태 조사계획 또는 공중보건 의료서비스 수요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 시·군은 지역별 특성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시·군은 지역 보건소의 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한다.
- 시·군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 등 공중보건 위기 발생을 대비한 타 시·군과 연계 및 통합 대응계획 수립, 공동 집행 방안 등을 강구한다.

제3절 ▶ 세대통합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

1) 현황 및 문제점

Ⅰ 현황

□ 인구 현황

○ 영유아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영유아인구는 2010년 5.5%에서 2019년 4.4%로 1.1%p 감소함
- 반면, 노인인구는 2010년 13.2%에서 2019년 17.1%로 3.9%p 증가함

〈표 III-6-27〉 영유아 및 노인인구

(단위 : 명, %)

충북		2010년	2015년	2019년
전체 인구(A)		1,549,528	1,583,952	1,600,007
0-5세	인구(C)	85,391	84,670	70,938
	비중	5.5	5.4	4.4
65세 인구	인구(C)	204,470	234,813	273,425
	비중	13.2	14.8	17.1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년도

○ 외국인 주민의 자녀 수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학생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

- 2019년 초등학교 수 4,110명, 중학생 수 918명, 고등학생 수 475명으로 학생 수는 증가하나,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감소함

〈표 III-6-28〉 다문화 자녀 및 학생 수

(단위 : 명)

구분	2017	2018	2019
다문화 자녀	8,381	8,963	10,047
다문화 학생	2013년	2015년	2019년
계	2,113	3,389	5,627
초	1,456	2,316	4,110
중	476	581	918
고	130	367	475
기타	51	125	124

자료 : 통계청,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각 년도

○ 2016년 대비 등록장애인 수는 2,398명, 기초수급권자 수는 5,361명으로 각각 증가한 반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감소함

〈표 III-6-29〉 충청북도 취약계층인구 현황 (2016, 2018년)

(단위 : 명)

구 분	등록장애인	기초수급	의료급여
전국(2018)	2,585,876	1,743,690	1,484,671
충청북도(2016)	94,688	53,748	50,581
충청북도(2018)	97,086	59,109	48,443

자료: 통계청, 장애인현황 시도별, 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 성별 등록장애인 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시도), 연령별 성별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 2016, 2018

□ 건강수명

○ 충청북도의 건강수명은 65.6세, 소득수준 간 건강수명 격차는 11.4년

- 소득 상위 20%의 건강수명은 70.3세, 소득 하위 20%는 58.9세
- 소득수준 간 건강수명 격차는 전국 17개 시도 중 10번째로 큼



자료 : 한국건강형평성학회, 2018

〈그림 III-6- 8〉 광역시도 건강수명 나이(남녀전체, 2008~2014)



자료 : 한국건강형평성학회, 2018

〈그림 III-6- 9〉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집단 간 건강수명 격차(남녀전체, 2008~2014)

□ 사회복지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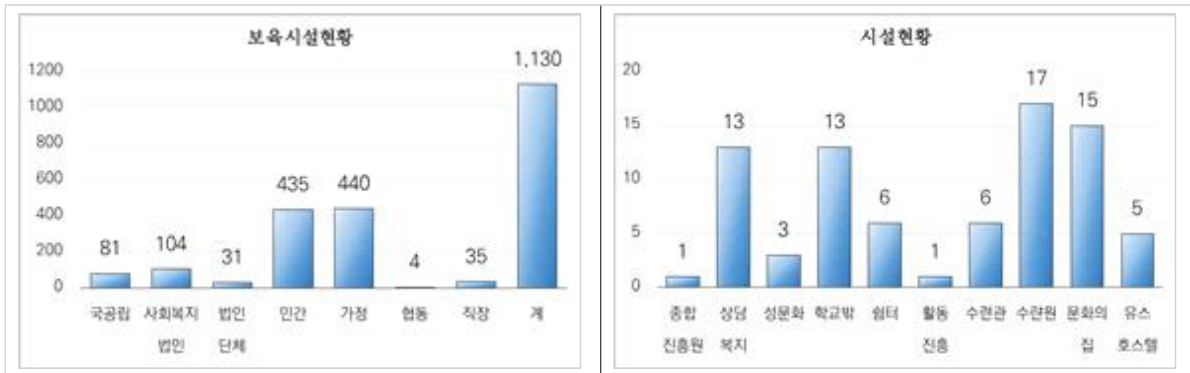
- 평생교육기관은 128개로 전국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나, 향후 저출산 고령화, 다수의 기술 혁신, 사회변화 등으로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현재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 8개 시·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음
- 평생학습도시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8 평생교육통계자료집, 2018

〈그림 III-6-10〉 2018년 시도별 평생교육기관 수 현황

- 보육시설은 1,130개소이며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이 77.3%, 법인어린이집 9.2%, 국공립어린이집 7.2% 순으로 많음
- 청소년시설은 수련원 17개소, 문화의 집이 15개소,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각각 13개소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I-6-11〉 보육 및 청소년시설 수

- 장애인시설은 거주시설이 91개소로 가장 많으며 지역사회재활시설 57개소, 직업재활시설 27개소의 순으로 많음

〈표 III-6-30〉 장애인복지시설

(단위 : 개소)

계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생산품판매시설
177	91	57	1	27	1

자료 : 충청북도 내부자료



- 노인복지시설은 여가복지시설이 4,154개소, 의료복지시설 283개소의 순으로 높음. 이중 경로당이 4,129개소로 여가복지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함

〈표 III-6-31〉 노인복지시설

(단위 : 개소)

계	재가노인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주거 복지시설
4,559	85	4,154	283	37

자료 :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2019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현황

- 노인인구 천 명당 여가복지시설은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노인인구 증가 속도가 시설 증가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임
 - 전국은 2015년 6.86개소에서 2018년 6.08개소로 0.78개소 감소하였으며, 충청북도는 2015년 12.46개소에서 2018년 10.95개소로 1.51개소 감소함

〈표 III-6-32〉 노인여가복지시설

(단위 : 개소)

2015		2016		2017		2018	
전국	충청북도	전국	충청북도	전국	충청북도	전국	충청북도
6.86	12.46	6.59	11.96	6.31	11.43	6.08	10.95

자료 : 통계청, e-지방지표

□ 주거 현황

- 일반가구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2018년 일반가구 수는 640,978가구로 2015년에 비해 6.5% 증가함
- 2인 이하 소인 가구의 증가세가 뚜렷함
 - 2015~2018년 사이 1인 가구는 17.6% 증가, 2인 가구는 9.8%, 3인 가구는 2.0% 증가함
 - 1인 가구 및 2인 가구가 일반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각각 28.8%, 27.8%에서 2018년 31.8%, 28.6%로 증가함

〈표 III-6-33〉 거주인수별 가구수

(단위 : 가구)

구분	일반가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 이상 가구
2015	601,856	173,598	167,146	120,634	100,527	30,110	7,428	2,413
2016	617,914	187,377	170,184	121,917	99,555	29,534	7,075	2,272
2017	629,073	195,186	176,617	122,463	97,422	28,487	6,737	2,161
2018	640,978	204,109	183,501	123,042	94,970	27,286	6,166	1,904

자료 : 국가통계포털, 주택총조사, 각 년도

○ 빈집(空家)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2018년 빈집은 74,757호로 2015년 54,884호에 비해 36.2%(19,873호) 증가하였고, 연평균 6,600호 증가
- 주택 종류별로 보면 아파트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 2018년 아파트에서의 공가는 2015년 32,595호에 비해 44.9%(14,636호) 증가한 47,232호로 이는 동기간 빈집 증가량의 73.6%를 차지함

〈표 III-6-34〉 주택 종류별 빈집 현황

(단위 : 호)

구분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2015	54,884	14,882	32,595	2,580	3,766	1,061
2016	56,014	16,891	31,920	2,503	3,706	994
2017	60,881	17,913	35,254	2,756	4,095	863
2018	74,757	18,783	47,231	3,085	4,501	1,157

자료 : 국가통계포털, 주택총조사, 각 년도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2016년 5.4%에서 2017년 4.3%로 1.1%p 감소하는 추세임

〈표 III-6-35〉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단위 : %)

구분	2016	2017	2018
전국	5.4	5.9	5.7
충청북도	5.4	4.3	-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I 문제점

□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시설 부족

-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나 경로당 위주로 시설 구성이 다양하지 않으며 노인일자리 기관의 경우 미설치 지역도 있어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함
- 부모들의 국공립시설 선호에 비해 시설은 어린이집의 8.2%에 불과하여 수요에 부합하는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가 부족함
- 장애인복지시설 중 보호작업장이 발달하였으나 도 내 미설치된 지역이 있으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센터 등이 설치되었으나 평생교육시설은 전무함

□ 정부 복지정책 기조를 반영한 복지시설 부족

- 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도 내 사회복지시설의 대부분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어 공공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방향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함
- 포용 정부의 아동정책은 놀이권을 강조하고 있으나 장애아동, 비장애아동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지역 내 종합시설은 거의 없음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을 위한 소규모 공간 확충을 장려하고 있으나 소규모 시설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문화의 집, 수련관 등도 부족하며 도를 대표하는 청소년 복합문화시설도 없음

□ 빈집 증가 및 최저기준 미달가구의 주거권 보장

- 빈집은 지역의 경관과 안전, 커뮤니티 붕괴가 나타날 수 있어서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함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안전 및 화재 위험, 위생 불량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필요

2) 여건분석 및 전망

Ⅰ SWOT 분석

- 보편적인 사회복지정책 확대와 함께 복지에 대한 공공의 책무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개방성이 증가하고 생산가능인구로서 외국인 유입의 필요성이 증가함
-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의 부족으로 선제적, 예방적 투자가 부족하며 인구감소에 따라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함

〈표 III -6-36〉 SWOT 분석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에 대한 공공의 책무성 증가 • 치매 및 노인복지에 대한 높은 관심 • 생산가능인구로서 외국인 증가 • 도 내 8개 시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 주택의 절대적 물량 부족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 부족 • 복지에 대한 예방적, 선제적 투자 부족 • 취약계층 증가에 따른 주거안정성 및 안전망 부족 • 평생학습 연계체계 및 참여 여건 미흡 • 빈집의 증가에 따른 안전 위험성 증가
기회(O) ⇒ 포착	위협(T) ⇒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감소에 따른 투자의 효율화 • 평생학습 및 건강증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 보편적 사회복지정책 확대 •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개방성 증가 •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등 사회복지비용 증가 •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유향화 가능성 • 삶에 대한 불안정성 확대 및 사회의 양극화 고착 • 주택시장 불안정성 증가에 따른 주거비 부담 증가

Ⅰ 여건전망

□ 사회적 위험 심화

- 공유경제와 휴먼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임금 고용형태가 줄어들고 자영업 및 특수 고용 형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구조 변화를 통해 복지 이슈를 야기할 것임
- 빈곤, 질병, 노령, 실업과 같은 구사회적 위험과 함께 양극화, 가족해체, 일·가정 양립, 새로운 질병 등과 같은 신사회적 위험이 등장
- 탈산업화, 4차 산업혁명 등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저출산 고령화 등의 환경하에 위험이 중첩되고 불확실성이 심화될 것임



□ 사회복지비용 증가

- 사회적 취약계층 및 중앙정부 매칭사업 증가에 따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 특히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및 돌봄 비용의 증가, 빈곤율의 증가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 제기
- 충청북도 고령화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예방적인 차원의 건강관리 강화 필요

〈표 III-6-37〉 충북 예산 및 사회복지 예산 추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고 (증가율)
충청북도 총 예산 (억 원)	32,157.1	33,266.9	34,479.5	37,151.9	40,479.1	5.92%
사회복지예산 (억 원)	10,291.5	10,658.7	11,369.3	13,128.3	14,682.5	9.29%
점유율(%)	32.0	32.04	32.97	35.34	36.72	

자료 : 충청북도 홈페이지

□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

- 사회서비스 제도화 과정에서 재원조달은 국가가 담당하되 다수의 서비스 공급자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을 지향하였고, 이는 공급자보다 수혜자의 권리를 중요시하며 수요자들의 분화된 욕구를 선택이라는 행위로 만족시킬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서비스 생산자 간의 과잉 경쟁, 수혜자를 도구화하는 경향,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 하락에 봉착하였음
- 이에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 생산, 전달하는 전 과정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강조하고 공공이 보편적 복지로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 지역발전 지속가능 성장기제로서 평생학습 부각

- 인생 3모작이 이미 사회에서 통념화되었으며, 평생학습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확산됨
- 평생학습은 개인의 다양성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역동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함



자료 : OECD 대한민국 대표부, OECD 2018 새로운 고용전략 주요 내용, 2018

〈그림 III-6-12〉 새로운 고용전략의 프레임워크 2

□ 소인(少人)가구 증가 및 신규주택 수요 감소

- 소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진전에 따라 중소형 주택의 수요와 함께 고령자 전용 주택 등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됨. 공가 및 주택 재고, 주택공급량 관리의 필요성 증대
- 인구증가율 감소, 가구증가율 둔화, 저성장 등의 영향으로 중장기적 측면에서의 신규 주택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택교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3) 추진과제

□ 생애주기별, 대상별 사회복지 총량 확대

- 충청북도 어린이집 수는 2010년 1,112개소에서 2017년 1,186개소로 74개소 증가하였으며 이 중 민간어린이집이 41개소로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과 기타 법인/단체 등의 어린이집 수는 다소 감소
- 이용률은 설립주체별로 가정보육시설 이용률이 88.4%로 가장 높고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이용률이 71.2%로 가장 낮으며, 가정, 부모협동, 직장어린이집의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
-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최근 공보육(국공립+법인+직장어린이집) 이용률 40%(2021년)로 목표 전환
 - 2019. 12월 말 기준 충청북도의 공보육시설은 19.5%이며 이용률은 전체 이용 아동의 29.3%로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40%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제고
- 아동은 놀이를 통해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개발함. 놀이공간은 인지발달의 장소로써 가치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키즈카페 이외 유아들을 위한 공간은 부족하고, 장애아동이 놀 수 있는 곳은 더더욱 없음
- 현재 아동이 이용하는 놀이터는 장애아동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로 누구나 공평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칙을 적용한 통합놀이터 조성 필요
 - 장애 유무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온전히 참여하여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 구축
- 충청북도의 청소년역량지수는 향상되고 있으나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청소년을 위한 높은 관심 요구
- 청소년복지의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충청북도 청소년 종합진흥원은 재단도 민간도 아닌 직영체제로 사무국 없이 비상근 원장 1인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복지의 구심점 역할이 어려움
- 현재 광역단위에서 청소년복지재단이 없는 지역은 충청북도가 유일
 - 청소년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청소년복지재단 설립
- 청소년기 진로탐색, 문화활동, 예술활동, 어울림 등 다양한 경험은 미래 진로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 기반
 - 협력과 협업을 통해 사회성을 키우고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며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소통과 공유의 장을 위한 청소년 복합문화타운 건립
- 기존 노인과 비교해 건강하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경제적으로 자립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인구구조의 변화는 본격화
 - 충분한 은퇴준비가 없을 경우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건강한 노후설계와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60+ 교육센터 운영
- 충청북도는 2016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2019년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개소하는 등 발달장애인에 대해 지원 지속
- 발달장애인은 낮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등 지역사회와 고립된 상황으로 생애주기에 맞춘 평생 교육을 통해 배움의 기회와 돌봄을 제공받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발달장애인이 자립생활실천, 자립역량증진, 자립생활계획을 통해 가능성을 실현하며 지역사회와 통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시설 마련
- 노인 시기 가장 필요한 주거와 의료(돌봄)서비스를 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활동적인 노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노인복지 중 가장 중요
- 충청북도는 2021년까지 제천시 90가구, 영동군 208가구 건립 예정이며 보은군은 100가구 입주 완료
- 실버타운과 같이 입주금이 많이 드는 시설은 노인주거취약계층이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공공에서 무장애시설, 경로식당 및 건강여가시설 등을 포함한 노인거주시설 구축 확대

□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기능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
-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주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의 포괄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1차 보건의료기관 필요
-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동아리,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한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 가능한 곳으로 기 설치된 음성혁신도시와 제천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으로 확대
-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영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정책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20대 국정전략으로 추진하며 2025년까지 제공기반 구축하여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충청북도는 현재 진천군 1곳에서 추진 중
-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등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복지시설, 치매안심센터, 의료기관, 간호 인력 등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커뮤니티 케어 구축
- 인구구조의 변화,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비공식적 돌봄은 사회화
-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용에 따른 공급을 시장에 맡김으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증대시킴
-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의 컨트롤타워인 충북 사회복지서비스원 건립

□ 디지털 기술 기반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 독거노인 및 장애인의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돌봄 제공인력 부족 예상
- 과학기술의 발전, 비대면 서비스의 확충에 따라 돌봄서비스 제공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비대면 생활 속에서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 최소화
 - AI 기술 기반 돌봄 프로그램을 통해 독거노인의 일상을 지원하고, 정서적 건강을 증진하며 위급 시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등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는 스마트 로봇을 활용한 취약계층 돌봄 지원
- 빈집은 도심 미관을 저해하고 청소년들에게는 탈선의 장소로, 노숙자에게는 무단 점거 장소로 이용되는 등 많은 문제점 노출
- 빈집으로 인해 열악해지는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우범화를 방지하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에 활력 제공
 - 빈집 소유자와 수요자를 연결해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뱅크 운영
- 전 생애에 걸쳐 학습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역 인재 양성과 도민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플랫폼 및 정책 전달체계 구축 필요
- 언택트 시대에 맞는 ICT를 적극 활용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미래 ICT 기반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과 온라인 기반의 평생학습 접근성을 강화하여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평생학습체계 구축

〈표 III-6-38〉 세대통합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사업

전 략 명	과 제 명	단기 (21~25)	중기 (26~30)	장기 (31~40)	비고
세대통합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	1. 국공립어린이집 (이용)확대				
	2. 통합어린이 놀이터 설치				
	3.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4. 청소년 실내스포츠 복합놀이시설 조성				
	5. 60+ 교육센터 운영				
	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강화				
	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8. 보건-복지 연계 커뮤니티 케어 체계 구축				
	9.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취약계층 돌봄 지원				
	10. 빈집뱅크제 운영 및 사회주택 공급				
	11. CB-MOOC 스마트 평생학습시스템 운영				
	12. 청소년 소규모 이용시설 확충				
	13. 고령자 맞춤형 주택 공급				
	14. 치매전담형시설 확충				
	15. 충북 사회서비스원 건립				
	16. 생애전주기 인재·교육지원 플랫폼 구축				
	17.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				
	18. 청소년 복지타운 조성				
	19. 국민체육건강센터 건립사업				
	20. 여성친화도시 지정 및 조성				
	21. 복지회관 건립사업				
	22. 올누림 행복가족센터 건립				
	23. 추모공원조성(장사시설)사업				

〈표 III-6-39〉 세대통합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시군계획지침

※ 시·군 계획지침

- 시·군은 지역산업 여건 및 인구구조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요 맞춤형 교육·일자리 계획을 수립한다.
- 시·군은 교육·일자리 분야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 지역과의 자율적인 연계·협력 방안을 우선 강구한다.
- 시·군은 행·재정적 여건으로 개별적 사업 수립·집행 추진이 어려운 경우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제Ⅳ편

계획의 집행과 관리

제1장 행·재정계획

제2장 투자·자원조달 계획

제Ⅳ편 계획의 집행과 관리

▶ 제 1 장

행·재정계획

제1절 행정영역

제2절 재정영역



제1장 행·재정계획

제1절 행정영역

1) 현황 및 문제점

I 현황

□ 행정구역 현황

- 충청북도의 행정구역은 3시(청주, 충주, 제천), 8군(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이며, 3시 8군에 16개 읍, 86개면, 51개 행정동(법정동은 136개) 등으로 구성하고 있음
- 충청북도는 1949년 1시 10군의 행정체제에서 충주시와 제천시가 승격되어 3시 10군으로 변화하였으며, 1995년 시군통합에 따라 충주(증원군)와 제천(제원군)이 통합되었고, 2003년 증평군이 괴산군으로부터 분리되었으며, 그 이후 2014년에 주민에 의해 청주·청원군이 자율 통합함으로써 현재의 3시 8군의 행정체제가 되었음

〈표 IV-1- 1〉 충청북도 행정구역 현황

구분 시군	시·군·구(개소)				읍·면·동(개소)				통·리·반(개소)			면적 (km ²)	세대수 (세대)	인구 (명)
	계	시	군	일반 구	계	읍	면	동	통	리	반			
계	11	3	8	(4)	153	16	86	51	1,951	3,024	20,091	7,406.81	722,123	1,600,007
청주시	1	1		(4)	43	3	10	30	1,154	628	7,589	940.83	360,496	839,566
상당구	(1)			(1)	13		5	8	296	169	1,831	404.36	73,870	178,352
서원구	(1)			(1)	11	1	2	9	326	75	1,751	122.63	87,148	203,209
흥덕구	(1)			(1)	11	2	2	8	353	139	2,315	198.80	114,477	262,137
청원구	(1)			(1)	8	1	1	5	179	245	1,692	215.04	85,001	195,868
충주시	1	1			25	1	12	12	448	353	3,259	983.48	95,648	210,737
제천시	1	1			17	1	7	9	349	157	2,251	883.42	63,417	134,617
보은군	1		1		11	1	10			248	844	584.21	16,684	32,949
옥천군	1		1		9	1	8			224	995	537.22	24,004	51,023
영동군	1		1		11	1	10			231	865	846.02	24,509	48,738
증평군	1		1		2	1	1			109	444	81.80	17,283	37,392
진천군	1		1		7	2	5			304	941	407.30	37,213	81,084
괴산군	1		1		11	1	10			282	883	842.19	21,256	39,163
음성군	1		1		9	2	7			336	1,317	520.18	46,402	94,982
단양군	1		1		8	2	6			152	703	780.16	15,211	29,756

자료 : 충청북도 홈페이지



□ 충청북도 공무원 현황

- 충청북도 공무원수는 2010년 12,119명에서 2015년 13,074명, 2018년 13,360명으로 2010년 대비 2018년에 10.2% 증가하였으며, 공무원 1인당 도민수는 2010년에 127.9명에서 2015년 120.8명, 2018년에 119.8명으로 감소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개선됨

〈표 IV-1- 2〉 충청북도 공무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도본청	의회 및 직속기관	시·군·구	읍·면·동	소방서	공무원1인당 도민수
2010	12,119	958	630	6,945	2,280	1,306	127.9
2014	12,814	1,029	709	7,307	2,299	1,470	123.2
2015	13,074	1,055	706	7,493	2,293	1,527	120.8
2016	13,185	1,066	711	7,557	2,324	1,527	120.7
2017	13,471	1,131	697	7,695	2,392	1,556	118.2
2018	13,360	1,166	718	7,942	2,437	1,097	119.8

자료 : 충청북도 통계연보, 2019(2018년 기준)

□ 충청북도 민원 현황

- 2012년 민원처리 건수는 7,194,668건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에 2,771,291건에 이르렀으나, 2018년에 4,194,134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민원처리는 확인증명/교부 민원이 가장 많으며, 그다음으로 신고·등록 민원, 인·허가 민원, 승인·지정 민원 순으로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다소 대부분 민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표 IV-1- 3〉 충청북도 민원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인·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신고·등록	시험·검사	확인증명/교부	고충민원	기타
2012	7,194,668	61,337	1,540	33,450	754,451	63,239	5,738,449		542,202
2013	7,080,659	51,861	872	32,453	775,189	102,143	5,509,690		608,451
2014	6,080,437	71,600	1,573	45,496	285,039	11,004	5,465,792	2,709	197,224
2015	3,627,512	63,224	1,504	46,854	204,857	16,552	3,017,511	18,185	258,825
2016	2,771,291	67,127	1,456	44,347	215,905	16,651	2,197,296	17,454	211,055
2017	3,661,144	71,955	1,409	36,708	252,636	17,078	3,101,112	2,317	177,929
2018	4,194,134	64,570	1,401	50,807	256,437	17,339	3,564,255	2,396	236,929

자료 : 충청북도 홈페이지

I 문제점

□ 인구구조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행정수요 변화

○ 총인구 감소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인구구성 측면에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 출산율은 1983년 인구의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 2.1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 2010년 1.23명, 2015년 1.24명, 2019년 0.90명으로 전년 대비 0.06명 감소하였으며, OECD 평균인 1.68명에 크게 미치지 못함
 - 인구의 변화는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위기의식으로 확산되며, 226개 시·군·구 중에서 대부분 군 지역은 매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행정수요가 감소함
 - 농촌지역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는 공공서비스 및 인프라 빈약 → 일자리 감소 → 인구 유출 및 고령화 등으로 반복되어 지역의 문제를 심화시킬 것임



자료 : 통계청, 2019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2021.02.26. 보도자료)

〈그림 IV-1- 1〉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1970~2019p)

○ 충청북도의 인구는 1992년 1,403,633명에서 2000년 1,497,513명으로 증가하였고, 2001년에서 2005년까지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2006년 이후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함

- 2000~2017년 사이의 충청북도 인구는 96,919명이 증가하여 연평균 증감률은 0.36% 증가함

□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위축

○ 총인구 감소는 지역의 경쟁력 약화, 사회기반시설의 이용률 저하, 지방재정부담, 노동인력의 감소 등의 문제로 지역공동체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

- 2000~2017년 동안 인구증가지역은 청주시(2.29%), 증평군(0.95%), 진천군(1.22%), 음성군(0.60%)이며, 반면에 충주시(-0.25%), 제천시(-0.47%), 보은군(-1.39%), 옥천군(-0.94%), 영동군(-0.90%), 괴산군(-0.74%), 단양군(-1.63%)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측면에서 지역 내 행정수요를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할 경우 주민들의 불편은 과증될 수밖에 없음

〈표 IV-1- 4〉 2015년 대비 2016년 인구 증감지역

(단위 : 개소)

구분	시(75)	군(82)	구(69)
인구증가	40	29	16
인구감소	35	53	53

자료 : 행정안전부, 행정자치통계연보, 2017

-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권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으며, 시·도 본청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IV-1- 5〉 광역(시·도) 지방정부의 실·국·본부 설치기준

구분		실 · 국 · 본부의 수
서울특별시		16개 이상 18개 이하
광역시	인구 350만 이상 400만 미만	14개 이상 16개 이하
	인구 300만 이상 350만 미만	13개 이상 15개 이하
	인구 250만 이상 300만 미만	12개 이상 14개 이하
	인구 200만 이상 250만 미만	11개 이상 13개 이하
	인구 200만 미만	10개 이상 12개 이하
세종특별자치시		6개 이상 8개 이하
도	경기도	20개 이상 22개 이하
	인구 300만 이상 400만 미만	11개 이상 13개 이하
	인구 200만 이상 300만 미만	10개 이상 12개 이하
	인구 100만 이상 200만 미만	9개 이상 11개 이하

자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다만, 기초자치단체의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는 행정기구는 인구 규모에 따라 상한선을 설정하여 제한함

- 즉, 시·군·구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자율성 측면에 제한을 받고 있음

□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중 증가

○ 2018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에 의하면, 예산 기준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전체 자치단체(243개) 중에서 123개(50.6%)를 나타내고,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단체는 71개 단체(29.2%)로 나타남

〈표 IV-1- 6〉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단체

(단위 : 개)

구분		계	시·도	시	군	자치구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단체	계	243	17	75	82	69
	해결	120(49.4)	17(100.0)	58(77.3)	13(15.9)	32(46.4)
	미해결	123(50.6)	0(0.0)	17(22.7)	69(84.1)	37(53.6)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단체	계	243	17	75	82	69
	해결	172(70.8)	17(100.0)	71(94.7)	26(31.7)	58(84.1)
	미해결	71(29.2)	0(0.0)	4(5.3)	56(68.3)	11(15.9)

자료 : 행정안전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2018

○ 충청북도 인건비는 총예산 대비 2018년 3.3%를 차지하며, 인건비 대비 자체수입은 2010년 19.4%, 2015년 21.7%로 상승하였다가 2018년 11.6%로 감소함

-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괴산군은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여건분석 및 전망

I SWOT 분석

-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 최근 행정서비스의 질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지역 간 행정수요의 불균형을 겪고 있으나,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자치권 확대로 자치단체 간 외부자원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충청북도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타지역에 비하여 낮은 편이며, 공공부문의 주민과의 소통 강화 의지와 함께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표 IV-1- 7〉 SWOT 분석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의 주민과의 소통 강화 의지 • 주민의 정주의식 높음 • 공무원 1인당 주민수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감소로 인한 행정서비스 질 하락 • 지역 간 행정수요의 불균형 • 세계화·개방화에 대한 인식 미흡
기회(O) ⇒ 포착	위협(T) ⇒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자치권 확대 • 자치조직권의 확대 • 주민참여와 소통방식의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 간 외부자원 유치경쟁 심화 • 주민의 개인주의 성향 가속 • 공공시설 유지관리 비용증가로 지역발전 악화

I 여건전망

□ 인구 고령화 문제 직면

- 저출산 심화, 인구증가 정점에 도달 등에 따라 구조적 문제점에 도달
 - 농촌은 저출산·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지역공동체의 활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음
 - 본격적인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주민들의 생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적정히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인구감소로 지자체의 지방세수와 행정수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 인구감소시대의 행정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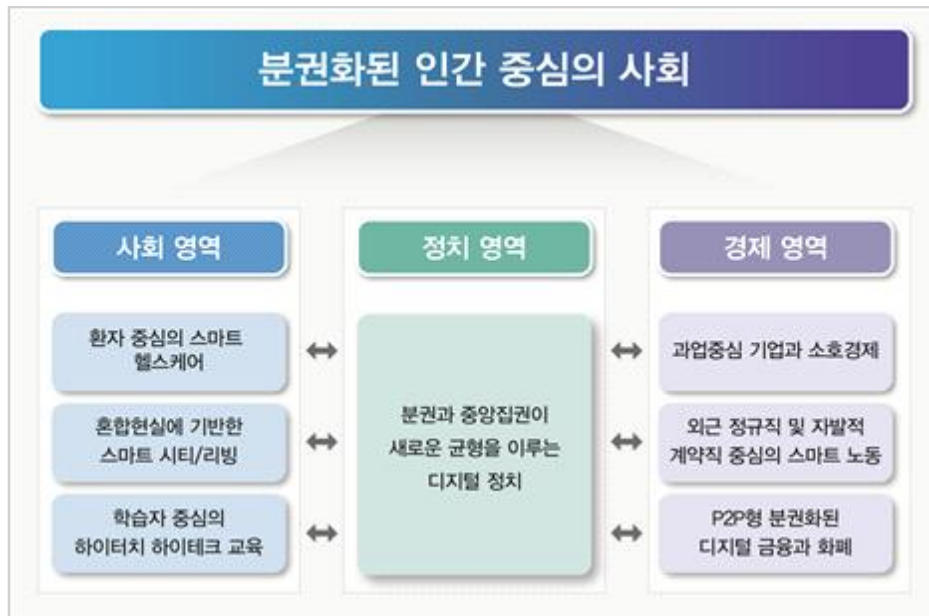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도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AI·로봇 등이 처리할 수 있는 사무 자동처리를 하는 스마트 자치단체로 전환하여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인구감소가 현저한 지역에서는 모든 행정서비스를 하나의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 간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

□ 지방분권 및 주민주권의 수요증대

-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방분권의 추진과 주민자치 확대를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추진하기 위해 참여정부(2004년)부터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사무를 논의해왔음
- 「지방일괄이양법」이 시행(2021년 1월 1일)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게 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행정과 주민 수요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무 구분은 총 15,744개로 국가가 직접 처리하는 사무 11,744개(75%),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사무 1,820개(12%),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 2,110개(13%)에 불과함
- 주민주권을 확립하여 지역의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확대하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함

□ 분권화된 디지털 사회 2.0

- 1990년대 이후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이 변화시킨 사회변화를 디지털 사회 1.0이라면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사회 모든 분야의 디지털 전환은 그 질적 변화를 고려할 때 디지털 사회 2.0이라고 할 수 있음
 - 디지털 사회는 다양한 측면의 디지털 인프라를 기초로 스마트홈·스마트일자리·스마트팩토리·스마트시티·스마트헬스·교육 및 스마트경제로 연결되고, 최종적으로 디지털 화폐로 구성됨
-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새로운 기술이 만드는 미래사회의 기본 모습은 더 ‘분권화(decentralized)된 인간 중심의 디지털 사회’로 도래될 것임



자료 : 이근 외7. 21세기 복스 디지털 사회 2.0, 재인용, 2019

〈그림 IV-1- 2〉 분권화된 인간 중심의 디지털 사회

□ 저성장 경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지역경영 도입

- 대내·외 환경 변화의 추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지역발전을 위한 대응이 요구됨
- 고도 경제성장기에는 지방재정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저성장의 기조로 인해 신규시설의 건설보다 기존 시설이나 사업의 유지관리가 중요함
- 지역의 주체인 지역사회단체와 공공조직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집행·평가·환류 과정을 추진함

3) 추진과제

□ 분권형 플랫폼 협치도정 구축

- 숙의민주주의 전환으로 충청북도정에 다양한 민간 주체들이 주요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숙의·공론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충청북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해결 및 그 결과를 지역사회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위한 지자체, 전문가·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
 - 지방자치단체는 선택과 집중에서 다양성의 공생하는 형태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해 나감
-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갈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지만,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숙의과정이 충분히 진행되어야 함
 -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재정립 및 지속적인 학습 추진
- 주민자치는 근린지역을 단위로 주민이 직접 대면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민이 스스로 자치조직을 구성하여 대표자를 선출하고 지역 내 주요 문제를 처리하는 것임
 - 충청북도의 지역적 특성과 주거형태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의 운영모델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지원방안 마련

〈표 IV-1- 8〉 '선택과 집중'과 '다양성의 공생'

선택과 집중	다양성의 공생
배제	포용
의존	자립·공(共)의존
상명하달	자치/협동
획일성	다양성
폐쇄성	개방성

자료 : 야마시타 유스케, 지방회생, 변화의 외2 옮김, 산과글, 2019

□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 맞는 행정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행정업무처리와 과학적 정책결정 지원이 가능하고, 주민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인구감소 지역의 등장으로 행정서비스 공급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됨
 - 행정구역을 초월한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를 구축
- 정책협력 거버넌스는 충청북도 민·관 협력 최상위 기구로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하는 총괄 업무를 추진함
 - 단순한 정책협력을 위한 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 시민사회참여를 통한 사회·지역 문제 해결 기반 구축으로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

□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강화

- 행정조직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개인의 지식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보의 공유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며, 직무 몰입은 개인의 업무에 대한 몰입으로 조직 구성원의 업무 몰입에 기여하며, 소통과 협력은 개인의 업무와 관련된 부서 간의 요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협력함으로써 상호 신뢰의 행정문화를 형성하도록 하며, 행정혁신은 구성원들에게 최신의 정보기술을 활용하도록 유도
- 국내외 환경지방정부의 자치역량 강화
- 행정조직은 조직구성원들에게 개인의 지식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보의 공유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며, 직무몰입은 개인의 업무에 대한 몰입으로 조직구성원의 업무몰입에 기여하며, 소통과 협력은 개인의 업무와 관련된 부서간의 요구를 정확하게 이해와 협력함으로써 상호신뢰의 행정문화를 형성하도록 하며, 행정혁신은 구성원들에게 최신의 정보기술을 활용하도록 유도
 - 주민주권시대에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 국내외 환경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내 공공연구기관, 정책포럼 등 의제별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지역사회의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함
 - 지방의회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능률성, 효과성 제고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내 공공연구기관, 정책포럼 등 의제별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충청북도 지역 주요 전략산업에 대한 연구기능을 강화시켜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지역사회의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함
 - 지방의회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능률성, 효과성 제고



〈그림 IV-1- 3〉 자치단체의 역량강화의 핵심영역

□ 인구소멸 위험지역 대응 방안

- 농촌지역의 읍·면은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에 도시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함
 - 읍·면·동의 인구 규모, 생활권의 변화에 따라 소규모의 읍·면·동이 행정체제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편하여 불필요한 잉여 행정인력과 예산을 줄여 대민서비스 강화
-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인구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 군지역의 면은 인구소멸위기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초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소멸의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책의 집행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제도적 기반 조성

〈표 IV-1- 9〉 행정영역을 위한 추진사업

전 략 명	과 제 명	단기 (21~25)	중기 (26~30)	장기 (31~40)	비고
행정영역	1. 협치친화형 행정혁신				
	2. 자치단체 간 협력거버넌스 구축				
	3. 인구소멸 위험지역 대응 방안				
	4. 지속가능한 열린혁신 플랫폼 구축				
	5. 지역사회 속의 민주주의 정착				
	6. 읍·면·동 행정체제 개편				
	7.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충북형 자치분권모델의 정립				
	8.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9. 충북 '메이커스페이스 공유플랫폼' 조성				
	10. 충청북도와 충북도의회의 협력 강화				
	11. 지속가능한 정책 공유플랫폼 구축				
	12. 공공부문의 업무 유연성과 전문성 확보				

〈표 IV-1-10〉 행정영역을 위한 시군계획지침

※ 시·군 계획지침

- 시·군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숙의과정을 진행하기 위하여 민간사회단체,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한다.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행정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시·군 차원에서 연계협력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제2절 재정영역

1) 현황 및 문제점

I 현황

□ 재정규모

- 재정규모의 확대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예산 기준 충청북도 재정규모(순계)는 11조 109억 원으로 전국의 4.05%를 점유하고 있음
- 충청북도의 지방재정 규모는 2016년 이후 전국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 대비 2019년의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이 11.9%인데 비해 충청북도는 14.24%로 큰 폭을 보임

〈표 IV-1-11〉 광역자치단체 예산 규모 추이

(단위 : 백만 원, %)

구분	전국		충청북도		비중
	최종예산(B)	전년대비	최종예산(B)	전년대비	
2016년	214,781,614	-	8,383,592	-	3.90
2017년	227,967,617	+6.14	9,285,373	+10.76	4.07
2018년	243,121,042	+6.65	9,638,472	+3.80	3.96
2019년	272,053,279	+11.90	11,010,930	+14.24	4.05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

□ 세입구조

- 세입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19년 기준 자주재원(지방세수입+세외수입)에 의한 세수조달은 23.4% 수준으로 취약한 편임
- 2019년 세입예산 규모는 11조 8,965억 원으로 이중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이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6.3%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2016년 이후 충청북도 일반회계의 연평균 증가율은 6.6%이며, 항목별로는 지방세수입 8.9%, 세외수입 5.9%, 지방교부세 8.3%, 보조금 6.8%로 나타남

〈표 IV-1-12〉 충청북도 세입예산 추이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항목비중	연평균 증가율
총 계	9,808,174	10,030,985	10,856,422	11,896,587	100.0	6.6
자체수입	2,205,471	2,464,350	2,643,718	2,789,186	23.4	8.1
지방세수입	1,639,842	1,861,706	2,025,096	2,116,556	17.8	8.9
세외수입	565,628	602,644	618,622	672,630	5.7	5.9
이전수입	6,363,571	6,454,694	7,055,387	7,886,072	66.3	7.4
지방교부세	2,269,746	2,346,945	2,586,055	2,886,909	24.3	8.3
조정교부금 등	203,318	204,774	244,134	257,801	2.2	8.2
보조금	3,890,507	3,902,975	4,225,198	4,741,362	39.9	6.8
지방채	130,750	13,750	7,738	19,637	0.2	-46.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08,382	1,098,190	1,149,579	1,201,692	10.1	2.7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

□ 세출구조

○ 2019년 충청북도의 세출은 11조 8,965억 원으로 이중 사회복지비 31.6%, 농림해양수산비 10.8%, 환경보호 10.6% 순으로 나타남

○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충청북도 세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6.6%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세출 항목별로 연평균 증가율은 사회복지비 11.8%, 공공질서 및 안전 9.8%, 보건 9.8% 순으로 나타남

〈표 IV-1-13〉 충청북도 세출예산 추이

(단위 : 백만 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항목비중	연평균 증가율
합계	9,808,174	10,030,985	10,856,422	11,896,587	100.0	6.6
일반공공행정	855,853	771,612	869,001	844,022	7.1	-0.5
공공질서 및 안전	406,475	443,406	487,898	538,173	4.5	9.8
교육	236,303	278,766	295,437	296,488	2.5	7.9
문화 및 관광	542,732	524,419	504,053	566,595	4.8	1.4
환경보호	1,076,071	1,124,323	1,131,707	1,264,363	10.6	5.5
사회복지	2,690,141	2,879,698	3,296,806	3,756,001	31.6	11.8
보건	170,560	181,614	202,695	225,667	1.9	9.8
농림해양수산	1,161,233	1,137,799	1,205,840	1,279,867	10.8	3.3
산업·중소기업	206,439	193,726	217,540	254,735	2.1	7.3
수송 및 교통	505,920	504,284	558,856	606,890	5.1	6.3
국토 및 지역개발	614,650	647,515	705,351	740,073	6.2	6.4
과학기술	-	-	-	-	0.0	
예비비	239,840	155,482	115,719	154,823	1.3	-13.6
기타	1,101,956	1,188,341	1,265,518	1,368,890	11.5	7.5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

□ 충청북도의 재정지표 추이

○ 충청북도의 재정자립도는 예산 기준으로 충청북도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2016년 24.6%에서 2019년 25.1%로 소폭 상승하였음

- 충청북도의 시계(市計) 재정자립도는 2019년 25.6%로 전국평균 31.0%보다 다소 낮음
- 충청북도의 군계(郡計) 재정자립도는 2019년 13.4%로 전국평균 11.6%보다 다소 높음

〈표 IV-1-14〉 충청북도 재정자립도 추이

(단위 : %)

구분	시도별	시도별 평균 (순계규모)	특별시 ·광역시 (총계규모)	도 (총계규모)	시 (총계규모)	군 (총계규모)	자치구 (총계규모)
2016년	단체별평균	46.6	62.3	31.9	32.1	12.0	26.0
	충청북도	28.8	.0	24.6	24.6	14.0	.0
2017년	단체별평균	47.2	63.4	33.7	33.3	12.3	25.9
	충청북도	30.0	.0	25.8	27.2	14.1	.0
2018년	단체별평균	46.8	62.1	34.2	32.3	12.2	24.7
	충청북도	29.6	.0	26.0	26.7	13.8	.0
2019년	단체별평균	44.9	59.5	33.0	31.0	11.6	23.8
	충청북도	28.7	.0	25.1	25.6	13.4	.0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

○ 충청북도의 재정자주도는 예산 기준으로 충청북도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2016년 40.5%에서 2019년 40.6%로 소폭 상승하였음

- 충청북도의 시계(市計) 재정자주도는 2019년 58.8%로 전국평균 59.1%보다 다소 낮음
- 충청북도의 군계(郡計) 재정자주도는 2019년 59.9%로 전국평균 58.7%보다 다소 높음

〈표 IV-1-15〉 충청북도 재정자주도 추이

(단위 : %)

구분	시도별	시도별 평균 (순계규모)	특별시 ·광역시 (총계규모)	도 (총계규모)	시 (총계규모)	군 (총계규모)	자치구 (총계규모)
2016년	단체별평균	68.4	70.1	43.3	60.6	57.0	43.3
	충청북도	65.7	.0	40.5	60.1	58.5	.0
2017년	단체별평균	68.4	70.9	44.5	61.3	57.7	43.9
	충청북도	65.2	.0	40.7	60.6	58.8	.0
2018년	단체별평균	68.7	69.9	45.3	60.8	58.9	41.5
	충청북도	65.6	.0	40.4	61.1	59.7	.0
2019년	단체별평균	67.8	68.6	44.9	59.1	58.7	40.0
	충청북도	65.6	.0	40.6	58.8	59.9	.0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

I 문제점

□ 지역개발에 대한 요구 증대로 SOC 등 기반시설 투자를 위한 재정수요가 빠르게 증가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빠른 경제환경 변화와 지식기반경제, 네트워크경제, 공유경제 등의 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산업 관련 정책에 대한 지방재정수요 급증
- 세종시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개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와 오창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IT·BT 산업의 허브화 추진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수요 증대

□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의 점진적 확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

- 지방분권화의 점진적인 확대에 의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권한 및 기능이 이전됨에 따라 지방정부가 능동적으로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 추진 여건 조성
-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업무수행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지방 중심의 행정체계 확립
- 각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재정수요 증가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에 대한 요구 증대
-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기업 유치와 육성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요구 증대

□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성 증대로 인한 자체사업의 추진에 차질 우려

- 충청북도의 예산은 2016년 9조 8,081억 원에서 2019년 11조 8,966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세입의 경우 의존재원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자율적인 재정운영에 있어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세출의 경우 환경 보호, 사회복지 등 분야는 세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비중이 낮아 세출구조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강화 요구 증대

□ 지역 내 균형발전에 대한 요구 증대

- 국가균형발전 추진과 더불어 도 내에서도 지역 내 균형발전에 대한 요구가 증대
- 충청북도의 권역 간(북부, 중부, 남부) 균형발전에 대한 요구 증대는 자칫 지역 간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 중부권 중심의 산업단지 지정 정책 등으로 인한 타 지역과의 갈등을 원활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갈등조정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 실현

2) 여건분석 및 전망

Ⅰ SWOT 분석

- 신규 국책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과 지방정부의 재정상태 건전성 및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이 집중되고 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세계 경제 위축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가중으로 인한 지방채 증가가 예상됨

〈표 IV-1-16〉 SWOT 분석 (재정영역)

강점(S) ⇒ 강화	약점(W) ⇒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국책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 지방정부의 재정상태 건전성과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정책 기조 변화 • 지방재정 악화로 인한 신규사업 차질 우려 • 지역별 지방재정 격차로 인한 지역균형발전 저해 • 사회복지비 부담 가중 현상 지속
기회(O) ⇒ 포착	위협(T) ⇒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등으로 인한 국가위기를 극복하고자 한국형 뉴딜 등 다양한 국가사업 추진 • 중앙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재정 개선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경제 위축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 지방정부의 역할 가중으로 인한 지방채 증가

Ⅱ 여건전망

□ 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

- 저출산 심화와 인구증가 정점 도달 등에 따라 지방재정 수입의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할 수 있음
- 특히, 농촌은 저출산·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지역공동체 활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고, COVID-19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장기화의 경우 지방세입 기반 위축으로 인해 지방재정 운영 제약 발생 가능성이 높음

□ 국가 위기대응 시 선제적 대응으로 위기극복 계기 전환

- 국가적 위기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책대에 선제적인 대응 시 위기극복 계기로 활용 가능
 - 한국형 뉴딜을 계기로 국가적인 경제 체질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 필요
 - 충북형 뉴딜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선제적으로 지역 위기 극복체계 구축 필요

□ 지방분권체계의 구축에 대응한 지방정부의 대응시스템 정비 필요

-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에 따른 지방분권의 가속화로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 기대
- 지역특성에 맞는 신규 자체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방 운영 전략 수립 필요

3) 추진과제

□ 지방재정 기반의 확충

- 지방재정의 기본인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편을 통한 지방재정의 자립성 강화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자주적인 지방재정 기반을 토대로 적극적인 추진체계 수립
- 지방교부세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추구
- 새로운 세원의 발굴과 세원 포착을 통한 자주적인 지방재정 운영 체계 구축
 - 증가하는 재정수요의 충족을 위한 지방재정 분권에 따른 지방재정 운영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
 - 재정의 주요 근간인 지방세 부문에서 안정성과 탄력성 확보와 행정서비스의 증가에 따른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 경영수익사업 등을 통한 자주적 재원 확보의 다각화
- 지역 부족 자원 개발과 경영수익사업 활성화로 세입 기반 확충

□ 지방재정 투명성 제고

- 지방재정 운용 투명성 제고를 위한 주민 참여 체계 확대
- 주민의 신뢰 형성을 위한 지방재정 운영
 - 투자재원 배분,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강화와 예산집행 성과평가 강화 등 전략적·계획적인 재정 운영 기조의 강화
 -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과학적 방법을 통해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사업 집행 과정에서의 점검 및 사후평가체제 확립
- 중장기 정책과 예산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체계 구축
 - 지역개발 및 재정운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군 및 인접 광역자치단체와 자율적·협업적 네트워크 결성

□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 방만한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충청북도의 장기발전 방향, 중요한 정책 결정사항, 새로운 정책, 현안사항 등 도정 전반에 관한 자문을 위한 도정 정책자문단 운영 확대
 - 예산운영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제도의 정착



○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재정공개제도의 확대 운영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체계 구축

○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자구노력 강화

〈표 IV-1-17〉 재정영역을 위한 시군계획지침

※ 시·군 계획지침

- 시·군은 지속 가능한 재정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증대에 힘써야 한다.
- 무분별한 사업의 집행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저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투자자원 배분, 투자사업 심사 및 예산집행 성과평가를 강화한다.
- 예산 운영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재정공개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재정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Ⅳ편 계획의 집행과 관리

▶ 제2장

투자·재원조달 계획

제1절 투자계획

제2절 재원조달 계획



제2장 투자·재원조달 계획

제1절 투자계획

1) 재정투자

Ⅰ 재정투자 방향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

- 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 제고
-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인 연계성을 확보하여 투자계획 수립·운영

□ 급격한 경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적극적인 지방재정운영

-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및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능력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재정 운영
- 지방재정지출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되 재원은 중점투자 분야에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

- 대내·외 여건이 급변하는 시기로 지방재정운영의 여건, 지역경제 동향, 국정과제 소요 등을 감안하여 재정 건전성 목표를 설정하고 철저히 관리
-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세입기반 확대하고, 위기극복을 위해 일시적·한시적인 소요예산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 병행
- 자체사업 중 성과가 부진하거나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실시
- 경상경비 및 선심성·전시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 편성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여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운영
- 적절한 지방채 관리로 지방재정의 탄력적인 운영



2) 투자계획

□ 투자계획 개요

- 2021년~2040년 기간 동안 충청북도 종합계획 상의 사업추진을 위한 투자액은 141조 2,179억 원 정도로 추정됨
- 기투자자는 사업 기간 이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6조 1,055억 원임

〈표 IV-2- 1〉 충청북도 종합계획(2021~2040) 투자계획

(단위 : 억 원)

구분	계	기투자	~2021	2022~ 2025	2026~ 2030	2031~ 2035	2036~ 2040	2040 이후
사업비	1,412,179	61,055	210,493	663,057	303,699	76,942	96,117	816

□ 부문별/자원별 투자계획

- 투자비의 부문별 비중을 살펴보면 3장 71조 1,454억 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2장 55조 5,560억 원, 4장 5조 1,854억 원 순으로 나타남

〈표 IV-2- 2〉 부문별 투자계획

(단위 : 억 원)

구분	계	기투자	~2021	2022~ 2025	2026~ 2030	2031~ 2035	2036~ 2040	2040 이후
합계	1,412,179	61,055	210,493	663,057	303,699	76,942	96,117	816
1장 (지역개발)	30,403	619	1,326	21,891	5,462	618	487	-
2장 (교통물류)	555,560	54,486	42,212	162,320	140,769	64,984	90,789	-
3장 (산업경제)	711,454	481	153,671	417,658	135,418	2,794	1,119	313
4장 (문화관광)	51,854	2,059	4,710	26,588	11,907	5,309	841	440
5장 (환경산림)	43,810	2,547	6,518	27,436	5,687	870	752	-
6장 (재난안전)	18,616	863	2,052	7,007	4,331	2,297	2,062	4
7장 (행정)	482	-	4	157	125	70	67	59

- 재원별 내역을 보면 사업 전체로는 국비가 67조 9,630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비는 34조 4,673억 원으로 도비는 17조 7,753억 원, 시군비는 16조 6,920억 원으로 나타남
- 민자 등 기타는 38조 7,876억 원으로 나타남

〈표 IV-2- 3〉 재원별 투자계획

(단위 : 억 원)

구분		계	기투자	~2021	2022~ 2025	2026~ 2030	2031~ 2035	2036~ 2040	2040 이후
합계		1,412,179	61,055	210,493	663,057	303,699	76,942	96,117	816
국비		679,630	56,678	97,029	208,969	155,743	68,646	92,144	421
지 방 비	소계	344,673	4,100	29,628	183,351	116,963	6,349	3,887	395
	도비	177,753	1,274	15,736	95,651	58,849	3,508	2,420	315
	시군비	166,920	2,826	13,892	87,700	58,114	2,841	1,467	80
기타		387,876	277	83,836	270,737	30,993	1,947	86	-



제2절 ▶ 자원조달 계획

1) 자원조달 방향

□ 중·장기 사업에 대한 국비 및 지방비 확보 방안 구축

-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총사업비 141조 2,179억 원은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기금, 융자, 민자 등)에 의해 조달
- 국비, 지방비 등 자원조달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 확립
- 연차별로 추진할 과제에 대한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내실 있게 사업 추진

□ 민간자본의 최대한 활용

- 투자비용의 조달에 있어 민간 투자자본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 제고
- 민간자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업별 유치전략 수립 및 운영

□ 사업비 조기 투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 추진

- 사업 관련 기본 인프라 사업비 산정은 기 계획 중인 사업을 수용하는 것을 제안
- 분야별 투자 활성화 및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사업비의 조기 투입을 고려하여 전략 수립

2) 국비 및 지방비 등 투자자원 확보방안

Ⅰ 국비 확보방안

□ 행정조직 정비를 통한 대응력 강화

- 행정조직 정비를 통해 국비확보를 위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성과별 국가사업 및 국비보조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 사업별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한 대응성 강화

- 국가사업, 국비보조사업 등 사업별 대응논리 개발과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해 대응성 강화
- 신규 국책사업 발굴·유치를 위한 선제적, 통합적 대응체계 구축

I 지방비 확보방안

□ 중앙정부 재정운용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중앙정부의 재정운용방향은 재정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위기 대처에 나서고 있는 상황으로 도 차원에서 중점적인 과제 추진을 위한 전략적인 지원체계 구축
-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성과평가 미흡, 집행 부진 사업을 축소하여 재정 투자 여력을 조기에 확보

□ 투자사업 적기 대응을 위한 세출구조 재설계

- 예산운영시스템 전략화를 위해 자율과 책임 원칙에 입각한 예산지배구조를 정립하고, 전략사업의 도출 및 투명한 운영·감독체계 구축
- 자체세입의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재량지출(투자사업비, 경상적 경비 등)을 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

□ 세외수입 확충

-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등 운영시스템을 강화하여 세입 확충에 기여
- 부과징수와 세외수입 총괄 업무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 정비
-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정제재수단 강구
-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불합리한 요금 체계 정비

□ 경영수익사업 확대

- 지역여건에 알맞은 유희 부존자원을 창의적인 노력과 경영자적 자세로 지역의 특화사업을 적극 발굴 및 육성

I 민간자본 확보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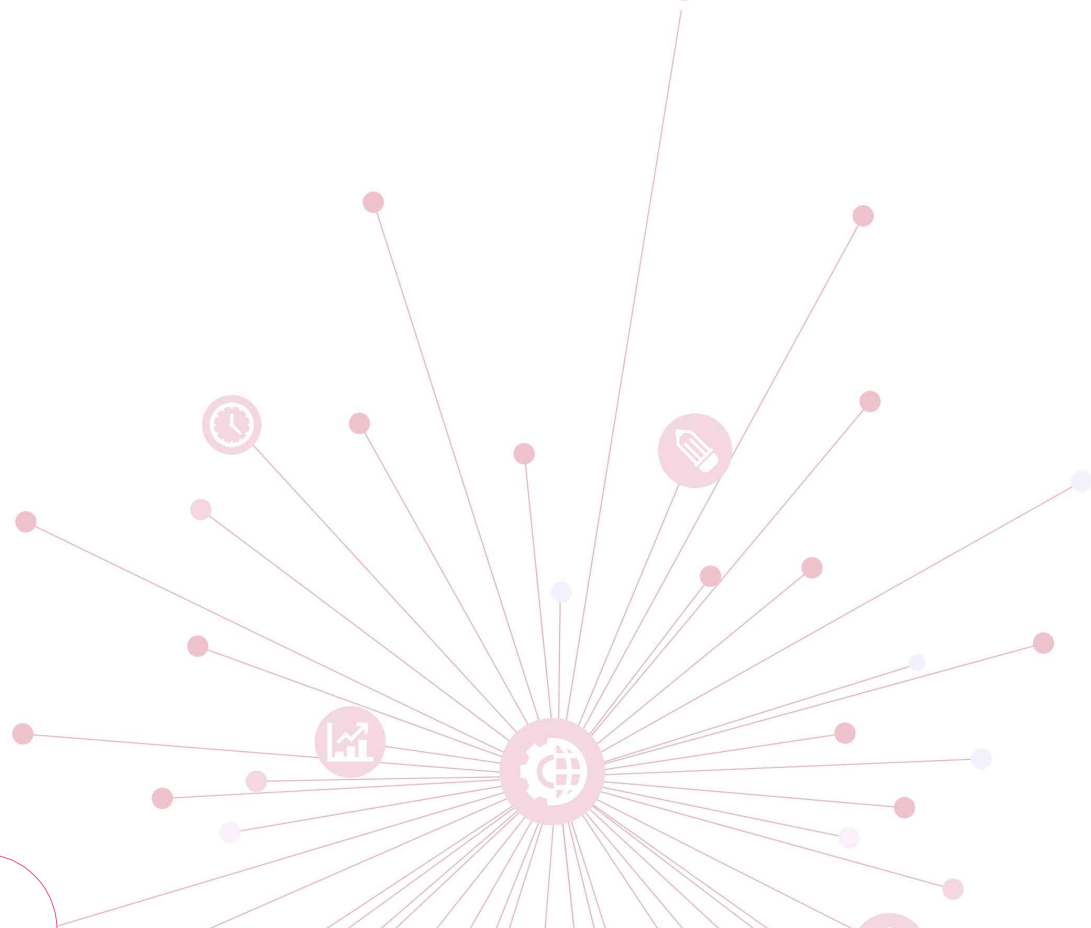
□ 적극적 외자유치 확대

- 세계화 개방화의 가속화 속에서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자본만이 아닌 외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세수 기반 확대 도모
 - 첨단 산업분야의 기술력을 갖춘 외국 우수기업에 대한 유치활동 전개
- 외자 유치를 통한 지역 내 생산 및 고용 개선 노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민간자본 유치 확대

- 민간자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회 간접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
도모
 - 민간자본 유치 방안으로는 BTL 방식의 민간자본 유치를 적극적으로 고려
 - 제3섹터 방식에 의한 민간자본 유치 고려



제 V 편

시·군별 발전방향

제1장 청주시

제2장 충주시

제3장 제천시

제4장 보은군

제5장 옥천군

제6장 영동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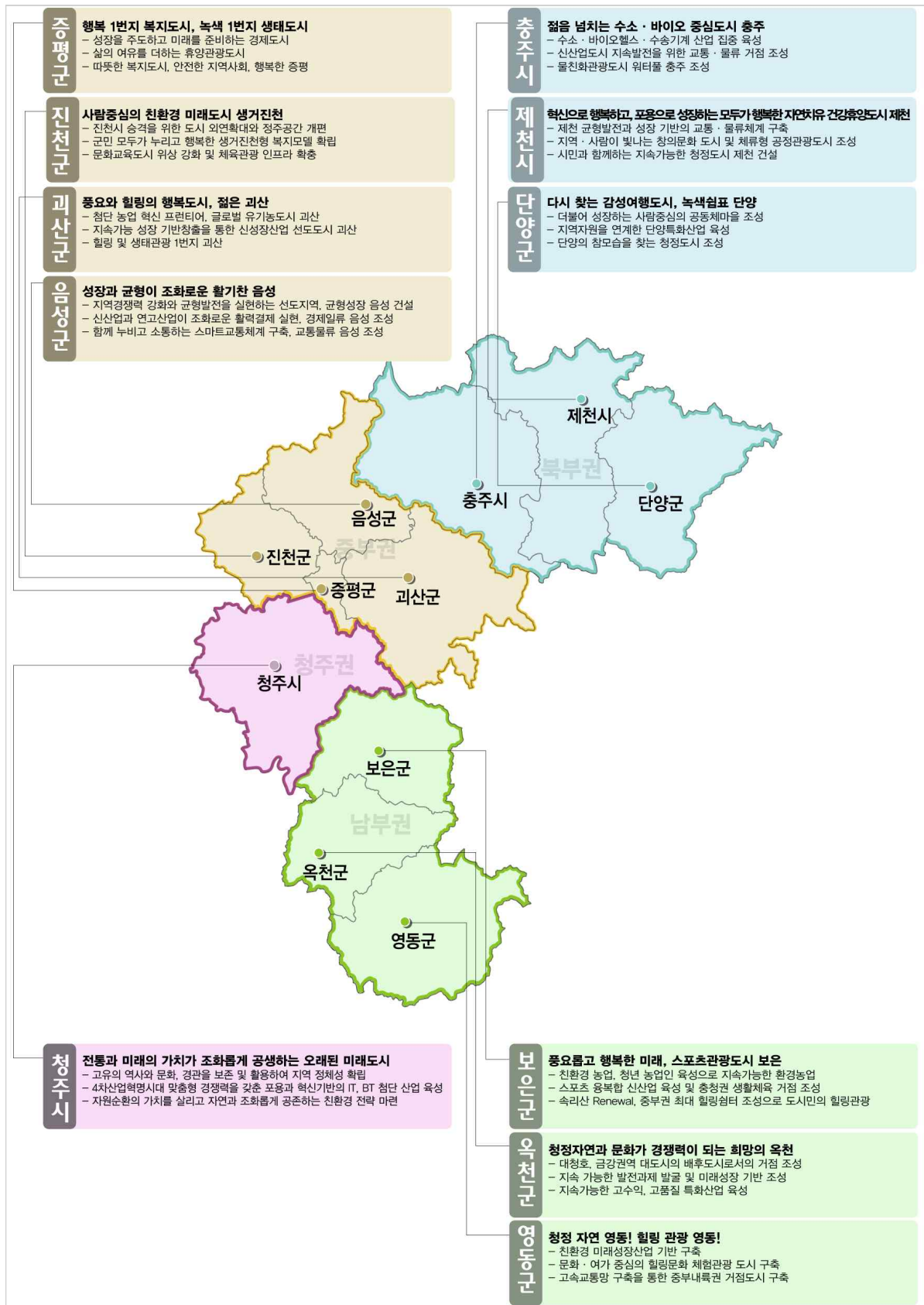
제7장 증평군

제8장 진천군

제9장 괴산군

제10장 음성군

제11장 단양군



〈그림 V-1- 1〉 시·군별 비전 및 전략

제1장 청주시

1) 비전, 목표 및 전략설정

- 청주시는 《전통과 미래의 가치가 조화롭게 공생하는 오래된 미래도시 청주》를 발전의 비전으로 삼아 ‘전통의 가치가 살아 있는 기록 문화 도시’, ‘고부가가치 신산업 중심의 미래형 첨단 산업 도시’, ‘불안과 불편, 불쾌함이 없이 모두 함께 행복한 상생 안심 도시’의 3개 기본 목표와 6개의 발전 전략을 도출하였음
- 1,500년 고도인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도시,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잘 사는 지역, 모든 세대, 모든 계층이 공평한 기회를 보장받는 복지도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2040년까지 세부 실천전략들을 만들고 실행하고자 함

〈표 V-1- 1〉 시·군별 발전방향_청주시

비 전	전통과 미래의 가치가 조화롭게 공생하는 오래된 미래도시 청주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의 가치가 살아 있는 기록 문화 도시 ○ 고부가가치 신산업 중심의 미래형 첨단 산업 도시 ○ 불안과 불편, 불쾌함이 없이 모두 함께 행복한 상생 안심 도시
전 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의 역사와 문화, 경관을 보존 및 활용하여 지역 정체성 확립 ○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춤형 경쟁력을 갖춘 포용과 혁신 기반의 IT, BT 첨단 산업 육성 ○ 자원순환의 가치를 살리고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친환경 전략 마련 ○ 모든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이 보장되는 시민 안심 도시 실현 ○ 도시와 농촌이 상호 협력하여 동반 성장하는 도·농 상생의 가치 구현 ○ 도·농 통합형 공간구조 특색에 따른 미래지향 효율적 인프라 운영·관리



2) 전략별 추진과제

고유의 역사와 문화, 경관을 보존 및 활용하여 지역 정체성 확립

□ 1,500년 역사·문화의 창조적 계승

- 직지문화특구는 독자성을 지닌 기록인쇄문화의 창조적 명소로 육성하고 교육·교양 분야의 미래적 의미까지 더해 직지의 가치를 확산하는 기지로 활용
- 세계 최초 기록유산분야 유네스코 국제기구(CAT2)인 국제기록유산센터 설립 운영을 통한 국제 플랫폼 구축과 미래지향적 콘텐츠 발굴
- 청주 읍성, 남석교 등 도심부 역사자원의 발굴·정비를 통해 청주의 역사 정체성 회복
- 세계적 3대 광천수인 초정약수와 세종대 애민정신·과학기술의 연결을 통해 역사·문화·관광 자원화
- 신행서원, 손병희 유허지, 신채호사당, 상당산성, 부모산성, 정북동 토성 등 역사적 가치를 근거로 한 시민 여가공간 조성 및 관광 명소화

□ 문화예술의 다양성 기반 마련

- 문화제조창C를 중심으로 한 CT전략산업지구를 육성하여 현대미술과 전통공예가 어우러지고 시민 여가공간과 혁신적 창업 인큐베이팅이 가능한 문화융광로로 명소화. 또한, 시민들과 지역 작가들에게 창작, 전시, 공연, 동아리 공간 등 창작스튜디오를 제공
-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계기로, 기록을 기반으로 한 세계적인 문화도시 청주 브랜드 확립
- 도심부의 주요 역사·문화 자원의 테마화 및 연계를 통한 도심권 문화벨트 조성
- 지역 연고 인물, 역사·자연 생태자원의 가치를 재인식한 문화콘텐츠 개발

□ 300만 그린광역시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여가문화 관광산업 창출

- 지역의 역사·문화·생태·고부가가치 산업과 연계한 교육·체험형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주변 도시와 연계된 광역적 관광루트 개발
- 청주 고유의 관광 이미지를 개발, 지역 내 산재되어 있는 문화자원을 콘텐츠화
- 관광정보시스템의 기능 개선과 홍보체계 강화를 통한 관광수요 수용능력 제고

4차 산업혁명시대 맞춤형 포용과 혁신 기반의 IT·BT 첨단 산업 육성

□ 미래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경제 실현

- 과학기술 기반의 신산업 혁신벨트 구축
 -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를 주축으로 평택~이천~청주 반도체벨트, 원주~오송 바이오의료기기벨트, 아산~오창~포항 에너지벨트 구축
- 핵심 미래 산업인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를 아우르는 전략적 중추도시로 성장하도록 청주테크노폴리스,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 생명과학단지, 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집중 육성으로 혁신경제 기반 마련
- 전통문화예술 산업과 MICE 산업 등 세종시 연계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광역경제’ 실현
- 자율주행차 테스트 베드 구축을 통한 신성장동력 산업 기반 마련
- 노후된 산업집적지의 활성화를 위한 구조 고도화를 실현하고, 지역 중심산업 기반의 특성화 및 네트워킹 강화를 통한 SW반도체융합클러스터 조성

□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 오송의 바이오산업 비전과 오창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에 따른 대대적 인력 양성
-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지역 고용률 제고
- 취업지원 기관의 역량 강화 및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일자리 지원 시스템 개선
-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지원

□ 농업생태계가 복원된 살기 좋은 농촌 실현

- 저투입 에너지, 생물 다양성 유지 등 유기농업의 본질적 가치실현을 위한 순환농업 확산
- 특화작물의 발굴, 생산, 가공,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친환경 유기농클러스터 구축
- 악취저감 및 축사 이미지 개선 등을 통한 자연친화적 축산환경 조성

□ 지역 내 생산·소비 자립 기능 강화로 안심 농식품 순환도시 구현

- ICT기술 접목 스마트 농업 실현으로 기후변화 대응, 노동력 절감, 품질 향상
- 창업자금, 기술·경영 컨설팅 등 연계지원을 통한 청년농업인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력 구조 개선
- 고속·지방도로망 접근성을 고려한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로 중부권 농산물 유통거점 토대 마련

자원순환의 가치를 살리고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친환경 전략 마련**□ 도시 정체성을 선도하는 경관·미관 체계 구축**

- 새롭게 개편된 청주시의 경관축 설정을 통해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경관, 도시·농촌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관 창출
- 고유한 정체성을 지닌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별 미관 기준을 설정하고, 도시의 아이덴티티 형성을 위한 색채기준을 설정
- 신청사 건립 및 시청사 주변 특화 경관사업 추진으로 공공건축물의 시민 접근성 향상
- 정보통신기술(IT) 기반 스마트도시 확산 추세와 관련하여 녹색디자인 도시, 녹색스마트도시 등 미래지향적 경관기본계획 수립

□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 우리 지역 실정에 맞고, 시민에게 밀착된 녹지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공원·녹지체계 설정
- 수질오염물질 관리 및 저감을 통한 물 환경 개선 추진
 -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통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따른 하천 오염의 과부하 방지
 - 축산계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퇴비부숙도 및 방치축분 관리 철저
 - 오염물질 정화와 자연 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위한 인공습지 및 생태하천사업 추진
- 기후변화,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
-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 점진적 확대 기회로 삼아 에너지 자립도시로 탈바꿈
-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차 보급 확대 및 인프라 구축으로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 저탄소 교통수단(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 여건 개선

□ 자원재활용 선도도시 실현

- 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폐기물 발생량 감량을 도모하고 폐기물의 자원화 등을 통해 '자원 재활용 선도도시' 추구
- 자원 순환형 폐기물 처리체계 형성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체계 형성
- 쓰고 버린 폐가전제품, 산업 폐기물 등에 축적된 금속자원을 수거하여 회소금속을 추출·재활용함으로써 도시광산 발전을 통한 환경보전 방안 구축

모든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이 보장되는 시민 안심도시 실현

□ 위험 요소의 사전예방을 통한 안심도시 실현

- 풍수해, 교통사고, 전기·가스·화재, 도시 범죄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의 사전·사후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재해에 대비한 안심도시 구현
- 도심의 과도한 개발 및 노후화로 인한 신규 재난 형태인 지하안전의 체계적 대응체계 마련 및 지하안전 통합지도 구축
- 차량 중심의 정책에서 보행자 중심으로의 전환
 - 걷고 싶은 거리, 보행자 우선 도로 등 차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안전한 거리 환경 조성
-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지역 교통안전 대책 수립(최고속도 제한, 사고 다발지역 도로 환경 개선 사업,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 보편적 복지의 정착과 연령별·권역별 복지 수요에 적합한 복지서비스 공급

- 생애주기에 맞는 보편적 복지 제공으로 출생부터 사망 시까지 누구나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제공
- 사회안전망의 경계에 있는 新사회약자까지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사각지대 복지안전망 구축
- 육아지원 기관 확대로 시설보육 이외 양육지원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가정 양육부모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
-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충
- 사직동 충혼탑 광장에 안보교육관 건립 및 메모리얼 파크 조성을 통한 시민 보훈문화 확산과 품격 높은 휴식공간 제공

□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

- 보건의료정보화 및 의료전달체계의 강화를 통해 의료·보건 사각지대 해소
- 대민접점 기관인 보건소 공간을 시민가치를 높일 수 있는 복합 보건교육문화공간으로 혁신
- 신종 유행 감염병 확산의 신속한 차단을 위한 범지역적 검역망 및 방역체계 구축
- 심리상담 지원 보편화로 삶에 대한 긍정마인드 제고 및 지역사회 자살예방 실현



□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통한 시민 역량 강화

- 학교시설의 선진화, 유해환경 개선, 건전한 대학 문화 환경 조성 등 학교 환경의 질적 개선 도모
- 고교 다양화 전략 마련, 지역산업과 연계된 대학 이공계분야 특성화, 다양한 지역 인센티브 제 공 등을 통해 지역에 특화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인재의 타지역 유출 방지
- 평생학습시설의 정비, 평생학습의 전문화·생활화 등을 통해 교육도시 위상 강화

도시와 농촌이 상호 협력하여 동반 성장하는 도·농 상생의 가치 구현

□ 쇠퇴지역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

- 대중교통 및 보행자 중심의 가로친화형 중심도시로 전환하고, 문화와 창작활동을 담은 전통상가 를 육성하는 등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도심 기능 회복
- 수요자 중심의 주거공급과 직주근접의 실현을 통해 도심부 정주인구 회귀 유도

□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조성

-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개발(TOD)을 통해 저에너지 소모형 토지이용 실현
- 성장경계선의 설정과 기성시가지 정비 등 신규토지이용의 최소화
- 신규 개발 시 토지이용의 고도화로 에너지 절약형 토지이용계획 수립
- 자연환경의 지속적 보전 및 관리를 통해 자연생태계의 다양성 확보
 - 사업 개발계획 시 사전 협의를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생태계 교란 생물을 주기적으로 퇴치하여 생물 다양성 보전에 노력

□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도·농 통합 실현

- 도·농 교류공간, 자연경관·어메니티 등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서비스 산업 육성
- 전통·자연친화적 교류공간 조성,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귀농귀촌 활성화
- 도시와 농촌이 공유할 수 있는 농업자원 공간 플랫폼 구축, 농촌지역별 정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스마트 농촌관리
- 선호시설과 기피시설의 패키지화, 권역별 시설용량 및 형평성을 고려한 시설 배치 등 지역균 형발전을 고려한 공공시설의 배치
- 도·농 화합의 장 도시농업박람회 추진으로 상호 협력적 이해관계 형성

□ 협력 협치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동반자적 관계망 형성

- 도심공동화, 주요 부지의 황폐화, 인구 유출과 미비한 투자 등 지방정부나 민간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적 파트너십 형성
- 시민, 환경단체 등의 민간단체와 경제단체, 기업, 지자체, 정당 및 의회의 모든 주체가 협의하여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 마을 자치 실현을 위한 마을공동체 생태계 구축

- 주민 중심, 과정 중심, 현장 중심의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해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마을 자치 실현으로 주민주도형 시민참여 활성화
- 마을공동체의 성장단계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마을 생태계 구축·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도·농 통합형 공간구조 특색에 따른 효율적 인프라 운영·관리

□ 도·농 통합형 공간구조체계의 구축

- 도시공간구조를 분산집중형 다핵구조로 전환하고, 농촌지역은 중심지에 편의시설이 집중된 목가적 전원마을로의 발전을 유도하여 도·농이 각각 특색과 매력을 갖추고 균형 성장하도록 유도
- 도심, 지구, 지역 중심의 중심지체계를 구상하여 배후 생활권의 인구 및 기능 분담

□ 대중교통체계의 획기적 개선과 광역교통축 강화

- 청주국제공항~청주 고속·시외버스터미널~오송역 및 세종시의 연결교통망 구축
- 3차 순환도로의 조기 완공 및 4차 순환도로 건설 등 외곽 순환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 연계성 강화
-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북청주역 신설, 청주공항역 이설 등 계획의 차질 없는 진행
- 중부권동서횡단철도(서산~청주~괴산~울진), 수도권내륙선(동탄~청주공항) 철도를 비롯해 충청권 광역철도망 노선을 계획하여 철도교통의 활성화 도모
- 새로운 대중교통수단(트램, BRT 등)의 도입, 환승센터 구축 및 마이크로 모빌리티 연계 등으로 대중교통 중심의 녹색교통 체계로 전환
- 청주국제공항과 오송역, 충북선의 연계 환승체계를 구축하여 중부권 지역에서 최단시간 내에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연계 교통망 구축



□ **시민사회의 소통 축으로 미래 공공건축물 건립 방향 제시**

- 행정 환경 최적화와 서비스 개념을 도입한 시민 위주의 행정서비스 제공
- 4차 산업혁명으로 정보통신기술 강화 및 비대면·비접촉 사회 진입에 따라 공공건축물을 공유와 접근의 공간으로 재구성
- 질적 성장으로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에 맞춰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공공디자인 개발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건립

제2장 충주시

1) 비전, 목표 및 전략설정

○ 충주시는《젊음 넘치는 수소·바이오 중심도시 충주》를 발전의 비전으로 삼아 ‘중부내륙 신산업 거점 도시’, ‘가고 싶고, 살고 싶은 품격 있는 도시’, ‘건강하고 안전한 녹색 환경 도시’의 3개 기본 목표와 6개의 발전방향을 도출하였음

〈표 V-2- 1〉 시·군별 발전방향_충주시

비 전	젊음 넘치는 수소·바이오 중심도시 충주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내륙 신산업 거점 도시 ○ 가고 싶고, 살고 싶은 품격 있는 도시 ○ 건강하고 안전한 녹색환경 도시
전 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바이오헬스·수송기계 산업 집중 육성 ○ 신산업도시 지속발전을 위한 교통·물류 거점 조성 ○ 양질의 일자리 증대 및 품격 있는 도시기반 구축 ○ 물친화관광도시 워터풀(water-full) 충주 조성 ○ 고품질 농산물 생산·유통기반 구축 및 통합마케팅 추진 ○ 공기와 물이 맑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도시 조성



2) 전략별 추진과제

수소·바이오헬스·수송기계 산업 집중 육성

- ☐ 수소차 산업기반 조성 및 현대 모비스 성장 지원
 - 수소전기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산업단지 조성, 수소 생산·공급, R&D 지원 인프라 구축)
 - 수소차 보급 지속 확대(수소충전소 구축, 수소차 보급, 수소버스 운행)
 - 충주 현대모비스 중심 수소 기반 규제자유특구 조성
- ☐ 중부권 초광역 바이오 혁신융합벨트(오송·충주·원주) 구축
 -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성공 조성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 바이오 분야 100대 기업 중 5개 이상 유치
 - 오송, 충주, 원주 등 지역별 클러스터 간 협력사업 추진
 - 오송 중심 글로벌 바이오 광역 클러스터로 역량 강화
- ☐ 수송기계 산업 거점지역 조성
 - 현대엘리베이터 충주 이전에 따른 승강기 전문산단 조성(충주 제5일반산업단지)
 - 수송기계 시험평가센터, 전문 교육센터 등 관련 인프라 조성

신산업도시 지속발전을 위한 교통·물류 거점 조성

- ☐ 충주 균형발전의 핵심, 고속교통망 확충
 - 수도권과의 연계교통망 확충을 통한 물류기지 조성 및 역 주변 개발로 저발전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 중부내륙선 철도 복선화(이천 부발 ~ 충주 수안보), 금가신호장을 금가역으로 기능 확대
 - 충주 ~ 원주 간 물류거점 연결하는 대량수송 철도 물류 네트워크 구축
 - 고속철도 교통시대(중부내륙선 철도, 충북선고속화) 역세권 발전계획 수립 시행
- ☐ 중부내륙 물류기지(단지) 조성
 - 금가역(동충주역) 중심의 물류기지 조성으로 중부내륙권 소재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및 우량기업에 대한 원가절감 등 국가 경쟁력 확보

양질의 일자리 증대 및 품격있는 도시기반 구축

□ 기업하기 좋은 도시 충주

- 우량기업 투자유치, 기업 맞춤형 서비스 제공, 협력적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추진
- 지역 특성과 주변 경관을 고려한 인·허가 행정 추진

□ 수소 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 현대 모비스 충주공장 및 협력사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 인력 적기 수급
- 특성화고, 관내 대학, 한국폴리텍대학 충주캠퍼스 등 유관기관과 협력
- 수소차 생산기업 채용인력 맞춤형 교육 실시(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 중증질환 및 응급환자를 위한 의료 기반 구축

- 충주의료원 지역심뇌혈관센터 지정
- 상급종합병원(충주分院) 건립 추진

□ 문화예술 기반 확충

- 충주 예술의 전당 건립,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 서충주 생활문화센터 조성, 국제액션무예영화제 추진
- 탄금대 매입 및 보수정비, 칠금동 제철유적 정비·활용, 충주 읍성 유적 복원 및 활용
- 택전의 세계화·대중화 추진

□ 시민과 함께 만드는 ‘스포츠 도시 충주’

-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 엘리트 체육 육성
- 전국 대회 유치와 시민 체력 향상
- 체육 인프라 구축
 - 유소년 축구장, 수안보 야구장, 서충주 국민체육센터, 수안보 다목적 실내체육관
 - 북부 생활체육공원, 어린이 체육공원, 충주시 복합체육센터

물친화관광도시 워터풀(water-full) 충주 조성

□ 물의 도시 브랜드 강화

- 물 친화도시 관광브랜드 개발, 한평 파라다이스 조성(충주시 주요 포토 포인트 9개소)
- 물 상징 미디어아트 스크린 조성, 물 친화도시 선포식 및 프로그램 운영

□ 물 친화 플레이스 육성전략(충주호 관광 활성화)

- 충주호 강수욕장(물놀이터) 및 플로팅 리조트 조성
- 심향산 전망명소 개발, 계명산 민간개발사업(전망명소, 케이블카, 모노레일, 휴양레저타운 등)
- 충주호 리조트 관광 연계도로 개설(동량면 하천리 ~ 산척면 명서리 / L=8.55km)
- 충주댐 주변 경관식재, 충주호 유람선 운영

□ 기존자원 매력강화 전략

- 목계나루 관광명소화 사업, 노루목 관광가도 조성, 중앙탑 콘텐츠 강화
- 구. 농업기술센터 리모델링 사업, 폐철도 부지(시설) 활용

□ 지역 특화 콘텐츠 육성전략

- 로맨틱 충주카페촌 조성 지원, 충주 생활관광 알아보기 체험 운영
- 천지인 삼태극 풍수휴양촌 조성(충주시 동량면 건지마을)
- 수안보 온천 윈터페스티벌 운영

고품질 농산물 생산·유통기반 구축 및 통합마케팅 추진

□ 고품질 원예농산물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 구축으로 농가소득액 증대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선별장, 저온저장고, 창고, 유통 물류체계 구축)
- 충북 과수 종합 연구센터 건립(품종 개발 및 병해충방제 연구동 설립, 시험장 운영)
-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도매시장 재건축)
- 화훼육묘 생산농가 육성 기반 조성 및 농가 새 소득원 개발

□ 농협조직공동사업법인을 통한 농산물 통합마케팅 판매

- 원예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적인 관리로 유통구조 혁신도모
-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를 통해 전국 8위권 진입 및 대형유통 직거래 출하액 확대

□ 푸드플랜 계획 추진

- 지역 내 먹거리 생산·유통·소비 선순환체계 구축으로 질 높은 먹거리 공급
-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 통합적 정책 추진 및 공공형 운영주체의 육성, 수요예측에 근거한 기획 생산, 농가 조직화

공기와 물이 맑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도시 조성

□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 및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 유도

-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에 따른 목표수질 달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 달성
- 완충저류시설 설치 확대를 통한 한강 하류지역 상수원 등 2차 피해 사전 차단
- 도심 생태하천사업을 통한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 확보

□ 선도적 기후변화 대응 및 아름답고 깨끗한 삶이 있는 생활환경 조성

-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 및 폐자원 순환·자원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및 도시 발전 도모
-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및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른 수소 인프라 확충

□ 안정적 수자원 확보를 위한 지능형 물관리 시스템 구축

- 각종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따른 안정적 수자원 확보와 수질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물관리 기반 구축
- 산업단지의 수량/수질을 고려한 지능형 물관리체계 구축 및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여 산업단지 내 물 재이용률 100% 실현



제3장 제천시

1) 비전, 목표 및 전략설정

- 제천시는 《모두가 행복한 자연치유 건강휴양도시 제천》을 발전의 비전으로 삼아 ‘공간구조 혁신을 통한 행복도시 조성’, ‘산업경제 혁신을 통한 관광도시 구현’, ‘사회기반 혁신을 통한 복지도시 조성’, ‘주체의식 혁신을 통한 창의도시 구현’의 4개 기본 목표와 6개의 발전전략을 도출하였음

〈표 V-3- 1〉 시·군별 발전방향_제천시

비 전	혁신으로 행복하고, 포용으로 성장하는 모두가 행복한 자연치유 건강휴양도시 제천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구조 혁신을 통한 행복도시 조성 ○ 산업경제 혁신을 통한 관광도시 구현 ○ 사회기반 혁신을 통한 복지도시 조성 ○ 주체의식 혁신을 통한 창의도시 구현
전 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삶의 질 보장되는 도시·농촌의 상생 발전 실현 ○ 제천 균형발전과 성장 기반의 교통·물류체계 구축 ○ 희망과 행복을 주는 힐링 경제 구현 ○ 지역·사람이 빛나는 창의문화 도시 및 체류형 공정관광도시 조성 ○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청정도시 제천 건설 ○ 안전한 도시, 풍요로운 복지도시 제천 조성

2) 전략별 추진과제

시민의 삶의 질 보장되는 도시·농촌의 상생 발전 실현

□ 생활권 중심의 통합적 정비 및 다양한 주거 환경 조성

- 생활권별 중심지역의 노후화된 시설과 빈 공간을 활용하여 활력 있는 공간 창출을 위한 도심 정비 사업 추진
- 생활권 단위로 통합적인 정비를 함으로써 개별적인 건축 및 지엽적인 정비 방식에서 소홀히 할 수 있는 기반 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의 정비 보완
 -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지원, 저층 주거지 소규모주택 정비, 골목주택단지조성 사업 등

□ 활력과 희망이 넘치는 도시재생 실현

- 지역자원, 정책방향, 주민의견 등 정성적 분석 및 경제, 사회적 측면의 정량적 분석을 통한 장기적인 도시재생 전략 계획 수립과 추진 전략 마련
 - 제천역세권도시재생뉴딜사업, 서부동도시재생사업, 어번케어센터건립사업, 새뜰마을사업 등
- 도심 내 각종 유·무형 자산의 조사·발굴과 더불어 재생과 연계한 활용 방안 구축 등

□ 삶의 품격 향상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추진

- ‘대규모 기간사업’ 중심에서 ‘사람·지역’ 중심으로 SOC 투자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문화·체육·복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 확충
 -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국공립어린이집, 공립노인요양시설 등 13종 사회기반시설

□ 삶의 질이 보장되고 사람이 돌아오는 활기찬 농촌 건설

- 주민을 포용하는 자립적 농촌사회 구축 및 4차 산업혁명 기반의 농촌 건설
 - ICT 기반 스마트타운 건설, 혁신 리더 육성, 공동체 회복 프로젝트 등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속 시행으로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여건 개선
- 농업·농촌 특성을 반영한 실효적 서비스 및 사업 제공으로 농촌 정주여건 향상
 - 농촌협약(제천시↔농림축산식품부)사업,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시골마을행복택시 운행 등
- 귀농·귀촌 활성화 및 효과적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 권역별 귀농·귀촌센터 설치,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찾아가는 영농코디네이터 운영 등

제천 균형발전과 성장 기반의 교통·물류 체계 구축

□ 지속 가능한 성장과 제천시 전역의 균형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교통체계 구축

- 제천시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광역 간선망 확충
 - 동서고속도로 개통, 지역 내 국도 및 지방도 확충, 관광순환도로 신설 등
- 효율적 도시교통관리체계 구축 및 사람 중심의 도심 교통 환경 조성
 -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 교통안전기반의 도로 정비 사업 등

□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 구현

- 제천 역사와 부지를 활용한 입체복합개발과 철도역사 및 주변 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할 교통 인프라 정비를 패키지형 정책으로 하는 도시재생형 제천 역세권 개발 필요
- 제천역이 제천시의 경제·사회·문화적 중심 장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역세권 주변 생활 인프라와 주변 시가지 정비, 광역교통수단과 지역교통수단의 복합환승체계 구축
 - 제천역세권도시재생뉴딜사업, 전통시장 기반 시설 정비, 북방철도물류기지 조성사업

□ 제천 “철도 르네상스” 구현으로 중부권 철도 중심지로 부상

- 중앙선 복선전철개통과 연계 사업 추진 및 코레일과의 상생 발전 방안 마련
 - 제천 신활력사업 추진, 차량정비기지 제천 건립, 코레일 계열사 제천 이전, 관광열차도입 등

희망과 행복을 주는 희망 경제 구현

□ 지역자원의 혁신역량 고도화 및 미래 지향적 성장기반 확충

- 기존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혁신역량을 강화
 - 천연물제제 다각화지원 기반구축사업, 천연물지식센터구축사업, 한방빅데이터센터 설치, 산업 단지 추가 조성 등
-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미래를 주도하는 시 차원의 새로운 전략적 육성 시도
 - 수소테마연료전지 발전시설 기업유치, 제천형 스타기업 육성, 제천 자동차(수송기계)부품산업 클러스터 및 중부내륙권 자동차 부품산업 광역클러스터 구축 등

□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 구축 및 상생기반의 고용생태계 조성

- 사회적 경제 및 공유경제의 확장을 위한 기반 조성, 지역 주도의 정책 추진
 - 상권르네상스사업, 사회적경제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건립, 공유경제활성화 조례 제정, 지역화폐 플랫폼 구축 등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고용생태계 조성
 - 제천형 노동 4.0 협의회 구축, 인근 지역과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상생 캠퍼스 조성 등

□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 살맛나는 행복 농촌 조성

- 농업 경영 환경과 여건 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
 - 청년 창업농 육성사업, 바이오첨단복합단지 조성사업, 지역특화임대형스마트팜 조성사업 등
- 경쟁력 있고 효율성이 높은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 친환경철린지마을 육성, 친환경농업단지조성, 고품질5색잡곡단지조성, GAP전문단지 조성 등
- 농산물 유통판매 체계의 선진화와 로컬푸드 공급 기반 확대
 - 농산물유통법인, 제천로컬푸드협동조합 운영 활성화 지원, 학교급식 확대지원, 직거래활성화 추진 등

□ 제천시 미래발전 선도 전략 사업 추진

- 제천 지역의 경제성장 실현을 통해 미래 발전과 혁신적 변화를 견인
 - 제천 맞춤형 융복합 도시재생 추진, 초록길드림팍랜드조성, 물길 100리 관광기반 조성사업, 의림지권 관광개발사업 등

지역·사람이 빛나는 창의문화 도시 및 체류형 공정관광도시 조성

□ 지속 가능한 시민 중심형 문화예술 기반 구축 및 활성화

- 문화재정기반 확충 및 열악한 문화시설 현대화를 통해 지역문화를 진흥 시킬 수 있는 핵심 기반 시설 조성
 - 김영희 시립미술관 건립, 문화예산 5% 실현, 제천예술의전당 건립, 제천문화재단 육성, 제천학 육성 등

□ 예술적 감성과 상상이 넘치는 영상문화도시 기반 구축 및 육성

- 영상문화 창의문화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활성화
- 시민과 함께 하는 영상문화 도시가 되도록 생활 속 영상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원
 - 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작은영화관 건립지원, 작은 시민영화제 개최 지원 등

□ 지역 기반 공정관광 기반 구축 및 지역사회 확산 전략 마련

- 자연치유도시로서 제천 관광브랜드 확립 및 브랜드 육성 전략 마련
- 기존 청풍호, 의림지 등 자원 중심의 제천시 관광 이미지에서 벗어나 자연치유도시로 제천시 관광 브랜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육성 전략 마련
 - 공정관광자원 콘텐츠, 스토리 개발,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 재미와 흥분을 유도하는 4계절 관광도시 편(Fun) 관광도시 구축

- 제천을 대표하는 4계절 관광자원 및 특화상품 개발로 관광객이 상시 방문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도시 도모
 - 초록길드림팜랜드조성, 4계절 관광 축제의 도시, 점말동굴명소화사업, 의림권역 관광자원 개발, 입신 양명 과거길 조성사업 등

□ 관광수용 태세가 체계화된 환대형 관광도시 구축

- 제천시의 관광객 환대 수용 태세를 확립하여 관광객에게 감동을 주는 환대관광도시 육성
- 관광자원 및 상품 계획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관광객 수용을 위해 먹거리, 살거리, 잘거리 등의 통합적인 관광수용태세 개선 전략 마련
 - 도심형 관광숙박시설 건립, 제천스마트관광통계 구축사업, 전통시장·도심상권 러브투어사업 등

□ 다양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 추진

-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제천체육관 건립, 제천 사회인 야구장 조성 사업 등
- 스포츠마케팅의 불모지 제천에서 전국규모대회를 공격적으로 유치하여 역량 강화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청정도시 제천 건설

□ 체계적 환경 관리체계 구축으로 쾌적하고 청정한 생활환경 조성

- 물, 대기, 폐기물, 상하수도, 하천 수질, 대기, 폐기물 분야 등 세부적인 추진전략 수립
 - 취수원 상류의 오염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수자원 확보, 제천시 폐기물 증장기 계획 수립 등

□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공존도시 조성

- 우수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다양한 청정 산업 육성
 -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낙엽 및 살림 벌채 부산물 이용 산업, 깨끗한 평창강 상수원을 이용한 물 산업 육성 등

안전한 도시, 풍요로운 복지도시 제천 조성

□ 누구나 언제 어디선지 안전한 제천 구현

- 제천시 재난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시민의 안전권 보장으로 화재, 폭염, 기반 시설 마비 등 다양한 유형의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재난 인프라 구축, 제천 맞춤형 매뉴얼 개선 사업 등

□ 재난 약자를 중심으로 체감 안전망 확보

- 재난에 대한 시민의 높은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
 - 제천시국제안전도시 지정사업, 시민 중심의 재난안전리빙랩 지원사업, 어린이 및 노인 친화형 도로 환경 구축

□ 포괄적, 통합성, 지역성 기반의 참여적 복지 실현

- 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 다양한 연령층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 아픈 아이 돌봄서비스 확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60+교육센터 설치 등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 보건의료전달체계 구축

- 모바일을 통한 웰니스 서비스 제공 및 미래 신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평생 건강관리체계 구축
 - 원격의료 지원시스템 구축(마을회관-보건소-병원), 스마트기기 건강관리시스템 도입 등

□ 평생학습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가치 창출

- 급격히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 시장에 대응하고 전 시민의 전 생애에 걸친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체제 마련
- 평생 교육의 수요 증가에 따라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필요
 - 교육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지역교육정보 플랫폼 구축, 고용 연계를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 등



제4장 보은군

1) 비전, 목표 및 전략설정

- 보은군은 미래 핵심가치인 풍요와 성장, 건강과 어울림을 기반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미래, 스포츠관광도시 보은”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통과 자연을 바탕으로 4차 산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활력과 혁신이 넘치는 보은군을 달성하는 동시에, 주변 도시와 동반 성장하며, 노인이 행복하고 젊은이들이 살기 좋아,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보은군 실현
- 보은군의 전통적인 관광자원과 그동안 추진해왔던 스포츠 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해 기존 관람 위주의 정적 관광에서 참여형 동적 관광으로의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관광객 1천만 명이 찾는 중부권 최대 휴양관광지를 조성함으로써 스포츠 융복합 관광도시로 브랜드화 추진

〈표 V-4- 1〉 시·군별 발전방향_보은군

비 전	<p>풍요롭고 행복한 미래, 스포츠관광도시 보은</p> <p>- 관광객 1천만 명이 찾는 중부권 최대 스포츠관광도시 조성 -</p>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 구축 및 미래 신성장 동력을 기반으로 풍요로운 지역경제 ○ 스포츠와 관광, 농업이 융복합된 신산업 육성으로 체험하는 스포츠관광 ○ 노인이 행복하고, 젊은이가 살기 좋은 함께하는 체감행복 ○ 주변 도시와 상생하기 위한 열린 공간 조성 및 스마트행정 구현으로 성장하는 도시기반
전 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농업, 청년 농업인 육성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농업 ○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로 미래발전 성장 동력 ○ 스포츠 융복합 신산업 육성 및 충청권 생활체육 거점 조성 ○ 속리산 Renewal, 중부권 최대 힐링쉼터 조성으로 도시민의 힐링관광 ○ 청정환경 안전사회 조성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군민복지 실현 ○ 주변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열린공간 및 열린행정 체계 구축

2) 전략별 추진과제

친환경 농업, 청년 농업인 육성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농업

-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 구축 -

□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전략산업화

- 보은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친화형 농업 확산 및 브랜드화 추진, 적극 수요 창출
- 친환경 사료작물 재배를 통한 친환경 축산 육성 및 광역 브랜드 개발

□ 농업·농촌의 고부가가치화

- 농촌 고부가가치 창출, 농업과 관광의 융복합화 추진
 - 농촌 중심지 활성화 및 소득기반 확충, 대추 테마 특화 전통시장 조성 등
- 보은대추의 명품화, 가공산업 육성, 세계화, 신제품 엔비사과 확대 추진

□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 환경 조성

- 지속적인 농촌지역 고령화로 미래 농업 위기에 대응한 청년농업인 육성
- 외국인 노동자 정주환경 조성으로 안정적인 농촌인력 확보

□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

- 기존 농업의 품질 향상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농업분야 지원 강화
 - 잠곡종합처리장 건립, 통합 RPC 지원 사업 등
-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과수 거점 융복합산업 기반 조성
 - 묘목관리센터, 홍보체험관 등 신제품 과수 허브단지 조성 등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로 미래발전 성장동력

- 보은군의 특화산업 및 선점 자원을 활용한 미래 먹거리 발굴 -

□ 융복합바이오 식품산업 육성

- 보은군 특화산업인 기능성 식품을 중심으로 한 융복합바이오 식품산업 육성
- 보은군 농업 작물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개발로 농가소득 증대 및 부가가치 창출



□ 군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드론산업 육성

- 첨단농업과 백두대간 산림감시 분야에 특화된 드론산업 육성
- 중부권 드론 메카로써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드론산업전용 클러스터 조성

□ 미래 신산업 육성기반 및 지역경제 연계 전략

- 바이오, 드론, 연료전지 등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및 기업유치로 일자리 창출
- 신성장동력 산업 유치를 위한 미래형 대규모 신산업단지 조성

스포츠 융복합 신산업 육성 및 충청권 생활체육 거점 조성

- 스포츠, 관광, 농업을 융복합한 스포츠�관광 도시로서의 인지도 제고 -

□ 스포츠와 관광, 농업의 융복합화 추진

- 스포츠 참여와 경기 관람 등 스포츠인들이 체류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 조성
- 충청권 스포츠 동호회의 생활체육 거점 조성 및 지역 내 스포츠 여가활동 지원

□ 스포츠크관광 도시로서의 전국적인 인지도 제고

-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으로 전국 스포츠 실업팀 전지훈련의 메카로 조성
 - 보은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추진, 보은사격연습장 설치사업 등
-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 유치로 스포츠 도시로서의 이미지 각인
- 스포츠의 메카 보은의 이미지 극대화를 위한 스포츠 복합 테마파크 조성

속리산 Renewal, 중부권 최대 힐링쉼터 조성으로 도시민의 힐링관광

-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부합하는 충청권 힐링쉼터 조성 -

□ 충청광역도시생활권 내 도시민의 힐링관광지 조성

- 중부권 최대 힐링 휴양관광지 조성으로 충청권 힐링쉼터 기능 수행
 - 관광단지(리조트 개발), 체험단지, 문화단지, 산림레포츠, 치유의 숲 조성 등
- 속리산 관광지의 ReNew사업, 체류형 관광지 조성
 - 속리산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 사업(3.69km), 힐링특구, 루지체험장, 둘레길 조성 등
- 관광자원 간 연계를 위한 정이품송지구 관광 활성화

□ 농산물 판매와 체류형 관광이 융합된 명품 대추축제 육성

- 기존 대추축제를 확대 개편하여 체류형 관광과 연계한 명품축제 육성
 -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보은 프리미엄 대추맥주 사업
- 농산물 판매 중심의 기존 축제를 활용한 지역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지역민의 문화생활 환경 조성

- 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추진을 위한 조직기반 구축
- 보고 가는 관광 위주의 기존 관광에서 체류할 수 있는 관광사업 발굴 추진
 - 마을호텔 지원사업, 보은 일주일 살기 지원 프로그램 등
- 기존 전통자원과 미래 신기술을 융합한 미래지향적 관광자원 발굴
 - 충청유교문화권 조성사업, 우국이세 한글문화관 건립, VR/AR 테마파크 조성 등

청정환경 안전사회 조성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군민복지 실현

-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군민 모두 체감할 수 있는 행복도시 구현 -

□ 청정 자연환경 보전사업 추진

-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저탄소 친환경 인프라 구축
 - 산림자원 육성, 백두대간 테마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리엔업사이클 플라자 조성 등
- 기후변화에 안전한 환경 조성
 - 기후변화 대응 고도화 사업, 국토-기후환경 통합 스마트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등
- 대기환경 개선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사업 추진
- 보은군 생태 서비스 및 생태 자본 확충사업 추진

□ 안전한 보은 만들기 사업 추진

- 안전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을 위한 촘촘 안전망 구축
- 환경 취약지역 및 민감계층 선제적 환경관리사업 추진
 - 회인, 울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재난안전 대응체계 구축
 - 보청천, 거현천, 중초천, 달천, 오덕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 편리한 보은 만들기 사업 추진

- 도시기반 시설 및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으로 편리하고 안정적인 도시서비스 공급
 -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차량 도입, 관광형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운영,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등

□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군민 복지 실현

-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강화,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환경조성 사업
- 군민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 실현
 -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복지사업, 노인, 장애인 복지사업, 다문화가정 관련 사업
- 지리적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위한 온라인 사회복지서비스 플랫폼 구축

□ 사람들이 모여드는 문화복지 전달체계 구현

- 문화학교, 노인회관 등 평생교육 실현
- 대상 계층에 따른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청년 커뮤니티 공간 설치, 군립 추모공원 조성, 육아 환경 조성 등

주변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열린공간 및 열린행정 체계 구축

- 충청광역생활권 내 여가·휴양기능 기반 조성 및 스마트 행정체계 구축 -

□ 주변 도시에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미래 열린공간 조성

- 충청권 연계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주변 도시와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 보령~대전~보은 간 고속도로, 세종~청주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
- 충청북도 내 타 시군, 지역 내 간선축 기능강화 사업 추진
 -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국도 25호선, 37호선 확포장사업 및 지방도 확포장 사업

□ 보은군 지속 성장을 위한 국가 간선 교통축 연계사업

- 동서축 대비 부족한 남북 간 연계교통축 강화
 - 중부고속도로 내륙지선 고속도로(증평~청주~보은~영동~무주)
- 충청북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백두대간 순환도로망 구축
- 철도 르네상스 시대 보은군 발전을 이끌 국가간선 철도사업 추진
 - 동서횡단철도, 중부선(동탄~청주공항) 연계 청주~보은 철도망 연결사업 추진 등

□ 잘사는 보은군을 향한 성장기반 구축

-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 기능 확장으로 남부 3군 과수물류중심지 육성
-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교육훈련 전문화 및 미래형 일자리 플랫폼 구축

□ 행복한 보은군 조성을 위한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사업

- 미래지향적 농촌마을 공간 만들기
 - 보은군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폐교 활용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보은읍 쉼터 및 주차환경 개선 등
- 지속 가능한 농촌을 위하여 청년들의 농촌 정착 환경 제공
 - 청년 보금자리 신규지구 추진 등
- 베트남 등 해외문화 체험 및 이주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
 - 아시안빌리지 조성사업 추진 등

□ 미래형 행정조직 문화 구축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탄력적 조직 운영
 - 보은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보건소 감염병대응과 신설 등
-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교육훈련의 전문화
-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 지방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

- 투융자사업 심사제도 운영의 내실화
- 대규모 투자사업의 다각적 재원조달
- 안정적 세수확보를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 군민이 참여하는 능동적 창조적 열린행정 구축

- 갈등관리 조정협의회 등 주민참여 인프라 확충
- 자매·우호도시 교류 기회의 확대
- 군민 공감 모바일 정책 포럼 운영
- 지역 마을 공동체 중심의 생활 자치
- 주민참여 예산제, 행정서비스 모니터링 등



☐ 스마트 행정체계 및 디지털 거버넌스 구축

○ IOT 기반 스마트 행정시스템 구축

○ 와이파이 프리존 확대 구축

☐ 군민이 군정 추진의 핵심이 되는 선진형 참여행정 구현

○ 고객 중심의 디지털 군정혁신단 구성, 운영

○ 지능형 쌍방향 주민참여시스템 구현 등

제5장 옥천군

1) 비전, 목표 및 전략설정

○ 옥천군은 《청정자연과 문화가 경쟁력이 되는 희망의 옥천》을 발전의 비전으로 삼아 ‘새로운 도약과 미래성장 기반 확충’, ‘안정적인 일자리정책과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기반 구축’, ‘청정자연과 어울린 행복한 옥천 조성’의 3개 목표와 10개의 발전방향을 도출하였음

〈표 V-5- 1〉 시·군별 발전방향_옥천군

비 전	청정자연과 문화가 경쟁력이 되는 희망의 옥천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도약과 미래성장 기반 확충 ○ 안정적인 일자리정책과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기반 구축 ○ 청정자연과 어울린 행복한 옥천 조성
전 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청호, 금강권역 대도시의 배후도시로서의 거점 조성 ○ 지속 가능한 발전과제 발굴 및 미래 성장 기반 조성 ○ 도시활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도시설계 추진 ○ 활기차고 역동적인 지역경제 육성 ○ 지속 가능한 고수익, 고품질 특화산업 육성 ○ 주민만족 행복도시 기반 구축



2) 전략별 추진과제

대청호, 금강권역 대도시 배후도시로서의 거점 조성

□ 광역철도 옥천연장에 따른 교통 접근성 강화로 ‘일터’-‘삶터’-‘쉼터’가 조화되는 복합 공간 조성

- 2023년 광역철도 옥천연장사업 개통으로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옥천역 주변 개발 정비사업 추진
- 대전권 배후도시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대전 신상동 - 옥천 군북면 구간 국도 4호선 확장 추진
- 대도시 접근성 강화로 주변 관광자원(향수 호수길, 장계관광지, 전통문화체험관, 장령산 휴양림, 민간 관광시설 등)을 연계한 협력사업 발굴을 통하여 대도시권 쉼터로서의 기능 강화 추진
- 충청북도 남부권의 저발전 성장을 이끌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옥천을 충청북도 남부권 역 중핵도시로의 육성과 위상 재정립 추진

□ 대청호와 금강이 만나는 생태관광 클러스터 구축

- 천혜의 자원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대청호를 중심으로 생태 수목원, 생태습지, 지역연계 생태관광벨트 등을 조성하여 국내 최대 생태관광 중심지구 육성
- 장령산 자연휴양림, 휴-포레스트, 향수 바람길, 향수 100리 자전거길, 청산 생선국수, 민간 조성 관광시설 등을 연결하는 달팽이형 발전축을 설정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한 2H(Health + Healing) 투어 육성
- 현대 시인의 거장 정지용 생가, 짹짹 어린이 동요(정순철) 특구 조성 등 한국 시문학 중심 문화관광 육성
- 내륙권 선도사업인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성 사업을 통하여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청정 자연자원과 문화를 테마로 한 관광콘텐츠 개발

- 유교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충청 유교문화권 사업(옥야동천 유토피아: 성스럽게 여기는 장소로 유교의 이상향을 뜻함) 추진
- 전통문화체험관을 중심으로 지역관광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융복합 공간 설계를 통한 관광 거점 조성
- 대청호 조성 이후 각종 규제(군 전체면적 83.8%)로 고통을 받고 있는 옥천군에 규제 일변도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는 국립호수생태자원관 건립 추진(연구+전시)

- 대청호 및 금강변 유희지를 활용한 대단위 유채꽃 단지를 조성하여 관광 상품화 추진
- 대청호 저수구역 친환경 경관개선을 통하여 지역의 명소인 향수 호수길 ~ 장계관광지 등을 연계한 친환경 생태관광자원 개발(동이면 안터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 추진)
- 게르마늄(전운모) 국내 최대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옥천군에 게르마늄을 활용한 건강플라자를 조성하여 관광 상품화 추진
- 지역 최대 현안인 장계관광지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옥천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타워 및 테라피 센터 조성사업 추진
- 옥천 향토전시관 노후화와 소장 유물 전시공간 부족, 지역민 문화 향유 욕구 증대에 맞춰 옥천 역사박물관 건립사업 추진
- 전통 및 근대문화유산의 보고인 구읍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근대문화유산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근대역사 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

지속 가능한 발전과제 발굴 및 미래성장 기반 조성

□ 지속 가능한 발전과제 발굴 및 미래성장 기반 조성

- 각종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대청호변 규제(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완화를 통하여 친환경 개발(도선 운항 등)을 통한 수변관광 활성화 추진
-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 사업 추진
 - 산림청 및 충청북도의 운영기관 유치를 통하여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 집중 육성
- 대청호반의 자연과 문화가 강점인 장계관광지 리뉴얼 사업 추진
 -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대청호변(장계관광지~향수호수길~구읍 문화유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의 관광명소지구 조성
- 옥천 읍내 군사시설 위치로 지역발전 저해, 군사시설(군 사격장) 이전을 통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추진
- 감염병 등 재난대비 공공의료기관 설치 필요성 대두, 도내 공공의료기관은 시단위 집중, 북부권 공공의료원 건립 추진 중, 지역균형발전과 남부권 도민들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해 남부권 중심인 옥천군에 거점 공공의료기관 설치 추진



□ 미래를 이끄는 새로운 먹거리 창출

- 내륙첨단산업 특화 거점 육성과 연계한 사업 추진(바이오 신약 및 의료기기)
- 기계가공 및 의료기기 산업 등에 활용 가능한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의 신속한 애로 기술 지원 할 수 있는 첨단부품 스마트 금형/주형 지원센터 구축사업 추진
- 인근 대도시 연구단지 내 고급 인력 은퇴시기에 맞춰 배후도시인 옥천군에 은퇴자 마을, 사이언스 빌리지 등을 조성하여 대덕연구단지 등 인근 대도시 고급인력 활용사업 발굴·육성
- 청정자연을 활용한 미래형 식품사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
- 전국 친환경 물류유통 중심거점(허브)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강화
 - 전국 택배 물류 중심을 활용하여 물품(리퍼, 반품, 전시) 장터 개설·운영 등

도시활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도시설계 추진

□ 도시활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도시설계 추진

- 광역철도 옥천연장사업 추진, 문정 공공청사 부지 조성, 관내 공공기관 재배치 움직임 등 전략적 공간 설계 추진
- 옥천읍 서남부권 아파트 신축, 공장 입주 등 인구 유입 증가에 따라 관내 균형발전 필요성 대두,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문화 기반 구축 사업 집중 추진
- 충북도립대학교 기숙사 신축, 창의어울림센터 구축 등 대학과 주민이 함께 그리는 대학 타운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
- 옥천읍, 청산면, 이원면 도심 공동화 현상 방지를 위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재생 전략계획 지속 추진
- 옥천읍 및 주요 도시계획 구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전선 지중화사업 지속 추진
-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한 행정수요 공간 확보 등 지역발전의 계기 마련을 위한 옥천군 신청사 건립 추진
- 공공청사 부지 조성 및 공공기관 등 이전에 따라 발생된 유휴지를 활용한 공공기관 유치
 - 산림청 산하기관 유치(중부권 산림, 묘목의 특화지역 조성), 한국 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이전, 충북도립대학교 확장(간호학과 신설) 등
 - 충청북도 남부출장소 및 옥천경찰서 공공청사 부지 내 이전 확정으로 옥천읍 시가지 공동화 현상 방지(도심 공간 재배치 추진)

- 주민과 밀접한 현장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이·통장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운영 필요성 대두,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한 옥천군에 이·통장 교육연수원 유치 추진

활기차고 역동적인 지역경제 육성

□ 활기차고 역동적인 지역경제 육성

- 기업의 대내적 환경변화에 맞춰 미래를 준비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토털 경제 시스템 구축과 기업 환경개선 지원 등 기업 경영활동 지속적 지원으로 지역 고용률 제고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
-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일반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신규 조성과 기존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추진
-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로개척 지원 등 경쟁력 있는 향토기업 육성방안 마련 및 우량기업 투자 유치 전략 추진
- 옥천사랑 상품권(지류형, 카드형) 확대발행 유통, 점포환경 개선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등 소상공인 확대지원 방안 지속 연구
- 주민 주도형 신재생에너지 육성 지원
-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경매(희귀품, 농산물, 생활물품 등) 물품에 대하여 규모화한 통합형 종합 경매타운 조성

지속 가능한 고수익, 고품질 특화산업 육성

□ 지속 가능한 고수익, 고품질 특화산업 육성

- 농업의 4차 산업화에 대응한 전문교육훈련 및 농촌 지도 등을 통하여 농축산업 육성 및 고부가가치 산업화 전략 추진
- 이상 기후변화 대응 전략작물 개발을 통한 지역 특화 상품화 추진
- 지역 농업 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판매 지원시스템 구상
-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귀농·귀촌인들의 초기 정착지원시스템 강화
- 지역농산물 생산-가공-유통-소비의 유기적 연결과 안정적 판로확보 등 로컬푸드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지역의 강소농 집중 육성



- 친환경 자재 지원, 생산기반 구축 등 친환경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농촌공간전략 계획 수립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기능 강화 및 특화마을 조성(농촌협약)
- 지역 여건에 맞는 스마트농업 육성으로 농업분야 4차 산업혁명 확산 및 농업경쟁력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노지 과수 스마트팜사업 추진)
- 특구산업(묘목, 옷 산업) 육성
 - 묘목, 옷 산업 특구지역을 살려 경쟁력 있는 특구산업 지속 육성
- 전국 제일의 묘목 생산지인 옥천에 세계대회를 추진하여 묘목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과 명품화 도모(묘목 세계 박람회 개최)

주민만족 행복도시 기반 구축

□ 주민만족 행복도시 기반 구축

-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 확충으로 지역민의 건전한 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목적 체육센터 및 다목적 구장 건립 추진
- 젊은 계층의 인근 대도시 유출 등을 방지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체감도 높은 주거복지 정책 추진을 위해 행복주택 건설 사업 추진
-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영위를 위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추진
- 고령화 등 구조적 사회문제 해결과 관내 거주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주택 건립 추진(고령자 및 근로자 아파트 건립)
- 삶의 질 향상과 재화에 필요한 여건들을 장애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장애인 복지관 및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추진
- 관내 산재된 복지기관을 한곳에 모아 육아, 아동, 노인, 다문화 등 상호 소통과 협업을 통하여 종합적 복지허브를 조성하는 옥천통합복지센터 조성·운영
-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인구 증가로 인하여 많은 사회문제 발생, 이에 치매관리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환자, 가족의 안정적 삶 영위에 기여하기 위한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추진

□ 군민 누구나 행복한 정주여건 개선

- 경부선 철도 및 최근 인구 유입 증가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통행에 불편을 겪는 옥천읍 서남부지역의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양수천 통로박스 확장 추진

- 중부권 물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IC 교통혼잡 예방을 위하여 경부고속도로 동이·이원 하이패스 IC 설치 추진
- 옥천읍 서남부권 인구 유입 증가로 인하여 교통체증 해소와 장기적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등 주변 개발사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양수-월전 도로개설(삼성산 터널) 추진
- 생활 인프라 부족 등 취약한 마을을 대상으로 생활안전 및 생활인프라 개선 등을 통하여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추구하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속 추진
- 옥천읍은 경부선, 국도 4호선으로 갈라져 있어 옥천역 등 주요시설 연계 부족,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부선 철도 횡단 인도교 설치(옥천역)
-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역의 교통, 환경, 주거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해결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
- 개발제한 구역을 활용한 인근 대도시권 수요 확장과 지역주민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형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추진
- 홍수기 피해 방지를 통해 지역민들의 재산 및 생명 보호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정주 기반 구축을 위한 풍수해 생활권 정비 및 재해위험개선 사업 지속 추진
- 매년 반복되는 가뭄이나, 지하수 고갈 등 생활용수 및 음용수 부족을 해결하고 안정적이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청성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제6장 영동군

1) 비전, 목표 및 전략설정

- 영동군은 《청정 자연! 힐링 관광 영동!》을 계획의 비전으로 삼아 ‘관광산업과 농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적 가치 실현’, ‘3개 생활권 성장기반 구축’, ‘공유사회기반을 위한 사회 안전망 형성’의 3개의 목표와 6개의 발전방향을 도출하였음

〈표 V-6- 1〉 시·군별 발전방향_영동군

비 전	청정 자연! 힐링 관광 영동!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산업과 농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적 가치 실현 ○ 3개 생활권 성장기반 구축 ○ 공유사회기반을 위한 사회 안전망 형성
전 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미래성장산업 기반 구축 ○ 문화·여가 중심의 힐링문화 체험관광 도시 구축 ○ 군민 누구나 누리는 행복복지도시 건설 ○ 고속교통망 구축을 통한 중부내륙권 거점 도시 구축 ○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건설 ○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균형발전 촉진

2) 전략별 추진과제

친환경 미래성장산업 기반 구축

□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생명농업 기반 구축

- 지역 특산품인 과일의 지속적인 상품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급화 전략으로 친환경우수농산물 지원을 통한 PLS 의무이행과 GAP/ Non-GMO 사업 확대

□ 농촌인력 감소에 대비한 농업인력 확보방안 구축

- 일손부족(고령, 부녀자) 해소를 위한 인력중개센터, 생산적 일자리 긴급지원반 운영 및 위탁영농 활성화와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교육 확대
- 안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를 위해 해외도시와 자매결연
- 젊은 층 유입으로 도농 상생을 위해 자매도시와 농촌인력 확보 방안 모색

□ 미래 먹거리 발굴 방안 구축

- 장기적으로 기온변화에 대응하여 향후 기후 및 환경 여건에 맞는 경쟁력 있는 농업작물 개발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품목 개발로 유망작목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 과일의 고장이라는 영동군의 특성을 살린 과일종묘 산업 육성을 통한 종묘관련 전문인력 육성, 묘목재배 단지 조성
- 와이너리의 규모화를 통한 영동 와인의 전국 유통망을 구축하고 와인산업의 안정화로 과수생산 기반 및 농촌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한 와인산업 클러스터 조성

□ 지역특화산업 기반 구축

- 4차 산업 중심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농업 중심 발전 및 소득증대 도모하고 농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 영동군의 부존자원인 일라이트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특화사업을 통한 영동 미래발전의 원동력 확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설

문화·여가 중심의 힐링문화 체험관광 도시 구축

□ 체류형 관광지 기반 구축

- 영동군의 주요 관광지(레인보우 힐링관광지, 과일나라 테마공원, 국악체험촌,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노근리평화공원, 영동체육공원 등)를 거점으로 명소성·이색성·연계성 강화를 통해 영동군 관광 산업의 활성화 및 명소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체류형 관광기반시설 체험 유형 다양화 및 특성화
- 생태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상징적 관람, 체험시설 도입으로 초강천 빙벽장의 1계절형(겨울) 관광시설의 한계를 극복하고 4계절형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초강천변 사계 레포츠(모노레일, 잔도, 썰라인 및 전망타워 등) 명소화 구축
- 도마령의 우수한 경관과 함께 이색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전망 공간 조성으로 명소성 확보 및 관광 만족도 제고를 위한 도마령 관광자원 개발(전망대 및 전망타워 설치 등)

□ 양수발전소 주변 관광 자원화

- 영동군 미래 성장 동력원인 양수발전소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을 마련하고자 주변 산림자원과 상·하부담을 활용·연계한 산림형 레저·힐링 관광지로 개발
- 힐링관광지, 도마령, 물한계곡, 민주지산을 연계하는 체류형 힐링·생태 관광 기반 구축

□ 국악 기반시설 활용한 힐링문화 기반 구축

- 난계 박연선생의 탄생지이며 국악의 고장인 영동군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국악체험촌, 난계 국악기체험촌 등 국악 기반시설 콘텐츠 차별화 및 특성화를 통한 최신 트렌드 관광상품 개발
- 전통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지역문화 창달과 국악의 생활화 및 대중화에 기여하고 전통문화 유산을 계승하여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

□ 세계국악엑스포 개최

- 국제적 국악행사 개최를 통하여 국악인프라 확충 및 국악도시로 브랜드화하고 국악의 미래 산업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국내 분산된 지역별 국악 및 세계 각국 전통음악 공연, 전시 및 포럼 등을 개최하는 세계국악엑스포 추진

군민 누구나 누리는 행복복지도시 건설

□ 초고령사회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

- 독거노인이 많이 생활하는 경로당은 공동생활시설로 전환하고, 적정규모 이상의 경로당은 여가복지 프로그램이 주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맞춤형 경로당으로 육성하는 등 경로당 기능 확대 및 원격 의료진료 인프라 구축,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등 치매 관련 사업 확대

□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실버복지 강화

-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 등 위기상황 극복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 확대
-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재활시설로 장애인들의 건강증진 및 재활을 통하여 사회 참여 유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전용 건강지원센터 건립
-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고독사 등 사회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주거와 복지를 혼합한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

□ 아동·청소년부터 여성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평생복지 정책 확충

-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부모에 대한 상담, 교육 등 가정양육에 대한 One-stop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아이키우기 좋은 영동만들기’ 환경 조성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 청소년이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과 소통의 장 조성으로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 및 청소년 복지타운 건설
- 일반, 다문화, 미혼·한부모 가족 등 모든 가족을 위한 건강가족·다문화가족 지원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
- 지역적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하고자 체계화된 평생학습 체제 구축으로 평생학습도시 운영

고속교통망 구축을 통한 중부내륙권 거점도시 구축

□ 충청권 광역철도 영동 연장사업 건설

- 낙후된 충청북도 남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관광·문화 교류 등 대전생활권과의 상생발전 및 접근성 확보로 도농 간 균형발전 도모 위한 충청권 광역철도 구축을 통한 중부내륙권 거점 도시로 성장



□ 국가간선도로망 구축체계의 남북 3축과 동서 4축의 연결을 통한 광역접근성 개선

- 국가간선도로망 구축체계 남북 3축(통영대전, 경부, 중부내륙)과 동서축(당진~영덕)을 연결하는 광역접근성 개선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중부고속도로(대전~통영)와 당진영덕 간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
-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국도 19호선 및 국도 4호선 개량을 통한 국도와 고속도로 연결 구축

□ 산막~조동 간 도로망 구축

- 민주지산 휴양림과 용화 오지마을에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기반 도로망 시설 확충으로 물류비용 감소와 무주로 우회하고 있는 민주지산 자연 휴양림 내방객의 교통편익 제공으로 관광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기여하고자 산막~조동 간 도로망 구축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확충,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보행환경 확충, 신속한 도로 유지보수
- 도시구역 내 난립한 전신주 및 공중선이 중심시가지의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재난 취약 환경 개선을 위해 전선 지중화 지속 추진
- 불필요한 교통신호 대기시간 절약과 대형 교통사고 방지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
- 영동읍 시가지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주차장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 위한 주차장 확충
- 상습 침수지역 내 잦은 홍수로 인한 가옥 침수 등의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추진

□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 및 도시경관 개선

- 생활편익,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을 충족하고 농촌지역의 중심거점 공간으로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농촌마을 정비 사업 추진
-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추진

- 넓고 쇠퇴한 도시의 주거안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단순한 주거정비가 아닌 도시를 재 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 노후 간판을 지역 및 점포 특성을 살린 간판으로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확대
- 재해·위생·안전 등에 취약한 기초생활 인프라를 보강하고 집수리 지원 등을 통해 노후·불량한 주거여건 개선 위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 야간 및 어두운 공간의 장애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환경 제공하기 위한 경관조명사업 확대

□ 수질개선을 통한 군민생활 향상 및 공공복지 증진

-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방류수역 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하천 수질보전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개인하수처리시설 정비

□ 깨끗하고 안전한 급수환경 조성

- 녹물 발생, 이물질 유입 예방 및 누수 저감, 가뭄 대응 유지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깨끗한 수돗물 공급 위한 지방상수도 확장,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확대, 시설현대화 추진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균형발전 촉진

□ 도·농간 생활공간 공동이용으로 도·농 생활권 구축

-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농산촌마을 공동체 회복 및 도시·농촌 간 상생기반 확대
- 생활권(중부, 동부, 중부)별 권역 환승센터 도입으로 3·6·5생활권(30분 내 기초생활서비스, 60분 내 복합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고, 5분 내 응급상황 대응체계 마련) 구축

□ 중부내륙권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조성

- 경부고속도로, 경부선 등이 통과하는 주요 교통요지라는 특성을 활용하여 황간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차세대 물류배송센터 건립 추진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론에 대응하기 위해 3개 광역자치단체(충남, 경북, 전북), 5개 시·군(옥천군, 상주시, 김천시, 무주군, 금산군), 16개 읍면과 접하고 있는 영동군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공공기관 유치 추진

제7장 증평군

1) 비전, 목표 및 전략설정

- 증평군은《행복 1번지 복지도시, 녹색 1번지 생태도시》를 발전의 비전으로 삼아 ‘활기찬 경제도시 증평’, ‘안전한 녹색도시 증평’, ‘행복한 휴양관광도시 증평’, ‘따뜻한 복지도시 증평’의 4개 목표와 6개의 발전전략을 도출하였음
- 행복 1번지 복지도시, 녹색 1번지 생태도시 실현을 위해 활기찬 경제도시 증평, 안전한 녹색도시 증평, 행복한 휴양관광도시 증평, 따뜻한 복지도시 증평 4개의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성장을 주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도시, 함께 발전하는 증평,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중부권 거점 도시, 삶의 여유를 더하는 휴양관광도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녹색도시, 따뜻한 복지도시·안전한 지역사회·행복한 증평 등 6개 발전전략을 추진하고자 함

〈표 V-7- 1〉 시·군별 발전방향_증평군

비 전	행복 1번지 복지도시, 녹색 1번지 생태도시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기찬 경제도시 증평 ○ 안전한 녹색도시 증평 ○ 행복한 휴양관광도시 증평 ○ 따뜻한 복지도시 증평
전 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을 주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도시 ○ 함께 발전하는 증평,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중부권 거점 도시 ○ 삶의 여유를 더하는 휴양관광도시 ○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녹색도시 ○ 따뜻한 복지도시, 안전한 지역사회, 행복한 증평



2) 전략별 추진과제

성장을 주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도시

□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산업인프라 구축

- 초중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기반 마련
- 기능성 바이오 소재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 기반 선점

□ 지역 특화 산업 개발 및 기업 육성

- 4D 바이오융합소재 산업화센터 연계 지역 특화 분야 유망기업 육성, 기능성 바이오 소재 산업 생태계 구축
- 증평 2일반산업단지 중심으로 첨단산업 육성과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 인삼 및 홍삼과 연계한 식품가공 산업 육성을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고 가공·유통 인프라를 활용한 부가가치 높은 관광산업과 건강증진 산업 연계 육성

□ 에듀팜특구, 글로컬 관광단지 허브 육성

- 에듀팜특구 관광단지 총괄 준공으로 누구나 즐기고, 힐링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글로컬 관광단지 구현
- 새로운 고부가 관광아이템 발굴로 관광객 유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도모
- 에듀팜특구 진입도로 확포장으로 관광객 접근성 및 이용 편리성 제고와 관광단지 기반 확대

□ 친환경 및 지역특화 농업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 소비자의 친환경 농산물 수요에 부응하고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소비기반 확대
- 고부가가치 지역특화작목의 육성과 생산 기반 시설 구축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 전략작목 발굴 및 육성을 통한 농업 소득 증대로 잘 사는 농촌 건설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연구기능 강화
-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확보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로컬푸드를 활성화하여 지역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 및 상생발전 도모

□ 사람이 모이고 머무는 전통시장 활성화

- 전통시장인 장뜰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시장 상권 활성화
- 문화가 함께하는 보부상 작은 축제와 연계 전통시장 관광자원화

함께 발전하는 증평,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 균형 발전사업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 단계별 지역 균형 발전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의 지속성장 기반 구축
- 지역의 현안사업을 연계한 균형발전 기반 조성 사업 추진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 구도심 활성화 및 농촌 중심지 기능 강화

- 증평읍 윗장뜰 도시재생 뉴딜사업, 증평읍 창동리 도시재생 인정 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도심과 시가지 기반 시설 정비
- 읍면초 조합 부지 활용하여 주민을 위한 교육·문화 거점개발, 창의파크 조성 및 주민역량 강화

□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립적 성장 기반 구축

- 지역·정보·휴식이 있는 34+ 오고파랜드 조성
- 주민 주도 지역만들기 주체 육성을 위한 지역활동가 ACE 양성
- 34플러스 전략사업 추진
 - 증평인삼 융·복합 콘텐츠 개발, 지역특산매장 운영, 증평 인삼 융·복합 전략 수립

□ 농촌마을 개발 및 정비로 농촌 정주공간 조성

-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을 통한 생활 환경 정비로 살기 좋은 농촌 정주공간 조성
- 농촌마을의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자립기반 강화로 농촌마을 경관개선 및 활력 고취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중부권 거점도시

□ 사통팔달 교통망·철도망 구축

- 충청내륙고속도로로 제1도로와 제2도로의 연계지점 위치로 충청북도 북부권과 남부권 간 교통·물류의 중심지 역할 수행
- 동서5축 자동차전용도로 건설, 중부고속도로 확장으로 충청북도 중부권 교통 중심지로 발돋움
- 중부권 철도 물류기지 구축, 여객운송 재개를 위한 도안역 정비,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정비 기지 건설 등 여객 및 화물 운송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철도산업 활성화 도모
- 초정~증평(증평읍 남차리)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를 통한 남부권 접근성 개선 및 지역 성장 도모
- 초정~증평 지방도 확·포장 공사 구간을 증평읍 증천리부터 죽리까지 연장하여 남북 간 교통망을 구축, 통행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의 기반 시설로 활용
- 용기~금대 도로개설공사, 연탄~산업단지 간 연계도로 개설로 교통 효율성 제고
- 공영주차장 확충, 증평읍 시가지 내 사람중심 교통환경 조성

□ 송산지구 주택단지 조성으로 인구 유입 견인

- 송산지구 주거단지 추가 조성으로 인구 유입을 견인하고 지역 활력의 신동력원으로 활용
- 송산리 택지개발 단지 인근 보강천 미루나무숲을 주축으로 주민편의기능 강화하고 보강천 작은 교육문화공간 조성으로 주민 휴식공간 확보
- 보강천 물빛공원 활용 버스킹 등 문화공연 기회 제공으로 여가 생활공간 확보

□ 공공기관 유치로 발전 기반 확충

-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신규·이전 설치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중부권 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충청북도문화예술회관 건립
- 증평경찰서, 도안 119안전센터 건립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서비스 기능의 충족과 살기 좋은 도시 이미지 창출

삶의 여유를 더하는 휴양관광도시

□ 좌구산 휴양랜드를 이용한 휴양·관광기능 극대화

- 울리휴양촌, 자연휴양림, 천문대, 명상구름다리, 좌구산 숲 명상의 집을 운영하고 좌구산 휴양랜드를 활용한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지속 개발하여 중부권 산림휴양 중심지로 육성
- 휴양랜드 내 역동적인 산림레포츠 체험 기반을 확충하고 숲과 함께하는 맞춤형 산림치유프로그램을 통한 힐링 산림서비스 제공으로 좌구산 휴양랜드 활성화

□ 지역의 관광자원 활용한 관광 인프라 확충

- 관광종합개발 연구용역 완료에 따른 관광상품 지속 발굴로 지역관광 활력 도모
- 인삼산업과 연계한 증평인삼골 축제 확대
- 병영의 거리 조성 등 지역의 군(軍)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추진

□ 문화유산의 가치 보존으로 문화도시 구현

- 추성산성 발굴 및 정비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과 활용성 제고
- 충청북도 지정문화재 남하리 사지 발굴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불교유적 관광자원화
- 구암서원 복원, 민속체험박물관과 연계한 전통문화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 확대
- 독서왕김득신문학관 문학프로그램 운영 및 김득신 캐릭터 활용 문화상품 지속 개발

□ 종합운동장 등 체육 기반 조성

- 체육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종합운동장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 도모
- 충북도민체전 개최 등 각종 체육행사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증평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리틀야구장, 민·군 복합 생활체육공원 신규 설치로 생활체육 참여를 유도하고 건전한 여가 활용 공간 마련

□ 생활밀착형 복합문화공간 도서관 육성

- 전 세대가 함께하는 세대 공감형 독서프로그램 운영
- 문화공연, 영화 상영, 아고라 북페스티벌 등 문화가 있는 도서관 운영
- 도서관-문학관-청소년문화의집 연계 이야기 공간 조성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녹색도시

☐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

- 보강천, 봉천, 삼기천, 입장천, 연천천 생태하천 복원으로 친환경도시 조성
- 비점오염저감사업(인공습지 조성 등)으로 수생태계 보호
- 보강천 합수점(증평, 청주, 진천) 생태복원

☐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을 통한 맑은 물 공급

- 하수관로의 지속적인 정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으로 수질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 숲과 사람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건설

-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 아름답고 건강한 공원녹지 조성으로 정주여건 개선
- 도심 외곽지역 산림의 깨끗한 공기를 도심지까지 연결시켜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도시 바람길 숲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녹색환경 도시 실현

☐ 자전거 중심 녹색 교통 인프라 확충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녹색교통 도시로서 자전거 이용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 삼아 관광 상품화 추진, 명품 녹색교통 도시로서 이미지 제고

따뜻한 복지도시, 안전한 지역사회, 행복한 증평

☐ 모두가 안전한 지역사회 실현

- 재난 컨트롤타워 구축으로 선제적 예방행정 추진
- 365일 24시간 영상관제센터 운영을 통한 생활안전 강화, 가상증강현실기반 재난대응 통합훈련 시스템 구축·운영
- 재난에 안전한 연신소하천 등 19개소 소하천 정비 및 재해위험지역 예방조치 강화
- 재난안전능력 배양을 통한 자치대응능력 제고와 능동적인 현장대응체계 구축

□ 감염병 예방·대응체계 강화를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

- 신종 유행 감염병 확산의 신속한 차단을 위한 범 지역적 검역망 및 방역체계 구축
 - 어떤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로 대응체계 확립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겸비한 감염병 예방 및 체계 내실화
 - 감염병 발생 현황보고 및 감염병 예방수칙 상시·지속적 홍보
 -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맞춤형 예방접종 적기 실시
 - 질병모니터링망(모니터요원) 지정·운영

□ 사람 중심의 포용적 복지행정

-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재단 운영과 보훈회관,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등 모두가 누리는 복지 인프라 확대
- 저소득 군민의 기초생활이 보장되는 사회 구현
- 노후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고 장애인이 스스로없이 더불어사는 지역사회 조성
- 아동친화도시(CFC) 인증으로 아동이 건강하고 살기 좋은 도시 구현
- 행복한 가정·양성평등 실현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 실현

□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

- 가족친화적 인식개선 및 정주환경 조성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
- 모든 세대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구축

□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우수 인재 양성

-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지역학습공동체 활성화
-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학습 활성화 및 평생학습도시 지속 운영
- 김득신 문해학교 등 교육 소외계층 프로그램 활성화



제8장 진천군

1) 비전, 목표 및 전략설정

- 진천군은 “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을 발전의 비전으로 삼아 5개의 기본 목표와 6개 영역의 발전전략을 도출하였음
- 전국 최고 수준의 주민 1인당 GRDP 규모와 가파른 인구증가를 앞세워 시 승격 전략을 달성하고 대한민국 중부권 최고의 성장거점 도시를 만들고자 함

〈표 V-8- 1〉 시·군별 발전방향_진천군

비 전	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이 행복한 사람 중심의 휴먼시티 ◦ 군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위드시티 ◦ 친환경 건강도시 그린시티 ◦ 중부권 성장거점 솔라시티 ◦ 교육문화 융합의 디자인시티
전 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천시 승격을 위한 도시 외연 확대와 정주공간 개편 ◦ 군민 모두가 누리고 행복한 생거진천형 복지모델 확립 ◦ 일자리 확대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구조 확립 ◦ 군민 안전에 최우선을 둔 친환경 그린시티 조성 ◦ 문화교육도시 위상 강화 및 체육·관광 인프라 확충 ◦ 군민 누구나 품격 있는 삶이 가능한 SOC 기반 확충

2) 전략별 추진과제

진천시 승격을 위한 도시 외연 확대와 정주공간의 개편

□ 충북혁신도시를 거점으로 한 도시 성장기반 강화

- 혁신도시 시존 2의 국가정책을 확대하고 배후도시 부재의 취약성 및 수도권 근거리성 등 지역적 특수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지원 강화
 - 전국 10개 혁신도시 협력체계 강화, 전국 혁신도시 국가차원 지원 강화 견인,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과 연계한 발전 협의회 구성
- 본격적인 성장기를 맞고 있는 충북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도시로 부각시키고 주민 눈높이에 맞는 명품 정주여건 조성으로 도시 성장기반 강화
 - 개방형 혁신연구센터 구축, 복합혁신센터 건립,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공간 건립, 혁신도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추진

□ 대한민국 스포츠테마 산업 성장거점 도약

- 국내 최대 시설의 국가대표 선수촌과 연계한 스포츠테마타운의 조성 추진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테마 산업 성장거점으로 육성
- 스포츠 꿈나무 육성시설 및 공공 체육시설 건립 및 선수촌-스포츠테마타운-대학-기업과 연계한 스포츠산업의 집중 육성
- 국립한국체육대학교 진천캠퍼스 건립으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조화로운 공존을 통한 스포츠 융복합 클러스터의 완성

□ 높은 인구 증가세를 반영한 맞춤형 도시개발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분산집중형 다핵구조의 도시공간 창출로 지역 내 균형발전 실현과 진천시 승격에 대비하는 공간전략 추진
- 기존 진천읍 도심지 주거공간 부족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신시가지 조성을 통한 양질의 주거환경 제공
 - 성석미니신도시 개발사업, 교성지구 도시개발사업
- 진천 북부권 개발을 통한 지역 내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진천선수촌 인프라와 연계하고 산업단지와 연계한 테마형 택지개발로 양질의 주거환경 조성
 - 광혜원도시개발 사업, 진천 스마트테크시티 개발사업(이월면)



□ 도시활력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

- 물리적 환경정비에서 벗어난 종합적 도시기능의 개선으로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하고 구도심의 인구 유출 대비를 위한 전략적 기능 강화
 - 진천읍 전통시장 이전부지, 덕산읍 용몽리, 이월면 송림리, 진천읍 교성·읍내5리
- 기존 도심 내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인근 도시개발사업 지구와 연계한 체계적인 도시 조성

□ 도시활력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

- 광역도시계획권의 차질 없는 추진
 -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충북권 관광개발계획,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오창밸리 조성계획

군민 모두가 누리고 행복한 생거진천형 복지모델 확립

□ 지역사회 중심이 맞춤형 복지모델 확립

- 국가 중심의 복지정책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지역자원을 활용한 진천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
 - 생거진천형 돌봄네트워크 강화, 어르신 대상 통합돌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정착
- 인구증가에 비례한 복지 인프라의 전략적 확충으로 고령사회에 전략적 대응
-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역복지 실현
- 장애인복지관 기능 강화, 다양한 장애인 인프라 확충으로 장애인 복지증진 기반 마련
-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으로 수급자 생활안정 기여하고 민관협력 복지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동네 복지공동체 기반 구축

□ 아이 키우기 좋은 육아 친화도시 조성

- 젊은 층 인구의 급속한 유입에 발맞춰 영유아 및 학령인구의 증가 수요를 반영한 육아 친화 인프라의 전략적 조성
 - 진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청소년 꿈틀꿈틀하우스 건립, 덕산청소년문화의집 증축확장, 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
- 보육 수요의 다변화와 질적 수준에 대한 주민 욕구 증대에 따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육아 친화적 도시문화의 확산

일자리 확대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구조 확립

□ 자립적 지역경제 구축을 위한 전략적 산업기반 마련

- 4차 산업에 대비하는 전략적인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명품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기반 구축
 -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진천복합 산업단지,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초평산업단지, 광혜원 물류단지 개발사업
- 정부의 에너지 뉴딜 정책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선도적인 정책추진으로 스마트 에너지시티를 조성해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의 생태계 구축
 -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 육성, 진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유치, 태양광 모듈 연구지원센터 기능 확대, 신재생에너지 실증사업의 선진적 도입
-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추진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복지 실현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주택·건물·마을 태양광 보급 및 사업 발굴 지원
-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
 - 신재생에너지 및 식품·바이오산업 미래성장동력 집중 육성

□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 구축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 수요자 중심의 기업행정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대규모 투자의향 기업의 전략적 유치
- 수도권 노후 산단 대상 이전투자기업 집중 유치 및 관내 증설 투자의향 기업의 발굴
 - 경기도권 산단 입주업체 집중 유치, 찾아가는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우량기업 중심 공장 신증설 지원사업 추진
- 중부고속도로 충북혁신도시 하이패스 IC 설치 추진으로 최적의 물류·교통 인프라 구축
-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기업애로 현장소통반 운영, 외투기업 고충처리 전담창구 운영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기업행정 추진

□ 일자리 확대 정책 기반의 자립경제 역량 강화

- 생겨진천 뿌리내리기 사업 추진, 관내 주민 채용 할당 기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한 고용 미스매치 해소 및 관외 통근 근로자 정착을 통한 일자리 기반의 지역발전 선순환 체계 확립
- 생겨진천 Key-옴 프로젝트 추진, 인력수급 협의체 운영으로 선제적 일자리 정책 추진을 통한 고용률을 제고하고 취업지원 기관의 기능 강화와 일자리 지원시스템 개선



- 사회적 경제의 전략적 육성과 일자리 정책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로 서비스 부문의 자생적 성장 유도
- 진천사랑상품권 유통 확대 및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자립기반 조성

□ 친환경 미래농업 기반의 경쟁력 있는 창조농업 실현

- 신축 농업기술센터를 거점으로 한 지역 특화형 창조농업 실현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농촌 육성 전략 추진
 - 농촌자원 복합산업화(6차 산업) 지원, 농업인 네트워크 강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
- 농업신기술 확대 보급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한 농업 경쟁력 확보
 - ICT 융복합 창농·창업 지원, 시설원에 현대화 및 시설채소 확대 생산, 스마트팜 확산
- 숲 산업 클러스터의 조성으로 산림바이오매스를 기반으로 한 산업 및 인프라 개발을 통한 신 성장동력 발굴
- 우수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수출지원 강화로 안정적 판로 확보
 - 농산물유통지원센터 기능 확대, 고품질 생거진천쌀 생산유통 지원, 유통촉진 홍보마케팅 강화

군민 안전에 최우선을 둔 친환경 그린시티 조성

□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 실현

-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오염물질 관리 및 저감 정책 추진 계획적 수질오염 총량관리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강화와 취약사업장 기술 지원으로 선제적 환경정책 추진
- 진천음성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증설, 자원순환센터설치 추진, 가축분뇨공공시설 개선사업의 추진으로 친환경적인 자원환경 도시기반 확립
- 진천시 승격을 대비한 상하수도 SOC의 단계별 확충 추진
 - 지방상수도 현대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추진

□ 사전 예방을 통한 안전 진천 실현

- 전국 최고 수준의 CCTV 통합관제센터의 기능을 활용한 선제적 예방시스템 구축 각종 사건·사고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고도화로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안전 실현

- 효과적 재난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인적자원 시스템 구축
-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으로 생활 속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주민부담 경감
-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치수안전성 확보와 주민 눈높이에 맞는 친수공간의 확대 제공

□ 선진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구축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비대면 보건서비스 확대
 - 모바일 플랫폼 기반 건강관리 솔루션 개발, 언택트 보건시책 추진
-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감시체계 구축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 기능 강화
-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안전망의 체계적 구축
- 지속적 인구증가를 반영한 지역 공공병원 건립 추진
 - 시 승격에 발맞춘 지역거점 응급의료센터 유치, 진천읍 일원 상급종합병원 유치 추진
- 지역 내 거점 보건시설의 기능 강화 및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확대

문화교육도시 위상 강화 및 체육·관광 인프라 확충

□ 다양성 기반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 지역 문화예술의 거점인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 시설 내 다양한 공연이 가능한 최적의 인프라를 배치해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스토리창작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산업의 육성으로 새로운 문화 신성장동력의 발굴 추진
- 지역의 문화예술 정체성 강화를 위한 스토리테마 발굴
-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의 체계적 육성 지원으로 향토문화예술 활성화

□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K-스마트교육 기반 구축

- 코로나19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지자체-전문연구기관과 연계한 교육 특화 협력사업 추진으로 최적의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
- ICT 창의융합교육, 언택트 코딩교육, VR 체험, 교구대여 및 창의미래교육센터 분원 SW 설비 구축을 통한 고도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추진
- AI 영재학급 도입, AI 인공지능 과목 신설, 5G+ 및 VR 기술을 활용한 실감교육 콘텐츠 서비스의 확대
- 국제문화교육 도시 위상 강화 및 평생교육 기반의 강화로 소통과 상생의 평생학습네트워크 강화



□ 테마가 있는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 농다리-초평호-미르 숲을 연계한 관광종합개발계획의 추진으로 체험·체류 기반의 관광 인프라 구축
-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창작물의 성과를 반영해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스토리텔링이 반영된 테마형 관광자원 개발
- 주요 역사 및 문화 자원의 연계를 통한 테마형 문화벨트 조성
 - 송강 문화창조마을, 초평 책마을, 백곡호 둘레길, 초평호 제2하늘다리
- 만뢰산 자연생태공원, 생거진천자연휴양림, 생거진천 치유의 숲을 연계한 그린힐링 관광프로그램의 개발로 수도권 인근의 관광객을 타깃으로 한 소비 기반의 체류형 관광 정책 추진

군민 누구나 품격있는 삶이 가능한 SOC 기반 확충

□ 수도권내륙선 국가철도망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전략체계 확립

- 동탄~안성~진천국가대표선수촌~충북혁신도시~청주국제공항을 연계한 철도망 구축으로 수도권에서 중부내륙을 잇는 새로운 개발축 형성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발전을 실현하고 포용성장 패러다임을 국토개발 분야로 확대
-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착도시 경제권 형성으로 비약적 지역발전 기여
- 수도권 지역과의 인적·물적 자원의 획기적인 교류 확대로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중부권 성장발전 거점지역 부상 견인
-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를 통한 인천·김포공항 중심의 수도권 항공수요의 분산으로 효율적 국가항공정책 추진에 기여

□ 지역특성을 반영한 농촌 중심지의 활성화 유도

- 지역특성을 고려한 기반 시설 및 생활서비스 기능 정비로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 진천읍·백곡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 농촌지역의 산업 고도화를 통해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
- ICT 기반 융복합 농업기술 보급확산, 미래농촌사회 문화크리에이티브, 농촌재생 주민성장지원 네트워크 구축, 친환경 녹색기술 공유

제9장 괴산군

1) 비전, 목표 및 전략설정

- 괴산군은 풍요, 청정, 힐링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풍요와 힐링의 행복도시, 젊은 괴산”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가 선순환되는 풍요도시 괴산, 쾌적하고 안전한 청정도시 괴산, 삶의 질이 높아지는 힐링도시 괴산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3가지 기본 목표와 6개의 발전방향을 도출하였음
- 총인구 5만 명, GRDP 2.5조 원 글로벌 생명농업도시, 무장애청정관광도시 구현 등 2040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2040년에는 인구 5만의 글로벌 유기농 강소도시 괴산을 만들고자 함

〈표 V-9- 1〉 시·군별 발전방향_괴산군

비 전	<p>풍요와 힐링의 행복도시, 젊은 괴산</p> <p>- 인구 5만 글로벌 유기농 강소도시 괴산 -</p>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가 선순환되는 풍요도시 괴산 ○ 쾌적하고 안전한 청정도시 괴산 ○ 삶의 질이 높아지는 힐링도시 괴산
전 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농업 혁신 프런티어, 글로벌 유기농도시 괴산 ○ 지속가능 성장 기반 창출을 통한 신성장산업 선도도시 괴산 ○ 힐링 및 생태관광 1번지 괴산 ○ 안심하고 살아가는 쾌적한 아름다운 괴산 ○ 더불어 배우며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괴산 ○ 참여와 소통으로 협력하는 괴산



2) 전략별 추진과제

첨단농업 혁신 프런티어, 글로벌 유기농도시 괴산 -자원순환형 지속 가능 농업 구축, 유기농 및 푸드밸리 중심지 실현-

□ 농업 첨단화 및 성장동력 다차원화

- 농업자원을 활용한 농생명바이오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정착하여 괴산군이 농생명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개발
- 그린바이오 등의 농업분야 R&D가 활성화되어 괴산군이 식물성 고기, 배양육 등 미래형 식품산업의 중심지로 위상 정립
 - 내수면 스마트양식 테마파크 조성, 미래형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 농업의 융복합화 및 고부가가치화 실현

- 괴산의 유기농산업과 청정환경 등의 인프라를 연계하여 유기농의 생산, 가공, 체험, 힐링, 유통 등이 융합되는 유기농산업 융복합 중심지 실현
 - 유기농 융복합산업 특구 조성계획 수립, 곤충 자원화센터 건립,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조성 등
- 농축산물의 가공과 농촌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의 융합, 네트워크 기반의 초고속 유통체계 혁신을 통해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기반이 확대

□ 삶의 터전이 매력적인 농촌 공간 조성

- 농촌뉴딜프로젝트 등을 통한 소거점 생활중심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농촌지역에서의 삶이 불편하지 않은 스마트도시 조성
- 농업인 기본소득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농촌 삶의 터전이 조성

지속가능 성장 기반 창출을 통한 신성장산업 선도도시 괴산 -기반 산업과 신산업의 동반성장 촉진, 성장과 분배가 조화로운 상생경제 실현-

□ 광역 및 지역 내 접근 교통체계 구축

- 동서 5축 고속화도로 건설로 괴산 주변의 격자형 간선도로망 완성
- 중부내륙선과 동서횡단철도가 괴산에서 교차함으로써 철도교통의 요충지로 부상
 - 괴산역 활용 조령산 일원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모노레일, 테마로드 등)

○ 광역 및 지구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의 투자가치 증대

- 백두대간 국가순환 도로망 구축, 괴산~청천 간 도로 확포장, 괴산읍 연계 국도 확포장 및 호국원 접근로 국도 승격 추진

□ 대중교통 편의성 및 정주여건 개선

-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장점으로 산업단지의 체계적 공급 및 기업유치로 지역 내 인구 유출을 막고, 외부 인구가 이주해 올 수 있는 환경 조성
- 정주에 필수적인 시설이 편리한 교통환경 및 생활환경 조성
- 주변 지역과 기능상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하되, 정주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생활여건 및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 괴산복합터미널 현대화 사업, 농촌지역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산업경쟁력 강화

- 첨단산업단지와 지능형 부품산업 벨리 조성,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인프라 확충으로 미래 괴산을 이끌 새로운 먹거리 다양하게 창출
- 괴산첨단산업단지 조기 완공 및 시스템반도체 전문 산업단지 추가 조성
- 유기농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농생명 바이오산업 및 미래형 식품산업이 전략산업으로 자리를 잡아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로 전환
- 산업 특화분야 지정을 통한 농·생명 바이오신소재 산업벨트 구축

□ 청년 창업 및 서민경제 활성화

- 청년을 위한 일자리 인프라가 증가하여 맞춤형 직업훈련 및 고용 지원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 청년 스타트업 파크 및 청년세프지구 조성, 청년 혁신형 창업 기반 조성
- 청년들의 창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이 확대되어 괴산군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청년 벤처 창업 기회가 확대

□ 일자리 창출 및 고용생태계 혁신

- 일자리가 넘쳐 역동적이며 누구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일자리 Maker 지역으로 신산업 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체계 구축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자동화 등 미래 고용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 적응력, 회복력을 충분히 갖춘 고용시스템 정착
- 제조업 중심 괴산형 잡(job) 트레이닝센터, 미래형 일자리 플랫폼 구축



힐링 및 생태관광 1번지 괴산

- 대한민국 대표 힐링 및 생태관광 여가관광도시-

□ 힐링 및 생태관광 기반 고도화, 체류 및 교류 인구 증가 촉진

- 다양한 역사문화자원과 유기농 먹거리가 특화된 관광기반이 확충되고 명산과 명수의 생태힐링 인프라와 확충되며, 장애가 없는 관광 인프라가 조성되어 누구나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로 발돋움

- 산막이옛길 시즌2, 백두대간 역사문화생태원 건립, 힐링체험 산책로 조성 등

□ 관광 및 문화자원 경쟁력 강화

- 백두대간 생태 및 자연환경, 산림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생태힐링 관광인프라가 조성되어 도시민들의 힐링과 재충전을 위한 대표 슬로시티 구축

- 산림휴양 복합문화 랜드마크 조성, 괴산 인문학관광벨트 구축, 괴강관광지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

안심하고 살아가는 쾌적한 아름다운 괴산

-자연생태계 가치 증대, 충실한 사전 재난안전 예방체계 구축-

□ 취약계층 중심의 기후변화 적응 고도화

-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자연생태계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군민들이 공평하게 향유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질 제고

- 기후변화 리스크 맞춤형 적응사업 추진, 취약계층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사업 추진

□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 대응체계 구축

- 안심하고 살아가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괴산

- 국제안전도시 조성 및 지정 추진, 환경·안전센서 및 기상정보 네트워크 구축 등

- 미래세대까지 환경 및 안전서비스를 온전하게 누리는 사회 구현

- 지역안전지수 개선 전략 수립 및 추진, 군민 손상 개선 사업 추진

□ 군민 생활 밀착형 환경서비스 제고

- 군민생활 밀착형 환경 질의 체감도 개선

- 생태계 다양성 및 서비스 증진 추진, 건강 위해 요인저감 및 그린인프라 구축

- 깨끗하고 건강한 괴산을 만드는 오염원 방지·관리와 생태위해성 저감
-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백두대간 생태보전 및 생물 다양성 확대 등

더불어 배우며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괴산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 노후가 보장되는 살고 싶은 괴산-

□ 건강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 풍부한 자연과 유기농산업, 힐링 문화의 토대 위에 보건의료기술, 예방적인 건강증진활동, 군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의 결합으로 지역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알찬 도시
- 디지털 헬스케어 및 ICT 기반 원격의료시스템 구축, 마음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추진

□ 보편적 복지를 위한 포용적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 모든 생애주기의 군민들이 삶의 안정감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복지안전망이 확보된 도시. 소득 보장, 건강관리,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등 최선의 보건복지서비스를 기본적으로 누리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괴산 군민의 참여가 활발한 사회
- 여성친화도시 지정,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인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강화

□ 지역 맞춤형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 아동, 청소년, 여성, 다문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의견이 존중되고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정책화되는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는 사회
- 노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설치,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장애인 공유교통 이동시스템 구축

□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대학교육

-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 심 없는 배움을 통해 군민 스스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교육안전망 구축
- 괴산군 50+ 직업교육 중심대학 운영, 괴산 특화형 평생학습 거점대학 운영

□ 전 생애주기 평생학습사회 구축

- 배움으로 미래의 번영과 안정,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하여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 괴산군 평생학습도시 지정, 스마트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 디지털문화 격차해소 지원 등



참여와 소통으로 협력하는 괴산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 체제 구축-

□ 스마트행정 및 디지털 거버넌스 구축

-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괴산군 공무원의 미래이슈 및 주요현안 분석, 정책수립 등 정책 대응역량 강화 필요
- IOT 기반 스마트 행정시스템 구축, 괴산군 와이파이 프리존 단계별 확대, 공무원 미래대응 경쟁역량 강화
- 읍면별 특화된 명품마을 조성 및 주민참여 네트워크 공동체 복원시스템 구축

□ 군민 주관적 참여행정 및 협력·소통행정 구현

- 여성, 노인, 다문화 가정, 이주 노동자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는 계층과 함께하는 군정을 이끌 수 있는 포용의 도시
- 계층 간 화합과 공동체 조성을 통해 갈등이 협력으로 승화될 수 있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제10장 음성군

1) 비전, 목표 및 전략설정

- 음성군은 성장, 조화, 균형, 활기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성장과 균형이 조화로운 활기찬 음성》을 발전의 비전으로 삼아 ‘누구나 풍요로운 초격차 균형도시 음성’, ‘신성장동력이 견인하는 초일류 창조도시 음성’, ‘다양성이 공존하는 고품격 문화도시 음성’, ‘모두가 행복한 초약자 친화도시 음성’의 4개 목표와 함께 6개의 발전전략을 도출하였음
- 인구증가를 견인하는 흡입력 높은 고품격 정주환경(주거, 환경, 안전, 교육, 복지 등) 조성, 대규모 투자유치 및 5대 신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등 지속성장을 실현하는 경제활력도시 조성을 목표로 2040년에는 충청북도의 신산업을 주도하는 중심도시 음성시를 만들고자 함

〈표 V-10-1〉 시·군별 발전방향_음성군

비 전	<p>성장과 균형이 조화로운 활기찬 음성</p> <p>- 고품격 정주환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주도하는 경제활력도시 건설 -</p>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나 풍요로운 초격차 균형도시 음성 ○ 신성장동력이 견인하는 초일류 창조도시 음성 ○ 다양성이 공존하는 고품격 문화도시 음성 ○ 모두가 행복한 초약자 친화도시 음성
전 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쟁력 강화와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선도지역, 균형성장 음성 건설 ○ 신산업과 연고산업이 조화로운 활력경제 실현, 경제일류 음성 조성 ○ 함께 누비고 소통하는 스마트교통체계 구축, 교통물류 음성 조성 ○ 누구나 고품질의 삶을 누리는 명품도시 실현, 명품문화 음성 구축 ○ 사람 중심 친환경 안전공간의 실현, 청정환경 음성 실현 ○ 포용과 보편복지로 활력 넘치는 복지공동체 실현, 포용복지 음성 실현



2) 전략별 추진과제

지역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선도지역, 균형성장 음성 건설

- 도시환경 고도화를 통한 인구감소 및 지역불균형 돌파구 마련 -

□ 미래 100년의 준비,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공간체계 구축으로 음성시 건설 기반 마련

- 장래인구 증가, 가구 변화에 실효성 대응을 위한 정주기반 확충 등 도시환경 마련
- 유입인구 정착화 및 주거 수요에 대응한 공간 효율형 도시개발
 - 역세권 개발,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음성, 금왕, 대소, 삼성, 감곡 등)
 - 충북혁신도시에 버금가는 권역단위 미니신도시 개발, 입주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건설
 - 주거 용지 및 정주 인프라를 포함한 복합형 산업단지 지속 개발
-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동반성장의 기틀 마련
 - 충북혁신도시를 주축으로 지역의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미래형 도시 구축
 - 혁신도시 시존 2 및 정부 정책을 반영한 발전계획 수립
-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상생 메커니즘을 위한 저발전지역 대상 균형발전사업 확대
 - 중생활권 및 소생활권(읍면 중심지) 특성화, 경쟁력을 갖춘 발전거점 육성
- 문화·체육·의료보건·교육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접근성 격차 해소

□ 모두가 함께 만드는 신·구가 조화로운 쾌적한 도시 형성

- 주거재생을 통한 다양한 계층의 주거복지 실현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 음성읍,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감곡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한 읍·면 중심지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발전 거점 육성
-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조성
 -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ICT 및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조성

□ 누구나 살고싶은 농촌 공간 조성 및 농업 교육기반 구축

- 도농복합 도시의 특성을 살린 건강한 농촌 공간 조성 및 농업생산성 혁신 주도
- 매력 넘치는 살고 싶은 신농촌 생활여건 조성
 -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 수단으로서 각종 교육 프로그램 상시 제공
 - 귀농귀촌단지 조성, 귀농귀촌 원스톱지원체계 구축, 지역의 새로운 역량으로서 귀농·귀촌의 조기 정착 관련 각종 프로그램 제공
 -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 및 농촌 빈집정비 사업 추진

- 농촌지역 특화 발전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및 생활편의시설 확대 공급
- 전문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친환경농업교육관 신축,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로 농가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편의 제공

신산업과 연고산업이 조화로운 활력경제 실현, 경제일류 음성 조성

-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을 불어넣을 지역 특화(주력)산업 구축 -

□ 미래 먹거리 마중물 ‘5대 신성장동력산업’ 집중 육성

- 산업단지, 충북혁신도시 등 기반 인프라를 발판으로 미래형 첨단 신산업 집적화 추진
- 신에너지, 자동차물류, 뷰티헬스, 지능형부품, 기후환경농업산업 집중 육성(5대 분야, 13개 전략, 22개 과제, 50개 세부사업 / 총 사업비 3조 2,696억 원)
 - (신에너지)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을 중심으로 ① 국내 최대·최고의 수소기반 에너지 안전·교육 특구 조성 ② 수소 및 이차전지 관련 산업 육성 ③ 에너지특화단지 및 에너지환경 시험인증지구 조성
 - (자동차물류) 기후변화와 환경규제로 친환경 자동차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① 미래 자동차 부품 및 특장차분야 특화산단 조성 ② 자율주행시험운행지구 조성 ③ 첨단물류단지 유치를 통한 중부권 물류중심기지 건설
 - (뷰티헬스) 관내 기업과 연계한 ① 뷰티헬스 특화산단 조성 및 종합지원계획 마련 ② K-뷰티, K-바이오헬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방안 마련
 - (지능형부품) 미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인 시스템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① 시스템반도체 전문 산단 조성 및 관련 기업 육성 ②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③ 스마트 시티 조성
 - (기후환경농업) ① 기후변화에 따른 시설원예사업 강화 ② 화훼 문화체험, 힐링, 관광 활성화 ③ 4차 산업혁명에 맞춘 스마트팜 구축 ④ 명품 농산물의 판로 확대
-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미래 신산업 성장 거점 지구로 개발
 - 혁신도시 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하고 연계한 수소기반 에너지 안전·교육 클러스터 구축
 - 주변 산업단지 인프라를 통한 에너지, 시스템반도체, 첨단 기계·부품 등 신산업 거점 지구 개발

□ 첨단과 지속 가능성이 공존하는 미래농업 중심지 건설

- 기후 및 농업 구조 변화에 대응한 4차 산업혁명 기술 융복합 등 새로운 전략 수립
 -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산업과 연계한 융복합 바이오 스마트 농업 단지 조성
 - 친환경 음성 로컬푸드 순환체계 구축, 음성 육류·물류 콤플렉스단지 조성
- 농축산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농촌경제 활성화
 - 농업(1차)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수단으로서 유기가공식품산업 클러스터 추진



- 미래형 농장 기반 구축을 통한 생산효율화 및 농업경영비 절감(스마트농축업 ICT단지 조성)
- 음성화훼종합단지, 화훼치유농장 조성 등 화훼산업 육성 및 관광시장 개척
- 수출 기업화, 수출 고도화 등 글로벌 수출역량 강화로 농가소득 증대
-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대표브랜드 음식 개발 및 유통

□ 제조혁신과 산단 대개조를 통한 「미래형 스마트산단」 조성

- 제조업 중심 탈피, ICT·AI를 접목한 최첨단 디지털 공정화로 고생산·고효율·저오염 단지구축
- 추진 중(8개소), 추진 예정(6개소) 산단에 스마트 기술과 결합된 미래형 산업단지 모델 개발
 - 스마트 공장 확산, 지역 맞춤형 근로자 친화공간 조성, 미래형 신기술 실증단지 구축 등
- 노후화된 산단구조 고도화, 미래산업 업종 투자유치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 해외유턴기업 유치, 협력 중소기업을 위한 임대단지·공유생산공간 조성

함께 누비고 소통하는 스마트교통체계 구축, 교통물류 음성 조성

- 광역적 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지역 내, 지역 간 광역물류교통망 구축 -

□ 스마트 ICT 기반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 수도권과 인접하고 교통망의 요충지이며 기업체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스마트 ICT 기반 물류 센터 구축
- 산업단지 내 첨단 물류센터 유치 등 수도권-남부권을 연계하는 중부권 물류 인프라 확충

□ 함께 누비고 소통하는 광역교통체계 구축

- 국도 3호선, 국도 37호선, 국도 21호선에 집중되는 교통량 분산 및 단순 방사형 도로망에서 방사 순환형 도로망으로 네트워크 확장
- 음성군이 갖는 양호한 입지여건을 극대화하기 위한 중부고속도로 조기 확장 지원
- 지역 간 접근성 향상 및 도심교통의 원활한 순환을 위한 지역교통망 정비
 - 상급 도로와의 접근성 향상 및 지역교통 순환을 위한 간선도로축 기능 강화
 - 광역교통체계와 지역 내부 교통수단과의 연계기능 강화를 위한 도심 외곽순환도로망 구축

□ 글로벌 국토를 지향하는 광역철도 네트워크 구축

-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수서~광주선, 경강선 및 중부내륙철도와 연계한 수도권 연계형<수서~광주~부발~감곡~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 철도망 구축
- 청주공항 접근성 향상으로 글로벌 생활환경 조성

누구나 고품질의 삶을 누리는 명품도시 실현, 명품문화 음성 구축

- 지역주민 여가선용 공간 구축, 문화·생태 자원 활용 경쟁력 있는 관광개발 주력 -

□ 지역 자원과 연계한 매력적인 문화공간 및 고품격 관광 활성화

- 산림·호수 등 내륙 생태·자연 경관을 둘레길, 걷기여행길, 스포츠 체험 공간 등을 조성한 관광 자원화 및 주민참여를 통해 생태녹색공간 육성
- 삼형제 저수지, 땡동저수지, 원남저수지 등을 연결한 호수관광벨트 조성
 - 순환루트 조성, 중심거점 개발, 친환경 연계교통 구축으로 신개념 생태관광 인프라 확장
 - 원남저수지 중심 레저·휴양·체험 등 복합관광단지 조성
- 농업·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체험형 관광프로그램 조성 및 생산품 할인 판매를 통한 지역소득 제고
 - 기업과 상생발전하는 산업관광(팩토리투어) 활성화
-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로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활용해 주민 자율참여 생활문화 기반 조성
- 지역문화 활성화 및 문화유산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음성군 역사문화박물관 건립>
 - 음성군 역사문화를 아우르는 종합박물관 건립으로 지역문화 발전 및 문화도시 위상 확립

□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공간 조성 및 재생을 통한 지역브랜드 육성

-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통한 충북의 대표 유교 관광지로 도약
- 지역문화 균형발전 및 생활밀착형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 음성 군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문화예술회관 활용 기획공연 확대
 - 지역 예술인 활동 지원을 위한 센터 구축 및 작품 전시회를 통한 문화 공유의 장 마련
- 반기문 브랜드와 연계한 기후환경 교육관, 꽃동네와 연계한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 중부내륙철도 건설 및 감곡 역세권 개발에 따라 지역정보센터 조성으로 스토리텔링 공간, 지역주민 문화향유를 위한 거점 공간 창출



□ 지역 축제 글로벌화로 음성 매력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 품바축제, 설성문화제, 음성명작페스티벌을 대한민국 대표 축제 브랜드로 육성
- 축제별 특색 있는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역 농산품을 이용한 음식 개발로 관광소비 지출 유도 및 관광비즈니스 모델 창출

□ 군민이 함께하는 생활체육의 양적·질적 동반성장 실현

- 함께 누리는 고품격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 활성화 권역별 인프라 구축
 - 체육관(수영장) 건립(음성, 금왕, 맹동), 생활체육공원 조성(음성, 원남, 맹동, 생곡)
 - 국민체력100체력인증센터(충북혁신도시-맹동)
- 반기문마라톤대회 개최로 유엔평화정신 실현 및 음성군 위상 정립
- 군민체육대회, 군생활체육대회 등 개최를 통한 군민 건강체력 증진 및 화합의 장 마련
-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장애인 체육교실사업 추진을 통한 장애인 체육 저변 확대
- 전문 선수, 동호인 대회를 총망라한 전국 규모 대회 유치·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사람중심 친환경 안전공간의 실현, 청정환경 음성 실현

- 스마트 재난관리와 환경친화 정책 실현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환경 조성 -

□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 환경도시 구현

- 도시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주도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열섬현상 완화 등이 가능토록 도심 내 녹지 조성
- 산업단지 주변 미세먼지 차단 도시 숲 조성을 통한 그린인프라 구축

□ 쾌적하고 다양한 공원·녹지 공간 구축

- 신시가지 조성 예상지 개발 시 광장·공원·녹지를 조성하여 주민 접근이 용이한 휴식공간 제공
- 읍·면 간 공원-녹지-기반시설을 연계하는 광역 생태네트워크 구성으로 음성군민 공동생활권 유도
- 환경오염 발생요인 집중관리로 깨끗한 생활공간 조성
-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녹색성장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전시 복합기능센터 조성

□ 사람중심의 안전도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재난안전 정책 강화 및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
 - 어떤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재난별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로 대응체계 확립
 - 다중매체(휴대폰, 라디오·TV, 전광판 등)를 통한 지역·상황별 맞춤형 재난정보 전달체계 강화
 - 방법 취약지역 CCTV 증설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확대로 방법용, 주정차 단속용, 불법투기 단속용 CCTV 통합 관리·운영
- 스마트 공공서비스가 촘촘하게 내재된 지능형 삶터 조성
 - 이동이 편리한 모빌리티 구축, 스마트 안전 통합 플랫폼, 스마트 체감문화 공간 조성 등

□ 사람과 자연 모두가 만족하는 환경질 개선

-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소각시설 증설로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안정적 처리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으로 가축분뇨 처리 안정화 및 친환경 이미지 제고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이동식 악취 감시 시스템 확대 시행으로 악취 저감 및 정주환경 개선

□ 취락 및 자연환경을 어우르는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 내실 있는 하천정비로 기능 유지 및 재해 사전예방
- 금왕·생극·감곡을 연결하는 하천변길 조성으로 지역주민 여가 환경 개선 및 생태하천 정비

포용과 보편복지로 활력 넘치는 복지공동체 실현, 포용복지 음성 실현

- 맞춤형 포용복지 구현을 통한 따뜻한 복지공동체 실현 -

□ 차별 없는 포용적 복지로 사람이 소중한 평생복지 제공

-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국 최고 수준의 종합병원 건립 및 연계 휴양공간 조성
- 노령사회에 대응한 사전·예방관리 중심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 사회적 약자가 함께하는 복지환경 구축
 - 여성친화도시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유지,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복지센터 운영
 -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 장애인 자립지원 지속 추진
 - 외국인 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외국인·다문화가족 대상으로 한 평등 복지 실현
- 빠짐없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 전담시설 지역별 균형 배치



□ **군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축 및 정보화 인프라 강화**

- 음성군만의 특수한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행정체제 및 전략적 성과관리체제 구축
- 공공부문의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행정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시민사회단체가 자생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인큐베이터 기능 수행
- 일상생활 및 행정서비스 정보 접근성 강화로 정보격차의 해소 및 주민복지수준 향상

□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and 다양성이 존중받는 공동체 형성**

- 지역발전을 이끌어 갈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앞서가는 교육환경 구축
- 주민이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취미·문화활동의 열린교육, 다양한 배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평생교육 여건 조성
 - 생활권역별 행복학습센터 구축(산업특화권역, 대학특화권역, 문화특화권역)
- 지역 수요 대응형 인력수급망 구축
 - 지역대학의 산업단지캠퍼스 설치를 통해 산업체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및 산학융합연구실 등을 운영

제11장 단양군

1) 비전, 목표 및 전략설정

- 단양군은 《다시 찾는 감성여행도시, 녹색심포 단양》을 발전의 비전으로 삼아 ‘군민 모두 행복한 가족친화도시’, ‘단양의 경관과 전통을 살린 감성관광도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가 성장하는 상생도시’, ‘주민 주도형 공동체 기반의 지속 가능한 도시’를 기본 목표로 삼아 6개의 발전 전략을 도출하였음
- 경관 및 전통을 보존하여 단양의 고유성을 살리고, 역량 있는 주민들이 자립형 마을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삶에 활력을 얻는 사람 중심의 도시로 발전하여 2040년에는 모두가 행복하고 더불어 성장하는 공동체마을 단양으로 만들고자 함

〈표 V-11-1〉 시·군별 발전방향_단양군

비 전	다시 찾는 감성여행도시, 녹색심포 단양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민 모두 행복한 가족친화도시 ○ 단양의 경관과 전통을 살린 감성관광도시 ○ 관광산업과 지역경제가 성장하는 상생도시 ○ 주민 주도형 공동체 기반의 지속 가능한 도시
전 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 성장하는 사람 중심의 공동체마을 조성 ○ 자연의 가치를 더하는 감성관광도시 구축 ○ 소거점 단위 네트워크형 도시 형성 ○ 지역자원을 연계한 단양특화산업 육성 ○ 단양의 참모습을 찾는 청정도시 조성 ○ 주민이 행복한 주민주도형 건강복지 실현



2) 전략별 추진과제

더불어 성장하는 사람 중심의 공동체마을 조성

□ 삶의 활력을 얻는 가족친화도시로 발전

- 지역 내 젊은 인구 확보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 청소년 활동 광장(교육공간, 도서관) 조성 및 청년교육기관 유치
 - 기혼여성의 자기개발과 여가활동을 위한 마더센터, 키즈카페 운영 등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 빈집·공터 등을 활용하여 청년 오픈스페이스 개소 및 단양 1달 살기 등 청년 활동공간 조성
 - 가족형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가곡 키즈호텔 및 단양 아트리움 조성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 빈집정비를 통한 귀농인의 집 운영 및 귀농귀촌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은퇴한 의료관계자들의 귀촌을 지원하는 의료인 마을 조성
- 인구 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 단양군민제도 도입
- 소규모 맞춤형 전원마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귀농귀촌 유도(귀농귀촌 거주유도구역 지역)

□ 지역문화 보존으로 단양 고유문화 이미지 창출

- 노후된 시가지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민의 삶터·쉼터·일터로서 조화롭게 어우러진 함께 하는 단양 조성
- 사라지는 지역문화를 보존하여 고유문화 유지 계승 및 마을 자원의 자산화 기여

자연의 가치를 더하는 감성관광도시 구축

□ 수중보 건설로 조성된 단양 호반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 구축

- 수변생태탐방로 및 생태공원 조성 등 단양호를 중심으로 생태힐링 관광벨트 기반 조성
- 수상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시루섬 나루 및 상진나루 조성: 옛 나루 복원,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 단양역~도담삼봉 구간의 수변트램, 수상버스, 야간 유람선 운행
 - 충주호와 단양호를 부분적이라도 연결할 수 있는 수중보 갑문(도크) 조성
- 내수면과 관광을 융합한 내수관광산업 육성 및 마리나항만 조성으로 수상레저의 대중화

□ 자연 및 문화자원 인프라를 통한 관광명소 육성

- 지역의 경관자원과 문화자원에 가치를 더하여 관광명소화 추진
 - (두산지구) 패러글라이딩 성지 지구 및 산촌휴양마을 조성
 - (사 인 압) 오래된 경승지의 사인암을 휴양형 경관마을로 조성
 - (죽령옛길) 숲길 생태경관 확충 및 파노라마 전망대 조성
- 단성면 지역의 유교문화자원을 발굴·보존하고 육성하는 명승문화마을 조성
-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 관광 형태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역의 입지적, 자원적 강점이 부각된 미래 관광자원 개발
 -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 중앙선 폐철도 부지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
 - 단양 4계절 관광 휴양지(자연친화적 리조트 건립) 조성
 - 연수 및 교육 전문 관광 도시를 위한 MICE 인프라(컨벤션센터 등) 조성

□ 마음을 잇는 여행 콘텐츠 개발

- 지질학 및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을 21세기 한국고고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대중고고학(Public archaeology)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 대중고고학 프로그램 기획(수양개 유적 체험, 구석기시대 토기 제작 및 체험 프로그램 등)
 - 대중고고학의 새로운 영역 발굴(디지털 대중고고학과 가상체험관 조성 등)
- 사계절 문화·축제 기획, 주제가 발굴, 단양 고유의 스토리텔링 및 마을자원조사 등 감성 홍보

소거점 단위 네트워크형 도시 형성

□ 지역 간 연계도로망 구축을 통한 생활·문화·관광권 벨트화

- 광역적·지역적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간 단절구간 연결 및 포용적 지역발전 실현
- 도로위계 간 연결성 확보를 위한 도로승격 및 위험구간 개선을 통하여 접근성 개선 및 교통사각지대 해소

□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 인구 과소지역에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수요대응형 자율주행 교통서비스 도입
- 편리한 정주여건 개선 및 관광객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대중교통시스템 개선
 - 단양역 및 시외버스터미널과 연계한 종합환승정류장 조성
 - 단양역과 만천하스카이워크를 잇는 보행교 건설로 극심한 교통난 해소



- 도담삼봉과 만천하스카이워크 등 단양읍 주요관광지를 연계하는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 단양에코순환루트 조성(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터널 및 폐철로 구간 정비 등)
 - 스마트 모빌리티시스템(탑승장 및 하차장 조성, 대중교통수단 대여·반납시스템 구축 등) 도입

□ 경쟁력 있는 소거점 단위 지역정책 추진

- 인구감소에 대비한 압축형 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 읍 중심의 상위 인프라 거점과 면 중심의 생활인프라 거점 간 연계화 전략
- 소거점지역에 대한 생활인프라를 집중하고, 융합적으로 생활기반시설을 조성지원 할 수 있도록 거점 조성전략 마련

지역자원을 연계한 단양특화산업 육성

□ 석회석 산업의 제2의 도약

- 석회 시멘트 산업과 공생방안 모색 및 단양 관광서비스 관련 산업 육성
 - 채광지역을 산업연수 등 관광지로 전환 및 시멘트 공장의 새로운 관광산업 개발
- 석회석의 새로운 이용 가치를 발굴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기반 마련으로 지역발전 도모
 - 석회석을 활용한 다양한 신소재 발굴 및 다양한 신상품 개발
 - 시멘트 산업 첨단 대기오염 저감기술 개발 등 지역 산업연계형 기술개발로 신산업 창출

□ 관광과 지역경제 연계 단양특화산업 육성

- 희귀성과 심미적 가치를 지닌 카르스트 지형의 지질자원을 지정·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적 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해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
- 폐광산과 동굴을 활용한 문화관광자원 개발
 - 광산 박물관·체험관 조성, 공연장, 농산물 저장, 암벽등반 등 익스트림스포츠 훈련 장소 등
- 태양광 및 수소에너지 중심의 미래 친환경 신재생 산업 구축

□ 농업 선진화 및 고수익 미래형 농산물 개발

- 고지대와 경사도가 심한 지역여건을 고려한 고품질·고소득 친환경농산물 생산
 - 청정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동굴·폐광산의 저온조건을 이용한 친환경 농작물 재배
 - 단양 특화작물 중심의 가공식품 연구 및 기후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노지 스마트팜 개발

- 단양마늘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단양 마늘종구 생산단지 조성
 - 단양 마늘품종 보전을 위한 유전자정보 연구, 단양마늘 중심의 한지형 우수마늘 종구 품종개량·보급
- 정신적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치유농업 중심의 관광 농업 확산

□ 자립형 마을만들기 등 주민참여 일자리 창출

-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평생학습 운영으로 미래 일자리에 대한 대응·적응력 강화
-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마을 여건에 맞는 공동체 사업(소규모 농산물 공동 재배, 가내 수공업 등) 추진
- 주민 스스로가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민주도형 인력 양성
 - 마을 내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마을리더 및 통합중간지원조직 운영, 협동조합·NPO육성
 - 주민주도형 복지인력 양성(지역 내 사회복지사 교육 및 역량 강화 등 주민 인력양성)
 - 노인 적합형 일자리 개발 및 노인인구 소득창출을 위한 시니어클럽 설치·운영

단양의 참모습을 찾는 청정도시 조성

□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한 단양 환경보전

- 미세먼지 감축으로 청정한 단양 이미지 확보를 위한 관내 시멘트사와 상생 협력
 - 공기정화기능 가로등 설치, 시멘트공장 주변 대기오염 측정기 설치
 - 시멘트사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개선을 위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 자원절약 및 자원순환을 제고를 위한 공공처리시설 확대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음식물폐기물류 공공처리시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 환경보전과 댐 상하류 지역주민의 상생발전 방안연구 및 사업발굴을 위한 환경연구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댐 상류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유도

□ 산림보존과 휴양관광을 위한 단양 숲 조성

- 백두대간과 주요 산림을 보호하고 생태적·자연친화적 산지자원 이용을 체계화하여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지대로 조성
 - 수목원 조성, 산림 수종개선, 산림복지지구(숲 치유, 숲 체험·편의시설 등) 조성
- 백두대간 및 한강수계 공간을 활용한 생태네트워크 조성



□ 주민들의 안전욕구 충족을 위해 누구나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안전도시 구축

-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정수장 현대화시설 구축 및 단양 전 가구 상수도 보급
- 기후 위기 및 환경재해 등 위험요소를 실시간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주민이 행복한 주민주도형 건강복지 실현

□ 예방과 치료를 우선하는 보건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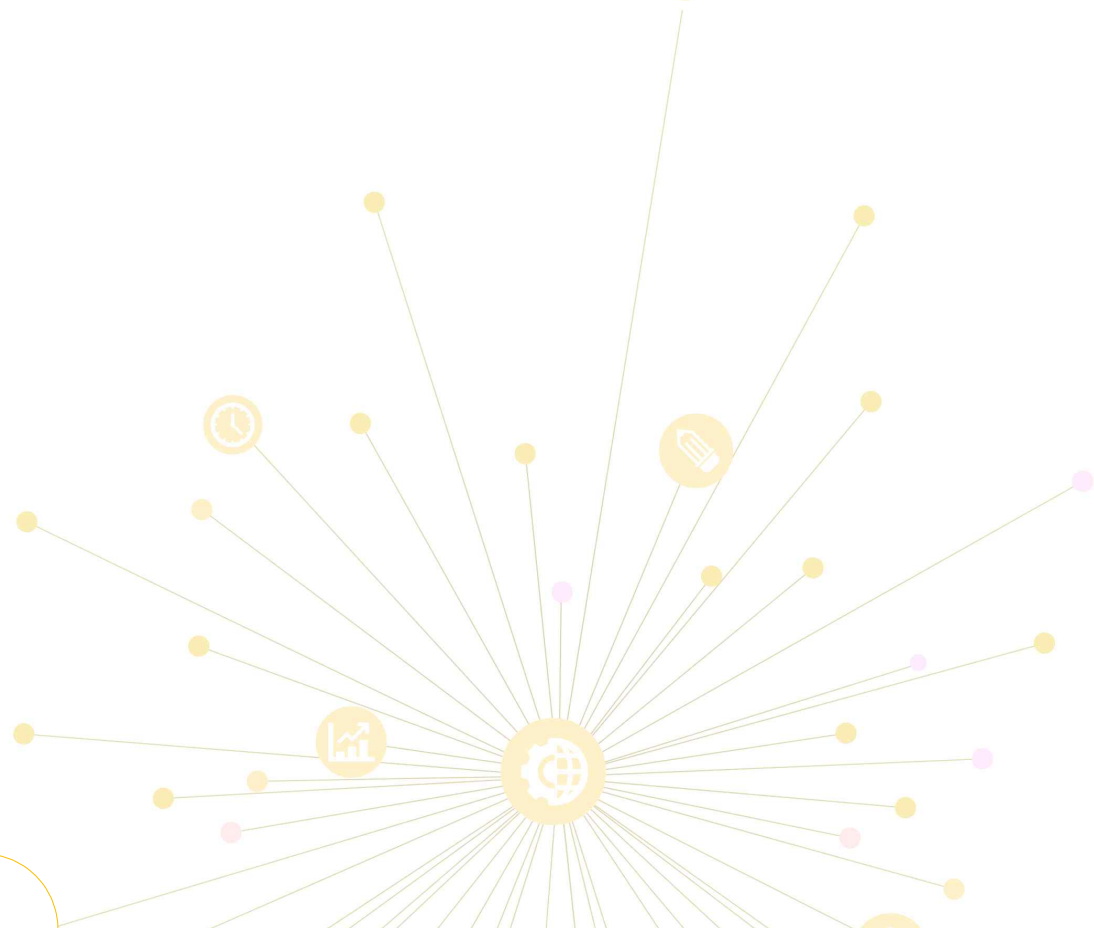
- 보건의료원 건립을 통한 적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보장
 - 보건의료서비스(질병 치료, 감염병 관리, 예방적 건강관리)의 허브로 작용
 - 단양 의료장학금 운영(지역에서 근무할 인력 확충)
- 촘촘한 건강네트워크 구축으로 접근성이 좋지 않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평상시 건강상담 및 진료서비스 제공
 - 권역별 건강센터 설립 및 운영, 건강한 생활지원 조례 제정, 생활운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치매안심마을 운영으로 치매환자의 조기 발굴과 예방서비스 제공
 - 지역안전망 구축(치매안심공동체 구성), 치매파트너 양성, 거점형 치매쉼터 조성

□ 단양군 복지허브 역할을 위한 복지재단 설립

-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에 대응하고 맞춤형 복지 확대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강화
- 복지서비스 기관들을 통합·관리하여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단양군 복지허브 역할
 - 복지시설 위탁운영사업, 모금사업, 복지정책 조사연구사업 등

□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되는 여가활용 공간 확대

- 문화기반 시설 확충으로 일상 속 문화예술 활동 확대 및 지역주민의 소통의 장 마련
 - 읍누림행복가족센터(공공도서관,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영화관) 건립
 -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예술활동 발굴 및 지역문화예술단체 활동 확대
- 일상의 스포츠활동 및 생애주기 맞춤형 체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스포츠 시설 확충
 -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대, 우수체육지도자 양성 운영, 미래 스포츠산업 기반 구축



제Ⅵ편

부 록

부문별 사업계획

장	절	부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1장	1-1절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혁신지역			1,412,179
			001. 강호축 연계 미래먹거리 기반 확충	20-30	-
			002. 권역별 생활SOC 복합센터 확충	21-25	400
			003. 세포 확충형 모자이크 프로젝트 추진	21-40	150
			004.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22-26	3,600
			005. 취약계층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20-30	-
			006.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0-23	180
			007. 도 균형정책 단계별 승급제도(졸업제도) 도입	21-25	-
			008. 충북 균형발전정책 평가제도 도입	22-26	0.32
			009. 시군 지역균형발전사업	18-24	2,700
	1-2절	모두가 함께하는 사람중심의 공간재생	010.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 경제시스템 지원사업	21-25	5
			011.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기구 구성	21-25	3
			012. 충북형 도시재생사업 발굴 지원	21-30	15
			013. 저층주거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21-35	185
			014.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21-40	85
			015. 도심거주 촉진사업	21-35	160
			016. 도시재생(뉴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20-23	160
			017. 도시재생(뉴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속추진(옥천, 청산, 이원 일원)>	25-30	300
			018. 도시재생(뉴딜) <증평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21-24	142
			019. 도시재생(뉴딜) <진천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20-28	668
			020. 도시재생(뉴딜) <음성군 도시재생사업>	19-26	786
			021. 도시재생(뉴딜) 〈「단양 상상의 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신청〉	21-25	250
	1-3절	누구나 살고싶은 활력있는 강소형 농촌	022. ICT 기반형 스마트(팜) 빌리지 조성	21-30	440
			023. 충북형 농시 건설	18-24	220
			024. 귀농귀촌 지원형 융복합산업지구 지정	21-30	270
			025. 귀농귀촌인의 정착지원 농촌유토피아 조성	21-30	400
			026.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21-24	70
			027.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22-23	150
			028.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구축	21-25	6
			029. 지방이양 마을만들기 사업 <옥천군 더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20-	45

장	절	부문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1장	1-3절	누구나 살고싶은 활력있는 강소형 농촌	030. 지방이양 마을만들기 사업 〈마을만들기사업(종합개발·자율개발)〉	19-22	54.9
			031. 유전자 질병연구센터 설립	20-40	700
			032. 내륙어촌 재생사업	20-22	54.23
	1-4절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포용지역	033.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립사업	20-23	141.7
			034.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18-	10
			035. 충북선 및 중부내륙선 역세권 개발사업	20-40	900
			036. 지구별 도시개발사업 추진 〈진천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	18-23	1,205.9
			037. 지구별 도시개발사업 추진 〈초평 금곡지구 개발사업〉	18-25	4,000
			038. 지구별 도시개발사업 추진 〈광혜원 도시개발사업〉	18-25	500
			039. 지구별 도시개발사업 추진 〈음성지구 도시개발사업〉	19-30	323
			040. 지구별 도시개발사업 추진 〈금왕 금석2지구 도시개발사업〉	22-25	409
			041. 지구별 도시개발사업 추진 〈맹동 본성지구 도시개발사업〉	22-25	395
			042. 지구별 도시개발사업 추진 〈생곡 신양지구 도시개발사업〉	26-30	154
			043. 지구별 도시개발사업 추진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14-22	528
			044. 지구별 도시개발사업 추진 〈삼성 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15-23	455
			045. 지구별 도시개발사업추진 〈별곡 도시개발사업〉	21-25	203
			046. 군사시설 이전	20-26	639
			047. 진천 스마트테크시티 개발사업	17-25	8,000
			048. 자립형 충북혁신도시발전계획 추진	22-25	5
			049. 혁신도시를 활용한 지역혁신거점 육성	20-30	-
	1-5절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관리를 통한 공간효율형 지역창출	050. 집약적 공간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정비사업	21-25	23
			051. 시가지내 유휴지의 녹지화 사업	21-35	100
			052. 코로나사태에 대응한 건강도시연계 미래형 주거지 조성	22-28	200
			053. 충북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용도 변경	20-25	-
			054. 단양군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19-23	12.46
2장	2-1절	지속가능한 ICT기반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055. 스마트 기반 국가내륙권 물류기지 추진	26-40	1,000
			056. 언택트 시대에 대응 드론배송체계 구축	22-28	-
			057. 스마트 로봇활용 미래형 물류센터 조성	26-40	450
			058. 4PL 지능형 물류 플랫폼 구축	22-30	400
			059. 오송물류복합단지 조성	21-40	850

장	절	부문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2장	2-2절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기능강화를 위한 국가교통의 중심지역 육성	060. 제천~영월간 고속도로	25-30	10,949
			061.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19-30	8,013
			062. 세종~안성간 고속도로	19-24	3,000
			063. 당진~울진(오창·괴산) 고속도로	20-40	18,614
			064. (경북권 연결도로) 증평~합천 고속도로	22-	64,000
			065. 무주~영동~보은간 고속도로	20-40	10,000
			066. 보령~대전~보은간 고속도로	25-30	31,530
			067.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 확장	17-26	10,931
			068. 제1충청내륙고속화도로 신설	15-25	8,375
			069.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신설	15-25	9,041
			070. 제천~평창간 고속화도로	22-	7,500
			071.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 고속화도로	21-30	2,120
			072. 백두대간 국가순환도로망 구축	20-30	2,022
			073. 오창 지하차도	17-22	411
			074. 고은~상당 국도 6차로 확장	20-24	418
			075. 미원 단구간 도로 확/포장공사(위임 국도)	18-24	234
			076. 영동~보은 국도 2차로 개량	16-23	930
			077. 영동~용산 국도4차로 확장	18-23	314
			078. 입장~진천 국도 2차로 개량	20-26	1,218
			079. 동면~진천 국도 4차로 확장	19-	1,131
			080. 진천 백곡~진천 국도 2차로 개량	20-30	854
			081. 괴산~감물 국도 2차로 신설	20-30	274
			082. 괴산~음성 국도 4차로 확장	14-21	1,107
			083. 감곡IC 이천 진암교차로 국도(38호) 도로개설사업	20-30	1,205
			084. 단양~영월 국도 2차로 개량	17-24	796
			085. 용곡~미원2 지방도 확포장공사	18-22	190
			086. 대울~증평IC 지방도 확포장공사	17-26	756
			087. 신촌~오산 지방도 확포장공사	18-21	60
			088. 현암~지산 지방도 확포장 공사	19-25	298
			089. 충주 조동도로 개량공사	19-25	110
			090. 제천 수산~청풍 국지도 2차로 개량	20-30	1,029

장	절	부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2장	2-2절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기능강화를 위한 국가교통의 중심지역 육성	091. 황석~월굴 지방도 확포장공사	20-25	236
			092. 매화~동이 도로확포장공사	17-22	279
			093. 영동 양산~양강 국지도 2차로 개량	20-30	663
			094. 영동 상촌 둔전~상도대 국지도 2차로 개량	20-30	574
			095. 초정~증평간 지방도 확포장공사(2구간)	25-30	252.7
			096. 국지도49호선(음성~신니) 2차로 시설개량 사업	20-30	346
			097. 대소~삼성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 2단계 구간 시행	20-30	300
			098. 금왕~삼성 지방 확포장공사	18-28	822
	2-3절	글로벌 국토를 지향하는 철도 및 항공체계 구축	099. 충북선 철도 고속화	19-26	12,807
			100. 충청권 광역철도	21-30	15,785
			101. 수도권 내륙선 철도 구축	21-30	23,246
			102. 중내륙철도 지선 연결	21-30	16,499
			103. 중부내륙선 복선화 및 금가역 신설	21-40	15,000
			104. 금가신호장~동충주산업단지 지선	21-40	1,579
			105.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구축	21-30	45,324
			106. 오송~청주공항~영덕간 철도	21-40	43,000
			107. 충주~보은~영동간 철도 건설	21-40	25,706
			108. 중앙선 복선전철	10-22	52,960
			109.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연장	20-24	227
			110. 충청권 광역철도 영동연장	20-40	250
			111. 평택~오송 경부고속철도 2복선화	19-26	34,477
			112. 청주공항~보은~영동간 철도 신설	31-40	21,446
			113. 중부내륙선 철도건설	05-23	24,363
			114.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14-24	8,216
			115. 오송역 복합환승센터	26-30	2,500
			116. 한국형 하이퍼루프(HTX) 상요화 시험시설 유치	22-29	2,000
			117. 행정수도공항 위계 재편	21	-
			118. 공항성장에 대비한 시설인프라 확충	21-30	3,323
			119. 노선다변화 및 거점 항공사 출범	21-25	-

장	절	부문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2장	2-4절	스마트 라이프 · 신산업 생태계가 구현되는 혁신공간 창출	120. 충청북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20-22	144
			121. 충청북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지정	26-30	900
			122. 충청북도 스마트규제 혁신지구 지정	23-25	300
			123.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20-25	155
			124. 기존도시 스마트화 (제2판교밸리 구축사업)	20-23	300
			125. 충청북도 디지털트윈 가상플랫폼 구축	30-40	1,200
			126. 국가산업단지(신규) 스마트공간 조성	20-30	205
			127. 스마트시티 조성	22-25	46
3장	3-1절	D.N.A.(Data-Network-AI)기반 선도산업 기반 육성	128. 글로벌 시험인증산업 융복합클러스터 조성	21-30	4,002
			129. 충북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육성	18-24	328
			130.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 및 안정성 평가 테스트베드 구축	16-21	435.2
			131. 중부권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연계 기초과학기술 및 기업 육성사업	20-25	-
			132. 충북형 바이오헬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21-22	45
			133. 중부권 방사광가속기 클러스터 구축	21-27	564,000
			134. 의료영상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19-23	400
			135.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유치	20-21	48.5
			136. 북부권 수송기계부품클러스터 육성	23-30	100
			137. 전기·수소 자동차 ONE-STOP 지원센터 구축	19-21	200
			138. 미래형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23-27	360
			139. 북부권 승강기산업 거점지역 조성	21-40	470
			140. 바이오헬스 규제자유특구 지정	30-34	50
			141. 만성질환 유전체데이터 중심병원 유치	23-30	500
			142. 천연물 제제 시생산시설 구축	20-22	156
			143.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	20-22	219.5
			144. 천연물 신소재개발 지원센터 구축	21-23	190
			145.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클러스터 조성사업	14-22	431
			146. 천연물 제제 다각화지원 기반 구축사업	20-22	156
			147. 보은 드론클러스터 구축	21-25	200
			148. 혁신도시 공공기관연계 육성 사업(Open LAB)	18-22	286.73
			149. 반도체 융복합산업타운(충북혁신도시) 조성	20-30	13,693
			150. 자율주행시범운행 지구 조성	21-23	50

장	절	부문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3장	3-1절	D.N.A.(Data-Network-AI)기반 선도산업 기반 육성	151. 충북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21-25	600
			152. 충북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플랫폼 구축	21-27	4,000
			153. 특장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기술개발	20-26	1,276
			154. 소방산업 클러스터 조성	21-25	-
			155.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20-21	660
			156.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 지원 확대	20-	1,000
			157.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20-30	1,000
			158. 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구축사업	18-20	22
	3-2절	연고산업과 신산업이 조화로운 경제강도(經濟強道) 실현	159. 충북형 미래유망산업 발굴 및 육성	21-22	2
			160. 산업단지 환경개선 충청북도 공모사업 추진	20-40	50
			161. 충북 K-코스뷰틱 비즈타운 조성	25-30	500
			162. 사이언스 아카데미 빌리지 조성	21-25	779
			163.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21-23	15
			164. 뉴로모픽 기반 인공지능지원센터 구축	19-23	295
			165. 차세대 정밀진단 플랫폼 제품화 지원센터 구축	21-25	200
			166.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	17-27	33,901
			167. 인체삽입형(고정밀) 바이오 3D프린팅 기술개발	19-25	150
			168. 충주 지식산업센터 건립	21-23	248
			169. 수소인프라 구축을 통한 수소산업 육성	20-30	920
			170. 수소산업 기반 규제자유특구 조성	20-30	1,000
			171.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	17-27	5,662
			172. 충주드림파크산업단지 조성사업	18-24	2,874.5
			173. 바이오헬스 기술지원센터 건립	21-28	380
			174.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RLRC) 구축	23-28	110
			175. 반려동물 연구·지원센터 건립	21-25	50
			176.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	21-26	150
			177. 와인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20-40	397
			178.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	25-30	1,500
			179. 영동 양수발전소 건설사업	19-29	8,300
			180.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19-24	1,500
			181. 과산첨단산업단지 투자기업 산단형 행복주택 건립 지원	22-25	443

장	절	부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3장	3-2절	연고산업과 신산업이 조화로운 경제강도(經濟強道) 실현	182. 과산첨단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	18-23	271.35
			183.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조성	19-21	198.5
			184. 에너지 산학융합지구 조성	19-29	397.7
			185. 태양광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	19-26	13,198
			186. 뷰티헬스 종합지원센터 구축 및 특화산업단지 조성	17-24	1,545
			187. 에코밸리 친환경 농공단지 조성	31-35	670
			188. 맞춤형 메디푸드 산업육성 기반구축	27-28	65
			189. 노지 과수 스마트팜 도입	22-25	245
	3-3절	뉴트렌드의 친환경, 융복합 농산업 기반 확대	190. 음성 융복합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사업	24-26	1,500
			191. ICT기술 융합 첨단농업 육성	20-40	200
			192. 농산물 신유통망 개발 및 교육	20-40	500
			193. 농촌융복합산업 개발 및 지원	20-40	200
			194. 친환경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확립	20-40	200
			195.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2-23	1,000
			196. 과수 품종갱신사업	21-40	1,413
			197. 먹거리 종합전략 지원	21-32	105.1
			198.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	19-24	1,405.18
			199. 악취없는 환경친화형 축산농가 조성	20-40	124
			200. 광역 계란유통센터 건립	20-30	256.3
			201. 과수 안정생산 기반시설 모델과원 조성	21-40	20
			202. 충북 과수 종합 연구센터 설립	21-25	100
			203. 생산안정화 기반기술개발	20-24	50
			204.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20-21	150
			205. 농촌체험관 건립사업	20-21	70
			206. ICT용·복합 스마트팜 교육장 설치 및 운영	20-40	21.56
			207. 과수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20-21	95
			208. 친환경 농업 미생물 배양센터 시설 확대	21-	40
			209. 농촌유학센터 설립	22-23	10
			210. 과산 유기농산업복합센터 조성사업	20-24	180
			211. 유기농 국제연수원 건립(가칭)	20-23	50
			212. 과산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20-22	70

장	절	부문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3장	3-3절	뉴트렌드의 친환경, 융복합 농산업 기반 확대	213.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21-23	95
			214. 음성화훼종합단지 및 화훼치유농장 조성	22-23	201.5
	3-4절	미래수요 신재생에너지산업 선도지역 육성	215. 그린뉴딜 충북 신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구축	21-30	13,701
			216. 충북 기업의 RE100 사업 가입 추진	21-23	1,400
			217. 에너지복지서비스 제공	21-23	12
			218. 신재생에너지 산업 통합지원센터 설립	21-	15
			219.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수소안전 메카	21-	1,477
			220. 이차전지 특화밸리 조성	21-22	170.4
			221. 소득증대 및 관광산업 연계 에너지 테마파크 조성	22-24	200
			222.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19-27	10,400
			223. 수소 상용차 부품 시험평가센터	20-23	193.7
			224. 음성 RE 100 스마트산업단지 조성	21-24	1,410
	3-5절	산업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인력양성체계 구축	225. 미래지향형 NEW고용거버넌스 구축	20-25	200
			226. 충북형 일자리 모델 구축	20-25	200
			227. 도-농 상생형 생산적 일자리사업 운영	21-	200
			228. 인재정보 플랫폼 구축 및 인력양성 로드맵 마련	20-25	160
			229. 전략적 국내외 기업유치를 통한 항구적 일자리 창출	20-	1,000
			230. 충북형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26-30	250
			231. 충북기업연수원 건립	25-40	500
			232. 디지털역량강화 사업 추진	22-	300
			233. 중부권 농업기계 전문교육기관 설립	21-25	135
			234. 신성장산업분야 인력양성사업 추진	21-25	107.5
4장	4-1절	일상이 문화가 되는 격조 높은 지역 구현	235. 바이오헬스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26-31	380
			236. 충북혁신도시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21-23	90
			237. 증강현실 기반 가상 문화체험센터 건립	21-30	250
			238. 드론, AI로봇 메이커존운영을 통한 미래형 교육문화 복합시설 건립	21-30	350
			239. IoT, AI활용 디지털기반 미래형미술관 건립	21-	450
			240. 문화도시 지정 추진	21-22	200
			241. 지역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	21-31	150
			242. 교육문화시설(생활문화센터 등) 확충	21-31	200
			243. 문화누리카드 충북 가맹점 확대	21-26	20

장	절	부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4장	4-1절	일상이 문화가 되는 격조 높은 지역 구현	244. 문화권리 확산을 위한 예술교육	21-25	250
			245. 충북도립도서관(충북미래도서관) 건립	21-25	600
			246. 충주 미륵리 종합정비사업	21-25	120
			247. 우국이세(祐國利世) 한글문화관 건립	20-24	88
			248. 옥천군 생활문화체육센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	21-23	158
			249. 옥천묘목세계 박람회 개최	31-35	300
			250. 국립호수생태자원관 건립	25-30	200
			251. 역사문화박물관 건립 <옥천 역사박물관 건립>	20-24	180
			252. 역사문화박물관 건립 <음성군 역사문화박물관 건립>	20-40	75.9
			253. 일광궁 테마공원 조성	31-35	337
			254. 권역별 미술관 건립	22-40	600
	4-2절	미래관광을 선도하는 관광 르네상스 실현	255. 언택트 시대에 맞춘 관광거점 조성사업	20-30	-
			256. 내수면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21-24	600
			257. 중앙선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	20-25	406.19
			258. 단양관광휴양지구 조성(MICE산업 개발)	20-24	933.8
			259. 백두대간 관광치유벨트(단양 수목원) 조성	21-24	60
			260. 백두대간 생태원 유치	20-24	4,400
			261. 사주당 태교랜드(청주)	20-23	187
			262. 문화산수 옥화구곡관광길(청주)	19-22	23
			263. 충주 탄금대 명승지 조성사업	18-25	240
			264. 입신양명 과거길(제천)	20-24	100.64
			265. 문화산수 속리구곡관광길(보은)	20-23	101.8
			266. 옥아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	20-26	336.7
			267. 월류예술마을	23-26	262
			268. 입신양명 과거길(영동)	22-25	883
			269. 송강문화창조마을 조성사업	20-25	153.9
			270. 초평 책마을 조성사업	21-26	178.6
			271. 화양동 선비문화체험단지 조성	21-23	287
			272. 자린고비 청빈마을(음성)	21-25	139.1
			273. 단양 명승문화마을 조성	19-23	232
			274. 문화산수 속리구곡관광길(단양)	22-23	16

장	절	부문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4장	4-2절	미래관광을 선도하는 관광 르네상스 실현	275.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	22-30	385
			276.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 <대청그린 케이블카 설치사업>	23-28	600
			277.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 <속리산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사업>	20-25	322
			278.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사업	20-30	2,151
			279. 세계국악 엑스포 추진	19-25	150
			280.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	18-23	422
			281. 도마령 일원 관광자원 개발사업	20-23	144
			282. 양수발전소 주변 관광자원화사업	19-30	2,000
			283. 둔주봉 관광자원화 조성사업	24-27	600
			284. 장령산 산림어드벤처조성 사업	23-26	504
			285.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성사업	20-23	110
			286. 게르마늄 건강플라자 조성	25-28	300
			287. 원남저수지 체험휴양관광공원 조성	19-40	400
			288. 무극전적국민관광지 확대 조성	20-40	180.5
			289. 수례의산 자연휴양림 산림레포츠 시설 설치	21-22	60
			290. 산림치유복합문화밸리 조성	20-40	580
			291.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기념관 건립	21-23	100
			292. 괴산역 활용 조령산 일원 관광활성화 종합개발사업	20-23	330
			293. 말산업 테마로드 조성사업	21-22	10
			294. 정이품송지구 관광활성화 사업	21-23	50
			295. 속리산 휴양관광지 루지체험장 조성사업	21-23	40
			296. 속리산 말티재 치유의 숲 체험단지 조성사업	21-24	120
			297. 세계유산 연계 속리산 힐링특구 조성사업	21-25	200
			298. 의림지 삼색빛 국민정원 조성사업	20-24	200
			299.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	19-22	195.47
			300. 초평호 관광 모노레일 조성	30-35	121
			301. 충주남한강 물길100리 힐링로드 조성	22-40	1,000
			302. 비룡저수지 둘레길조성사업	19-24	180
			303. 제천 드림팜랜드 조성사업(의림지둘레 자연치유평구 조성사업)	19-26	1,600
			304.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20-22	190
			305. 충주 계명산(심향산) 관광개발사업	20-25	700

장	절	부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4장	4-2절	미래관광을 선도하는 관광 르네상스 실현	306. 강호축 연계 생활형 관광도시 조성(도심 생활관광 모노레일)	20-30	1,000
			307.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사업	20-26	2,000
			308. 충주호 플로팅 사이트 개발사업	21-26	122
			309. 송호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사업	18-20	54
			310. 천태산 은행나무 관광자원화 사업	19-20	30
			311. 백곡호 돌레길 조성사업	19-23	41
			312. 초평호 제2하늘다리 건설사업	19-24	100
			313. 농다리 관광명소화 조성사업	20-22	58.5
			314. 향수호수길 생태관광 명소화 사업	20-24	226
			315. 장계관광지 리뉴얼 사업	21-25	450
			316. 옥천묘목공원 명소화 사업	21-26	68
			317. 괴산 역세권 관광벨트조성	21-23	116
			318. 괴산 인문학 관광벨트 조성	20-23	4.16
			319. 내수면 테마공원 조성	21-23	100
			320. 충주 동락전승지 성역화사업(2단계)	22-26	80
			321. 오송·오창 국제관광도시 육성	20-40	3,610
			322. 관광벤처·스타트업 육성	20-40	14
			323. 충북형 의료관광 육성	20-40	1,005
			324. 호수 문화예술 르네상스 추진	20-40	82
			325.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20-40	967
			326. 충북 관광 전담기관 설립	20-40	102
			327. 대청호 생태관광 연계 CSA(공동체지원농업) Plan)	20-40	-
			328. 대한민국 대표축제 육성	20-40	5
			329. 단양 죽령관광레저지구 조성	21-30	114
			330. 우덕리 관광레저단지 조성	26-30	1,232
			331. 관광휴양지구 조성 <울산 관광휴양지구 조성>	31-35	582
			332. 관광휴양지구 조성 <새발 관광휴양지구 조성>	31-35	220
			333. 관광휴양지구 조성 <사동 관광휴양지구 조성>	31-35	169
			334. 양방산 테마공원 조성	14-24	110
			335. 사인암관광지 관광명소화 사업	19-28	66
			336. 불교테마파크 조성	32-34	244

장	절	부문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4장	4-2절	미래관광을 선도하는 관광 르네상스 실현	337. 갑산체리마을 산림레포츠 시설설치	21-22	60
			338. 충주댐 및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	21-35	377.1
			339. 한강 및 탄금호 재해예방 사업 추진	22-40	800
	4-3절	도민이 함께하는 활력넘치는 충북 실현	340. 충북스포츠과학센터 건립 추진	21-25	50
			341.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실내 체육시설 구축	21-25	300
			342. 무예 활성화를 위한 시설구축	21-30	100
			343. 노후 복합 스포츠여가공간 리모델링	21-25	300
			344.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확충	21-25	400
			345. 전통무예진흥시설 확충	21-30	600
			346.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	20-40	5
			347. 충주실내체육관 건립	32-37	600
			348. 보은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20-23	89
			349.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23-28	600
			350.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19-22	140
			351. 다목적 구장 건립	19-24	234.1
			352.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공사	28-31	1,000
			353. 수상스포츠 파크 조성	25-32	200
			354. 영동체육공원 조성사업	18-22	198
			355.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훈련 시설 및 프로그램 체험	21-40	200
			356.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스포츠테마타운 조성	21-29	3,003
			357. 괴산익스트림 스포츠 시설 조성	21-22	20
			358. 산업단지 개방형체육관 건립사업	19-22	130
			359.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8-22	180
			360. 맹동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19-25	250
			361. 복합체육관 건립 <송면 복합체육센터 건립>	21-22	32
			362. 복합체육관 건립 <단양복합체육관 건립>	19-23	310
			363.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옥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19-22	110
			364.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영동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	19-21	70
			365.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괴산 청안 반다비국민체육센터 건립>	21-23	66.9
			366.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음성반다비체육관 조성사업>	19-23	443.3

장	절	부문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5장	5-1절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전을 위한 녹색공간 조성	367.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21	194.83
			368. 생물다양성정보시스템 구축	21-40	12.5
			369. 폐차후 LPG 화물차 구매 시 지원 확대	21	35.2
			370. 소규모사업장 방지사설 설치 지원	19-23	700
			371. 자원순환(재활용) 활성화 사업	21	49.4
			372. 수소자동차 보급	21	633
			373.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1	2,190
			374. 수소충전소 구축	21	65
			375. 충청북도 기후환경연구소 설립	22-25	40
			376. 폐기물 공공매립시설 설치	16-23	619.72
			377.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19-22	204.7
			378. 충북권 대기환경연구소 설치	20-22	56
			379.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유치	21	120
			380.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확대	21	18.96
			381.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	20-22	50
			382.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	21-22	100
			383. 백두대간(한남금북정맥) 마루금 생태축 복원	20-24	174.4
			384. 생태관광지역 육성	21	0.86
			385. 음성군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16-21	52
			386. 국립 기후환경센터 건립	21-24	300
			387.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	21-40	-
			388. 생태공원 조성사업	19-22	90
			389.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19-25	179
			390. 폐기물 공공소각시설 설치	20-22	178.64
	5-2절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로 안심할 수 있는 충북	391. 안정적인 수자원 관리 및 물 공급 다원화	-40	7,907
			392. 물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	22-40	24
			393. 스마트 물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	-40	2,748
			394.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15-25	3,614.27
			395. 스마트 댐 안전관리 체계 구축	20-25	1,061
			396. 상수원 실시간 수량·수질 통합감시체계 구축	20-22	48
			397.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 확대	21-30	605.7

장	절	부문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5장	5-2절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로 안심할 수 있는 충북	398. 수질오염총량제 대비 오염 식감시설 확대 발굴·설치	21-30	4,088.2
			399. 안정적 수자원 확보를 위한 지능형 물관리시스템 구축	22-30	2,400
			400. 충주담계통 광역상수도 Ⅲ단계 조기 추진	20-25	4,700
			401. 지방하천 조동천 유로변경 사업	22-25	47
			402. 청성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20-24	130
			403. 영동군 하수도 정비사업	20-40	3,342
			404. 궁촌계통 비상연계관로 구축사업	22-27	180
			405. 칠성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21-23	78.43
			406. 괴산군 스마트 관망관리사업	21-23	50
			407. 단양 수중보 갑문(도크) 조성	26-30	100
			408.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충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상수관망정비)〉	20-24	294.9
			409.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영동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18-22	307
	5-3절	산림복지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터와 쉼터 실현	410. 백두대간(정맥) 생태축 복원	12-30	442.4
			411. 권역별 산림자원 및 산지관리체계 고도화 사업	21-25	100
			412. 산림복지단지 조성	20-25	250
			413. 빅데이터, AI를 활용한 맞춤형 산림복지프로그램	21-40	1,011
			414. 맞춤형 산림복지 체계 구축 사업	21-40	1,000
			415. 산림치유 공간 조성 및 기능보강	21-40	1,500
			416. 지방정원(충주정원) 조성사업	21-25	62
			417. 소백산 수목원 조성	26-30	60
			418. 자연휴양림 조성 및 기능보강 〈계명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21-25	50
			419. 자연휴양림 조성 및 기능보강 〈계명산 자연휴양림 체험시설 사업〉	21	20
			420. 자연휴양림 조성 및 기능보강 〈소선암 자연휴양림 산림휴양타운 조성〉	21-25	100
			421. 미세먼지 차단 숲 등 도시 숲 조성 〈백두대간 한남금북정맥 자연치유 숲 조성〉	22-24	150
			422. 미세먼지 차단 숲 등 도시 숲 조성 〈오송 공복 치유의 숲 조성사업〉	20-30	50
			423. 미세먼지 차단 숲 등 도시 숲 조성 〈도시 바람길 숲 조성〉	21-23	200
			424. 미세먼지 차단 숲 등 도시 숲 조성 〈시민이 가고 싶어 하는 힐링 숲 조성〉	24-28	375

장	절	부문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5장	5-4절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경관창출 지역	425. 강호축개발에 대응한 백두대간 생태축 심볼화/기능화	21-30	100
			426. 아름다운 향토문화경관 조성	21-30	100
			427. 웰컴 관문경관 조성	21-30	20
			428. 누구나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스마트공간 창출	21-30	200
			429. 삶이 아름다운 쾌적하고 행복한 리빙공간 창출	21-30	200
			430. 경관행정 및 경관사업 추진방식 선진화	21-30	30
6장	6-1절	방재형 공간개편을 통한 재난에 안전한 지역	431.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충주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20-27	826.6
			432.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회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1-24	80
			433.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울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1-23	65
			434.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의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1-24	150
			435.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금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2-25	100
			436.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적하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3-26	170
			437.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영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0-30	1,889
			438.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양백1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가뭄)〉	20-22	60
			439.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양백2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침수)〉	20-23	107.96
			440.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돌땡이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1-24	78.62
			441.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음성 재해위험개선사업 정비사업〉	20-30	180
			442. 도시내 기후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	21-30	300
			443. 방재 국토도시 공간계획 수립	22-25	33
			444. IOT를 활용한 환경안전센터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22-30	100
			445. 재난안전 융복합기술개발 클러스터 추진	22-35	720
			446. 증강현실기반 재난대응 통합훈련 시스템 구축	20	1
			447. 지방하천 정비사업 〈조청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8-22	352

장	절	부문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6장	6-1절	방재형 공간개편을 통한 재난에 안전한 지역	448. 지방하천 정비사업 <거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9-25	219.73
			449. 지방하천 정비사업 <중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9-25	230.23
			450. 지방하천 정비사업 <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5-30	374.04
			451. 지방하천 정비사업 <오덕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5-30	193.87
			452.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	21-	3.46
			453.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19-23	7
			454. 갈산 상습침수지역 해소	19-20	2
			455.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금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1-25	370
			456.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양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0-23	203.56
			457.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광혜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1-25	395.76
			458.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용몽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1-25	165.5
	6-2절	선제적 예방 중심의 보건안전환경 조성	459. 충북 의료서비스 협력 및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사업	21-	13.5
			460. 권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사업	21-25	100
			461. 감염병 위기대응 클러스터 조성	20-40	3,280
			462. 음압병실 및 병상 확대	20-40	200
			463. 공중보건 위기대응지원단 설치	21-	120
			464. 충북 공중보건지수 개발 및 활용	21-	12.5
			465.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20-40	90
			466. 남북부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20-40	800
			467. 충주의료원 뇌신경(심뇌혈관) 재활센터 설치	20-22	52
			468. 남부권 거점 공공보건의료기관 설치	22-25	200
			469. 장애인 복지관 신축	20-22	146
			470.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19-21	100
			471. 소방가족치유헬링센터 유치	21-23	300
			472.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	19-22	139
	6-3절	세대통합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	473. 국공립어린이집 (이용)확대	20-40	331
			474. 통합어린이 놀이터 설치	20-40	200
			475.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20-40	420

장	절	부문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6장	6-3절	세대통합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	476. 청소년 실내스포츠복합놀이시설 조성	25-27	60
			477. 60+ 교육센터 운영	20-40	440
			478.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강화	20-40	216
			479.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20-21	19.8
			480. 보건-복지 연계를 통한 커뮤니티 케어 체계 구축	20-40	432
			481.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취약계층 돌봄 지원	20-40	140
			482. 빈집뱅크제 운영 및 사회주택 공급	20-40	402
			483. CB-MOOC 스마트평생학습시스템 운영	20-25	50
			484. 청소년 소규모 이용시설 확충	20-40	88
			485. 고령자 맞춤형 주택 공급	20-40	900
			486.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	20-40	440
			487. 충북 사회서비스원 건립	20-40	362
			488. 생애전주기 인재·교육지원플랫폼 구축	25-40	200
			489. 보은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	20-22	109
			490. 청소년 복지타운 조성	20-29	20
			491. 영동 국민체육건강센터 건립사업	21-23	130
			492. 괴산군 여성친화도시 지정 및 조성	20-25	21.6
			493. 삼성복지회관 건립사업	18-22	101.4
			494. 울누림 행복가족센터 건립	20-22	196
			495. 추모공원조성(장사시설)사업 〈보은군 자연친화적 군립추모공원조성사업〉	20-22	106
			496. 추모공원조성(장사시설)사업 〈광역 종합장사시설 설치사업(광역 추모공원 조성)〉	35-40	300
7장	7-1절	행정영역	497. 협치친화형 행정혁신	21-40	14
			498. 자치단체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21-40	8.5
			499. 인구소멸 위험지역 대응 방안	21-40	46.5
			500. 지속가능한 열린공간 조성	21-	91.5
			501. 지역사회 속의 민주주의 정착	21-40	28.5
			502. 읍·면·동 행정체계 개편	21-40	5
			503.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충북형 자치분권모델의 정립	21-40	32.5
			504.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21-40	78

장	절	부문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7장	7-1절	행정영역	505. 충북 '메이커스페이스 공유플랫폼' 조성	21-40	166
			506. 충청북도와 충북도의회 협력 강화	21-40	6.5
			507. 지속가능한 정책공유플랫폼 구축	21-40	5
			508. 공공부문의 업무 유연성과 전문성 확보	25-40	-

참고문헌

1. 강호축 종합발전계획(2018~2022), 2018.
2.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2019.
3.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4. 국가통계포털, 충청북도 주민등록인구통계, 2020.
5. 국가통계포털, 충청북도 지역 내 총생산, 2017.
6. 국가통계포털, 도시지역 용도지역 현황, 각 년도.
7. 국가통계포털,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현황, 각 년도.
8. 국가통계포털, 토지이용계획 현황, 각 년도.
9. 국가통계포털, 인구 1인당 도시지역 면적, 각 년도.
10. 국가통계포털, 개발행위허가, 각 년도.
11. 국가 통계자료. 2020.
12. 국가통계포털, 충청북도 기본통계
13. 국가교통DB, 2018년 국가교통조사·DB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전국화물 O/D 전수화 및 장래수요 예측, 2018.12.
14.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생활SOC 3개년 계획(안), ('19.4.15) 관계부처 합동, 2019.
15.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소개, 2020.2.
16. 국토교통 통계누리, 지목별 국토이용현황, 각 년도.
17. 국토교통부, 철도통계연보, 2018.
18.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19.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국토해양부, 제2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2012.12.
20. 국토교통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2010.12.
21. 국토교통부, 제2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변경), 2016.7.
22.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정보센터
23. 국토연구원, 혁신과 포용을 위한 국가교통망 구상 연구, 2019.



24. 국토국가통계포털, 주택총조사, 각 년도.
25. 국토연구원, 국민의식조사;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재인용, 2018.
26. 관광지식정보시스템, 2019.
27.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28.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각 년도.
29.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8 평생교육통계자료집, 2018.
30. 교통부,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3), 2019.
31. 관계부처 합동, “Innovative Platform”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 2018.8.13.
32. 관계부처 합동,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 방향’-D.N.A + Big3: Domino 확산 전략, 2019.8.21.
33. 경향신문, 2020.4.1.
34. 景観計画の手引き(国土交通省 公園緑地景観課, 2019.1.
35. 관계부처 합동, 국가관광전략회의, 케이(K)-방역과 함께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 2020.5.26.
36. 관계부처합동, 관광진흥기본계획, 2017.12.18.
37. 기상청, 연도별 확정자료, 각 년도.
38. 김광선·이규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 공동시설의 유희와 실태와 활용 증대 방안, 2012.
39. 김향자·최자은, 지역 관광자원 개발방향 연구II, 2017.
40.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41.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42. 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2018.
43. 마강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7 추계학술대회 통권 30호, 스마트 포용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재생 전략, 2017.
44. 문화재청, 문화재 연감 재구성, 2019.
45.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2019.
46.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2018.
47.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9.
48. 미래창조과학부,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2016.
49.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2018.
50. 산업통상자원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2019.
51. 산업통상자원부,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 2019.

52. 산지정보시스템, 산지통계, 2019.
53. 서울시립대,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중기 발전방안 수립연구 보고서, 2019.
54. 설영훈, 에너지 자립과 충북경제, 2019.
55. 성은영, AURI 토론회 발표자료, 기초생활인프라 현황분석 자료 활용방법, 2019.
56. 심원섭, 미래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 관광정책 방향, 2012.
57.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통계연보, 2018.
58.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2020.2.7.
59. 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19.
60. 아마시타 유스케, 지방회생, 변화와 외2 옮김, 산과글, 2019.
61. 이왕건·박소영·권규상, 2017년 국토연구원 정책세미나 자료, 도시재생 뉴딜의 실효성 제고, 2017.
62. 이원희·박주영·조아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 트렌드 분석 및 전망 : 2020~2024, 2019.
63. 이근 외7, 21세기 복스, 디지털 사회 2.0, 2019.
64. 임업통계연보, 산림보호구역, 2019.
65. 임재주·천의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66. 대한체육회, 전문체육 등록통계현황, 2020.
67.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0.2.4.
68. 중부지방산림청, 제5차 지역산림계획(2013~2017)
69. 중앙치매센터, 2018년 치매현황, 2019.
70. 조아라, OECD 미래관광 메가트렌드, 2018.
71. 제4차 충청북도 발전계획(2018~2022), 2019.
72.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2020.
73.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재수정계획(2011~2020), 2011.
74. 제6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2017~2021), 2017.
75. 제2차 충청북도 물류기본계획, 2018.
76. 제3차 충청북도 도로건설관리계획, 2015.
77. 제4차 충청북도 발전계획(2018~2022), 2019.
78.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2020.
79.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재수정계획(2011~2020), 2011.
80. 제6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2017~2021), 2017.
81. 제2차 충청북도 물류기본계획, 2018.



82. 제3차 충청북도 도로건설관리계획, 2015.
83.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2019.11.22.
84. 질병관리본부, 2018 감염병 감시연보, 2019.
8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86. 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현황 자료 및 분석 안내서
87.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 2018.11.20.
88. 충남연구원, 지역인재 채용제도 대전·충청권 광역화 방안, 2019.
89. 충북연구원, 충청북도 공업용수 공급방안 연구, 2019.12.
90.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2019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현황
91. 충청북도, 문화재 현황 재구성, 2019.
92. 충청북도, 도로현황조사, 2019.
93.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내부자료, 2020.
94. 충청북도, 재정정보공개시스템, 기능별 세출총괄표(일반회계, 공기업·기타특별회계)
95. 충청북도,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2017.
96. 충청북도, 지역개발계획,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2017~2026), 2017.
97. 충청북도, 지역개발계획,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2019~2028), 2019.
98. 충청북도, 체육진흥과 시군운동경기부 현황, 2020.
99. 충청북도, 체육진흥과 민간기업 창단 장애인스포츠실업팀 현황, 2020.
100.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7.
101.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8.
102.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19.
103. 충청북도, 충북 신성장산업 육성전략, 2016.10.
104. 충청북도, 충청북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2019.
105. 충청북도,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8.3.
106. 충청북도, 2019 충북사회조사 보고서, 2019.12.
107. 충청북도, 2020년 충청북도지역산업진흥계획
108. 철도물류정보서비스
109. 청주시 균형발전 기본계획, 2015.
110.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P.255
111. 통계청, 고령인구비율(시도/시/군/구), 2020.

112.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역소득
113.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P. 257
114. 통계청 시군(9개도)별 경제활동 인구, 2018
115. 통계청, 시도별 도로현황
116. 통계청, 응급의료기관
117. 통계청, 응급진료결과 현황
118. 통계청, 인구총조사(연령 및 성별인구), 2018.
119.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120. 통계청, 지역소득, 2019.12.23.
121. 통계청, 지역소득 잠정치 및 통계청 홈페이지 활용, 2019.12.23.
122. 통계청 충청북도 산업 조직 형태별 산업체수, 종사자수, 2017.
123. 통계청,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124. 통계청, 행정구역별(지목별) 국토이용현황, 2018.
125. 통계청, 행정구역(시도)별 경제활동 인구, 2020.
126. 통계청, 2018 지역소득(잠정치), 2019.12.23.
127. 통계청, 2019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 2020.2.26.
128. 한국교통연구원, 2016년도 국가교통조사 및 DB구축사업, 2016.12.
129.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 산업단지현황통계, 2019.
13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연감, 2018.
13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 포커스 6(3), 2017 구민환경의식조사, 2018.
132. 한국고용정보원, 기술혁신을 반영한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2015~2030), 2017.
133. 한국고용정보원, 기술혁신을 반영한 장기 인력수요전망(2018~2035), 2019.
13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차 산업혁명시대의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응 전략, 2018.
135. 한국무역협회, 지자체별 수출입
13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 국토 전망과 농촌의 계획적 정비방안 연구, 2019.
13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 2019.
13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행복한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 유토피아 구상, 2019.
13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9년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2020.
140. 항공정보포털시스템
141. 한국공항공사



14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2017.
143. 한국수자원공사
144. 한국수자원공사, 수문제원현황, 2019.8.
145.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2018.
146. 환경부, 2018 상수도통계, 2019.
147.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148. 환경부, 2018 하수도통계, 2019.
149.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150. 행정안전부, 행정자치통계연보, 2017.
151. 행정안전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2018.
152. 행정안전부, 2019.
153.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6.
154. IEA, World Energy Outlook 2018.
155. KOSIS, 감염병 발생현황(지역별)
156. KOSIS, 시도별 의료 인력 현황
157. KOSIS, 장래인구추계
158. KOSIS, 국내인구이동통계
159. KOSIS, 경제활동인구
160. OECD 대한민국 대표부, OECD 2018 새로운 고용전략 주요 내용, 2018.
161. OECD, 2015, Kuhmonen & Kuhmonen 2015.
162. World Bank, UNCTAD-EORA database.
163. 2025년 행복 중심 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164. 4차산업혁명위원회,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2018.

참 / 여 / 연 / 구 / 진

충북연구원

부문		부문책임
연구총괄		원 광 희 (수석연구위원)
도종합계획 기본방향	공간구상	권 태 호 (세명대학교 교수)
	인구지표 설정	조 철 주 (청주대학교 명예교수)
창의적인 지역발전, 연대와 협력의 상생지역	균형발전	원 광 희 (수석연구위원)
	공간재생	홍 병 곤 (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농촌발전	우 장 명 (수석연구위원)
	도시계획	이 경 기 (수석연구위원)
	토지이용	채 성 주 (선임연구위원)
공간의 지능화와 효율적 인프라 운영·관리	물류	원 광 희 (수석연구위원)
		윤 영 한 (선임연구위원)
	도로교통	박 효 기 (☎진화기술 부사장)
	항공철도	정 용 일 (연구위원)
혁신을 주도하는 신산업 기반 조성	스마트시티	홍 성 호 (연구위원)
	미래산업	조 진 희 (연구위원)
	산업경제	정 삼 철 (수석연구위원)
		설 영 훈 (연구위원)
	농업	김 미 옥 (연구위원)
	에너지	변 성 수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 전문위원)
국민 여가지대, 치유형 문화관광 기반 조성	일자리	남 윤 명 (연구위원)
	문화	김 명 하 (충북연구원 북부분원 전문연구위원)
	관광	성 보 현 (연구위원)
품격과 여유로움이 충만한 환경친화적 청정 충북 실현	체육	김 명 하 (충북연구원 북부분원 전문연구위원)
	환경보전	김 미 경 (연구위원)
	수자원	
	산림복지	이 승 옥 (충북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 팀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의 공간 창출	경관계획	박 구 원 (청주대학교 교수)
	재난안전	배 민 기 (선임연구위원)
	공중보건	최 승 호 (선임연구위원)
		변 성 수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 전문위원)
계획의 집행과 관리	사회복지	최 은 희 (연구위원)
	행정영역	최 용 환 (수석연구위원)
	재정영역	
시군별 발전방향	투자·재원조달 계획	김 덕 준 (선임연구위원)
	11개 시·군 발전방향	원 광 희 (수석연구위원)
연구업무지원		함 창 모 (선임연구위원)
	연구전반 업무지원	연 소 영 (위촉연구위원)
		조 한 별 (위촉연구위원)

행정자문

신 용 식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신 성 영 (충청북도 정책기획관)
전 영 미 (충청북도 정책기획관 정책관리팀장)
민 은 경 (충청북도 정책기획관 주무관)

